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1061-01



■ 정책보고서 2013-32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김태완 · 최현수 · 김미곤 · 여유진 · 김문길
손창균 · 이선우 · 우선희 · 김성아 · 신재동
이주미 · 정희선 · 송치호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책임연구자】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청년층 근로빈곤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공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개편방안의 효과성 분석 및 소득보장체계 연계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공저)

【공동연구진】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손창균 동국대학교 정보통계학과 교수

이선우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신재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원

이주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정희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송치호 University of Washington 박사과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2000년 제도 도입 이후 사회적 위기 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주요한 축을 이루는 것이 최저생계비이다.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및 급여기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제도의 주요한 기준선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맞춤형복지급여체계의 개편이 진행되면서 현행 최저생계비는 상대적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마지막 연구이다. 그러나 최저생계비는 국민복지 기본선으로서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하는 최저한의 수준으로서 그 의미와 역할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본 연구는 1999년 첫 최저생계비 계측 이후, 세 번의 계측 연구(2004, 2007, 2010)에 이은 다섯 번째 연구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물론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를 연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2013년과 2014년은 대내외적으로 복지부문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본 연구 내용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있어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맞춤형 복지제도와의 개편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 교수, 전문가 및 관련 분야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연구진은 바란다.

본 연구는 본 연구원의 김태완, 최현수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김미곤, 여유진 연구위원, 김문길 부연구위원, 우선희 전문연구원, 김성아, 이주미, 신재동, 정희선 연구원이 참여하였다. 외부에서는 손창균 동국대 정보통계학과 교수, 이선우 인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송치호 워싱턴대학 선생이 함께 참여하였다. 연구진은 연구 진행과정에 있어서 의미 있는 자료 분석 및 연구업무를 도와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희란 선생님께 감사를 표하며, 본 연구의 처음과 끝을 함께 해준 보건복지부 임호근 기초생활보장과 장과 강슬기 사무관계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연구진의 개별적 연구 활동의 결과임을 밝힌다.

2013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목 차

요 약	1
제1부 최저생계비 계측 이론 및 기본방향	9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4
제3절 표본추출 및 조사방법	17
제2장 최저생계비의 정의 및 계측방법	19
제1절 빈곤과 최저생계비	21
제2절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27
제3장 국내외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및 수준	37
제1절 외국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및 수준	39
제2절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및 수준	94
제2부 전물량 방식의 최저생계비 계측(연구진안)	109
제4장 2013년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 계측의 기본방향	111
제1절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 계측모형	113
제2절 마켓 바스켓 결정원칙	115
제3절 표준가구 선정 : 4인가구와 2인가구	119
제4절 표준가구 구성	136
제5절 지역구분	142

제5장 2013년 비목별 최저생계비 177

제1절 최저 식료품비	179
제2절 최저 주거비	187
제3절 최저 광열·수도비	208
제4절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219
제5절 최저 피복·신발비	230
제6절 최저 보건의료비	240
제7절 최저 교육비	253
제8절 최저 교양·오락비	261
제9절 최저 교통·통신비	269
제10절 최저 기타소비지출	278
제11절 비소비지출	285
제12절 표준가구의 지역별 최저생계비	293

제6장 2013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297

제1절 가구균등화지수	299
제2절 2013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318
제3절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320

제7장 2013년 가구유형별 추가비용 331

제1절 장애인 추가비용	333
제2절 노인 추가비용	378
제3절 한부모 추가비용	396
제4절 에너지 추가비용	413

제3부 상대적 방식 및 기타 방식의 최저생계비 계측(연구진안)	421
제8장 2013년 상대적 방식 최저생계비	423
제1절 상대적 방식의 개념 및 도입배경	425
제2절 상대적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426
제9장 2013년 기타 방식 최저생계비	431
제1절 반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433
제2절 주관적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438
제4부 2013년·2014년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443
제10장 2013년 최저생계비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 및 결과	445
제1절 최저생계비 계측의 전제에 대한 논의결과	447
제2절 2013년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	450
제3절 2013년 및 2014년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470
제11장 결론 및 정책건의	477
제1절 결론	479
제2절 최저생계비 활용의 기본원칙	485
제3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활용방안	487
참고문헌	489

부 록	497
부록 1. 2013년 표준가구 마켓 바스켓	501
부록 2. 가계지출 품목별 소득탄력성(2012)	572
부록 3. 품목별 지출액의 지역별 차이 유무(2012)	586
부록 4. 비목별 지출비율 추이(1999~2012)	600
부록 5. 가계지출 품목별 지출액 및 구성비(2012)	615
부록 6.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비율	630
부록 7.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 표본추출 및 조사방법	632
부록 8.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표	650

표 목차

〈표 1-2- 1〉 가구원 수 규모(1980~2010)	15
〈표 2-1- 1〉 빈곤의 대안적 정의	22
〈표 3-1- 1〉 빈곤기준선(PT)과 빈곤지침선(PG)의 비교	44
〈표 3-1- 2〉 공식적 빈곤척도(OPM)의 문제점과 보충적 빈곤척도(SPM)의 해결책	46
〈표 3-1- 3〉 미국의 2012년 빈곤지침선(PG) 계산방법 (48개 주 및 D.C.)	48
〈표 3-1- 4〉 미국의 2011년 기준 빈곤기준선(PT)	49
〈표 3-1- 5〉 미국의 연도별 4인 가구 가중평균 빈곤기준선(PT)	50
〈표 3-1- 6〉 미국의 2013년 빈곤지침선(PG)	50
〈표 3-1- 7〉 미국의 연도별 빈곤지침선(PG)	51
〈표 3-1- 8〉 연도별 보충적 빈곤기준선(SPMT)과 빈곤기준선(PT)의 수준 비교: 4인 가구 기준	52
〈표 3-1- 9〉 McClements 균등화지수와 수정OECD 균등화지수 비교	56
〈표 3-1-10〉 JRF에 의해 계측된 가구유형별 최저소득기준(MIS, 2013)	57
〈표 3-1-11〉 영국의 준공식적 빈곤선(2011/12)	58
〈표 3-1-12〉 영국의 준공식적 빈곤선과 MIS의 비교(2010/11)	59
〈표 3-1-13〉 영국의 준공식적 빈곤선에 의한 빈곤율(2008)	60
〈표 3-1-14〉 연도별 소득보조 선정기준	62
〈표 3-1-15〉 가구유형별 소득보조 최대급여액(2011/12)	63
〈표 3-1-16〉 캐나다의 2011년 LICOs 수준	68
〈표 3-1-17〉 연도별·소득별 LIM의 수준: 4인가구 기준	69
〈표 3-1-18〉 캐나다의 2010년 MBM 빈곤선의 수준: 4인가구 기준	70
〈표 3-1-19〉 캐나다의 총복지급여 구성 프로그램별 소득유형	71
〈표 3-1-20〉 캐나다의 2009년 가구구성별 주별 복지급여수준	72
〈표 3-1-21〉 2009년 기준 캐나다의 지역별·가구유형별 총복지급여의 수준	73
〈표 3-1-22〉 핸더슨 빈곤선의 가구균등화 지수	76
〈표 3-1-23〉 호주의 빈곤선(2013년 3월 분기)	77
〈표 3-1-24〉 호주의 핸더슨 빈곤선과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한 빈곤선 비교	78
〈표 3-1-25〉 호주의 2010년 빈곤율	80
〈표 3-1-26〉 호주의 주요 사회보장 급여의 종류와 자격조건	81
〈표 3-1-27〉 호주의 최대급여를 받는 가구의 급여와 빈곤선 비교(2013년 3월 분기)	82
〈표 3-1-28〉 일본 생활보호제도의 주요 가산급여와 대상자	85

〈표 3-1-29〉 생활부조 기준액: 제1류(2012년, 1급지-1. 월액)	89
〈표 3-1-30〉 일본의 생활부조 기준액: 제2류(2012년)	89
〈표 3-1-31〉 일본의 가구유형별 최저생활보장수준액(2012년, 월액)	90
〈표 3-1-32〉 생활부조기준액 추이(1급지, 표준세대, 각년도 4월 기준 월액)	91
〈표 3-2- 1〉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계측	95
〈표 3-2- 2〉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1973년 최저생계비	99
〈표 3-2-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생계비 계측결과	100
〈표 3-2- 4〉 2010년 최저생계비 표준가구(연구진안)	101
〈표 3-2- 5〉 2010년 지역별·비목별 최저생계비 계측결과(연구진안)	101
〈표 3-2- 6〉 2010년 중소도시 4인 가구 최저생계비(중생보위 결정)	102
〈표 3-2- 7〉 2003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생계비 계측결과	103
〈표 3-2- 8〉 2011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생계비 계측결과	104
〈표 3-2- 9〉 2013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의 가구모형	105
〈표 3-2-10〉 2013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계측결과	106
〈표 3-2-11〉 2012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의 가구모형	107
〈표 3-2-12〉 2012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계측결과	107
〈표 3-2-13〉 각 기관 최저생계비 비교	108
〈표 4-3- 1〉 가구원 수 규모(1980~2010)	120
〈표 4-3- 2〉 최빈 및 평균 가구규모	120
〈표 4-3- 3〉 가구형태별 가구 비율(1인가구 제외)	121
〈표 4-3- 4〉 최저생계비 계측에서의 표준가구 규모 및 구성의 변화	122
〈표 4-3- 5〉 외국 최저생계비에서의 표준가구	123
〈표 4-3- 6〉 국가별 가구규모 현황	124
〈표 4-3- 7〉 4인 가구 : 가구주와 배우자의 연령	126
〈표 4-3- 8〉 4인 가구의 구성	127
〈표 4-3- 9〉 2인 가구의 가구주와 배우자의 연령(2011년 기준)	129
〈표 4-3-10〉 2인 가구 : 가구주와의 관계	130
〈표 4-3-11〉 도시가구 주요연령별 가구원수별 지출 증감율 변화량	133
〈표 4-4- 1〉 남성가구주 최빈연령	136
〈표 4-4- 2〉 남성가구주 여성배우자 터울	137
〈표 4-4- 3〉 평균 초혼연령 (인구동태통계연보)	138

〈표 4-4- 4〉 자녀 출산시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 (인구동태조사)	138
〈표 4-4- 5〉 표준가구(안)	139
〈표 4-4- 6〉 자녀 성별	139
〈표 4-4- 7〉 42세 가구주, 배우자, 자녀 2인 가구의 첫째아 학령	141
〈표 4-4- 8〉 부 42세, 12세 첫째아를 기준으로 할 경우	141
〈표 4-5- 1〉 기본재산액	145
〈표 4-5- 2〉 기본재산액 공제를 받은 가구 규모	146
〈표 4-5- 3〉 기본재산액의 평균공제금액	146
〈표 4-5- 4〉 가구원수별 주거유형별 점유형태별 주택가격 기초통계	149
〈표 4-5- 5〉 (1안) 현행 기초생활보장 3개 지역구분(안) 분산분석 결과: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152
〈표 4-5- 6〉 (1안) 현행 기초생활보장 3개 지역구분(안) 분산분석 결과값: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153
〈표 4-5- 7〉 (2-1안) 수도권 분리 3개 지역구분(안) 분산분석 결과: 수도권 - 지방도시 - 지방농어촌	155
〈표 4-5- 8〉 (2-1안) 수도권 분리 3개 지역구분(안) 분산분석 결과값: 수도권 - 지방도시 - 지방농어촌	156
〈표 4-5- 9〉 (2-2안) 수도권 분리 4개 지역구분(안) 분산분석 결과: 수도권 - 지방광역시 - 지방중소도시 - 지방농어촌	158
〈표 4-5-10〉 (2-2안) 수도권 분리 4개 지역구분(안) 분산분석 결과값: 수도권 - 지방광역시 - 지방중소도시 - 지방농어촌	159
〈표 4-5-11〉 (2-3안) 수도권 & 서울 분리 5개 지역구분(안) 분산분석 결과: 서울 - 서울제외수도권 - 지방광역시- 지방중소도시 - 지방농어촌	161
〈표 4-5-12〉 (2-3안) 수도권 & 서울 분리 5개 지역구분(안) 분산분석 결과값: 서울 - 서울제외수도권 - 지방광역시- 지방중소도시 - 지방농어촌	162
〈표 4-5-13〉 (2-4안) 수도권 & 서울 분리 4개 지역구분(안) 분산분석 결과: 서울 - 서울제외수도권 - 지방도시 - 지방농어촌	164
〈표 4-5-14〉 (2-4안) 수도권 & 서울 분리 4개 지역구분(안) 분산분석 결과값: 서울 - 서울제외수도권 - 지방도시 - 지방농어촌	165
〈표 4-5-15〉 (3-1안) 서울 & 광역시 분리 4개 지역구분(안) 분산분석 결과: 서울 - 광역시 - 중소도시 - 농어촌	167
〈표 4-5-16〉 (3-1안) 서울 & 광역시 분리 4개 지역구분(안) 분산분석 결과값: 서울 - 광역시 - 중소도시 - 농어촌	168
〈표 4-5-17〉 (3-2안) 서울 & 광역시 & 경기 변형 4개 지역구분(안) 분산분석 결과: 서울 - 광역시&경기중소도시 - 경기제외중소도시 - 농어촌	170

〈표 4-5-18〉 (3-2안) 서울 & 광역시 & 경기 변형 4개 지역구분(안) 분산분석 결과값: 서울 - 광역시&경기중소도시 - 경기제외중소도시 - 농어촌	171
〈표 4-5-19〉 (3-3안) 서울 & 광역시 & 경기 분리 5개 지역구분(안) 분산분석 결과: 서울 - 광역시 - 경기중소도시 - 경기제외중소도시 - 농어촌	173
〈표 4-5-20〉 (3-3안) 서울 & 광역시 & 경기 분리 5개 지역구분(안) 분산분석 결과값: 서울 - 광역시 - 경기중소도시 - 경기제외중소도시 - 농어촌	174
〈표 5-1- 1〉 표준가구의 최저 식료품비(연구진안)	185
〈표 5-1- 2〉 타 연구의 식료품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	186
〈표 5-2- 1〉 198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 주거비	189
〈표 5-2- 2〉 199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 주거비	190
〈표 5-2- 3〉 199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 주거비	191
〈표 5-2- 4〉 200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 주거비	192
〈표 5-2- 5〉 200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 주거비	193
〈표 5-2- 6〉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 주거비	194
〈표 5-2- 7〉 2013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의 가구규모별 주거모형	195
〈표 5-2- 8〉 한국노총의 2013년 주거비	195
〈표 5-2- 9〉 2012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주거 모형	196
〈표 5-2-10〉 민주노총의 2012년 주거비	197
〈표 5-2-11〉 필수 설비와 구조·성능 및 환경 기준	198
〈표 5-2-12〉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198
〈표 5-2-13〉 4인 가구 소득하위 40% 이하의 점유형태별 주택유형	200
〈표 5-2-14〉 지역 및 임차유형별 주택유형 실태(4인 가구 기준)	200
〈표 5-2-15〉 2013년 4인 가구 최저주거비 주택유형	201
〈표 5-2-16〉 지역별 전·월세 아파트(43㎡) 가격	202
〈표 5-2-17〉 주택전세자금 현황	203
〈표 5-2-18〉 주택전세자금 운용실적	203
〈표 5-2-19〉 전세의 지역별 최저 주거비	205
〈표 5-2-20〉 월세의 지역별 최저주거비	206
〈표 5-2-21〉 2010년과 2013년의 최저 주거비 산정기준 변경	207
〈표 5-2-22〉 타 연구의 주거비와 비교(4인 가구 아파트 전세 기준)	208
〈표 5-3- 1〉 취사·난방 연료 변화	209

〈표 5-3- 2〉 2011년 지역별 상·하수도 보급현황	211
〈표 5-3- 3〉 지역별 아파트 취사 및 난방 연료 사용 실태	212
〈표 5-3- 4〉 지역별 1인 1일 상수도 사용량	213
〈표 5-3- 5〉 2012년 지역별 전기요금 단가	214
〈표 5-3- 6〉 지역별 상하수도 요금 단가	215
〈표 5-3- 7〉 지역별 가스요금 단가	215
〈표 5-3- 8〉 2011년 지역별 도시가스 보급률 현황	216
〈표 5-3- 9〉 표준가구의 최저 광열·수도비 마켓 바스켓(연구진안)	217
〈표 5-3-10〉 타 연구의 광열·수도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	218
〈표 5-4- 1〉 표준가구의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연구진안)	223
〈표 5-4- 2〉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조정품목 요약(2010년 대비)	224
〈표 5-4- 3〉 청소기 마켓 바스켓(안)	224
〈표 5-4- 4〉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사용량·내구연수·가격조정 품목	224
〈표 5-4- 5〉 타 연구의 가구집기·가사용품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	229
〈표 5-5- 1〉 표준가구의 최저 피복·신발비(연구진안)	234
〈표 5-5- 2〉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사용량·내구연수·가격조정 품목	234
〈표 5-5- 3〉 타 연구의 피복·신발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	239
〈표 5-6- 1〉 소득하위 40%이하 4인 가구 보건의료서비스비 수요함수 분석결과	249
〈표 5-6- 2〉 소득하위 40%이하 4인 가구 의료서비스비, 의약품비, 미충족욕구	250
〈표 5-6- 3〉 표준가구의 최저 보건의료비(연구진안)	251
〈표 5-6- 4〉 타 연구의 보건의료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	252
〈표 5-7- 1〉 표준가구의 최저 교육비(연구진안)	258
〈표 5-7- 2〉 최저 교육비 마켓 바스켓 신규 추가 품목	259
〈표 5-7- 3〉 최저 교육비 마켓 바스켓 사용량·내구연수·가격 조정 품목	259
〈표 5-7- 4〉 타 연구의 교육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	260
〈표 5-8- 1〉 표준가구의 최저 교양오락비(연구진안)	266
〈표 5-8- 2〉 최저 교양오락비 마켓 바스켓 신규 추가 품목	267
〈표 5-8- 3〉 최저 교양오락비 마켓 바스켓 사용량·내구연수·가격 조정 품목	267
〈표 5-8- 4〉 타 연구의 교양오락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	269
〈표 5-9- 1〉 사업장 규모별 주40시간제 적용시기	273
〈표 5-9- 2〉 표준가구의 최저 교통·통신비(연구진안)	275

〈표 5-9- 3〉 최저 교통·통신비 마켓 바스켓 사용량·내구연수·가격 조정 품목	276
〈표 5-9- 4〉 타 연구의 최저 교통·통신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	277
〈표 5-10-1〉 표준가구의 최저 기타소비지출(연구진안)	281
〈표 5-10-2〉 최저 기타소비지출 마켓 바스켓 사용량·내구연수·가격 조정 품목	282
〈표 5-10-3〉 타 연구의 기타소비지출과 비교(4인 가구 기준)	284
〈표 5-11-1〉 표준가구의 최저 비소비지출비(연구진안)	291
〈표 5-11-2〉 비소비지출 사용량·내구연수·가격조정 품목	291
〈표 5-11-3〉 타 연구의 비소비지출과 비교(4인 가구 기준)	292
〈표 5-12-1〉 표준가구의 지역별 최저생계비(연구진안)	294
〈표 5-12-2〉 최저생계비(연구진안)의 기존 최저생계비 대비 인상률	294
〈표 6-1- 1〉 모수의 추정치와 p-value	306
〈표 6-1- 2〉 199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가구균등화 지수	307
〈표 6-1- 3〉 가구균등화지수 추정 결과 종합	308
〈표 6-1- 4〉 2004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 가구균등화지수	308
〈표 6-1- 5〉 모형별 가구균등화지수 산출결과	309
〈표 6-1- 6〉 2007년 및 2008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 가구균등화지수	310
〈표 6-1- 7〉 가구균등화지수 비교(월세 포함 모형)	311
〈표 6-1- 8〉 2010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가구균등화지수(연구진안)	312
〈표 6-1- 9〉 모형 I에 대한 추정결과 및 p-value	313
〈표 6-1-10〉 추정모형 I(1988년 모형)에 의한 가구 균등화 지수	313
〈표 6-1-11〉 추정모형 II(1988년 모형) - 소득하위 40%이하 가구 대상	314
〈표 6-1-12〉 추정모형 II(1988년 모형)에 의한 가구 균등화 지수	314
〈표 6-1-13〉 추정모형 III(1999년 모형) - 전가구 대상	315
〈표 6-1-14〉 추정모형 III(1999년 모형)에 의한 가구 균등화 지수	315
〈표 6-1-15〉 추정모형 IV(1999년 모형) - 소득하위 40%이하 가구 대상	316
〈표 6-1-16〉 추정모형 IV(1999년 모형)에 의한 가구 균등화 지수	316
〈표 6-1-17〉 모형별 비교	316
〈표 6-2- 1〉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연구진안)	319
〈표 6-2- 2〉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OECD 기준 균등화지수 적용안)	320
〈표 6-3- 1〉 발표기관별·기준시점별 소비자물가상승률	325
〈표 6-3- 2〉 물가상승률 방식을 적용한 2014년 최저생계비 추정	326

〈표 6-3- 3〉 물가상승률 방식을 적용한 2011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326
〈표 6-3- 4〉 추정모형 및 적용기간에 따른 최저생계비 인상을	328
〈표 6-3- 5〉 물가와 사용량 방식에 의한 2014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329
〈표 6-3- 6〉 최저생계비와 각종 지출과의 비율	329
〈표 6-3- 7〉 수준균형방식에 의한 2014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	329
〈표 7-1- 1〉 장애인가구 및 장애인의 비율	335
〈표 7-1- 2〉 장애인가구의 장애종류	335
〈표 7-1- 3〉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가구원 수	335
〈표 7-1- 4〉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유형 별 연 소득	336
〈표 7-1- 5〉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부채	337
〈표 7-1- 6〉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재산	338
〈표 7-1- 7〉 최저생계비 항목별 장애가구와 비장애가구의 월 평균 지출 비교	340
〈표 7-1- 8〉 장애유무와 주거 유형	341
〈표 7-1- 9〉 장애유무와 주거 점유형태	342
〈표 7-1-10〉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방수, 건평, 주택가격, 월세액	342
〈표 7-1-11〉 장애유무와 유선방송 또는 케이블 TV 보유현황 및 필요여부	343
〈표 7-1-12〉 장애유무와 디지털 TV 보유현황 및 필요여부	344
〈표 7-1-13〉 장애유무와 디지털방송 수신기 보유현황 및 필요여부	345
〈표 7-1-14〉 장애유무와 진공청소기 보유현황 및 필요여부	345
〈표 7-1-15〉 장애유무와 핸디청소기 보유현황 및 필요여부	346
〈표 7-1-16〉 장애유무와 디지털카메라 또는 캠코더 보유현황 및 필요여부	347
〈표 7-1-17〉 장애유무와 필름카메라 보유현황 및 필요여부	347
〈표 7-1-18〉 장애유무와 컴퓨터 또는 노트북 보유현황 및 필요여부	348
〈표 7-1-19〉 장애유무와 전기장판 보유현황 및 필요여부	348
〈표 7-1-20〉 장애유무와 휴대폰 보유현황 및 필요여부	349
〈표 7-1-21〉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주관적 최저생계비	351
〈표 7-1-22〉 전체 장애인가구와 추가비용조사 장애인가구의 소득과 생활비 비교	358
〈표 7-1-23〉 장애인가구의 장애 범주 별 분포	359
〈표 7-1-24〉 추가비용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소득 50% 이하 가구)	361
〈표 7-1-25〉 장애범주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 여부	363
〈표 7-1-26〉 장애범주별 필수비목	364

〈표 7-1-27〉 장애범주별 월평균 교통비	365
〈표 7-1-28〉 장애범주별 외출 어려움 정도	366
〈표 7-1-29〉 교통욕구에 따른 장애범주별 평균 추가교통비	367
〈표 7-1-30〉 장애범주별 평균 의료비	368
〈표 7-1-31〉 의료욕구에 따른 장애유형별 평균 추가의료비	368
〈표 7-1-32〉 장애범주별 교육비 평균	369
〈표 7-1-33〉 교육 욕구에 따른 장애범주별 평균 추가교육비	369
〈표 7-1-34〉 장애범주별 평균 휴대폰비	370
〈표 7-1-35〉 통신 욕구에 따른 장애범주별 평균 추가 휴대폰비	370
〈표 7-1-36〉 장애범주별 평균 보호·간병비	371
〈표 7-1-37〉 장애범주별 일상생활 도움필요 정도	372
〈표 7-1-38〉 보호간병 욕구 따른 장애유형 및 추가 보호·간병비	372
〈표 7-1-39〉 장애유형별 평균 보장구비	373
〈표 7-1-40〉 보장구 욕구에 따른 장애유형 및 평균 보장구비	373
〈표 7-1-41〉 재활기관이용욕구에 따른 장애유형별 평균 재활기관이용료	374
〈표 7-1-42〉 재활기관이용 욕구에 따른 장애유형 및 평균 이용료	374
〈표 7-1-43〉 장애범주별 주거수리비 평균	374
〈표 7-1-44〉 주거수리 욕구별 평균 주거수리비	375
〈표 7-1-45〉 장애범주별 1인당 추가비용	375
〈표 7-2- 1〉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379
〈표 7-2- 2〉 생애주기별 일반수급자 현황	379
〈표 7-2- 3〉 생애주기별 일반수급자 현황	379
〈표 7-2- 4〉 (가계동향조사) 실제 지출 생활비 및 경상소득 비교	380
〈표 7-2- 5〉 (실태조사) 실제 지출 생활비 및 경상소득 비교	381
〈표 7-2- 6〉 (가계동향조사) 비목별 지출함수	383
〈표 7-2- 7〉 (실태조사) 비목별 지출함수	384
〈표 7-2- 8〉 내구재에 대한 필수품 인식률, 보유율	385
〈표 7-2- 9〉 노인가구의 노인용 품목에 대한 필수품 인식률, 보유율	386
〈표 7-2-10〉 노인가구의 노인용 기타품목 필수품 인식률, 이용률	386
〈표 7-2-11〉 노인가구의 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여부 및 평균 도움일수, 도움시간	387
〈표 7-2-12〉 노인의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 유무 및 평균 도움시간, 도움일수	387

〈표 7-2-13〉 노인용 보건의료비 품목에 대한 필수품 인식률, 이용률, 월평균비용	388
〈표 7-2-14〉 연령별 가중 성인균등화 지수	389
〈표 7-2-15〉 65세 이상 노인진료비의 상대적 비교	390
〈표 7-2-16〉 2013년 노인 1인당 추가비용 구성(연구진안)	392
〈표 7-2-17〉 2013년 노인 1인당 추가비용(연구진안)	393
〈표 7-2-18〉 노인가구 지출 품목 포함 사항	394
〈표 7-2-19〉 노인가구의 추가 현금급여	396
〈표 7-3- 1〉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한부모가구 현황	397
〈표 7-3- 2〉 한부모가구 가정생활 어려움	398
〈표 7-3- 3〉 주요국가의 가구주 경제활동에 따른 한부모가구의 빈곤율	399
〈표 7-3- 4〉 2009년 기준 캐나다 주요 지역별 가구유형별 총복지급여의 수준	399
〈표 7-3- 5〉 일본의 가구유형별 최저생활보장수준액(2012년, 월액)	400
〈표 7-3- 6〉 캐나다와 일본 한부모가구 및 일반가구의 가구규모별 균등화된 사회부조급여액	400
〈표 7-3- 7〉 하위 40%이하 한부모가구와 일반가구의 비목별 지출 비교	401
〈표 7-3- 8〉 소득하위 40% 이하 한부모가구와 일반가구의 비목별 지출함수	403
〈표 7-3- 9〉 회귀분석결과 하위 40%의 한부모가구와 일반가구의 차이 품목	404
〈표 7-3-10〉 한부모가구가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품목(중복응답)	405
〈표 7-3-11〉 한부모가구와 일반가구의 자녀 학원수강 필요성 인식과 실제 수강 비율	405
〈표 7-3-12〉 한부모가구와 일반가구의 휴대폰 보유 현황	406
〈표 7-3-13〉 한부모가구 최저생계비 추가비용(3인 가구 기준, 연구진안)	410
〈표 7-3-14〉 한부모가구 추가비용 신규품목	411
〈표 7-3-15〉 가구규모별 한부모가구 추가비용(여성 한부모가구의 경우, 연구진안 기준)	412
〈표 7-3-16〉 한부모가구의 추가 현금급여(3인 가구 기준)	413
〈표 7-4- 1〉 에너지 과부담가구 비율(2011)	415
〈표 7-4- 2〉 주거점유 형태별 에너지 과부담가구 비율(전가구, 2011)	415
〈표 7-4- 3〉 주거점유 형태별 에너지 과부담가구 비율(4인가구, 2011)	416
〈표 7-4- 4〉 취약계층별 에너지 과부담가구 비율(2011)	417
〈표 7-4- 5〉 소득분위별 광열수도비(전가구, 2011)	418
〈표 7-4- 6〉 소득분위별 광열수도비(4인가구, 2011)	418
〈표 7-4- 7〉 에너지 과부담가구 광열수도비(2011)	419
〈표 7-4- 8〉 4인가구 저소득층 난방비용(2011)	419

〈표 8-2- 1〉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비율 - 평균·중위소득 및 평균·중위가계지출(4인, 전가구)	428
〈표 9-1- 1〉 기본모형에 의한 2013년 최저생계비	435
〈표 9-1- 2〉 식료품비 비율모형(추정방법2)에 의한 2013년 최저생계비	437
〈표 9-2- 1〉 주관적 최저생계비 모수추정치(모형1: 건강하고 문화적)	441
〈표 9-2- 2〉 주관적 최저생계비 모수추정치(모형2: 그럭저럭)	441
〈표 9-2- 3〉 주관적 최저생계비 모수추정치(모형3: 근근이)	442
〈표 9-2- 4〉 가구규모별 주관적 최저생계비	442
〈표 10-1- 1〉 표준가구	448
〈표 10-1- 2〉 가구균등화지수	449
〈표 10-2- 3〉 최저 식료품비 마켓 바스켓 관련 전문위원회 조정 및 합의사항	450
〈표 10-2- 4〉 표준가구의 최저 식료품비(중생보위 결정)	451
〈표 10-2- 5〉 저소득층의 주거점유형태 실태	453
〈표 10-2- 6〉 아파트 전세 가격 및 (전가)임대료	453
〈표 10-2- 7〉 최저 주거비 대안 검토(안)	454
〈표 10-2- 8〉 2013년 표준가구의 최저 주거비(중생보위 결정)	455
〈표 10-2- 9〉 최저 광열·수도비 단가 및 사용량 조정에 대한 합의 내용	456
〈표 10-2-10〉 표준가구의 최저 광열·수도비(중생보위 결정)	456
〈표 10-2-11〉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관련 전문위원회 조정 및 합의사항	457
〈표 10-2-12〉 표준가구의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중생보위 결정)	457
〈표 10-2-13〉 피복신발비 내구연수 조정 마켓 바스켓(안)(4인가구 중소도시 기준)	458
〈표 10-2-14〉 표준가구의 최저 피복·신발비(중생보위 결정)	459
〈표 10-2-15〉 표준가구의 최저 보건의료비(중생보위 결정)	460
〈표 10-2-16〉 표준가구의 최저 교육비(중생보위 결정)	462
〈표 10-2-17〉 표준가구의 최저 교양오락비(중생보위 결정)	464
〈표 10-2-18〉 표준가구의 최저 교통·통신비(중생보위 결정)	466
〈표 10-2-19〉 표준가구의 최저 기타소비지출(중생보위 결정)	467
〈표 10-2-20〉 표준가구의 최저 비소비지출비(중생보위 결정)	469
〈표 10-3- 1〉 2013년 표준가구 최저생계비(중생보위 결정)	470
〈표 10-3- 2〉 최저생계비(중생보위 결정)의 기존 최저생계비 대비 인상률	471
〈표 10-3- 3〉 4인 가구 기준 2013년 타법지원액(중생보위 결정)	472
〈표 10-3- 4〉 2013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선(중생보위 결정)	473

〈표 10-3- 5〉 2014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선(중생보위 결정)	474
〈표 10-3- 6〉 2013년 및 2014년 표준가구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선(중생보위 결정)	474
〈표 10-3- 7〉 2013년 및 2014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475
〈표 10-3- 8〉 2013년 및 2014년 가구규모별 현금급여기준선	475
〈표 11-1- 1〉 2013년 최저생계비의 표준가구와 2007·2010년 최저생계비의 표준가구	481
〈표 11-1- 2〉 2013년 최저생계비 연구진안과 중생보위안 비교(중소도시 4인가구 기준)	482
〈표 11-1- 3〉 연구진안 가구균등화지수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가구균등화지수	483
〈표 11-1- 4〉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2013년 및 2014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483
〈표 11-1- 5〉 2013년 및 2014년 현금급여기준선	484

그림 목차

[그림 3-1-1] 일본 최저생활비의 체계	84
[그림 3-1-2] 생활부조 체계	85
[그림 3-1-3] 표준세대 생활부조기준액 변화	88
[그림 3-1-4] 일본 생활보호 세대수 및 인원변화	93
[그림 3-1-5] 일본 생활보호 보호율 변화(전인구대비)	93
[그림 4-1-1] 최저생계비 계측 흐름도	115
[그림 4-3-1] 가계동향조사(2011) 및 복지욕구실태조사(2010) 4인 가구 남성가구주 연령분포	125
[그림 4-3-2] 가계동향조사(2011) 및 복지욕구실태조사(2010) 2인 가구 남성가구주 연령분포	129
[그림 4-3-3] 도시가구 가구원수별 가계지출 변화(평균변화율과의 차이)	132
[그림 4-3-4] 도시가구 가구원수별 가계지출 변화	132
[그림 4-3-5] 도시가구 가구원수별 소비지출 변화	132
[그림 4-3-6] 도시가구 가구원수별 가계지출 변화(최빈연령기준)	133
[그림 4-3-7] 도시가구 가구원수별 소비지출 변화(최빈연령기준)	134
[그림 4-4-1] 4인 남성가구주의 연령분포	137
[그림 4-5-1] (1안) 현행 기초생활보장 3개 지역구분(안):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4인가구)	151
[그림 4-5-2] (2-1안) 수도권 분리 3개 지역구분(안): 수도권 - 지방도시 - 지방농어촌(4인가구)	154
[그림 4-5-3] (2-2안) 수도권 분리 4개 지역구분(안): 수도권 - 지방광역시 - 지방중소도시 - 지방농어촌(4인가구)	157
[그림 4-5-4] (2-3안) 수도권 & 서울 분리 5개 지역구분(안): 서울 - 서울제외수도권 - 지방광역시 - 지방중소도시 - 지방농어촌(4인가구)	160
[그림 4-5-5] (2-4안) 수도권 & 서울 분리 4개 지역구분(안): 서울 - 서울제외수도권 - 지방도시 - 지방농어촌(4인가구)	163
[그림 4-5-6] (3-1안) 서울&광역시 분리 4개 지역구분(안): 서울 - 광역시 - 중소도시 - 농어촌(4인가구)	166
[그림 4-5-7] (3-2안) 서울 & 광역시 & 경기 변형 4개 지역구분(안): 서울 - 광역시&경기중소도시 - 경기제외중소도시 - 농어촌(4인가구)	169
[그림 4-5-8] (3-3안) 서울 & 광역시 & 경기 분리 5개 지역구분(안): 서울 - 광역시 - 경기중소도시 - 경기제외중소도시 - 농어촌(4인가구)	172
[그림 5-6-1] 욕구의 개념	240
[그림 6-1-1] 월세포함	317
[그림 6-1-2] 월세제외	317

[그림 7-1-1]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수준과 소득	353
[그림 9-2-1] 라이덴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추정	440
[그림 10-3-1] 중소도시 4인 가구 기준 현금급여기준선(중생보위 결정)	472

1.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3항)에서는 최저생계비를 3년 주기로 계측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3년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를 수행한 이후 3년이 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2012년부터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를 실시하여 2013년 9월 1일까지 2014년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결정·공표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본연구로서 최저생계비 계측연구는 이미 연구가 진행된 1999년, 2004년, 2007년, 2010년의 연구와 같이 통계청 등의 기존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은 물론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 및 심층조사), 결과의 분석, 마켓 바스켓의 구성,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기초생활보장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포함한 연구과정과 절차가 필요한 연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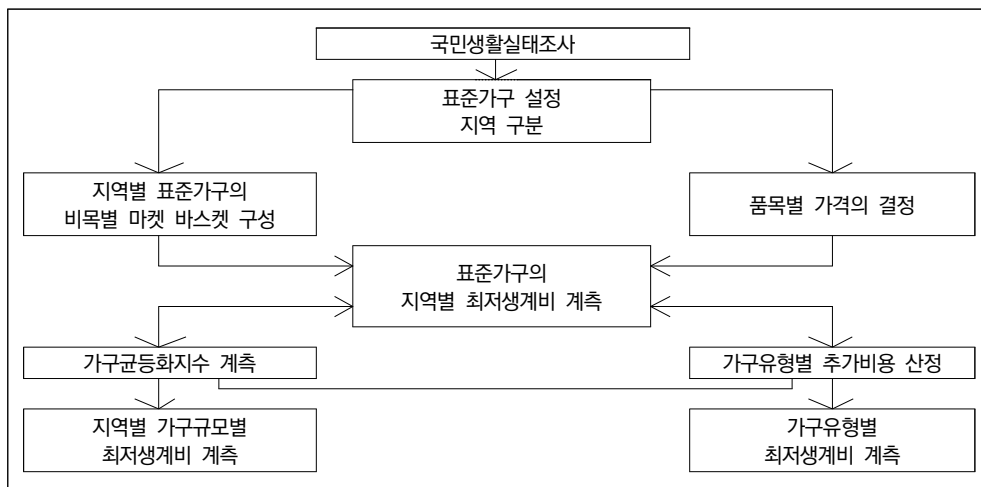
본 연구는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 과정과 결과, 2014년 최저생계비 추정 과정과 결과, 최저생계비의 활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최저생계비 연구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위해 기존 최저생계비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방향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제1부는 최저생계비 계측 이론 및 국내외의 최저생계비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제2부는 전물량방식에 의한 2013년 표준가구의 지역별·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계측 및 2014년 최저생계비 추정의 방법, 절차, 결과 등을 담고 있다. 기존 연구들과 같이 제2부의 내용은 연구진안으로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거쳐 발표된 정부의 최저생계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제3부에서는 상대적 방식, 반물량 방식, 주관적 방식에 의한 2013년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고 있다. 제4부에서는 최저생계비의 사회적 합의과정과 그 결과, 즉 2013년과 2014년 정부발표 최저생계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결론을 함께 담고 있다. 이외에 본문에서 충분히 담지 못한 내용 중 세부 품목별 마켓 바스켓의 구성과 가격(연구진안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안), 최저생계비의 계측과정에서 활용되었던 주요 자료, 『국민생활실태조사』의 표본추출방법과 조사표 내용 등은 부록에서 제시하고 있다.

2. 전물량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연구진안)

가. 표준가구의 2013년 지역별 최저생계비

전물량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계측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최저생계비 계측 흐름도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연구는 표준가구 설정에 있어 기존 연구와 달리 중앙생활 보장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세부 논의과정을 거쳐 표준가구를 결정하였다. 기존 최저생계비 연구와 달리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최빈가구가 기존 4인가구에서 2인가구로 변경됨에 따라 표준가구를 4인 또는 2인으로 할 것인지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논의의 결과 그 사회를 대표하는 가구형태라는 표준가구 개념을 고려할 때 노인 2인가구가 우리나라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표준가구는 기존 최저생계비와 동일한 4인가구로 결정하였다. 또한 2인 표준가구 채택시 가구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검토 작업이 비효율적일 수 있고, 가구균등화지수가 적정하다면 표준가구의 전환이 불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전물량 방식의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하여 설정된 표준가구의 구성은 42세 부(父)와 39세 모(母), 그리고 12세(남)와 10세(여)로 설정하였다. 또한, 지역별 물가 차이와 특

성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지역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한 바 있다. 표준가구의 지역별 대표 점유형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전세로 설정되었다. 이는 선행연구들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표 1〉 2013년 표준가구(연구진안)

표준가구의 규모	표준가구의 구성
4인 가구	부(42세), 모(39세), 1자(남, 12세), 2자(여, 10세)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전물량방식의 11개 비목의 구성은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 비소비지출로 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표준가구의 지역별 최저비용을 계측하였다. 이렇게 계측된 표준가구의 2013년 지역별 최저생계비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 표준가구의 2013년 지역별 최저생계비(연구진안)

(단위: 원, %)

구분	대도시 ¹⁾		중소도시 ¹⁾		농어촌 ¹⁾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식료품비	608,963	34.7	608,963	37.1	608,963	40.2
주거비	415,403	23.7	307,283	18.7	193,713	12.8
수도광열비	118,714	6.8	114,461	7.0	102,915	6.8
가구집기비	46,575	2.7	46,267	2.8	45,993	3.0
피복신발비	62,246	3.5	62,246	3.8	62,246	4.1
보건의료비	68,636	3.9	68,636	4.2	68,636	4.5
교육비	74,020	4.2	74,020	4.5	74,020	4.9
교양오락비	35,418	2.0	35,418	2.2	35,418	2.3
교통통신비	152,464	8.7	151,144	9.2	150,044	9.9
기타소비지출	90,237	5.1	90,237	5.5	90,237	6.0
비소비지출	83,571	4.8	83,498	5.1	83,516	5.5
합계	1,756,247	100.0	1,642,173	100.0	1,515,701	100.0

1)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주거점유형태는 전세를 기준으로 함.

나. 2013년 지역별·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전물량 방식에 의해 계측된 4인 표준가구의 지역별 최저생계비에 가구 규모의 경제를 고려한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면, 지역별·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가 산출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8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가구균등화 모형을 활용하여 「201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연구진안 가구균등화지수를 채택하였다.

〈표 3〉 2013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가구균등화지수(연구진안)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균등화지수	0.40077	0.63306	0.82717	1	1.15856	1.30661	1.44645
차이	-	0.23229	0.19411	0.17283	0.15856	0.14805	0.13984

위 연구진안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2013년 지역별·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연구진안)를 산출한 결과는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2013년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연구진안)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균등화지수	0.40077	0.63306	0.82717	1	1.15856	1.30661	1.44645
대도시	최저 생계비	703,851	1,111,810	1,452,715	1,756,247	2,034,718	2,294,730
	차이		407,959	340,905	303,532	278,471	260,012
중소 도시	최저 생계비	658,134	1,039,594	1,358,356	1,642,173	1,902,556	2,145,680
	차이		381,460	318,762	283,817	260,383	243,124
농어촌	최저 생계비	607,447	959,530	1,253,742	1,515,701	1,756,031	1,980,430
	차이		352,082	294,213	261,959	240,330	224,400

3.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 2013년 및 2014년 최저생계비

2013년 최저생계비는 연구진안을 토대로 2012~2013년에 걸쳐 전문위원회의 심의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표함으로써 공식적인 최저생계비가 확정되었다. 2013년 및 2014년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8차에 걸친 전문위원회의 심의(2012년 4회, 2013년 4회)를 거쳐 최저생계비(안)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제46차(2013.8.14)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개최되어 최저생계비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최종적인 2013년 및 2014년 최저생계비가 확정되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2013년 표준가구(중소도시 전세기준 4인가구) 최저생계비는 1,606,719원으로 결정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3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의 인상률은 2010년 계측치 대비 15.0%, 그리고 2013년 행정적용치 대비 3.9%였다.

〈표 5〉 표준가구의 2013년 최저생계비(중생보위 결정)

(단위: 원, %)

구분	중소도시	
	금액	구성비
식료품비	596,476	37.1
주거비	286,331	17.8
광열수도비	114,461	7.1
가구집기비	45,653	2.8
피복신발비	66,851	4.2
보건의료비	67,247	4.2
교육비	73,803	4.6
교양오락비	31,018	1.9
교통통신비	151,144	9.4
기타소비지출	90,237	5.6
비소비지출	83,498	5.2
합계	1,606,719	100.0

2013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에서 타법지원액은 307,124원, 2013년 현금급여기준선은 1,299,595원으로 결정되었으며,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 및 그림과 같다.

〈표 6〉 표준가구의 2013년 타법지원액(중생보위 결정)

(단위: 원)

비목	품목	중소도시
식료품비	급식비	78,004
광열수도비	전기	8,000
의료비	보건의료서비스	33,458
교육비	교육비	73,803
가구집기가사용품	쓰레기봉투	1,107
교양오락비	TV수신료	2,500
교통통신비	유선전화	7,479
	이동전화	16,440
	인터넷	8,415
비소비지출	국민연금	45,670
	건강보험	31,860
	주민세	388
타법지원액 합계		307,124

〔그림 2〕 표준가구의 2013년 현금급여기준선(중생보위 결정)

현금급여기준	=	최저생계비	-	현물 및 타지원액(제외 품목)
1,299,595원		1,606,719원		307,124 원
4인 가구 중소도시 기준		4인 가구 중소도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식비 78,004원 ◦전기요금 8,000원 ◦보건의료비 33,458원 ◦교육비 73,803원 ◦쓰레기봉투 1,107원 ◦TV수신료 2,500원 ◦통신비 32,334원 ◦주민세 388원 ◦국민연금 45,670원 ◦건강보험 31,860원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13년 최저생계비에 1.5%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2014년 최저생계비를 의결하였다. 이와 같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된 2013년과 2014년 중소도시 4인가구의 최저생계비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OECD 기준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가구규모별로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기준선을 산출한 결과는 각각 아래 〈표 7〉과 〈표 8〉과 같다

〈표 7〉 2013년 및 2014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단위: 원)

구분	2013년 행정적용 최저생계비	2013년 중생보위 결정 최저생계비	2014년 중생보위 결정 최저생계비
1인 가구	572,168	594,486	603,403
2인 가구	974,231	1,012,233	1,027,417
3인 가구	1,260,315	1,309,476	1,329,118
4인 가구	1,546,399	1,606,719	1,630,820
5인 가구	1,832,482	1,903,962	1,932,522
6인 가구	2,118,566	2,201,205	2,234,223

〈표 8〉 2013년 및 2014년 가구규모별 현금급여기준선

(단위: 원)

구분	2013년 행정적용 현금급여기준선	2013년 중생보위 결정 현금급여기준선	2014년 중생보위 결정 현금급여기준선
1인 가구	468,453	480,850	488,063
2인 가구	797,636	818,745	831,026
3인 가구	1,031,862	1,059,170	1,075,058
4인 가구	1,266,089	1,299,595	1,319,089
5인 가구	1,500,315	1,540,020	1,563,120
6인 가구	1,734,541	1,780,445	1,807,152

4. 결론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이미 설명한 것과 같이 2014년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것이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내년에 맞춤형 급여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며 그 속에서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최저생계비 계측은 공식적으로 마지막 최저생계비 계측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 한정되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지제도와 국가 통계의 기준으로서도 활용되고 있다. 먼저 다른 복지제도의 기준으로서의 활용과 관련하여, 다른 복지사업들이 최저생계비를 선정기준으로 적용하

고 있고, 통계적으로는 국내의 빈곤수준과 생활수준을 점검하는데 있어 절대적 빈곤기준선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최저생계비를 통해 추정된 지표들은 국내는 물론 해외 주요기구들에 보고되어 외국과의 비교를 제공하는 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은 전물량방식을 통해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오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과학성, 합리성, 시의적절성 등의 성격을 지닌 방식으로 학문적으로, 행정적으로 의미가 있는 계측방식이라 할 수 있다.

내년에는 최저생계비가 상대적 방식인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될 예정에 있지만 국민들의 생활의 질 변화와 저소득층의 생활의 질 변화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빈곤실태조사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제1부 최저생계비 계측 이론 및 기본방향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3절 표본추출 및 조사방법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의 선정기준과 수급자에 대한 급여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금까지 최저생계비는 개인 또는 연구기관에 의해 연구가 진행된 바가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공식적인 선정 및 급여대상 기준으로서 계측되고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발표되고 있다.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와 관련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3항)에서 최저생계비를 3년 주기로 계측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3년은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를 수행한 이후 3년이 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2년부터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를 실시하여 2013년 9월 1일까지 2014년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결정·공표하여야 한다. 이미 연구가 진행된 1999년, 2004년, 2007년, 2010년의 연구와 같이 최저생계비의 계측을 위해서는 통계청 등의 기존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은 물론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 및 심층조사), 결과의 분석, 마켓 바스켓의 구성,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기초생활보장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포함한 복잡한 연구과정과 절차가 필요하므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연구과제라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란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하며(법제2조),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제6조①항). 최저생계비는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 즉, 소득, 소비형태, 산업 및 직업구조 변동 등의 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국민들의 기호, 관습, 법 및 제도 등의 사회적 여건의 변화 그리고 어느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 가구특성 등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생활실태조사 등을 통해 물가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지역적 차이, 가구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를 계측할 필요가 있다.

현정부 들어서는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제로 전환하고자하는

제도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중에서 중요한 부문이 최저생계비를 상대적 빈곤선으로 전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제도 개편이 현실화되면 현재 계측되는 최저생계비는 상대적 빈곤선으로의 전환을 위한 중요한 준거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는 2014년에 적용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및 급여기준선으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제도개편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는 기존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와 달리 두가지 단계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표준가구의 설정, 가구균등화지수 및 지역구분 방안들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최저생계비 본 연구가 진행되기 이전 사회적 변화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38차, 2010년 8월)에서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 먼저 연구와 전문위원회 논의를 거쳐야 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표준가구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2010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최빈가구가 기존 4인가구에서 2인가구로 변화하게 되었다. 기존 최저생계비 연구의 경우 최빈가구인 4인가구를 기준으로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최저생계비가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최빈가구의 변화를 어떻게 최저생계비에 반영할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되었다. 또한 3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13년 계측조사시 가구균등화지수 변경에 대한 사항과 지역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조사 후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사전연구가 필요하였다. 위와 같이 사유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최빈가구변화에 따라 표준가구를 기존 4인가구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변경된 최빈가구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지역구분 및 가구균등화지수 설정에 대한 우선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1-2-1〉 가구원 수 규모(1980~2010)

(단위 : 천 가구, %)

구 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일반가구	7,969 (100.0)	9,571 (100.0)	11,355 (100.0)	12,958 (100.0)	14,312 (100.0)	15,887 (100.0)	17,339 (100.0)
1인	383 (4.8)	661 (6.9)	1,021 (9.0)	1,642 (12.7)	2,224 (15.5)	3,171 (20.0)	4,142 (23.9)
2인	840 (10.5)	1,176 (12.3)	1,566 (13.8)	2,185 (16.9)	2,731 (19.1)	3,521 (22.2)	4,205 (24.3)
3인	1,153 (14.5)	1,580 (16.5)	2,163 (19.1)	2,636 (20.3)	2,987 (20.9)	3,325 (20.9)	3,696 (21.3)
4인	1,620 (20.3)	2,422 (25.3)	3,351 (29.5)	4,110 (31.7)	4,447 (31.1)	4,289 (27.0)	3,898 (22.5)
5인 이상	3,974 (49.9)	3,734 (39.0)	3,253 (28.7)	2,385 (18.4)	1,922 (13.4)	1,582 (10.0)	1,398 (8.1)

자료: 통계청(2010), 『인구주택 총조사』 전수집계결과 보도자료(2011.7.7)

두 번째 단계에서는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최저생계비의 계측방식, 국내 연구자와 기관들에 의해 진행된 최저생계비 관련 선행연구와 주요 국가들에 대한 최저생계비 계측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외국의 경우 최빈가구의 변화와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표준가구를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위의 연구내용들이 최저생계비 연구를 위한 기초부문이라면 이후에는 전물량방식에 의한 2013년 표준가구의 지역별·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계측 및 2014년 최저생계비 추정의 방법, 절차, 결과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최저생계비에 대한 기존 연구들과 같이 전물량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계측은 두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는 최저생계비 연구진에 의해 계측된 2013년 표준가구의 마켓 바스켓을 담고 있으며, 후자는 다른 연구와 달리 최저생계비 연구는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전문위원회 및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논의 속에서 변경된 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전물량방식을 통한 최저생계비 계측은 4장 이하에서 다루고 있으며, 여기서는 전물량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계측방식과 모델, 그리고 표준가구 및 지역구분 등을 담고 있다. 5장에서는 전물량방식 최저생계비의 11개 비목에 대한 계측방식, 실태조사 및 그 결과들을 담고 있다. 11개 비목은 식료품, 주거, 광열·수도, 가사집기·가사용품, 피

복·신발, 보건의료, 교육, 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소비지출, 비소비지출로 구성되어 있다. 11개 비목은 기존 최저생계비 계측연구의 비목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는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비목들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졌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11개 비목체계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최종적으로는 11개 비목에서 산출된 값을 합산하여 2013년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를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로 산출하였다.

제6장에서는 최저생계비의 가구원수별 적용을 위해 가구균등화지수를 산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전물량방식에 의해 계측된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에 적용하여 가구규모별(1~7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인구학적 특성이나 가구유형을 감안하기 위하여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구의 추가비용을 산출하고 있다. 추가비용은 표준가구의 마켓 바스켓을 기준으로 각 유형의 가구원(장애인, 노인)이 표준가구 중 1인을 대체한다고 가정하거나, 혹은 가구유형이 대체(표준가구에서 한부모가구로)된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추가되는 비용과 감소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산출되었다. 또한 상대적 방식, 반물량 방식, 주관적 방식에 의한 2013년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였다. 특히 상대적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계측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도 우선적으로 논의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바가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제로 전환되면서 최저생계비가 상대적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임에 따라 전물량방식 최저생계비 연구와 함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연구진에서 도출된 최저생계비에 대한 사회적 합의과정과 이를 통해 결정된 2014년 최저생계비 최종안을 담고 있다. 동 과정 속에서는 2013년 연구진안에 대한 전문위원회의 논의과정,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상정안과 그 결과들에 대해 담고 있다. 이외에 최저생계비 활용에 대한 부문을 결론에서 다루고 있다.

부록에서는 본문에 담기 어려운 11개 비목에 해당되는 약 360여개의 품목과 그 내용(사용량, 내구연수, 단가, 관련 통계 등), 통계적 분석결과와 최저생계비의 계측과정에서 활용되었던 주요 자료, 『국민생활실태조사』의 표본추출방법과 조사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제3절 표본추출 및 조사방법¹⁾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해 조사는 크게 세 가지로 진행되었다. 먼저 지역구분과 지역별 주거비 산출을 위한 최저주거비 조사를 전국단위(1,800개 지역)로 진행되었다.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본 조사인 『2011년 국민생활실태조사』는 전체적으로 1차 기초조사 및 심층실태조사와 2차로 시장가격조사 및 가구유형별조사(장애인, 노인, 한부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2011년 국민생활실태조사』는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의 90% 조사구 자료에서 약 550개 조사구를 2단계 확률비례층화집락 추출하여 22,000가구를 목표 표본으로 설정하였다.

1차 기초조사의 주요 조사내용은 가구구성 및 가구원특성 등의 가구일반현황, 비목별 지출 및 소득, 자산, 주관적 최저생계비 등 생활실태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조사방법은 조사지도원 1인과 조사원 3인을 1개 팀으로 구성하여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지도원이 조사내용을 현장에서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보완 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조사기간은 2012년 8월 24일 ~ 12월 6일까지 약 3개월간 실시되었으며, 목표 표본 가구수 22,000가구 중에서 16,500가구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여 약 75%의 조사 완료율을 보였다. 저소득층에 대한 심층조사는 동일기간 통계청의 경상소득 기준 하위 40%에 해당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목표 표본 가구수 2,500가구 중에서 1,031가구(완료율 41.2%)를 조사하였다. 기존 연구와 달리 저소득층 4인가구 심층조사의 경우 4인가구수의 감소와 조사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완료가구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었다.

2차로 시장가격 조사 및 가구유형별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시장가격조사는 최저주거면적에 해당하는 집의 자가, 전세, 월세 가격 등 통계청 등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가격이 없거나, 가격이 잘 나타나지 않는 품목에 대한 가격파악을 위해 가격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2차 조사를 실시하는 지역의 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2013년 1월 1개월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품목의 질은 중(중저)품 기준이다. 가구유형별 조사(장애인, 노인, 한부모)는 장애유형 및 등급별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노인가구 등 표본추출 된 1,500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면

1) 표본추출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부록에 별도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기 바란다.

접조사방식에 의해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13년 1월 16일 ~ 2월 18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총 표본 수 1,500가구 중 세부적으로 장애인가구는 803가구, 노인가구는 336가구, 한부모가구는 187가구를 완료하였다.



제2장 최저생계비의 정의 및 계측방법

제1절 빈곤과 최저생계비

제2절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2

최저생계비의 정의 및 계측방법 <<

제1절 빈곤과 최저생계비

1. 빈곤의 개념

“무엇이 빈곤을 야기하며 어떻게 하면 빈곤을 뿌리 뽑을 수 있는가?”는 현대 사회에서 빈곤과 관련된 핵심적인 두 질문이다(게레맥, 2010). 근대 이후 빈곤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전면으로 부상한 것은 산업화와 유럽의 국가 성립(state-building) 과정에서 빈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국가 정책적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빈곤의 역사는 근대 이전까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빈곤의 개념과 학술적 논의는 복지국가 성립과정의 산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근대적 의미에서 빈곤이란 무엇인가?

빈곤(貧困, poverty)의 직관적 개념은 비교적 간단하며 사람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어렵지 않다. 즉, ‘빈곤하다 혹은 가난하다’고 지칭되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물질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두산백과사전』) 혹은 ‘기본수요의 부족현상으로 생활필수품의 결핍과 그것이 가져오는 육체적, 정신적 불안감을 포함하는 생활 상태’(『사회복지학사전』)를 일컫는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빈곤하다거나 가난하다는 용어를 사용할 때도 ‘못 사는(결핍된) 상태’ 혹은 ‘남보다 못 사는 상태’가 가정된다. 학술 저서에도 빈곤의 개념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이정우(1997)는 광의의 빈곤을 ‘정치, 사회,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의 기회, 수단 또는 資源의 결핍상태’로 정의내리고 있다.

자유주의 경제학의 태두라 할 수 있는 아담 스미스부터, 최초로 빈곤과 관련해서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빈곤율을 산출한 라운트리, 영국 뿐 아니라 근대 복지국가의 제도적 기반을 완성시킨 베버리지, 영국 복지국가의 이념적 기반에 기여하고 빈곤의 학술적 지평을 넓힌 타운젠트, 경제철학적 측면에서 빈곤의 개념을 새롭게 재해석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센에 이르기까지 많은 저명한 학자들이 빈곤의 개념을 규정하고자 했다. 이를 대략 정리하면 <표 2-1-1>과 같다.

〈표 2-1-1〉 빈곤의 대안적 정의

- Adam Smith(1776)

내가 이해하기에 필수품은 생활의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재화 뿐만 아니라, 관습상 최하위층의 사람일지라도 그것 없이는 신망있는 사람으로서의 체면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재화이다. 예컨대, 린넨셔츠는 엄격히 말해서 생활필수품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신망있는 일용 노동자라면 린넨셔츠없이 공공장소에 나타나기에 남부끄러울 것이며, 린넨셔츠가 없는 것은 수 치스러운 빈곤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 Seebohm Rowntree(1899):

어떤 가족의 총소득이 단순히 물리적 효율성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품을 획득하기에 충분치 않다면 빈곤한 것으로 간주된다.

- William Beveridge(1942):

소득 중단 시기 동안 노동연령의 사람이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소득을 고려할 때, 지출의 비 효율성으로 인해 약간의 여분이 허용되어야 하기는 하지만 식품, 의류, 연료, 조명과 가구집기, 집세만을 고려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Ronad Henderson(1975):

빈곤이 최소한의 받아들일 수 있는 생활수준의 준거로 정의되는 한에 있어, 이는 상대적 개념이다. 경제의 생산성과 공동체의 태도를 반영하는 가치판단이 요구된다. 호주 사회에서의 다양한 생활양식과 가치, 그리고 식품, 주거, 의류, 건강, 교육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볼 때 최소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작업은 어렵다.

- Peter Townsend(1979):

인구에서 개인, 가족, 그리고 집단은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고, 활동에 참여하며, 관습적인 혹은 최소한으로 널리 장려되거나 인정되는 생활조건과 설비를 갖추기 위한 자원이 결여될 때 빈곤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Joanna Mack and Stewart Lansley(1985):

빈곤은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필수품의 강제된 결핍이다.

- Amartya Sen(1992):

빈곤은 최소한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특정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기본적 능력의 결여(failure)이다. 이와 관련된 기능성(functioning)은 영양섭취를 하고, 적절하게 입고 주거하며, 예방가능한 질환을 피하는 것 등과 같은 기본적인 신체적인 것에서부터,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고, 수치스럽지 않게 공적인 자리에 나설 수 있는 등과 같은 더욱 복잡한 사회적 성취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다.

- Zigmund Bauman(2010):

빈곤이라는 현상은 물질적 결핍과 신체적 고통으로 요약되지 않는다. 가난은 사회적이면서 심리적 조건이기도 하다. 인간 실존의 적절성이 그 사회가 정의하는 남부럽지 않은 생활수준에 따라 측정될 때, 그 수준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력은 그 자체로 괴로움과 고통, 굴욕의 원인이다. 그것은 '정상적 삶'이라고 인정되는 모든 것에서 배제되었음을 뜻한다. 그것은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표 2-1-1〉과 같이, 빈곤에 대한 다양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으로 첫째, 자원이 기본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적절치 않은 상태이며, 둘째 빈곤에 대한 공동체의 인식을 체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함을 알 수 있다(Saunders, 2004; 김미곤 외 2010 재인용). 즉, 핵심적으로 의식주와 같은 필수품에서의 결핍상태를 언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필수품의 범위는 연구자에 따라 편차가 크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그 사회의 생활수준과 관습, 가치, ‘남부럽지 않은 수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센은 물질적인 자원의 결핍을 넘어서 그러한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의 결핍까지를 빈곤으로 정의한다는 점에서 빈곤의 차원을 좀 더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빈곤과 관련한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빈곤은 세 가지 잠재적 측정 범주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객관적으로 정의된 절대적 최소보다 적게 가지고 있는 것, 둘째, 상대적으로 그 사회의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가지고 있는 것, 셋째, 스스로가 생활을 꾸려나가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잠재적 범주에 기초해서 빈곤의 개념은 주로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으로 구분되어 개념화되고 측정되어 왔다(여유진 외, 2005).

먼저, 절대적 빈곤은 라운트리가 1899년 요크시 조사에서 ‘총수입이 육체적 효율성의 유지에만 필요한 최저수준을 획득하기에도 불충분한 가구’를 1차적 빈곤(primary poverty)이라고 규정 한데서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절대적 빈곤은 최소한 유지되어야 할 ‘일정한 생활수준’을 상정하고, 이러한 생활수준이 유지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일정한 욕구’(needs)를 규정하며, 이러한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수품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일정한 소득수준’을 설정하여 소득이 이 기준에 미달하면 절대적 빈곤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로 전물량방식(market basket method)이나 반물량방식(Engel method)에 의해 측정되는 절대적 빈곤 개념에서 ‘일정한 생활수준’과 ‘일정한 욕구’는 그것을 규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언제 어떤 사회에서 정의되느냐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자의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²⁾.

이와 같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출수준 또는 사회적인 기본적 욕구(social

2) 또한 ‘최소한의 생활 수준’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달리 규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개념조차 완전히 ‘절대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basic needs)가 합의되기 어렵다는 타운젠트(1970)의 비판이 제기되면서 전체 국민의 복지 혹은 소득수준과 관련해서 상대적인 저소득을 판정함으로써 상대적 빈곤을 정의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상대적 빈곤 개념에 기반한 빈곤선의 측정에는 예컨대, 평균소득이나 중위소득의 40%, 50%(다수설), 60%, 소득분포의 하위 10%, 20% 등이다. 이 개념은 선진국에서 빈곤을 계측에 종종 활용되며, 특히 국제 비교시에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상대적 빈곤은 '상대적'이라는 의미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수준 향상이나 정책적 노력의 효과에 관계없이 빈곤이 규정된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상대빈곤에 의해 계측된 측정치는 빈민의 규모를 제시해 줄 수는 있지만, 빈민의 삶의 질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해 주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셋째, 주관적 빈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의 빈곤 여부를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사람들의 주관적 평가에 기초하여 빈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철학적으로 볼 때 빈곤은 개개인의 느낌과 욕구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렇게 볼 때 개인이 느끼는 빈곤감은 百人百色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개인의 상대적 욕구를 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설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기존의 주관적 빈곤선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 빈곤선과 거의 유사하다는 사실에서 볼 때 한 사회 내에서의 빈곤에 대한 개개인의 판단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표출된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주관적 빈곤의 개념에 기반하여 빈곤선을 계측하고자 한 예는 미국의 꺄럽 방식과 네덜란드의 라이텐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의 세 가지 빈곤 개념에 더하여, 그 나라의 정치적·재정적·이념적 현실을 반영하여 이론빈곤선을 현실적으로 조정한 정책적 빈곤 개념이 도출될 수 있다. 섣에 의하면 이러한 정책적 빈곤선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정부 각 부처간의 권력관계 또는 사회의 여러 압력집단의 발언권 여하에 따라 빈곤선의 높낮이가 영향을 받기 쉽다는 것이다. 이는 이론적 기초보다 정치적 영향력 하에서 빈곤선이 설정되는 경향이 있음을 뜻한다 하겠다. 즉, 정책적 빈곤선은 이론적으로 도출된 빈곤선이라기보다는 정부의 빈곤대책의 필요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책의 실현가능성(feasibility)에 대한 고려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쉽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공을 초월한 가치중립적인 빈곤개념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빈곤은 그 자체로 상대적 개념이라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특히, 빈곤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에서 상대적이라 할 수 있다. 첫째, 기본욕구조차도 상대적으로만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은 사회규범과 경제적 조건을 반영함으로써 특정한 장소와 특정 시점에서만 대답되어질 수 있는 질문이다. 둘째, 공동체 인식을 반영하는 어떠한 빈곤 개념도 또한 상대적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인식들은 특정 사회규범과 태도를 체현한 산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후에 언급되는 절대적 빈곤조차도 시간-공간 특수적이라는 의미에서는 상대적이라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빈곤선, 최저소득기준(MIS)과 최저생계비

빈곤선(poverty line)은 지금까지 논의된 빈곤 개념을 바탕으로 빈곤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준거가 되는 기준선이라 할 수 있다. 즉, 빈곤선이란 빈곤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빈곤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 도출된 수치화된 빈곤의 기준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바이트월슨(1994)에 의하면, 빈곤선이란 ‘개인과 가구가 그들이 사는 사회에 참여하고 그 사회에서 박탈과 배제로 간주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저소득에 대한 과학적 측정치’로 정의될 수 있다. 빈곤선은 위에서 제시된 빈곤의 개념적 구분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접근방식에 따라 설정될 수 있다(Saunders, 2004; 김미곤 외, 2010 재인용). 재화의 장바구니 측면에서 욕구를 확인한 다음 그것을 사기 위한 비용이 얼마인지를 추정하는 예산기준(budget standard), 중위(혹은 평균) 소득의 특정 비율과 같이 명시적으로 상대적 방식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저소득기준(low income standard), 최소소득기준에 대한 공동체 인식에 기초한 주관적 기준(subjective standard), 그리고 (소득지원급여에서 반영되는 것과 같이) 저소득에 대한 공식적 혹은 승인된 기준에 기초한 공식적 기준(official standard)이 그것이다. 이는 각각 절대적, 상대적, 주관적, 그리고 정책적 빈곤 개념에 바탕을 둔 기준이다(김미곤 외, 2010).

이러한 빈곤선 중 정책적 빈곤선은 여타의 빈곤선과는 다소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절대적·상대적·주관적 빈곤선은 측정방식에 근거한 빈곤선의 분류라고 할 수 있지만, 정책적 빈곤선은 적용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분류라는 점이다. 따라서, 정책적 빈곤선은 앞의 세 가지 빈곤선과 배타적인 성격을 가진다기보다는 앞의 세 가지 빈곤선 측정방식 혹은 또 다른 측정방식으로 빈곤선을 측

정한 결과를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특히, 후자를 바이트윌슨(Veit-Wilson, 1998)은 최저소득기준(Minimum Income Standard: MIS)이라는 특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때 최저소득기준은 ‘공식적인 행정적 도구 혹은 다른 구성체에 의해 체현된 (주어진 기간, 어떤 영역 혹은 모든 인구에 대해) 어떤 주어진 최저실질생활수준에 대한 정치적 적절성 기준’이라고 정의된다. 카사스(Casas, 2005)는 최저소득기준은 다양한 복지급여들 혹은 최저임금이나 최저국가연금과 같은 사회적으로 정의된 최소소득보장제도들의 적절성 척도(benchmark)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도구로서, 과학적 빈곤계측을 통해 규정되었을지라도 빈곤의 과학적 측정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바이트윌슨(Veit-Wilson, 1998)은 좋은 최저소득기준의 필수조건으로 대중적 수용성, 통계적·방법론적 방어가능성, 행정적 실현가능성의 세 가지를 꼽고 있다. 대중적 수용성은 최저소득기준 기저의 개념이 대중 정서에 부합하여 널리 인정되고 수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계적·방법론적 방어가능성은 최저소득기준을 설정하는데 사용되는 기준은 통합성, 논리적 일관성, 안정성(robustness), 신뢰성, 시간과 사회집단에 따른 비교가능성의 측면에서 정당성과 통계의 질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정적 실현가능성은 최저소득기준은 적절성 기준에서 효과적 통합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성과 접근가능성을 극대화시키도록 구성되고 유지되고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에 기초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는 정책적 빈곤선, 즉 최저소득기준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6항)으로 법으로 정하여 공포하는 정책적인 빈곤선인 동시에 공공부조의 기본이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및 급여 기준액이다(김미곤 외, 2010).

본 연구에서 계측하고자 하는 최저생계비는 이와 같이, 국가의 공식적인 정책적 빈곤선이자 공공부조 선정 및 급여기준액이다. 따라서 최저생계비는 국가예산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공공부조 수급자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책적·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 세에 의하면 이러한 정책적 빈곤선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정부 각 부처 간의 권력관계 또는 사회의 여러 압력집단의 발언권 여하에 따라 빈곤선의 높낮이가 영향을 받기 쉽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법률상 보건복

지부 장관이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제1항)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는 정책적 빈곤선 설정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방안으로서 중립적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일차적으로 계측하되, 사회적 합의의 방식으로 기초보장전문위원회의 심의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제2항). 최저생계비는 1999년, 2004년, 2007년, 2010년에 전물량방식으로 계측되었으며 그 사이 연도에는 소비자 물가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본 연구의 2013년 최저생계비는 공식적으로 계측되는 다섯 번째 정책적 빈곤선으로, 역시 전물량방식에 의해 계측되며 여타방식에 의한 빈곤선들은 참고자료로 제시되어 있다.

제2절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은 빈곤을 정의하는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즉 빈곤을 정의 시 빈곤을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및 주관적 빈곤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엄밀하게 최저생계비와 빈곤의 개념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빈곤을 측정하는 방식이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빈곤정의에 따라 빈곤선을 설정하는 것과 같이 최저생계비 역시 빈곤에 대한 정의에 따라 절대적 빈곤에 기초한 전물량 및 반물량방식이 있으며, 상대적 빈곤에 기초한 박탈지표 방식, 소득과 지출을 활용하는 방안, 주관적 빈곤에 기초하는 주관적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전물량방식에 의해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고 있으며, 전물량방식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반물량방식을 제안하기도 하였다(김미곤 외, 2006). 반면에 현 정부들에서는 복지제도 개편과 맞물려 현재 전물량방식의 최저생계비를 상대적 빈곤에 입각한 소득을 이용한 방식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는 선행연구들에 담겨져 있는 것을 기초로 하여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절대적 방식

가. 전물량 방식(Market Basket)

전물량 방식에 의한 1899년 Rowntree가 영국 York시 비숙련노동자 11,560세대를 기준으로 빈곤을 추정한 방법으로 인간 생활에 필수적인 모든 품목에 대하여 최저한의 수준을 정하고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최저생계비를 구하는 방식이다³⁾.

동 방식은 전문가가 객관적 기준과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사치품과 고가품을 배제하고 필수품만을 마켓 바스켓에 포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 마켓 바스켓 구성에 있어서 전문가의 자의성이 개입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자의성이 존재한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의료, 교육 등 현물급여(In-kind Transfer)를 고려한 보충급여 기준액 산정과 장애인, 노인 등의 가구에 대한 복지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및 부가급여 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최저생계비를 전물량 방식으로 계측할 때 필수품 선정에서의 자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컨대 계측자의 가치관에 따라 신문, 카메라, 자동차, 휴대폰 등을 필수품에 포함할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으므로 필수품이 무엇이며 인간이 사용하는 많은 재화나 용역 중에서 어떻게 필수품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물량 방식을 통한 최저생계비의 계측은 두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된다. 첫 번째 단계는 필수품의 선정이다. 국가별, 시기별, 영양학적 기준 등 다양한 기준을 이용하여 동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필수품이 포함되어진 마켓 바스켓을 구성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선정된 필수품에 대한 가격과 사용량을 결정해야 한다. 이는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계절별, 연령별로 적정수준의 가격과 사용량이 결정되어야 한다.

먼저 전물량 방식을 통하여 필수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방

3) 보고서 발간은 1901년에 이루어졌으며, 전물량방식을 식으로 표현하면 $Poverty\ line = \sum x_i \cdot p_i$, (여기서 x_i 필수품, p_i 필수품의 가격)이다. Rowntree는 “가족의 총소득이 순전히 육체적 능력(Physical efficiency)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한의 필수품을 조달하기에도 불충분한 경우”를 1차적 빈곤(Primary poverty)으로 정의하였다.

식은 전문가에 의한 최저개념(예, 영양권장량, 최저주거기준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품목 중에서 저소득층의 소비실태를 분석하여 빈도수가 높은 품목을 선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실태자료도 최저생계비의 추정에 그대로 이용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어느 수준의 저소득층을 최저생활의 대상으로 하느냐는 점과 둘째, 적절한 소득계층이 선정되었다 하여도 그들의 소비행위가 최저생활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최저생활의 유지에 꼭 필요한 소비이지만 그들의 지불능력을 넘어서기 때문에 구매하지 못한 재화나 서비스가 포함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술 및 담배의 과용 등 최저생활의 유지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 빈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보완적인 방법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실태조사결과 얼마 이상의 빈도를 나타내는 품목이 필수품인가를 결정하는 논리를 발견할 필요가 있으며,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소득탄성치를 이용하는 방법과 Logistic 분석기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먼저 소득탄성치를 이용하여 필수품 여부를 결정하는 보조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논리는 필수품의 경우 소득의 변화에 관계없이 소비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사치품은 소득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필수품을 소득탄성치(E_y)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E_y = 0$: 절대적 필수품
$0 < E_y < 1$: 일반필수품(basic necessities: 예, $E_y < 0.5$)
$E_y = 1 \text{ or } > 1$: 국민생활의 향상과 더불어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품목

두 번째로 보유여부(또는 구입여부)와 소득을 변수로 사용한 Logistic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주어진 여건에서의 보유할 확률(또는 소비할 확률)을 추정하여 필수품 여부를 결정하는 보조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즉 소득이 0일 때 어떤 상품의 보유할 확률(또는 소비할 확률) 또는 일정소득 수준에서의 보유할 확률(또는 소비할 확률)을 보조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필수품이 선정되었다면 필수품에 대한 구입량 및 가격이 결정될 필요가 있다. 필수품의 구입량 및 가격 결정은 저소득층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자료에서 필수품의 구입량

과 가격을 참고로 하여 결정하게 된다. 대표값은 평균값보다는 최빈값을 적용하는데, 이는 평균값을 이용할 때 발생할 구입 단위의 상이, 기재의 오류 등에 따른 평균가격의 편의(Bias)를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반물량 방식

반물량 방식은 미국 농무성의 Orshansky(1965)에 의해 전물량 방식을 다소 간소화한 측면에서 제시되어진 방법으로,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식료품지출비에 '3'을 곱한 화폐액을 빈곤선으로 정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각 생필품에 대한 지출비를 모두 더하는 방법보다 간편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소득 대비 식료품비의 비율을 기초로 한 빈곤선 추계방식인 앵겔방식이 있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총소득에 대한 식료품 지출비용의 비율이 떨어진다는 원리를 기초로 하여 최저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앵겔계수 E_{\min} 을 설정하고 식료품 구입비용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 E_{\min} 과 일치하는 점을 빈곤선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반물량 방식은 현재까지 여러 경제학자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은 첫 번째 방법인 반물량 방식(Orshansky방식)을 사용하여 빈곤선을 구하고 있다.

반물량 방식의 주요한 문제점은 저소득층 가구의 식료품 지출비에 곱하는 '3'이란 숫자가 모호하다는 점과 어느 가구를 저소득층으로 보느냐가 자의적으로 결정 될 수 있다는 점이다⁴⁾. 그리고 소득대비 식료품비 비율방식에서도 앵겔계수를 도출하기 위한 최저생활수준을 설정하는 데에 있어서 자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절대적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계측의 경우 저소득층의 실제 생활실태를 기초로 하여 최저생계비를 계측한다는 측면에서 실태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문가적인 자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할 수 있다.

4) Orshansky 방식의 "3"이라는 배수에 대하여 1992년 National Academy Science(NAS)에서는 조사 결과 "3"이 아닌 거의 "7"로 변했으며 이 역시 시간에 변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였다(김미곤 외, 2006).

2. 상대적 방식

가. 박탈지표방식

P. Townsend 이전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절대적 최저생계비 측정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에 반해, Townsend는 절대적 수준에 입각한 빈곤의 개념을 비판하고 빈곤은 오직 '상대적 박탈(Relative Deprivation)'이라는 개념을 통해서만 객관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빈곤의 상대성과 복잡성에 보다 근접하기 위하여 '상대적 박탈'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최저생계비를 추정하였다. 먼저 '상대적 박탈'을 객관적 박탈감과 주관적 박탈감으로 나누었으며, 그리고 객관적 박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21개 항목과 주관적 박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7개 항목을 선정하여 소득계층별로 이들 항목들을 보유하거나 누리고 있는 양태를 비교하였다.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은 대부분의 항목을 향유하는데 비하여 저소득층은 극히 일부의 항목들을 향유하는데 그칠 것이다. 여기서 일정소득 수준에서 향유하고 있는 품목들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소득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최저생계비로 보는 것이다.

Townsend는 객관적 박탈감을 측정하는 지표로 주거, 연료, TV 등의 가전제품, 휴가 또는 여행 등의 여가 및 문화생활 등을 사용하였고, 주관적 박탈감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공간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소득수준, 즉,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주관적 박탈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며, 시간적으로는 과거에 비해 현재 생활수준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박탈감 혹은 빈곤감 등을 사용하였다.

박탈지표에 의한 최저생계비 추정에 따른 단점은 전물량 방식의 최저생계비 추정과 같이 박탈지표항목에 포함될 품목 선정에서 전문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항목구성을 할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다.

나. 소득과 지출을 이용한 상대적 추정방식

Townsend의 방식보다 좀 더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대적 빈곤선은 평균 혹은 중위가구 소득 혹은 지출의 몇 % 이하에 해당하느냐에 의해 최저생계비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최저생계비 혹은 빈곤선을 도출하기 위해 소득을 사

용한 예로는 OECD, World Bank, Fuchs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달리 일본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정하기 위하여 지출을 사용하였으며, Deleeck 또한 EUROSTAT가 작성한 성인 1인당 지출을 기준으로 상대빈곤선을 도출하여 유럽 각국의 빈곤율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상대적 방식으로 측정된 최저생계비(혹은 빈곤선)의 가장 큰 약점은 개념 자체가 갖는 자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적’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는 의미와 같이 어떠한 기준을 최저생계비(혹은 빈곤선)로 잡을 것인지는 ‘상대적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상대적 최저생계비 추정의 쟁점은 첫 번째,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데 있어 소득을 기준으로 삼느냐, 지출을 기준으로 삼느냐의 문제이며, 두 번째는 소득과 지출 중 어느 하나가 결정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느 개념의 소득과 지출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즉 소득의 경우 시장경상가처분소득 또는 전체 소득, 임금근로자 등 다양한 소득개념이 존재한다. 지출의 경우에도 가계·소비지출 또는 전체 혹은 임금근로자 등으로 세분할 수 있을 것이다⁵⁾. 세 번째는 소득이나 지출의 몇 %를 최저생계비로 결정하느냐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학자나 각각의 기관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수준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결정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3. 주관적 방식

주관적 빈곤의 개념은 사람들의 주관적인 평가에 기초하는 빈곤개념이다. 따라서 이러한 빈곤을 이용하여 최저생계비를 측정하는 데는 객관적인 추정방법들이 사용될 수가 없다. 따라서 주관적 최저생계비를 측정방법에는 본인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최저생계비를 측정하는 방법과 제3자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최저생계비를 측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가. 제3자적 평가에 의한 주관적 최저생계비

제3자적 평가에 의한 주관적 최저생계비의 계측은 예를 들면 ‘이 곳에서 사는 평균

5) 일본의 경우 임금근로자 소비지출의 68%정도를 생활보호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적인 4인 가족이 건강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혹은 지출)은 얼마입니까?’ 혹은 ‘이 곳에서 4인 가족이 근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은 얼마입니까’와 같이 제 3자적 입장에서 최저생계비를 묻는 방식으로 최저생계비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1974년 L. Rainwater가 1946년부터 1969년까지의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매우 안정적인 결과를 얻음으로써 일반화된 계측방식이다. 질문에 대한 응답이 그 해 가구당 평균소득의 46~58% 범위에 들어 있었으며, 평균치는 52%로, 대중이 생각하는 생계비의 수준은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계측한 빈곤과 매우 유사함이 밝혀졌다⁶⁾. 또한 주관적 최저생계비의 소득탄력성은 0.18로 대중의 빈곤관은 ‘절대적인 의미에 가까운 상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준구, 2003).

나. 본인의 평가에 의한 주관적 최저생계비

본인의 평가에 기초한 주관적 최저생계비 방식은 라이덴(Leyden) 방식을 들 수 있다. 이는 Van Praag, Hagenaar 등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학자들에 의해 개발되었는데, 각자 자기 가구의 최저생계비에 대해 묻고 대답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당신의 가구에서는 얼마의 소득(혹은 지출)이 있다면 근근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라는 식의 질문을 통해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 방식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이 대답으로 나온 소득(혹은 지출)과 실제 그 사람의 소득(혹은 지출)이 일치하는 점을 회귀분석을 통해 찾는 방법(라이덴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벨기에의 델릭(H. Deleeck) 등이 고안한 방식으로 각자가 대답한 최저생계비와 자신의 실제 소득이 같은 가구를 골라 그들 가구소득의 평균을 구해 그것을 최저생계비로 간주하는 방법(델릭방식)이다(이정우, 1997).

주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최저생계비를 정의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최저생계비의 개념에 가장 잘 대응되는 설문지 구성의 문제이다. 레인워터가 갤

6) 레인워터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로써 근근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으로 필요하다는 액수가 전문가들이 ‘최소한의 필요’에 대해 계산한 액수의 대략 94% 수준에서 안정성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했다(이준구, 2003).

럽여론조사의 설문지 중 “이곳에서 4인 가족이 근근이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은 얼마입니까”라는 문항을 바탕으로 최저생계비를 추정하자 킬패트릭(R. Kilpatrick)은 실제의 최저생계비는 이보다 약간 낮은 수준일 것이라고 반기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최저생계비 개념을 가장 잘 포괄할 수 있는 설문지 구성이 주관적 최저생계비를 합리적으로 계측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이다.

둘째, 최저한의 생계비란 질문을 응답자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에 따라 응답의 결과가 상당히 달라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최저한의 생계비에 일부 응답자는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응답하고 일부는 포함하지 않고 응답한다든지, 또는 사회적·문화적 욕구를 응답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한다면 이는 최저생계비 계측에 있어서 매우 큰 편의(Bias)를 보일 것이다.

결국 주관적 최저생계비를 가장 합리적으로 계측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의 정의⁷⁾가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이를 가장 정확한 표현으로 설문지를 구성하고, 해석상의 오류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4. 기타 방식

앞에서 설명한 절대적, 상대적 및 주관적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이외에도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방식으로는 소비함수를 이용하거나(케인즈 절대소비함수 이용), 비목별 엔겔함수를 이용하는 방식, Allen-Bowley 방식을 이용하는 계측방법 등이 있다.

소비함수를 이용하여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방식은 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을 근거로 하여 소득이 없을 때, 최소한의 소비를 한다는 가정 하에 소득이 “0”인 상태에서의 소비함수의 절편을 최저생계비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비목별 엔겔함수를 이용하는 방식은 식료품비에 대한 엔겔함수를 추정하여 이론적으로 산출한 최저 식료품비에 상응하는 소득을 구한 후, 다른 비목의 엔겔함수에 대입하여 최저 주거비, 최저 의료비 등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들 비목을 추정한 후 모두 합산하면 최저생계비가 도출된다.

Allen-Bowley 방식은 대표적인 사치품(C_i)의 소비함수 $C_i = a + b \cdot Y$ 에서 사치품의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에서는 최저생계비를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가 “0”이 되는 소득수준(Y^*)를 구한 후 비목별 소비함수에 Y^* 를 대입하여 비목별 최저비용을 산출하여 이들 비목별 최저비용의 합계를 최저생계비로 추정하는 방식이다.



제3장 국내외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및 수준

제1절 외국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및 수준

제2절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및 수준

3

국내외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및 수준 <<

제1절 외국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및 수준

1. 미국의 최저생계비

가. 역사적 기원 및 주요 내용

미국 빈곤선의 역사는 1963년 미국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의 몰리 오샨스키(Mollie Orshansky)에 의해 고안된 빈곤선이 1964년 린든 존슨 대통령의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 선언 이후 5년 뒤인 1969년 공식적인 빈곤선(official poverty measure)으로 채택되면서 시작된다. 오샨스키는 영양학적으로 충분한 식단을 구성할 수 있는 비용을 최저생계비 계측의 기초로 삼는다는 착상에 기반하여, 최저식료품비(Subsistence food budget)에 특정상수를 곱하면 빈곤선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특정상수는 3으로 결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1955년 가구식료품소비조사(Household Food Consumption Survey)에서 당시 3인 이상으로 이루어진 평균가구가 그 세후소득의 1/3을 식료품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태를 바탕으로 오샨스키는 식료품비에 1/3의 역수인 3을 곱하여 4인 가구에 대한 빈곤선을 먼저 계산한 뒤, 이에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가구규모·가구유형별로 차등적인 빈곤선을 계측하였다. 오샨스키가 계측한 4인 가구 기준 빈곤선은 당시 미국 소득분포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소득의 1.1배, 당시 중위소득의 49%에 상당하는 금액이었다(Blank, 2008).

오샨스키에 의해 최초 설정된 1963년 빈곤선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만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갱신(update)되어 왔기 때문에, 그 계측방식과 수준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Blank, 2008).

1990년대에 들어서는, 1990년 미국 의회 위원회(Congressional committee)는 미국 국립과학원(National Academy of Science, NAS)과 국립연구협회의회(National

Research Council, NRC)에 공식적 빈곤측정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에 대한 연구를 요구하였다. 1993년 의회는 빈곤측정연구에 대한 예산을 마련하였고, 마침내 1995년 5월 국립과학원(NAS) 패널은 ‘빈곤측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Measuring Poverty: A New Approach)’이라는 제목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미국의 공식적 빈곤선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의 제안을 바탕으로 미국 통계청(Census Bureau)은 실험적인 빈곤측정방식에 대해 1999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탐색하였다(Fisher, 1997).

2000년대에 들어, 이 NAS 패널의 보고서는 ‘미국 빈곤측정에 관한 법안(the Measuring American Poverty Act, MAP Act)’의 핵심조항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법안은 2가지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다(Harris, 2010). 첫째, 빈곤측정은 의식주 및 기타 기초필수품에 대한 현재 소비패턴을 반영한다는 점을 기초로 삼고, 공적 프로그램(예컨대, EITC, 식료품지원 프로그램,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부터의 소득지원은 포함하고, 필수적 비용(예컨대, 연방소득세, 직장출퇴근을 위한 교통비, 그리고 본인이 현금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은 제외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생계비에 서 지역적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위의 2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한 이 법안의 핵심조항은 6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Harris, 2010). 첫째, 통계청은 아동의 욕구를 좀더 반영하는 방향으로 빈곤선을 조정해야 한다. 둘째, 가구의 소득을 파악할 때 소득세 환급분(tax credits)과 같은 현금급여, 식료품지원이나 주거지원과 같은 현물급여를 고려하는 동시에 의료비, 직장 관련 필수비용, 그리고 아동양육비에 대한 지출을 제외해야 한다. 셋째, 공식적 빈곤선은 역사적 측정방식(historical measure)으로서 간주하고, 공식적 빈곤선과 새로운 빈곤선 두 방식을 모두 사용한 빈곤율을 추정하고 보고해야 한다. 넷째, 새로운 빈곤선은 현재 공식적 빈곤선을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규칙과 방식에 자동적으로 영향을 줄 수 없으며, 그 대신 의회는 시간을 두고 프로그램별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세부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립과학원(NAS)의 제안처럼 새로운 빈곤선은 품위있는 생활수준과 의료관리위기 척도(Decent Living Standards and Medical Care Risk Measure)로 기능해야 한다. 여섯째, 이 법안은 상대빈곤율에 대한 보고를 강제하진 않지만, 공공대중이 공공 온라인 도구(public online tools)를 통해 중위소득 기준 50%와 60%, 그리고 대안적인 방식을 사용한 빈곤율을 산출해 볼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요약하면, ‘미국 빈곤측정에 관한 법안(MAP Act)’은 공식적 빈곤선을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빈곤선으로 인정하면서, 프로그램 수급자격 또는 자원배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않는 새로운 빈곤선이 현대적 빈곤척도로서 품위있는 생활수준과 의료위기척도로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1995년 국립과학원(NAS)의 제안 이후 축적된 다양한 연구성과와 노력들은 마침내 2010년 결실을 맺게 되었다. 2010년 미국 상무부(Commerce Department)는 현재의 공식 빈곤통계를 보완할 새로운 계측방식을 고안하겠다는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보충적 빈곤측정(Supplemental Poverty Measure, SPM)’으로 명명된 새로운 빈곤선 계측방식은 2011년 통계청의 빈곤통계보고서에서 공식적 빈곤측정(Official Poverty Measure, OPM)과 함께 그 측정결과가 발표되었다. 계측방식의 기술적 측면에서 보충적 빈곤측정(SPM)은 기존의 공식적 빈곤측정(OPM)에 비해 크게 2가지 점이 개선되었다(Short, 2011). 첫째, 5년간 지출의 이동평균(moving average)을 빈곤선 계산에 적용함으로써 빈곤선이 사회경제적 변화를 더 잘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연방정부로부터의 현금급여 뿐만 아니라 현물급여도 포함시킴으로써 정부의 정책변화에 빈곤선이 보다 더 조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보충적 빈곤측정(SPM)은 저소득층의 복지수준을 좀 더 복합적이고 민감하게 평가할 수 있는 대안적인 관점을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보충적 빈곤측정(SPM)은 프로그램 수급자격이나 자원 배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공식적 빈곤측정(OPM)의 대체(replacement)가 아닌 보완(supplement)하는 역할에 머문다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미국 빈곤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절대적 계측방식 중 하나인 반물량 방식에 기초한 세 가지 빈곤선이 공식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빈곤기준선(Poverty Thresholds, PT)과 빈곤지침선(Poverty Guidelines, PG), 그리고 이 두 가지 공식적 빈곤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보충적 빈곤기준선(Supplemental Poverty Measure Thresholds, SPMT)이 그것이다.

첫째, 빈곤기준선(PT)은 연방정부차원의 기본적 빈곤측정선(the original version of the federal poverty measure)이다⁸⁾. 이 빈곤기준선(PT)은 미국 통계청(Census

8) 이하의 빈곤기준선(PT)과 빈곤지침선(PG)에 대한 설명은 <http://www.irp.wisc.edu/faqs/faq1.htm#recent>를 참조하였다.

Bureau)에서 매년 발표되며, 주로 통계적 목적(예컨대, 빈곤율 추정)으로 활용된다. 또한 빈곤기준선(PT)은 빈곤을 정의하고 양화(quantify)함으로써, 탈빈곤을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노력이 진보하고 있는지 후퇴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제공한다. 미국 통계청(Census Bureau)은 1980년 이후 연도별·가구규모별 빈곤기준선을 발표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의 빈곤기준선은 2012년 9월에 발표된 2011년 기준 빈곤기준선이다.

둘째, 빈곤지침선(PG)은 간소화된 빈곤기준선(a simplification of PT)이다. 이 빈곤지침선(PG)은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에서 매년 발표하며, 주로 행정적 목적(예컨대, 특정 연방정부 프로그램의 수급 자격 결정)으로 사용된다. 빈곤지침선(PG)은 미국 50개 주 전체에 단일하게 설정된 빈곤기준선(PT)과 달리,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적용된다(48개 주와 워싱턴 컬럼비아 특별구, 알래스카 주, 하와이 주). 또한 의회 상임위원회(congressional committees) 또는 연방기관(federal agencies)들마다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빈곤지침선(PG)은 프로그램별로 다르게 적용된다(예컨대, 빈곤지침선의 125%, 150%, 또는 185%). 미국 보건복지부의 기획평가차관보실(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Planning and Evaluation, ASPE)은 1982년 이후 연도별 빈곤지침선을 발표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의 빈곤지침선은 2013년 1월에 발표된 2013년 기준 빈곤지침선이다.

빈곤기준선(PT)과 빈곤지침선(PG)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빈곤지침선(PG)이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행정적 기초자료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연초에 발표되어야 하는데, 그 시점에서 이용가능한 최신 빈곤기준선(PT)은 작년 9월에 발표된 재작년 기준 빈곤선이다. 예컨대, 2013년 빈곤지침선(PG)을 만들어야 하는 시점에 가용한 최신 빈곤기준선(PT)은 2012년 9월에 발표된 2011년 기준 빈곤기준선(PT)이다. 이 빈곤기준선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1년간의 물가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따라 당해연도 빈곤지침선(t 년도 PG)은 전전년도 빈곤기준선($t-2$ 년도 PT)에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t-1$ 년도 CPI)를 반영한 값으로 결정된다.

셋째, 보충적 빈곤기준선(SPMT)은 반(半)-상대적인(semi-relative)⁹⁾ 빈곤기준선

9) 2011년 12월 '숫자로 본 빈곤: 새로운 빈곤측정이 위기집단과 사회안전망에 주는 함의(Poverty by the Numbers: What New Measures Say About At-Risk Groups and the Social Safety Net)'라는 포

이다. 이 보충적 빈곤기준선(SPMT)은 미국 통계청(Census Bureau)에서 매년 기존의 빈곤기준선(PT)과 함께 발표되며, 기존의 빈곤선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다양한 빈곤의 측면(예컨대, 연방차원의 탈빈곤프로그램에 의한 빈곤감소효과)을 살펴보기 위해 활용된다. 또한 보충적 빈곤기준선(PT)은 1995년 국립과학원(NAS) 패널의 제안사항과 2010년 관계부처 합동의 기술작업반(Interagency Technical Working Group, ITWG)의 제안사항¹⁰⁾을 반영하고 있으며, 식료품·의복·주거비 및 부대비용(Food, Clothing, Shelter, and Utilities, FCSU)과 추가적인 기본욕구(additional basic needs)¹¹⁾를 고려하고 있다(Short, 2011). 이런 점에서 보충적 빈곤기준선(SPMT)은 단순히 최저식료품비에 승수 3을 곱하는 방식의 빈곤기준선(PT)보다도 좀더 정교한 방식의 빈곤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 통계청(Census Bureau)은 2011년 이후 보충적 빈곤기준선을 발표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의 보충적 빈곤기준선은 2012년 9월에 발표된 2011년 기준 보충적 빈곤기준선이다. 그러나 보충적 빈곤기준선(SPMT)은 공식적 빈곤기준선(PT)에 대한 보완적 역할을 할 뿐, 실질적인 행정적 구속력(수급자격 결정 등)은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 3가지 빈곤선 간의 차이를 정리하면, 먼저 빈곤기준선(PT)과 빈곤지침선(PG)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발표주체가 다르다. 빈곤기준선은 통계청에서, 빈곤지침선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다. 둘째, 활용목적이 다르다. 빈곤기준선은 빈곤측정이라는 통계적 목적을 위해, 빈곤지침선은 수급자격 결정이라는 행정적 목적을 위해 주로 사용된다. 셋째, 빈곤선 변화요인(지역별 차이의 고려 유무)이 다르다. 가구규모 및 가구유형(아동 또는 노인 포함 유무)에 따라 48개의 칸(cell)으로 이루어진

림에서 도시연구원(Urban Institute)의 선임연구원인 Linda Giannarelli는 '새로운 빈곤척도는 실제지출 비용을 어느 정도 고려한다는 점에서 반(半)-상대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평가하였다(<http://www.ustream.tv/recorded/18970347>).

10) 이 제안사항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보충적 빈곤기준선(SPM Thresholds)은 식료품·의복·주거비 및 부대비용(Food, Clothing, Shelter, and Utilities, FCSU)과 기타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의 추가비용(예컨대, 가구집기비(housing supplies), 개인관리비(personal care), 여가를 위한 교통비(non-work-related transportation) 등)를 포함해야 하며, 소비자지출조사(Consumer Expenditure Survey)에서 정확히 아동 2인을 포함하는 가구의 5년간 지출자료를 가지고 예측되어야 한다. 둘째, 가구유형별로 상이한 욕구들과 주거비(housing costs)의 지역적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구체화된 균등화 지수(specified equivalence scale)를 사용하여 조정되어야 한다. 셋째, 빈곤선 조정은 가구의 지출분포 백분위 중에서 하위33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실질적인 지출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Short, 2011).

11) 추가적인 기본욕구는 식료품·의복·주거비 및 부대비용(FCSU)에 1.2를 곱하는 방식으로 반영된다(Short, 2011).

빈곤기준선은 미국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반면, 빈곤지침선은 지역별 또는 프로그램별로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넷째, 발표시기가 다르다. 빈곤기준선은 매년 9월에 발표되고, 빈곤지침선은 매년 1월 말에 발표된다. 다섯째, 계산방식이 다르다. 빈곤기준선은 예비적 가중평균빈곤선(전년도 최종 가중평균 빈곤기준선(final weighted average poverty thresholds)에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한 것으로 매년 1월에 발표)에 가구별 가중치(상시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 CPS)의 연간 사회·경제 보충자료(Annual Social and Economic Supplement, ASEC)로부터 추정)를 곱하여 계측되며, 빈곤지침선은 전년도에 최종 발표된 빈곤기준선에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계측된다. 마지막으로 반올림(rounding) 방식이 다르다. 빈곤기준선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1단위로 표시되는 반면, 빈곤기준선은 \$10단위로 표시(항상 끝자리가 0)된다. 이상 비교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3-1-1>과 같다.

<표 3-1-1> 빈곤기준선(PT)과 빈곤지침선(PG)의 비교

구분	Poverty Thresholds(빈곤기준선)	Poverty Guidelines(빈곤지침선)
발표	통계청	보건복지부
활용목적	통계적인 목적 예) 빈곤선 이하 미국인이 몇명인지 계산	행정적인 목적 예) 특정 사회보장 프로그램들의 수급자격을 결정
빈곤선 변화요인	가구의 수, 가구원 중 아동의 수, 노인의 유무에 따라 48가지의 빈곤기준선과 13가지의 가중평균 빈곤기준선으로 나누어짐.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함	가구의 수에 따라 빈곤지침선이 달라짐. 알래스카 주와 하와이 주에서는 약간 다른 지침선이 적용됨
발표시기	통계청은 매년 1월(예비)과 9월(최종)에 전년도 기준 빈곤기준선을 발표. 예컨대, 2013년 9월에 2012년 기준 빈곤기준선(2012년도의 물가 반영)을 발표	보건복지부는 그 해의 빈곤지침선을 그 해 1월말에 발표. 예컨대, 2013년도 빈곤지침선(2011년도 빈곤기준선에 2012년 물가를 반영하여 계산)은 2013년 1월말에 발표
계산방식	매년 1월에 발표되는 예비적 가중평균 빈곤기준선은 전년도 빈곤기준선에 소비자물가지수(CPI-U)를 적용하여 계산. 9월에 발표되는 최종적 가중평균 빈곤기준선은 예비적 가중평균 빈곤기준선에 상시인구조사의 연간 사회·경제 보충자료(CPS ASEC)로부터 추정된 가구별 가중치를 곱하여 계측	빈곤지침선은 그 전년도 9월에 발표되는 가장 최근의 빈곤기준선에 소비자물가지수(CPI-U)를 적용하여 계산
반올림방식	반올림하여 \$1단위로 조정	반올림하여 \$10단위로 조정

자료: <http://aspe.hhs.gov/poverty/faq.shtml#differences>; as cited in <http://www.irp.wisc.edu/faqs/faq1.htm#fn2>.

다음으로, 기존의 빈곤기준선(PT) 및 빈곤지침선(PG) 이 2가지 빈곤선과 새로운 보충적 빈곤기준선(SPMT)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빈곤기준선과 빈곤지침선은 모두 공식적 빈곤척도(Official Poverty Measure, OPM)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 방식의 문제점은 크게 2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공식적 빈곤척도(OPM)는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non-reflectiveness to social changes)가 있다. 특히 빈곤선을 결정할 때 평균가구의 삶의 질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둘째, 공식적 빈곤척도(OPM)는 정책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un-responsiveness to policy changes)가 있다. 특히 가구의 자원을 평가할 때 다양한 탈빈곤 프로그램의 도입과 확대에 의한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1995년 국립과학원(NAS) 패널은 새로운 빈곤척도는 크게 6가지 사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¹²⁾.

첫째, 자녀가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양육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근로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빈곤척도는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부모와 일하지 않는 부모가 있는 가구의 욕구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현재의 빈곤척도는 노동자와 비노동자의 욕구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건강상태와 보험의 보장정도의 차이 때문에, 다양한 인구집단별로 의료비 지출에서 큰 편차가 존재하지만, 현행 빈곤척도는 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현행 빈곤선은 특정 욕구(특히, 주거)에 대한 지역 간 유의미한 비용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넷째, 빈곤선에서 가구규모조정(즉, 가구균등화지수)은 많은 측면에서 변칙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인구구조와 가구특성(예컨대, 평균 가구규모의 감소)의 변화는 이러한 조정에 대해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다섯째, 보다 광범위하게, 생활수준의 변화는 처음 설정된 빈곤선을 단지 인플레이션만을 적용해서 갱신하는 방식의 장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역사적인 증거들은, 빈곤선(최저욕구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개선되어 온 빈곤선들도 포함)은 전체적인 소비 수준의 추세를 따라야 한다고 제안한다. 미국의 삶의 수준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빈곤선을 개선하기 위한 대부분의 (대안적인) 접근방식들은 현행 빈곤선

12) National Research Council (1995)을 참고하였다.

보다 더 높은 수준의 빈곤선을 산출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현행 빈곤척도는 가구의 자원을 총현금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의 가처분소득과 그에 따른 가구의 빈곤지위를 유의미하게 변화시켜 온 중요한 정부 정책 계획안들의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payroll tax)의 증가는 노동자들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켰을 것이고, 반면 식료품지원 프로그램(Food Stamp Program)의 성장은 수혜자들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켰을 것이다. 게다가, 현행 빈곤척도는 가처분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래 정책 계획안들(예컨대, 보건의료재정의 변화, 조세정책의 변화, 그리고 복지수급자들을 노동시장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노력 등)의 효과를 반영할 수 없다.

새로운 빈곤척도(Supplemental Poverty Measure, SPM)는 이러한 국립과학원(NAS) 패널의 6가지 개선점을 다음과 같이 해결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표 3-1-2>와 같다.

<표 3-1-2> 공식적 빈곤척도(OPM)의 문제점과 보충적 빈곤척도(SPM)의 해결책

공식적 빈곤척도의 문제점 (Official Poverty Measure)	해당 문제의 초점	보충적 빈곤척도의 해결책 (Supplemental Poverty Measure)
변화하는 생활양식 또는 삶의 질을 반영하지 못함	빈곤선 갱신 (Updating threshold)	자녀 2명이 있는 가구의 소비지출 분포의 백분위에서 하위33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식료품, 의복, 주거, 그리고 부대비용(food, clothing, shelter, and utilities, FCSU)에 1.2배(기타 기초육구에 대한 비용)를 하는 방식으로 빈곤선을 설정함
보건의료비용을 고려하지 못함	가구자원 측정 (Resource measure)	현금소득 뿐만 아니라 현물소득을 포함하고, 세금을 제외하고 조세환급분(tax credits)을 포함하며, 직장관련 필수지출과 본인부담의 의료비지출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가구자원을 측정함
지역별 생계비용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함	지역적 조정 (Geographic adjustment)	주거비용의 차이를 지역적으로 조정함
적절한 조정(예컨대, 가구규모)을 하지 못함	빈곤선 조정 (Threshold adjustment)	가구규모와 구성에 따라 3가지 모수적 가구균등화지수(three parameter equivalence scale)를 적용함
전체적인 소비수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	빈곤선 갱신 (Updating threshold)	식료품, 의복, 주거, 그리고 부대비용(FCSU)에 대한 지출액의 5년간 이동평균값을 적용함
정부 프로그램의 노력들을 고려하지 못함	가구자원 측정 (Resource measure)	빈곤층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둔 조세지출 또는 현물급여 (EITC, SNAP, Housing Subsidy, School Lunch, WIC, LIHEAP)를 고려함

자료: Short (2011). 『The Research supplemental poverty measure: 2010』을 참조하여 재구성.

나. 최저생계비 측정방식

미국의 공식적 빈곤선인 빈곤기준선(PT)의 측정방식은 전술한 바와 같이 1960년대 오샨스키 빈곤계측방식(Orshansky poverty measure)에 의해 최초 설정된 빈곤선이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¹³⁾만큼만 조정되는 방식이다. 오샨스키가 계측한 빈곤공식은 반물량 방식에 기초하여, 월 최저식료품 마켓 바스켓을 구성한 후 이 금액에 승수 3을 곱한 것이었다.

$$\text{빈곤기준선(PT)} = \text{최저식료품비(Subsistence food budget)} \times 3$$

승수 3을 적용한 근거는 당시 평균적인 미국 가구의 식료품비 지출 비중이라는 실재를 반영한 것이었다. 1963년 당시 활용할 수 있었던 가장 최신 자료는 미국 농무부(USDA)에서 수행한 1955년 가구식료품소비조사(Household Food Consumption Survey)였고, 이로부터 오샨스키는 당시 평균가구의 식료품비 지출액이 세후소득의 1/3(약 30%)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역수인 '3'을 승수로 적용하였다¹⁴⁾.

빈곤지침선(PG)의 측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년도에 발표된 전전년도 4인가구 기준 빈곤기준선(PT)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곱한 후, 가까운 \$50단위로 올림하여 당해연도 4인가구 기준 빈곤지침선을 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가구규모별 빈곤기준선(PT) 간 차이의 평균값¹⁵⁾를 가감하여, 나머지 가구규모별 빈곤지침선을 구한다.

$$\begin{aligned} & \text{t년도 빈곤지침선(PG)} \\ &= \text{t-2년도 빈곤기준선(PT)} \times (1 + \text{t-1년도와 t년도 사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end{aligned}$$

〈표 3-1-3〉을 통해 2012년 빈곤지침선(PG)을 구하는 과정을 설명하도록 한다. 먼저 2011년 발표된 2010년 4인가구 기준 빈곤기준선(PT)은 \$22,314였다. 미국 노동

13) 이는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에서 발표하는 도시지역 소비자 물가지수 (Consumer Price Index for All Urban Consumers, CPI-U)를 말한다.

(<http://www.census.gov/hhes/www/poverty/about/overview/measure.html>).

14) 당시 4인가구(성인 2명, 아동 2명)의 연간 식료품비는 \$1,033로 나타났고, 1963년 4인가구 빈곤선은 약 \$3,100(=1,033 × 3)로 계산되었다(Oregon Center for Public Policy, <http://www.ocpp.org/poverty/how/>).

15) 이는 가구규모별 빈곤기준선(PT) 간 차이를 평균하여 구한다.

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18.056(2010년), 224.939(2011년)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3.2%이다. 따라서 2012년 4인가구 기준 빈곤지침선(PG)는 $22,314 \times (1+0.032) = 23,028.05$ 를 \$50단위로 올림한 \$23,050가 된다. 이때 가구규모별 빈곤기준선(PT) 간 차이의 평균은 \$3,960이므로, 3인을 기준으로 하는 빈곤지침선은 \$19,090($=23,050 - 3,960$)이고, 5인을 기준으로 하는 빈곤지침선은 \$27,010 ($=23,050 + 3,960$)이 된다.

〈표 3-1-3〉 미국의 2012년 빈곤지침선(PG) 계산방법 (48개 주 및 D.C.)

(단위: \$)

가구 규모	2010년 PT (2011년 9월 발표)	2010년 PT × 물가 상승률(1.032)	가구규모별 PT 간 차이	가구규모별 PT 간 차이의 평균값	2012년 PG (2012년 1월 발표)
1인	11,139	11,495			11,170
			3,178	3,960	
2인	14,218	14,673			15,130
			3,257	3,960	
3인	17,374	17,930			19,090
			5,098	3,960	
4인	22,314	23,028			23,050
			4,257	3,960	
5인	26,439	27,285			27,010
			3,569	3,960	
6인	29,897	30,854			30,970
			4,243	3,960	
7인	34,009	35,097			34,930
			4,051	3,960	
8인	37,934	39,148			38,890

자료: U.S.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Planning and Evaluation
(<http://aspe.hhs.gov/poverty/12computations.shtml>).

한편 보충적 빈곤기준선(SPM Thresholds, SPMT)의 측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식료품·의복·주거비 및 부대비용(Food, Clothing, Shelter, and Utilities, FCSU)에 대한 지출 백분위 분포에서 하위 30분위에 해당하는 지출액을 구한 뒤, 추가적인 기본 욕구(additional basic needs)를 반영하기 위해 그 비용에 1.2를 곱한다.

보충적 빈곤지침선(SPMT)

= 식료품·의복·주거비 및 부대비용(Food, Clothing, Shelter, and Utilities, FCSU) × 1.2

여기에 3가지 모수적 균등화지수(“three-parameter equivalence scale”)¹⁶⁾가 적용되어 4인가구(성인 2명, 아동 2명)로 구성된 빈곤선(overall threshold)이 계산된

다. 이를 바탕으로 주거비용의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앞서 계산된 주거비 및 부대비용(shelter and utilities)은 3가지 주거지위(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자가가구/주택담보대출이 없는 자가가구/월세가구)에 따른 주거비 및 부대비용으로 대체되어, 최종적으로 보충적 빈곤기준선(SPMT)이 계측된다.

다. 최저생계비의 수준

미국 통계청은 매년 그 전년도 기준 빈곤기준선(PT)을 발표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 발표한 2011년 4인 가구 기준 가중평균 빈곤기준선은 \$23,021로 2010년도 기준 \$22,314과 비교할 때 \$707 증가하였다. 이는 2011년 소비자 물가지수가 2010년에 비해 소폭(3.2%) 증가했기 때문이다. 아래의 <표 3-1-4>와 <표 3-1-5>는 2011년 빈곤기준선과 1959년부터 2011년까지의 4인 가구 기준 빈곤기준선을 정리한 것이다.

<표 3-1-4> 미국의 2011년 기준 빈곤기준선(PT)

(단위: \$)

가구규모	18세 미만 아동								
	가중평균 빈곤선	없음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1인	11,484								
65세 미만	11,702	11,702							
65세 이상	10,788	10,788							
2인	14,657								
65세 미만	15,139	15,603	15,504						
65세 이상	13,609	13,596	15,446						
3인	17,916	17,595	18,106	18,123					
4인	23,021	23,201	23,581	22,811	22,891				
5인	27,251	27,979	28,386	27,517	26,844	26,434			
6인	30,847	32,181	32,309	31,643	31,005	30,056	29,494		
7인	35,085	37,029	37,260	36,463	35,907	34,872	33,665	32,340	
8인	39,064	41,414	41,779	41,027	40,368	39,433	38,247	37,011	36,697
9인 이상	46,572	49,818	50,059	49,393	48,835	47,917	46,654	45,512	43,487

자료: U.S. Census Bureau (<http://www.census.gov/hhes/www/poverty/data/threshld/thresh11.html>).

- 16) 균등화지수와 관련하여 국립과학원(NAS) 패널은 '규모의 경제' 승수를 0.65에서 0.75 사이로 가정하고, 모든 가구에 대해 단일한 공식을 제안하였다. 즉, $(A + 0.7K)^{0.65}$ 에서 0.75 (A : 성인가구원 수, K : 아동가구원 수). 반면에 보충적 빈곤기준선(SPMT)에서는 '규모의 경제' 승수를 0.7로 가정(아동이 없는 성인 2인 가구에 대해서는 0.5)하고, 3가지 균등화지수 공식을 제안하였다. 첫째, 아동이 없는 성인 2명으로 이루어진 2인 가구에는 $(A)^{0.5} = 2^{0.5} = 1.41$ 을 적용한다. 둘째, 한부모가구(성인 1명과 K 명의 아동으로 이루어진 가구)에는 $(A + 0.8 + 0.5(K - 1))^{0.7}$ 을 적용한다. 셋째, 기타 가구에는 $(A + 0.5K)^{0.7}$ 을 적용한다(Bavier, 2010: 2-3; Short, 2011: 18)

〈표 3-1-5〉 미국의 연도별 4인 가구 가중평균 빈곤기준선(PT)¹⁷⁾

(단위: \$)

연도	4인 가구 가중평균 빈곤기준선	연도	4인 가구 가중평균 빈곤기준선	연도	4인 가구 가중평균 빈곤기준선
1959	2,973	1977	6,191	1995	15,569
1960	3,022	1978	6,662	1996	16,036
1961	3,054	1979	7,412	1997	16,400
1962	3,089	1980	8,414	1998	16,660
1963	3,128	1981	9,287	1999	17,029
1964	3,169	1982	9,862	2000	17,603
1965	3,223	1983	10,178	2001	18,104
1966	3,317	1984	10,609	2002	18,392
1967	3,410	1985	10,989	2003	18,810
1968	3,553	1986	11,203	2004	19,307
1969	3,743	1987	11,611	2005	19,971
1970	3,968	1988	12,092	2006	20,614
1971	4,137	1989	12,674	2007	21,203
1972	4,275	1990	13,359	2008	22,025
1973	4,540	1991	13,924	2009	21,954
1974	5,038	1992	14,335	2010	22,315
1975	5,500	1993	14,763	2011	23,021
1976	5,815	1994	15,141		

자료: U.S. Census Bureau (<http://www.census.gov/hhes/www/poverty/data/historical/hstpov1.xls>).

빈곤지침선(PG)은 미국 보건복지부(DHHS)에서 매년 당해연도의 빈곤지침선을 발표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 발표한 4인 가구 기준 빈곤지침선은 \$23,550로 2012년도 기준 \$23,050과 비교할 때 \$500 증가하였다.

〈표 3-1-6〉 미국의 2013년 빈곤지침선(PG)

(단위: \$)

가구규모	48개 주(워싱턴 D.C.를 포함)	알래스카	하와이
1인	11,490	14,350	13,230
2인	15,510	19,380	17,850
3인	19,530	24,410	22,470
4인	23,550	29,440	27,090
5인	27,570	34,470	31,710
6인	31,590	39,500	36,330
7인	35,610	44,530	40,950
8인	39,630	49,560	45,570
추가되는 1인당	4,020	5,030	4,620

자료: Federal Register, Vol. 78, January 24, 2013, pp. 5182-5183.

Available at <https://www.federalregister.gov/articles/2013/01/24/2013-01422/annual-update-of-the-hhs-poverty-guidelines#t-1>; as cited in <http://www.irp.wisc.edu/faqs/faq1.htm#hhs>

17) 1982년까지의 평균 빈곤기준선에는 농업가구가 제외되어 있다.

〈표 3-1-7〉 미국의 연도별 빈곤지침선(PG)¹⁸⁾

(단위: \$)

연도	1인가구	1인당추가증가액	4인가구기준	연도	1인가구	1인당추가증가액	4인가구기준
1982	4,680	1,540	9,300	1998	8,050	2,800	16,450
1983	4,860	1,680	9,900	1999	8,240	2,820	16,700
1984	4,980	1,740	10,200	2000	8,350	2,900	17,050
1985	5,250	1,800	10,650	2001	8,590	3,020	17,650
1986	5,360	1,880	11,000	2002	8,860	3,080	18,100
1987	5,500	1,900	11,200	2003	8,980	3,140	18,400
1988	5,770	1,960	11,650	2004	9,310	3,180	18,850
1989	5,980	2,040	12,100	2005	9,570	3,260	19,350
1990	6,280	2,140	12,700	2006	9,800	3,400	20,000
1991	6,620	2,260	13,400	2007	10,210	3,480	20,650
1992	6,810	2,380	13,950	2008	10,400	3,600	21,200
1993	6,970	2,460	14,350	2009	10,830	3,740	22,050
1994	7,360	2,480	14,800	2010 ¹⁾	10,830	3,740	22,050
1995	7,470	2,560	15,150	2011	10,890	3,820	22,350
1996	7,740	2,620	15,600	2012	11,170	3,960	23,050
1997	7,890	2,720	16,050	2013	11,490	4,020	23,550

주: 1) 2009년 말~2010년 초 사이에 통과된 특정법안의 영향으로 2010년 빈곤지침선 발표가 지연되었다. 이런 이유로 2010년 기준 빈곤지침선은 2009년 기준 빈곤지침선을 그대로 연장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http://aspe.hhs.gov/poverty/10poverty.shtml>).

자료: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ttp://aspe.hhs.gov/poverty/figures-fed-reg.shtml>).

보충적 빈곤기준선(SPMT)은 미국 통계청(Census Bureau)에서 2011년부터 매년 그 전년도 기준 빈곤기준선(PT)과 함께 발표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 발표한 2011년 기준 4인 가구(성인 2명, 아동 2명)의 보충적 빈곤기준선(SPMT)은 주거지위(housing status)에 따라 3가지 종류가 제시되었다. 즉,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자가가구(Owners with a mortgage)는 \$25,703,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자가가구(Owners without a mortgage)는 \$21,175, 자가를 소유하지 못한 월세가구(Renters)는 \$25,222로 나타났다. 이것을 2011년 기준 4인가구(성인 2명, 아동 2명) 기준 빈곤기준선(PT) \$22,811¹⁹⁾과 비교하면, 보충적 빈곤기준선(SPMT)의 수준은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자가소유자의 경우에는 공식적 빈곤기준선(PT)보다 \$1,636(22,811-21,175)만큼 낮다.

18) 1982년의 빈곤지침선에는 농업가구가 제외되어 있다.

19) 이는 앞서 제시한 2011년 기준 4인가구 가중평균 빈곤선 \$23,021과는 다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반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자가소유자의 경우 보충적 빈곤기준선(SPMT)은 \$2,892(25,703-22,811), 세입자의 경우 \$2,411(25,222-22,811)만큼 높다. 따라서 보충적 빈곤기준선은 기존의 빈곤기준선과 비교할 때 개별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고려한 보다 합리적인 빈곤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아래의 <표 3-1-8>은 2011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된 4인 가구(성인 2명, 아동 2명) 기준 보충적 빈곤기준선(SPMT)과 기존의 빈곤기준선(PT)을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3-1-8> 연도별 보충적 빈곤기준선(SPMT)과 빈곤기준선(PT)의 수준 비교: 4인 가구 기준

(단위: \$)

연도	공식 빈곤기준선 (Official PT)	보충적 빈곤기준선(SPM Thresholds)			
		주거지위 고려하지 않을 경우(Not accounting for housing status)	주거지위 고려할 경우(Accounting for housing status)		
			자가가구(Owners)		월세가구(Renters)
			주택담보대출 있는 자가가구(Owners with a mortgage)	주택담보대출 없는 자가가구(Owners without a mortgage)	
2009	21,756	23,854	24,450	20,298	23,874
2010	22,113	24,343	25,018	20,590	24,391
2011	22,811	-	25,703	21,175	25,222

자료: U.S. Census Bureau's Current Population Report issued by Short (2011)
(<http://www.census.gov/prod/2011pubs/p60-241.pdf>) and
Short (2012) (<http://www.census.gov/prod/2012pubs/p60-244.pdf>).

라. 공공부조제도와의 관계: 활용도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의 공식적인 빈곤선이라 할 수 있는 빈곤기준선(PT)과 빈곤지침선(PG)은 통계적 혹은 행정적인 목적으로 계측되고 있지만, 이것은 직접적으로 공공부조 급여액(최저소득보장) 설정을 위하여 활용되기보다는 빈곤율의 산출이나 급여의 적절성 평가, 그리고 수급 대상자 선정 등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다.

특정 공공부조 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램별로 빈곤지침선(PG)의 일정 퍼센트의 배수(예컨대, 125%, 150%, 또는 185%)를 수급자격기준으로 활용한다²⁰⁾. 첫째, 연방정부 차원에서 빈곤지침선(PG)을 수급자 선정에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의

20) 이하의 내용은 I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http://www.irp.wisc.edu/faqs/faq1.htm#use>)를 참고하였다.

지역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Community Service Block Grant, CSBG), 저소득가구 자녀교육지원(Head Start), 저소득가구 연료비 지원프로그램(Low-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LIHEAP)²¹⁾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미국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의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학교급식프로그램(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아동 및 성인 급식 프로그램(Child and Adult Care Food Program)도 이에 해당한다. 또한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의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사업(Weatherization Assistance for Low-Income Persons, WAP)²²⁾이나 미국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의 직업훈련프로그램(Job Corps), 농업종사자 구직지원프로그램(National Farmworker Jobs Program, NFJP), 청소년을 위한 인력투자프로그램(Workforce Investment Act Youth Activities)에서도 빈곤지침선이 수급자격을 결정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둘째, 미국의 주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또는 활동의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빈곤기준선(PG)을 활용하기도 한다. 예컨대, 주정부 단위의 건강보험지원(state health insurance programs), 양육비 강제집행을 위한 재정지침(financial guidelines for child support enforcement), 법정의 '법적 빈곤(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소송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음)'의 결정(determination of legal indigence for court purposes)을 위해 빈곤기준선이 활용된다. 셋째, 공공서비스(예컨대, 수도·전기·가스 등), 전화, 제약과 관련된 몇몇 민간회사들도 저소득층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

21) 저소득가구 연료비 지원프로그램(LIHEAP)은 3가지 형태의 에너지 지원을 제공한다. 첫째, 주정부에 의한 난방비(혹은 냉방비)지원이다. 둘째, 주택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에 대한 지원(allotments for low-cost weatherization)이다. 셋째, 에너지관련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assistance during energy-related emergencies)이다. 주정부가 수급자격을 결정하고,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예컨대, 현금지원, 에너지공급자에게 직접 비용 지불(vendor payment), 환수표(two-party checks), 바우처/쿠폰, 임대주인에게 직접 지불)으로 지원하게 된다.

2010년 상시인구조사의 연간 사회·경제 보충자료(CPS ASEC)에서는 전년도 10월 1일부터 난방비 지원을 받은 경험과 지원받은 액수를 묻고 있고, 2011년 조사에서는 전년도 1년간 난방비 지원받은 경험과 지원받은 액수를 묻고 있다. 또한 여름에 지급된 냉방비 지원액 또는 2~4월의 조사시점 이후 응답자가 지급받은 위기급여(emergency benefits)에 대해 묻고 있다. 조사결과, 많은 가구에서 2가지 형태의 급여(냉방비 지원, 위기급여)를 모두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많은 가구들이 지원받은 정확한 금액을 보고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연료비 지원은 종종 서비스공급회사 또는 난방용 석유공급회사에 직접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받는 수혜자가 그 금액을 정확히 알기가 어렵기 때문이다(Short, 2012: 28).

22) 미 에너지부는 WAP 프로그램 수급자격이 되는 '저소득층'을 빈곤지침선의 200%로 규정하고 있다(http://waptac.org/data/files/website_docs/government/guidance/2012/wpn%2012-8.pdf).

혜자 자격을 결정하는데 빈곤지침선(PG)을 활용한다.

그러나 위에 열거된 프로그램들과 달리, 일반적으로 현금지원성의 공공부조 프로그램들은 빈곤지침선(PG)을 수급자 선정에 사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빈곤가구 한시지원(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저소득층 생활보조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근로소득 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Social Services Block Grant, SSBG) 등이 있다.

2. 영국의 최저생계비

가. 역사적 기원 및 주요 내용

빈곤선은 영국의 사회학자 Benjamin S. Rowntree의 『Poverty: a Study of Town Life(1901)』에서 제기되었으며, 그는 빈곤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하나는 가족의 총 수입이 단순한 물리적인 효용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품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은 가족에 대해 ‘1차(primary)’ 빈곤이라 설명하고, 빈곤선을 약간 상회하는 즉, 단순한 물리적인 효용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품에 대한 지출은 가능하나 여타의 지출은 불가능한 소득을 가진 가족에 대해 ‘2차(secondary)’ 빈곤으로 구별하였다(S. Rowntree, 1901). 그에 의해 1899년 빈곤선이 최초로 계측되었으며, 이 당시 구성품목의 선정은 자의적이고 식품비가 빈민층의 식생활 습관과 연관이 적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인간적 욕구에 입각하여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며 필수품의 품목을 조정하면서 1936년 2차 조사가 실시되었고, 1951년 3차 조사를 거치며 빈곤의 기준을 정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다(P. Townsend, 1954). 이와 같이 영국은 빈곤선이 최초로 계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공식적으로 빈곤선을 발표하지 않는다. 다만, 준공식적인 빈곤선이 두 가지 전통에 의해 계측되고 있다. 하나는 앞서 말한 Rowntree에 의해 최초로 계측된 절대적 빈곤선 계측방식에 기초한 표준예산접근방식, 즉 전물량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이후 국제비교와 통계적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기 위해 측정되는 상대적 방식, 즉 저소득 기준이 그것이다.

마켓 바스켓방식에 의해 계측되었던 절대빈곤선에 의거한 최초의 사회부조 급여기준액은 라운트리(Rowntree)가 두 번째로 베버리지의 ‘인간욕구의 척도’를 인용한 것

에서 시작된다. 베버리지의 사회부조 기초값을 기준으로 설정된 1948년의 사회부조 급여액은 이후 1948년부터 1996년 사이 약 50년간 12번 상승되었으며, 이후에는 적어도 1년에 한번은 증액되었다. 그리고 사회부조(Income Support) 급여액은 소매물가지수(RPI)에 주택부분을 제외한 Rossi index를 적용하여 증액하여 왔다. 결국, 지금까지의 영국 사회부조(Income support) 급여액은 다소 모호한 기준에 의해 설정된 이래 비체계적으로 갱신되어 왔기 때문에 빈곤의 기준으로서 정당성을 가지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다. 이처럼 마켓 바스켓에 의한 빈곤의 측정은 사회부조 급여기준액의 기원을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빈곤기준선이 전물량방식에 의해 계측되고 공표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 대신에 1985년에 York 대학에서 출발한 Family Budget Unit(FBU)에 의한 연구가 Rowntree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표준예산접근(budget standard approach)으로 말할 수 있는 이 접근법은 라운트리의 마켓 바스켓에 기초하여 빈곤선을 계측하는 것이다. York 대학의 Jonathan Bradshaw 교수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개발된 표준예산접근은 ‘저비용이지만 수용할만한’(low cost but acceptable) 생계비와 더 관대하게 ‘간소하나 적절한’(modest but adequate) 생계비를 계측하고 있다. 표준예산 접근방식은 가구유형별로 적절한 최소 기준을 충족시키는 필수적인 품목과 서비스의 목록을 작성한 다음, 개개의 항목에 내구연수 등을 고려하여 가격이 매겨지고, 합해진 예산을 가구 유형에 따른 빈곤선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한편, 상대빈곤선으로 간주할 수 있는 기준선인 소득의 중위값 또는 평균값은 OECD와 EU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빈곤선 측정방식이다²³⁾. 영국의 보건복지부(DWP)에 의해 발행되는 『Household Below Average Income』의 빈곤 관련 수치 또한 중위소득 60%와 평균소득 50%를 저소득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저소득기준(중위소득의 60%)을 뒷받침하기 위해 ‘물질적 박탈과 저소득’ 측정치 등을 보조지표로 사용하고 있다²⁴⁾.

이와 같이, 영국은 국가의 공식적인 정책적 빈곤선이 존재하지 않으나²⁵⁾, Rossi in-

23) 예를 들면 EU 통계 기관 Eurostat는 각 국가에서 중위 소득 60%를 한계로 EU 회원국 소득 빈곤 수치로 사용하고 있다.

24) 박탈지표접근은 Peter Tonwsend의 『영국의 빈곤』에서 처음으로 개발되었으며, 1980년대 Mack과 Lansley에 의해, 1990년대에 Gordon과 Pantazis에 의해 재정비되었다. 이러한 접근은 Joseph Rowntree Foundation (JRF)에서 실행한 1999 빈곤과 사회적 배제 조사(Poverty and Social Exclusion Survey)의 분석에 사용되었다.

dex는 소매물가지수(RPI)를 변형한 지수로서 급여증액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빈곤선 계측방식이라 보기는 어렵다. 또한 FBU에 의한 표준예산 접근방식은 민간(York 대학)에서 계측되고 있으며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없을 뿐더러 정책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준공식적 빈곤선이라 보기 어렵다. 다만 민간기구들의 정책적인 압력용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에서 빈곤율을 측정하고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보조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저소득기준(중위소득 60% 또는 평균소득 50%)을 준공식적 빈곤선이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최저생계비 측정방식

영국에는 공식적인 빈곤선이 존재하지 않으나 영국의 보건복지부인 DWP에 의해 발간되는 『Household Below Average Income』(이하 HBAI)의 통계자료가 있다. 또한 영국의 사회보장청에 의해 운영되는 ‘자산조사(Low Income Families)’에서 빈곤 관련 통계가 발표되어 왔다. 이들에서 사용되는 준공식적 빈곤선은 중위소득 60% 미만 또는 평균소득의 50% 기준이다. 이 때 사용되는 소득 개념은 균등화된 순가처분 소득이며, 균등화지수는 McClement 균등화지수²⁶⁾를 사용하였다. 또한, 균등화를 위한 기준가구는 자녀가 없는 부부이며, 비교를 위해 OECD균등화지수와 McClement 균등화지수를 아래 <표 3-1-9>에 제시하였다.

<표 3-1-9> McClements 균등화지수와 수정OECD 균등화지수 비교

	OECD(BHC ¹⁾)	OECD(AHC ²⁾)	McClements(BHC)	McClement(AHC)
첫 번째 성인	0.67	0.58	0.61	0.55
배우자	0.33	0.42	0.39	0.45
배우자와 두 번째 성인	0.33	0.42	0.46	0.45
세 번째 성인	0.33	0.42	0.42	0.45
기타 성인	0.33	0.42	0.36	0.40
14세 미만 아동	0.20	0.20	0.20	0.20
14세 이상 아동	0.33	0.42	0.32	0.34

주: 1) BHC(Before housing cost): 주거비 사용 전 주당 균등화 가구순소득

2) AHC(After housing cost): 주거비 사용 후 주당 균등화 가구순소득

자료: DWP(2013), 『Household Below Average Income(HBAI) 1994/95-2011/12』

25) Veit-Wilson이 1989년 국가의 공식적인 정책적 빈곤선인 MIS(Minimum Income Standard)를 도입하고자 시도한 바 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26) McClements 균등화지수는 가구원수 및 가구원 구성에 따라 가중값을 주어 계산한 것이다.

다음으로 JRF의 표준예산 접근방식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Rowntree의 전통에 기초한 전물량방식에 의한 빈곤선 계측방식이며, 영국의 최저소득기준(MIS)을 책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Joseph Rowntree Foundation(이하 JRF)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Centre for Research in Social Policy(이하 CRSP)의 합의적 방식과 Family Budget Unit(이하 FBU)의 규범적 접근을 결합하여 도출된다. 또한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와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경험적 조사결과에 기초하며, 2008년 첫번째 MIS 이후로 짝수년도에 새로운 조사에 의한 연구를 진행하고 홀수년도에는 가격상승률에 기반하여 연간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3-1-10〉 JRF에 의해 계측된 가구유형별 최저소득기준(MIS, 2013)

(단위: 주당, £)

구분	Single Working age	Couple, Pensioner	Couple, 2 children	Lone parent, 1 child
식료품	50.11	62.78	103.38	53.80
알코올	5.26	8.89	7.02	6.69
담배	0.00	0.00	0.00	0.00
의류	9.92	12.88	41.21	20.39
수도요금	5.70	6.73	9.40	8.94
지방세	14.47	19.29	22.50	16.88
가구보험	1.91	1.76	2.32	2.29
연료	12.48	14.72	24.54	20.26
기타 주거관련비용	2.59	4.09	9.98	3.70
가구집기	11.74	13.79	27.26	22.94
가사서비스	3.85	8.78	8.26	7.49
보육비	0.00	0.00	156.57	158.61
개별재 및 서비스	11.94	20.83	42.29	28.82
자동차	0.00	0.00	59.31	46.87
기타교통비	22.86	13.79	14.06	1.15
사회 및 문화참여	47.81	52.91	99.65	44.35
임대료	73.22	81.38	86.88	81.38
총생활비				
(임대료, 보육비 제외)	200.64	241.25	471.15	284.58
(임대료, 보육비 포함)	273.86	322.63	714.61	524.57
(임대료, 지방세, 보육비 제외)	187.40	223.60	450.57	269.13
(임대료, 지방세, 보육비, 수도요금 제외)1)	180.47	215.23	439.26	258.76
(지방세, 보육비 제외)2)	259.39	303.34	535.54	349.08

주: 1) HBAI의 AHC(After housing cost)와 비교하기 위함

2) HBAI의 BHC(Before housing cost)와 비교하기 위함

자료: JFR (2013), 『A minimum income standard for the UK in 2013』.

'Low Cost but Acceptable (LCA)' 기준 내에서 특정 품목을 포함시키느냐 아니냐에 대한 결정은 소유율(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관한 전국조사로부터 도출된 사회에서의 지배적 소비)과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준(조사로부터 도출된 생활에서 필수품에 대한 합의)에 기초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준은 가구의 80%가 소유하거나 2/3가 필수품이라 간주하는 품목을 포함한다. 이러한 조사들로부터 MIS 계측을 위한 품목, 가격 그리고 내구연수 등이 정해진다. 이와 같은 영국의 표준예산 접근방식은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계측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계측되고 있다. 아래 표에 JRF에 의해 계측된 결과로 가구유형별로 품목들의 가격을 제시하였다.

다. 최저생계비의 수준

영국의 준공식적 빈곤선이라 할 수 있는 중위소득 60% 기준과 평균소득 50% 기준은 주(week) 단위의 소득 기준으로 산출되며, 2011/12년의 경우 아래 <표 3-1-11>과 같다. 영국에서 균등화된 순가처분소득 산출에 기준이 되는 가구유형은 자녀가 없는 부부가구(2인)이며, 이들의 주당 평균소득은 £528, 중위소득은 £427이다. 중위소득 60%인 빈곤선 기준은 £256이다. 이러한 빈곤기준선은 주거비를 제외하면 £36이 줄어들어 중위소득 60% 빈곤기준선은 £220이 된다. 우리나라의 표인가구(4인가구: 부부와 12세, 10세 자녀)와 같은 경우인 5~14세 자녀 2명을 둔 부부가구의 경우 빈곤선은 중위소득 60% 기준 £392이며, 주거비용을 제외한 빈곤선은 중위소득 60% 기준으로 £357이다.

<표 3-1-11> 영국의 준공식적 빈곤선(2011/12)

(단위: 주당, £)

	Mean	Median	60% median
Before Housing Costs			
Couple with no children	528	427	256
Single with no children	354	286	172
Couple with two children aged 5 and 14	808	654	392
Single with two children aged 5 and 14	634	513	308
After Housing Costs			
Couple with no children	459	367	220
Single with no children	266	213	128
Couple with two children aged 5 and 14	743	594	357
Single with two children aged 5 and 14	550	440	264

자료: DWP (2013), 『Households Below Average Income(HBAI) 1994/95-2011/12』.

준공식적 빈곤선과 JFR에서 표준예산 접근방식으로 계측된 MIS를 비교한 표를 살펴 보면 균등화된 순가처분소득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자녀가 없는 부부가구(2인) 형태의 경우 BHC는 중위소득의 69% 수준이나 AHC는 중위소득의 58%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3-1-12〉 영국의 준공식적 빈곤선과 MIS의 비교(2010/11)

(단위: 주당, £)

	Single Working age	Couple, Pensioner	Couple, 2 children	Lone parent, 1 child
a) Before housing costs: median income 2010/11	277	413	578	359
MIS excluding childcare and Council Tax	237	287	497	319
MIS as % of median	86%	69%	86%	89%
b) After housing costs: median income 2010/11	206	356	498	278
MIS excluding childcare, Council Tax, water rates and rent	169	207	410	236
MIS as % of median	82%	58%	82%	85%

주: HBAI의 자료는 2012년 발간자료(2010/11년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MIS예산은 2010년과 2011년의 평균값을 구하여 비교함.

자료: JFR (2013), 『A minimum income standard for the UK in 2013』.

라. 최저생계비에 따른 빈곤율

이와 같이 DWP에 의해 발간되는 HBAI에는 매년 계측되는 준공식적 빈곤선에 의해 가구특성별로 빈곤율이 산출되고 있다. 아래의 표는 중위소득 60%와 70% 기준의 빈곤율로 연도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주거비를 제외하기 전 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기준 전체 빈곤율은 8~12%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주거비를 제외한 후의 소득기준에서는 빈곤율이 9~15% 수준으로 다소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근로연령인구의 빈곤율은 주거비를 제외하기 전 소득기준으로 5~8%, 주거비를 제외한 소득기준으로 7~10% 수준인 반면, 아동빈곤율은 각각 10~19%, 14~25%, 연금수급자(주로 노인) 빈곤율은 각각 14~21%, 8~23%로 예상할 수 있듯이 근로연령 인구의 빈곤율에 비해 훨씬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다만, 연금수급자 빈곤율은 최근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주거비 제외 시 큰 폭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표 3-1-13〉 영국의 준공식적 빈곤선에 의한 빈곤율(2008)

(단위: %)

	주거비 포함(BHC)		주거비 제외(AHC)	
	Below 60% of median	Below 70% of median	Below 60% of median	Below 70% of median
All individuals				
1991 to 1994	12	20	15	22
1992 to 1995	12	20	15	23
1993 to 1996	11	20	14	22
1994 to 1997	12	20	15	22
1995 to 1998	11	20	15	22
1996 to 1999	12	20	15	21
1997 to 2000	12	20	14	21
1998 to 2001	12	19	14	21
1999 to 2002	11	19	13	21
2000 to 2003	10	19	12	21
2001 to 2004	10	19	11	20
2002 to 2005	9	17	11	19
2003 to 2006	8	17	10	18
2004 to 2007	8	17	9	17
2005 to 2008	9	17	10	18
Children				
1991 to 1994	19	29	25	32
1992 to 1995	18	28	23	32
1993 to 1996	17	27	22	31
1994 to 1997	17	27	23	31
1995 to 1998	17	28	23	31
1996 to 1999	17	28	23	31
1997 to 2000	17	27	22	30
1998 to 2001	17	26	21	30
1999 to 2002	16	27	20	30
2000 to 2003	14	25	17	28
2001 to 2004	12	23	15	27
2002 to 2005	11	21	16	26
2003 to 2006	10	20	14	24
2004 to 2007	10	21	15	26
2005 to 2008	12	23	17	27
Working-age adults				
1991 to 1994	8	13	10	14
1992 to 1995	8	13	10	16
1993 to 1996	7	13	10	15
1994 to 1997	7	12	10	14
1995 to 1998	7	13	10	14
1996 to 1999	7	13	9	14
1997 to 2000	7	12	9	14
1998 to 2001	7	12	9	14
1999 to 2002	7	12	8	14
2000 to 2003	6	12	8	14
2001 to 2004	6	12	8	13
2002 to 2005	6	11	8	13
2003 to 2006	5	11	7	13
2004 to 2007	5	11	7	13
2005 to 2008	6	12	8	13

자료: BHPS 1991-2008; DWP, Low-Income Dynamics, 1991-2008.

〈표 3-1-13〉 영국의 준공식적 빈곤선에 의한 빈곤율(2008)(계속)

(단위: %)

	주거비 포함(BHC)		주거비 제외(AHC)	
	Below 60% of median	Below 70% of median	Below 60% of median	Below 70% of median
Pensioners				
1991 to 1994	19	37	21	36
1992 to 1995	19	35	20	36
1993 to 1996	19	34	19	35
1994 to 1997	21	35	21	35
1995 to 1998	20	36	23	34
1996 to 1999	20	36	23	34
1997 to 2000	20	38	23	35
1998 to 2001	21	37	22	35
1999 to 2002	19	37	18	34
2000 to 2003	18	36	17	33
2001 to 2004	17	36	16	31
2002 to 2005	16	32	14	27
2003 to 2006	16	31	11	24
2004 to 2007	14	29	9	20
2005 to 2008	14	27	8	20

자료: BHPS 1991-2008; DWP, Low-Income Dynamics, 1991-2008.

마. 공공부조제도와의 관계: 활용도

영국은 빈곤분석 등에서 저소득의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60%선을 삼고 있으나 공공부조기준선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공공부조기준선은 소득보조(Income Support) 급여기준이 사용된다. 이는 매년 소매물가지수(RPI)에서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1983년부터 임대료를 제외한 Rossi Index의 상승률을 적용하여 조정되며, 1992년부터는 RPI에서 임대료, 지방세, 모기지 이자를 뺀 New Rossi index를 사용하고 있다. Income Support의 급여는 개인이 필요로 하는 기본 생활비를 의미하는 개인수당(Personal allowance)과 특별한 욕구가 있는 가구 혹은 개인에게 추가로 주어지는 수당인 부가금(Premiums)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의 표준가구에 해당하는 30세 이상의 부부와 2명의 아동으로 구성된 가구에 대한 Income Support 기준은 주거비를 포함할 경우 1991년에는 중위소득 60%의 48.2%수준이었으며, 2008년에는 중위소득 60%의 83.4%에 이른다. 중위소득 60% 대비 가구유형별 소득보조 최대급여액 비율을 보면, 아동이 없는 독신 36.9%, 아동이 없는 부부 38.9%, 아동이 2명인 독신

44.3%, 아동이 2명인 부부 58.0% 수준이다²⁷⁾.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준공식적 빈곤선인 중위소득 60% 기준과 Income Support의 소득보조 급여기준과는 실질적인 연관성이 없다. 또한, 영국의 경우 주거급여(Housing costs) 등이 별도의 제도로 지급되고 있는 만큼 Income Support의 급여 수준과 빈곤선을 직접 비교하는 것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준공식적 빈곤선은 정책적 방향과 대상의 우선순위 배정 등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표 3-1-14〉 연도별 소득보조 선정기준

(단위: 주당, £, %)

구분	개인수당1)			부가금1)			표준가구 ²⁾ (a)	중위소득의 60% ³⁾ (b)	(a)/(b)
	25세이상 독신	18세이상 부부	11세이하 아동	가족	중증 장애	노인			
1991	39.65	62.25	13.35	7.95	31.25	13.75	96.90	201	48.21
1992	42.45	66.60	14.55	9.30	32.55	14.70	105.00	200	52.50
1993	44.00	69.00	15.05	9.65	33.70	17.30	108.75	207	52.54
1994	45.70	71.70	15.65	10.05	34.30	18.25	113.05	208	54.35
1995	46.50	73.00	15.95	10.25	35.05	18.60	115.15	212	54.32
1996	47.90	75.20	16.45	10.55	36.40	19.15	118.65	220	53.93
1997	49.15	77.15	16.90	10.80	37.15	19.65	121.75	219	55.59
1998	50.35	79.00	17.30	11.05	38.50	20.10	124.65	229	54.43
1999	51.40	80.65	20.20	13.90	39.75	23.60	134.95	233	57.92
2000	52.20	81.95	26.60	14.25	40.20	26.25	149.40	241	61.99
2001	53.05	84.65	31.45	14.50	41.55	39.10	162.05	248	65.34
2002	53.95	84.65	33.50	14.75	42.25	44.20	166.40	255	65.25
2003	54.65	85.75	38.50	15.75	42.95	47.45	178.50	258	69.19
2004	55.65	87.30	42.27	15.95	44.15	49.80	188.19	259	72.66
2005	56.20	88.15	43.88	16.10	45.50	53.25	192.01	258	74.42
2006	57.45	90.10	45.58	16.25	46.75	56.60	197.51	262	75.39
2007	59.15	92.80	47.45	16.43	48.45	59.90	204.13	261	78.21
2008	60.50	94.95	52.59	16.75	50.35	63.55	216.88	260	83.42

주: 1) 각년도 4월 기준

2) 한국의 표준가구기준(36세 부, 33세 모, 7세와 5세의 자녀)을 따라 30세 이상의 부부와 2명의 아동. 주거비지출이전

3) Equivalised income levels (in January 2009 prices).

자료: DWP(2010), 『Low-Income Dynamics 1991-2008(Great Britain)』.

<http://www.dwp.gov.uk/docs/benefit-rates-2008.pdf>.

27) 아동이 없는 경우가 아동이 있는 경우보다 부부가 독신보다 선정기준이 높다.

〈표 3-1-15〉 가구유형별 소득보조 최대급여액(2011/12)

(단위: 주당, £)

구분	소득보조 최대급여액 (a)	주거비지출이전		주거비지출이후		(a)/(b)
		중위 소득	중위 소득의 60%(b)	중위 소득	중위 소득의 60%	
아동이 없는 독신	67.50	286	172	213	128	39.2
아동이 없는 부부	105.95	427	256	367	220	41.4

자료: DWP (2013), 『Households Below Average Income(HBAI) 1994/95-2011/12』.

3. 캐나다의 최저생계비

가. 역사적 기원 및 주요 내용

우리와 달리 캐나다에는 공식적인 빈곤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빈곤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들을 고려하고 있다.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은 저소득(low income)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LICOs(the Low Income Cut-offs), LIMs(the Low Income Measures), 그리고 MBM(Market Basket Measure)을 활용하고 있다. 그 중 LICOs는 1970년대 이후 가장 오랫동안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준공식적 빈곤선으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 최근에는 하나의 빈곤선만으로는 다차원적인 빈곤수준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비판 때문에 캐나다 통계청은 LICOs 외의 빈곤선을 실험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고 있다(Statistics Canada, 2012a).

캐나다 빈곤선은 실재적 혹은 가설적 사회조건들을 공공정책과 관련하여 비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²⁸⁾. 주어진 사회조건에서 빈곤이 어느 정도인가에 답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빈곤척도(specific measure of poverty)는 박탈된 인구규모를 확정하고, 그 박탈의 정도에 대한 총합을 구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 30년 동안 캐나다의 빈곤측정에 대한 논쟁은 인권(human rights)과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되어 진행되어 왔다. 논쟁의 핵심은 빈곤인구를 추정할 때 필요한 ‘빈곤선 소득(poverty line income)’을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Osberg, 2007: 2).

28) 이하의 내용은 Osberg(2007)를 참고하였다.

캐나다 빈곤선의 역사는 LICOs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1967년 Jenny Poduluk가 고안한 LICOs 방식은 1968년 캐나다 경제위원회(Economic Council)의 5차 연례보고서(Fifth Annual Review)에 소개되었다. 1969년부터 LICOs에 의한 빈곤선이 캐나다 통계청에 의해 계측되기 시작했다²⁹⁾. 더불어 1960년대 미국 및 영국에서 빈곤문제가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부상하면서³⁰⁾, 캐나다 상원(the Senate of Canada) 또한 1971년 빈곤에 대한 보고서³¹⁾를 발표하게 되었다. 뒤이어 캐나다 통계청은 1973년 가구규모별·지역별 빈곤선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LICOs를 개정하였다. LICOs 빈곤선의 수준³²⁾을 살펴보면, 1978년 4인가구 기준 도시 지역(50만명 이상) 빈곤선은 \$31,800, 농어촌 지역은 \$23,200으로 나타났다(Osberg, 2007: 3).

이처럼 LICOs는 일찍부터 캐나다의 준공식 빈곤선으로 활용되었지만, 소비자물가지수만 고려하고 실질소득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수준이 현저히 낮아지는 문제가 생겼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계청은 1992년 새로운 기준을 재설정(rebasing)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당해 년도 LICOs 빈곤선은 1992년 LICOs를 기준(base)으로 1992년과 당해 년도 간 소비자물가지수(the Consumer Price Index) 차이를 반영하여 계산되고, 이를 세전소득과 세후소득 기준의 2가지로 제시해 왔다(Statistics Canada, 2012b).

둘째, LIMs(the Low Income Measures)은 1984년 마이클 울프슨(Michael Wolfson)과 존 에반스(John Evans)의 토론문서(Discussion Paper)³³⁾에서 최초로 제안되었다(Statistics Canada, 2012b). 더불어 1980년대 초부터 LIS(Luxembourg Income Study)는 중위 균등화 가구소득(median equivalent household income)의 50% 개념에 기반하여 빈곤에 대한 국가 간 비교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가 캐나다에도 영향을 주어, 캐나다 통계청은 1991년부터 매년 가구규모별

29) Ross에 따르면, 1973년 개정된 LICOs의 계측방식은 1969년~1972년 사이에 적용되었던 방식과 다르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LICOs는 1969년부터 발표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Ross, 2000: 15).

30) 미국에서는 1964년 린든 존슨 대통령이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을 선포하였고, 영국에서는 부와 소득분포에 대한 조사를 위해 왕립위원회를 구성하였다(Osberg, 2007: 3).

31) 이 상원보고서는 당시 빈곤선 수준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간기본소득(Guaranteed Annual Income)으로 보장할 것을 지지했다(Osberg, 2007: 3).

32) 최초 Poduluk이 제시한 LICOs의 '저소득가구' 개념은 '가구소득의 대부분을 의식주비로 지출하는 가구'였고, '대부분'에 대한 해석은 가구소득 대비 의식주 지출 비용이 70% 정도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1973년 이후 62% 정도가 그 비율로 채택되어 왔다(Osberg, 2007: 3).

33) Michael Wolfson and John Evans, "Statistics Canada's Low Income Cut-Offs Methodological Concerns and possibilities: A Discussion Paper"(Ottawa: Statistics Canada, December 1989).

LIMs 빈곤선(균등화된 가구소득의 중위값의 50%)을 발표하고 있다(Osberg, 2007).

이 LIMs 빈곤선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2010년에 한차례 수정이 이루어졌다. 그 주요내용은 3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회계단위(accounting unit)를 경제적 가족(economic family)에서 가구(household)로 대체하였다. 둘째, 균등화 지수(equivalence scale)를 가구원수의 제곱근(the square root of household size)으로 변경하였다. 셋째, 빈곤선 계산시 분석 단위(unit of analysis)를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로 바꾸었다(Murphy, Zhang and Dionne, 2010).

셋째, MBM(the Market Basket Measure)은 1992년 프레이저 연구소(the Fraser Institute)에서 마켓 바스켓을 활용한 빈곤선 측정방법(a market basket methodology)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다른 방식(예컨대, LICOs, CCSD³⁴⁾)으로 계측한 빈곤선과 비교할 때 MBM에 의한 빈곤선은 약 50% 수준이었고, 그 결과 MBM에 의한 빈곤율은 다른 방식에 의한 빈곤율의 1/6~1/4 수준이었다. 한편 2000년에는 캐나다 인적자원개발부(Human Resource Development³⁵⁾)가 최초로 MBM 방식에 기초한 빈곤선을 측정하였고, 2002년 4인가구 기준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빈곤선을 발표하였다. 이후 2009년에서 2010년 초 사이에 MBM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Hatified, Pyper and Gustajtis, 2010). 주요 검토내용은 MBM 방식이 2010년 캐나다의 맥락에서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수준을 반영하는지, 이러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의 지역 간 편차를 고려하는지, 마켓 바스켓 내에 필수품들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MBM 빈곤선은 2000년 base에서 2008년 base로 그 기준을 재설정(rebasing)하게 되었다(Statistics Canada, 2010). MBM은 공식적 빈곤선은 아니지만, 캐나다의 연방, 주, 지방 정부차원에서 저소득층의 규모와 심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나. 최저생계비 측정방식

캐나다의 3가지 주요 빈곤선인 LICOs와 LIM, 그리고 MBM의 계측방식을 설명하

34) 캐나다 사회개발위원회(Canadian Council on Social Development)에서 개발한 소득불평등선(lines of income inequality)를 말한다(Ross, 2000).

35) 현재 명칭은 인적자원기술개발부(Human Resources and Skills Development, HRSD)이다.

도록 한다. 3가지 빈곤선 중 LICOs와 LIMs는 매년 캐나다 통계청에서, MBMs은 캐나다 인적자원기술개발부(HRSD)에서 지역별 계측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가구규모별·지역별로 저소득층(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계층)을 구분하기 위해 LICOs는 평균가구의 세후 소득³⁶⁾을 X축으로 하고, 세후 소득 대비 의식주 지출 비율을 Y축으로 하는 그래프를 바탕으로 평균가구의 세후 소득 대비 의식주 지출 비율을 먼저 구하고, 이 비율보다 20%p만큼 높은 비율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빈곤선으로 추정한다.

캐나다 통계청은 현재 1992년 가구소비자료(Family Expenditure Survey)에 기초한 LICOs를 기준(base)으로 삼고 있다. 이는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갱신되고 있다(Statistics Canada, 2010b). 따라서 LICOs는 가격변동만 고려할 뿐 1992년 이후 소비패턴의 변화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LICOs의 매년 갱신방법은 다음과 같다.

$$LICO_y = LICO_{1992} \times \frac{CPI_y}{CPI_{1992}}$$

단, $LICO_y$ 는 당해년도(y) 기준선(cut-off), $LICO_{1992}$ 은 1992년 기준 기준선(cut-off).

CPI_y 는 당해년도(y) 소비자물가지수(CPI), CPI_{1992} 은 1992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CPI)

예를 들어, 2011년 기준 LICOs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먼저 1992년 4인가구 세후 소득 기준의 LICOs는 \$21,359였고, 1992년 소비자물가지수는 84.0으로 나타났다. 이때 2011년 소비자물가지수가 119.9로 나타났다고 할 경우, 2011년 기준 LICOs는 $LICO_{1992} \times CPI_{2011}/CPI_{1992} = 21,359 \times 119.9/84.0 = \$30,487$ 가 된다(Statistics Canada, 2010b).

둘째, 국가간 비교에 적합한 LIMs은 균등화된 가구소득의 중위값의 50%를 빈곤선으로 추정하고, 이를 다시 가구규모별로 계산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구균등화소득을 구한다(가구소득 ÷ $\sqrt{\text{가구원수}}$). 다음으로 균등화된 가구소득 분포에서 중위값을 찾는다. 이때 중위값의 50%가 1인 가구에 대한 LIM이 된다.

36) 캐나다 통계청에서는 세전 소득보다 세후 소득 기준 빈곤선 계측을 선호한다. 첫째, 세전 소득은 소득세가 개별가구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개별가구들은 세후소득으로 필수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세후 소득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기 때문이다(Statistics Canada, 2012b: 9).

이를 바탕으로 $\sqrt{\text{가구원수}}$ 를 적용하여 가구규모별 LIMs를 구한다(Statistics Canada, 2010b). 균등화 소득분포의 중위값의 50%는 OECD 등 국제기구에서 보통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LIMs을 활용한 결과는 국가간 비교에 적합하다.

LIMs 빈곤선은 노동 및 소득역동성 조사(the Survey of Labour and Income Dynamics, SLID)에 바탕하여 시장소득, 세전 소득, 세후 소득 기준으로 3가지 종류의 빈곤선으로 제시된다. SLID 조사는 매년 가구소득을 조사하므로 LIMs 빈곤선을 계산할 때 인플레이션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Statistics Canada, 2010b).

셋째, MBM은 4인 가구(성인 2명, 아동 2명)³⁷⁾가 기본적인 욕구(basic needs)를 충족하기 위한 생필품에 해당하는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여 그 구입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을 빈곤선으로 계측한다. 마켓 바스켓 품목에는 식료품(food), 피복 및 신발(clothing and footwear), 주거(shelter), 교통(transportation), 기타 필수적 재화 및 서비스가 포함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tatistics Canada, 2010b: 12).

- 식료품비: 2008년 영양식단 바스켓(the National Nutritious Food Basket)에 의한 식단표
- 의복비: 4인 가구(성인 2명, 아동 2명)에게 필요한 의복 및 신발류
- 주거비: 전기·난방·수도 및 가구집기가 구비되어 있고, 침실(2~3개 정도)이 있는 주택에 사는데 드는 주거비의 중위값
- 교통비: 대중교통비(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자가차량 소요비)
- 기타 필수적 재화와 서비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MBM 방식은 2010년에 그 기준이 2000년 base에서 2008년 base로 재설정(rebasing)되었는데(Statistics Canada, 2010), 주요하게 4가지 점이 개선되었다. 첫째, 마켓 바스켓 품목의 변화, 둘째, 마켓 바스켓 각 품목별 가격의 변화, 셋째, 마켓 바스켓 각 품목에 해당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한 가처분 소득 측정의 변화, 넷째, 마켓 바스켓 비용을 추정한 49개 지역 범위의 조정이 그것이다.

37) 이 준거가구는 성인 2명(25세 이상 49세 이하), 아동 2명(9세, 13세)로 구성된다(Statistics Canada, 2012b: 11).

다. 최저생계비의 수준

캐나다 통계청은 매년 그 전년도 기준 LICOs를 발표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 발표한 2011년 기준 LICOs는 세후소득 기준 도시지역(인구 500,000명 이상인 지역) 4인가구의 경우 \$36,504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기준 \$35,469와 비교할 때 \$1,035 증가한 것이다. 이는 2011년 소비자 물가지수(119.9)가 2010년의 그것(116.5)과 비교할 때 2.9% 증가했기 때문이다.

아래의 <표 3-1-16>은 2011년 LICOs를 세전 및 세후소득을 기준으로 가구규모별·지역별로 정리한 것으로, 총 70가지 종류로 제시하고 있다. 세후 소득 기준 4인가구의 LICOs 빈곤선의 수준을 살펴보면, 동일한 세후소득을 가진 가구라 할지라도 지역별로 빈곤여부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연간 세후소득이 \$25,000인 4인가구의 경우 지역규모가 큰 도시(빈곤선: \$36,504)에서는 빈곤층이지만, 지방(농어촌)에 살 경우(빈곤선: \$23,879)에는 빈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표 3-1-16> 캐나다의 2011년 LICOs 수준

(단위: \$)

구분	가구 규모	지역 규모				
		500,000인 이상	100,000 ~ 499,999	30,000 ~ 99,999	30,000 이하	지방(농어촌)
과세 후	1인	19,307	16,328	16,124	14,454	12,629
	2인	23,498	19,872	19,625	17,592	15,371
	3인	29,260	24,745	24,437	21,905	19,141
	4인	36,504	30,871	30,487	27,329	23,879
	5인	41,567	35,154	34,717	31,120	27,192
	6인	46,099	38,986	38,502	34,513	30,156
	7인 이상	50,631	42,819	42,286	37,906	33,121
과세 전	1인	23,298	20,065	19,941	18,246	16,038
	2인	29,004	24,978	24,824	22,714	19,966
	3인	35,657	30,707	30,517	27,924	24,545
	4인	43,292	37,283	37,053	33,905	29,802
	5인	49,102	42,285	42,025	38,454	33,800
	6인	55,378	47,692	47,398	43,370	38,122
	7인 이상	61,656	53,097	52,770	48,285	42,443

자료: Statistics Canada(2012b), 『Low Income Lines, 2010 to 2011』, Statistics Canada 재구성

LIMs은 SLID(Survey of Labour and Income Dynamics) 조사자료에 근거하여 캐나다 통계청에서 발표³⁸⁾하고, 3가지 종류(시장 소득, 세전 소득, 세후 소득)로 계측된다. 아래 <표 3-1-17>은 2007년부터 가장 최근 연도인 2010년의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LIMs를 나타내고 있다. 2010년 세후소득에 근거한 4인가구 기준 LIM은 \$38,322로 2009년도 기준 \$37,562보다 \$760 증가하였다.

<표 3-1-17> 연도별·소득별 LIM의 수준: 4인가구 기준

(단위: \$)

연도	시장소득		세전소득		세후소득	
	Pre-revision	Post-revision ¹⁾	Pre-revision	Post-revision	Pre-revision	Post-revision
2006	34,170	34,232	38,726	38,806	33,470	33,578
2007	35,722	35,906	40,506	40,630	35,404	35,512
2008	37,644	37,736	42,378	42,596	37,164	37,336
2009	37,068	37,300	42,256	42,500	37,360	37,562
2010	-	37,920	-	43,544	-	38,322

주: 1) 사후개정(post-revision)은 노동 및 소득역동성 조사(SLID)에 기반한 2006년부터 2009년 추정치 계산에서 2001년 Census 자료 대신 당시 가장 최신자료인 2006년 Census 자료를 이용한 결과이다. 표에 제시된 수치를 '2(4인가구의 제공근)'로 나눈 뒤, 다시 원하는 가구규모의 제공근을 곱하면 가구규모별 LIM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가구규모별 LIM을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자료: Statistics Canada(2012b), 『Low Income Lines, 2010 to 2011』.

MBM은 캐나다 인적자원기술개발부(HRSD)에서 계측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마켓 바스켓의 품목을 구성하는 기준은 전 지역에 걸쳐 동일하지만, 지역별 빈곤선의 수준은 차이가 있다. 즉, 마켓 바스켓의 총비용은 10개의 주와 3개의 준주를 기준으로 세부적으로는 49개 지역별로 계측된다. 아래 <표 3-1-18>에서는 주요한 5개 도시지역에 대해 4인가구(성인 2인, 아동 2인) 기준 MBM의 수준 및 마켓 바스켓 품목별 비용이 제시되고 있다. 2010년 기준 5개 도시 지역 중 온타리오(Ontario) 주의 토론토(Toronto) 지역의 MBM이 \$33,17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알베르타(Alberta) 주의 캘거리(Calgary) 지역이 \$32,502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38) LIMs과 MBM의 경우 발표시점과 가장 가까운 최신 조사자료에 근거하여 빈곤선을 계측하게 된다. 그런데, 조사자료는 기준연도가 끝난 후 16~18개월 정도 이후에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는 전년 또는 기준 빈곤선까지 확인할 수 있다(Statistics Canada, 2012b: 4).

〈표 3-1-18〉 캐나다의 2010년 MBM 빈곤선의 수준: 4인가구 기준

(단위: \$)

지역	식료품	의복과 신발	주택	교통	기타	합계
Toronto(Ontario)	9,016	1,892	4,381	9,667	8,221	33,177
Calgary(Alberta)	9,538	1,939	2,938	9,438	8,650	32,502
Ottawa-Gatineau, Ontario part(Ontario/Quebec)	9,187	1,852	9,433	3,364	8,320	32,155
Vancouver (British Columbia)	9,913	2,249	2,779	7,683	9,166	31,789
Montreal(Quebec)	9,959	1,839	2,417	7,311	8,892	30,417

주: 2008년 base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임.

자료: Statistics Canada(2012c), 『Market Basket Measure Thresholds (2008 base) for reference family, by Market Basket Measure region and component, 2010 constant dollars』, Statistics Canada.

라. 공공부조제도와와의 관계: 활용도

캐나다의 사회정책은 연방정부 구성 이전부터 주로 종교단체 등의 민간단체와 지역 사회 및 기초자치단체(local government)에 의해 수립되고 시행되었다. 1867년 연방정부 성립 이후에도 주정부가 사회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캐나다의 공공부조제도 또한 주정부는 연방정부가 제시하는 틀을 참고하여 주별로 구체적인 사항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캐나다의 공공부조제도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개별 주에서 어떻게 세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조영훈, 2011).

국립복지위원회(National Council of Welfare)는 저소득층의 총복지급여(total welfare income)를 구성하는 세부 프로그램을 구조화한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캐나다 내 10개의 주와 3개의 준주에서 자율적으로 수급자격과 급여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또한 4가지 대표적인 가구형태(실업자 단독가구, 장애인 단독가구, 2세 아동이 있는 한부모가구, 10~15세 아동 2명이 있는 부부가구)에 따라 가구유형별로 수급가능한 복지급여액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 프로그램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3-1-19〉와 같다.

〈표 3-1-19〉 캐나다의 총복지급여 구성 프로그램별 소득유형

구분	설명
Basic Social Assistance	수급자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복지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을 말함. 여기에는 의식주, 공과금(utilities), 개인 가구욕구에 대한 급여를 포함함.
Additional Benefits	교통수당, 아동양육, drug benefits와 non-insured medical service와 같은 특정욕구에 대한 추가적인 급여를 말함.
Federal Child Benefits	아동 급여 프로그램은 소득조사(income test)에 기초하여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
Province/Territorial Child Benefits	6개 주와 3개의 준주에서 아동급여 프로그램이 적용됨.
Goods and Services Tax Credit(GST Credit)	저소득 개인이나, 가족 등에 대한 세금공제제도로서, 가족의 순수입, 자녀의 수 및 결혼상황에 따라 세금공제여부와 금액이 결정됨.
Provincial/Territorial Tax Credits	이 역시 GST Credit과 같은 세금공제제도이며, 주별로 그 명칭에 차이가 있음.

자료: National council of welfare(2012), 『Welfare Incomes 2009』 재구성

캐나다에서 공식적으로 활용되는 3가지 빈곤선(LICOs, LIMs, MBMs)은 주로 개별 가구의 빈곤지위 및 이에 대한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주로 활용된다. 반면 이 빈곤선들은 공공부조제도의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직접 활용되지는 않고 있다. 단지 총복지급여액을 빈곤선과 비교함으로써 개별 정책의 효과성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음 〈표 3-1-20〉은 캐나다 주요 4개 주의 복지급여 수준을 정리한 것이다. 총 복지급여(Total Welfare Income)는 각 주별 복지급여, 아동급여, Tax Credit 프로그램, 연방아동급여, 재화 및 서비스 판매에 대한 세액공제(Goods and Services Tax Credit, GST Credit)을 포함한다. 또한 제시된 급여수준은 가구규모별 최대(기본)복지급여액³⁹⁾이다(National council of welfare, 2009). 가구유형 및 지역에 따라 프로그램의 종류가 상이하고, 그에 따라 급여액도 달라질 수 있다.

39) 이러한 급여는 거주지(residence), 아동의 연령(ages of children), 가구주의 고용가능성, 주거유형, 개별사례사(case history)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한 것이다(National council of welfare, 2012).

〈표 3-1-20〉 캐나다의 2009년 가구구성별 주별 복지급여수준

(단위: \$)

지역	총복지소득의 구성프로그램별 급여유형	실업자 단독가구	장애인 단독가구	한부모 ·한자녀 ¹⁾	부부 ·두자녀 ²⁾
Quebec	사회부조(기초)	7,067	10,595	8,507	10,947
	사회부조(부가)	-	-	960	1,159
	연방아동세금급여	-	-	4,574	6,512
	주정부아동급여	-	-	2,924	3,249
	GST credit ⁴⁾	245	286	619	747
	주정부세금급여	-	-	-	-
Ontario	총복지급여	7,312	10,881	17,5835)	22,614
	사회부조(기초)	6,877	12,284	10,937	13,210
	사회부조(부가)	-	-	-	-
	연방아동세금급여	-	-	4,574	6,512
	주정부아동급여	-	-	850	1,700
	GST credit	245	324	619	747
Alberta ³⁾	주정부세금급여	379	297	392	526
	총복지급여	7,501	12,905	17,372	22,695
	사회부조(기초)	6,996	13,956	10,668	14,472
	사회부조(부가)	-	-	-	275
	연방아동세금급여	-	-	4,462	6,607
	주정부아동급여	-	-	-	-
British Colombi a	GST credit	245	341	619	747
	주정부세금급여	-	-	-	-
	총복지급여	7,241	14,297	15,749	22,101
	사회부조(기초)	7,320	10,877	11,347	13,213
	사회부조(부가)	35	35	80	290
	연방아동세금급여	-	-	4,574	6,512
	주정부아동급여	-	-	-	-
	GST credit	245	303	619	747
	주정부세금급여	178	178	280	417
	총복지급여	7,778	11,393	16,8995)	21,179

주: 주별 가구유형별 복지급여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는 '-'로 표시함

1) 자녀 연령은 2세임.

2) 자녀 연령은 10~15세임.

3) Alberta의 복지급여액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별도로 운영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소득지원(Assured Income for the Severely Handicapped: AISH)에 의한 급여를 포함함

4) GST Credit는 재화 및 서비스 판매에 대한 세액공제를 말하여, 연간 수급받는 분기별 환급액을 포함함

자료: National council of welfare(2012), 『Welfare Incomes 2009』 재구성

아래 〈표 3-1-21〉에서는 저소득가구의 총복지급여액을 빈곤선(세후소득 기준 LICOs 및 MBM), 그리고 세후소득(중위값 및 평균값)의 수준과 비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총복지급여액(최대공공부조급여액)의 수준은 빈곤선과 비교할 때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총복지급여액을 세후 소득 기준 LICO와 MBM 빈곤선과 확인하면, 가구유형과 지역에 따라 전체적으로 복지급여액이

빈곤선에 해당되는 소득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Alberta 지역에 사는 실업자 단독가구의 세후 LICO 빈곤선 대비 최대복지급여액 비율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39.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같은 Alberta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단독가구의 MBM 대비 최대복지급여액은 타 지역에 비해 60.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총복지급여액을 세후소득의 중위값, 평균값과 비교하여 설명하면, Alberta 지역에 사는 아동 1명이 있는 한부모가구의 경우 세후소득 중위값 대비 총복지급여액은 37.1%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 Quebec 지역에 거주하는 4인가구(부부와 아동 2명)의 경우 세후소득 평균값 대비 총복지급여액의 비중은 6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리하면 가구유형별로 수급 가능한 총복지급여액의 수준은 지역별로 편차가 큼을 알 수 있다.

〈표 3-1-21〉 2009년 기준 캐나다의 지역별·가구유형별 총복지급여의 수준

(단위: \$, %)

지역	구분	실업자 단독가구		장애인 단독가구		한부모·한자녀		부부·두자녀	
		금액	비율 ¹⁾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Quebec	총복지급여	7,312	-	10,881	-	17,583	-	22,614	-
	AT LICO ²⁾	18,421	39.7	18,421	59.1	22,420	78.4	34,829	64.9
	MBM	14,158	51.6	14,158	76.9	18,405	95.5	28,316	79.9
	세후소득의 중위값	21,346	34.3	21,346	51.0	34,517	50.9	76,227	29.7
	세후소득의 평균값	26,870	27.2	26,870	40.5	34,891	50.4	37,198	60.8
Ontario	총복지급여	7,501	-	12,905	-	17,372	-	22,695	-
	AT LICO	18,421	40.7	18,421	70.1	22,420	77.5	34,829	65.2
	MBM	14,158	53.0	15,633	82.5	20,323	85.5	31,267	72.6
	세후소득의 중위값	22,667	33.1	22,667	56.9	35,008	49.6	78,591	28.9
	세후소득의 평균값	26,870	27.9	32,686	39.5	41,910	41.5	43,113	52.6
Alberta	총복지급여	7,241	-	9,433	-	15,749	-	22,101	-
	AT LICO	18,421	39.3	18,421	51.2	22,420	70.2	34,829	63.5
	MBM	14,158	51.1	15,491	60.9	20,138	78.2	30,982	71.3
	세후소득의 중위값	30,515	23.7	30,515	30.9	42,447	37.1	97,891	22.6
	세후소득의 평균값	26,870	26.9	41,609	22.7	45,720	34.4	51,435	43.0
British Columbia	총복지급여	7,778	-	11,392	-	16,899	-	21,179	-
	AT LICO	18,421	42.2	18,421	61.8	22,420	75.4	34,829	60.8
	MBM	14,158	54.9	15,032	75.8	19,542	86.5	30,065	70.4
	세후소득의 중위값	24,437	31.8	24,437	46.6	35,509	47.6	76,411	27.7
	세후소득의 평균값	26,870	28.9	34,691	32.8	36,295	46.6	43,614	48.6

주: 1) 빈곤선 및 세후소득(중위값, 평균값) 대비 총복지급여액의 비율임

2) 세후소득 기준 빈곤선(After Tax Low Income Cut-offs)임

자료: National council of welfare(2012), 『Welfare Incomes 2009』 재구성

4. 호주의 최저생계비

가. 역사적 기원 및 주요 내용

호주는 국가의 공식적 빈곤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1960년대 고안된 헨더슨 빈곤선(Henderson Poverty Line)이 호주의 복지정책과 급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널리 쓰였으나, 최근에는 중위소득 개념에 기초한 빈곤선이 보다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

호주 빈곤연구의 시발은 1907년 Harvest 판결로 알려진 재판에서 Higgins 판사에 의해 이루어진 근로자 기본욕구(The Human Needs of Labour)로 알려져 있다(Saunders, 1998). 이 판결에서 Higgins 판사는 지역사회 시민으로서 평균적인 피용자의 정상적인 욕구에 적절한 기초임금을 근로일당 7실링 혹은 주당 42실링의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1920년 왕립위원회 보고서에서 기초임금이 권고되었으나 실행되지는 않았으며, 다만 분기 가격변화에 따라 기초임금을 자동적으로 연동시키는 제안이 채택되었다(Saunders, 1998).

호주의 빈곤선에 획기적인 영향을 준 헨더슨 빈곤선은 1964년에 Henderson 교수의 지휘 아래 멜버른 대학 응용경제·사회조사연구소(the Institute of Applied Economic and Social Research)가 시행한 빈곤조사에서 처음으로 고안되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기초임금⁴⁰⁾에 의해 제공되는 최소 생활수준에 기초하고 있으며, 해당 시점의 평균 소득에 연동되어 갱신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헨더슨 빈곤선은 그 유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즉, 빈곤선 도출은 세후(稅後) 소득을 반영하지만, 빈곤선의 갱신은 세전(稅前) 주당 평균 임금을 반영함에 따라 갱신된 빈곤선은 세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다. 또한 갱신을 위한 주당 평균소득은 협소한 소득 개념으로 사회보장급여 등의 비임금 소득의 변화가 빈곤의 상태에는 영향을 미치는 반면 빈곤선에는 반영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빈곤선의 소득이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헨더슨 빈곤선은 1981년부터

40) 이 기초 임금의 개념은 '문명화된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인간으로서 평균 피용인의 통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임금이다. 이는 1907년 Arbitration Court 판결에 의해 설정되었다(Henderson, Harcourt and Harper, 1970).

가처분 소득을 빈곤선 갱신에 이용하고 있다. 이는 호주의 분기별 가처분소득과 인구의 추정치가 발표되어 가능한 작업이었으며, 이러한 새로운 빈곤선 갱신 방법은 세후 소득을 반영하고 넓은 소득개념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도 빈곤선 갱신에 이용하는 가처분소득과 인구 수준이 추정치에 불과함에 따라 빈곤선 자체가 수정을 전제로 하는 추정치로 문제가 있다.

이처럼 그동안 핸더슨 빈곤선은 갱신 방법과 가구 규모 및 구성에 따른 조정 등과 관련되어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호주 정부는 핸더슨 빈곤선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빈곤 연구자들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추세이다. 현재 호주 정부나 연구자들은 중위소득 개념에 기초한 빈곤선을 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다.

나. 최저생계비 측정방식

빈곤은 특정 소득단위의 소득이 해당 기준소득보다 낮은 상태를 의미하며, 빈곤선은 다양한 소득단위 유형에 적용되는 소득수준이다. 여기서 소득단위는 대체로 그 단위의 소득으로 유지되는 가족집단이다.

핸더슨 빈곤선은 Henderson 빈곤조사에 의해 설정된 1973년 9월 분기 \$62.70의 기준소득에 기초하고 있다. 기준소득은 표준가구(2명의 성인과 2명의 피부양 아동)가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가처분소득(최저임금+아동양육수당)으로, 이는 소득 공제 후 조정된 주당 평균소득(adjusted average weekly earnings)의 56.5%와 같다.

표준가구 이외의 가구에 대한 빈곤선은 균등화지수(equivalence scale)를 사용하여 그 수준을 정한다. 균등화지수⁴¹⁾는 각 가구의 '구성 형태'와 '가구의 근로 유무' 그리고 '주거비 필요성'이라는 세 가지 변수에 의해 정해진다. 가구주가 근로를 하지 않는 가구는 근로를 하는 가구에 비해 균등화지수가 낮는데, 이는 근로와 관련된 교통비와 식비, 의류비가 제외되기 때문이다.

41) 핸더슨 빈곤선의 균등화 지수는 1954년 뉴욕에서 수행된 한 연구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오래전의 외국 자료를 호주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자료를 활용한 균등화 지수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Whiteford(1985)는 전반적으로 핸더슨 균등화 지수가 적절하다고 결론지었다(David Johnson, 1987).

〈표 3-1-22〉 핸더슨 빈곤선의 가구균등화 지수

가구 유형	가구주 근로		가구주 비근로	
	주거비 포함	주거비 제외	주거비 포함	주거비 제외
1. 부부	0.7122	0.5209	0.6115	0.4201
2. 부부·자녀 1명	0.8561	0.6475	0.7554	0.5468
3. 부부·자녀 2명	1.0000	0.7741	0.8993	0.6734
4. 부부·자녀 3명	1.1439	0.9007	1.0432	0.8000
5. 부부·자녀 4명	1.2878	1.0259	1.1871	0.9252
6. 부부·자녀 5명	1.4245	1.1453	1.3237	1.0446
7. 부부·자녀 6명	1.5612	1.2734	1.4604	1.1727
8. 부부·자녀 7명	1.6978	1.3928	1.5971	1.2921
9. 부부·자녀 8명	1.8345	1.5209	1.7338	1.4201
10. 부부·자녀 9명	1.9712	1.6489	1.8705	1.5482
11. 부부·자녀 10명 이상	2.1367	1.7885	2.0360	1.6878
12. 독신	0.5324	0.3583	0.4317	0.2576
13. 한부모·자녀 1명	0.6835	0.4921	0.5827	0.3914
14. 한부모·자녀 2명	0.8273	0.6187	0.7266	0.5180
15. 한부모·자녀 3명	0.9712	0.7453	0.8705	0.6446
16. 한부모·자녀 4명	1.1151	0.8719	1.0144	0.7712
17. 한부모·자녀 5명	1.2590	0.9971	1.1583	0.8964
18. 한부모·자녀 6명	1.3957	1.1165	1.2950	1.0158
19. 한부모·자녀 7명	1.5324	1.2446	1.4317	1.1439
20. 한부모·자녀 8명	1.6691	1.3640	1.5683	1.2633
21. 한부모·자녀 9명	1.8058	1.4921	1.7050	1.3914
22. 한부모·자녀 10명 이상	1.9424	1.6201	1.8417	1.5194

자료: Melbourne Institute of Applied Economic and Social Research(March quarter 2013).

아래 공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핸더슨 빈곤선은 일인당 가구 가처분소득 지수(index)를 사용하여 기준 시점 이후 매 분기 계속 갱신된다. 이 지수는 호주 통계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에서 제공되는 가구 가처분소득과 인구의 추정치로부터 계산된다. 앞서 언급하였듯 지수는 추정치에 기초하기 때문에 빈곤선 그 자체가 추정치가 된다. 따라서 각 분기 빈곤선은 다음 분기에 수정되어 발표된다.

$$P_{Ht_{1-4}} = 62.7 \times H_e \times \frac{DI_{t_{1-4}}}{DI_{1973.3}}$$

여기서, $P_{Ht_{1-4}}$: t년도 1~4분기 H가구유형의 빈곤선

62.7 : 1973년 3분기 표준가구의 가처분소득

H_e : H가구유형의 균등화 지수

$DI_{t_{1-4}}$: t년도 1~4분기 가구원 1인당 가처분소득

$DI_{1973.3}$: 1973년 3분기 가구원 1인당 가처분소득

※ 가구원 1인당 가처분 소득은 매 분기 갱신

※ 『Poverty Lines: Australia』 참조

다. 최저생계비의 수준

가장 최근에 갱신된 핸더슨 빈곤선은 2013년 3월 분기 기준이다. 이 때 핸더슨 빈곤선은 두 명 중 한 명이 일하는 성인 2인과 피부양 아동 2인으로 구성된 4인 가족에 대해 주당 \$918.92(주거비용 포함)이다. 이는 2012년 12월 분기 빈곤선 \$911.31에 비해 \$7.61 증가한 것이다.

〈표 3-1-23〉 호주의 빈곤선(2013년 3월 분기)

(단위: 주당 \$)

가구유형	가구주 근로		가구주 비근로	
	주거비용 포함	주거비용 제외	주거비용 포함	주거비용 제외
부부	654.45	478.66	561.92	386.04
부부·자녀 1명	786.69	595.00	694.15	502.46
부부·자녀 2명	918.92	711.33	826.38	618.80
부부·자녀 3명	1051.15	827.67	958.62	735.13
부부·자녀 4명	1183.38	942.72	1090.85	850.18
독신	489.23	329.25	396.70	236.71
한부모·자녀 1명	628.08	452.20	535.45	359.66
한부모·자녀 2명	760.22	568.53	667.69	476.00
한부모·자녀 3명	892.45	684.87	799.92	592.33
한부모·자녀 4명	1024.69	801.20	932.15	708.67

주: 1) 2012년 3월 분기의 \$754.61 주당 1인당 계절조정 가구가처분소득에 기초한다.

2) 모든 수치는 세후 소득으로 간주한다.

자료: Melbourne Institute of Applied Economic and Social Research(March quarter 2013), 『Poverty Lines: Australia』.

〈표 3-1-24〉 호주의 핸더슨 빈곤선과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한 빈곤선 비교

(단위: 주당/1인당 호주\$)

연도	핸더슨 빈곤선	CPI 반영 빈곤선	차이(%)
1973/74	65.7	65.7	0.0
1974/75	78.9	76.5	3.1
1975/76	89.7	86.5	3.7
1976/77	103.2	98.5	4.8
1977/78	111.7	107.8	3.6
1978/79	125.3	116.7	7.4
1979/80	136.9	128.6	6.5
1980/81	153.3	140.6	9.1
1981/82	172.1	155.4	10.7
1982/83	187.1	173.3	8.0
1983/84	206.4	185.0	11.6
1984/85	219.7	192.9	13.9
1985/86	237.4	209.1	13.5
1986/87	251.8	228.8	10.1
1987/88	270.3	245.6	10.1
1988/89	293.5	263.5	11.4
1989/90	323.4	284.6	13.6
1990/91	335.8	299.6	12.1
1991/92	343.6	305.3	12.5
1992/93	354.4	308.5	14.9
1993/94	364.9	314.1	16.2
1994/95	382.8	324.1	18.1
1995/96	407.5	337.8	20.6
1996/97	423.1	342.3	23.6
1997/98	431.8	342.3	26.1
1998/99	443.0	346.6	27.8
1999/00	465.7	354.8	31.2
2000/01	502.5	376.2	33.6
2001/02	523.1	387.0	35.2
2002/03	534.7	398.9	34.0
2003/04	571.5	408.3	39.9
2004/05	597.9	418.3	42.9
2005/06	622.1	431.7	44.1
2006/07	689.2	444.2	55.1
2007/08	733.2	468.4	56.5
2008/09	784.6	475.2	65.1
2009/10	804.3	489.7	64.2
2010/11	853.5	507.4	68.2
2011/12	886.8	513.3	72.7

자료: Melbourne Institute of Applied Economic and Social Research(March quarter 2013), 『Poverty Lines: Australia ABS』, Consumer Price Index (Cat. No. 6401.0)

주지한 바와 같이, 핸더슨 빈곤선은 1973년(9월 분기) 4인 표준가구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가처분 소득 \$62.70에 매년 분기별 가처분 소득의 변화를 반영하여 해당년의 분기별 빈곤선을 산출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 빈곤선의 개념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 사회의 실질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빈곤선도 비례적으로 상승한다. 따라서 빈곤선의 가치는 생활비에 비례해서 변화되고, 생활수준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상대적 빈곤선인 핸더슨 빈곤선은 생활수준의 변화에 따른 빈곤층의 복지개선 정도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즉, 핸더슨 빈곤선 소득의 실제 구매력의 변화를 보여줄 수 없다. 이는 소비자물가지수(CPI)⁴²⁾를 반영한 빈곤선과의 비교를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다음 <표 3-1-24>를 보면, 갱신 방법으로 인한 빈곤선의 격차는 1974년 0%에서, 2001년 33.6%, 2012년에 72.7%까지 상승하였다. 이는 다른 의미로 핸더슨 빈곤선의 실제 구매력이 1974년과 2012년 사이 72.7%만큼 증가하였음을 뜻한다.

라. 최저생계비에 따른 빈곤율

핸더슨 빈곤선은 매 분기마다 갱신 되지만 이 빈곤선을 활용한 빈곤율 통계는 공식적으로 생산되지 않고 있다. 핸더슨 빈곤선은 빈곤율을 산출하는 기준보다는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각종 소득지원정책에 압력을 가하는 기준으로 더 많이 활용된다. 다만 개별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 핸더슨 빈곤선을 이용한 빈곤율이 종종 산출되고 있다.

이에 호주의 정부 기관에서 발표하고 있는 중위소득 50% 또는 60% 기준의 빈곤율을 통해 호주의 빈곤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위소득⁴³⁾ 50%를 빈곤선으로 볼 때, 호주의 전체 빈곤율은 12.8%로 나타나고 있으며, 남성은 12.1%, 여성은 13.5%로 여성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아동 빈곤율은 17.3%, 노인단독가구 빈곤율은 23.6%, 한부모가구 빈곤율은 25.0%로 한부모가구의 빈곤율이 노인단독가구나 아동 빈곤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ACOSS, 2012).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42) 빈곤선을 갱신하는 방법에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같은 생활비 지수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절대적 빈곤선의 개념을 준용한다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빈곤선의 소득은 실제 구매력은 유지되지만, 일반적인 생활수준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

43) 이때 소득은 주거비용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을 의미한다.

에 따라서는 실업자는 63.3%, 시간제 근로자는 17.1%, 전일제 노동자는 3.8%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25〉 호주의 2010년 빈곤율

(단위: %)

빈곤선		중위소득의 50%	중위소득의 60%
전체		12.8	20.9
	남성	12.1	19.5
	여성	13.5	22.2
아동		17.3	26.1
노인 단독 가구		23.6	55.8
한부모 가구		25.0	36.4
노동시장 지위	실업자	63.3	73.2
	시간제 근로자	17.1	24.6
	전일제 근로자	3.8	7.1

주: 아동은 15세 미만, 노인은 65세 이상을 의미하며, 주거비가 제외된 가처분 소득 기준이다.
 자료: ACOSS(2012), 『Poverty in Australia』

마. 공공부조제도와와의 관계 : 활용도

호주는 다른 서구 국가와는 달리 사회보험방식의 사회보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거의 모든 사회보장 급여 및 서비스가 공공부조 방식이다. 즉, 건강보험 등 일부 제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득과 자산조사에 기초하는 부조원리에 따르고 있다. 호주의 사회보장제도는 강한 대상 표적성(highly targeted), 일반 조세에 의한 재원 조달(funded by general revenue), 그리고 균일급여 방식(flat-rated payments)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Ziguras, 2010), 이 방식은 욕구가 많은 사람에게 복지자원을 집중적으로 할당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빈곤을 감소시킨다.

또한 호주의 사회보장제도는 ‘범주적(categorical)’ 성격을 지닌다. 사회보장 욕구가 강한 특정 계층을 분류하여 해당 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급여가 구분되어 있다. 사회보장 급여를 받는 주요 계층은 노인, 장애인 및 보호자(carer), 실업자, 한부모 가구, 학생, 병자, 그리고 퇴역군인 등을 포함하며, 넓게는 부양아동이 있는 가정을 포함한다(여유진 외, 2012).

〈표 3-1-26〉 호주의 주요 사회보장 급여의 종류와 자격조건

급여	자격	자산 조사 여부		기본 급여 (격주 단위)
		소득	재산	
Age Pension	출생년도에 따라 65~67세에 자격 획득	●	●	단독 \$751.70 부부 \$566.60
Newstart Allowance	22세 이상이면서 적극적으로 구직하고 있는 실업자	●	●	단독 \$501.00 한부모 \$542.10 부부 \$452.30
Parenting Payment	부부의 경우 6세 미만, 한부모인 경우 8세 미만 아동 보호자	●	●	한부모 최대 \$699.90 부부 최대 452.30
Disability Support Pension	16세 이상의 신체적, 지적, 정신적 장애 등 급이 20점 이상이며 이로 인해 향후 2년 동안 주당 15시간 일하기 힘든 자	●	●	Age Pension 급여체계(21세 이하 아동이 없는 경우는 제외)
Carer Payment	장애인 및 의료적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을 간호하는 자	●	●	Age Pension 급여체계
Youth Allowance	16-24세의 학생 (전일제 학생, 전일제 학업을 잠시 중단한 자, 구직과 학업을 동시에 하는 자 등)	●	●	단독 \$223.00 한부모 \$533.80 부부 \$407.50 부부+아동 \$447.40
Sickness Allowance	22세 이상의 질병 혹은 부상 등으로 일시적으로 일이나 공부를 할 수 없는 자	●	●	Newstart Allowance 급여체계
Austudy	25세 이상의 전일제 학업을 하고 있는 자	●	●	단독 \$407.50 한부모 \$533.80 부부 \$407.50 부부+아동 \$447.40
Family Tax Benefit(A)	16세 미만 혹은 16-19세의 전일제 학생의 부모 및 후견인 중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	×	13세 미만 \$172.20 13~15세 \$224.00 16~19세 전일제 학생 \$224.00
Family Tax Benefit(B)	16세 미만 혹은 16~18세 전일제 학생을 둔 한부모 또는 부모 중 1명만 수입이 있는 경우	●	×	5세 미만 \$146.44 5~15세 \$102.20 16~18세 전일제 학생 \$102.20
Childcare Benefit	7세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경우	●	×	한 시간에 \$3.99
Parental Leave Pay	자녀의 출생 및 입양 전 13개월 중 최소 10개월 (330시간) 이상 일한 자	●	×	주당 \$622.10 (세금부과, 최대 18주 지원)

자료: Australian Government(2013), A guide to Australian Government payments, Australia. Centrelink

정부로부터 지급되는 소득보장 급여는 크게 수당(allowances or benefits)과 연금으로 구분된다. 수당은 일시적인 보호의 수단으로 지급되는 단기적 급여를 말하며, 연금은 장기적으로 사회보장 시스템에 의존해야 하는 계층에게 주어진다. 대체로 수당에 비해 연금이 더 높은 수준의 지원이 보장된다(Ziguras, 2010). 또한 각 급여의 수준은 소득 및 자산조사에 따라 최대급여액에서 일정비율로 감소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수

당은 연금에 비해 높은 급여감소율을 가지고 있다. 소득지원과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 급여는 <표 3-1-26>와 같다.

앞서 언급하였듯 핸더슨 빈곤선은 직접적으로 사회부조 급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즉 핸더슨 빈곤선은 법적인 강제적용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공공부조 급여기준선과 어떤 명시적인 연계성도 가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핸더슨 빈곤선은 호주 사회보장 급여 수준의 적절성(adequacy)을 판단하는 대안적 준거로 활용되어 왔다. Brotherhood of St Laurence, 멜버른 응용경제연구소 등은 주기적으로 급여와 핸더슨 빈곤선을 비교하는 표를 산출하고 있으며, ACOSS(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 ABS(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등의 국가 보고서에서도 핸더슨 빈곤선에 의한 빈곤율과 급여와의 비교 등이 종종 행해지고 있다.

대체적으로 호주의 사회보장 급여는 핸더슨 빈곤선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어 왔다. 아래 <표 3-1-27>은 2013년 3월 분기 사회보장 급여 수준과 핸더슨 빈곤선의 비교표이다. 대부분의 가구 유형에서 핸더슨 빈곤선이 총 급여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연금 수급자의 경우는 핸더슨 빈곤선보다 급여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27> 호주의 최대급여를 받는 가구의 급여와 빈곤선 비교(2013년 3월 분기)

(단위: 주당 호주\$)

	1인 기본급여	2인 (배우자) 기본급여	가족세금 공제 Part A	가족세금 공제 Part B	주거급여	총 급여	핸더슨 빈곤선
부부							
구직수당 수급자	222.35	222.35	0.00	0.00	56.90	501.60	654.45
연금 수급자	291.20	291.20	0.00	0.00	56.90	639.30	561.92
부부, 자녀 1명	222.35	222.35	84.84	25.18	70.91	625.63	786.69
부부, 자녀 2명	222.35	222.35	169.68	25.18	70.91	710.47	918.92
부부, 자녀 3명	222.35	222.35	260.40	47.03	80.22	832.35	1,051.15
부부, 자녀 4명	222.35	222.35	376.60	47.03	80.22	948.55	1,183.38
독신							
구직수당 수급자	246.30	-	0.00	0.00	60.50	306.80	489.23
연금 수급자	386.30	-	0.00	0.00	60.50	446.80	396.70
독신, 자녀 1명	331.85	-	84.84	50.33	70.91	537.93	535.45
독신, 자녀 2명	331.85	-	169.68	50.33	70.91	622.77	667.69
독신, 자녀 3명	331.85	-	260.40	72.17	80.22	744.64	799.92
독신, 자녀 4명	331.85	-	376.60	72.17	80.22	860.84	932.15

주: 1) 2013년 3월 분기 1인당 가처분 소득은 \$785.13이다.

2) 급여 수준은 표준적 상황에 대한 것이며 의료나 교육 서비스 등의 비현금 급여는 포함하지 않는다.

자료: Melbourne Institute of Applied Economic and Social Research(March quarter 2013), *Poverty Lines: Australia*.

5. 일본의 최저생계비

가. 역사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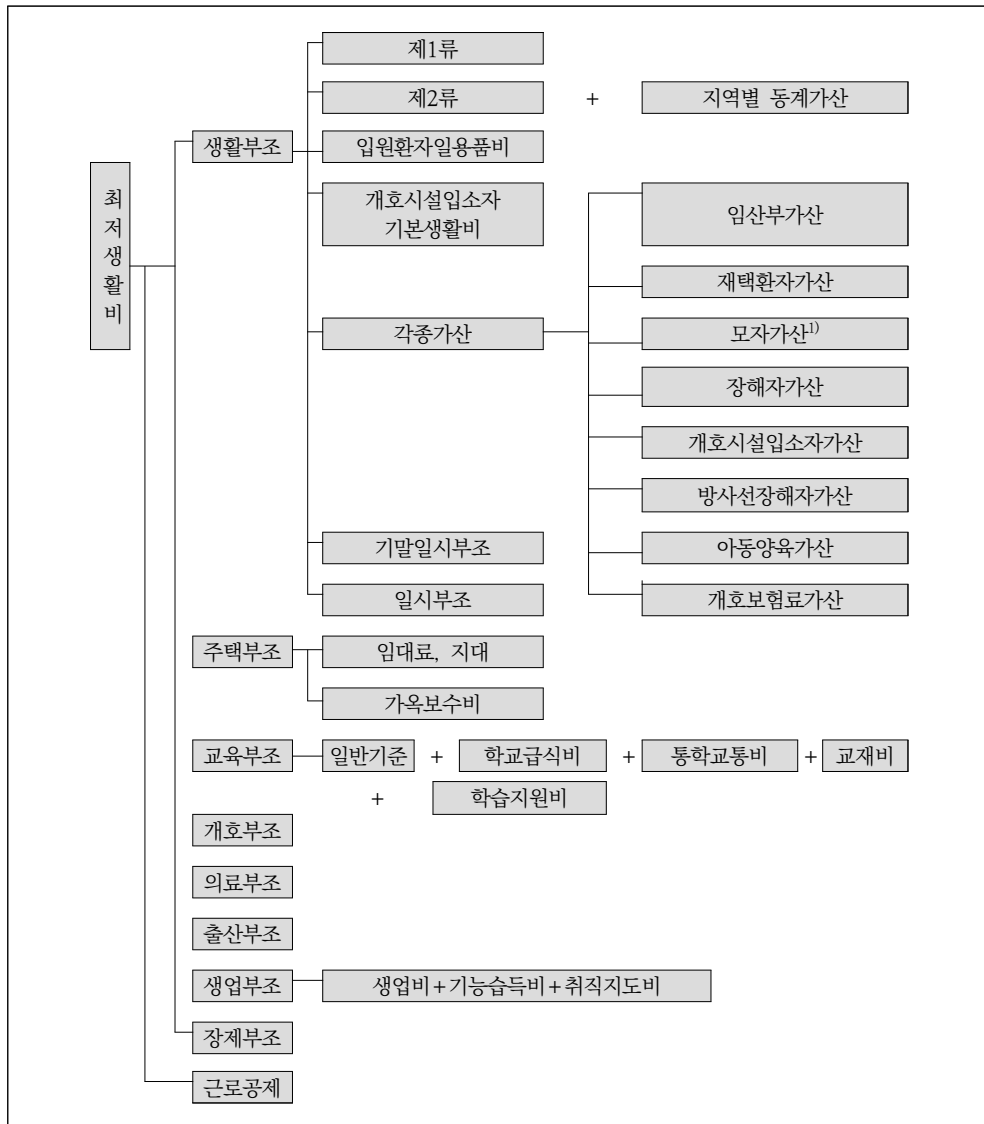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전의 생활보호제도는 일본의 생활보호제도와 매우 유사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초기 도입 당시 일본의 생활보호법을 많이 참조하여 제도를 구성한 것이 그 이유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은 오랜 장기침체와 빈곤인구의 증가를 경험하며 기존 생활보호제도에 대한 변경을 모색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일본 생활보호제도보다는 최저생계비 측면에서 일본의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생활보호제도는 1874년 홀구법(恤救法)과 1929년에 구호법(救護法)에서 기원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생활보호제도는 전쟁이후 설정된 신헌법하의 1950년에 제정된 『(신)생활보호법』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다. 일본의 생활보호법은 네 가지의 기본 원리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는 생존권 보장 및 국가책임의 원리이다. 이는 국가가 경제적으로 곤궁한 사람들에게 경제적 수준에 따라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고,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립을 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무차별·평등의 원리이다. 일본 국민이면 성(性), 사회적 배경, 빈곤의 이유를 불문하고 공공부조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는 최저생활보장의 원리이다. 정부는 모든 국민들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이다. 동 원리는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적용되는 주요 원칙 중 하나이다. 넷째는 보충성의 원리이다. 생활보호에 의한 보호는 보호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자산 및 능력과 기타 모든 것을 최저한도의 생활유지를 위해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된다는 의미이다. 즉 생활보호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직면한 가구가 급여를 공급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닌 지원이전에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 제공되는 이른바 신청보호의 원칙도 가지고 있다.

일본의 생활보호제도의 급여는 최저생활비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저생활비는 생활, 주택, 교육, 개호, 의료, 출산, 생업, 장제부조와 같은 8개의 부조를 합산하여 계산된다. 이 중 출산부조, 생업부조, 장제부조는 해당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임시적으로 적용되는 부조이므로, 최저생활비는 기본적으로 생활부조, 주택부조, 교육부조, 의료

부조, 그리고 개호부조의 합계액으로 계산된다. 최저생활비는 일본의 서로 다른 지역 간의 생계비의 차이와 세대원의 연령을 고려하여 계산된다.

[그림 3-1-1] 일본 최저생활비의 체계



주: 1) 모자가산의 경우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폐지를 검토하였으나, 2009년 민주당 정권이 집권하면서 모자가산을 다시 부활함

자료: 生活保護制度研究會(2012), 『保護のてびき, 第一法規』

일본의 생활보호제도에서 제공되고 있는 부조에 대해 살펴보면, 생활부조 기준은 생활유지에 필요한 의(衣), 식(食) 등의 이른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경상적 경비와 이주에 대한 최저 생활비를 정하고 있다. 이 생활부조 기준은 제1류비와 제2류비로 구분되며, 특별한 수요가 있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가산급여가 부여된다.

[그림 3-1-2] 생활부조 체계

생활부조 기준(급지별)			
제1류비 (연령별)	제2류비(세대 인원별)		각종 가산
	기준액	동계가산 (한냉급지별)	

자료: 生活保護制度研究會(2012), 『保護のてびき, 第一法規』

제1류비는 개인적 경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식료품비, 피복비 등 생활비에 필요한 기준으로써 연령별로 제공되고 있다. 제2류비는 세대 공통의 경비로서 전기세, 가스비, 수도요금 등의 광열수도비나 가구집기비 등을 포함하며, 세대 인원별로 설정되어 있다. 제2류에는 추가적으로 겨울철에 추위의 정도와 지역에 따라 필요 난방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도도부현을 단위로 6개 지역별로 동계 가산액이 추가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표 3-1-28〉 일본 생활보호제도의 주요 가산급여와 대상자

구분	대상자
임산부 가산	임산부 및 산후 6개월까지의 임산부
장애인 가산	장애정도 등급표 1~3급 신체장애인 혹은 국민연금법시행령 별표 1급 및 2급 장애인
개호시설 입소자 가산	개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에게 지급
재택환자 가산	재택 병자로서 영양보급을 필요로 하는 자
방사선장해자 가산	원폭피해자로 장해정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자
아동양육가산	중학교 수료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세대
개호보험료 가산	개호보험제도의 제1호 피보험에 해당하는 자
모자 가산	아동(18세 미만)이 있는 모(부)자 세대

자료: 生活保護制度研究會(2012), 『保護のてびき, 第一法規』

일본 생활보호제도는 위와 같은 제1류비와 제2류비 외에 특별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 제공되는 가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동 가산은 생활부조금액에 각 요인별로 일정액이 더 부가되는 급여이다. 임신부, 장애인, 개호시설입소자, 재택환자, 방사선장애자, 아동양육, 개호보험료, 모자가산 등 총 8개의 가산항목이 있다. 생활부조에 추가되어 제공되는 가산항목과 대상자는 <표 3-1-28>과 같다.

나. 최저생활비 측정방식 및 수준

일본 생활보호제도에서 보호대상자의 선정과 급여의 지급 기준은 최저생활비를 활용하고 있다. 최저생활비 설정은 일본의 경우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변화를 가져왔으며, 1984년 이후로는 상대적 방식을 활용하는 수준균형방식에 의한 최저생활비를 발표하고 있다. 역사적 변화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1946년~48년은 표준생계비 방식, 1948년~60년까지는 마켓 바스켓방식, 1961년~64년은 앵겔방식, 1965년~83년까지는 격차축소방식, 1984년 이후에는 수준균형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과거 일본의 최저생활비에 대한 측정방식을 간단히 살펴보면, 표준생계비 방식은 최소한의 의식주 비용으로서 당시 최저생활비는 일본 6대도시에서 5인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표준세대의 생활비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지역 및 가구원수에 따라서 결정되도록 하였다. 그 수준은 실태생계비의 약 20%(총무성 통계국의 소비자가격조사에 의함)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마켓 바스켓 방식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용하고 있는 최저생계비 계측 방식과 비슷한 것으로 1948년부터 적용되었으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최저생활비 산정을 위해 도입되었다. 마켓 바스켓 방식은 국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 필요한 품목들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최저생활비를 측정하는 것이다. 동 방식을 활용하여 최저생활비를 측정한 결과 표준생계비 방식에 비해서는 최저생활비가 상승하여 총무성 통계국의 소비자가격조사에 의한 실태생계비에 대한 비율이 38%까지 높아졌다.

이후 마켓 바스켓방식이 가지는 연구자에 의한 자의성 문제점들이 대두되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61년에는 앵겔방식을 도입하였다. 이 방식은 마켓 바스켓 방식이 전물량방식으로 불리는 것과 같이 반물량방식이라 할 수 있으며, 측정은 식료품에 기초한 최저생활비를 산출한 앵겔계수의 역수를 곱해서 생활비를 계산하는 것이다.

1965년부터는 기존 방식들에 비해 오랜 기간 적용된(약 20년) 격차축소방식이 도입되었다. 동 방식은 생활보호세대의 최저생활보장 수준을 일반국민들과 차이 없이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기준은 일반근로자가구 소비수준의 60% 수준을 목표로 정하고 최저생활비를 연평균 15%의 비율로 상승시켜, 1975년에 이르러 목표수준인 일반근로자가구의 소비수준의 60%에 도달하였다.

이후 1983년 중앙사회복지심의회 생활보호전문분과회의에서 적용된 보호기준의 수준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1984년부터는 수준균형방식 즉, 보호기준을 일반근로자세대 소비지출의 68%로 고정하는 방식을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이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수준균형방식도 2000년대 들어서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아래표에서 보듯이 2000년(163,970엔)까지 꾸준히 상승하던 최저생활비가 이후 감소하여 2004년 162,170엔까지 감소하였으며 이후 2012년까지 변화 없이 동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동 기간 일본의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일본 국민들의 소득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최근에는 최저생활비 수준과 연금소득자의 연금소득 간에 역진적 현상을 보이면서 최저생활비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다(社會勞動課, 2013).

1984년부터 적용된 수준균형방식에 의해 계측된 최저생활비는 연령별 생활부조기준(제1류비)과 가구규모별 생활부조기준(제2류비)의 합산액에 노인, 장애인, 모자 등 가구유형별로 가산액을 부가하고, 여기에 주택, 교육, 개호, 의료 등 기타부조를 합산한 금액인 최저생활비 인정액에서 소득인정액(소득 - 실비공제 - 근로공제)을 뺀 금액이 부조로 지급된다. 실제 급여는 보충급여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begin{aligned} \text{최저생활비 인정액} = & \text{생활부조기준(1류)} + \text{생활부조기준(2류)} + \text{각종가산액} + \\ & \text{주택부조} + \text{교육부조} + \text{의료부조} + \text{개호부조(기타, 출산,} \\ & \text{장제 등의 경우는 그 기준액이 가산됨)} \end{aligned}$$

〔그림 3-1-3〕 표준세대 생활부조기준액 변화

연도	엔	표준가구	방식	지역구분		
1946	199.8	5인 표준가구	표준 생계비 방식	6		
1946	252					
1947	912		마켓 바스켓 방식	3		
1949	5,200					
1959	9,346			5		
1960	9,621					
1961	10,344	4인 표준가구: 남성(64), 여성(35), 남아(9), 여아(5), 남아(1)	엔젤 방식	4		
1964	16,147					
1965	18,084					
1966	20,662					
1967	23,451					
1968	26,500					
1969	29,945					
1970	34,137					
1971	38,916					
1972	44,364					
1973	50,575					
1974	60,690					
1975	74,952					
1976	84,321					
1977	95,114					
1978	105,577					
1979	114,340	4인 표준가구: 남성(35), 여성(30), 남아(9), 여아(4)	격차축소 방식	3		
1980	124,173					
1981	134,976					
1982	143,345					
1983	148,649					
1984	152,960					
1985	157,396					
1986	126,977					
1987	129,136			3인 표준가구: 남성(33), 여성(29), 아동(4)	수준균형 방식	6
1988	130,944					
1989	136,444					
1990	140,674					
1991	145,457					
1992	149,966					
1993	153,265					
1994	155,717					
1995	157,274					
1996	158,375					
1997	161,859					
1998	163,316					
1999	163,806					
2000	163,970					
2001	163,970					
2002	163,970					
2003	162,490					
2004	162,170					
2005	162,170					
2006	162,170					
2007	162,170					
2008	162,170					
2009	162,170					
2010	162,170					
2011	162,270					
2012	162,170					

자료: 生活保護制度研究會(2012), 『保護のてびき, 第一法規』

2012년 제1류 및 제2류에 해당되는 생활부조 기준액은 연령별로 최저 20,900엔에서 최대 42,080엔이고, 가구공동경비인 2류는 가구원수별로 차이를 두고 지원하고 있다.

〈표 3-1-29〉 생활부조 기준액: 제1류(2012년, 1급지-1. 월액)

(단위: 엔)

연령	기준액
0~2세	20,900
3~5세	26,350
6~11세	34,070
12~19세	42,080
20~40세	40,270
41~59세	38,180
60~69세	36,100
70세 이상	32,340

자료: 生活保護制度研究會(2012), 『保護のてびき, 第一法規』

〈표 3-1-30〉 일본의 생활부조 기준액: 제2류(2012년)

(단위: 엔)

구분		인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가구 1인당 증가액
기준액		43,430	48,070	53,290	55,160	440
지역별 동계 가산액 (11월~3월)	I 지역	24,350	31,530	37,630	42,670	1,640
	II 지역	17,410	22,550	26,910	30,520	1,170
	III 지역	11,560	14,970	17,860	20,250	780
	IV 지역	8,820	11,420	13,630	15,460	590
	V 지역	6,150	7,970	9,510	10,780	410
	VI 지역	3,090	4,000	4,770	5,410	200

자료: 厚生統計協會(2012), 『國民の福祉の動向, 2012/2013』, vol 59, No. 10.

2012년 기준으로 표준세대(3인가구)의 최저생활보장액을 보면 1급지-1의 경우 185,170엔으로 여기에서는 생활부조액가 아동양육가산 및 주택부조액이 포함되어 있다. 장애인세대는 추가적으로 장애자가산과 더불어 가구내 중증장애인이 포함될 경우 중도장애자가산과 가족개호료가 포함되어 지급된다. 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부조액이 추가되며, 한부모가구의 경우에는 모자가산을 추가함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추가적인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표 3-1-31〉 일본의 가구유형별 최저생활보장수준액(2012년, 월액)

(단위: 엔)

	1급자-1	1급자-2	2급자-1	2급자-2	3급자-1	3급자-2
표준3인세대(33세남, 29세여, 4세자)						
최저생활보장액	185,170	177,870	170,580	163,270	150,980	143,680
생활부조	162,170	154,870	147,580	140,270	132,980	125,680
제1류	106,890	102,080	97,280	92,450	87,650	82,840
제2류	55,280	52,790	50,300	47,820	45,330	42,840
아동양육가산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주택부조	13,000	13,000	13,000	13,000	8,000	8,000
중증장애자 2인세대(65세, 25세(중증장애자))						
최저생활보장액	192,300	186,630	179,070	173,390	160,850	155,170
생활부조	126,110	120,440	114,760	109,080	103,410	97,730
제1류	76,370	72,940	69,500	66,060	62,620	59,190
제2류	49,740	47,500	45,260	43,020	40,790	38,540
장애자가산	26,850	26,850	24,970	24,970	23,100	23,100
중도장애자가산	14,330	14,330	14,330	14,330	14,330	14,330
중도장애자가족개호료	12,010	12,010	12,010	12,010	12,010	12,010
주택부조	13,000	13,000	13,000	13,000	8,000	8,000
노인2인세대(68세, 65세)						
최저생활보장액	134,940	129,460	123,960	118,480	107,990	102,500
생활부조	121,940	116,460	110,960	105,480	99,900	94,500
제1류	72,200	68,960	65,700	62,460	59,200	55,960
제2류	49,740	47,500	45,260	43,020	40,790	38,540
주택부조	13,000	13,000	13,000	13,000	8,000	8,000
노인1인세대(68세)						
최저생활보장액	93,820	90,190	86,540	82,910	74,260	70,640
생활부조	80,820	77,190	73,540	69,910	66,260	62,640
제1류	36,100	34,480	32,850	31,230	29,600	27,980
제2류	44,720	42,710	40,690	38,680	36,600	34,660
주택부조	13,000	13,000	13,000	13,000	8,000	8,000
부부+자2인세대(35세남, 30세여, 9세자, 4세자)						
최저생활보장액	229,040	220,430	211,830	203,200	189,600	180,990
생활부조	191,330	182,720	174,120	165,490	156,890	148,280
제1류	133,920	127,890	121,870	115,830	109,810	103,780
제2류	57,410	54,830	52,250	49,660	47,080	44,500
아동양육가산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교육부조	4,710	4,710	4,710	4,710	4,710	4,710
주택부조	13,000	13,000	13,000	13,000	8,000	8,000
모자2인세대(30세, 4세자)						
최저생활보장액	162,620	157,380	150,530	145,280	133,440	128,190
생활부조	116,360	111,120	105,890	100,640	95,420	90,170
제1류	66,620	63,620	60,630	57,620	54,630	51,630
제2류	49,740	47,500	45,260	43,020	40,790	38,540
아동양육가산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모자가산	23,260	23,260	21,640	21,640	20,020	20,020
주택부조	13,000	13,000	13,000	13,000	8,000	8,000

자료: 生活保護制度研究会(2012), 『保護のてびき, 第一法規』

1975년 이후 연도별 생활부조기준액 추이는 아래 표와 같다. 1급지 표준 3인세대를 기준으로 격차축소방식에 따라 산정된 1975년 생활부조기준액은 74,952엔이었으며, 1985년 수준균형방식으로 산정방식을 변경한 이후에는 157,396엔으로 증가하였다. 이후 매년 소폭으로 조정되고 있으며 2004년부터 2012년까지는 162,170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미 설명한 것과 같이 2000년대 일본의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영향으로 2004년 이후 표준세대의 생활부조액은 근 십여년간 변하지 않고 있다.

〈표 3-1-32〉 생활부조기준액 추이(1급지, 표준세대, 각년도 4월 기준 월액)

구분	표준 3인세대 1급지-1	
	기준액(엔)	전년대비 증가율 (%)
1975	74,952	23.5
1985	157,396	2.9
1995	157,274	1.0
2000	163,970	0.1
2004~2012	162,170	0.0

자료: 厚生統計協會(2012), 『國民の福祉の動向, 2012/2013』, vol 59, No. 10.

최근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생활보호제도의 생활보호기준에 대한 지적에 대해 2011년 2월 사회보장심의회 산하에 생활보호기준부회를 설치하여 생활보호기준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였다. 그 결과 2013년 1월 관련 보고서가 정부에 제출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후생노동성에서는 생활보호기준에 대한 개정을 진행하였다. 즉 후생노동성은 보고서에 기초하여 2013년부터 향후 3년간 생활보호기준액을 단계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며, 동 기준액 변화에 따른 예산안이 2013년 5월 국회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을 거쳤다. 이로 인해 2013년도에 한해 매년 4월에 발표되던 생활보호 기준을 8월에 발표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생활보호기준 변동에 대해 기존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던 세대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충분한 고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제도개편에 대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후생노동통계협회,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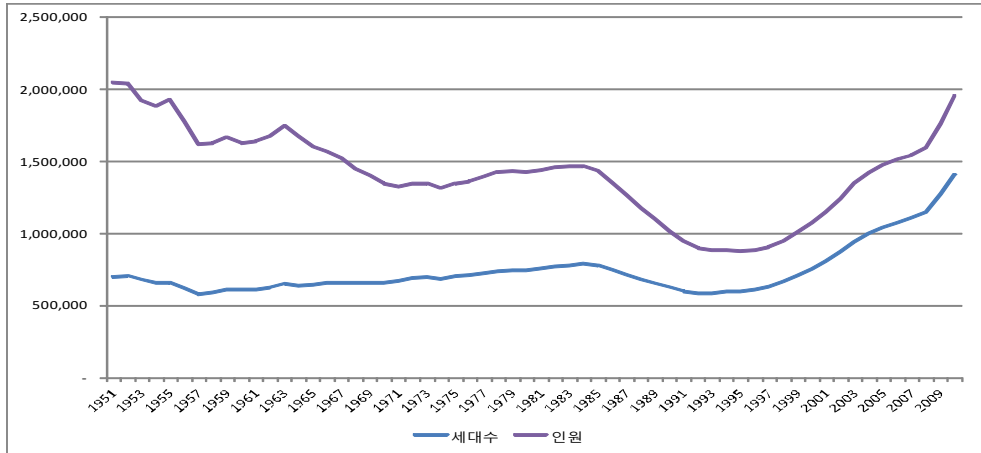
생활보호기준부회에서는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생활보호기준에 대한 변경을 담고 있다. 먼저, 2004년 이후 생활보호 기준이 고정되어 있지만, 2008년 이후 일본의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구매력 감소가 발생함으로써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생활보호기준을 2008년을 기점으로 객관적인 물가지표와 각종 경제지표를 활용하여 생

활보호기준금액을 변경할 것을 담고 있다. 둘째 현재 생활보호제도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가산제도에도 물가변동을 감안하여 적용하며 먼저 기말일시금에 대해서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생활보호기준액의 경우 단순 인원수 변동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동되었다면 향후에는 가구원수 변화를 고려한 세대규모의 경제성(Scale merit 방식)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셋째, 생활보호제도의 변동에 대한 조정작업의 하나로 생활보호 기준의 변동은 과거의 변동을 참조하여 $\pm 10\%$ 내에서 조정하도록 하며, 생활부조 금액의 조정은 2013년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넷째, 생활보호제도 변화에 따른 다른 제도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제도변화의 취지를 적극 설명하고 자체적 판단에 따라 이를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후생노동통계협회, 2013).

생활보호제도 수급규모 변화를 보면 전후인 1951년 약 70만가구, 200만명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63년 65만가구, 174만명까지 감소하였으며 이후에도 보호인원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보호세대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고령과 상병·장애자 세대가 증가하면서 세대와 보호인원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와 1990년대 보호인원이 감소하여 최소 90만명, 58만가구까지 감소하였지만, 1990년말 보호인원과 세대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이후 시작된 장기불황과 2000년대 초반 고이즈미 정권이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진행하면서 기업의 구조조정과 실업으로 인해 많은 빈곤계층이 양산되면서 생활보호의 보호대상자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보호대상 가구와 인원은 2000년 들어서도 계속적으로 나타나 가장 최근인 2010년에는 141만세대, 195만명이 생활보호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생활보호제도의 보호율을 인구대비로 보면, 1951년 2.42%에서 1971년 1.24%, 1981년 1.22%로 낮아졌으며, 1995년에는 0.7%까지 크게 감소하였다. 이후 증가하여 2001년 0.9%, 2005년 1.16%, 2010년 1.52%로 증가하였다. 일본 생활보호제도의 보호대상 규모는 전국민의 1% 이내에서 큰 변화가 없다가 2000년대 들어 1%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활보호제도의 보호율이 낮게 나타나는 점은 생활보호 제도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한 강한 낙인효과와 생활보호 신청단계부터 수급신청자에게 부과되는 여러 조건(자산 매각, 근로능력, 부양의무자 등)들로 인해 생활보호의 보호율이 낮게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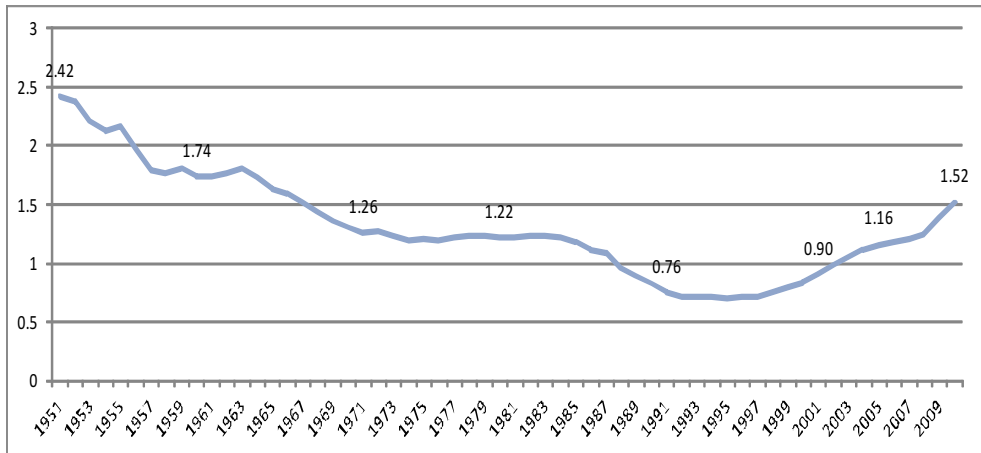
[그림 3-1-4] 일본 생활보호 세대수 및 인원변화



자료: 生活保護制度研究会(2012), 『保護のてびき, 第一法規』

[그림 3-1-5] 일본 생활보호 보호율 변화(전인구대비)

(단위: %)



자료: 生活保護制度研究会(2012), 『保護のてびき, 第一法規』

제2절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및 수준

1.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계측의 역사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는 1970년대 당시 보건사회부 산하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1973년, 1978년의 두 차례에 걸쳐 계측하였으며, 1988년부터는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988년, 1994년, 1999년, 2004년, 2007년, 2010년 총 여섯 차례 계측하였다. 이 가운데 정부가 최저생계비를 공표한 것은 1999년, 2004년, 2007년, 2010년의 네 차례로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계측의 역사는 약 10여년에 불과하다.

최저생계비는 1980년~1990년대에 개별 학자들에 의해 여러 방법을 통해 최저생계비 계측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2000년 이후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은 노동 관련 기관에서 최저생계비 또는 표준생계비를 계측하였으나, 이는 최저임금 심의 및 임금교섭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수행되어 발표되었다. 우리나라의 연구기관 또는 학자에 의해 계측되었던 최저생계비를 정리하면 <표 3-2-1>과 같다⁴⁴⁾.

여러 연구자에 의해 계측된 최저생계비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서상목(1979)은 1973년 보건사회부에서 전국의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국민생활실태조사⁴⁵⁾에 나타난 실제 음식물 소비 형태에 의거하여, 5인 가구를 기준으로 반물량 방식에 의해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였다.

윤석범(1981)은 1980년(조사기준년도)에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였다. 먼저, 도시 및 농촌지역의 1,6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을 발송 한 후 그 중 응답 내용이 일관적인 478가구를 선정하였다. 조사한 결과를 4인, 5인, 6인 가구로 분류하고 효용함수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윤석범, 1995), 그 결과를 1969년부터 1992년까지의 최저생계비를 시계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때 각 대상연도의 평균가구소득과 계층별 가구소득의 자연대수의 분산 함수를 적용하였으며, 소비

44) 김미곤 외(2010)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최근까지의 계측결과들을 정리한 것이다.

45) 1973년 국민생활실태조사는 전국에서 5,030가구를 대상으로 1차 조사한 후 이 중에서 동년도 7월의 총소득이 24,000원 미만인 가구, 단순노무자와 불완전취업자, 경작지 5단보 미만인 농가, 생활보호대상가구에 해당하는 1,162가구에 대하여 가계소득 및 지출, 가계구성, 주택상태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였다.

자물가 상승률만을 적용하여 최저생계비를 시계열화 할 경우 제외되는 소득에 대한 최저생계비의 탄력성효과와 소득분포의 불균등효과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였다.

장현준(1986)은 전국 도시가구의 소비지출기준 하위 10%, 20%, 40%의 생계비를 분석하여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였으며, 분석방법은 식품 바스켓을 선정하여 식품비를 산출하였다(1984년 조사기준년도). 이는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5), 서상목(1981), 한국노총(1985)의 식품 바스켓을 이용하여 반물량 방식과 전물량 방식으로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였으며, 최저생계비를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구분하고 다시 칼로리별(2,00Kcal, 2,500Kcal, 2,900Kcal)로 구분하여 칼로리 기준의 변화에 대한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고 있다는 점이 본 연구의 특징이다.

〈표 3-2-1〉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계측

발표연도	연구자 / 연구기관	기준연도 (계측지역)	계측방식
1974	사회보장심의회위원회	1973 (전국)	반물량 방식
1979	서상목	1973 (전국)	반물량 방식
1978	사회보장심의회위원회	1978 (대도시)	반물량 방식
1981	윤석범	1981 (전국)	라이텐 방식
1986	장현준	1984 (도시)	반물량 방식
1986	이중희	1985 (도시)	라이텐 방식
1987	배무기 외	1987 (도시)	전물량 방식
198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88 (지역별)	전물량 방식
1990	이정우 외	1989 (도시)	라이텐 방식
1991	박태규	1989 (서울)	라이텐 방식
1991	안병근	1991 (대구)	전물량 방식
1994	차홍봉 외	1993 (춘천)	전물량 방식
199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지역별)	전물량 방식
199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지역별)	전물량 방식
2003	한국노동연구원 ¹⁾	2003 (도시)	반물량 방식
20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지역별)	전물량 방식
200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지역별)	전물량 방식
20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지역별)	전물량 방식
각년도	최저임금위원회 ²⁾	각년도 (전국)	전물량 방식
각년도	한국노총 ³⁾	각년도 (도시)	전물량 방식
각년도	민주노총 ³⁾	각년도 (도시)	전물량 방식

주: 1) 한국노동연구원은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생계비'라고 표현하고 있다.

2) 최저임금위원회는 '15~29세 단신근로자 생계비',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라고 표현하고 있다.

3)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은 '표준생계비'라고 표현하고 있다.

자료: 김미곤·여유진 외(2010),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구성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등에서도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고 발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식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최저생계비를 계측한 연구로는 1973년 보건사회부 산하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계측하였다. 본 조사는 1973년 9월부터 1974년 4월까지 1,162가구를 최종 표본으로 국민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반물량 방식(엔겔방식)에 의해 최저생계비를 도출하였다. 이후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1978년에도 1974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였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1988년부터 현재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최저생계비의 토대가 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최저생계비 계측은 전물량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당시 연구에서는 전국 5,000가구의 표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1차 실시한 후, 이 가운데 소득기준 하위 30% 이하에 해당되는 950가구를 선정하여 가계지출조사를 2차적으로 실시하였다. 최저생계비 산출은 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였으며, 표준가구에 대한 각 지역별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별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였다. 최저생계비는 1988년 계측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1988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하고 1989년 최저생계비를 추정하였다. 다시 1989년 예상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1990년 최저생계비를 추정하였다.

199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1988년 계측 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여, 전물량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전체 표본규모는 1988년보다 조금 줄어들어 전국 3,000가구를 표본으로 실태조사를 1차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이 가운데 소득기준 하위 30% 이하에 해당되는 계층 600가구를 선정하여 가계부조사를 2차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지역별 구분에 따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을 구분하여 각각의 표준가구에 대한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고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였다. 1994년의 최저생계비 계측은 1988년과는 달리 지역별 최저생계비를 계측한 값을 바탕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하나의 전국 최저생계비를 산출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1999년 정부는 처음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최저생계비의 계측된 금액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1988년과 1994년에 수행되었던 계측연구와 동일한 전물량 방식을 활용하였다. 조사규모는 15,400가구에 대해서 1차 국민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는 과거의 전체 표본 대비 5배 정도 증가하였다. 1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소득기준 하위 40% 이하에 해당되는 1,500가구를 선정하여 가계부

조사를 2차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존과 동일하게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태조사와 가계부조사 이외에도 각종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별 표준가구의 마켓 바스켓을 각각 구성하고 지역별 최저생계비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2000년 10월 정부는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및 급여 기준 선정에 최저생계비 계측결과를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연구진이 제시한 최저생계비 계측결과를 심의하였으며, 그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저생계비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04년 최저생계비를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물량 방식으로 계측하였다. 그러나 이전보다는 조사대상 표본규모를 증가시키고,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지역구분 기준을 조정하는 등의 이전 년도와는 차이를 두어 2004년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였다.

먼저, 표본가구의 선정방식은 2000년에 통계청이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준으로 추출된 300개 표본 조사구에서 30,000가구를 대상으로 1차 국민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1999년 계측 당시 15,400가구보다 약 2배 정도의 수준이다. 실태조사가 완료된 가구 중 소득기준 하위 40% 이하인 가구 2,231가구를 선정하여 2차 가계부 조사와 심층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두 번째 변화로는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2,000가구를 대상으로 별도의 심층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계측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지역구분은 1999년 3개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한 것을 2004년에는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4개 지역으로 확대 설정하였다. 이처럼 대도시를 서울과 광역시로 구분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다. 먼저,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연구에서 대도시로 분류된 서울의 주거비의 경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가 2000년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서울의 최저생계비를 계측한 결과에서 중소도시를 100으로 할 경우, 서울의 주거비의 경우 여타 광역시보다 높은 약 132로 추정되었던 것을 반영한 결과였다. 이에 따라, 2004년 최저생계비에서는 4개 지역별 표준가구에 대한 마켓 바스켓을 각각 구성하고 지역별 최저생계비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최저생계비 전문위원회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계측한 결과를 심의하였으며, 심의 과정에서 지역구분에 따라 지역별 최저생계비를 확정하는 대신, 1999년과 같이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단일한 최저생계비를 확정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발표하였다.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은 기존의 5년 주기에서 3년 주기로 계측주기를 단축하여 조사가 실시되었으며⁴⁶⁾, 계측방식은 기존과 동일한 전물량 방식으로 계측되었다. 1차 국민생활실태조사 표본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90% 조사구 자료에서 517개 조사구를 2단계 확률비례층화집락 추출하여 30,000가구를 추출하였다.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경상소득 기준 하위 40% 이하 가구 중 1,500가구를 표본 추출하여,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2007년 최저생계비는 2004년 4개 지역으로 계측하였던 것을 다시 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계측하였다.

한편,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은 기존의 전물량 방식과 더불어 반물량 방식, 상대적 방식, 주관적 방식들도 함께 계측하였다. 이는 2005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존의 모든 방식으로 최저생계비를 계측한 후 사후적으로 타당한 방식으로 결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집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결과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최저생계비 전문위원회는 연구진의 최저생계비 계측 결과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전물량 방식의 계측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연구진이 제시한 안보다 다소 낮은 금액으로 확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역구분에 따라 지역별 최저생계비를 확정하는 대신, 이전과 동일하게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단일한 최저생계비를 확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발표하였다.

2010년 최저생계비는 2005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 결과 향후 최저생계비 계측과 관련하여 전물량 방식을 주로 하되, 여타의 계측방식을 병행하여 계측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09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전물량 방식과 상대빈곤선을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조정한다고 의결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기초하여 2010년에는 전물량 방식과 상대적 방식을 주된 방식으로 하고, 반물량 방식, 주관적 방식 등 다양한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을 검토하고 장단점을 비교하여 최선의 계측방식을 모색하였다.

46) 2004년 3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최저생계비의 계측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다.

본 조사에서는 1차 기초조사, 2차 생활실태조사 및 가격조사, 3차 가구유형별(장애인, 노인, 한부모가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는 2005년 인구주택 총 조사의 90% 조사구 자료에서 550개 조사구를 2단계 확률비례 층화집락 추출하여 22,000가구를 목표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2차 생활실태조사는 1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가구의 월평균 소득(경상소득 기준) 40% 이하 가구 중에서 각각 2,078가구를 표본 추출하여 조사하였다. 가격조사는 최저주거면적에 해당하는 집의 자가, 전세, 월세 가격 등과 통계청 등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품목 중에서 가격이 없거나, 가격이 잘 나타나지 않는 품목에 대한 가격파악을 위해 가격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3차 가구유형별 조사에서는 표본 추출된 1,5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2010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최저생계비 전문위원회에서는 전물량 방식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상대적 방식 등 여타 방식에 의한 계측결과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되었다. 표준가구의 규모와 구성은 연구진 원안대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역구분의 경우 이전의 결과와 동일하게 3개 지역으로 구분된 결과 가운데 중소도시 기준의 최저생계비를 단일안으로 확정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발표하였다.

2.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수준

우리나라 최초의 최저생계비는 1974년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계측한 값으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측되었다. 그 당시 4인 가구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는 17,392원이며, 1인 가구 4,348원, 2인 가구 8,696원, 3인 가구 13,044원으로 계측되었다.

〈표 3-2-2〉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1973년 최저생계비

(단위: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최저생계비	4,348	8,696	13,044	17,392	21,739

자료: 박찬용·김미숙(1998), 『한국의 빈곤현황과 정책과제』, UNDP·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8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해 계측된 최저생계비는 지역별로 차등을 두어 계측되었으며, 중소도시 4인 가구의 경우 296,885원, 1인 가구는 109,581원으로 계측

되었다. 1994년에는 중소도시 4인 가구 기준으로는 665,840원, 1인 가구는 206,141원으로 계측되었다. 1999년부터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계측한 최저생계비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최저생계비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발표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2010년에는 중소도시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417,980원, 1인 가구는 537,315원으로 계측되었다. 그 밖의 계측연도별, 지역별,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는 <표 3-2-3>과 같다.

<표 3-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생계비 계측결과

(단위: 원)

연도	지 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988	대도시	116,361	191,416	256,189	315,076	-	-
	중소도시	109,581	180,326	241,380	296,885	-	-
	농어촌	98,581	162,823	218,032	268,223	-	-
1994	균등화지수	0.309	0.534	0.819	1.000	1.148	1.265
	대도시	221,070	381,331	584,511	714,061	820,036	903,384
	중소도시	206,141	355,580	545,039	665,840	764,659	842,377
	농어촌	179,229	309,159	473,883	578,914	664,832	732,404
1999	균등화지수	0.349	0.578	0.795	1.000	1.137	1.283
	대도시	334,217	553,516	761,325	957,641	1,088,838	1,228,653
	중소도시	314,574	520,984	716,579	901,357	1,024,843	1,156,441
	농어촌	270,784	448,462	616,829	775,885	882,181	995,460
2004	균등화지수	0.376	0.613	0.816	1.000	1.170	1.331
	서울	545,621	889,564	1,184,014	1,450,318	1,697,478	1,930,379
	광역시	476,700	777,197	1,034,452	1,267,118	1,483,058	1,686,539
	중소도시	463,271	755,303	1,005,312	1,231,423	1,441,280	1,639,029
	농촌	395,543	644,882	858,340	1,051,395	1,230,572	1,399,411
2007	균등화지수	0.381	0.618	0.819	1.000	1.168	1.326
	대도시	514,290	832,795	1,104,060	1,348,569	1,574,940	1,787,825
	중소도시	476,390	771,423	1,022,697	1,249,187	1,458,876	1,656,072
	농어촌	410,307	664,414	880,883	1,075,905	1,256,506	1,426,349
2010	균등화지수	0.380	0.616	0.818	1.000	1.169	1.328
	대도시	571,439	928,300	1,232,968	1,508,033	1,762,981	2,002,969
	중소도시	537,315	872,866	1,159,340	1,417,980	1,657,704	1,883,361
	농어촌	490,125	796,206	1,057,521	1,293,445	1,512,115	1,717,954

자료: 안창수 외(1989),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박순일 외(1994),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2005),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 외(2007),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2010),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편,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1999년 최저생계비는 법정최저생계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과 급여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이전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때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해 계측된 최저생계비는 전문위원회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표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으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연구진안과 정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생계비 간의 차이가 다소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연구진에 의해 발표된 최저생계비는 지역별 차등을 두어 연구되었으나, 공식적인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 기준으로만 발표되었다.

먼저,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전물량 방식의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하여 40세 부(父), 37세 모(母), 11세(남), 9세(여)로 구성된 4인 가구를 표준가구로 설정하였다. 지역별 물가 차이와 특성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지역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였으며, 표준가구의 지역별 대표 점유형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전세로 설정되었다. 2010년 지역별 최저생계비 계측결과, 연구진 안으로는 4인 가구 기준, 대도시 1,508,033원, 중소도시 1,417,980원, 농어촌 1,293,445원으로 계측하였으며, 비목별 금액과 비율은 <표 3-2-5>와 같다.

<표 3-2-4> 2010년 최저생계비 표준가구(연구진안)

표준가구의 규모	표준가구의 구성
4인 가구	부(40세), 모(37세), 1자(남, 11세), 2자(여, 9세)

<표 3-2-5> 2010년 지역별·비목별 최저생계비 계측결과(연구진안)

(단위: 원,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식료품비	545,943	36.2	545,943	38.5	504,217	39.0
주거비	307,755	20.4	221,374	15.6	149,306	11.5
수도광열비	105,320	7.0	103,150	7.3	129,168	10.0
가구집기비	41,019	2.7	40,879	2.9	40,779	3.2
피복신발비	52,060	3.5	52,060	3.7	50,140	3.9
보건의료비	62,196	4.1	62,196	4.4	62,196	4.8
교육비	65,930	4.4	65,930	4.6	65,930	5.1
교양오락비	30,483	2.0	30,483	2.1	30,483	2.4
교통통신비	143,920	9.5	142,600	10.1	109,595	8.5
기타소비지출	86,072	5.7	86,072	6.1	86,072	6.7
비소비지출	67,335	4.5	67,293	4.7	65,559	5.1
합계	1,508,033	100.0	1,417,980	100.0	1,293,445	100.0

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주거점유형태는 전세를 기준으로 하였다.

자료: 김미곤·여유진 외(2010),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에 의해 발표된 최저생계비는 심의를 거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중소도시 4인 가구 기준 1,397,488원으로 단일한 금액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하였다.

〈표 3-2-6〉 2010년 중소도시 4인 가구 최저생계비(중생보위 결정)

(단위: 원, %)

구분	중소도시	
	금액	구성비
식료품비	527,327	37.7
주거비	221,374	15.8
광열수도비	103,150	7.4
가구집기비	40,547	2.9
피복신발비	57,649	4.1
보건의료비	62,196	4.5
교육비	65,930	4.7
교양오락비	27,117	1.9
교통통신비	142,600	10.2
기타소비지출	82,305	5.9
비소비지출	67,293	4.8
합계	1,397,488	100.0

자료: 김미곤·여유진 외(2010),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기타 생계비 계측

우리나라의 생계비 계측은 다양한 목적으로 과거부터 계측되어져 왔으나, 현재까지 계측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최저임금위원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들 수 있다. 먼저, 최저임금위원회와 한국노동연구원은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생계비를 계측하였으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표준생계비의 개념으로 임금교섭을 위해 매년 계측하여 발표하고 있다.

먼저, 최저임금제란⁴⁷⁾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이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

47) 정진호·김용현(2003), 『2003년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산출』에서 일부 발췌하였다.

다. 이에 따라, 저임금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고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생계비 계측이 필요하게 되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988년부터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협상을 위한 심의자료로 생계비를 산정하기 시작하였다. 1992년 이후 원시자료 이용 상의 문제로 인해 계측이 중단되었으나, 1995년부터 다시 생계비를 계측을 시작하여 2003년까지 계측 연구가 이루어 졌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전물량 방식을 준용하였으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시한 최저생계비 계측과는 달리 각 비목별 마켓 바스켓 구성에 의한 완전한 전물량 방식을 활용하지는 않았다.

〈표 3-2-7〉 2003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생계비 계측결과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¹⁾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소비지출	542,483	678,103	1,228,320	1,650,649	1,945,092	2,107,253
식료품	157,465	196,831	357,749	482,753	571,843	625,019
주거	158,789	198,486	345,996	442,530	488,087	482,667
광열수도	29,818	37,272	66,433	87,481	100,416	100,845
가구집기	10,648	13,309	24,126	32,451	38,283	41,623
피복신발	23,901	29,876	53,624	71,243	82,733	88,094
보건의료	16,497	20,622	37,964	52,027	62,811	70,316
교육교양	18,216	22,770	59,432	109,986	174,432	252,771
교통통신	64,259	80,324	142,196	185,618	210,588	217,108
기타소비	62,890	78,612	140,799	186,562	215,899	228,812
비소비지출	37,311	47,628	105,485	147,129	183,003	201,813
조세	0	0	19,768	31,263	43,546	48,712
소득세	0	0	17,971	28,421	39,588	44,284
주민세	0	0	1,797	2,842	3,959	4,428
사회보험	37,311	47,628	85,717	115,867	139,457	153,100
의료보험	10,520	13,240	23,590	30,850	38,650	41,380
고용보험	3,391	4,238	7,677	10,317	12,157	13,170
국민연금	23,400	30,150	54,450	74,700	88,650	98,550
생계비	579,793	725,731	1,333,804	1,797,778	2,128,095	2,309,066

주: 1) 18세~24세 소비지출액과 전체 소비지출액의 비율인 0.8로서 조정하여 추정하였다.

자료: 정진호·김용현(2003), 『2003년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산출』, 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의 생계비는 전체 10개 비목으로 구성되었지만, 식료품, 식료품 이외, 비소비지출에 대하여 각각 상이한 산출방식을 적용하였다. 우선, 식료품비는 영양 권장량을 충족시키도록 선정된 품목에 소비자가격을 곱하였으며, 식료품 이외의 비식료품비는 4인 가구 비목별 평균값 환산치를 가구규모별 소비지출 최빈값 계층의 비목

별 지출액을 추정하여 산출된 생계비 환산승수를 곱하여 산출하였다. 비소비지출은 관계법령에 의한 실제 부담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에서는 최저임금법 제4조 및 제23조에 의거하여 1987년 3월에 처음으로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1988년부터 1993년까지는 3월과 10월 기준으로 연 2회, 1994년부터는 10월 기준 연 1회 조사로 변경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는 미혼인 단신근로자의 실제 소비실태와 수준, 근로 소득 실태 등을 파악하여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을 활용하기 위하 목적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조사방법은 미혼 단신근로자가 매일 매일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품목, 금액 및 단위를 직접 가계부에 기입하는 가계부 기장방식이다. 본 조사는 2007년 이전에는 미혼단신 근로자 생계비 조사를 이루어졌으나, 이후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를 한국통계학회에서 연구용역 사업의 형태로 자료 분석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계측한 비목별 생계비는 다음과 같다.

〈표 3-2-8〉 2011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생계비 계측결과

(단위: 원)

구분	전체	29세 이하	34세 이하
생계비(A+B)	1,410,748	1,619,640	1,630,121
소비지출(A)	1,193,840	1,389,199	1,374,251
식료품·비주류음료	116,485	100,196	102,396
주류·담배	31,265	27,227	30,220
의료·신발	74,690	119,839	109,907
주거·수도·광열	318,654	323,357	320,767
가정용품·가사서비스	28,359	22,272	30,722
보건	57,455	84,293	60,035
교통	120,416	136,094	147,997
통신	73,865	96,962	99,545
오락·문화	60,160	90,156	90,980
교육	16,332	11,705	12,563
음식·숙박	204,599	261,873	266,974
기타상품·서비스	91,560	115,225	102,145
비소비지출(B)	216,908	230,441	255,870
조세	38,220	30,414	49,354
사회보장	91,875	118,649	120,566
기타	86,813	81,378	85,950

주: 1) 전 연령층 미혼 단신 근로자의 생계비 현황을 조사하였다.

2) 2009년 항목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기타소비지출」로 분류되었던 경조비, 교제비, 종교기부금, 귀금속구입이 「비소비지출」로 분류됨에 따라 기타에 포함하였다.

자료: 최저임금위원회(2012.5),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보고서』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도 임금교섭을 위한 생계비를 계측하고 있다. 한국노총⁴⁸⁾은 1976년부터 1990년까지 5년 마다 전물량 방식의 이론생계비 모형을 개정하여 노동자가구의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였다. 이후 1981년과 1986년에 최저생계비 모형을 부분적으로 개편하였으며, 1990년에는 최저생계비를 넘어선 사업장의 임금요구율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최저생계비에 변환계수를 적용하여 표준생계비를 산출하였다. 1995년에는 종전의 최저생계비에 주거, 교육, 건강, 여가생활 등 삶의 질과 관련되어 있는 영역에서 최소한의 지출을 추가한 모형으로 개정하였다. 2002년에는 노동자들의 표준적인 삶을 반영한 표준생계비 모형으로 전환과 함께 모집단을 도시근로자 가구에서 전체 노동자 가구로 확대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여 모형을 설계하였으며, 생계비 실태조사가 아닌 소비자 물가조사를 전국단위로 확대하였다. 이후,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따른 노동자 가구의 생활실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는 표준생계비 모형을 3년마다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2006년에는 표준생계비 모형을 개정하여 2002년 모형의 비목 및 세목의 현실적합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4년간 변화된 노동자 가구의 생활양식 및 소비경향을 반영하여 발표하고 있다.

2013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는 2006년에 개정된 ‘표준생계비 모형’에 의거하여, 2012년 소비자 물가조사를 거쳐 산출하였다. 2006년도 모형은 2005년도에 실시한 ‘표준생계비 산출을 위한 조합원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10개 비목을 가구규모별로 구성한 이론생계비로서 노동자들의 보편적인 생활실태를 반영하고 있다. 먼저, 가구모형을 살펴보면 4인 가구(1)은 가구주 40세, 배우자 37세, 11세(초), 9세(초)로 구성되어 있다.

〈표 3-2-9〉 2013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의 가구모형

구분	단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1)	4인가구(2)	4인가구(3)
가구 구성	성인1인	성인 남녀	가구주 35세 배우자 32세 5세(유)	가구주 40세 배우자 37세 11세(초) 9세(초)	가구주 43세 배우자 40세 14세(중) 12세(초)	가구주 46세 배우자 43세 17세(고) 15세(중)

자료: 한국노동조합총연맹(2013.2), 『2013년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48) 한국노동조합총연맹(2013), 『2013년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에서 일부 발췌하였다.

한국노총에서 발표한 표준생계비 결과결과를 살펴보면, 4인 가구(1)은 5,270,859원으로 계측되었으며, 단신가구는 1,890,441원으로 발표하였다. 비목별 표준생계비는 <표 3-2-10>과 같다.

<표 3-2-10> 2013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계측결과

(단위: 원)

구분	단신남성	단신여성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1)	4인가구(2)	4인가구(3)
식료품	421,426	370,988	396,239	861,403	1,052,230	1,390,590	1,479,678	1,526,432
주거비	396,133	396,133	396,133	488,622	644,882	798,811	798,811	798,811
광열수도비	94,951	94,951	94,951	111,651	129,945	160,241	160,241	160,241
가구가사용품비	74,379	76,777	75,578	124,098	135,792	154,337	154,883	155,429
피복신발비	71,415	101,951	86,683	172,474	200,150	237,660	252,194	264,254
보건위생비	95,268	126,720	110,994	196,840	248,750	303,027	306,311	306,311
교육비	54,269	54,269	54,269	54,269	355,410	514,951	529,855	781,981
교통통신비	168,056	168,056	168,056	549,408	590,705	681,510	721,810	762,110
교양오락잡비	349,629	314,754	332,192	369,754	418,161	425,315	425,315	425,315
조세공과금	167,530	174,117	175,346	342,721	473,755	604,417	634,200	700,527
합계	1,893,056	1,878,716	1,890,441	3,271,240	4,249,780	5,270,859	5,463,298	5,881,411

자료: 한국노동조합총연맹(2013.2), 『2013년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민주노총도 역시 경영계와 임금협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표준생계비를 계측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표준생계비를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문화생활을 하면서 건강하게 사는데 드는 비용이라고 정의하고, 1996년 처음 재정되었으며 2001년 모형을 전면 재조정하여 현재까지 표준생계비를 계측하고 있다.

2012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는 2008년에 개정된 ‘표준생계비 모형’에 의거하여, 2011년 민주노총 물가조사 결과를 적용하였고 일부 정부자료(도시가계연보, 교육연보 등)를 활용하여 계측하였다. 2008년도 모형은 2007년도에 실시한 ‘표준생계비 산출을 위한 조합원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10개 비목을 가구규모별로 구성한 이론생계비로서 노동자들의 보편적인 생활실태를 반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구규모별 대표가구는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결과와 조합원 생활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2008년 개정 모델과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4인 가구(1)은 가구주 40세, 배우자 37세, 8세(여), 7세(남)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2-11〉 2012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의 가구모형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1)	4인가구(2)	4인가구(3)
가구 구성	남자 28세 또는 여자 25세	가家主 31세 배우자 28세	가家主 36세 배우자 33세 4세(여아)	가家主 40세 배우자 37세 8세 여(초) 7세 남(유)	가家主 45세 배우자 42세 13세 여(중) 11세 남(초)	가家主 49세 배우자 46세 17세 여(고) 15세 남(중)

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2013.3), 『2012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해설』.

민주노총에서 발표한 표준생계비 결과결과를 살펴보면, 4인 가구(1)은 5,261,474원으로 계측되었으며, 1인 가구는 1,872,294원으로 발표하였다. 비목별 표준생계비는 〈표 3-2-12〉와 같다.

〈표 3-2-12〉 2012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계측결과

(단위: 원)

2012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1)	4인가구(2)	4인가구(3)
식료품비	332,502	654,665	833,583	1,072,113	1,154,011	1,241,891
주거비	430,924	1,005,253	1,005,253	1,140,999	1,140,999	1,140,999
광열수도비	47,491	83,619	107,637	122,264	122,264	122,264
가구가사집기비	105,502	183,812	220,067	231,540	240,584	238,341
피복비	83,993	167,985	186,548	211,839	243,182	260,972
교육비	-	-	-	433,000	558,800	640,092
교양오락비	394,083	476,500	430,167	493,667	504,833	514,833
교통통신비	160,104	519,538	574,392	586,114	620,674	655,234
보건위생비	122,978	231,631	252,161	252,704	262,704	262,704
조세공과금	194,717	533,094	522,108	717,234	780,726	829,851
총계	1,872,294	3,856,097	4,131,915	5,261,474	5,628,778	5,907,183

주: 2011년 11월 물가기준으로 산출하였다.

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2013.3), 『2012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해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위원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총, 민주노총에서 발표한 생계비를 정리하면 〈표 3-2-13〉과 같다.

〈표 3-2-13〉 각 기관 최저생계비 비교

(단위: 원)

적용년도	최저임금위원회 ¹⁾		한국노동연구원 ²⁾		한국노동 ³⁾	민주노동 ³⁾
	(매년3월/평균값)	(매년10월/평균값)	최빈값	중위값		
'12	1,312,755		-	-	1,776,820	
'11	1,233,419		-	-	1,574,000	
'10	1,193,597		-	-	1,474,170	
'09	1,158,254		-	-	1,485,320	
'08	-	1,224,310	-	-	1,310,010	
'07	-	1,176,695	-	-	1,270,830	
'05.9~'06.12	-	1,135,234	-	-	1,214,700	
'04.9~'05.8	-	1,088,496	-	-	1,179,491	
'03.9~'04.8	-	624,819	579,793	-	1,321,863	1,264,731
'02.9~'03.8	-	561,661	535,385	-	1,271,703	1,185,362
'01.9~'02.8	-	519,306	502,127	-	1,004,543	1,147,596
'00.9~'01.8	-	449,699	448,299	-	951,931	1,073,436
'99.9~'00.8	-	391,925	419,977	-	915,794	996,359
'98.9~'99.8	-	358,907	393,983	-	856,998	1,007,918
'97.9~'98.8	-	329,919	-	-	630,286	954,244
'96.9~'97.8	-	305,764	338,217	-	577,335	886,211
'95.9~'96.8	-	281,228	282,135	-	523,048	-
'94.9~'95.8	-	257,804	-	-	447,082	
'94.1~'94.8	240,644	-	-	-	394,970	-
'93	217,867	230,385	-	-	337,385	-
'92	197,692	207,095	179,554	202,727	304,893	-
'91	167,296	190,239	173,360	201,032	-	-
'90	142,887	153,741	151,520	177,983	185,383	-
'89	128,093	133,240	128,990	151,673	150,094	-
'88	115,426	-	113,079	-	159,332	-

주: 1)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자료는 산출시점 기준 1988~2002년까지는 18세 연령, 2003~2006년까지는 15~29세 연령의 실태생계비이며, 통계청 자료는 전 연령(15세~)의 실태생계비이다. 산출시점은 적용년도 기준시 2년 전('94년까지는 1년전)의 10월 한달의 기간이다

2)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산출한 자료는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 또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구, 도시가계조사) 결과를 활용한 18세 단신근로자의 이론(최빈수 또는 중위수)생계비이다

3) 민주노동당과 한국노동당은 '04년 십의부터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에서 산출한 실태생계비를 활용, 이에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예측치를 더하여 최저임금 적용년도를 기준으로 한 생계비(안)를 산출하였다. 양노동자에서 조사하여 이론생계비 산출하였다.

4) 한국경총은 '07년 십의시 처음으로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에서 산출한 실태생계비를 활용, 이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예측치를 더하여 최저임금 적용년도를 기준으로 한 생계비(안)를 산출하였다.

자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http://www.minimumwage.go.kr>)



제2부 전물량 방식의 최저생계비 계측(연구진안)



제4장 2013년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 계측의 기본방향

제1절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 계측모형

제2절 마켓 바스켓 결정원칙

제3절 표준가구 선정 : 4인가구와 2인가구

제4절 표준가구 구성

제5절 지역구분

4

2013년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

계측의 기본방향 <<

제1절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 계측모형

1. 전물량방식 최저생계비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계측모형은 3장 2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여러 연구자와 연구기관에 의해 진행되었지만 대부분은 전물량방식과 반물량방식에 기초하여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고 있다. 계측의 편리성측면에서는 반물량방식에 의해 최저생계비를 계측할 수 있지만, 최저생계비가 가지는 합의정신과 정책적 활용도를 고려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성립된 이후 지속적으로 반물량방식보다는 전물량방식에 기초하여 최저생계를 계측하고 있다. 또한 현행 최저생계비는 2014년 맞춤형 급여체제로 개편시 상대적 방식으로의 전환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계측 방식 변동에 따른 부담과, 국민들의 삶의 질과 가격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적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전물량방식에 의해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였다⁴⁹⁾.

과거 최저생계비 계측의 경우 전물량방식에 의해 최저생계비가 계측되었지만 실제 적용은 중소도시 4인가구를 표준가구로 하여 적용함으로써 대도시 지역은 최저생계비가 과소하며, 농어촌 지역은 최저생계비가 과다하게 계측되는 문제들이 제기된 바가 있다. 또한 표준가구를 기준으로 계측됨에 따라 노인, 장애인 및 한부모가구들의 경우 가구 특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거나 감소하는 비용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도 함께 지니고 있다. 따라서 중소도시기준 표준가구를 기초로 전물량방식에 의해 계측되는 최저생계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저생계비를 지역별 그리고 가구 유형별로 구분하여 계측하고 이를 정부가 정책에 반영하고 발표할 필요성이 지속적으

49) 전물량 및 반물량방식이외에 상대적 방식(중위소득 기준 또는 박탈지표 방식), 주관적 방식을 통해서도 최저생계비를 계측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적 일관성과 2014년 맞춤형 급여체제로 변화된다는 것을 고려해서 여기서는 전물량방식에 의해 계측하고 각 방식별 계측방법과 내용은 해당 장에서 추가로 설명하고자 한다.

로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지역차별과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의 정확한 계측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직접적으로 계측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본 연구속에서 전물량방식을 통해 지역별 및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를 검토해보았다.

2. 전물량방식 최저생계비 계측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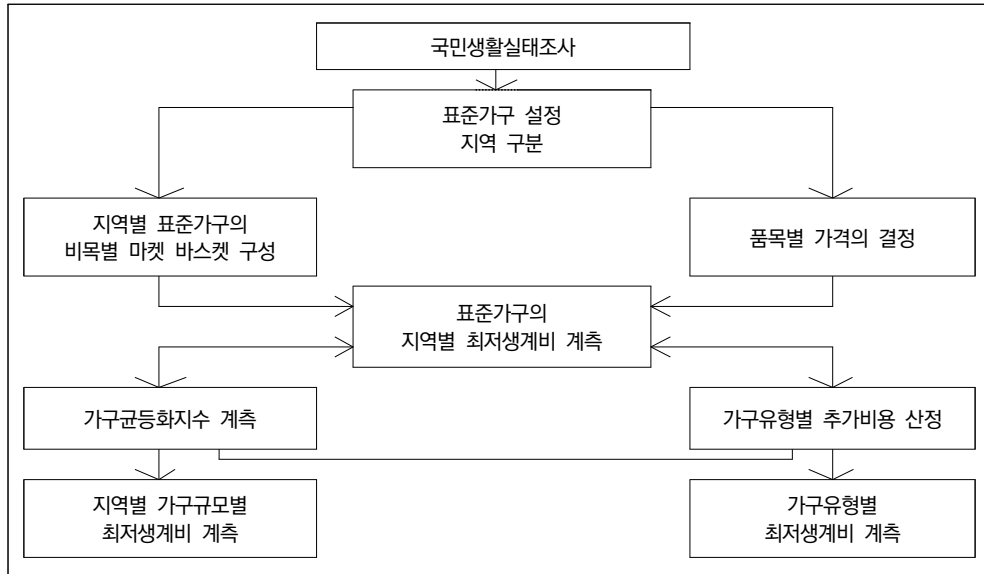
전물량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는 2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라운트리가 진행한 것을 기원으로 하여 동 사회에서 육체적으로 또는 문화와 정신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사용량(혹은 내구연수), 가격에 기초하여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게 된다. 전물량방식 최저생계비 계측에 있어 중요한 점은 연구자의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다. 즉 가장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에 기초하여 최저생계비를 계측함으로써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생계비를 계측할 수 있게 된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진행 초기부터 최저생계비가 산출될 때까지 단계별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국민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주요 항목에 대한 필수품 여부 및 사용량 등을 파악하고 이외에 주관적 최저생계비, 상대적 최저생계비 등을 산출하기 위해 전국의 22,000가구를 대상으로「국민생활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표준가구가 4인가구라는 점을 고려하고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해 저소득층 4인가구 약 1,100가구를 대상으로 각 항목별로「심층실태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최대한 객관적이고 전국적 대표성을 가진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최저생계비 계측 단계》

- 1단계: 표준가구 설정. 지역구분 결정
- 2단계: 표준가구의 지역별 최저생계비(PL_{4r}) 계측
 - $PL_{4r} = \sum P_{ir} \times Q_{ir}$
- 3단계: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PL_{jr}) 결정
 - $PL_{jr} = PL_{4r} \times HES(\text{가구균등화지수})$
- 4단계: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
 -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 가구규모별 기본경비(공통경비)+지역별 가구규모별 점유 형태별 주거비+개인별 추가지출액

[그림 4-1-1] 최저생계비 계측 흐름도



또한 객관적 가격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1차 주택가격조사와 2차 시장가격조사를 전 국단위로 진행하여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로부터 확인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하여 최저생계비 계측에 활용하였다. 이외에 정책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준거틀을 제공하고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장애인, 노인 및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서비스조사」를 함께 수행하고 이를 기초로 가구유형 별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였다.

위와 같은 전물량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계측은 계측에 필요한 하나하나의 항목에 서부터 결정되기까지 실태조사는 물론 기존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계측을 진행함으 로써 최대한 전물량방식의 단점인 연구자의 자의성을 배제하고자 노력하였다.

제2절 마켓 바스켓 결정원칙

전물량방식을 통해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기 위해서는 각 비목별로 해당항목(필수품) 을 설정하고, 이들 항목에 대한 사용량 및 내구연수와 가격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주의할 것은 연구자의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항목들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쳤다.

첫째, 국민들의 생활실태와 저소득층의 실태자료에 근거하여 최저생계비를 추정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에서 22,000가구를 조사하여 표본가구 설정, 주관적 및 상대적 최저생계비 추정 등을 하고, 또한 각 항목에서 필요한 기초통계(소비, 주거실태 등)를 산출하였다. 또한 동시에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소득 하위 40%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 약 1,100가구에 대하여 심층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동 조사에서는 외식 빈도, 광열수도비 사용실태, 내구재 소비실태, 의료비 지출실태 등을 파악하여 마켓 바스켓에 활용하였다. 또한 각 항목에 대한 가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가격조사를 진행하였다. 2013년 연구에서는 유효표본을 확보하여 조사하여, 최저생계비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공공기관 등의 가격 정보 등을 활용하였다.

두 번째 일반적으로 필수품은 ‘최저의 품위기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합의된 품목’으로 정의될 수 있다. 최저의 품위기준은 ‘기본적 욕구가 충분히 충족된 상태’(Hagenaars, 1986: 1) 혹은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필수품은 그 사회의 복지수준과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필수품은 생명 유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품일 뿐 아니라 그 국가의 관습상 그것이 없으면 신망 있는(creditable) 사람으로서의 품격(decent)을 유지할 수 없는 상품들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으며 그 예로 린넨 셔츠와 가죽 신발이 품위 유지 차원에서 필수적임을 지적(P. Townsend, 1979: 32~33.)하기도 했다. 필수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방식은 전문가에 의한 최저개념(예. 영양권장량, 최저주거기준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품목 중에서 저소득층의 소비실태를 분석하여 빈도수가 높은 품목을 선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실태자료를 최저생계비의 추정에 그대로 이용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다. 즉, 어느 수준의 저소득층을 최저생활의 대상으로 하느냐는 점과 둘째, 적절한 소득계층이 선정되었다 하여도 그들의 소비행위가 최저생활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에서는 보완적으로 소득탄성치, Logistic 분석기법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필수품을 선정하였다. 소득탄성치는 필수품의 경우 소득의 변화에 관계없이 소비가 이루어지는 반면, 사치품은 소득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원리를 적용하여

소득탄성치가 낮은 품목을 필수품으로 선정하였다. 즉, 「가계동향조사」(2012)의 모든 품목에 대하여 소득탄력성을 구하고, 탄력성이 0.5 이하인 품목을 기본적인 필수품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text{※ 품목별 소득탄력성: } \epsilon_i = \frac{dQ/Q}{dI/I} = \alpha_i$$

$$\text{※ 회귀모형: } \ln E_{ij} = C_i + \alpha_i \ln I_j$$

(단, dQ/Q : 수요량(지출액)변화율, dI/I : 소득변화율, $\ln E_{ij}$: j가구의 i품목 지출액의 자연로그 값, C_i : 상수항, α_i : 추정계수(품목별 소득탄력성), $\ln I_j$: j가구 소득의 자연로그 값)

다음으로 보유여부(또는 구입여부)와 소득을 변수로 사용한 Logistic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주어진 여건에서의 보유할 확률(또는 소비할 확률)을 추정하여, 소득이 0일 때 어떤 상품의 보유할 확률(또는 소비할 확률) 또는 일정소득 수준에서의 보유할 확률(또는 소비할 확률)을 산출하여 확률이 높은 품목을 필수품으로 선정하였다. 1999년도 최저생계비 최초 계측 당시 도출된 사회적합의 기준에 의해, 내구재의 경우 보유현황의 비율을 67%(=2/3)이상, 50이상~67%미만, 50%(=1/2)미만으로 구분한 후, 규범적으로 67%이상은 필수품으로 선정하였다.

세 번째로 사용량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먼저 사용량이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그 양을 사용량으로 결정(예. 균등할 주민세)하였다. 사용량이 규범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그 양을 사용량으로 결정(예. 영양권장량을 충족하는 식품구성, 최저거주면적)하였다.

이외에 것은 월사용량(U_i)은 가구당 품목별 월평균지출액을 그 품목의 단가로 나누는 방법과 해당품목에 대한 전체 사용량을 표본가구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출하였다.

$$\text{※ } U_i = \frac{\sum_{j=1}^n E_{ij}/n}{P_i} \text{ 또는 } \frac{\sum_{j=1}^n X_{ij}}{n}$$

(단, U_i : i품목 사용량, E_{ij} : j가구의 i품목 지출액, P_i : i품목 가격, X_{ij} : j가구의 i품목 사용량, n : 표본가구수)

그리고 실태조사에서 저소득 가구 소비수준의 대표값(최빈값, 중위값,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네 번째로 내구연수의 결정은 i)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제시된 기간보다는 길게 결

정(교환가치는 없어도 사용가치는 있기 때문)하였으며, ii) 표본수를 구입가구수로 나누어 내구연수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예. 구두)하였다. iii) 실태조사의 품목별 평균 가격을 월 지출금액으로 나누어 내구연수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예. TV, 냉장고 등)하였으며, iv) 실태조사에서 저소득 가구의 소비수준의 대표값(최빈값, 중위값,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다섯 번째로 2013년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한 가격결정은 먼저 기준시점은 2013년 1월(단, 계절변동이 심한 품목은 성수기 기준)을 기준으로 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품질은 중품 또는 중저품으로 하였으며, 통계자료가 있는 경우 통계청 물가지수 변화를 반영하여 품목별 소비자 가격을 적용하였다.⁵⁰⁾ 또한 객관적인 통계자료가 없는 경우 본 연구를 위해 진해오딘 실태조사에서 저소득 가구의 구입가격의 대표값(최빈값, 중위값, 평균값) 이용하거나, 시장가격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구분의 경우 마켓 바스켓은 대도시(서울+광역시의 동지역), 중소도시(나머지 시의 동지역), 농어촌의 세 지역으로 구성하였다. 2012년 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지역구분에 대한 세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추가논의 예정이었으나,⁵¹⁾ 2014년 기초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체계 개편될 예정이며 여기서 지역구분(주거급여안)이 세부적으로 검토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기존 선행연구들과 현재 주거급여에서 적용되고 있는 지역구분안을 토대로 계측하였다. 각 항목에 있어서도 저소득층 소비실태(「가계동향조사」 및 「국민생활실태조사」)에 대한 ANOVA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품목(예. 주거비)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차등화된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였다. 단, 소비실태에서 지역별 차이가 있더라도 규범적으로 동일한 소비를 요하는 품목(예. 식료품의 영양학적 요구량 기준, 보건의료비)은 지역별 차이를 두지 않았다.

50)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가격월보」자료가 2008년 5월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됨. 따라서 불가피하게 2013년 1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하여 가격을 추정함. 즉, 2013년 1월 기준 가격은 2010년 마켓 바스켓 가격을 기준으로 2010년 대비 2013년 소비자물가지수 비율(인구가중치를 적용한 가중평균)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51) 제1안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2-1안 수도권-지방도시-지방농어촌, 2-4안 서울-서울제외 수도권-지방도시-지방농어촌

제3절 표준가구 선정 : 4인가구와 2인가구

1. 표준가구의 개념 및 활용

현재의 최저생계비 계측은 전물량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 방식을 통해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고자 할 때에는 어떤 가구를 기준으로 하느냐를 사전적(事前的)으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구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전물량방식에 포함되는 식료품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통비 등 여러 비목별 사용량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 따라 계측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어느 가구를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계측할 것인지에 대한 과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설정된 표준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및 급여기준인 최저생계비의 구성 및 산정방식인 전물량방식의 마켓 바스켓 설정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현행 최저생계비가 전물량방식에 의해 측정되고 있으며, 전물량방식은 가구내 구성원들이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품목과 사용량 및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통해 최저생계비를 산출하게 된다. 또한 최저생계비의 적용은 특수한 계층이 아닌 국민모두에게 필요시 제공되는 공공부조제도라는 점에서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전물량방식이 구성될 필요가 있으며, 이때 기준이 되는 가구가 표준가구이다.

가구 형태 또는 구성을 규정함에 있어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그러한 가구가 얼마나 대표성을 지니는가 하는 점이다. 이와 같이, 가구규모와 가구원 구성 등의 측면에서 최저생계비 계측 당시 그 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가구형태를 표준가구 또는 준거가구(reference family)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금까지 표준가구 또는 준거가구는 그 사회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점하는 가구형태, 즉 최빈가구로 설정되어 왔다. 즉 최저생계비가 계측된 1999년부터 지금까지 4인가구를 표준가구로 설정하여 왔다. 하지만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기존 4인가구가 아닌 2인 가구가 가장 주된 가구(최빈가구) 유형으로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표준가구였던 4인가구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최빈가구인 2인가구로 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표 4-3-1〉 가구원 수 규모(1980~2010)

(단위 : 천 가구, %)

구 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일반가구	7,969 (100.0)	9,571 (100.0)	11,355 (100.0)	12,958 (100.0)	14,312 (100.0)	15,887 (100.0)	17,339 (100.0)
1인	383 (4.8)	661 (6.9)	1,021 (9.0)	1,642 (12.7)	2,224 (15.5)	3,171 (20.0)	4,142 (23.9)
2인	840 (10.5)	1,176 (12.3)	1,566 (13.8)	2,185 (16.9)	2,731 (19.1)	3,521 (22.2)	4,205 (24.3)
3인	1,153 (14.5)	1,580 (16.5)	2,163 (19.1)	2,636 (20.3)	2,987 (20.9)	3,325 (20.9)	3,696 (21.3)
4인	1,620 (20.3)	2,422 (25.3)	3,351 (29.5)	4,110 (31.7)	4,447 (31.1)	4,289 (27.0)	3,898 (22.5)
5인 이상	3,974 (49.9)	3,734 (39.0)	3,253 (28.7)	2,385 (18.4)	1,922 (13.4)	1,582 (10.0)	1,398 (8.1)

자료: 통계청, 2010 인구주택 총조사 전수집계결과 보도자료(2011.7.7)

따라서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의 경우 지난 최저생계비 계측과 다르게 사전에 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표준가구의 가구원수를 어느 것으로 설정할 것인지 먼저 논의가 진행된 이후, 표준가구의 구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2단계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와 비교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전국실태조사 자료인『복지욕구실태조사』와 『가계동향조사』의 조사결과를 통해 평균가구원수와 최빈가구의 규모를 살펴보면, 복지욕구실태조사는 최빈가구가 2인, 평균가구원수가 약 2.7명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11년 가계동향조사의 경우에는 여전히 최빈가구가 4인이며, 평균가구원수는 2.82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3-2〉 최빈 및 평균 가구규모

(단위: 명)

기술통계량	복지욕구실태조사 (2010)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1)	통계청 가구추계		
			(2011)	(2012)	(2013)
평균 가구원수	2.69	2.82	2.83	2.82	2.81
최빈 가구규모	2	4	4	4	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년 복지욕구 실태조사』 원자료
통계청(2011),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통계청(각년도), 『가구원수별 추계가구』 (kostat.go.kr).

가구형태별의 가구비율을 통계청자료를 통해 살펴보면(1인가구 제외), 혈연가구수는 17,339가구이며 이중 부부와 미혼자녀로 된 가구가 37.0%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부부가구가 15.4%, 한부모와 미혼자녀 9.2%의 순이었다. 추계 가구에서도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2013년 40.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부부가구인 것으로 추계되었다.

〈표 4-3-3〉 가구형태별 가구 비율(1인가구 제외)

(단위: 천가구, %)

연도		혈연가구수	핵가 족			직 계 가 족		기타가족
			부부	부부와 미혼자녀	한부모와 미혼자녀	부부와 양(편)친	부부와 (편)친과 자녀	
인구주택총조사(2010)		17,339	15.4	37.0	9.2	0.9	3.8	33.7
추계 가구	2011	17,380	15.4	41.1	8.7	1.1	4.2	29.4
	2012	17,596	15.6	40.9	8.7	1.1	4.2	29.5
	2013	17,803	15.8	40.6	8.7	1.1	4.2	29.5

자료: 통계청,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통계청, 『가구구성별 추계가구』(kostat.go.kr).

2. 국내외 연구의 표준가구 현황

국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의 표준가구와 관련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여섯 차례(1989년, 1994년, 1999년, 2004년, 2007년, 2010년)에 걸친 최저생계비 계측이 있었으며, 공식적인 최저생계비 계측은 네 차례(1999년, 2004년, 2007, 2010년)에 걸쳐 이루어진 바 있다. 여기서 표준가구는 주로 실태조사 결과의 최빈치를 바탕으로 선정되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9년 최저생계비 계측 이래로 표준가구의 규모는 4인가구로 동일하게 유지되어 왔다. 즉 평균 가구원수는 1989년 4.36명에서 2010년 2.84명으로 급격히 감소해 왔으나, 여전히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최빈가구는 4인가구로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다.

〈표 4-3-4〉 최저생계비 계측에서의 표준가구 규모 및 구성의 변화

연도	표준가구	가구원구성				산출방법	비고	
		부	모	1자	2자		4인가구 비중	평균 가구원수
1989	4인	37세	33세	8세(여)	5세(남)	실태조사결과 평균가구원수	-	4.36인
1994	4인	37세	33세	8세	5세	-	-	
1999	4인	36세	33세	7세(남)	5세(여)	실태조사결과 최빈가구원수	(4인-35.4%)	평균은 3.45인
2004	4인	39세	36세	10세(남)	8세(여)	실태조사결과 최빈가구원수	(4인-29.1%)	평균은 3.02인
2007	4인	40세	37세	11세(남)	9세(여)	실태조사결과 최빈가구원수	(4인-27.3%)	평균은 2.94인
2010	4인	40세	37세	11세(남)	9세(여)	실태조사결과 최빈가구원수	(4인-26.6%)	평균은 2.84인

자료: 안창수 외(1989),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박순일 외(1994),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2004),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김미곤 외(2007),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여유진 외(2010),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외국의 경우 전물량 방식으로 최저생계비(빈곤선)를 설정하고자 하는 목적 또는 국가 간에 사회보장 급여 수준 등을 비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표준가구를 설정하는 예가 있다. 대표적인 예는 일본 후생성의 생활보호기준으로, 여기에서 표준가구는 1984년까지 35세(남), 30세(여), 9세(남), 4세(여)로 구성된 4인 근로자가구였으나, 1985년 이후에는 33세(남), 29세(여), 4세(남)로 구성된 3인 가구를 표준가구로 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표준가구의 가변적 속성을 다소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구성의 표준가구를 설정하되, 전체적인 인구구조와 가구구성이 변화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표준가구의 규모와 구성을 모두 변화시키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일본의 표준가구는 1946~1963년까지 5인 가구, 1964~1985년까지 4인 가구, 1986년 이후 현재까지 3인 가구로 유지되고 있다.

미국은 Orshansky의 반물량 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CNS(Committee on National Statistics)에 의해 제시된 마켓 바스켓방식에 의한 빈곤선 설정에서도 미국의 일반적인 가구형태를 기준으로 2인 성인과 2인 아동으로 구성된 4인 가구를 표준가구로 제시

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LICOs(Low Income Cut-Offs)와 더불어 사용되는 마켓 바스켓 방식에서 역시 25~49세의 성인 부부와 13세(남), 9세(여)로 구성된 4인 가구를 표준가구로 설정하고 있다.

〈표 4-3-5〉 외국 최저생계비에서의 표준가구

국가	최저생계비		표준가구규모	표준가구구성	비고
미국	CNS의 MBM		4인	2인 성인, 2인 아동	연령제시×미국의 대표적 가구형태 기준
캐나다	MBM		4인	25~49세 부부, 13세 남아, 9세 여아	
일본	후생성 생활보호 기준	~1984	4인	35세(남), 30세(여), 9세(남), 4세(여)	근로자가구 기준
		1985~	3인	33세(남), 29세(여), 4세(남)	근로자가구 기준
국가간 비교연구	Behrendt		4인	35세(남), 35세(여), 7세, 5세	

자료: Behrendt(2001), 『Minimum Income Schemes and the Alleviation of Poverty? a Flawed Safty Net?』, Paper prepared for the RC19 Conference on Old and New Social Inequalities: What Challenges for the Welfare States. Oviedo. September 6-9.

Citro(2004), 『Options for Setting and Updating a Reference Family Threshold for a Revised Poverty Measure』.

Hatfield, Michael(2002), 『Constructing the Revised Market Basket Measure. Applied Research Branch Strategic Policy』,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

Statistics Canada(2011), 『Low Income Line(2009~2010)』.

United States Census Bureau(2011), 『The research supplemental Poverty measure: 2010』.

生活保護制度研究會(2011), 『保護のてびき』, 평성23년.

김마균·여유진 외(2010),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인용.

2010년과 2011년을 기준으로 미국, 일본 및 캐나다의 경우에는 여전히 아래 표의 자료와 동일한 표준가구를 운영하고 있다. 표준가구를 확인할 수 있는 미국, 일본, 캐나다의 가구원수별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미국의 경우 이미 1970년대부터 2인가구가 최빈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인 2010년에는 2인가구가 33.6%, 4인가구는 13.7%로 조사되었다. 일본의 경우 1980년에는 4인가구가 25.3%로 최빈가구로 조사되었지만 1990년에는 1인가구가 23.1%로 최빈가구로 나타났으며, 동 경향이 강화되어 2010년에는 31.2%까지 증가하였다. 캐나다는 1996년 2인가구가 31.6%로 최빈가구였으며, 가장 최근인 2006년에도 3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표 4-3-6〉 국가별 가구규모 현황

(단위: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이상	합계
미국	1970	17.1	28.9	17.3	15.8	10.3	10.6	100.0
	1980	22.7	31.4	17.5	15.7	7.5	5.3	100.0
	1990	24.6	32.3	17.3	15.5	6.7	3.7	100.0
	2000	25.5	33.1	16.4	14.6	6.7	3.7	100.0
	2005	26.6	33.0	16.1	14.5	6.3	3.5	100.0
	2010	26.7	33.6	15.9	13.7	6.3	3.9	100.0
일본	1970	20.3	13.8	17.6	22.7	12.9	7.5	99.9
	1980	19.8	16.8	18.1	25.3	11.1	5.7	100.2
	1990	23.1	20.6	18.1	21.6	9.4	4.7	100.1
	2000	27.6	25.1	18.8	16.9	6.8	3.1	100.0
	2005	29.5	26.5	18.7	15.7	5.8	3.7	100.0
	2010	31.2	27.1	18.5	14.9	5.2	3.0	100.0
캐나다	1996	24.2	31.6	16.9	17.0	7.0	3.3	100.0
	2001	25.8	32.6	16.3	22.3		3.1	100.1
	2006	26.8	33.6	15.9	20.8		2.9	100.0

자료 : 미국, United States Census Bureau <http://www.census.gov/>일본 통계청, <http://www.stat.go.jp/english/index.htm>캐나다, Statistics Canada, <http://www.statcan.gc.ca/start-debut-eng.html>호주,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http://www.abs.gov.au/websitedbs/>

3. 표준가구 선정을 위한 분석결과

가. 4인가구를 표준가구로 설정시

1999년 최저생계비가 처음 도입되면서 최저생계비 계측은 4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전물량방식에 의해 최저생계비가 계측되었다. 역시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표준가구를 4인가구로 설정할 경우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살펴보면, 먼저 장점으로는 첫째, 전물량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는 우리나라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가구를 중심으로 마켓 바스켓이 구성된다는 점에서 4인가구가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즉, 40대의 가구주와 배우자를 중심으로 자녀 2인으로 표준가구가 구성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일반적 가구들이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의 수준과 가격을 결정하는데 용이하다. 둘째, 4인가구의 가구구성원의 변경을 통해 욕구에 맞춘 마켓 바스켓의 구성과 그 특성을 반영하는데 용이하다. 예를 들어 장애인가구는 4인 중 1인 또는 2인이 장애인임을 가정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필수품과 가격으로 전물량방식의 최저생계비를 계측할 수 있다. 또한 한부모 가구의 경우 4인가구에서 모나 부 중 한명을 제외하여 산정할 수 있다. 셋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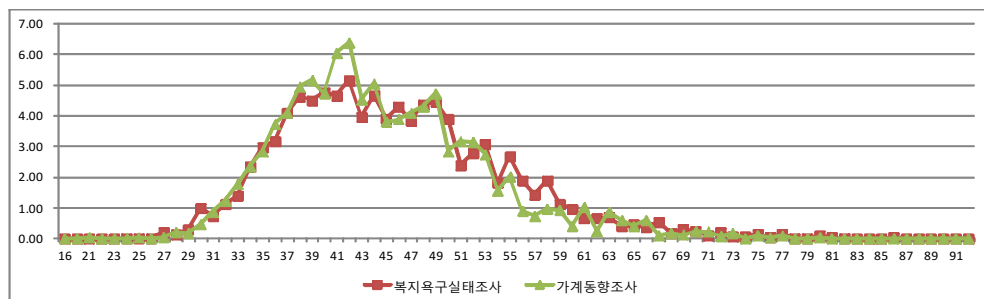
가구주 연령의 변경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화 추세를 반영할 수 있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표준가구의 구성이 1989년 부 37세, 모 33세, 첫째아 8세, 둘째아 5세에서 2004년에는 부 39세, 모 36세, 첫째아 10세, 둘째아 8세로 2010년에는 부 40세, 모 37세, 첫째아 11세, 둘째아 9세로 조정된 바가 있다. 넷째, 1999년 최저생계비가 도입된 이후 4인가구를 표준가구로 하여 전물량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가 계측되고 있어 정책적 일관성 및 통일된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계측이 가능하다.

이와 반대로 4인가구를 표준가구로 설정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는 첫째,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2인가구가 최빈가구로 변경된 점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이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대상과 연령이 고령층임을 감안시 노인에 적합한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현행 4인 표준가구의 가구주 및 배우자와 자녀의 연령이 중장년과 십대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를 중심으로 차년도 최저생계비가 발표됨에 따라, 실제 1, 2인이 다수인 수급자가구에 적용되는 최저생계비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및 복지욕구실태조사를 통해 4인가구 중 남성가구주의 연령 분포는 아래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다.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42세를 최빈으로 41세가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복지욕구실태조사에서도 비중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42세를 최빈으로 하여 40세가 44세에 비해 다소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동 연령대는 2007년과 2010년 최저생계비 표준가구의 남성가구주 연령 40세에 비해서는 2세가 증가한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추세와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3-1] 가계동향조사(2011) 및 복지욕구실태조사(2010) 4인 가구 남성가구주 연령분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년 복지욕구실태조사』 원자료.
통계청(2011),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구체적으로 4인가구의 가구구성을 살펴보기 위해 통계청 『2011년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살펴보면 먼저 가구주와 배우자 연령대의 최빈값을 보면 가구주가 40대이면서 배우자가 역시 40대인 경우가 31.0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으로 가구주가 30대이며, 배우자가 30대인 경우가 23.92%로 조사되었다. 4인가구의 가구구성을 보면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44.9세이며, 이중 남성이 92.03%, 여성가구주가 7.97%로 남성가구주가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표 4-3-7〉 4인 가구 : 가구주와 배우자의 연령

(단위: 가구, %)

배우자 가구주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5세	65세 이상	총합
19세 이하	0 0.00	0 0.02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20~29세	0 0.00	4 0.17	8 0.32	0 0.00	0 0.00	0 0.00	0 0.00	13 0.49
30~39세	0 0.00	39 1.49	629 23.92	43 1.65	0 0.00	0 0.00	0 0.00	711 27.05
40~49세	0 0.00	9 0.35	394 14.98	816 31.06	23 0.87	0 0.00	0 0.00	1,242 47.26
50~59세	0 0.00	0 0.00	2 0.06	229 8.70	273 10.38	6 0.23	3 0.11	512 19.49
60~65세	0 0.00	0 0.00	0 0.00	0 0.00	61 2.32	19 0.72	6 0.22	86 3.26
65세 이상	0 0.00	0 0.00	0 0.00	0 0.00	14 0.54	26 0.98	25 0.94	65 2.46
총합	0 0.00	53 2.01	1,032 39.28	1,088 41.41	371 14.11	51 1.93	33 1.26	2,628 100.00

자료: 통계청(2011),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인가구원의 구성은 배우자인 경우가 95.01%로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평균연령은 41.3세, 성별로는 여성이 93.56%로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3번 및 4인가구원은 미혼자녀로 각각 96.35%, 90.53%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 4인가구의 기본적 구성은 기존 최저생계비 계측에 적용된 표준가구인 4인가구의 기본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4-3-8〉 4인 가구의 구성

(단위: 가구, %)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2번 가구원		3번 가구원		4번 가구원	
		빈도/세	백분율	빈도/세	백분율	빈도/세	백분율	빈도/세	백분율
가구주의 배우자				2,641	95.01	0	0.00	0	0.00
미혼자녀				106	3.81	2,679	96.35	2,517	90.53
기혼자녀 및 그 배우자				10	0.34	30	1.09	12	0.43
가구주나 배우자의 부모				6	0.23	32	1.16	63	2.27
손자녀, 증손자녀 및 그 배우자				14	0.50	33	1.19	139	4.99
조부모				3	0.11	0	0.00	1	0.03
가구주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0	0.00	4	0.13	24	0.86
기타				0	0.00	2	0.07	25	0.89
평균 연령		44.9	8.31	41.3	9.78	15.1	10.19	15.1	16.52
성별	남	2,558	92.03	179	6.44	1,419	51.03	1,426	51.28
	여	222	7.97	2,601	93.56	1,361	48.97	1,354	48.72
총합						2,780		100	

자료: 통계청(2011),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나. 2인가구를 표준가구로 설정시

앞에서 4인가구를 표준가구로 설정할 경우 장단점과 실태상 나타난 4인가구의 구성을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2인가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2인가구를 표준가구로 설정하여 최저생계비 계측할 경우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장점으로는 첫째,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가구원수 변화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인구조사에서 나타난 2인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최저생계비를 계측함으로써 그 수준과 특성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적용할 수 있다. 이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1인 및 2인가구의 특성에 부합되는 최저생계비 계측이 가능하다. 둘째, 2인가구 구성원의 연령대가 60대라는 점(이하 설명)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대상인 노령층의 특성을 반영한 최저생계비 계측이 가능하다. 셋째, 2인가구 최저생계비가 발표됨으로써 관련 통계들과의 비교연구에 있어 좀 더 정확성을 기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다른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2인가구 전물량방식에 의해 최저생계비가 발표됨으로써 최저임금, 국민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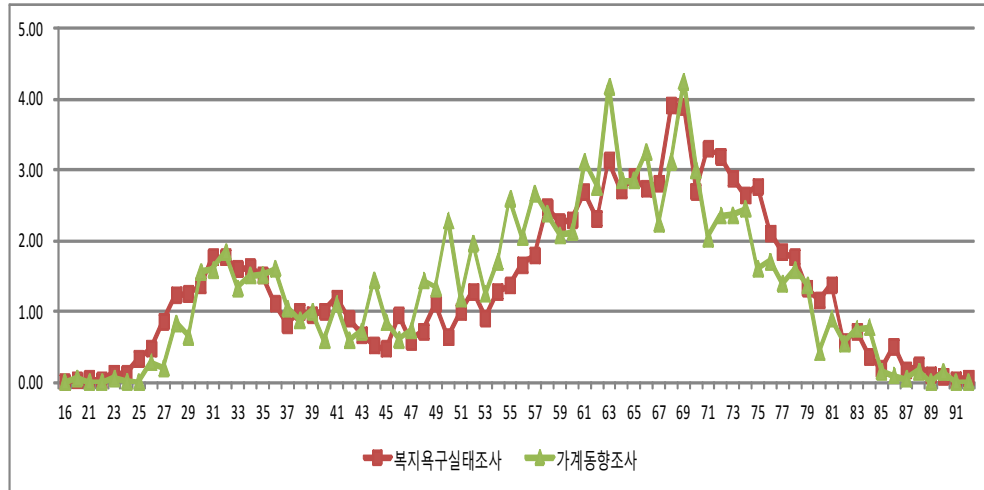
의 급여수준 등과의 비교가 간접적으로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이들 지표들의 수준이 적정하게 책정되고 있으며 국민실태를 반영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첫째, 2인가구 구성원 연령대가 60대로 구성됨에 따라 노인가구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기타 다른 가구들의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청년가구 또는 중년가구에 대한 최저생계비를 어떻게 결정한 것인지, 장애인 또는 학생이 있는 가구들의 가구형태에 따른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 연구나 검토가 요구된다. 둘째, 노인가구를 중심으로 최저생계비가 계측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인 국민들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최저생계비 적용과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고 있는 세금 및 사회보험료 등에 대한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 최저생계비 비목중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 등에서 청장년과 노인층간에 차이가 분명히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반영하는 것에 한계를 지닌다. 셋째, 우리나라 노인들의 소득은 매우 열악하며, 낮은 소득은 낮은 소비를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계측된 최저생계비는 소비가 억제된 상태에서의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게 될 수 있다. 넷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저생계비 계측이 4인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정책적 연관성 및 지속성을 상실할 수 있다.

4인가구와 동일하게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및 복지욕구실태조사를 통해 2인가구 중 남성가구의 연령분포는 아래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림에서 보면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69세를 최빈으로 63세가 비슷한 수준으로 많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복지욕구실태조사에서도 다소 차이가 있지만 68세를 최빈으로 하여 69세가 다소 낮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동 연령대는 2007년과 2010년 최저생계비 표준가구의 남성가구주 연령 40세에 비해서는 69세는 30세가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 『2011년 가계동향조사』 조사 결과를 통해 가구주와 배우자 연령대의 최빈값을 보면 가구주가 65세 이상이면서 배우자도 역시 65세 이상인 경우가 28.5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가구주와 배우자가 모두 50대인 경우가 15.31%로 조사되었다. 청장년층에 해당되는 30대의 경우에는 7.69%로 고령자들에 비해 낮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2인가구의 대부분이 고령화 및 핵가족화 현상을 반영하여 60대 이상의 고령계층이 많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4-3-2] 가계동향조사(2011) 및 복지욕구실태조사(2010) 2인 가구 남성가구주 연령분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년 복지욕구실태조사』 원자료.
통계청(2011),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표 4-3-9〉 2인 가구의 가구주와 배우자의 연령(2011년 기준)

(단위: 가구, %)

배우자 가구주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5세	65세 이상	총합
19세 이하	0 0.00	0 0.02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2
20~29세	0 0.00	25 1.25	7 0.33	0 0.00	0 0.00	0 0.00	0 0.00	31 1.57
30~39세	0 0.00	57 2.85	154 7.69	4 0.19	0 0.00	0 0.00	0 0.00	215 10.73
40~49세	0 0.00	1 0.07	18 0.92	82 4.12	16 0.82	0 0.00	0 0.00	118 5.92
50~59세	0 0.00	2 0.12	1 0.07	93 4.67	306 15.31	31 1.57	20 1.00	455 22.73
60~65세	0 0.00	0 0.00	0 0.00	2 0.11	186 9.28	126 6.29	31 1.57	345 17.25
65세 이상	0 0.00	0 0.00	0 0.00	0 0.01	42 2.10	222 11.09	572 28.56	836 41.77
총합	0 0.00	86 4.30	180 9.00	182 9.11	550 27.50	379 18.96	623 31.13	2,001 100.00

자료: 통계청(2011),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인가구의 가구구성을 구체적으로 보면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56.5세이며, 이중 남성가구가 69.05%, 여성가구가 30.95%로 남성가구가 여성가구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2인가구원의 구성은 배우자인 경우가 68.2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미혼자녀가 19.71%, 손자녀 등이 7.12%의 순으로 분석된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50.1세, 성별로는 여성이 78.84%로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 2인가구의 특성은 기존 최저생계비 계측에 적용된 표준가구인 4인가구의 특성과는 다소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2인가구를 중심으로 표준가구가 설정될 경우, 연령대가 60대 후반으로 결정됨에 따라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전물량방식의 마켓 바스켓이 노인의 특성을 반영한 형태로 계측될 것으로 보인다.

〈표 4-3-10〉 2인 가구 : 가구주와의 관계

(단위: 가구, %)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2인 가구원	
		빈도/세	백분율/S.D.	빈도/세	백분율/S.D.
가구주의 배우자				1,954	68.29
미혼자녀				564	19.71
기혼자녀 및 그 배우자				8	0.29
가구주나 배우자의 부모				43	1.50
손자녀, 증손자녀 및 그 배우자				204	7.12
조부모				3	0.09
가구주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68	2.38
기타				17	0.61
평균 연령		56.5	14.34	50.1	19.70
성별	남	1,976	69.05	605	21.16
	여	885	30.95	2,256	78.84
총합				2,861	100

자료: 통계청(2011),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4. 4인 표준가구(안) 및 2인 표준가구(안) 소결 및 활용방안

가. 4인 및 2인 가구의 특성

4인가구 및 2인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인가구의 경우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최빈가구(24.3%)로 나타나, 우리나라 최빈가구 형태로 나타났지만, 가구 구성에 있어서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구주와 배우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노인가구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두 번째 가구원의 경우, 배우자와 (미혼)자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을 지닌다. 2인가구가 표준가구로 결정되어 최저생계비 계측이 진행될 경우 전물량방식에서는 가구원수 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연령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노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마켓 바스켓이 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학생 및 중장년층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마켓 바스켓을 구성해야 하며, 추가적인 시간의 소요와 더불어 마켓 바스켓 구성과 관련된 논쟁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4인 가구의 경우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최빈가구(22.5%)의 형태는 아니지만, 가구 구성에 있어 우리나라 일반적 가구들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남성가구주 및 배우자의 연령대가 40대로 기존 최저생계비 계측연구의 연구결과와 비슷하였으며, 최근의 인구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가구주 및 배우자의 연령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모두 초등학교를 다니는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어 최저생계비에서 적용될 수 있는 교육비, 자녀 양육에 따른 비용들을 반영하는데 용이하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 4인가구에 포함된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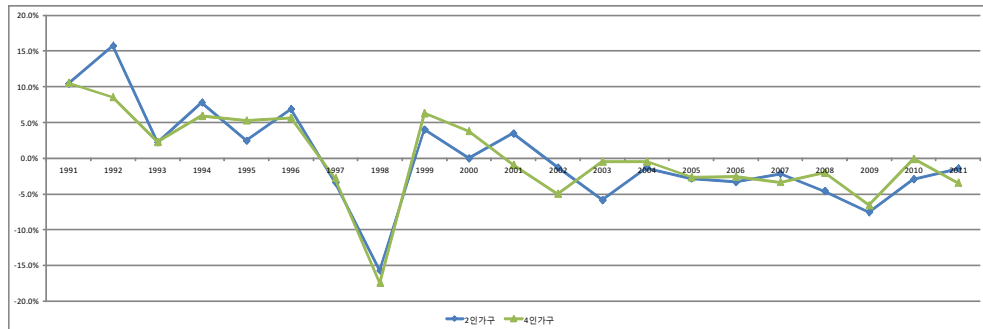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도시가구의 2인 및 4인가구의 가계지출 및 소비지출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두 대표가구의 가계 및 소비지출의 변화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안정적 소비구조를 지닌 가구형태를 표준가구로 설정함으로써 정책 결정, 최저생계비 계측 및 적용에 있어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먼저 가계지출을 기준으로 지난 20년간 가계지출의 평균증가변화율과 연도별 증가율간의 차이를 보면, 1990년 초반과 1990년대 말 경제위기 기간을 제외하면 2인가구 및 4인가구의 가계지출 변화의 패턴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구원수별 실제 가계

및 소비지출의 변화에서도 1990년대 초반과 1998년의 경제위기 기간을 제외하면 2인가구 및 4인가구의 지출변화에서는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4-3-3] 도시가구 가구원수별 가계지출 변화(평균변화율과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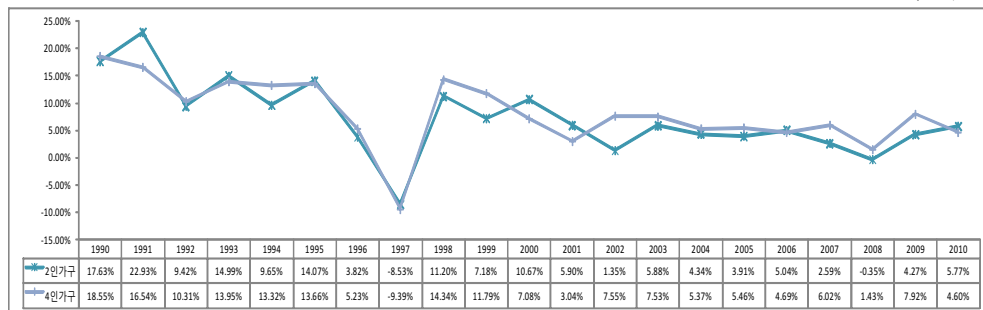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각년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4-3-4] 도시가구 가구원수별 가계지출 변화

(단위: %)



자료: 통계청(각년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4-3-5] 도시가구 가구원수별 소비지출 변화

(단위: %)



자료: 통계청(각년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표준가구 설정에 있어 주요한 측면은 2인 및 4인가구를 설정하는 것과 더불어 내부 구성원의 특성을 함께 파악하는 것이다. 즉 가구구성시 가구주 및 배우자의 최빈연령, 성별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최저생계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앞에서 분석한 2인 및 4인가구의 가구주 최빈연령을 중심으로 다시 분석해 보면, 도시가구 중 4인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40대를, 2인가구는 60대를 기준으로 하여 가계지출 및 소비지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계지출을 기준으로 지난 20년간 가계지출의 평균증가율의 변화를 보면, 2인가구에 비해 4인가구의 지출변화율이 크지 않고 안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가구원수별 평균적 지출을 통한 변화와 최빈연령을 고려하여 분석한 경우, 지출이 최빈연령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소비지출의 경우에는 60대 2인가구의 소비지출변화율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40대 4인가구의 소비지출 변화율은 1998년이 경제위기기준을 제외하고는 다소 큰 변화없이 변화하고 있다.

〈표 4-3-11〉 도시가구 주요연령별 가구원수별 지출 증감율 변화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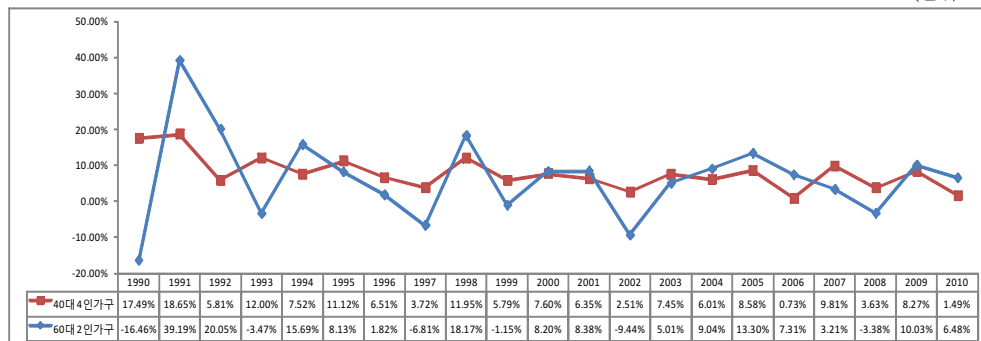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증감율 변화량	변동계수(CV)
가계지출	40대 4인가구	7.76	0.60
	60대 2인가구	10.22	0.83
소비지출	40대 4인가구	8.03	0.53
	60대 2인가구	12.22	0.84

자료: 통계청(각년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4-3-6〕 도시가구 가구원수별 가계지출 변화(최빈연령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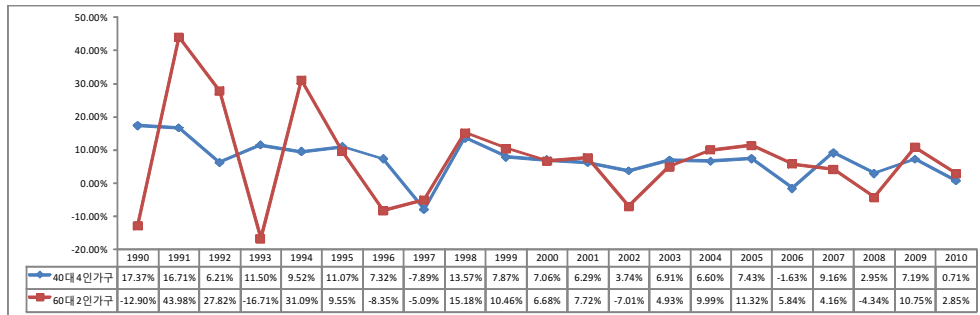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각년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4-3-7] 도시가구 가구원수별 소비지출 변화(최빈연령기준)

(단위: %)



자료: 통계청(각년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나. 표준가구 설정을 위한 소결

표준가구는 최저생계비 계측시 전물량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이며, 표준가구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최저생계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및 급여기준으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절대적 삶의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따라서 최저생계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요 통계로 국민들의 특성과 삶의 수준을 반영하고 정책적 필요에 따라 그 전환과 적용이 용이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보면 최근 2인가구가 우리나라의 최빈가구로 변경되었지만 2인가구의 구성이 노인가구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최저생계비 계측에 적용시 노인가구의 특성은 반영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체적인 삶의 수준을 나타내거나 정책적 필요에 따른 활용에 있어서도 한계를 지닐 수 있다.

반면에 4인가구의 경우 최빈가구의 형태는 아니지만 가구구성에서 40대 가장과 배우자 및 그 자녀로 구성됨으로써 일반적 가구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국민들의 체감하는 복지와 삶의 질을 반영하기 위한 정책적 환경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표준가구로서의 활용도는 매우 높다. 또한 전체 국민 중 4인가구에 포함된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각 국가별 최빈가구가 2인 또는 1인으로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4인가구를 지속적으로 표준가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표준가구를 변경하기 보다는 4인가구를 표준가구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저생계비 설정을 위한 전물량방식의 기준이 되는 대상가구의 지출변화측면에서

40대의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소비 및 가계지출의 변화가 60대의 2인가구 기준 소비 및 가계지출의 변화에 비해 좀 더 안정적으로 나타나므로, 정책적 안정성과 통일성 측면에서 4인가구 표준가구를 유지하는 방안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경우, 표준가구를 통해 최저생계비가 결정되면 가구균등화지수를 통해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가 산출된다. 이론적으로는 4인가구를 통해 최저생계비가 결정되거나, 2인가구를 통해 최저생계비가 산출되어도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된다. 단, 표준가구의 연령과 구성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2인가구대비 4인가구의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의 변경(상대적 방식)이 이루어질 경우, 2인 또는 4인가구의 내부구성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할 수 있다. 계측방식의 전환을 통해 일본과 같이 4인가구에서 3인가구로 표준가구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가구원수 변화를 고려하여 2인 또는 1인가구로 대표가구가 변경될 수 있을 것이다.

5.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표준가구 심의결과

표준가구에 대해서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2013년 3회(표준가구는 2회)에 걸쳐 전문가 집단에 의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제4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12. 8. 28)에서 표준가구에 대한 최종결정되었다. 먼저 전문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보면, 제1차 소위원회(2012. 7. 9)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표준가구의 장단점과 표준가구 변경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연구자료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검토결과 표준가구는 사회적 가치가 들어간 개념으로, 2인을 표준가구로 선정시 노인가구가 될 경우 노인 2인가구는 우리나라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현재 최저생계비 전물량방식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가구를 최빈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가구원 수보다 가구유형 기준으로 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2인 표준가구는 각 경우마다 검토작업(노인, 학생, 장애인 등 고려)이 상당하여 비효율적이며, 가구균등화지수가 적정하다면 표준가구 전환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후 진행된 제2차 소위원회(2012. 7. 23)에서는 표준가구에 대한 연구자료와 1차 소위원회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2013년 최저생계비 측정을 위한 표준가구는 4인가구

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문위원회 소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최종적으로 2013년 8월에 개최된 제4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회를 산하 소위원회의 논의결과를 검토 후,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의 표준가구로 4인가구를 유지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결을 이루었다. 그 결과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은 기존 방식과 동일한 4인가구를 기준으로 계측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제4절 표준가구 구성

1.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표준가구 구성안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표준가구의 규모는 2012년 중생보위(2012. 8. 28)에서 4인가구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표준가구 4인가구의 구체적인 구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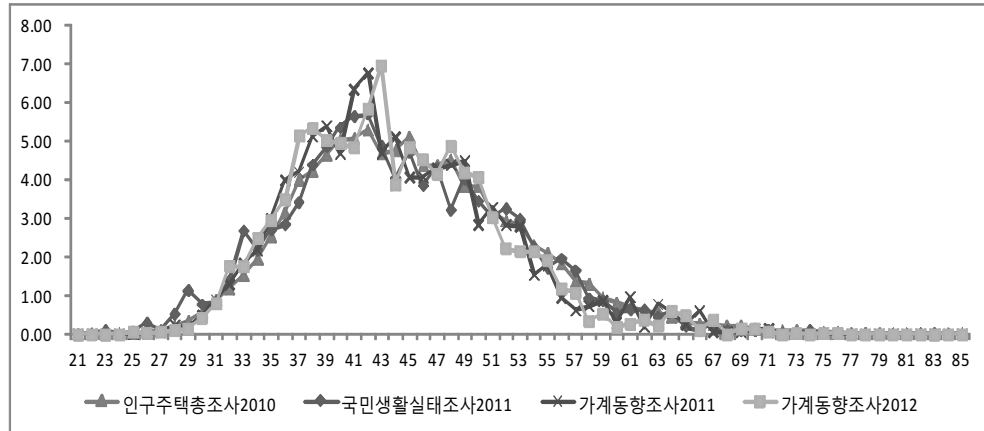
표준가구 구성을 보면 먼저 4인가구 남성가구의 최빈연령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4인가구 남성가구의 최빈연령을 보면, 최저생계비 실태조사에서는 42세,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보면 역시 42세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의할 경우에도 2011년 기준 42세가 최빈연령이었으며, 2012년 43세는 가계동향조사의 특성상 조사대상자가 그대로 차년도 이월되면서 1세가 증가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연구진에서는 남성가구의 연령을 42세로 상정하였다.

〈표 4-4-1〉 남성가구주 최빈연령

구분	기준연도	4인가구 남성가구주 최빈연령(세)
인구주택총조사	2010	42
국민생활실태조사	2011	42
가계동향조사	2011	42
	2012	43

자료: 통계청(2010),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전수집계결과 보도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통계청(각년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4-4-1] 4인 남성가구의 연령분포



자료: 통계청(2010),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전수집계결과 보도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통계청(각년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남성 가구의 연령이 설정됨에 따라 이를 기초로 여성배우자와의 연령차이(=터울)을 분석하였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및 가계동향조사와 2011년 국민생활실태조사를 통해 남성가구주와 배우자인 여성의 연령차이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는 2.7~2.9세, 중위는 2012년 가계동향조사를 제외하고 3세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보면 전반적으로 남성가구주와 여성배우자의 연령차이는 3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4-4-2〉 남성가구주 여성배우자 터울

(단위: 세)

구분	기준 연도	평균			중위			최빈		
		남성 가구주	여성 배우자	터울	남성 가구주	여성 배우자	터울	남성 가구주	여성 배우자	터울
인구주택총조사	2010	45.1	42.3	2.8	44	41	3	42	40	2
국민생활실태조사	2011	44.2	41.7	2.7	44	41	3	42	39	3
가계동향조사	2011	44.3	41.3	2.9	43	40	3	42	40	2
	2012	44.1	41.2	2.8	43	41	2	43	40	3

자료: 통계청(2010),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전수집계결과 보도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통계청(각년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표준가구가 4인이므로 남성가구주 및 여성배우자 이외에 자녀에 대한 연령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살펴 보면, 남성가구주 연령이 42세이면 초혼연령은 2000년

의 29.3세로 나타났다. 남성가구주의 연령이 42세임을 가정시 초혼연령은 29세로 볼 수 있으며, 여성배우자와의 연령차이인 3세를 기준으로 하면 여성배우자의 초혼연령은 26세로 설정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가구주 남성과 여성 배우자 연령차이와도 동일하다.

첫째아와 둘째아 출산은 모의 평균연령을 통해 자녀 2인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다. 가구주를 42세로 하면, 2001년에 첫째아를 출산하며, 이는 2013년 기준 12세(초6)이다. 모의 평균 출산연령을 인구동태조사를 통해 보면 2001년 기준으로 첫째아를 28세에 둘째아를 29.9세에 출산하였다. 따라서 자녀간의 연령차이(터울)는 두 살의 터울을 둘 수 있다.

아래 표를 보면 90년대 이후 2009년까지 첫째아와 둘째아의 터울은 두 살내외임을 알 수 있다.

〈표 4-4-3〉 평균 초혼연령 (인구동태통계연보)

연도	구분	혼인건수(천건)	혼인율(천명당)	남자(세)	여자(세)	터울
1993		402.6	9.0	28.1	25.1	3.0
1994		393.1	8.7	28.3	25.2	3.1
1995		398.5	8.7	28.4	25.4	3.0
1996		434.9	9.4	28.4	25.5	2.9
1997		388.6	8.4	28.6	25.7	2.9
1998		375.6	8.0	28.9	26.1	2.8
1999		362.7	7.7	29.1	26.3	2.8
2000		334.0	7.0	29.3 (42세=29세)	26.5	2.8
2001		318.4	6.7	29.6	26.8	2.8
2002		304.9	6.3	29.8	27.0	2.8
2003		302.5	6.3	30.1	27.3	2.9
2004		308.6	6.4	30.5	27.5	3.0
2005		314.3	6.5	30.9	27.7	3.2

주: 1)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연구 당시 4인 표준가구 가구주의 연령을 비교함
 자료: 통계청(kostat.go.kr), 『인구동태통계연보』 재구성

〈표 4-4-4〉 자녀 출산시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 (인구동태조사)

연도	자녀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모의 평균 연령	첫째	26.2	26.4	26.5	26.7	26.9	27.1	27.4	27.7	28.0	28.3	28.6	28.8	29.1	29.3	29.4	29.6	29.9
	둘째	28.5	28.9	28.7	28.9	29.0	29.2	29.4	29.7	29.9	30.2	30.4	30.8	31.0	31.3	31.5	31.7	31.8

자료: 통계청(kostat.go.kr), 『인구동태조사』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표준가구로 국민생활실태 조사 자료 분석결과 4인가구 남성가구주의 최빈가구인 42세를 표준가구의 가구주로 설정하였다. 동일한 시기의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와 가계동향조사 역시 인구주택 총조사의 최빈연령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 모의 연령은 39세, 첫째아는 12세 남자, 둘째아는 10세 여자로 설정하였다.

〈표 4-4-5〉 표준가구(안)

표준가구	구분	표준가구의 구성	비고
4인가구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적용	부:42세 모:39세 1자(남):12세 2자(여):10세	남성가구주 1971년생

〈표 4-4-6〉 자녀 성별

(단위: %)

모의 연령	출산순위별	성별	2010	2011
39세	총계	남자	52.3	51.4
		여자	47.7	48.6
	첫째아	남자	50.9	50.8
		여자	49.1	49.2
	둘째아	남자	51.6	51.6
		여자	48.4	48.4

자료: 통계청(kostat.go.kr), 『인구동태조사』

2.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표준가구 구성 논의 결과

2013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제1차회의(2013. 6. 25)에서는 4인 표준가구에 대한 세부 구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문위원회에서는 연구진이 제시한 표준가구의 구성안에 대해 동의하지만, 단 첫째아 연령인 12세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인지, 중학교 1학년 학생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연령이 12세인 아동들의 학령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만 12세 아동의 초등학교 재학 또는 중학교 재학 여부는 취학시점을 기준

으로 할 것인지, 재학시점을 할 것인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였다. 즉, 표준가구 설정을 위한 아동의 연령을 출생 시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의 연령이 만 6세와 만 7세가 교차되었다⁵²⁾. 첫째, 취학시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 초등학교는 매년 3월 2일 입학식을 진행함에 따라 동 기준에 의할 경우, 3월 이후 출생아동은 입학시점에서는 만 6세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즉, 3월 이전 출생아동은 만 7세이지만, 3월 이후 아동은 여전히 만 6세를 유지하며, 학교를 다니면서 생일이 지나며 만 7세로 전환된다. 3월 시점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중 약 1/6에 해당하는 학생은 만 7세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만 7세로 변하며, 입학년도 말인 12월에는 모두 만 7세로 된다.

둘째, 재학시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어느 시점을 재학시점으로 특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기초하여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는 매년 10월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10월 이전 태어난 아동은 만 7세이고, 이후 아동은 만 6세로 볼 수 있는데, 최저생계비 발표 시점이 9월이라는 점을 고려시 취학 연령의 기준인 10월과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또한 표준가구 구성의 기준이 되는 부의 연령(42세)은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기준 시점은 2010년 11월 1일으로, 부 연령 42세는 동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모와 자녀 연령 시점도 11월을 기점으로 산출된다고 할 수 있다(참고: 통계청, 인구주택조사 보도자료). 인구주택총조사 실태 자료를 통해 부의 연령이 42세로 배우자, 자녀 2인으로 구성된 4인가구를 기초로 분석(사례수 3천가구)하면 아래 표와 같이 첫째아가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비율은 40.08%, 중학교는 36.34%로 나타났다.

52) 초·중등교육법 13조(2007년 8월 이전) 제13조 (취학의무) ①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만 12세(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만 12세에서 해당 연수(年數)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¹⁾.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① 읍·면·동의 장은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취학 중인 자는 제외한다)를 조사하여 그 해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입학연기를 신청하여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된 자는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7>

〈표 4-4-7〉 42세 가구주, 배우자, 자녀 2인 가구의 첫째아 학령

(단위 : %)

교육정도	첫째아	둘째아
안 받았음	5.51	19.77
초등학교	40.08	60.05
중 학 교	36.34	16.94
고등학교	16.21	2.97
대학교(4년제 미만+4년제 이상)	1.85	0.27

자료: 통계청(2010), 『인구주택 총조사』, 원자료

특히, 표준가구(안)과 같은 42세 부가 12세 첫째아를 가졌을 경우를 추가분석시, 첫째아의 약 73%는 초등학교에, 27.01%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8〉 부 42세, 12세 첫째아를 기준으로 할 경우

(단위 : %)

교육정도	첫째아	둘째아
초등학교	72.99	74.08
중 학 교	27.01	25.92

자료: 통계청(2010), 『인구주택 총조사』, 원자료

이후 전문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대다수의 전문위원들이 첫째아 12세는 초등학교 6학년인 것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표준가구는 연구진이 제안한 42세 남성(가구주), 39세 여성(배우자), 12세 첫째아(남자, 초6), 10세 둘째아(여자, 초4)로 결정되어 이를 토대로 2013년 표준가구에 대한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였다.

제5절 지역구분

1. 논의배경

가.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지역구분의 필요성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가운데 전물량 방식은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고 각 필수품마다 규격, 사용량, 내구연수, 가격을 측정하여 해당 품목의 지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계측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물량 방식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지역별 차이가 존재하거나 특정지역에 대해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지역별 최저생계비를 계측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컨대, 지역별로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고 있는 필수품의 품목이나 사용량에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며, 필수품과 사용량, 내구연수는 같더라도 지역별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서는 큰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서울, 수도권, 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역별 부동산 가격의 편차는 주거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어떤 형태로든 최저생계비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나타나는 지역별 차이를 모두 최저생계비에 반영할 수는 없다. 이는 지역별 주거비 또는 다양한 필수품에서 시장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동일한 지역 내에서도 시군구 또는 읍면동마다 매우 다양한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세한 지역별 차이까지도 모두 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이나 활용할 수 있는 통계자료 측면에서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역별 최저생계비 계측에 필요한 지역구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필수품 여부, 사용량, 내구연수, 가격 가운데 어떠한 요소를 기준으로 반영할 것이며, 이를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반영하여 지역을 구분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지역별 가격차이가 가장 큰 주택가격을 중심으로 지역별 구분의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나. 지역구분 방안

지역별로 발생하는 생활비 또는 주거비의 차이를 반영하는 방식은 여러가지 방안들이 있다. 첫째, 현 제도 내에서의 적용방안인 기본재산액의 조정하는 방식이다. 둘째, 최저생계비를 통한 적용방안으로 지역별 최저생계비의 적용하는 방식이다. 동 방식은 향후 최저생계비 연구결과를 토대로 소위원회의 논의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토론과정을 통해 방향과 수준이 결정될 예정이다. 셋째, 욕구별 급여를 통한 적용방안으로 주거급여를 개별급여화하는 방식이다. 이는 욕구별 급여체계 속에서 주거급여를 별도로 분리하여, 외국과 같은 주거수당제도⁵³⁾를 도입함으로써 생계비에서 주거로 인한 지역별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만약, 주거급여를 분리할 경우, 급지별(=지역별) 임대료를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주거급여 산식을 도출함으로써 가장 적극적으로 주거비의 지역별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각 방안별 장단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기본재산액의 조정 방식의 경우 현행 제도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지침 변경을 통해 제도 적용이 가능하며, 기본재산액 적용방식(현행 전세기준)을 다양화함으로써 주거점유형태별(자가 및 월세)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역별 주택가격의 상승과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수급가구 중 재산을 보유한 사람만이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재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일수록 혜택을 많이 받게 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본인의 최대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기본재산액 증가 시 기초보장제도의 기본적 원칙과 배치되는 단점이 있다. 크게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가구들에게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재산을 지닌 다른 저소득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급가구 선정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수급가구의 급여 부문에 대한 영향은 적음을 지적할

53) 일본에서는 생활부조기준을 설정하고(개인 또는 가구에 소요되는 비용) 여기에 주택부조를 추가적으로 더해서 지역별 차이를 반영하는데, 주택부조는 도도부현, 지정도시, 핵심시별로 해당 지역의 집세를 기초로 설정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도부현의 경우에는 1, 2급지와 3급지의 2개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① 1인세대에 적용되는 기준액, ② 2인 이상 세대, 장애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또는 해당 지역의 주택사정상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액(①의 금액에 1.3배), ③ 7인 이상의 세대에 적용되는 기준액(②의 금액의 1.3배)으로 구분되어 있다.

※ 독일은 급여기준 산정시 생계부조를 규정급여로 설정하고 동 비용에 주거비용과 난방비용을 추가하여 급여수준을 결정한다(김미곤 외, 2009).

수 있다.

다음으로는 최저생계비의 지역별 주택가격 차이를 반영하는 방안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원칙을 명확히 반영할 수 있으며, 지출비목에 따라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부문을 최저생계비에 반영함으로써 최저생계비 현실화 가능하는 장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지역별 세분화 및 수급가구 선정을 통해 사각지대를 축소할 수 있으며, 급여수준에 영향을 줌으로써 수급가구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반면, 지역별 점유형태별 세분화를 위한 논의와 지역별 주거비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며, 도시와 농어촌간 차이발생에 따른 농어촌 주민들의 지역적 차별에 대한 비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욕구별 급여체계 중에서 주거급여를 분리할 경우, 수급가구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분명히 반영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에만 집중되어 오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빈곤층지원방식의 다양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역별(=급지별) 점유형태별로 표준임대로 산정을 위한 사전검토 및 연구가 필요하며, 지역별 최저생계비와 같이 도농간 차별에 따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

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지역구분

현재 운영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도 일정수준에서 지역구분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즉,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기준 산정 시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있다. 여기서 기본재산액은 기초보장제도 보장대상가구의 기초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을 소득환산에서 제외해주는 제도이다.

먼저, 기초보장 수급자 선정시 재산부문이 선정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어렵지만, 간접적 분석을 통해 기본재산액을 통한 지역별 주거비에 대한 선정기준 반영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초보장제도 내의 기본재산액 지역별 반영차이를 보면 중소도시를 100으로 한 경우 2003년은 대도시가 110%, 농어촌은 96.7%로 초기 지역별 차이 반영은 높지 않았다. 그러나 1999년 계측조사 연구결과를 통해 보면 최저주거비 차이가 129 : 100 : 66 수준인 것과 비교시 지역에 따른 주택비용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⁵⁴⁾. 기본재산액이 변경된 2004년 이후에는 122.6 : 100 : 93.5로 되었으며, 2009년 이후에는 다시 158.8 : 100 : 85.3로 조정됨으로써 2010

년 최저주거비 차이인 139 : 100 : 67과 비교해 대도시는 실제 주거비 차이 반영을 위해 큰 폭으로 조정되었고, 농어촌은 실제 주거비 차이에 비해 지원수준에 적은 수준의 차이를 두고 있다.

〈표 4-5-1〉 기본재산액

(단위 : 만원)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3	3,300	3,000	2,900
2004~2008	3,800	3,100	2,900
2009년 이후	5,400	3,400	2,900
2003	110.0	100.0	96.7
2004~2008	122.6	100.0	93.5
2009년 이후	158.8	100.0	85.3

주: 1)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중소도시-도의 '시', 농어촌-도의 '군'
 자료: 이태진 외(20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편, 전산망 자료를 통해서 수급가구들 중 기본재산액의 공제를 받은 수급가구의 규모를 보면, 전체 약 85만 가구 중 82.5%인 약 70만 가구가 기본재산액 공제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85.4%, 중소도시 80.3%, 농어촌 80.3%로 대도시의 수급가구들이 공제를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원수별 지역별로 기본재산액 공제가구를 보면 1~2인가구가 81.9%로 가장 많았으며, 3~4인가

54) 〈참고 표〉 최저생계비 계측년도별 지역별 주거비 수준(4인가구)

(단위 :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1999	106	100	86
	최저주거비	129	66
2004 ¹⁾	109	100	85
	최저주거비	200 ²⁾ 118 ²⁾	100
			54
2007 ¹⁾	108	100	86
	최저주거비	145	100
			45
2010 ¹⁾	106	100	91
	최저주거비	139	100
			67

주: 1) 2004년부터는 연구진안을 기준으로 함.

2) 2004년의 경우 대도시를 서울시와 기타 광역시로 구분하여 분석

자료: 김미곤 외(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2004),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김미곤 외(2007),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여유진 외(2010),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구가 16.0%의 순이었다. 지역별로 대도시 수급가구가 44.9%, 중소도시 40.7%, 농어촌 14.4%의 분포를 이루고 있다.

〈표 4-5-2〉 기본재산액 공제를 받은 가구 규모

(단위 : 가구,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체	
공제받은 수급가구	315,416	85.4	285,730	80.3	100,740	80.3	701,886	82.5
수급가구 전체	369,473		355,826		125,890		850,689	
1~2인가구	250,712	43.6	235,877	41.0	88,210	15.3	574,799	100.0 (81.9)
3~4인가구	58,045	51.6	43,867	39.0	10,517	9.4	112,429	100.0 (16.0)
5인가구 이상	6,659	45.4	5,986	40.8	2,013	13.7	14,658	100.0 (2.1)
소 계	315,416	44.9	285,730	40.7	100,740	14.4	701,886	100.0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마지막으로, 수급가구들의 평균 공제금액을 보면 전체 평균은 약 954만원 수준이었으며 대도시 1,122만원, 중소도시 833만원, 농어촌 768만원의 수준이었다. 공제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중소도시 대비 대도시는 134.7%, 농어촌은 92.2%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4-5-3〉 기본재산액의 평균공제금액

(단위 : 만원,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체
1~2인가구	1,017	775	734	874
3~4인가구	1,529	1,107	998	1,315
5인가구 이상	1,549	1,100	1,047	1,297
소 계	1,122 (134.7)	833 (100.0)	768 (92.2)	954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 지역구분의 기본방향 및 분석방법

가. 지역구분 기본방향

최저생계비 계측에 있어서 지역구분의 필요성은 각 지역별로 물가수준의 차이가 존재함으로부터 기인하지만, 현실적으로 다양한 품목별 또는 종합적인 물가수준을 근거로 우리나라를 지역별로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이 있다. 통계청에서는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 및 생활물가지수 등을 산출하고 있으며, 각종 품목별 물가통계를 측정하여 발표하고 있지만, 일부 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지역구분에 이러한 결과를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지역구분에서는 지역별 생계비 수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변수를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중 대표적 항목이 주거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별 부동산가격이다. 주거비 차이는 지역별 부동산가격의 편차에 의한 것으로 각 지역별 세부 품목의 시장가격 차이보다 큰 폭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동산가격의 차이는 지역별 최저생계비 차이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구분(안) 도출을 위한 기준변수로 가장 적합하며, 특히 주거점유형태에 따른 시장가격 차이를 감안하여 자가, 전세, 월세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지역구분(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지역 간 이론적 생계비 차이와 정책의 집행가능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연구에서는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 시 최종적으로 반영되었으며,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양한 복지정책에서 소득인정액 산출시 상이한 수준으로 기초공제액을 적용하고 있는 3개 지역구분(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방안을 기준안(1안)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가격의 편차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특정 지역 또는 행정구역(수도권, 서울, 경기 등)을 별도로 분리하여 사전 설정한 총 8가지 지역구분(안)을 대상으로 분석 및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기준안(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을 포함하여 2010년 계측 당시 검토된 바 있는 5가지 지역구분(안) 이외에 이를 변형한 3가지 추가 지역구분(안)으로 구성하고,

잠정 구분한 8가지 지역구분(안)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며 정책적으로 집행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8가지 잠정 지역구분(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안) 현행 기초생활보장 3개 지역구분(안)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행정구역(구-시-군) 기준 지역구분과의 차이는 '광역시의 군 지역'이 대도시로 포함되는 부분임.
- (2-1안) 수도권 분리 3개 지역구분(안) : 수도권 - 지방 도시 - 지방 농어촌
- (2-2안) 수도권 분리 4개 지역구분(안)
 : 수도권 - 지방 광역시 - 지방 중소도시 - 지방 농어촌
- (2-3안) 수도권 & 서울 분리 5개 지역구분(안)
 : 서울 - 서울 제외 수도권 - 지방 광역시 - 지방 중소도시 - 지방 농어촌
- (2-4안) 수도권 & 서울 분리 4개 지역구분(안)
 : 서울 - 서울 제외 수도권 - 지방도시 - 지방 농어촌
- (3-1안) 서울 & 광역시 분리 4개 지역구분(안)
 : 서울 - 광역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3-2안) 서울 & 광역시 & 경기 변형 4개 지역구분(안)
 : 서울 - 광역시 & 경기 중소도시 - 경기 제외 중소도시 - 농어촌
- (3-3안) 서울 & 광역시 & 경기 분리 5개 지역구분(안)
 : 서울 - 광역시 - 경기 중소도시 - 경기 제외 중소도시 - 농어촌

※ <참고>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 당시 검토된 5개 지역구분(안)

- 기존 3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수도권 분리 3지역 : 수도권 - 지방 도시 - 지방 농어촌
- 수도권 분리 4지역 : 수도권 - 지방 광역시 - 지방 중소도시 - 지방 농어촌
- 서울 분리 4지역 : 서울 - 광역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서울 & 경기 분리 5지역 : 서울 - 광역시 - 경기 중소도시 - 경기 이외 중소도시 - 농어촌

나. 주택가격조사 가구원수별 주거유형별 점유형태별 기초통계

지역구분을 위한 주택가격조사의 가구원수별 주거유형별 점유형태별 기초통계의 결과는 아래 <표 4-5-4>와 같다.

<표 4-5-4> 가구원수별 주거유형별 점유형태별 주택가격 기초통계

(단위: 만원)

가구규모	주거유형	자가 ¹⁾²⁾		전세 ¹⁾²⁾		월세 ¹⁾²⁾	
		mean	s.d.	mean	s.d.	mean	s.d.
1인	아파트	4,210.6	2,688.61	2,769.6	1,750.34	24.8	14.06
	단독주택	3,002.2	2,738.01	1,660.3	1,432.51	16.0	12.14
	연립주택	3,586.2	2,495.54	2,320.6	1,591.64	22.2	13.42
	전체	3,635.2	2,687.91	2,282.0	1,668.61	21.3	13.78
2인	아파트	6,966.2	4,456.38	4,520.7	2,785.54	37.4	20.82
	단독주택	5,083.9	4,701.79	2,680.4	2,313.01	23.8	18.21
	연립주택	5,697.4	4,112.49	3,618.0	2,447.38	31.9	18.56
	전체	5,972.7	4,495.30	3,659.5	2,646.44	31.4	20.09
3인	아파트	9,296.6	5,887.77	6,033.8	3,759.18	48.6	28.12
	단독주택	6,913.2	6,469.76	3,548.8	2,988.38	30.5	22.79
	연립주택	7,519.0	5,502.09	4,751.4	3,261.04	40.5	24.38
	전체	7,982.7	6,039.76	4,850.3	3,524.15	40.4	26.41
4인	아파트	11,137.6	6,960.23	7,302.6	4,509.63	58.1	33.96
	단독주택	8,287.1	7,703.68	4,286.4	3,623.82	36.2	27.12
	연립주택	8,971.2	6,516.71	5,730.5	3,981.76	47.9	29.39
	전체	9,553.5	7,164.80	5,861.4	4,263.21	48.1	31.77
5인	아파트	12,640.6	7,816.41	8,379.4	5,041.54	66.4	37.92
	단독주택	9,244.8	8,592.52	4,833.4	4,033.26	41.0	30.43
	연립주택	10,055.0	7,170.04	6,515.2	4,437.90	54.4	33.29
	전체	10,750.7	7,998.81	6,679.3	4,778.62	54.6	35.77
6인	아파트	14,793.9	9,046.34	9,899.7	5,901.74	77.9	45.25
	단독주택	10,893.5	10,163.85	5,724.9	4,701.64	48.5	35.76
	연립주택	11,630.9	8,230.31	7,579.5	5,105.40	63.1	38.73
	전체	12,560.5	9,314.92	7,857.3	5,566.86	64.0	42.1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2012년 주택가격조사』, 원자료

다. 지역구분을 위한 분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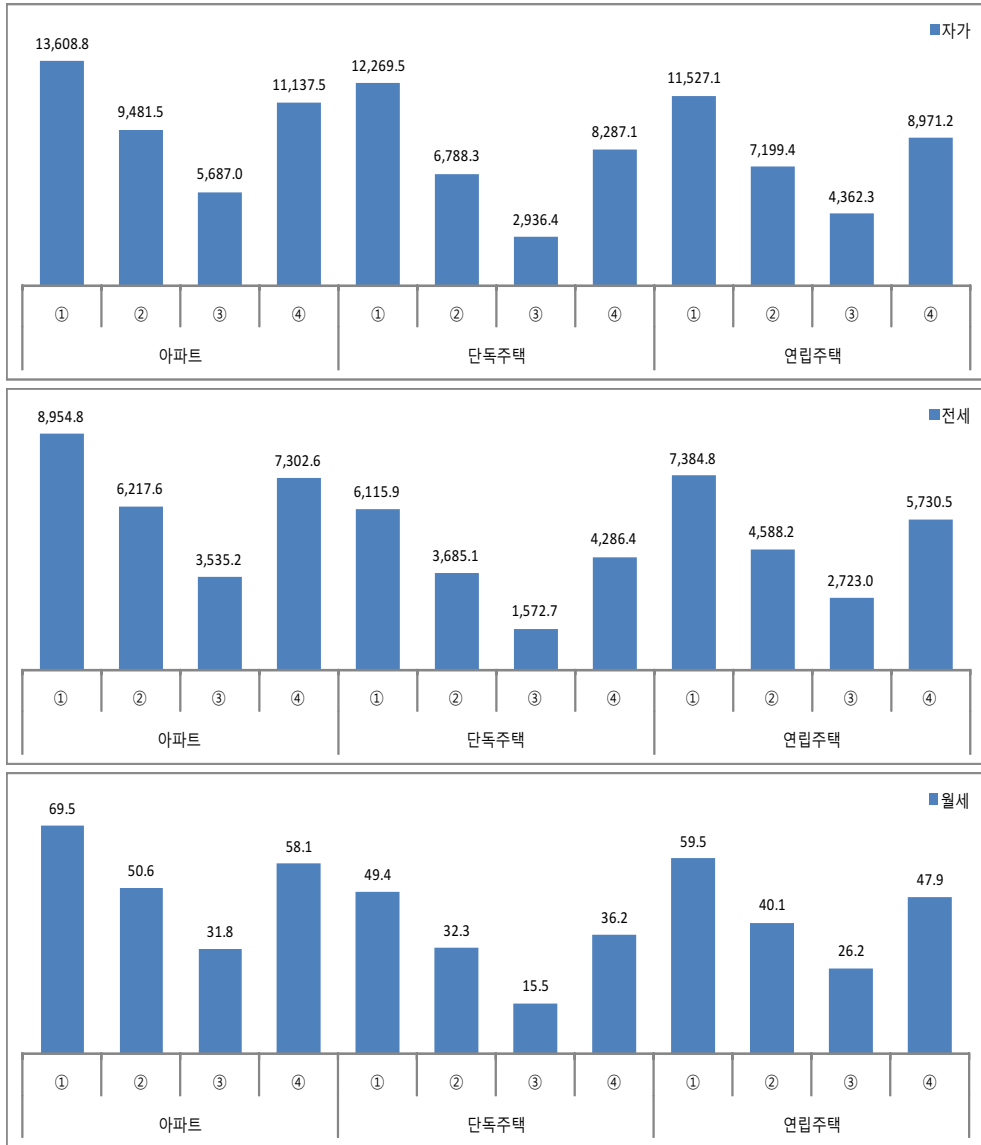
지역구분을 하기위한 분석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년 주택가격조사’를 활용하였으며, 조사대상은 전국 600개 표본 조사구 및 인접 조사구 포함 총 1,530개 조사구 내 부동산이다. 분석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거면적(6)은 가구규모에 따라 1~6인 가구의 최저 주거기준에 대한 부동산가격 조사결과를 각각 분석하였으며, 표준 가구인 4인 가구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우선 검토하고자 한다. 주거점유형태(3)는 ‘자가 - 전세 - 월세’로 구분하였으며, 주거유형(4)은 ‘아파트 - 단독주택 - 연립주택(다세대) - 전체(주거유형 미구분)’로 구분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가구규모에 따른 주거점유형태 및 주거유형별로 잠정 구분된 지역 간 부동산가격 차이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ANOVA 수행하였으며, 이후 사후검정(Scheffe test)을 실시하여 세부 지역 간 부동산가격 차이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지역구분 가능성 또는 지역별 동질성 및 통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3. 지역구분 분석결과

먼저, (1안) 현행 기초생활보장 3개 지역구분(안)은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72개 모든 세부 유형에서 잠정 구분된 3개 지역 간 부동산가격의 차이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5-1] (1인) 현행 기초생활보장 3개 지역구분(안):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4인가구)

(단위: 만원)



주: ①대도시, ②중소도시, ③농어촌, ④전체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2012년 주택가격조사』, 원자료

〈표 4-5-5〉 (1인) 현행 기초생활보장 3개 지역구분(안) 분산분석 결과: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가구규모	주거유형	자가 ¹⁾²⁾	전세 ¹⁾²⁾	월세 ¹⁾²⁾
1인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전체	① ⇔ ② ⇔ ③	① ⇔ ② ⇔ ③	① ⇔ ② ⇔ ③
2인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전체	① ⇔ ② ⇔ ③	① ⇔ ② ⇔ ③	① ⇔ ② ⇔ ③
3인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전체	① ⇔ ② ⇔ ③	① ⇔ ② ⇔ ③	① ⇔ ② ⇔ ③
4인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전체	① ⇔ ② ⇔ ③	① ⇔ ② ⇔ ③	① ⇔ ② ⇔ ③
5인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전체	① ⇔ ② ⇔ ③	① ⇔ ② ⇔ ③	① ⇔ ② ⇔ ③
6인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전체	① ⇔ ② ⇔ ③	① ⇔ ② ⇔ ③	① ⇔ ② ⇔ ③

주: 1) 세부 유형별 부동산가격에서 잠정 구분된 지역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 < .01$)가 존재할 경우 '⇔'로, 그렇지 않은 경우 '='로 표시함.

2) ①대도시, ②중소도시, ③농어촌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2012년 주택가격조사』, 원자료

〈표 4-5-6〉 (1인) 현행 기초생활보장 3개 지역구분(안) 분산분석 결과값: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가구규모	주거유형	자가	전세	월세
		F-value ¹⁾	F-value ¹⁾	F-value ¹⁾
1인	아파트	89.27***	97.06***	82.92***
	단독주택	114.83***	112.92***	102.19***
	연립주택	99.37***	99.93***	91.05***
	전체	318.04***	321.59***	291.24***
2인	아파트	91.60***	106.32***	89.11***
	단독주택	124.94***	118.81***	111.18***
	연립주택	95.77***	105.11***	99.17***
	전체	323.47***	340.51***	313.18***
3인	아파트	94.13***	106.29***	88.04***
	단독주택	123.82***	124.39***	120.10***
	연립주택	95.26***	104.20***	97.38***
	전체	324.18***	340.77***	312.54***
4인	아파트	96.00***	105.59***	87.30***
	단독주택	123.04***	125.24***	120.30***
	연립주택	92.76***	106.71***	94.73***
	전체	323.00***	343.46***	308.41***
5인	아파트	95.14***	107.13***	88.19***
	단독주택	124.15***	128.74***	120.06***
	연립주택	91.90***	108.27***	93.89***
	전체	322.19***	347.40***	308.14***
6인	아파트	99.65***	108.68***	88.36***
	단독주택	123.75***	129.89***	122.69***
	연립주택	96.81***	113.79***	98.11***
	전체	330.51***	353.42***	312.19***

주: 1) *p<0.05 **p<0.01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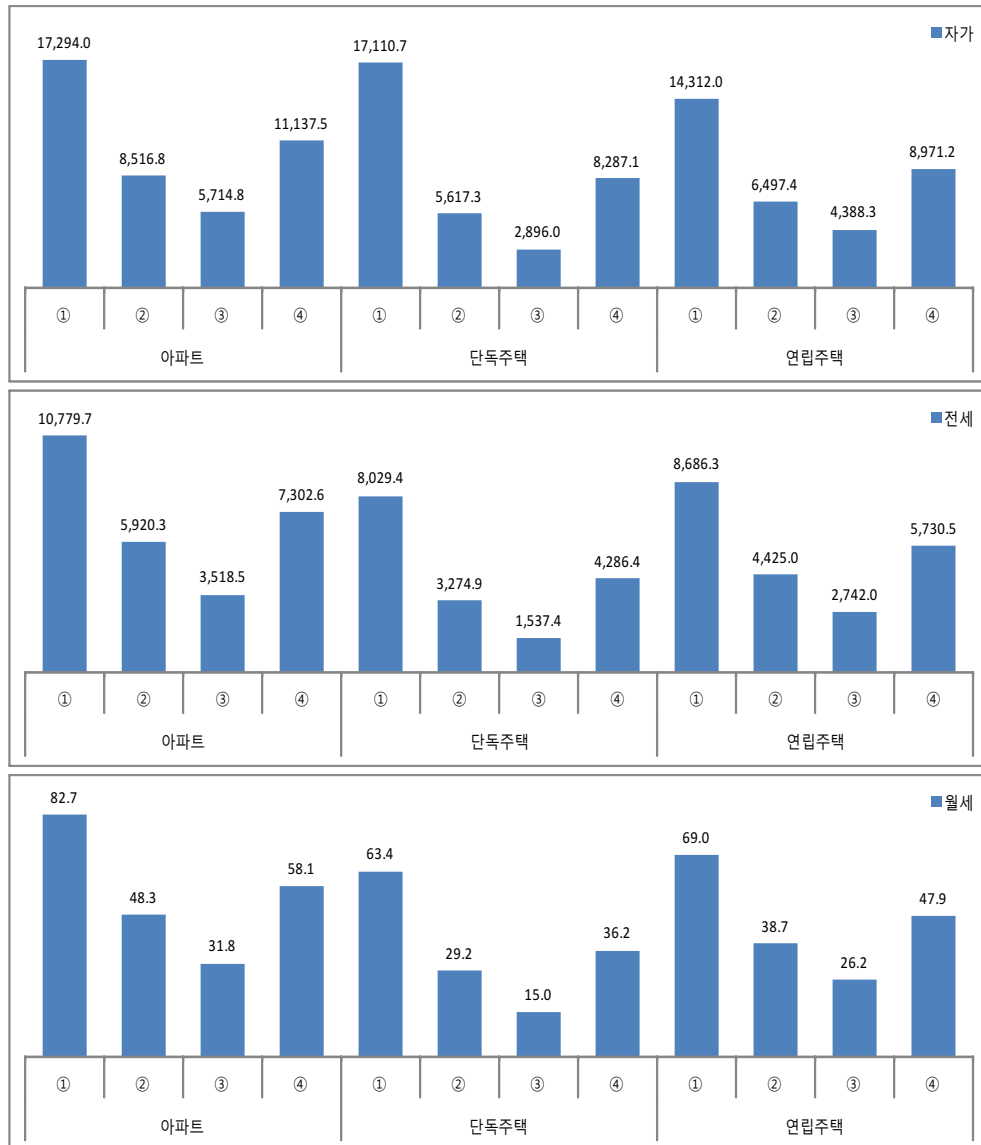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2012년 주택가격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2-1안) 수도권 분리 3개 지역구분(안)인 ‘수도권 - 지방 도시 - 지방 농어촌’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수도권으로 구분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을 지방 도시(지방 광역시 & 지방 중소도시)와 지방 농어촌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72개 모든 세부 유형에서 잠정 구분된 3개 지역 간 부동산가격의 차이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3개 지역으로 구분 가능하나 최저생

계비 계측 및 정책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림 4-5-2] (2-1안) 수도권 분리 3개 지역구분(안): 수도권 - 지방도시 - 지방농어촌(4인가구)

(단위: 만원)



주: ①수도권, ②지방도시, ③지방농어촌, ④전체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2012년 주택가격조사』, 원자료

〈표 4-5-7〉 (2-1안) 수도권 분리 3개 지역구분(안) 분산분석 결과: 수도권 - 지방도시 - 지방농어촌

가구규모	주거유형	자가 ¹⁾²⁾	전세 ¹⁾²⁾	월세 ¹⁾²⁾
1인	아파트	① ⇔ ② ⇔ ③	① ⇔ ② ⇔ ③	① ⇔ ② ⇔ ③
	단독주택			
	연립주택			
	전체			
2인	아파트	① ⇔ ② ⇔ ③	① ⇔ ② ⇔ ③	① ⇔ ② ⇔ ③
	단독주택			
	연립주택			
	전체			
3인	아파트	① ⇔ ② ⇔ ③	① ⇔ ② ⇔ ③	① ⇔ ② ⇔ ③
	단독주택			
	연립주택			
	전체			
4인	아파트	① ⇔ ② ⇔ ③	① ⇔ ② ⇔ ③	① ⇔ ② ⇔ ③
	단독주택			
	연립주택			
	전체			
5인	아파트	① ⇔ ② ⇔ ③	① ⇔ ② ⇔ ③	① ⇔ ② ⇔ ③
	단독주택			
	연립주택			
	전체			
6인	아파트	① ⇔ ② ⇔ ③	① ⇔ ② ⇔ ③	① ⇔ ② ⇔ ③
	단독주택			
	연립주택			
	전체			

주: 1) 세부 유형별 부동산가격에서 잠정 구분된 지역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01)가 존재할 경우 '⇔'로, 그렇지 않은 경우 '='로 표시함.

2) ①수도권, ②지방도시, ③지방농어촌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2012년 주택가격조사』, 원자료

〈표 4-5-8〉 (2-1안) 수도권 분리 3개 지역구분(안) 분산분석 결과값: 수도권 - 지방도시 - 지방농어촌

가구규모	주거유형	F-value ¹⁾		
		자가	전세	월세
1인	아파트	361.40***	309.40***	301.54***
	단독주택	420.89***	351.40***	340.54***
	연립주택	346.57***	304.19***	308.70***
	전체	1,104.51***	910.96***	912.47***
2인	아파트	388.21***	307.95***	286.99***
	단독주택	461.95***	349.38***	336.58***
	연립주택	312.05***	258.90***	266.64***
	전체	1,121.46***	854.34***	844.96***
3인	아파트	378.04***	268.79***	237.47***
	단독주택	480.22***	357.02***	345.11***
	연립주택	293.24***	226.59***	222.15***
	전체	1,100.59***	775.37***	739.18***
4인	아파트	382.15***	266.47***	221.11***
	단독주택	498.31***	364.81***	339.40***
	연립주택	291.55***	225.09***	204.35***
	전체	1,112.32***	776.70***	696.57***
5인	아파트	390.99***	282.06***	232.75***
	단독주택	501.09***	378.72***	353.25***
	연립주택	304.34***	239.02***	215.43***
	전체	1,132.49***	806.61***	724.58***
6인	아파트	389.23***	280.90***	228.08***
	단독주택	480.78***	384.35***	366.36***
	연립주택	310.87***	253.28***	214.94***
	전체	1,119.79***	816.35***	722.15***

주: 1) *p<0.05 **p<0.01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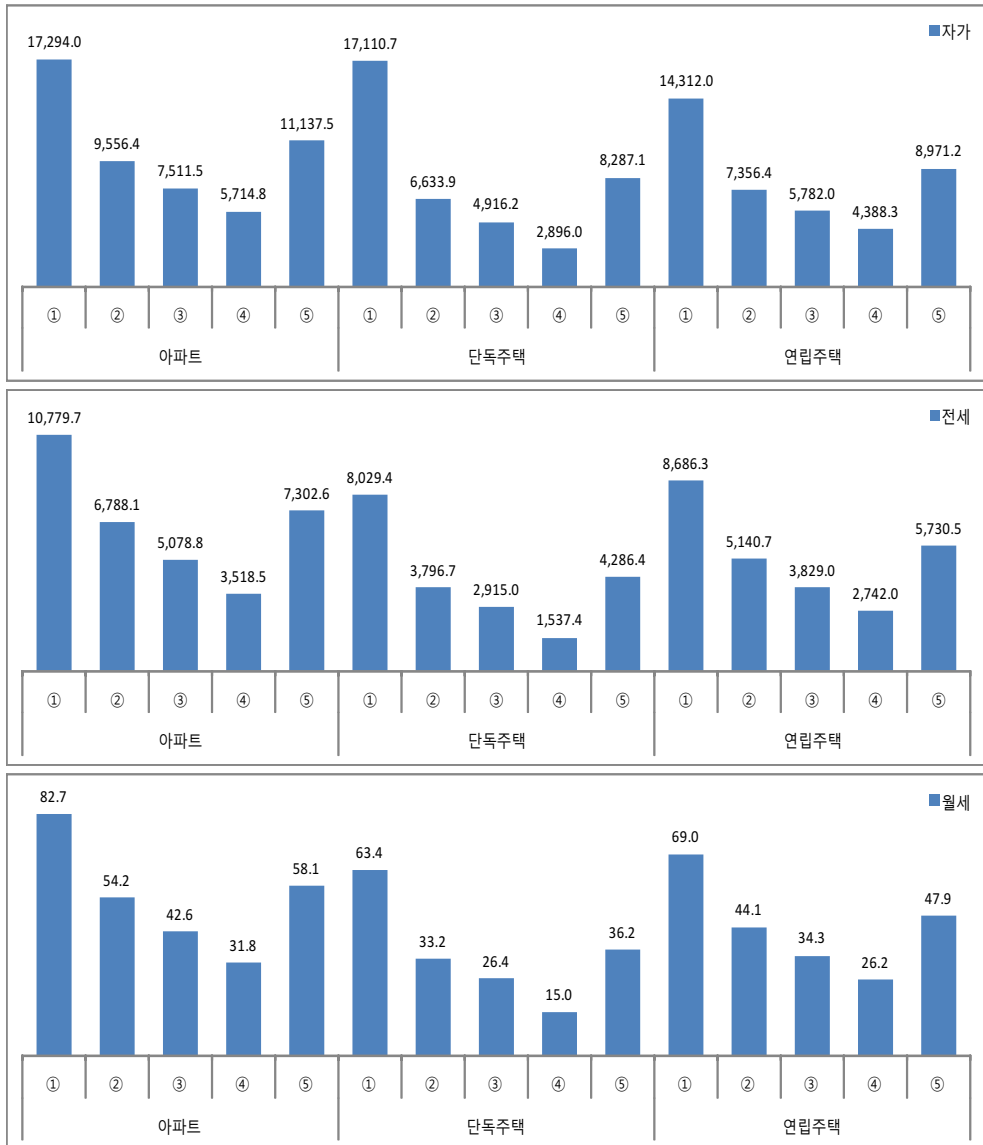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2012년 주택가격조사』, 원자료

세 번째, (2-2안) 수도권 분리 4개 지역구분(안)인 ‘수도권 - 지방 광역시 - 지방 중소도시 - 지방 농어촌’은 (2-1안)의 ‘지방 도시’를 ‘지방 광역시’와 ‘지방 중소도시’로 분리하여 4개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72개 세부 유형 중 28개 유형에서 잠정 구분한 4개 지역구분(안)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1~6인 가구 아파트(자가) 및 연립주택(자가, 전세, 월세) 등 27개 유형에서 ‘지방 중소도시’와 ‘지방 농어촌’의 부동산가격의 차이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개 유형<1인 가구 단독주택(자가)>에서는 ‘지방 광역시’와 ‘지방 중소도시’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5-3] (2-2안) 수도권 분리 4개 지역구분(안):

수도권 - 지방광역시 - 지방중소도시 - 지방농어촌(4인가구)

(단위: 만원)



주: ①수도권, ②지방광역시, ③지방중소도시, ④지방농어촌, ⑤전제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2012년 주택가격조사』, 원자료

〈표 4-5-9〉 (2-2인) 수도권 분리 4개 지역구분(안) 분산분석 결과:

수도권 - 지방광역시 - 지방중소도시 - 지방농어촌

가구규모	주거유형	자가 ¹⁾²⁾	전세 ¹⁾²⁾	월세 ¹⁾²⁾
1인	아파트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단독주택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연립주택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전체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2인	아파트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단독주택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연립주택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전체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3인	아파트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단독주택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연립주택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전체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4인	아파트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단독주택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연립주택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전체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5인	아파트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단독주택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연립주택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전체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6인	아파트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단독주택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연립주택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전체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주: 1) 세부 유형별 부동산가격에서 잠정 구분된 지역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01)가 존재할 경우 '⇔'로, 그렇지 않은 경우 '='로 표시함.

2) ①수도권, ②지방광역시, ③지방중소도시, ④지방농어촌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2012년 주택가격조사』, 원자료

〈표 4-5-10〉 (2-2안) 수도권 분리 4개 지역구분(안) 분산분석 결과값:

수도권 - 지방광역시 - 지방중소도시 - 지방농어촌

가구규모	주거유형	F-value ¹⁾		
		자가	전세	월세
1인	아파트	251.67***	219.78***	211.00***
	단독주택	286.88***	241.58***	234.77***
	연립주택	239.17***	213.71***	213.62***
	전세	765.93***	643.58***	637.94***
2인	아파트	271.92***	225.66***	206.23***
	단독주택	316.72***	240.52***	232.08***
	연립주택	215.54***	184.49***	188.49***
	전세	780.96***	613.66***	601.31***
3인	아파트	265.57***	198.66***	173.10***
	단독주택	329.16***	246.11***	238.60***
	연립주택	202.57***	163.09***	159.23***
	전세	766.93***	560.90***	531.68***
4인	아파트	268.58***	195.84***	160.43***
	단독주택	341.26***	251.37***	234.48***
	연립주택	201.44***	161.43***	147.22***
	전세	774.98***	560.07***	500.90***
5인	아파트	274.50***	207.04***	168.39***
	단독주택	343.03***	261.24***	243.34***
	연립주택	210.66***	172.11***	155.19***
	전세	789.46***	582.62***	520.18***
6인	아파트	274.19***	205.05***	164.02***
	단독주택	329.55***	265.05***	252.06***
	연립주택	215.05***	182.03***	155.04***
	전세	781.82***	588.13***	516.92***

주: 1) *p<0.05 **p<0.01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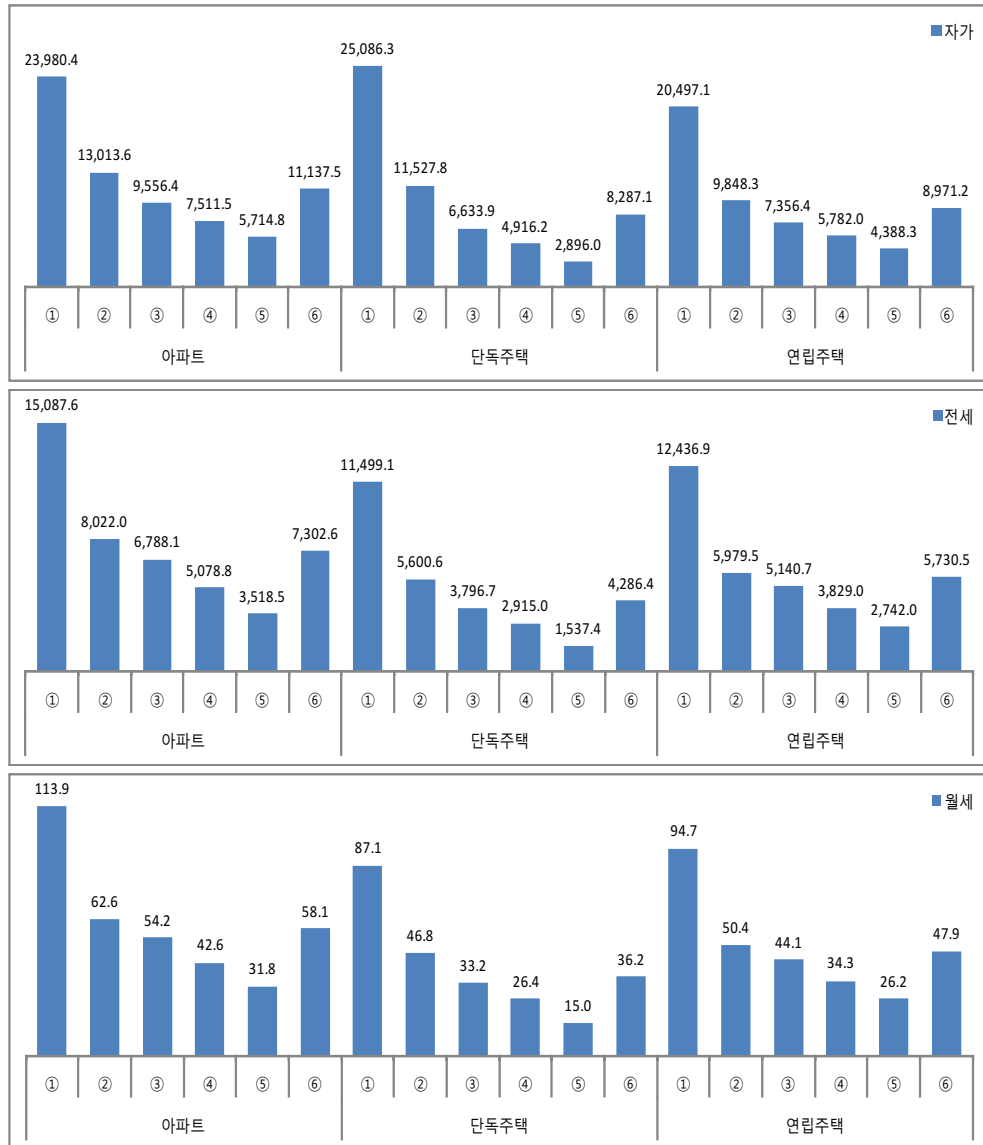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2012년 주택가격조사』, 원자료

네 번째, (2-3안) 수도권 & 서울 분리 5개 지역구분(안)인 ‘서울 - 서울 제외 수도권 - 지방 광역시 - 지방 중소도시 - 지방 농어촌’은 (2-2안)의 ‘수도권’을 ‘서울’과 ‘서울 제외 수도권’으로 분리하여 5개 지역으로 구분한 것이다. 분석결과 72개 세부 유형 중 23개 유형에서 잠정 구분한 5개 지역구분(안)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1~4인 가구 아파트(자가) 및 1~6인 가구 연립주택(자가, 전세, 월세)을 포함한 23개 유형에서 ‘지방 중소도시’와 ‘지방 농어촌’의 부동산가격 차이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23개 유형 중 일부인 4개 유형<연립주택(전세, 월세)>은 ‘서울 제외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부동산가격 차이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5-4] (2-3안) 수도권 & 서울 분리 5개 지역구분(안):

서울 - 서울제외수도권 - 지방광역시- 지방중소도시 - 지방농어촌(4인가구)

(단위: 만원)



주: ①서울, ②서울제외수도권, ③지방광역시, ④지방중소도시, ⑤지방농어촌, ⑥전제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2012년 주택가격조사』, 원자료

〈표 4-5-11〉 (2-3인) 수도권 & 서울 분리 5개 지역구분(안) 분산분석 결과:

서울 - 서울제외수도권 - 지방광역시- 지방중소도시 - 지방농어촌

가구규모	주거유형	자가 ¹⁾²⁾	전세 ¹⁾²⁾	월세 ¹⁾²⁾
1인	아파트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단독주택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연립주택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전체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2인	아파트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단독주택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연립주택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전체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3인	아파트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단독주택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연립주택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전체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4인	아파트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단독주택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연립주택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전체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5인	아파트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단독주택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연립주택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전체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6인	아파트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단독주택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연립주택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전체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주: 1) 세부 유형별 부동산가격에서 잠정 구분된 지역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01)가 존재할 경우 '⇔'로, 그렇지 않은 경우 '='로 표시함.

2) ①서울, ②서울제외수도권, ③지방광역시, ④지방중소도시, ⑤지방농어촌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2012년 주택가격조사』, 원자료

〈표 4-5-12〉 (2-3인) 수도권 & 서울 분리 5개 지역구분(안) 분산분석 결과값

서울 - 서울제외수도권 - 지방광역시- 지방중소도시 - 지방농어촌

가구규모	주거유형	F-value ¹⁾		
		자가	전세	월세
1인	아파트	392.76***	345.11***	293.88***
	단독주택	467.04***	334.57***	261.02***
	연립주택	397.88***	333.22***	267.54***
	전체	1,185.22***	915.81***	770.77***
2인	아파트	430.26***	355.27***	311.08***
	단독주택	571.96***	351.81***	298.14***
	연립주택	392.51***	310.92***	282.20***
	전체	1,276.39***	899.83***	815.06***
3인	아파트	427.08***	326.17***	269.04***
	단독주택	588.19***	364.43***	317.23***
	연립주택	382.77***	286.17***	259.58***
	전체	1,268.87***	844.72***	750.85***
4인	아파트	438.09***	323.12***	258.58***
	단독주택	602.40***	378.03***	313.28***
	연립주택	371.04***	299.83***	246.43***
	전체	1,270.59***	862.11***	722.38***
5인	아파트	434.34***	334.13***	274.47***
	단독주택	595.38***	378.77***	325.97***
	연립주택	370.22***	308.71***	250.81***
	전체	1,252.96***	867.53***	744.59***
6인	아파트	437.00***	326.87***	269.84***
	단독주택	572.38***	388.03***	344.72***
	연립주택	382.44***	322.70***	256.49***
	전체	1,245.66***	868.35***	751.01***

주: 1) *p<0.05 **p<0.01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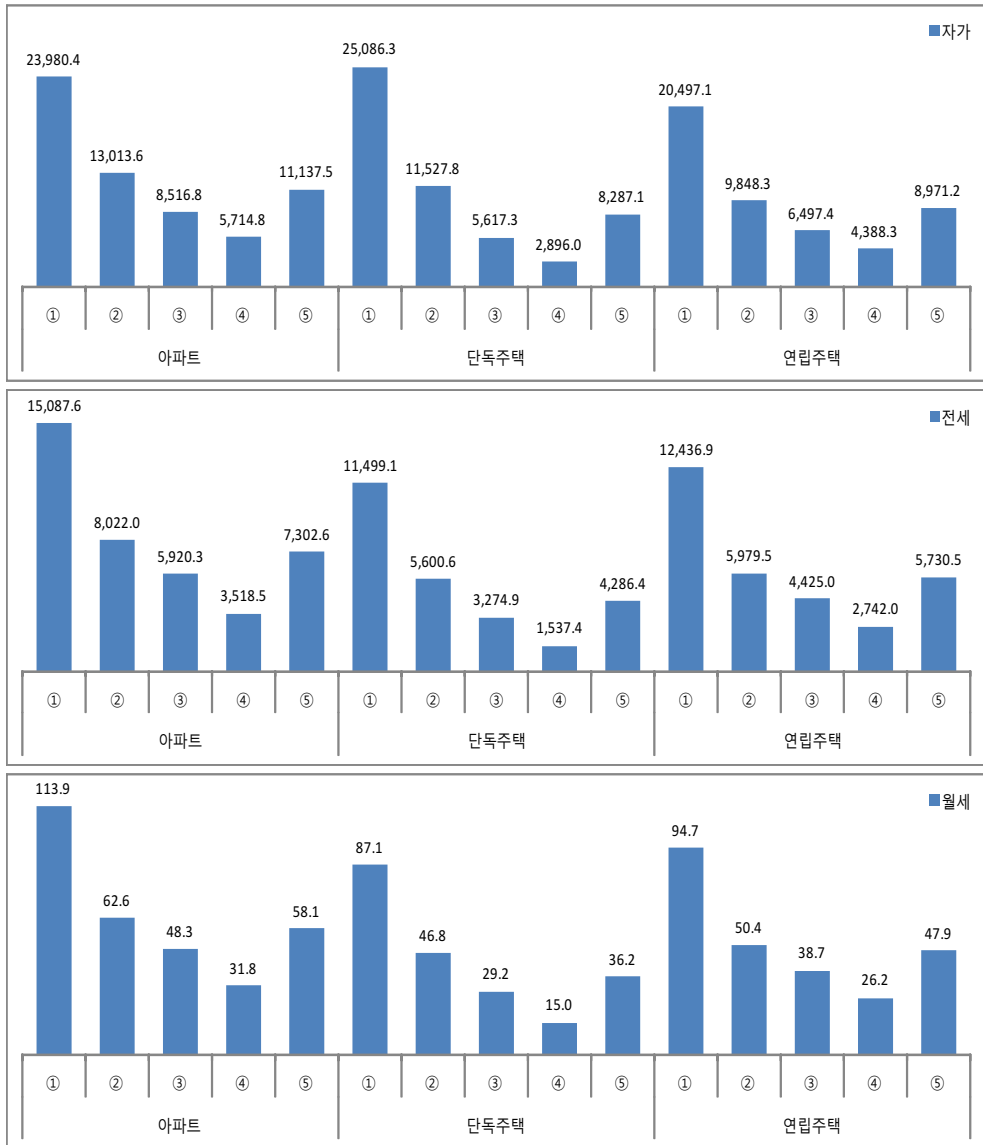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2012년 주택가격조사』, 원자료

다섯 번째, (2-4인) 수도권 & 서울 분리 4개 지역구분(안)은 ‘서울 - 서울 제외 수도권 - 지방 도시 - 지방 농어촌’으로 구분하였다. 앞서 (2-2인)의 ‘지방 광역시 - 지방 중소도시 - 지방 농어촌’, (2-3인)의 ‘서울 제외 수도권 - 지방 광역시 - 지방 중소도시 - 지방 농어촌’ 사이에 일부 주거점유형태 및 주거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고려하여, (2-1인)과 같이 ‘지방 광역시’와 ‘지방 중소도시’를 ‘지방 도시’로 통합하였다. 그 결과 72개 모든 세부 유형에서 잠정 구분된 4개 지역 간 부동산가격의 차이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5-5] (2-4안) 수도권 & 서울 분리 4개 지역구분(안):

서울 - 서울제외수도권 - 지방도시 - 지방농어촌(4인가구)

(단위: 만원)



주: ①서울, ②서울제외수도권, ③지방도시, ④지방농어촌, ⑤전체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2012년 주택가격조사』, 원자료

〈표 4-5-13〉 (2-4인) 수도권 & 서울 분리 4개 지역구분(안) 분산분석 결과:

서울 - 서울제외수도권 - 지방도시 - 지방농어촌

가구규모	주거유형	자가 ¹⁾²⁾	전세 ¹⁾²⁾	월세 ¹⁾²⁾
1인	아파트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단독주택			
	연립주택			
2인	아파트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단독주택			
	연립주택			
3인	아파트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단독주택			
	연립주택			
4인	아파트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단독주택			
	연립주택			
5인	아파트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단독주택			
	연립주택			
6인	아파트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단독주택			
	연립주택			

주: 1) 세부 유형별 부동산가격에서 잠정 구분된 지역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 < .01$)가 존재할 경우 '⇔'로, 그렇지 않은 경우 '='로 표시함.

2) ①서울, ②서울제외수도권, ③지방도시, ④지방농어촌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2012년 주택가격조사』, 원자료

〈표 4-5-14〉 (2-4인) 수도권 & 서울 분리 4개 지역구분(안) 분산분석 결과값:

서울 - 서울제외수도권 - 지방도시 - 지방농어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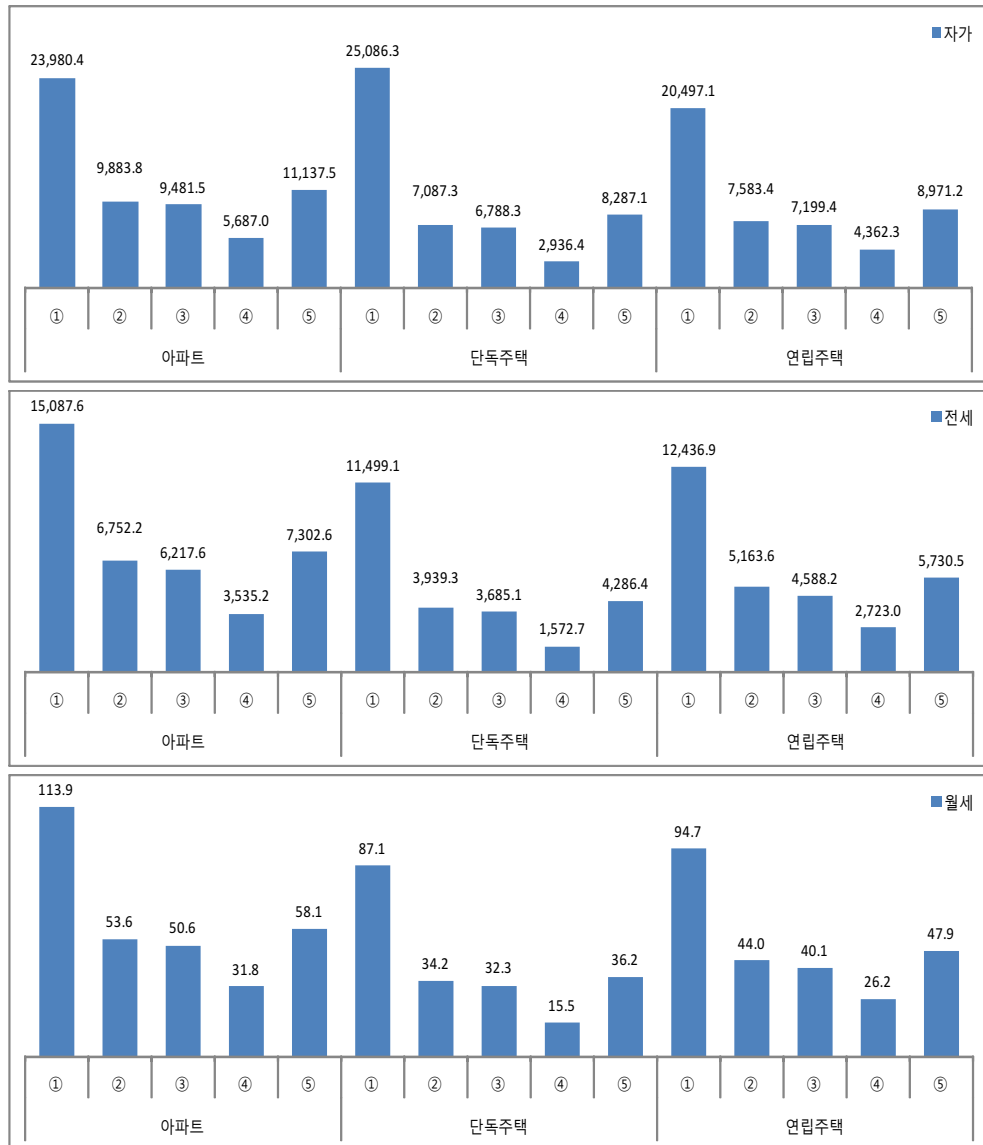
가구규모	주거유형	F-value ¹⁾		
		자가	전세	월세
1인	아파트	502.29***	434.39***	375.22***
	단독주택	607.86***	432.76***	336.94***
	연립주택	512.63***	422.99***	344.57***
	전체	1,519.62***	1,157.21***	983.43***
2인	아파트	546.42***	434.56***	388.14***
	단독주택	737.95***	454.36***	384.77***
	연립주택	505.74***	390.68***	357.04***
	전체	1,628.50***	1,121.01***	1,024.35***
3인	아파트	541.00***	397.58***	333.08***
	단독주택	758.82***	469.86***	408.19***
	연립주택	493.50***	357.60***	325.69***
	전체	1,618.16***	1,047.97***	937.10***
4인	아파트	554.53***	395.95***	322.02***
	단독주택	777.67***	487.45***	403.46***
	연립주택	478.44***	375.88***	308.49***
	전체	1,620.48***	1,072.55***	902.93***
5인	아파트	550.25***	409.16***	342.21***
	단독주택	769.12***	487.76***	420.82***
	연립주택	476.35***	385.04***	313.56***
	전체	1,597.08***	1,076.69***	931.26***
6인	아파트	551.78***	402.34***	338.29***
	단독주택	738.67***	499.72***	445.40***
	연립주택	492.14***	402.51***	320.33***
	전체	1,585.55***	1,079.95***	941.82***

주: 1)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2012년 주택가격조사』, 원자료

여섯 번째, (3-1인) 서울 & 광역시 분리 4개 지역구분(안)은 ‘서울 - 광역시 - 중소도시 - 농어촌’으로 (1인)의 ‘대도시’를 ‘서울’과 ‘광역시’로 분리하여 4개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잠정 구분된 4개 지역 중 ‘광역시’와 ‘중소도시’ 사이의 차이가 72개 세부 유형 중 61개 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유의수준 1%)으로 나타났다.

[그림 4-5-6] (3-1안) 서울&광역시 분리 4개 지역구분(안): 서울 - 광역시 - 중소도시 - 농어촌(4인가구)
(단위: 만원)



주: ①서울, ②광역시, ③중소도시, ④농어촌, ⑤전체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2012년 주택가격조사』, 원자료

〈표 4-5-15〉 (3-1인) 서울 & 광역시 분리 4개 지역구분(안) 분산분석 결과:

서울 - 광역시 - 중소도시 - 농어촌

가구규모	주거유형	자가 ¹⁾²⁾	전세 ¹⁾²⁾	월세 ¹⁾²⁾
1인	아파트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단독주택		① ⇔ ② ⇔ ③ ⇔ ④	
	연립주택		① ⇔ ② ⇔ ③ ⇔ ④	
2인	아파트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단독주택		① ⇔ ② ⇔ ③ ⇔ ④	
	연립주택		① ⇔ ② ⇔ ③ ⇔ ④	
3인	아파트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단독주택		① ⇔ ② ⇔ ③ ⇔ ④	
	연립주택		① ⇔ ② ⇔ ③ ⇔ ④	
4인	아파트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단독주택		① ⇔ ② ⇔ ③ ⇔ ④	
	연립주택		① ⇔ ② ⇔ ③ ⇔ ④	
5인	아파트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단독주택		① ⇔ ② ⇔ ③ ⇔ ④	
	연립주택		① ⇔ ② ⇔ ③ ⇔ ④	
6인	아파트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단독주택		① ⇔ ② ⇔ ③ ⇔ ④	
	연립주택		① ⇔ ② ⇔ ③ ⇔ ④	

주: 1) 세부 유형별 부동산가격에서 잠정 구분된 지역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01)가 존재할 경우 '⇔'로, 그렇지 않은 경우 '='로 표시함.

2) ①서울, ②광역시, ③중소도시, ④농어촌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2012년 주택가격조사』, 원자료

〈표 4-5-16〉 (3-1안) 서울 & 광역시 분리 4개 지역구분(안) 분산분석 결과값:

서울 - 광역시 - 중소도시 - 농어촌

가구규모	주:거유형	F-value ¹⁾		
		자가	전세	월세
1인	아파트	394.85***	364.68***	302.51***
	단독주택	468.12***	346.30***	247.74***
	연립주택	411.03***	350.19***	262.99***
	전체	1,201.50***	962.38***	765.35***
2인	아파트	421.19***	369.42***	326.60***
	단독주택	555.90***	369.72***	302.80***
	연립주택	426.70***	347.60***	305.62***
	전체	1,296.87***	965.15***	857.33***
3인	아파트	423.47***	354.16***	295.36***
	단독주택	561.00***	384.29***	327.58***
	연립주택	426.54***	329.95***	295.84***
	전체	1,301.72***	932.86***	822.69***
4인	아파트	435.14***	353.15***	292.20***
	단독주택	562.38***	397.12***	326.30***
	연립주택	411.34***	350.76***	285.56***
	전체	1,295.97***	958.91***	807.34***
5인	아파트	425.04***	359.30***	308.43***
	단독주택	553.89***	390.41***	336.23***
	연립주택	400.01***	352.86***	284.75***
	전체	1,258.86***	948.37***	823.04***
6인	아파트	430.02***	353.94***	306.94***
	단독주택	539.81***	398.15***	353.56***
	연립주택	415.12***	366.54***	294.34***
	전체	1,260.43***	949.81***	837.60***

주: 1) *p<0.05 **p<0.01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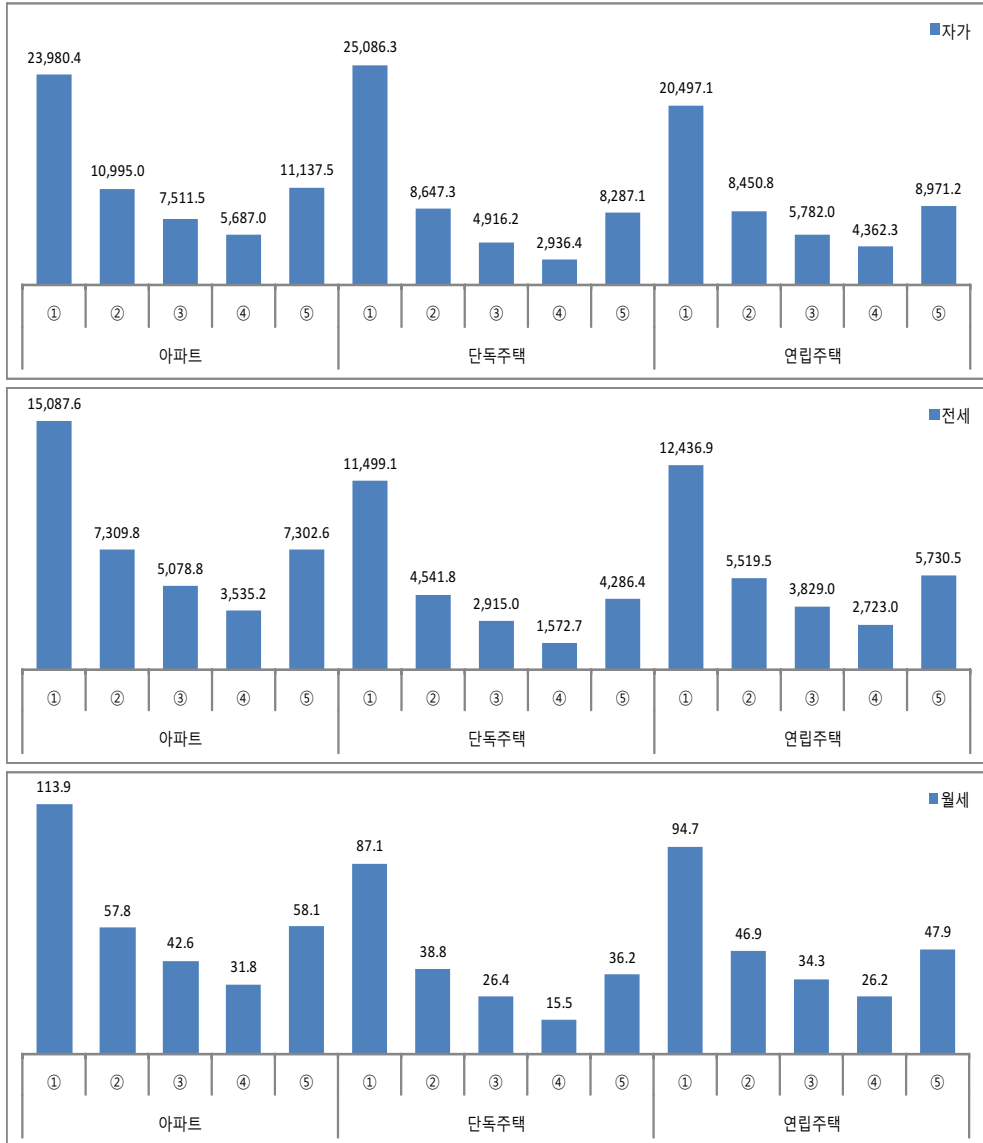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2012년 주택가격조사』, 원자료

일곱 번째, (3-2안) 서울 & 광역시 & 경기 변형 4개 지역구분(안)은 ‘서울 - 광역시 & 경기 중소도시 - 경기 제외 중소도시 - 농어촌’으로 (3-1안)을 조정하고 (3-3안)의 ‘광역시’와 ‘경기 중소도시’를 통합하여 4개 지역으로 구분한 것이다. 그 결과 72개 세부 유형 중 15개 유형에서 잠정 구분한 4개 지역구분(안)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15개 유형 중 14개 유형이 1~6인 가구 연립주택(자가, 전세, 월세)이며, ‘경기 제외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부동산가격 차이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림 4-5-7] (3-2안) 서울 & 광역시 & 경기 변형 4개 지역구분(안):

서울 - 광역시&경기중소도시 - 경기제외중소도시 - 농어촌(4인가구)

(단위: 만원)



주: ①서울, ②광역시&경기중소도시, ③경기제외중소도시, ④농어촌, ⑤전제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2012년 주택가격조사』, 원자료

〈표 4-5-17〉 (3-2안) 서울 & 광역시 & 경기 변형 4개 지역구분(안) 분산분석 결과:

서울 - 광역시&경기중소도시 - 경기제외중소도시 - 농어촌

가구규모	주거유형	자가 ¹⁾²⁾	전세 ¹⁾²⁾	월세 ¹⁾²⁾
1인	아파트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단독주택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연립주택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2인	아파트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단독주택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연립주택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3인	아파트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단독주택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연립주택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4인	아파트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단독주택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연립주택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5인	아파트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단독주택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연립주택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6인	아파트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단독주택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연립주택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① ⇔ ② ⇔ ③ ⇔ ④

주: 1) 세부 유형별 부동산가격에서 잠정 구분된 지역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01)가 존재할 경우 '⇔'로, 그렇지 않은 경우 '='로 표시함.

2) ①서울, ②광역시&경기중소도시, ③경기제외중소도시, ④농어촌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2012년 주택가격조사』, 원자료

〈표 4-5-18〉 (3-2인) 서울 & 광역시 & 경기 변형 4개 지역구분(안) 분산분석 결과값:

서울 - 광역시&경기중소도시 - 경기제외중소도시 - 농어촌

가구규모	주거유형	F-value ¹⁾		
		자가	전세	월세
1인	아파트	466.64***	430.49***	355.85***
	단독주택	544.64***	402.44***	297.48***
	연립주택	479.42***	413.00***	312.67***
	전체	1,416.75***	1,137.75***	915.83***
2인	아파트	508.00***	451.31***	391.10***
	단독주택	661.79***	426.87***	353.99***
	연립주택	486.97***	401.27***	356.09***
	전체	1,536.83***	1,143.87***	1,017.70***
3인	아파트	509.92***	424.30***	348.04***
	단독주택	672.11***	443.87***	381.91***
	연립주택	481.72***	375.77***	338.12***
	전체	1,537.87***	1,092.44***	962.77***
4인	아파트	523.89***	419.20***	337.56***
	단독주택	677.73***	459.52***	378.66***
	연립주택	465.76***	395.21***	323.99***
	전체	1,534.62***	1,115.51***	934.11***
5인	아파트	513.88***	430.85***	357.27***
	단독주택	668.05***	456.13***	390.60***
	연립주택	459.45***	404.40***	327.49***
	전체	1,501.15***	1,116.05***	958.16***
6인	아파트	520.57***	421.06***	351.78***
	단독주택	649.18***	466.16***	410.84***
	연립주택	475.62***	421.20***	336.27***
	전체	1,500.55***	1,115.13***	967.96***

주: 1)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2012년 주택가격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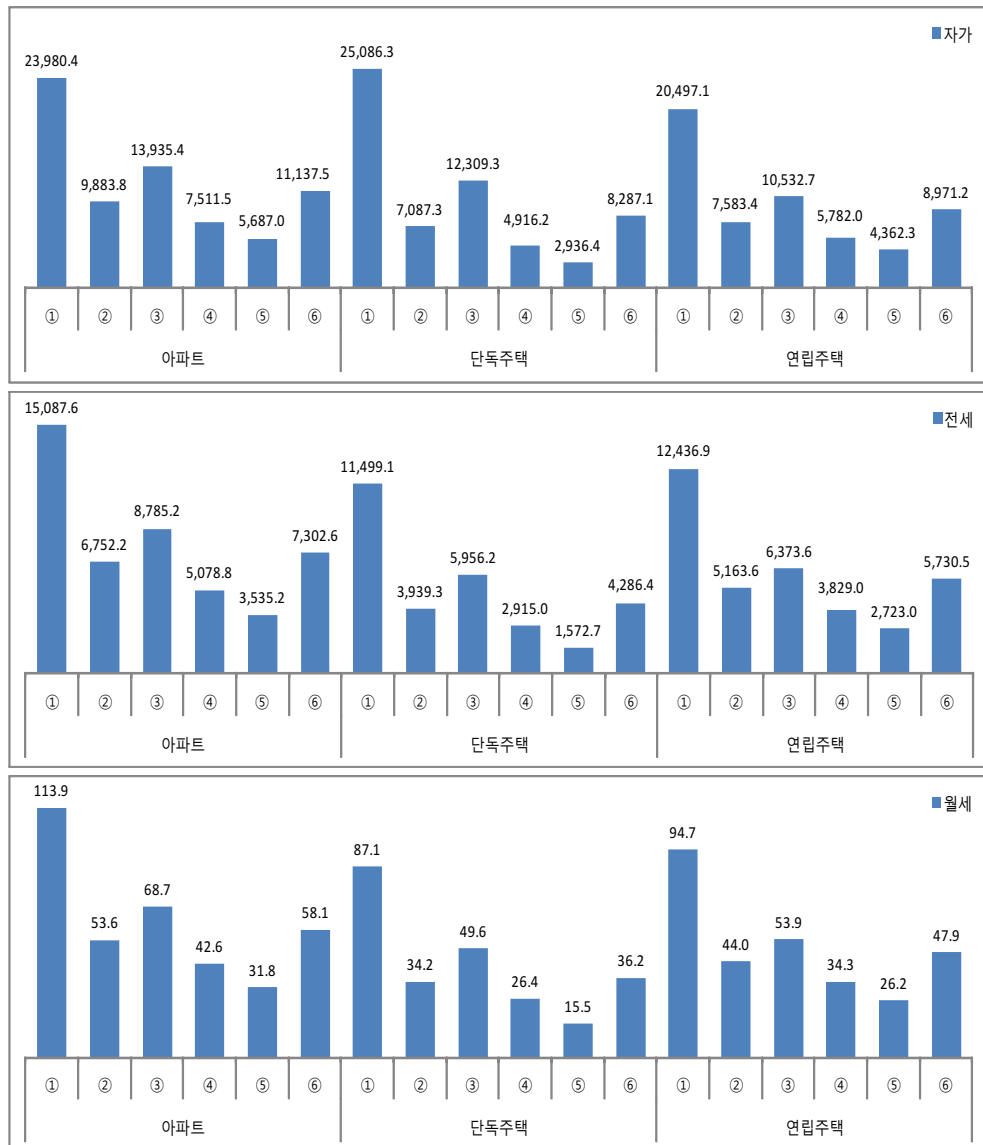
여덟 번째, (3-3인) 서울 & 광역시 & 경기 분리 5개 지역구분(안)은 ‘서울 - 광역시 - 경기 중소도시 - 경기 제외 중소도시 - 농어촌’이며,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가격을 기초로 (3-1인)의 ‘중소도시’를 ‘경기 중소도시’와 ‘경기 제외 중소도시’로 분리하여 5개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72개 세부 유형 중 22개 유형에서 잠정 구분한 5개 지역구분(안)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2개 유형 중 1~6인 가구 연립주택(자가, 전세, 월세) 전체에 해당하는 18개 유형에서 ‘경기 제외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부동산가격 차이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나머지 4개 유형은 1~2인 가구 아파트(자가), 3인 가구 아파트(자가, 월세)로, 동일하게 ‘경기 제외 중소도시’와 ‘농어촌’ 사이의 차이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림 4-5-8] (3-3안) 서울 & 광역시 & 경기 분리 5개 지역구분(안):

서울 - 광역시 - 경기중소도시 - 경기제외중소도시 - 농어촌(4인가구)

(단위: 만원)



주: ①서울, ②광역시, ③경기중소도시, ④경기제외중소도시, ⑤농어촌, ⑥전제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2012년 주택가격조사』, 원자료

〈표 4-5-19〉 (3-3인) 서울 & 광역시 & 경기 분리 5개 지역구분(안) 분산분석 결과:

서울 - 광역시 - 경기중소도시 - 경기제외중소도시 - 농어촌

가구규모	주거유형	자가 ¹⁾²⁾	전세 ¹⁾²⁾	월세 ¹⁾²⁾
1인	아파트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단독주택	①⇔②⇔③⇔④⇔⑤		
	연립주택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전체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2인	아파트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단독주택	①⇔②⇔③⇔④⇔⑤		
	연립주택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전체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3인	아파트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단독주택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연립주택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전체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4인	아파트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단독주택			
	연립주택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전체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5인	아파트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단독주택			
	연립주택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전체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6인	아파트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단독주택			
	연립주택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전체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주: 1) 세부 유형별 부동산가격에서 잠정 구분된 지역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01)가 존재할 경우 '⇔'로, 그렇지 않은 경우 '='로 표시함.

2) ①서울, ②광역시, ③경기중소도시, ④경기제외중소도시, ⑤농어촌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2012년 주택가격조사』, 원자료

〈표 4-5-20〉 (3-3인) 서울 & 광역시 & 경기 분리 5개 지역구분(안) 분산분석 결과값:

서울 - 광역시 - 경기중소도시 - 경기제외중소도시 - 농어촌

가구규모	주거유형	F-value ¹⁾		
		자가	전세	월세
1인	아파트	466.64***	430.49***	355.85***
	단독주택	544.64***	402.44***	297.48***
	연립주택	479.42***	413.00***	312.67***
	전체	1,184.96***	933.34***	759.75***
2인	아파트	508.00***	451.31***	391.10***
	단독주택	661.79***	426.87***	353.99***
	연립주택	486.97***	401.27***	356.09***
	전체	1,291.66***	924.31***	831.76***
3인	아파트	509.92***	424.30***	348.04***
	단독주택	672.11***	443.87***	381.91***
	연립주택	481.72***	375.77***	338.12***
	전체	1,288.13***	870.68***	772.99***
4인	아파트	523.89***	419.20***	337.56***
	단독주택	677.73***	459.52***	378.66***
	연립주택	465.76***	395.21***	323.99***
	전체	1,290.59***	885.89***	745.29***
5인	아파트	513.88***	430.85***	357.27***
	단독주택	668.05***	456.13***	390.60***
	연립주택	459.45***	404.40***	327.49***
	전체	1,270.35***	891.85***	771.97***
6인	아파트	520.57***	421.06***	351.78***
	단독주택	649.18***	466.16***	410.84***
	연립주택	475.62***	421.20***	336.27***
	전체	1,257.14***	888.40***	775.14***

주: 1)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2012년 주택가격조사』, 원자료

4. 지역구분 심의결과

지역구분에 대해서는 총 3차례에 걸쳐 심의하였다. 먼저, 제1차 제1소위원회(2012. 7. 9)에서는 지역구분 방안 마련시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산정의 지역구분을 참고하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보다 세분화된 지역구분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현재 전세의 반전세화 및 월세화가 진행 중이므로 현행 전세→월세로 주거비 반영기준을 전환할 필요성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두 번째, 제2차 제1소위원회(2012. 7. 23)에서는 현행 지역구분보다 지역특성을 세분화하여 반영한 2-1안인 수도권 분리 3개 지역구분(수도권-지방도시-지방농어촌)과 2-4안인 수도권·서울 분리 4개 지역구분(서울-서울 제외 수도권-지방도시-지방농어촌)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 결과, 부동산 가격 불안정한 시기적 특성, 수도권 내부에서도 발생하는 차이 반영 가능성, 지자체 차원에서의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시점에는 기존 지역구분 유지하고, 실제 생활권역을 고려한 지역구분을 통해 개인의 주거지 선택에 지역구분 및 주거비 차이가 개입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구분 세분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개선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며, 재정부담 수준 및 부담주체에 대해서도 추가검토를 필요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3차 제1소위원회(2012. 8. 6)에서는 지역구분은 지속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가져야 하고 위원회에서 검토한 지역구분안은 실태조사 실시의 기초가 된다고 논의하였다. 그러므로 지역구분안을 반영한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제38차 중생보 의결사항인 '지역별 주거비 차이 반영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지역구분의 3가지(1안, 2-1안, 2-4안) 안 중에서 2-1보다 2-4안은 세부적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1안과 2-4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그 결과, 1안(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의 경우 우리나라는 국토가 넓지 않아 지역구분의 필요성이 낮으며, 지역구분을 한다면 특정도시 이름이 언급되지 않을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2-4안(서울-서울 제외 수도권-지방도시-지방농어촌)은 통계자료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별 주거비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므로 세부적으로 지역을 구분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제5장 2013년 비목별 최저생계비

제1절 최저 식료품비

제2절 최저 주거비

제3절 최저 광열·수도비

제4절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제5절 최저 피복·신발비

제6절 최저 보건의료비

제7절 최저 교육비

제8절 최저 교양·오락비

제9절 최저 교통·통신비

제10절 최저 기타소비지출

제11절 비소비지출

제12절 표준가구의 지역별 최저생계비

제1절 최저 식료품비

1. 최저 식료품비의 개념 및 계측방법

가. 최저 식료품비의 개념

최저생계비 비목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비목이 식료품비이다. 식료품이란 건강을 유지하고 성장 발육을 촉진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섭취하는 음식을 총칭하여 이르는 말이다. 식료품비란 인간의 생존, 성장과 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열량과 영양소를 섭취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식품 섭취는 인간의 욕구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또한 인간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품목 중에 하나이므로 식료품비는 소비지출비목 중에 가장 비탄력적이다.

본 연구에서의 전물량방식에 의한 최저 식료품비는 영양학적으로 조건을 충족시키고 실제로 많이 소비되고 있는 식료품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그 식단을 유지하는데 비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최저식료품비는 소비실태도 반영하면서 규범적 측면에서의 영양학적 조건을 만족 시킨다.

나. 기존 연구에서의 최저식료품비 계측 방법

1988년 이래 2010년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생계비 계측, 한국 노총과 민주노총의 표준생계비 계측 등 식료품비는 전물량 방식으로 계측되어 왔으며 이들 계측에 활용된 기본 모형과 계측 방식은 유사하였다.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식료품비는 큰 틀에서는 2007년과 산정 방식이 동일하였다. 최저 식료품비는 가정식 비용, 가장의 외식비, 학생의 학교급식비로 구성되고, 이중 가정식 비용은 실태를 고려하여 『가계동향조사』의 가구 중 소득 하위 40%

이하 4인가구의 품목 세분류별 지출 실태를 반영하였다. 차이점은 2010년도에는 2007년도에 반영하지 못한 가족단위 외식을 추가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규범적인 측면에서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제8차 개정』(한국영양학회, 2005)에 제시되어 있는 활동강도별 · 연령별 · 성별 열량과 22개의 영양권장량을 충족하도록 조정하였다. 영양권장량에 반영된 영양소는 단백질, 비타민A,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C, 비타민D, 비타민E, 비타민B6, 비타민 B12, 나이아신, 엽산, 칼슘, 인, 마그네슘, 철, 아연, 구리, 불소, 망간, 요오드, 셀레늄, 몰리브덴이다. 『한국인의 영양섭취기준, 제8차 개정』에서는 평균필요량, 권장섭취량, 충분섭취량, 상한섭취량을 제시 되어 있어 최저식료품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대부분의 영양소를 평균필요량과 권장섭취량 사이로 조정하였다.

식료품의 가격은 2010년 1월을 기준으로 어패류, 채소, 과실류 등 계절에 따라 가격등락이 심한 일부 품목은 성수기를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가격결정에 사용된 자료는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중 식료품비에 해당하는 품목의 물가변동지수,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농수산물 가격정보」, 인터넷 자료의 시장가격과 시장조사 등이다. 2010년도에 반영된 가족단위 외식비의 경우 최저식료품비임을 감안하여 2007년도에 외식비가격을 결정하였지만 반영하지 못한 단가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2013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표준생계비를 식료품비를 살펴보면, 기본 계층 방식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식료품비 계측 방식과 유사하다. 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는 식료품비를 표준생계비라는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구단위의 외식을 포함하였고, 자체적인 시장조사를 통해 가격을 산출하였다는 차이점이 있다. 4인가구 가구단위 외식횟수의 경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 월 2회로 설정하고 있다.

다. 본 연구에서의 최저 식료품비 계측 방법

2013년도 최저 식료품비는 2010년 최저 식료품비 계측 방식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 규범적인 측면에서 표준가구의 연령, 성별을 감안하여 영양섭취기준을 설정하였고, 현실적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한국인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들을 기준으로 마켓 바스켓을 설정하였다. 2010년과 차이점은 표준가구 연령 상승으로 연령별 열량의 변화가 있

있고, 영양섭취기준 역시 2011 농촌진흥청 식품성분표 등 최신 자료를 반영하였다.

최저 식료품비는 가족 전체 혹은 일부가 가정에서 식사하는 비용인 가정식 비용과 외부에서 식사하는 외식비용으로 구성하였다.

- 최저식료품비 = 가정식 비용 + 외식비용
- 가정식 비용 = 외식이 없을 경우의 가정식 비용 - 가구주의 외식에 따른 가정식 절감비용 - 가족단위 외식에 따른 가정식 절감비용 - 학생의 급식에 따른 가정식 절감비용 - 친지방문 및 수련회에 따른 절감비용
- 가정식 비용 = 가정의 중식비 + 가족단위 외식비용 + 학생의 급식비용

가정식 비용 산정을 위한 품목은 곡류 및 식빵, 육류, 낙농품, 어개류, 채소, 과실류, 조미식품, 빵 및 과자류, 차 음료, 기타식료품의 10개 중분류⁵⁵⁾의 세부 품목이다. 외식비는 경제활동을 하는 가정의 중식비, 가족단위 외식비용 그리고 학생의 급식비용으로 구성된다. 학생의 학교 급식비는 초등학교 자녀(2명)의 학교 급식비에 해당되며, 가족단위 외식비는 2010년부터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표준가구가 최소한으로 외부에서 식사하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산출된 가정식 비용에 외식으로 인한 가정식 비용을 제외하였다. 여기에는 가정 중식 절감분, 학생급식 절감분(2명), 가족 단위 친지 방문 절감분(4인 기준 연간 2회 : 연간 총 8끼)과 초등학교 자녀(2명) 수련회 절감분(1인당 연간 1회 : 1인당 연간 7끼)으로 인한 가정식 비용도 포함된다.

2. 최저 식료품비 계측 결과

가. 가정식 비용

가정식 비용은 다음과 같은 3단계로 산출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1일 가정식 비용을 산출하는 것으로 '1일 가정식 비용 = 1일 식료품 구입량 × 가격'으로 결정된다. 이를 바탕으로 두 번째 단계에서 1끼당 가정식 비용을 산출한다. '1끼당 가정식 비용 = 1일

55) 통계청『가계동향조사』의 2009년 항목개편 전 식품비 분류방식에 준하였다.

가정식 비용 ÷ 3'으로 계산된다. 마지막 단계에서 월 가정식 비용을 산출한다. '월 가정식 비용 = 1끼당 가정식 비용 × 월평균 끼니 수($365 \div 12 \times 3$) - 외식으로 인한 가정식 비용 감소분'으로 계산 된다.

1) 품목 선정

식료품 마켓 바스켓(Market Basket)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2013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들이 상용하는 식품 중에서 필수 식료품을 선정하되, 영양학적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인간이 소비하는 식료품의 품목의 종류는 매우 많고, 상호 대체가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각 품목은 저소득층이 일반적으로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선정하지만 비슷한 가격과 다른 식품으로 대체될 수 있다⁵⁶⁾.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필수 식료품을 선정하였다.

2013년 최저식료품 산정을 위한 품목 선정은 2010년 연구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10년의 경우 2009년 『전국가계조사』의 가구 중 소득하위 40% 이하 4인 가구의 품목 세분류별 지출액을 산정하여 각 품목이 중분류의 전체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였다. 그 결과 식료품 중분류 범주 내에서 지출 비율이 0.5%미만인 식료품 품목은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전국가계조사』에서 선정한 품목은 『국민생활실태조사(가계부조사)』에서의 동일한 방식으로 구해진 비율과의 조정을 통해 걸러지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마켓 바스켓 품목을 결정하였다. 2013년 연구에서도 『가계동향조사(2012)』를 이용하여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소비실태를 감안하여 품목을 선정하였다. 소비실태 분석결과 2010년도 연구의 품목과 거의 비슷하여 2010년 품목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2) 사용량(구입량) 결정

최저 식료품비 산정을 위해 품목이 결정되면 그 다음으로 각 품목의 구입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식품의 섭취란 '영양학적 필요'라는 규범적인 측면에서 일차적으로 고려

56) 각 품목은 비슷한 가격과 다른 식품으로 대체 될 수 있다는 점 감안하여야한다(예, 품목에 포함된 식품: 도토리묵 ↔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식품:메밀묵).

되어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점을 감안하여 각 품목의 구입량을 세 단계에 걸쳐서 결정하였다.

먼저, 1일 권장량을 충족할 수 있도록 품목의 양을 조정하였다. 섭취량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개정판』에 제시되어 있는 활동 강도별·연령별⁵⁷⁾·성별 열량과 22개 영양권장량⁵⁸⁾을 충족하도록 결정하였다⁵⁹⁾. 2013년 표준가구는 가장 42세, 배우자 39세, 1자(남) 12세, 2자(여) 10세이므로 하루 필요열량은 각각 2,400kcal, 1,900kcal, 2,400kcal, 1,700kcal로 총 8,400kcal이다. 97개 품목의 구입량이 하루 필요열량의 100% 내외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조정하여 구입량을 결정하였다. 단, 최저 식료품비라는 점을 감안하여 비슷한 영양소를 가진 식품군 내에서 가능한 저렴한 품목을 좀 더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식료품별 폐기율을 고려하는 것이다. 폐기율이란 구입한 식품 중에서 섭취하지 않는 부분을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대부분의 식료품이 세척·가공·조리 과정에서 껍질·뼈·수분 등이 손실되므로, 구입량보다는 섭취량이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하기 위함이다. 즉, $[구입량 \times (1 - \text{폐기율})]$ 이 앞에서 제시한 영양 권장량을 충족하도록 하였다⁶⁰⁾.

마지막으로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섯 가지 기초식품군별 영양학적 권장량과 『가계동향조사』(2012)의 소비실태를 절충하여 최종적인 구입량을 결정하였다.

구입량의 경우 지역간 차이가 발생 할 수 있다. 그러나 식료품비는 규범적 측면 즉 영양권장량 충족의 측면이 강하고 하나의 품목은 비슷한 가격과 영양소를 가진 다른 품목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역간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다.

57) 가장 42세, 배우자 39세, 1자(남) 12세, 2자(여) 10세로 구성된 표준가구의 하루 필요열량은 각각 2,400kcal, 1,900kcal, 2,400kcal, 1,700kcal로 총 8,400kcal 이다.

58) 영양권장량에 반영된 영양소는 단백질, 비타민A,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C, 비타민D, 비타민E, 비타민B6, 비타민 B12, 나이아신, 엽산, 칼슘, 인, 마그네슘, 철, 아연, 구리, 불소, 망간, 요오드, 셀레늄, 몰리브덴이다. 개정된 『한국인의 영양섭취기준 개정판(2010)』에서는 평균필요량, 권장섭취량, 충분섭취량, 상한섭취량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저식료품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대부분의 영양소를 평균필요량과 권장섭취량 사이로 조정하였다.

59) 이때, 식품별 영양 성분은 『식품영양소 함량자료집』(한국영양학회, 2009)와 2011 농촌진흥청 식품 성분 DB(식품영양성분데이터베이스 <http://www.foodnara.go.kr/kisna/index.do>)를 참고하였다.

60) 품목별 폐기율은 『식품영양소 함량자료집』(한국영양학회, 2009)을 사용하였다.

3) 가격결정

식료품 품목과 구입량이 결정되면 마지막으로 각 품목의 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구입량 × g당 가격]의 산식으로 식품별 총소비가격을 결정하였다. 가격은 2013년 1월 기준으로 하였으며, 어개류, 채소, 과일류 등 계절에 따른 가격등락이 심한 일부 품목(예. 배추, 무, 고구마, 사과, 딸기 등)은 성수기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였다.

가격결정에 사용된 자료는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중 식료품비에 해당되는 항목의 물가변동률,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 가격정보」, 인터넷 자료의 시장가격과 시장조사 마지막으로 『국민생활실태조사 심층조사』 자료에서 최빈값 등을 사용하였다. 가격은 중(하)품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였다.

나. 외식비

외식비는 가구단위의 외식과 가구원의 규칙적인 외식비(가장의 중식 및 학생의 급식)로 나누어진다. 외식 가격은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의 외식실태 바탕으로 최저식료품비라는 점을 감안하여 산출하였다.

가구단위 외식은 가구원의 생일을 감안하여 연간 총 4회(월 4/12=0.33)로 설정하였다. 단가는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 결과에서 평균이 52,000원, 최빈값과 중위값이 50,000만원으로 나타났으나, 최저식료품비라는 점과 2010년 외식 단가가 24,000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40,000원을 적용하였다.

가구원의 규칙적 외식 중 가장 중식의 경우 2010년도에는 표준가구에서 가장의 직업이 도시지역 가장은 임금근로자, 농어촌지역 가장은 농어업종사자로 가정되었으나, 2013년도에는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2009)』, 『농업전망 2012』)가장의 직업이 동일하게 임금근로자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도농 간 차이가 없다. 또한 가장의 근무일은 주5일로 가정하여 가장의 중식비를 산출하였다. 가장의 중식 회수는 월 21.73(=365/12 × 5/7)로 설정하였으며 가장의 중식비 비용은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의 실태의 최빈값인 끼니당 4,000원을 적용하였다⁶¹⁾.

학생의 급식비의 경우 표준가구 자녀 2명 모두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이므로 급식

을 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급식회수는 수업일수를 감안하여 월 16.08회(=193/12)로 설정하였다⁶²⁾. 학생의 급식비는 교육부 학생 1인당 급식비 자료(2013.4)를 적용하였다.

다. 표준가구의 최저식료품비 마켓 바스켓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산정한 2013년 최저생계비 중 최저 식료품비(연구진안)는 도농 간 구분 없이 608,963원으로 산정되었다(구체적인 각 항목은 아래 표 및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2010년도와 다르게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금액이 동일한 이유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도농 간 가장의 직업이 임금근로자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가정식 비용은 소비실태와 영양학적 기준을 반영하여 계산된 가정식 구입비에 가장의 중식비 절감분, 초등학생 자녀(2명)의 급식비 절감분, 가족 단위 이식으로 인한 절감분, 초등학생 자녀 수련회 절감분, 친지방문 절감분을 차감하여 산출되었다. 최종적으로 산출된 가정식 비용은 430,721원이다.

〈표 5-1-1〉 표준가구의 최저 식료품비(연구진안)

	내구연수	회수	단가	금액 ¹⁾
식료품비 합계				608,963원
가정식 비용(외식이 없는 경우)	1월	91.25회	5,674원	517,779원
가장 중식으로 인한 절감비용	1월	21.73회	1,621원	-35,223원
가족단위 외식으로 인한 절감비용	1월	0.33회	5,674원	-1,891원
12세 아동 급식으로 인한 절감비용	1월	16.08회	1,621원	-26,075원
10세 아동 급식으로 인한 절감비용	1월	16.08회	1,148원	-18,470원
12세 아동 수련회로 인한 절감비용	1월	0.58회	1,621원	-946원
10세 아동 수련회로 인한 절감비용	1월	0.58회	1,148원	-670원
친지방문으로 인한 절감비용	1월	0.67회	5,674원	-3,783원
가정식 비용 소계				430,721원
가장 중식비	1월	21.73회	4,000원	86,905원
초등학생(12세) 급식비	1월	16.08회	2,425원	39,002원
초등학생(10세) 급식비	1월	16.08회	2,425원	39,002원
가족단위 외식비	1월	0.33회	40,000원	13,333원
외식비 소계				178,242원

주: 1) 소수점 이하 처리로 단가×회수의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61) 『2011년 4인가구 심층조사』 결과 중식의 평균가격 4,790원, 중위가격 4,500원, 최빈가격 4,000원 중 최빈가격 반영하였다.

62) 2012년 주 5일제 전면시행으로 수업일수는 209일에서 193일로 조정하였다.

3. 다른 연구와의 비교

마켓 바스켓 방식에 의한 식료품비는 1988년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생계비와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표준생계비에서 계측되어 왔다. 아래 표를 살펴보면, 최저 식료품비가 최저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소도시 기준으로 1999년 40.7%, 2004년 40.2%, 2007년 37.6%로 감소해왔다. 반면 2010년의 경우 37.7%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 2013년 계측년도에의 경우 37.1%로 최저식료품비는 비중은 다시 감소했다.

〈표 5-1-2〉 타 연구의 식료품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

(단위: 원, %)

	최저 식료품비 ¹⁾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 ²⁾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13 최저생계비 (연구진안)								
	608,963	608,963	608,963		34.7	37.1	40.2	
2010 최저생계비	-	-	527,327	-	-	-	37.7	-
2007 최저생계비	-	-	463,164	-	-	-	37.6	-
2004 최저생계비	-	-	443,626	-	-	-	40.2	-
1999 최저생계비	-	-	366,948	-	-	-	40.7	-
2013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³⁾	1,390,590	-	-	-	26.4	-	-	-
2012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⁴⁾	1,072,113	-	-	-	20.4	-	-	-

주: 1) 1999년, 2004년, 2007년, 2010년의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식적인 최저생계비임.

2) 1999년~2010년의 경우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중소도시(전세) 기준. 2010년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자가 기준

3) 2013 한국노총: 가구주(40세), 배우자(37세), 11세(초), 9세(초), 아파트/자가 기준

4) 2012 민주노총: 가구주(40세), 배우자(35세), 여아(8세, 초등학교), 남아(6세, 유치원생), 아파트/자가 기준
자료: 김미곤 외(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2005),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김미곤 외(2007),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여유진 외(2010),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총(2013), 『2013년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민주노총(2012), 『2012년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해설』.

반면에, 한국노총의 경우 2010년 표준생계비에 대한 최저식료품비의 비중은 23.8%였으나 2013년에는 26.4%로 2.6%p 증가하였다. 2012년 민주노총의 경우 역시 2010년에는 19.8%였던 식료품비의 비중이 2013년도에는 20.4%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

총 표준생계비와,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모두 최저 식료품비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지만 본 연구 결과에 비해서는 그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 가장 낮은 계층에 적용되는 최저생계비 중 최저 식료품비이므로 중위수준의 근로자 가구를 상정하고 있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보다는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제2절 최저 주거비

1. 최저 주거비의 개념 및 측정방법

가. 최저 주거비의 개념

주거는 식품 및 의료와 더불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필수품 중의 하나이다. 여기서 인간다운 생활이라 함은 단순히 비를 피할 수 있는 거처 이상의 의미로서 주거는 가구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 및 상하수도과 전기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주거환경은 건강 및 교육 성취 등 가구원의 삶의 질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도 중요하다.

그러나 주거의 개념은 사회구성원의 인식 및 제도적 기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최저주거비도 달라진다. 과거 주거비는 생존의 수단으로서의 주택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했으나, 지금은 주택이 생존의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투자의 목적, 주거욕구의 반영, 자아의 표현, 주거가치의 실현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의 개념으로 변화되어 주거비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원에서는 1988년부터 최저 주거비를 계측해왔으며, 주거비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최저 주거비가 산출된 바 있다. 1988년의 최저 주거비 개념은 최저주거기준에서 가구원이 건강하게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한의 주거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1994년은 최저기준으로 주거복지적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용인하여야 할 최소한도의 수준을 규정하고, 최저 주거비에는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보건·위생적 측면에서의 충족뿐 아니라, 건전한 사회적 삶을 위한 사회문화적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계산하고 있다. 또한 1999년의 연구에서는 최저주거기준에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진 주거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개념정의하고 있다. 2004년 이후의 최저주거비 산정(2004년, 2007년, 2010년)은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최저주거기준을 바탕으로 ‘재산이 없는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이 갖추어진 주거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산출되고 있다.

이와 달리 최저임금을 구하기 위해 최저 주거비를 산출하고 있는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의 주거비 산정은 본 연구원의 접근과 다르다. 위 기관들은 생애단계별로 주택의 종류와 점유형태, 주거면적 등을 설정하고 있으며, 조합원 실태조사를 토대로 노동자들의 ‘보편적인 생활실태’를 반영한 가구규모별 주거비를 산출하고 있다. 또한 통계적인 목적으로 주거비를 조사함에 있어 주거비를 정의하기도 하는데,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에서는 실제주거비(월세, 기타주거비), 주택유지 및 수선(벽지, 바닥재, 기타주택유지 및 수선재, 설비·수리서비스 등), 기타주거관련 서비스(공동주택관리비, 기타주거서비스)로 포함되어 있고, 미국의 주거실태조사인 AHS(American Housing Survey)에서는 대출금 상환액 및 임대료, 세금, 아파트 및 이동주택 주차료, 주택 보험, 규칙적인 유지비 등의 비용이 포함된다.

이처럼 많은 기관에서 그 목적에 따라 주거비를 계산하고 있으며 그 의미는 각기 다르다. 예컨대, 본 연구원의 주거비는 기본적으로 “최저주거기준”이란 요건을 전제하고 산출한 최저 주거비이며, 양대 노총의 주거비는 ‘표준’적 근로자를 염두에 둔 주거비이고, 통계청의 주거비는 ‘최저’ 주거비라기보다 ‘실태’ 주거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4년 이래 최저주거비를 산출해 온 방식과 동일한 개념을 적용한다. 즉,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최저주거기준을 바탕으로 재산이 없는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이 갖추어진 주거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산출한다. 이는 최소한의 거주면적, 시설, 환경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부터 얻는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하는 주거관련비의 총합을 의미한다.

나. 기존연구에서의 최저 주거비 계측방법

국내 기존연구에서 최저 주거비를 산정한 경우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여섯 번의 연구(1988, 1994, 1999, 2004, 2007, 2010)가 있으며, 이 외에도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에서 임금 협상을 위한 자료로서 해마다 표준 생계비를 계측하고 있고 생계비의

한 비목으로 주거비를 산정하고 있다.

먼저 198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 주거비는 당시 조사된 저소득 생활실태조사를 근거로 하여 산정되었다. 즉, 조사결과 대도시 임차유형으로 보증부 월세를 산정하고 이에 대한 임대료를 산정하였다(보증금 150만원). 보증금에 대한 월세는 연리 20%를 적용하여 월세로 환산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매월 월세 비용은 30,000원으로 책정하였다. 월 임대료에 더해 주거비로 고려한 것은 이사비용으로 이사비용에 대한 내구연수는 3년에 1회로 하며 비용은 6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월임대료와 이사비용을 합친 1988년 대도시의 최저 주거비는 56,666원으로 책정되었다. 중소도시 및 농어촌의 최저 주거비 역시 저소득 생활실태조사를 기초로 산정하고 있다. 중소도시의 경우 4인가구이면서 방2개를 사용하는 가구의 평균주거비를, 농어촌은 4인가구이면서 방3개를 사용하는 자가 및 전세가구의 평균 주거비를 이용하여 “지역별 주거비 비율”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최저 주거비를 산출하였다.

〈표 5-2-1〉 198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 주거비

(단위: 원, %)

구분	보증금	월세액	이사비용	최저 주거비
대도시	1,500,000	30,000	1,666	56,666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비율	100	70	36	
최저 주거비	56,666	39,666	20,399	

자료: 안창수 외(1989),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994년 최저 주거비 산정은 1988년의 실태를 기초로 최저 주거비 산정방법과 달리 회귀분석을 통해 최저 주거비를 산정하였다. 임대료 및 이주비를 산출하기 위해 두 개의 회귀식으로 최저 주거비를 산정하였다. 임대료 산정을 위한 회귀모형에는 방수, 평수, 부엌, 화장실, 목욕탕 등의 변수를 고려하고, 가구규모와 주택임대료를 고려한 회귀모델을 기초로 하여 이주비용을 추정하였다.

$$\begin{aligned}
 E &= \beta_0 + \beta_1 \ln(\text{방수}) + \beta_2 \ln(\text{방당평수}) + \beta_3(\text{입식부엌}) + \beta_4(\text{수세식화장실}) \\
 &\quad + \beta_5(\text{전래화장실}) + \beta_6(\text{목욕탕}) + \beta_7(\text{일반주택}) + \beta_8(\text{지역}): \text{임대료} \\
 \ln E &= \beta_0 + \beta_1 \ln(\text{가구규모}) + \beta_2 \ln(\text{주택임대료}): \text{이주비}
 \end{aligned}$$

〈표 5-2-2〉 199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 주거비

(단위: 원)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임대료	167,859	137,348	-
이사비	3,047	2,828	-
최저 주거비	170,906	140,176	64,127

자료: 박순일 외(1994),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 주거비는 기존 1988년과 1994년 두 연구와는 달리 주거비산출 방법 중 하나인 지불액법을 근거로 하여 최저 주거비를 산출하였다. 지불액법이란 주거비를 산출할 때 주택구입 혹은 주택비용을 조달하는데 있어 대출부 분(용자금 상환액, 이자, 관리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따라서 1999년의 최저 주거비에는 용자금 상환액과 자기자본비용을 포함하여 최저 주거비를 산정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국민생활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대도시(23,316,000 원), 중소도시(17,359,200원), 농어촌(14,592,000원)의 전세 및 자가에 대한 주거비를 계산한 후, 이를 기초로 주택구입비용 조달에 있어 대·중소도시의 경우 실태조사 결과 자기자본이 82%, 용자가 18%, 농어촌은 자기자본이 85%, 용자가 15%로 나타나 이를 근거로 계산하였다. 이자율은 자기비용에 대해 5.4%, 용자금에 대해 11.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구체적인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대·중소도시 주거비} &= \text{용자금 상환액} + \text{월 이자비용} + \text{자기자본비용} + \text{관리비} + \text{이사비(복비포함)} \\ \text{농어촌 주거비} &= \text{용자금 상환액} + \text{월 이자비용} + \text{자기자본비용} + \text{수리비} \end{aligned}$$

관리비는 실태조사 결과의 평당 2,080원을, 이사비용은 통계청의 7월 소비자물가자료, 복덕방비는 부동산중개업법의 전세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0.5%를 산정하였다. 농어촌 수리비의 경우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5조의2를 적용하여 건설교통비 공시 표준 건축비(㎡당 16만원)를 주거면적에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표 5-2-3〉 199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 주거비

(단위: 원)

구 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자기자본 비용	86,036	64,055	55,814
용자금 원리금	108,419	80,721	54,173
관 리 비	24,960	24,960	-
이사비(복비포함)	5,923	5,097	-
수 리 비	-	-	4,850
계	225,338	174,833	114,837

자료: 김미곤 외(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 주거비는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지출하는 비용만을 최저 주거비로 산출하였다. 즉, 사용자 비용법(자본이득을 고려하지 않음)과 지불액법(원금 상환액을 고려하지 않음)을 혼용하여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대도시(46,116,200원), 중소도시(27,761,900원), 농어촌(20,691,600원)의 전세 및 자가에 대한 주거비를 계산하였다. (전가)임대료는 전세 가액의 70%를 국민주택기금의 서민 전세자금융자금리(5.5%)로 나머지 30%를 신용대출로 빌리는 것을 전제로 환산율을 6.0%로 정하였으며, 농어촌의 경우에는 6.02%를 적용하였다.

$$\text{최저 주거비} = (\text{전가})\text{임대료} + \text{관리비} + \text{이사비} + \text{복비} + \text{수리비} + \text{도배비}$$

관리비는 농어촌(자가, 단독주택)에는 제외되며,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 수도권 및 4개 도시의 아파트 총관리비의 평당 평균을 적용하였다. 수리비는 농어촌에만 적용되며, 임대주택법시행령(제15조의 2)에 따라 건축주가 매월 건축비의 만분의 3을 수리비로 적립함에 따라 건설교통비 공시 표준건축비(㎡당 16만원)를 주거면적에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이사비는 통계청 자료와 전세 4.27년에 1회로 나타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였고, 복비는 부동산 중개업법의 매매임대계약시 단가를 적용하였으며, 도배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4.27년에 1회를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추정된 2004년 최저 주거비는 다음과 같다.

〈표 5-2-4〉 200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 주거비

(단위: 원)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가)임대료	230,581	138,810	103,803
보증보험료	11,298	6,802	-
아파트관리비	34,706	34,706	-
이사비	8,362	8,362	2,380
복비	4,500	2,709	690
도배비	3,547	3,547	3,547
수리비	-	-	1,774
계	292,994	194,936	112,194

자료: 김미곤 외(2005),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년 최저 주거비 계측방법은 사용자비용 준용방식을 기준으로 계측되었다. 사용자비용 준용방식은 주택의 유지비, 기회비용, 감가상각비, 각종세금 등 주택을 소유하여 쓰는 모든 비용에서 자본이득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이 때, 자본이득은 2004년 이후 2007년 사이 자가의 상승비용을 의미한다.

$$\text{최저 주거비} = (\text{전가})\text{임대료} + \text{관리비} + \text{이삿짐운송료} + \text{복비} + \text{도배비}$$

주택구입자금은 최저주거기준에 부합한 주택의 지역별 평균값(2007년 1월 기준 시장실태조사비용)을 적용하였다. 금융비용의 산출은 자가와 전세의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였다. 전세의 경우 자기자본은 정기에금금리(4.59%)를 적용하며, 조달비용은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연 4.5%, 70%)과 한국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연 6.20%, 30%)를 가중 평균한 5.01%를 적용하였다. 전세 보증보험료의 경우 국민주택기금대출액의 70%를 적용하며, 보험가입금액은 대출원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기준으로 환산하였다. 관리비, 이사비, 복덕방비, 수리비, 도배비의 산출방식은 2004년과 동일하며, 이렇게 계측된 2007년도 4인가구 기준 최저 주거비는 아래 표와 같다.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전세를, 농어촌은 자가를 기준으로 최저 주거비를 산정하였다.

〈표 5-2-5〉 200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 주거비

(단위: 원)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구입자금	자기자본	164,204	99,348	(112,546)
	조달비용	66,290	40,108	57,284
	보증보험료	8,336	5,043	(△156,213)
아파트관리비		53,491	53,491	-
이사비		5,933	5,933	1,908
복덕방비		3,386	2,560	1,185
도배비		6,092	6,092	3,527
수리비		-	-	12,664
합 계		307,732	212,575	76,568

주: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전세 기준, 농어촌은 자가 기준임. 농어촌 최저주거비의 경우 ()는 계산에서 제외한 것임.
 자료: 여유진·김미곤 외(2007),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년 최저 주거비는 2004년의 계측 방식을 준용하여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지출하는 비용으로 산출하였다. 즉, 사용자 비용법(자본이득을 고려하지 않음)과 지불액법(원금 상환액을 고려하지 않음)을 혼용하여 적용하였다.

최저 주거비는 임대료와 보유비용으로 구성되는데, 보유비용에는 관리비, 이사비, 복비, 도배비가 포함된다⁶³⁾.

$$\text{최저 주거비} = (\text{전가})\text{임대료} + \text{관리비} + \text{이사비} + \text{복비} + \text{도배비}$$

(전가)임대료는 전세 가액의 70%는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30%에 대한 금액은 일반 신용대출로 빌리는 것을 전제로 각 대출의 연이율 4.5%(국토해양부)와 6.32%(한국은행)의 가중평균 값 5.05%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시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0.3%의 보험료가 부가된다.

관리비는 국토해양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hmais.net>)의 2010년

63) 2010년 최저 주거비 계측부터 자가는 제외되었다. 이는 본 연구의 계측 대상이 '최저' 생계비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자가의 경우 전가임대료 산정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결과이다. 자가가 제외됨에 따라 보유비용에서 자가의 주거 욕구에 해당하는 수리비가 함께 제외되었다.

1월 기준 시도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사용하였으며, 이사비는 통계청 자료와 전세 6년에 1회로 나타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였다. 또한 예년과 같이 복비는 부동산 중개업법의 매매임대계약 시 단가를 적용하였고, 도배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6년에 1회를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추정된 2010년 최저 주거비는 다음과 같다.

〈표 5-2-6〉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 주거비

(단위: 원)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임대료	조달비용	249,129	166,716	98,607
	(보증보험료)	10,368	6,938	4,104
아파트관리비		32,568	32,568	32,568
이사비		6,189	6,189	6,189
부동산중개수수료		3,291	2,753	1,628
도배비		6,210	6,210	6,210
합 계		307,755	221,374	149,306

자료: 김미곤·여유진 외(2010),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 주거비는 저소득층(특히 기초보장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측되는 반면에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의 표준 주거비는 임금 협상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산정되고 있다. 따라서 같은 주거비를 측정함에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거비는 최저라는 개념이 강조되지만 양대노총의 주거비는 표준 주거비의 개념을 사용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노총의 경우 주거비는 생계비 모형에 따라 단신가구는 다세대 전세, 2~3인 가구는 아파트 전세, 4인 가구는 아파트 자가를 주택의 종류 및 점유 형태로 설정하고, 주거면적은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 표와 같이 설정하였다.

〈표 5-2-7〉 2013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의 가구규모별 주거모형

(단위: 평, 개)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주거유형	전세			자가
주택유형	다세대주택	아파트		
거주면적	10.0	20.0	21.0	25.0
사용방수	1.0	2.0	3.0	3.0

주: 아파트의 경우 분양면적임.

자료: 한국노총(2013), 『2013년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이렇게 설정된 주거모형에서 주거비는 전세와 자가 구입비, 아파트 관리비, 이사비, 주택관련 제세금(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주택수리비로 구성된다. 전세 및 자가구입에 따른 비용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평균 대출금액을 산출하고, 이 금액의 원금과 복리로 계산되는 이자를 갚아나가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이때 이율은 전세의 경우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 이율을 가정하고, 자가의 경우 모기지론과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 4.93%, 5.09%를 적용하였다. 이 외에 아파트 관리비, 이사비 등은 실태조사 결과와 통계청 물가자료 등을 활용하여 산정하였다. 이렇게 산정된 한국노총의 주거비는 아래 표와 같다.

〈표 5-2-8〉 한국노총의 2013년 주거비

(단위: 원)

구분	단인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전세비와 자가구입비	377,908	419,723	570,436	688,561
아파트관리비	-	42,329	44,293	53,158
이사비	18,225	26,570	30,153	11,813
취득세, 등록세 등	-	-	-	30,544
재산세	-	-	-	5,330
주택수리비	-	-	-	9,405
합 계	396,133	488,622	644,882	798,811

자료: 한국노총(2013), 『2013년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또한 민주노총의 주거비 산정은 한국노총과 같이 생애주기적인 관점에서 주거비를 산정하고 있는데, 두 노총의 주거 모형에서 주택유형과 주거형태는 같지만 주거면적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5-2-9〉 2012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주거 모형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주택유형	다세대	아파트		
주거형태	전세			자가
주거면적	39.6696㎡(12평)	79.3392㎡(24평)	79.3392㎡(24평)	92.5624㎡(28평)

자료: 민주노총(2012), 『2012년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해설』.

민주노총의 주거비는 주택마련 비용, 이사비용, 부동산 소개비, 아파트 관리비, 도배비 등으로 구성되었다. 1인 가구에 대해서만 실태조사를 반영하여 각각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방식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하였고,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금을 모두 은행에서 융자받는 것으로 하였다. 즉, 1인가구의 경우에는 자기 자금 또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부분에 대해서만 무이자 또는 일정 이율을 적용하여 2인가구를 구성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월할 상환하는 것으로 했다. 주택 유형, 주거형태 및 주택규모에서 차이가 없는 2인 및 3인가구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은 전세자금을 월할 상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4인가구는 전세금을 제외하고 필요한 주택구입비를 장기간 일정 이율을 적용하여 월할 상환하는 것으로 하였다. 2012년 표준생계비 전세보증금 및 주택구입비 산정은 2011년 전국물가조사 평균값을 반영하였다. 은행융자 이자율은 금융권 실태를 반영하여 연 6%로 하였고, 4인가구의 채무상환기간은 20년으로 하였다.

기타 주거비 항목인 이사비용, 도배비는 물가조사 결과를 적용하였고, 아파트관리비는 조합원 생활실태조사 결과를 참조하였고, 부동산소개비는 표준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민주노총, 2012). 이렇게 산정된 2012년 민주노총 주거비는 아래 표와 같다.

〈표 5-2-10〉 민주노총의 2012년 주거비

(단위: 원)

품목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1)
주택마련비용	401,549	832,747	832,747	976,624
이사비용	20,833	29,167	29,167	3,333
부동산소개비	8,542	23,339	23,339	4,458
아파트관리비	-	120,000	120,000	150,000
도배비	-	-	-	6,583
주거비 총계	430,924	1,005,253	1,005,253	1,140,998

자료: 민주노총(2012), 『2010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해설』.

다. 본 연구에서의 최저 주거비 계측방법

본 연구의 최저 주거비 계측을 위한 주거비의 조작적 정의는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자(者)가 주택으로부터 얻는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하는 주거관련비의 총합이며, ‘거주를 위한 최저 요건’은 국토교통부의 최저주거기준에 근거한다. 최저 주거기준⁶⁴⁾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의미하며, 최소 주거면적, 필수적인 설비 기준,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으로 구성된다. 위 기준은 2004년 건설교통부 고시를 통해 처음 시행되고, 2011년 개정을 통해 가구원수별 주거 면적이 상향 조정되고, 설비, 구조·성능 기준 등을 강화되었다.

우선, 상·하수도 시설과 관련된 부엌과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에 대한 필수 설비 기준과 주택의 안전성과 쾌적성 확보를 위한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64) 최저 주거기준은 2004년 「주택법」 제5조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처음 제정(건설교통부공고 제2004-173호)되었으며, 2011년 개정을 통해 가구원수별 주거 면적이 상향조정되었다(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90호).

〈표 5-2-11〉 필수 설비와 구조·성능 및 환경 기준

구분	내용
필수적인 설비 기준	주택은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및 하수도 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구조 성능 및 환경기준	<p>주택 안전성·쾌적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국건물로서 구조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이어야 한다. 2.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현저한 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자료: 국토해양부 공고(2011).

다음으로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는 가구구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저생계비의 표준가구인 4인가구(부부+자녀2인) 기준은 방 3개와 식사실 겸 부엌을 구비한 전용면적 43㎡에 해당하는 주거시설이다.

〈표 5-2-12〉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가구원 수(인)	표준 가구구성 ¹⁾	실(방) 구성 ²⁾	총주거면적(㎡)
1	1인 가구	1 K	14
2	부부	1 DK	26
3	부부+자녀1	2 DK	36
4	부부+자녀2	3 DK	43
5	부부+자녀3	3 DK	46
6	노부모+부부+자녀2	4 DK	55

주: 1) 3인 가구의 자녀 1인은 6세 이상 기준

4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5인 가구의 자녀 3인은 8세 이상 자녀(남2, 여1 또는 남1, 여2) 기준

6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2)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하며, 숫자는 침실(거실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를 말함

3) 비고 : 방의 개수 설정을 위한 침실분리원칙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름

1. 부부는 동일한 침실 사용

2. 만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분리

3. 만8세 이상의 이성자녀는 상호 분리

4. 노부모는 별도 침실 사용

자료: 국토해양부 공고(2011).

본 연구의 최저 주거비 계측 방식은 2004년과 2010년 계측방식과 동일하다. 즉,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전제하는 것으로 사용자 비용법과 지불액법을 혼용하여 적용하는 방식이다.

2. 최저 주거비 계측결과

가. 마켓 바스켓 구성

1) 필수품 선정방법

주거비는 거주 지역, 점유형태(자가, 전세, 월세, 기타), 주택유형(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다가구, 기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지역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며, 점유형태는 2010년과 동일하게 전가 임대료 산정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자가를 제외하고, 전세와 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가구의 최저 주거비를 산정하고자 한다.

저소득층의 대표적인 전·월세 주택유형을 선정하기 위해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의 4인 가구 소득하위 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실태를 분석하였다. 4인 가구 소득 하위 40% 이하 가구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아파트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점유형태는 자가로 나타났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가의 경우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아파트로 나타났으며, 전·월세의 경우는 대도시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⁶⁵⁾.

65) 2013년 실태조사 주택유형 조사는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이 하나의 문항으로 조사되어 단독주택이 별도의 문항으로 조사된 2010년 단독주택 비중에 비해 과다 추계 되었을 수 있다.

〈표 5-2-13〉 4인 가구 소득하위 40% 이하의 점유형태별 주택유형

지역	구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기타 (무상포함)	총합
대도시	단독주택(다가구)	14.6	48.6	47.6	45.5	32.4
	아파트	60.2	30.8	41.0	28.1	46.8
	연립 및 다세대주택	24.4	15.3	10.0	20.1	18.5
	기타	0.7	5.4	1.5	6.3	2.3
	총합	100.0	100.0	100.0	100.0	100.0
중소도시	단독주택(다가구)	12.8	19.7	27.6	24.4	17.5
	아파트	74.1	53.9	62.9	43.9	66.3
	연립 및 다세대주택	12.7	22.1	6.4	31.8	14.5
	기타	0.4	4.4	3.1	0.0	1.7
	총합	100.0	100.0	100.0	100.0	100.0
농어촌	단독주택(다가구)	36.5	26.5	30.3	59.6	35.5
	아파트	50.8	56.8	59.1	28.9	51.7
	연립 및 다세대주택	11.3	10.7	10.5	11.5	11.1
	기타	1.5	6.0	0.0	0.0	1.8
	총합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	단독주택(다가구)	14.9	33.6	38.7	37.4	25.2
	아파트	67.0	43.0	50.7	34.8	56.6
	연립 및 다세대주택	17.5	18.5	8.5	24.6	16.2
	기타	0.6	4.9	2.1	3.3	2.0
	총합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이러한 결과는 2010년 지역 및 임차유형별 주택유형과 차이를 보인다. 즉, 대도시 전세가구의 주택유형은 2010년 아파트였으나 2013년 단독·다가구로 나타났으며, 중소도시의 월세 주택유형은 단독주택이었으나 아파트로 나타났다.

〈표 5-2-14〉 지역 및 임차유형별 주택유형 실태(4인 가구 기준)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10년	전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보증부)월세	단독주택	단독주택	단독주택
2013년	전세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	아파트
	(보증부)월세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	아파트

주: 2010년 농어촌 월세가구의 경우 실태조사 결과 아파트로 나타났으나, 농어촌 월세가구의 낮은 조사 가구수(27가구) 등을 감안하여 '단독'으로 결정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년 가격조사』 원자료

그러나 위와 같은 2013년 지역 및 임차유형별 주택유형 실태는 최근 대도시 위주의 전세가격 급등에 따라 저소득층의 거주 주택이 아파트에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변화되었을 수 있다는 점과 2013년 실태조사시 다가구 주택이 단독주택에 포함된 문항으로 조사되어 단독주택이 과다 추계 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변동성 높은 주택시장의 실태를 반영하기보다는 2010년의 기준에 맞추어 대도시의 전·월세 주택 유형도 아파트로 선정하고자 한다. 즉, 2013년 최저 주거비는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의 전·월세 아파트에 대한 주거비를 산출하게 된다.

〈표 5-2-15〉 2013년 4인 가구 최저주거비 주택유형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월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최저 주거비 구성은 임대료(전세의 전가임대료와 월세 임대료)와 보유비용으로 구성되며, 보유비용에는 관리비, 복비, 이사비, 도배비가 포함된다. 월세의 경우 도배는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하고 있는 실태를 반영하여 최저 주거비에서 도배비를 제외한다.

2) 사용량 및 내구연수 결정 방법

최저 주거비 산정을 위해 이사비, 복비, 도배비는 내구 연수를 결정해야 한다. 즉 이사와 그에 따른 복비 및 도배의 욕구가 얼마에 한번 발생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복비 및 도배는 이사 횟수에 의해 결정되며, 이사 횟수는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 실태에 근거하여 산출하였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사는 전세의 경우 5.97년에 1회, 월세의 경우 6.22년에 1회로 나타났다. 그러나 ANOVA 검증 결과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점유형태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전·월세 모두 6년에 1회 이사를 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지역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지역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3) 가격 결정 방법

우선 최저 주거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임대료의 가격결정이 필요하다. 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에 부합하는 주택의 지역별 전·월세 평균값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는 본 연구의 「국민생활실태조사」(시장가격조사, 2013년 1월 기준)에 근거하여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표준가구의 주택유형인 아파트의 지역별 전·월세 가격을 살펴보면, 전세 아파트의 경우 대도시는 8,778.5만원, 중소도시는 6,143.2만원, 농어촌은 3,381.8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월세의 경우에는 대도시는 72.8만원, 52.6만원, 31.5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2-16〉 지역별 전·월세 아파트(43㎡) 가격

(단위: 만원)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세	8,778.5	6,143.2	3,381.8
월세	72.8	52.6	31.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년 가격조사』 원자료

전세의 경우 최저주거비 계측을 위해 전세 가격을 월 임대료로 환산하여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 전세의 월임대료 환산은 전세 자금 전액을 대출을 통해 조달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월(전가)임대료는 대출에 대한 월이자(2013년 1월 기준)를 반영하여 계산하였으며, 원금 상환액은 임대료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환산시 전세자금의 70%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연이율 3.7%), 30%는 은행의 일반 신용대출(연이율 7.02%)을 통해 조달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가중평균한 이율 4.70%를 적용하여 월임대료를 산출하였다.

전세자금의 대출상품을 두 가지로 나누는 이유는 정부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기준이 전세보증금의 70% 이내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중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이 아닌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을 가정하는 것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이 수도권 및 기타 광역시 기준 6천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최저주거기준 전세가격보다 낮고,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등 제도 접근성이 낮기 때문이다. 주택전세자금 운용실적을 살펴봐도

2011년 현재 근로자·서민전세자금은 대출은 141,635호에 달하지만, 저소득가구전세 자금 대출은 33,278호에 그치고 있다.

〈표 5-2-17〉 주택전세자금 현황

구분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	저소득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상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합산 총소득(상여금 및 수당포함)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단, 신흥가구인 경우 5천5백만원 이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는 6천만원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지역별보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1억 • 수도권기타 및 광역시 6천만원 • 기타지역 4천만원 - 단, 만20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은 상기 지역별보증금 금액에 1천만원 추가
대출 금리	- 연 3.7%(변동금리) / 2013년 1월 기준	- 연 2.0%(변동금리) / 2013년 1월 기준
대출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월)세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8천만원, 수도권지역 1억원 (단, 만20세미만 3자녀 이상 세대는 1억원, 수도권지역은 1억2천만원) - 단, 신용대출(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은 최고 3천만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다음 아래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5천6백만원 이내(다자녀가구는 6천3백만원 이내) • 수도권기타지역 및 광역시 : 3천5백만원 이내(다자녀가구는 4천2백만원 이내) • 기타지역 : 2천8백만원 이내(다자녀가구는 3천5백만원 이내) ※ 다자녀 가구란 만20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인 가구 - 단, 연대보증인입보 특례 제도는 최고 5천만원 이내, 신용대출(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은 최고 3천만원 이내
신청가능 주택	- 주거면적이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자료: 국토교통부 국민주택기금포털 사업안내.(<http://nhf.molit.go.kr/index.do>)

〈표 5-2-18〉 주택전세자금 운용실적

(단위: 호수, (금액))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근로자·서민전세자금	19,264 (3,958)	80,033 (15,348)	101,289 (21,897)	127,281 (32,170)	131,331 (34,780)	119,468 (33,464)	141,635 (47,881)
저소득가구전세자금	64,322 (11,257)	23,725 (5,587)	25,809 (6,631)	31,829 (10,016)	38,290 (12,878)	33,892 (14,394)	33,278 (15,116)

자료: 2012년 국민주택기금 업무편람.

전세의 월 임대료 환산에는 전세 자금의 대출처를 서민·근로자 전세자금으로 가정함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대출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보증보험 보험료가 포함된다. 보증보험료란 대한주택금융공사가 대출 자금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면서 받는 보증료로서,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은 연 0.3%의 보증료율이 부과되고 있다(한국주택금융공사, 2013년 기준). 단,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은 특례조치에 따라 임차보증금의 80%와 국민주택기금대출 잔액의 90%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0.3%의 보증료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최저 주거비 산정시 보증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보증보험료 산출〉

$$\text{보증보험료(월)} = \text{지역별 전세가격} \times 70\% \times 90\% \times 0.3\% / 12\text{개월}$$

월세의 임대료는 「국민생활실태조사」(시장가격조사, 2013년 1월 기준) 지역별 아파트 월세 평균액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다음으로 최저 주거비 산출을 위한 표준가구의 주택유형으로 아파트가 선정됨에 따라 최저 주거비에는 관리비가 포함된다. 관리비에는 공용관리비(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등)와 개별사용료(급탕, 난방, 가스, 전기 등), 장기수선충당금 등이 포함되는데, 개별사용료는 최저생계비의 광열·수도비 비목에서 산정되고, 주거 관련 비용의 관리비에는 공용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된다. 관리비 단가는 국토해양부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r.go.kr>)의 2013년 1월 기준 시도별 제곱미터(㎡)당 관리비 기준 인구가중평균치를 적용하였다. 이때 4인 가구에 해당하는 최저주거기준은 43㎡이나, 관리비는 공용면적에 대해서도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양면적 대비 전용면적 비율(80%)을 반영하여 관리비 면적(53.8㎡)을 구하고, 이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산출하였다.

이사 관련 비용으로는 이사비와 복비, 그리고 도배비가 있는데, 이사비는 이삿짐 운송료를 의미한다. 이삿짐운송료는 5톤 트럭 포장이사의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2010년 이사비에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의 해당 비목 지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이삿시 발생하는 복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산정하였다. 즉 대도시와 중소도시 전세의 경우 5천만원 이상으로 전세가격의 1천분의 4를 적용하고, 농어촌 전세의 경우 5천만원 이하로 1천분의 5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또한 월세의 경우는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월차임 100배의 0.4%, 농어촌은 월차임 70배의 0.5%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⁶⁶⁾.

마지막으로 도배비는 전세 가구에만 해당되며, 2010년 최저생계비 도배비에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의 벽지(실크벽지, 16.5㎡ 내외, 1롤) 지수를 적용하였다.

나. 표준가구의 최저 주거비 마켓 바스켓

4인 표준가구의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지역별 최저 주거비는 아래 표와 같다. 전세의 경우 최저 주거비는 (전가)임대료, 관리비, 이사비, 복비, 도배비로 구성되었다. 전세의 임대료(조달비용과 보증보험료)는 대도시 362,651원, 중소도시 250,285원, 농어촌 137,780원으로 임대료가 전체 최저 주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소도시 기준 81%에 이른다. 전세가격에 연동되는 복비는 대도시 4,167원, 중소도시 3,413원, 농어촌 2,348원이다. 아파트 관리비와 이사비, 그리고 도배비는 지역 구분 없이 동일하게 설정하였는데, 각각 38,736원, 7,452원, 7,397원으로 산정되었다.

이를 모두 합산한 전세의 최저 주거비는 대도시 415,403원, 중소도시 307,283원, 농어촌 193,713원으로 산출되었으며, 대도시를 기준으로 볼 때 중소도시는 대도시의 약 74.0%, 농어촌은 46.6%로 나타났다.

〈표 5-2-19〉 전세의 지역별 최저 주거비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임대료	조달비용	348,825원	240,609원	132,454원
	보증보험료	13,826원	9,676원	5,326원
아파트 관리비		38,736원	38,736원	38,736원
이사비		7,452원	7,452원	7,452원
복비		4,167원	3,413원	2,348원
도배비		7,397원	7,397원	7,397원
합 계		415,403원	307,283원	193,713원

66) 복비의 산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에서 시도 조례에 의해 정하게 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5천만원 미만은 1천분의 5(한도 20만원),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1천분의 4(한도 30만원),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은 1천분의 3(한도 없음)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래금액이라 함은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의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월세에 거주하는 4인 표준가구의 최저 주거비는 임대료, 관리비, 이사비, 복비로 구성되었다. 월 임대료는 대도시 728,000만원, 중소도시 526,000원, 농어촌 315,000원으로 산정되었다. 대도시를 기준으로 볼 때 중소도시는 대도시의 72.3%, 농어촌은 43.3%로 나타났다. 임대료에 연동되는 복비는 대도시 4,044원, 중소도시 2,922원, 농어촌 1,531원으로 산정되었고, 이사비는 지역 구분 없이 7,452원으로 산정되었다.

이를 모두 합산한 월세가구의 최저 주거비는 대도시 778,232원, 중소도시 575,110원, 농어촌 362,719원으로 산출되었다. 이는 전세가구의 최저 주거비보다 높은 수준으로, 중소도시 기준 월세 최저 주거비는 전세 보다 약 20만원 높다.

〈표 5-2-20〉 월세의 지역별 최저주거비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임대료	728,000원	526,000원	315,000원
아파트 관리비	38,736원	38,736원	38,736원
이사비	7,452원	7,452원	7,452원
부동산중개수수료	4,044원	2,922원	1,531원
합 계	778,232원	575,110원	362,719원

다. 다른 연구와의 비교

2013년 최저 주거비 산정 방식은 2010년 방식을 준용하였다. 즉, 전세의 월 임대료 환산 방식과 자금 대출처, 그리고 관리비와 이사비 등의 산정 방식 및 근거 자료는 2010년과 동일하다. 다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최저주거기준이 2011년 개정됨에 따라 4인 가구의 주거면적을 37㎡에서 43㎡로 확대 적용하였으며, 월세의 이사 주기는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5.27년에 1회에서 6년에 1회로 다소 길어졌다.

〈표 5-2-21〉 2010년과 2013년의 최저 주거비 산정기준 변경

구분		2010년		2013년		자료
		전세	월세	전세	월세	
임대료 (이자율)	내구연수	1월	-	1월	-	국토해양부 한국은행
	적용이자	5.05%	-	4.70%	-	
	보증보험료율	0.3%	-	0.3%	-	
관리비	내구연수	1월		1월		국토해양부
	기준면적	37㎡		43㎡		
이사비	내구연수	6.00년	5.27년	6.00년	6.00년	실태조사
복비	내구연수	6.00년	5.27년	6.00년	6.00년	실태조사
	수수료율	가격의 0.4~0.5%		가격의 0.4~0.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도배비	내구연수	6.00년	-	6.00년	-	실태조사
	기준면적	37㎡	-	43㎡	-	통계청

2013년 최저 주거비는 중소도시 전세 기준 307,283원으로 2010년 최저주거비 221,374원에 비해 38.8% 상승하였다. 이는 2007년 대비 2010년 최저 주거비가 3.9% 상승한 것에 비해 상당한 증가이다. 또한 전체 최저생계비 대비 최저 주거비의 비중이 18.7%로 1999년 최저 주거비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월세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한 요인이지만, 이와 더불어 최저주거기준이 37㎡에서 43㎡로 증가함에 따라 임대료와 복비, 관리비와 도배비가 모두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양대 노층의 주거비와 비교하면 그 수준이 상당히 낮다. 2013년 한국노층의 주거비는 798,811원으로 최저 주거비의 약 2.6배에 해당한다. 이는 노층의 주거비는 최저주거기준에 의한 것이라 아니라 표준 주거비라는 점에 기인한다. 한국 노층의 4인 가구 주거비는 25평 자가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며, 월 임대료 산정을 위한 이자율이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은행대출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표 5-2-22〉 타 연구의 주거비와 비교(4인 가구 아파트 전세 기준)

(단위: 원, %)

구분	최저 주거비 ¹⁾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 ²⁾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13 최저생계비(안)	-	415,403	307,283	193,713	-	23.7	18.7	12.8
2010 최저생계비	-	-	221,374	-	-	-	15.8	-
2007 최저생계비	-	-	212,575	-	-	-	17.2	-
2004 최저생계비	-	-	194,936	-	-	-	17.7	-
1999 최저생계비	-	-	174,833	-	-	-	19.4	-
2013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³⁾⁵⁾	798,811	-	-	-	15.2	-	-	-
2012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⁴⁾⁵⁾	1,140,998	-	-	-	21.7	-	-	-

주: 1) 1999년, 2004년, 2007년, 2010년의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식적인 최저생계비임

2) 1999년~2010년의 경우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중소도시(전세) 기준. 2013년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전세 기준

3) 2013 한국노총: 가구주(40세), 배우자(37세), 11세(초), 9세(초), 아파트/자가 기준

4) 2012 민주노총: 가구주(40세), 배우자(35세), 여아(8세, 초등학교), 남아(6세, 유치원생), 아파트/자가 기준

5)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은 표준생계비의 4인 가구는 가구구성에 따라 3가지로 계측하고 있음. 위 수치는 최저생계비와의 비교를 위해 4인 가구 I(가구주, 배우자, 초등학교 자녀 2인)에 대한 주거비임.

자료: 김미곤 외(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2005),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김미곤 외(2007),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여유진 외(2010),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총(2013), 『2013년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민주노총(2012), 『2012년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해설』.

제3절 최저 광열·수도비

1. 최저 광열·수도비의 개념 및 계측방법

가. 최저 광열·수도비의 개념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는 적절한 체온을 유지하며 최소한의 보건·환경을 유지하고 식료품을 섭취 가능하도록 조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일상적인 활동과 노동력 재생산, 사회문화적인 생활을 위해 조명과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상하수도 및 취사 및 난방 연료, 그리고 전기의 사용을 통해 가능하다.

이러한 광열·수도비는 상하수도 및 전기 시설과 관련하여 주거 비목과 연관되며, 조

명 및 전자제품 사용과 관련하여 가구집기·가사용품 비목과 연관성을 갖는다. 최근 연료 원료비의 상승과 시대변화에 따른 가구집기·가사용품 등의 품목 증가 등으로 광열·수도비는 그 중요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대되어왔다.

나. 기존 연구에서의 최저 광열·수도비 계측방법

기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생계비 계측연구에서는 광열·수도비의 품목들은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전제하였다. 전기와 수도 이외에 대체제가 존재하는 난방·취사 연료의 경우는 자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역별 사용비율이 높은 품목을 필수품으로 선정했다. 1988년 연구에서는 취사 및 난방 연료로 연탄을 설정하였으나, 시대변화에 따라 1999년 연구에서는 대·중소도시의 난방연료는 석유와 도시가스(LNG), 취사연료는 가스(LPG)와 도시가스(LNG), 농어촌은 취사 및 난방 연료 공히 석유와 가스(LPG)로 설정하였고, 2010년 연구에서는 대·중소도시의 취사 및 난방연료는 도시가스(LNG), 농어촌의 취사 연료는 가스(LPG), 난방연료는 석유로 설정한 바 있다.

〈표 5-3-1〉 취사·난방 연료 변화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취사	1988	연탄	연탄	연탄
	1994	가스(LPG)	가스(LPG)	가스(LPG)
	1999	가스(LPG)	가스(LPG)	가스(LPG)
	2004	가스(LPG), 도시가스(LNG)	가스(LPG), 도시가스(LNG)	가스(LPG)
	2007	도시가스(LNG)	도시가스(LNG)	가스(LPG)
	2010	도시가스(LNG)	도시가스(LNG)	가스(LPG)
난방	1988	연탄	연탄	연탄
	1994	석유	석유	석유
	1999	도시가스(LNG), 석유	도시가스(LNG), 석유	석유
	2004	도시가스(LNG), 석유	도시가스(LNG), 석유	석유, 연탄, 가스(LPG)
	2007	도시가스(LNG)	도시가스(LNG)	석유
	2010	도시가스(LNG)	도시가스(LNG)	석유

각 품목의 사용량 및 가격결정은 각종 국가기관의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전기료는 전국 동일 요금체제이므로 지역구분 없이 적용하였고, 상하수도 요금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의 대표도시를 선정하고 해당 지역의 요금체제를 적용하였다. 난방·취사비의 경우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난방과 취사 모두

도시가스(LNG), 농어촌은 난방은 석유, 취사는 가스(LPG) 이용을 전제하고 해당 지역의 시가를 반영하여 산출하였다.

광열·수도비는 최저 수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이에 사용량과 가격결정시 각 비목의 평균치에 계층지수를 적용하여 저소득층의 광열·수도비를 산출하였다. 계층지수는 각 비목별 전체가구의 평균사용량 대비 일정소득 이하 계층의 평균사용량 또는 4인가구의 평균 사용량 비율 등을 통해 계산하였다.

국내에서 최저생계비와 유사한 연구를 수행 중인 기관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들 수 있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을 산출하기 위해 표준생계비를 산출하고 있으며, 최저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산출한 광열·수도비보다 그 수준이 다소 높다. 광열비 및 수도비의 구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동일하게 난방비, 전기요금, 수도요금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양대 노총의 광열비 및 수도비 계측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노총에서는 조합원 실태조사를 반영하여 가구의 주요 취사 및 난방 연료를 도시가스(LNG)로 설정하였으며, 서울시 도시가스 요금체계를 적용하여 비용을 산출하였다. 전기요금은 주택용 저압 기준의 요금체계, 수도요금은 서울시 가정용 요금체계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사용량은 실태조사에서 사용 시기를 봄·가을, 여름, 겨울철로 구분하여 각 계절의 사용비용을 조사한 뒤 평균값을 구하고, 각 사용비용의 평균값을 현행 요금체계에 따라 역산하여 각각의 사용량을 산출하였다. 민주노총도 취사 및 난방 연료는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도시가스(LNG)로 설정하였으며, 취사 및 난방 연료를 비롯한 전기와 수도요금 사용량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신분류)의 근로자가구 가계수지를 활용하여 역산출하였다.

다. 본 연구에서의 최저 광열·수도비 계측방법

2013년 최저 광열·수도비의 계측은 기존 연구와의 연속성, 최근 시점의 실태 반영, 사용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사용량과 가격을 결정하였다. 취사 및 난방 연료의 종류 결정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였고, 전기 및 상하수도, 취사 및 난방 연료의 사용량은 원칙적으로 2010년 광열·수도비의 각 사용량을 기준으로 지역별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외부 정부기관의 최근 자료를 활용하여 증가율을 구하고 이를 적용

하는 방식으로 결정하였다⁶⁷⁾. 또한 가격은 관련 자료를 통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각 지역의 대표 도시를 선정하고 해당 지역의 요금체계를 적용하였다.

2. 최저 광열·수도비 계측결과

가. 마켓 바스켓 구성

1) 필수품 선정방법

광열·수도비는 통계청 분류에 준하여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연료비(난방·취사비)로 구성할 수 있다. 전기와 상·하수는 전국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대로 필수품으로 산정하고, 취사 및 난방 연료는 실태조사 결과 아파트의 주 연료가 도시가스(LNG)로 나타나 이를 반영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수도 보급률은 2011년 12월말 현재 전체인구의 97.9%가 공급받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특·광역시 99.9%, 시지역이 99.1%, 읍지역이 94.9%, 면단위 농어촌 지역이 86.7%에 이르고 있다(상수도 통계, 2011). 하수도 보급률은 2011년 12월말 현재 90.9%이며, 특·광역시 98.9%, 도지역은 84.3%로 나타났다(하수도 통계, 2011).

〈표 5-3-2〉 2011년 지역별 상·하수도 보급현황

(단위: %)

구분	상수도	하수도
전국	97.9	90.9
특·광역시	99.9	98.9
시지역	99.1	84.3 (도지역)
읍지역	94.9	
면지역	86.7	

자료: 환경부(2011), 『상수도 통계』.
환경부(2011), 『하수도 통계』.

67) 기존 최저생계비 연구에서와 달리 사용량을 관련 자료를 통해 산출하지 않고 2010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관련 자료의 통계치가 다소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2010년 사용량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과정을 통해 결정된 것으로 불안정한 자료를 통한 사용량 도출보다 안정적이라고 판단하여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였다.

최저생계비의 주택유형으로 결정된 아파트의 취사 및 난방 연료 사용 실태를 살펴보면 지역에 관계없이 도시가스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방 용도로는 대도시 83.4%, 중소도시 80.4%, 농어촌 55.0%가 사용하고 있으며, 취사 용도로는 대도시 99.5%, 중소도시 87.8%, 농어촌은 55.0%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의 경우 도시가스 사용 비율이 아직 50%대에 머물고 있지만, 대도시·중소도시와 같은 주택유형(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농어촌의 취사 및 난방 연료도 다른 지역과 같은 도시가스(LNG)로 결정하였다.

〈표 5-3-3〉 지역별 아파트 취사 및 난방 연료 사용 실태

(단위: %)

구분		도시가스	가스	석유	전기	연탄	기타
난방	대도시	83.4	0.5	0.0	-	-	16.1
	중소도시	80.4	9.6	1.3	-	-	8.8
	농어촌	55.0	12.8	16.8	-	-	15.4
	전체	80.5	6.3	1.4	-	-	11.8
취사	대도시	99.5	0.5	-	-	-	0.0
	중소도시	87.8	11.6	-	0.6	-	0.0
	농어촌	55.0	29.6	-	0.0	-	15.4
	전체	91.0	8.1	-	0.3	-	0.6

주: 소득 하위 40% 이하의 4인 가구 대상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4인가구 심층조사』 원자료

2) 사용량 및 내구연수 결정방법

사용량은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에너지경제연구원의 1993년, 1996년, 1999년, 2002년, 2005년, 2008년, 2011년 『에너지총조사보고서』와 환경부의 2001년~2011년 「상수도통계」(각년도)를 이용하여 증가율을 산출하고, 이를 2010년 최저생계비의 광열·수도비의 사용량에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전기 사용량의 경우 『에너지총조사보고서』에 근거하여 농어촌은 도시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류하였으며, 규범적인 측면에서 대도시, 중소도시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전제⁶⁸⁾하여 2010년 최저생계비 사용량에 증가율을 적용하였다. 즉, 2004~2010년의

68) 「에너지총조사보고서」는 시와 군, 2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발표하고 있어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지역으로 구분하여 사용량을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시 및 군지역의 가구당 사용량을 기준으로 증가율을 추정하고, 이를 2010년 최저생계비 사용량에 적용하여 추정하여 산출하였다.

상하수도 사용량은 2001년~2011년(환경부)의 10년간 1인 1일당 급수량 및 사용량을 검토한 결과 큰 변화가 없어 2010년 최저생계비 상하수도 사용량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단, 그 동안의 최저생계비 상하수도 사용량이 지역별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판단 하에 「상수도통계」의 지역별 1인 1일 사용량 수준을 반영하여 지역별 사용량 격차를 조정하였다. 즉, 2011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의 1인 1일 사용량은 각각 279.3L, 279.9L, 275.4L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중소도시 기준 상하수도 사용량을 구하면 대도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표 5-3-4〉 지역별 1인 1일 상수도 사용량

(단위: L)

구분		1인 1일당 가중평균 사용량	특별시 기준 사용량 비율
2008년	특·광역시	278.3	1.00
	시지역	274.9	0.99
	군지역	262.3	0.94
2009년	특·광역시	276.6	1.00
	시지역	272.9	0.99
	군지역	263.4	0.95
2010년	특·광역시	278.0	1.00
	시지역	276.1	0.99
	군지역	270.7	0.97
2011년	특·광역시	279.3	1.00
	시지역	279.9	1.00
	군지역	275.4	0.99

주: 1인 1일당 사용량에 지역별 급수인구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중평균한 값임.
자료: 환경부(각년도), 『상수도 통계』.

취사 및 난방 연료인 도시가스(LNG) 사용량은 「에너지총조사보고서」의 1992년~2010년 간 사용량에 큰 변화가 없어 2010년 최저생계비 사용량(70.7㎡)과 동일하게 결정하였다. 단, 농어촌의 경우,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시 난방 연료는 석유, 취사 연료는 가스(LPG)로 결정되어 도시가스(LNG) 사용량이 계측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0년 계측 방식⁶⁹⁾에 따라 농어촌 도시가스(LNG) 사용량을 추정하였다.

69) 2010년 난방·취사 연료의 사용량 계측시, 저소득층 4인 가구의 사용량 추정을 위해 도시지역 가구당 사용량에 계층지수를 사용하였다. 계층지수는 도시지역 평균 사용량 대비 33~66㎡ 가구의 사용량 비율과 평균 사용량 대비 4인 가구 사용량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그러나 군지역 자료의 한계로 2010

3) 가격 결정방법

전기 요금은 전국 동일 체계로 기존 최저생계비 연구에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여 전기 요금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주택용 전력이 저압(상대적으로 고가)과 고압(상대적으로 저가)으로 나눠 공급되고 있고, 전력 유형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동일 요금을 적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현재 아파트의 경우에는 고압(저가)전력으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아 저압(고가)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아파트의 경우라도 사용자가 저압 전력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고압(저가) 전력을 사용한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역별 단가자료를 제공받아 각 지역별 인구수를 반영한 인구가중평균값을 구하고, 이를 지역별 단가로 활용하였다. 적용한 지역별 단가는 지역의 저압·고압 사용가구의 요금실태가 반영된 수치로서 실제적으로 지역별 요금에 반영되는 단가는 아니다.

〈표 5-3-5〉 2012년 지역별 전기요금 단가

(단위: 월/원)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인구가중평균 단가	124.7	120.9	117.4

주: 전기 사용량 및 그에 따른 요금은 계절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2012년 연평균 값을 사용함.
자료: 한국전력, 내부자료

상하수도 요금은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요금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사용량별 기준 단가나 구경별 요금이 상이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된 지역별 상하수도 요금을 산출하기 위해 각 지역 평균단가의 인구가중평균값을 구하고, 이에 가장 근접한 시(군)의 요금체제를 적용하였다. 즉, 대도시는 서울 및 6개 광역시의 인구가중평균값에 가장 근접한 대전시 요금체제, 중소도시는 74개 시 인구가중평균값에 가장 근접한 강원 속초시 요금체제, 농어촌은 81개 군 인구가중평균값에 가장 근접한 강원 고성군의 요금체제를 적용하여 상하수도 요금을 산출하였다.

년과 동일한 군지역 계층지수를 산출할 수 없어 시지역 계층지수를 적용하였다.

〈표 5-3-6〉 지역별 상하수도 요금 단가

구분	대도시 (대전)	중소도시 (강원 속초시)	농어촌 (강원 고성군)
가정용 상수도	400원(10-20㎥)	450원(1-10㎥)	320원(0-10㎥)
	630원(21-40㎥)	560원(11-20㎥)	570원(11-20㎥)
	830원(41㎥이상)	690원(21-30㎥)	785원(21-30㎥)
가정용 하수도	230원(1-10㎥)	230원(1-10㎥)	105원(0-10㎥)
	280원(11-20㎥)	260원(11-20㎥)	185원(11-20㎥)
	430원(21-30㎥)	290원(21-30㎥)	260원(21-30㎥)
구경별 기본요금(20mm)	2,420원	1,130원	1,270원
물이용부담금 ⁷⁰⁾	160원(㎥당)	0원	0원

자료: 각 지자체 자치법규

도시 취사 및 난방 연료인 도시가스(LNG)단가는 대도시의 경우 대도시의 가중평균 요금, 중소도시의 경우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가장 높은 경기도, 농어촌의 경우 군지역 인구가 가장 많은 시의 단가를 적용하였다. 군지역 인구는 전남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남 여수시⁷¹⁾의 도시가스 요금체계를 적용하였다.

〈표 5-3-7〉 지역별 가스요금 단가

(단위: MJ당)

구분	대도시 (대도시 가중평균)	중소도시 (경기도)	농어촌 (여수)
기본요금	797.77	790.00	750.00
취사	20.28	20.38	21.14
난방	20.66	20.35	21.14

자료: 도시가스협회

2011년 기준 도시가스 보급률은 전국 평균 75.0%이며, 서울이 92.3%로 가장 높고, 광역시에서는 인천, 광주, 대전 순으로 보급률이 높고, 시도 기준으로는 경기도가 81.2%로 가장 높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70)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 8월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입되었다. 도입 당시에는 한강 수계인 수도권 지역에만 적용되었으나, 2002년 7월부터는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로까지 확대되었다.

71) 여수시의 도시가스 요금을 적용한 것은 전남 지역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가 여수시의 '대화'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표 5-3-8〉 2011년 지역별 도시가스 보급률 현황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75.0	92.3	72.6	77.8	91.5	91.2	90.7	83.8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81.2	48.0	53.4	45.3	58.1	50.2	48.9	58.4

주: 제주도 5.6%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2012), 『지역에너지통계연보』.

도시가스 요금은 2012년 7월 1일부터 표준열량제도에서 열량범위제로 요금 부과 체계가 변경되었다. 이는 소비자가 사용한 도시가스의 부피 대신 열량만큼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전세제 저열량 추세에 따라 소비자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도시가스 열량은 매월 평균열량이 자동으로 정해지고 이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나, 2014년 12월 31일까지 최저열량 42.28MJ/Nm³(10,100 kcal/Nm³) 기준으로 부과된다. 따라서 도시가스 요금은 가정용 계량기량(m³)에 한국가스공사 도매공급지점의 월간가중평균열량(MJ/Nm³)과 해당 지역 도시가스 요금단가(원/MJ)를 곱해 산출된다(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 요금 산출〉

도시가스 요금(월) = 기본요금 + 사용요금 + 부가세(사용요금의 10%)

※ 사용요금 = 가정용 계량기량(m³) × 월간가중평균열량(MJ/Nm³) × 요금단가(원/MJ)

※ 일반적으로 취사 및 난방 용도의 단가는 차이가 있는데, 516MJ 이하는 취사용, 초과분은 난방용 단가를 적용한다.

나. 표준가구의 최저 광열·수도비 마켓 바스켓

2013년도 4인 표준가구의 지역별 최저 광열·수도비를 계측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광열·수도비 구성은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취사 및 난방 요금으로 구성되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각 비목의 사용량이 분석 결과 큰 차이가 없어 동일하게 산정하였으며, 농어촌은 도시 지역보다 다소 사용량이 낮은 것으로 산정하였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요금 차이는 지역별 단가의 차이에 기인한다.

전기요금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265Kwh 사용으로 동일하나 지역별 단가의 차이로 인해 각각 33,046원과 32,039원으로 계측되었으며,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사용량이

233Kwh로 다소 낮아 27,354원으로 계측되었다. 또한 상·하수도 요금은 대도시 및 중소도시 18.2㎥, 농어촌은 17.9㎥ 사용하는 것으로 산정되어 각각 17,208원, 14,654원, 11,485원으로 계측되었다. 마지막으로 난방 및 취사비는 대도시 및 중소도시 70.7㎥, 농어촌은 64.4㎥ 사용하고 대도시 68,460원, 중소도시 67,768원, 농어촌 64,076원으로 계측되었다.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그리고 취사 및 난방비를 모두 합한 2013년 최저 광열·수도비는 대도시 118,714원, 중소도시 114,461원, 농어촌 102,915원으로 산정되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2010년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농어촌은 난방 및 취사 연료가 석유보다 단가가 낮은 도시가스(LNG)로 선정됨에 따라 감소하였다.

〈표 5-3-9〉 표준가구의 최저 광열수도비 마켓 바스켓(연구진안)

(단위: 월/원)

분류	지역	단가	사용량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기요금	대도시	33,046	265(Kwh)	33,046		
	중소도시	32,039	265(Kwh)		32,039	
	농어촌	27,354	233(Kwh)			27,354
상하수도 요금	대도시	대전시 요금	18.2(㎥)	17,208		
	중소도시	속초시 요금	18.2(㎥)		14,654	
	농어촌	고성군 요금	17.9(㎥)			11,485
난방·취사비 (도시가스)	대도시	광역시중 평균요금	70.7(㎥)	68,460		
	중소도시	경기요금	70.7(㎥)		67,768	
	농어촌	여주시 요금	64.4(㎥)			64,076
합계				118,714	114,461	102,915

3. 다른 연구와의 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기존 최저생계비 계측연구와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의 표준생계비의 광열·수도비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이번 2013년 계측연구에서 광열·수도비 구성은 2010년 본 연구원의 연구와 동일하나, 전기요금 기준 단가와 농어촌의 취사 및 난방 연료 유형에 변화가 있었다. 전기요금의 경우 전국 동일 요금체계이나 전력 유형(저압, 고압)에 따라 단가가 상이하다. 이

에 2013년 연구에서는 저압과 고압 사용 실태가 반영된 지역별 단가를 적용하여 지역별 전기요금을 산출하였다. 또한 농어촌의 취사 및 난방 연료는 도시 지역과 동일하게 도시가스(LNG) 사용을 전제하였다. 이는 표준가구의 주택유형이 아파트로 결정되고, 아파트의 주요 취사 및 난방 연료가 농어촌에서도 도시가스로 나타난 실태를 반영한 것이다.

〈표 5-3-10〉 타 연구의 광열·수도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

(단위: 원, %)

구분	최저 광열·수도비 ¹⁾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 ²⁾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13 최저생계비(안)	-	118,714	114,461	102,915	-	6.8	7.0	6.8
2010 최저생계비	-	-	103,150	-	-	-	7.4	-
2007 최저생계비	-	-	82,350	-	-	-	6.7	-
2004 최저생계비	-	-	64,237	-	-	-	5.8	-
1999 최저생계비	-	-	51,224	-	-	-	5.7	-
2013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³⁾⁵⁾	160,241	-	-	-	2.6	-	-	-
2012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⁴⁾⁵⁾	136,222	-	-	-	2.3	-	-	-

주: 1) 1999년, 2004년, 2007년, 2010년의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식적인 최저생계비임

2) 1999년~2010년의 경우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중소도시(전세) 기준. 2013년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전세 기준

3) 2013 한국노총: 가구주(40세), 배우자(37세), 11세(초), 9세(초), 아파트/자가 기준

4) 2012 민주노총: 가구주(40세), 배우자(35세), 여아(8세, 초등학교), 남아(6세, 유치원생), 아파트/자가 기준

5)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은 표준생계비의 4인 가구는 가구구성에 따라 3가지로 계측하고 있음. 위 수치는 최저생계비와의 비교를 위해 4인 가구 I (가구주, 배우자, 초등학교생 자녀 2인)에 대한 주거비임.

자료: 김미곤 외(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2005),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김미곤 외(2007),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여유진 외(2010),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총(2013), 『2013년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민주노총(2012), 『2012년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해설』.

2013년 중소도시 기준 최저 광열·수도비는 114,461원으로 2010년 103,150원에 비해 11.0% 증가하였다. 이는 전체 최저생계비의 7.0%에 해당하며 2010년 7.4% 비중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한국노총의 광열·수도비는 160,241원으로 본 연구에 비해 상당히 높다. 이는 ‘최저’개념이 아닌 ‘표준’개념의 생계비 계측에 따른 결과이며, 구체적으로 사용량이 다소 높게 산정되고, 단가 적용에 있어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서울시 요금체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4절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1.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의 개념 및 계측방법

가.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의 개념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는 인간다운 가정생활에 필요한 최저한의 가구구입 및 수리비용과 가사에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 구입 비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가구원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기본적인 물리적 욕구를 해결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하며, 원활한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물품들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비교적 큰 규모의 집기부터 일상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나 미처 인식하기 어려운 작은 용품들까지 포함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를 가구 내에서 가구원들이 기본적인 의·식·주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가구 내에 투입된 자원을 가공하고 가사를 돌보는데 필요한 제반 물적 도구들의 구입 및 유지비용으로 정의하였다.

나. 기존 연구에서의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계측방법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 매 5년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매 3년마다 최저생계비를 계측해왔다. 1998년 계측 당시 필수품 선정에 있어 생활실태조사, 한국의 사회지표 자료의 보유율을 이용하여 결정하였으나, 보유율 기준의 객관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1994년에는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 로짓모델의 절편확률을 이용하여 과학적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실태조사의 표본수 부족이 문제가 되었다. 1999년, 2004년, 2007, 2010년에는 필수품 선정 원칙으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한 소득탄력성,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의 보유율을 이용하였다. 이는 충분한 사례수를 확보하여 표본수 부족 문제를 개선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득탄력성의 기준, 보유확률의 기준에 대한 자의성이 여전히 한계로 남았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국노총(2013)의 가구·가사용품비, 민주노총(2012)의 가구·가

사집기비가 있다. 각각에서는 소속 조합원의 생활실태조사와 물가조사를 근거로 표준 생계비의 일부로 계측하였다. 이는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α ’의 개념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품목 구성과 가격 수준이 최저생계비와는 차이가 있다. 가령, 한국노총(2013)의 가구·가사용품비 구성항목은 ‘가구, 가전제품, 기타 내구소비재, 주방용품, 기타 가사용품’이며 품목의 단가, 내구연수 등의 경우 소비자 물가조사 결과를 대체로 반영하고 있다. 민주노총(2012)의 가구·가사집기비 구성항목은 ‘가구, 가전제품, 부엌용품, 가사소모품, 침구직물제품, 아동용품’이며 구체적인 품목과 품목의 단가는 생활실태조사와 물가조사,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조사자료를 반영하고 있다. 한국노총(2013)과 민주노총(2012)에서는 모두 근로자 가구의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현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계측되는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다양한 품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민주노총의 가구·가사집기비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교양오락비에 포함된 아동용품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산정에 있어 몇 가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우선 가구집기·가사용품은 품목이 매우 다양하고 소모품이 많아 필수품 선정이 쉽지 않다. 또한 내구연수가 비교적 길고 구입 빈도가 낮아 활용 가능한 통계자료 획득이 수월하지 않다. 더불어 생활환경의 변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필수품목과 규격 변화가 잦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의 가치판단에 따라 필수품 여부, 사용량, 내구연수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김미곤 외, 2010).

다. 본 연구에서의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계측방법

여기에서는 제도의 지속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2010년 계측방법을 활용하여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를 계측하였다. 우선, 필수품 선정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2)의 품목별 탄력성을 이용하여 탄력성이 0.5이하인 것으로 하였다. 또한,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 및 각종 통계자료(예, 「가전기기 보급률 및 가정용전력 소비행태조사」(전력거래소)의 주요 가전기기 규격별 보급현황)에 객관적으로 제시된 품목별 보유율 및 필수품 인식 정도 등을 고려하여 품목을 추가하였다. 여기서 보유율은 67%(=2/3)이상, 50이상~67%미만, 50%(=1/2)미만으로 구분한 후, 67%이상인 경우 필수품이라고 판단하였다.

사용량 및 내구연수 결정은 기본적으로 2010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의 품목별 사용량 및 내구연수를 기준으로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 및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사용량 및 내구연수를 조정하였다. 그 외에도 법인세법이나 조달청고시에 의한 물품 내용연수를 참고하였다.

가격 결정은 「국민생활실태조사」(가격조사) 및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의 대표값(최빈값, 중위값, 평균값)을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국민생활실태조사」(가격조사) 및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의 대표값을 이용할 수 없는 품목은 최저생계비가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품질을 기준으로 중·하품에 대하여 통계청의 2013년 1월 품목별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추정한 값과 시장조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가격을 결정하였다.

2. 마켓 바스켓의 구성

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마켓 바스켓 구성

본 연구에서는 가구집기·가사용품비를 2010년과 동일하게 ‘일반가구, 가정용기구, 식기·주방용품, 가사잡화·소모품, 침구 및 직물, 가사서비스’의 6개 중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하위영역을 구성하였다. 2013년 마켓 바스켓 구성항목은 2010년과 비교할 때 총 품목수는 동일하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청소기는 1개 추가되었으나 형광등 스타트는 제외되었다.

나. 필수품 선정방법

본 연구에서는 필수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품목별 탄력성 및 보유율을 동시 적용하였다. 우선 「가계동향조사」(2012)의 품목별 탄력성을 이용하여 탄력성이 0.5 이하인 품목을 선정하였다. 청소기의 경우 소득탄력성이 0.01로 나타나 신규 필수품목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 및 심층조사)」 및 각종 통계자료(예. 「2011년 가전기기 보급률 및 가정용전력 소비행태 조사 결과보고서」(전력거래소, 2011)의 주요

에너지 이용기기 보유현황) 등에 객관적으로 제시된 품목별 보유율 및 필수품 인식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수품목을 선정하였다. 이때 내구재의 경우에는 보유현황의 비율을 $67\%(=2/3)$ 이상, 50이상~67%미만, $50\%(=1/2)$ 미만으로 구분한 후, 규범적으로 67% 이상은 필수품으로 판단하였다. 그 외에 실태조사의 보유현황, 지출빈도, 금액,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과 품목의 성격을 참고로 필수품을 선정하였다.

다. 사용량 및 내구연수 결정 방법

2013년 사용량 및 내구연수는 기본적으로 2010년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의 품목별 사용량 및 내구연수를 기준으로 하여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 및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조정하였다. 먼저 사용량에 있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설정하였다. 첫째, 가구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용량을 1개로 하였다(예. 냉장고, 세탁기 등). 둘째, 방마다 필요한 것은 본 연구의 주거모형상의 방의 수인 3개로 하였다(예. 전구 등). 셋째, 가구원 수마다 필요한 것은 표준가구원수인 4개로 하였다(예. 이불, 베개 등). 넷째, 성인 수만큼 필요한 것은 성인의 수인 2개로 하였다(예. 도장). 다섯째, 표준가구의 학생 수만큼 필요한 것은 학생의 수인 2개로 하였다(예. 책상). 여섯째, 손님이 올 때 필요한 그릇 종류는 가구원수의 2~3배로 하였다(예. 주발). 일곱째, 기타 품목은 실태조사의 대표값(최빈값, 중위값,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내구연수 결정과 관련해서는 우선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조달청에서 규정한 「물품 내용연수표(조달청고시 제 2011-1호)」, 전력거래소에서 발표한 「2011년 가전기기 보급률 및 가정용전력 소비행태 조사 결과보고서」와 동일하거나 길게 결정하였는데, 이는 교환가치는 없어도 사용가치는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표본수를 1개월간 구입가구수로 나눈 값보다는 내구연수를 길게 결정하였는데, 이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물건도 유행의 변화, 소비심리(전시효과: Demonstration Effect) 등에 의하여 구입하므로 사용가치는 이보다 좀 더 길게 설정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의 대표값(최빈값, 중위값, 평균값)을 이용하여 개별품목의 내구연수를 결정하였다.

라. 가격 결정 방법

가구집기·가사용품의 가격은 최저생계비임을 감안하여 중하품을 기준으로 통계청의 물가지수 변화를 반영하여 결정하였다. 단, 통계청의 물가지수 변화를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가격조사 및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의 대표값(최빈값, 중위값, 평균값)을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3. 가구집기·가사용품비 마켓 바스켓

위에서 제시한 과정을 통해 산정된 2013년 최저생계비 중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의 연구진안은 다음과 같다. 대도시의 경우 46,575원, 중소도시는 46,267원, 농어촌은 45,993원이다.

〈표 5-4-1〉 표준가구의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연구진안)

(단위: 원)

중분류/품목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가구집기·가사용품비	46,575	46,267	45,993
일반가구 소계	7,947	7,947	7,947
가정용가구 소계	12,547	12,547	12,547
식기주방용품 소계	6,852	6,852	6,852
가사잡화 소모품 소계	10,635	10,635	10,635
침구 및 직물제품 소계	6,012	6,012	6,012
가사서비스 소계	2,582	2,274	2,000

2010년 마켓 바스켓에 비해 형광전구 내 스타트 내재형 출시 및 보급확대에 따라 형광등 스타트를 제외하였다. 신규품목으로는 소득탄력성 및 보유율을 검토하여 청소기를 추가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체재로서 방빗자루와 쓰레받기의 내구연수를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조정하였다.

〈표 5-4-2〉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비 조정품목 요약(2010년 대비)

계측 결과	계측조사 결과		근거
	조정내역	증감액	
46,267원	형광등 스타트 제외	△100원	형광전구 내 스타트 내재형 출시 및 보급
	청소기 추가 (시장조사 최저가격 79,000원, 내구연수 10년)	658원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2)의 소득탄력성 0.01(※ 0.5 이하인 경우 필수품) ○ 전력거래소 2011년 가전기기 보급률 0.82대/가구(※ 67% 이상 사용시 필수품)
	방빗자루 내구연수 상향조정 (5년→10년)	△26원	신규품목인 청소기의 대체재
	쓰레받기 내구연수 상향조정 (5년→10년)	△18원	

신규품목으로 추가된 청소기의 마켓 바스켓 가격은 658원으로 산정되었다.

〈표 5-4-3〉 청소기 마켓 바스켓(안)

(단위: 원, 년, 개)

구분	규격	지역	단가	내구연수	수량	마켓 바스켓	필수품 선정원칙	단가설정기준	내구연수, 수량 설정기준
청소기	일반 530w	전국	79,000	10	1	658	보유율/탄력성	시장가격조사	전력거래소

그 외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하위품목의 가격 및 내구연수는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고, 사용량이 변화한 품목은 없다.

〈표 5-4-4〉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사용량·내구연수·가격조정 품목

구분	변경 내용	변경 이유	마켓 바스켓 반영
장롱	가격 상향/ 내구연수 조정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조달청 내용연수	○ 조달청 내용연수 적용으로 내구연수 하향조정 (2010년 20년 → 2013년 9년)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450,000원 → 2013년 501,750원)
서랍장	가격 하향/ 내구연수 조정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조달청 내용연수	○ 조달청 내용연수 적용으로 내구연수 하향조정 (2010년 15년 → 2013년 9년)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36,140원 → 2013년 35,779원)
책상	가격 상향/ 내구연수 조정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조달청 내용연수	○ 조달청 내용연수 적용으로 내구연수 하향조정 (2010년 10년 → 2013년 8년)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43,000원 → 2013년 46,655원)

구 분	변경 내용	변경 이유	마켓 바스켓 반영
의자	가격 상향/ 내구연수 조정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조달청 내용연수	○ 조달청 내용연수 적용으로 내구연수 상향조정 (2010년 5년 → 2013년 9년)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20,000원 → 2013년 23,860원)
벽시계	가격 하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하향조정 (2010년 24,300원 → 2013년 24,057원)
탁상시계	가격 하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하향조정 (2010년 18,600원 → 2013년 18,414원)
화장대	가격 하향/ 내구연수 조정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조달청 내용연수	○ 조달청 내용연수 적용으로 내구연수 하향조정 (2010년 17년 → 2013년 8년)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하향조정 (2010년 39,800원 → 2013년 39,402원)
행거	가격 하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하향조정 (2010년 13,000원 → 2013년 12,870원)
문갑	가격 하향/ 내구연수 조정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조달청 내용연수	○ 조달청 내용연수 적용으로 내구연수 하향조정 (2010년 12년 → 2013년 9년)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하향조정 (2010년 58,000원 → 2013년 57,420원)
냉장고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570,000원 → 2013년 580,260원)
전기밥솥	가격 상향/ 내구연수 조정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조달청 내용연수	○ 조달청 내용연수 적용으로 내구연수 상향조정 (2010년 8년 → 2013년 9년)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65,000원 → 2013년 65,585원)
가스레인지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60,000원 → 2013년 61,620원)
세탁기	가격 상향/ 내구연수 조정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전력거래소(2011)	○ 전력거래소 조사결과 적용으로 내구연수 상향조정 (2010년 8년 → 2013년 9년)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330,000원 → 2013년 351,780원)
다리미	가격 하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하향조정 (2010년 25,000원 → 2013년 24,750원)
선풍기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40,000원 → 2013년 48,240원)
믹서	가격 상향/ 내구연수 조정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조달청 내용연수	○ 조달청 내용연수 적용으로 내구연수 하향조정 (2010년 10년 → 2013년 7년)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35,000원 → 2013년 35,525원)
전자레인지	가격 하향/ 내구연수 조정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조달청 내용연수	○ 조달청 내용연수 적용으로 내구연수 하향조정 (2010년 15년 → 2013년 7년)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하향조정 (2010년 85,000원 → 2013년 83,810원)
헤어드라이기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15,504원 → 2013년 17,582원)
밥상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30,000원 → 2013년 31,950원)

구 분	변경 내용	변경 이유	마켓 바스켓 반영
주발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49,952원 → 2013년 53,199원)
접시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7,300원 → 2013년 7,755원)
컵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1,000원 → 2013년 1,002원)
쟁반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3,700원 → 2013년 3,941원)
냄비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5,000원 → 2013년 5,315원)
주전자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 주전자(대) (2010년 12,700원 → 2013년 13,526원) - 주전자(소) (2010년 6,500원 → 2013년 6,923원)
후라이팬	가격 하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하향조정 - 후라이팬(대) (2010년 16,000원 → 2013년 15,984원) - 후라이팬(중) (2010년 원 → 2013년 13,986원)
항아리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20,000원 → 2013년 21,300원)
식도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5,100원 → 2013년 5,432원)
과도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2,000원 → 2013년 2,130원)
도마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5,000원 → 2013년 5,325원)
수저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1,500원 → 2013년 1,574원)
수저통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2,100원 → 2013년 2,237원)
조미료통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5,000원 → 2013년 5,325원)
반찬통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 반찬통(대) (2010년 3,000원 → 2013년 3,555원) - 반찬통(중) (2010년 1,950원 → 2013년 2,311원)
김치통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 김치통(9리터) (2010년 10,863원 → 2013년 12,873원) - 김치통(소) (2010년 3,000원 → 2013년 3,555원)
바가지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1,000원 → 2013년 1,065원)
고무통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6,000원 → 2013년 6,390원)
국자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1,500원 → 2013년 1,598원)
대야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2,000원 → 2013년 2,130원)

구 분	변경 내용	변경 이유	마켓 바스켓 반영
랩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3,450원 → 2013년 3,674원)
쿠킹호일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3,350원 → 2013년 3,568원)
보온병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11,000원 → 2013년 11,715원)
드라이버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2,000원 → 2013년 2,130원)
망치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4,000원 → 2013년 4,260원)
못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1,000원 → 2013년 1,065원)
가위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3,000원 → 2013년 3,195원)
건조대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13,000원 → 2013년 13,845원)
빨래판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3,000원 → 2013년 3,195원)
빨래집게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1,000원 → 2013년 1,065원)
방뿔자루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청소기 추가	○청소기에 대한 대체재로 파악하여 내구연수 상향조정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3,000원 → 2013년 3,195원)
쓰레받기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청소기 추가	○청소기에 대한 대체재로 파악하여 내구연수 상향조정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2,000원 → 2013년 2,130원)
휴지통	가격 상향/ 내구연수 조정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조달청 내용연수	○조달청 내용연수 적용으로 내구연수 상향조정 (2010년 5년 → 2013년 9년)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 휴지통(중) (2010년 3,000원 → 2013년 3,195원) - 휴지통(소) (2010년 1,500원 → 2013년 1,598원)
비누통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1,000원 → 2013년 1,065원)
바늘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1,000원 → 2013년 1,065원)
목도장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5,000원 → 2013년 5,325원)
형광전구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1,246원 → 2013년 1,489원)
백열전구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539원 → 2013년 644원)
화장지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515원 → 2013년 548원)
고무장갑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1,450원 → 2013년 1,544원)

구 분	변경 내용	변경 이유	마켓 바스켓 반영
빨래비누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700원 → 2013년 746원)
합성세제	가격 하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하향조정 (2010년 10,333원 → 2013년 9,641원)
부엌용세제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2,307원 → 2013년 2,457원)
살충방충제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2,511원 → 2013년 2,674원)
나프탈렌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1,200원 → 2013년 1,278원)
습기제거제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1,346원 → 2013년 1,526원)
행주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750원 → 2013년 799원)
수세미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1,200원 → 2013년 1,278원)
구두솔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690원 → 2013년 735원)
구두약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600원 → 2013년 639원)
접착제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500원 → 2013년 533원)
건전지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681원 → 2013년 706원)
이불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 이불(동) (2010년 56,000원 → 2013년 61,936원) - 이불(춘추) (2010년 30,000원 → 2013년 33,180원)
요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 요(동) (2010년 25,000원 → 2013년 27,650원) - 요(춘추) (2010년 20,000원 → 2013년 22,120원)
베개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5,000원 → 2013년 5,530원)
타올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2,500원 → 2013년 2,763원)
커튼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29,900원 → 2013년 32,262원)
가구집기 수선료	가격 유지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유지 (2010년 7,000원 → 2013년 7,000원)
쓰레기봉투	가격 조정	시장가격조사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 대도시 가격상향 (2010년 272원 → 2013년 283원) - 중소도시 가격하향 (2010년 244원 → 2013년 221원) - 농어촌 가격하향 (2010년 224원 → 2013년 167원)

4. 다른 연구와의 비교

2013년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의 구성품목을 2010년의 결과와 비교하면 1개 품목 추가 및 1개 품목 제외로 품목수는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이와 같이 산정된 중소도시 기준 2013년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46,267원은 2010년 대비 5,720원(14.1%) 증가한 값이다.

〈표 5-4-5〉 타 연구의 가구집기·가사용품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

(단위: 원, %)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¹⁾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 ²⁾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13 최저생계비(안)	-	46,575	46,267	45,993	-	2.7	2.8	3.0
2010 최저생계비	-	-	40,547	-	-	-	2.9	-
2007 최저생계비	-	-	36,727	-	-	-	3.0	-
2004 최저생계비	-	-	35,789	-	-	-	3.2	-
1999 최저생계비	-	-	31,880	-	-	-	3.5	-
2013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³⁾	154,337	-	-	-	2.9	-	-	-
2012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⁴⁾	231,540	-	-	-	4.4	-	-	-

주: 1) 1999년, 2004년, 2007년, 2010년의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식적인 최저생계비임

2) 1999년~2010년의 경우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중소도시(전세) 기준. 2013년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전세 기준

3) 2013 한국노총: 가구주(40세), 배우자(37세), 11세(초), 9세(초), 아파트/자가 기준

4) 2012 민주노총: 가구주(40세), 배우자(35세), 여아(8세, 초등학생), 남아(6세, 유치원생), 아파트/자가 기준

자료: 김미곤 외(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2005),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김미곤 외(2007),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여유진 외(2010),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총(2013), 『2013년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민주노총(2012), 『2012년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해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에 대한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 이래로 중소도시 기준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가 전체 최저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 측정한 표준생계비는 최저생계비와 그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품목의 구성과 수 및 품질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2013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의 가구·가사용품비는 154,337원, 2012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의 가구·가사집기비는 231,540원으로 본 연구의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보다 3~5배 높게 나타났다.

제5절 최저 피복·신발비

1. 최저 피복·신발비의 개념 및 계측방법

가. 최저 피복·신발비의 개념

피복신발 품목들은 체온유지나 치부를 가리고자 하는 원초적인 욕구와 더불어 경제적인 요인으로 노동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며, 멋, 치장 등과 같이 심리, 사회·문화적인 요인과의 관련이 있다. 이 중 최저 피복·신발비의 개념에 근접한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가치와 관련된다. 이와 더불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사회적 가치에 따라 최소한의 문화적 욕구를 포함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저 피복신발비를 신체보호, 적정 체온유지, 보건위생 측면의 청결유지 등의 기본적인 필요와 노동재생산에 필요한 수준 및 최소한의 체면유지를 위한 비용을 고려한 수준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나. 기존 연구에서의 최저 피복·신발비 계측방법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생계비 중 최저 피복·신발비의 계측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1988년 「의류구매실태조사」(1988)와 저소득층 생활실태조사에서 가구의 구입 품목을 참고하여 필수품을 선정하였다. 사용량 및 내구연수는 국제양모사무국의 「울마크 및 의류소비 정기조사」와 생활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피복 위생 및 가구 구성원의 사회·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였다. 가격은 물가자료협회의 「소비자 물가동향」(1988) 자료 및 별도의 시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정하였다. 1994년에는 소득하위 30% 가구의 실태조사결과에서 보유현황, 구입 빈도 및 지출금액을 참고로 필수품 여부를 정하였다. 사용량 및 내구연수 결정은 기본적으로 1988년도의 연구를 주로 참고하였고, 가격결정은 실태조사의 지역별 가격 중에서 중품에 해당하는 가격의 최빈값을 선정하였다. 또한 통계청 「물가자료 및 물가정보」(7월호)와 별도의 시장조사 자료를 참고하였다. 1994년에는 최저 피복·신발비에 관한 마켓 바스켓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엔겔함수를 이용한 회귀분석결과와 비교하기도 하였다. 1999년에는 통계청 「도시가계

연보」(1998)의 품목별 소득탄력성을 구하여 0.5이하인 품목을 필수품으로 정하였다. 또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후 소득이 0일 때 보유확률이 60% 이상인 품목을 필수품으로 선정하였다. 사용량 및 내구연수, 가격결정에 있어서는 기존연구들과 동일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004년과 2007년, 그리고 2010년에는 필수품 선정에 있어 1999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사용량 및 내구연수의 경우「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가격결정은 통계청의 2007년 1월의 「가격월보」 품목 가격에 품목별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추정된 값을 이용하였다.

한국노총(2013)과 민주노총(2012)에서는 조합원 대상으로 실시 한 생활실태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표준생계비의 일부로서 피복·신발비를 계측하고 있다. 즉, 노동자들의 보편적인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품목 구성과 가격 수준이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최저생계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한국노총(2013)은 가구원별 피복·신발비와 세탁비 및 구두수선비로 구성되며, 민주노총(2010)의 피복비는 가구원별 피복·신발비와 세탁수선비로 구성된다. 한국노총(2013)의 표준생계비에서는 첫째 자녀를 중고생으로 가정하고 있고, 민주노총(2012)의 표준생계비에서는 둘째 자녀까지 모두 중고생 혹은 초등학교생인 경우를 모두 상정하고 있어 교복 포함여부의 양상이 최저생계비의 피복·신발비의 구성과 차이를 보인다.

다. 본 연구에서의 최저 피복·신발비 계측방법

2013년 최저 피복·신발비의 계측방식은 기본적으로 2010년의 방식을 유지하였다. 필수품 선정의 경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2)의 품목별 탄력성을 이용하여 탄력성이 0.5이하인 것으로 하였다. 또한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규범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선정하였다. 가령 동내복, 팬티와 같이 신체보호, 적정 체온유지, 보건위생 측면의 청결유지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품목은 포함하였다. 그리고 표준가구에서 초등학교생 자녀(2명)의 경우 실내화와 같이 학교생활에 필요한 품목은 필수품으로 선정하였다.

사용량 및 내구연수 결정은 2010년 최저 피복·신발비의 품목별 사용량 및 내구연수를 기본으로 하여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 자료 및 각종 통계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용량 및 내구연수를 조정하였다. 또한 규범적인 측면에서 조정이 필요한 경

우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 변경하였다. 그 외에도 법인세법 등을 참고하였다.

가격은 「국민생활실태조사」(가격조사) 및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의 대표값(최빈값, 중위값, 평균값)을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국민생활실태조사」(가격조사) 및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의 대표값을 이용할 수 없는 품목은 중·하품을 기준으로 통계청의 2013년 1월 품목별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추정한 값과 시장조사 등의 결과를 반영하였다.

2. 마켓 바스켓의 구성

가. 피복·신발비 마켓 바스켓 구성

본 연구에서는 피복·신발비에 대해 ‘외의, 스웨터 셔츠, 내의, 직물·실, 기타피복, 신발, 피복 및 신발서비스’의 7개 중분류 기준에 따라 하위영역을 구성하였다. 2010년 마켓 바스켓과 그 구성을 비교하면 신규 및 제외 품목 없이 유지되었다.

나. 필수품 선정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계측과정을 과학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의 원칙 및 방식들을 기준으로 필수품 여부를 결정하였다. 우선 신체보호, 적정 체온유지, 보건위생 측면의 청결유지 등의 기본적인 필수품이라고 판단되는 품목을 선정(예. 팬티, 동내복 등)하였다. 둘째, 표준가구 중 학생의 경우 학교생활에 필요한 품목은 필수품으로 선정(예. 실내화)하였다. 셋째, 노동재생산에 필요한 품목은 필수품으로 선정하였다.

반면, 사회문화적인 품목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2)의 품목별 탄력성을 이용하여 탄력성이 0.5이하이거나,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의 보유현황의 비율을 67%(=2/3)이상, 50이상~67%미만, 50%(=1/2)미만으로 구분한 후, 규범적으로 67% 이상을 필수품으로 선정하였다. 그 외에 실태조사의 보유현황, 지출빈도, 금액,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과 품목의 성격을 참고로 필수품을 선정하였다.

다. 사용량 및 내구연수 결정 방법

피복 및 신발의 하위품목별 사용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우선가구원별 1점(또는 벌)을 기본으로 하고, 속내의의 경우 세탁을 고려하여 2점(벌)을 기본으로 하였다. 세탁료 및 의복수선료는 실태조사의 대표값(최빈값, 중위값, 평균값)을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내구연수는 객관적인 기준을 활용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참고하여 이와 동일하거나 길게 결정하였는데, 이는 교환가치는 없어도 사용가치는 있기 때문이다. 표준가구 중 학생의 경우 신체발육을 고려하여 결정(예. 내의류 등)하였다.

그 외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표본수를 1개월간 구입가구수로 나눈 값보다는 내구연수를 길게 결정하였다. 이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물건도 유행의 변화, 소비심리(Demonstration Effect) 등에 의하여 구입하기 때문에 사용가치는 이보다 좀 더 길게 설정할 수 있다는 데에 근거한 것이다.

상기 원칙과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의 대표값(최빈값, 중위값, 평균값)을 이용하여 피복 및 신발의 사용량 및 내구연수를 결정하였다.

라. 가격 결정 방법

피복신발비의 가격은 최저생계비라는 점을 감안하여 중하품을 기준으로 통계청의 물가지수 변화를 반영하여 가격을 결정하였다. 통계청의 물가지수 변화를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가격조사 및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의 대표값(최빈값, 중위값, 평균값)을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3. 피복·신발비 마켓 바스켓

위에서 제시한 과정을 통해 산정된 2013년 최저생계비 중 최저 피복·신발비의 연구진안은 다음과 같다. 2010년 마켓 바스켓과 비교하여 추가 및 제외된 품목은 없으며, 지역별 피복 및 신발에 있어 생활수준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피복·신발비는 각각 62,246원이다.

〈표 5-5-1〉 표준가구의 최저 피복·신발비(연구진안)

(단위: 원)

중분류/품목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피복·신발비	62,246	62,246	62,246
외의	27,820	27,820	27,820
스웨터·셔츠	10,891	10,891	10,891
내의	9,926	9,926	9,926
직물·실	31	31	31
기타 피복	5,211	5,211	5,211
신발	4,860	4,860	4,860
피복 및 신발서비스	3,507	3,507	3,507

그 외 피복·신발비 하위품목의 가격 및 내구연수는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고, 사용량이 변화한 품목은 없다.

〈표 5-5-2〉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사용량·내구연수·가격조정 품목

구 분	변경 내용	변경 이유	마켓 바스켓 반영
신사복 (성인남성용)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 신사복(동) (2010년 90,000원 → 2013년 102,420원) - 신사복(춘추) (2010년 80,000원 → 2013년 91,040원)
숙녀복 (성인여성용)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 숙녀복(동) (2010년 90,000원 → 2013년 96,660원) - 숙녀복(춘추) (2010년 70,000원 → 2013년 75,180원)
오버코트 (성인용)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 남성용 (2010년 80,000원 → 2013년 88,800원) - 여성용 (2010년 80,000원 → 2013년 84,800원)
잠바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 성인남성용(동) (2010년 30,000원 → 2013년 32,250원) - 성인남성용(춘추) (2010년 20,000원 → 2013년 20,820원) - 성인여성용(동) (2010년 30,000원 → 2013년 32,250원) - 남아용(동) (2010년 30,000원 → 2013년 32,250원) - 남아용(춘추) (2010년 20,000원 → 2013년 21,500원) - 여아용(동) (2010년 30,000원 → 2013년 32,250원) - 여아용(동) (2010년 20,000원 → 2013년 21,500원)
바지 (성인용)	가격 상향/ 내구연수 조정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적용으로 내구연수 상향조정 (2010년 6/9년 → 2013년 8년)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 성인남성용(동) (2010년 20,000원 → 2013년 22,020원) - 성인남성용(춘추) (2010년 15,000원 → 2013년 16,515원) - 성인여성용(동) (2010년 20,000원 → 2013년 20,820원) - 성인여성용(춘추) (2010년 15,000원 → 2013년 15,615원)

구 분	변경 내용	변경 이유	마켓 바스켓 반영
바지 (아동용)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 남아용(동) (2010년 15,000원 → 2013년 16,575원) - 남아용(춘추) (2010년 10,000원 → 2013년 11,050원) - 여아용(동) (2010년 15,000원 → 2013년 16,575원) - 여아용(동) (2010년 15,000원 → 2013년 16,575원)
반바지	가격 상향/ 내구연수 조정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법 시행규칙 적용으로 내구연수 상향조정 (2010년 6년 → 2013년 8년)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 성인남성용 (2010년 10,000원 → 2013년 11,010원) - 성인여성용 (2010년 10,000원 → 2013년 10,410원) - 남아용 (2010년 8,000원 → 2013년 8,840원) - 여아용 (2010년 8,000원 → 2013년 8,840원)
스커트 (여성용)	가격 상/ 내구연수 조정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 성인여성용 (2010년 30,000원 → 2013년 31,230원) - 여아용 (2010년 12,000원 → 2013년 13,260원)
운동복 (성인용)	가격 상향/ 내구연수 조정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법 시행규칙 적용으로 내구연수 하향조정 (2010년 10년 → 2013년 8년)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 성인남성용(동) (2010년 20,000원 → 2013년 24,400원) - 성인남성용(춘추) (2010년 15,000원 → 2013년 18,300원) - 성인여성용(동) (2010년 20,000원 → 2013년 24,400원) - 성인여성용(춘추) (2010년 15,000원 → 2013년 18,300원)
체육복 (아동용)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 남아용(동) (2010년 18,000원 → 2013년 21,960원) - 남아용(춘추) (2010년 15,000원 → 2013년 18,300원) - 여아용(동) (2010년 18,000원 → 2013년 21,960원) - 여아용(춘추) (2010년 15,000원 → 2013년 18,300원)
와이셔츠 (성인남성용)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법 시행규칙 적용으로 내구연수 상향조정 (2010년 3년 → 2013년 6년)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 긴팔 (2010년 12,000원 → 2013년 13,260원) - 반팔 (2010년 10,000원 → 2013년 11,050원)
셔츠 (성인남성용)	가격 상향/ 내구연수 조정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법 시행규칙 적용으로 내구연수조정 (2010년 4년 → 2013년 6년)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 긴팔 (2010년 15,000원 → 2013년 16,575원) - 반팔 (2010년 10,000원 → 2013년 11,050원)
셔츠 (성인여성용, 아동용)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 성인여성용(긴팔) (2010년 15,000원 → 2013년 16,575원) - 성인여성용(반팔) (2010년 10,000원 → 2013년 11,050원) - 남아용(긴팔) (2010년 10,000원 → 2013년 11,050원) - 남아용(반팔) (2010년 5,000원 → 2013년 5,525원) - 여아용(긴팔) (2010년 9,800원 → 2013년 10,829원) - 여아용(반팔) (2010년 5,000원 → 2013년 5,525원)
스웨터 (성인용)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 성인남성용 (2010년 15,000원 → 2013년 16,245원) - 성인여성용 (2010년 15,000원 → 2013년 16,245원)

구 분	변경 내용	변경 이유	마켓 바스켓 반영
스웨터 (아동용)	가격 상향/ 내구연수 조정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적용으로 내구연수 하향조정 (2010년 6년 → 2013년 3년)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아용 (2010년 12,000원 → 2013년 12,996원) - 여아용 (2010년 12,000원 → 2013년 12,996원)
남방 (성인남성용)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10,000원 → 2013년 11,050원)
블라우스 (성인여성용)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20,000원 → 2013년 22,100원)
블라우스 (여아용)	가격 상향/ 내구연수 조정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적용으로 내구연수 하향조정 (2010년 6년 → 2013년 3년)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10,000원 → 2013년 11,050원)
동내의 (성인용)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남성용 (2010년 24,782원 → 2013년 29,590원) - 성인여성용 (2010년 19,085원 → 2013년 20,268원)
동내의 (아동용)	가격 상향/ 내구연수 조정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적용으로 내구연수 하향조정 (2010년 6년 → 2013년 3년)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아용 (2010년 8,800원 → 2013년 10,507원) - 여아용 (2010년 8,800원 → 2013년 9,346원)
런닝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남성용 (2010년 2,505원 → 2013년 2,991원) - 성인여성용 (2010년 2,000원 → 2013년 2,124원) - 남아용 (2010년 2,200원 → 2013년 2,627원) - 여아용 (2010년 2,200원 → 2013년 2,336원)
팬티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남성용 (2010년 2,474원 → 2013년 2,954원) - 성인여성용 (2010년 3,598원 → 2013년 3,821원) - 남아용 (2010년 1,900원 → 2013년 2,269원) - 여아용 (2010년 1,900원 → 2013년 2,018원)
브래지어 (성인여성용)	가격 상향/ 내구연수 조정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적용으로 내구연수 상향조정 (2010년 2년 → 2013년 3년)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5,000원 → 2013년 5,310원)
속치마 (성인여성용)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10,000원 → 2013년 10,620원)
실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1,000원 → 2013년 1,105원)
넥타이 (성인남성용)	가격 상향/ 내구연수 조정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적용으로 내구연수 상향조정 (2010년 4년 → 2013년 6년)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5,000원 → 2013년 5,355원)

구 분	변경 내용	변경 이유	마켓 바스켓 반영
장갑 (성인용)	가격 상향/ 내구연수 조정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적용으로 내구연수 상향조정 (2010년 5년 → 2013년 6년)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남성용 (2010년 5,000원 → 2013년 7,185원) - 성인여성용 (2010년 5,000원 → 2013년 7,185원)
장갑 (아동용)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아용 (2010년 4,700원 → 2013년 6,754원) - 여아용 (2010년 4,700원 → 2013년 6,754원)
혁대 (성인용)	가격 상향/ 내구연수 조정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적용으로 내구연수 상향조정 (2010년 5/3년 → 2013년 6년)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남성용 (2010년 5,000원 → 2013년 5,325원) - 성인여성용 (2010년 5,000원 → 2013년 5,325원)
혁대 (남아용)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4,401원 → 2013년 4,687원)
양말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남성용 (2010년 2,301원 → 2013년 2,448원) - 성인남성용 (2010년 2,301원 → 2013년 2,448원) - 남아용 (2010년 1,600원 → 2013년 1,702원) - 여아용 (2010년 1,600원 → 2013년 1,702원)
목도리 (성인용)	가격 상향/ 내구연수 조정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적용으로 내구연수 상향조정 (2010년 3년 → 2013년 6년)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남성용 (2010년 6,800원 → 2013년 7,242원) - 성인여성용 (2010년 6,800원 → 2013년 7,242원)
목도리 (아동용)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아용 (2010년 5,300원 → 2013년 5,645원) - 여아용 (2010년 5,300원 → 2013년 5,645원)
손수건 (성인용)	가격 상향/ 내구연수 조정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적용으로 내구연수 상향조정 (2010년 4/2년 → 2013년 6년)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남성용 (2010년 1,000원 → 2013년 1,065원) - 성인여성용 (2010년 1,000원 → 2013년 1,065원)
스타킹 (성인여성용)	가격 상향/ 내구연수 조정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팬티스타킹 (2010년 1,545원 → 2013년 1,645원) - 팬타롱스타킹 (2010년 750원 → 2013년 799원)
구두 (성인용)	가격 상향/ 내구연수 조정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적용으로 내구연수 상향조정 (2010년 3/2년 → 2013년 4년)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남성용 (2010년 30,000원 → 2013년 33,570원) - 성인여성용 (2010년 20,000원 → 2013년 22,540원)
운동화 (성인남성용)	가격 상향/ 내구연수 조정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적용으로 내구연수 상향조정 (2010년 3년 → 2013년 4년)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15,509원 → 2013년 16,548원)

구 분	변경 내용	변경 이유	마켓 바스켓 반영
운동화 (성인여성용, 아동용)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 성인여성용 (2010년 14,788원 → 2013년 15,779원) - 남아용 (2010년 10,000원 → 2013년 10,670원) - 여아용 (2010년 10,000원 → 2013년 10,670원)
슬리퍼 (성인용)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 성인남성용 (2010년 5,000원 → 2013년 5,325원) - 성인여성용 (2010년 5,000원 → 2013년 5,325원)
실내화 (아동용)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 남아용 (2010년 3,852원 → 2013년 4,122원) - 여아용 (2010년 3,852원 → 2013년 4,122원)
샌들 (성인여성용, 아동용)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 성인여성용 (2010년 14,708원 → 2013년 15,664원) - 남아용 (2010년 8,000원 → 2013년 8,520원) - 여아용 (2010년 8,000원 → 2013년 8,520원)
세탁료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 신사복상하 (2010년 6,000원 → 2013년 6,258원) - 숙녀복상하 (2010년 6,000원 → 2013년 6,258원)
의복수선료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3,000원 → 2013년 3,129원)
구두수선료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상향조정 (2010년 4,000원 → 2013년 4,224원)

4. 다른 연구와의 비교

2013년 최저 피복·신발비의 구성품목을 2010년의 결과와 비교하면 추가 및 제외 품목 없이 총 품목수는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이와 같이 산정된 중소도시 기준 2013년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62,246원은 2010년 대비 4,597원(8.0%)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에 대한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 이래로 중소도시 기준 최저 피복·신발비가 전체 최저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2013년에는 3.8%이다.

한편, 본 연구에 의한 최저생계비는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는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에 의한 표준생계비의 일부이기 때문에 가격의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2013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의 피복·신발비는 237,660원, 2012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의 피복·신발비는 211,839원으로 본 연구의 최저 피복·신발비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표 5-5-3〉 타 연구의 피복·신발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

(단위: 원, %)

	최저 피복·신발비 ¹⁾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 ²⁾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10 최저생계비(안)	-	62,246	62,246	62,246	-	3.5	3.8	4.1
2010 최저생계비	-	-	57,649	-	-	-	4.1	-
2007 최저생계비	-	-	48,773	-	-	-	4.0	-
2004 최저생계비	-	-	46,858	-	-	-	4.2	-
1999 최저생계비	-	-	43,331	-	-	-	4.8	-
2013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³⁾	237,660	-	-	-	4.5	-	-	-
2012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⁴⁾	211,839	-	-	-	4.4	-	-	-

주: 1) 1999년, 2004년, 2007년, 2010년의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식적인 최저생계비임

2) 1999년~2010년의 경우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중소도시(전세) 기준. 2013년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전세 기준

3) 2013 한국노총: 가구주(40세), 배우자(37세), 11세(초), 9세(초), 아파트/자가 기준

4) 2012 민주노총: 가구주(40세), 배우자(35세), 여아(8세, 초등학교), 남아(6세, 유치원생), 아파트/자가 기준

자료: 김미곤 외(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2005),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김미곤 외(2007),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여유진 외(2010),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총(2013), 『2013년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민주노총(2012), 『2012년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해설』.

제6절 최저 보건의료비

1. 최저 보건의료비의 개념 및 계측방법

가. 최저 보건의료비의 개념

보건의료비는 사람의 질병 예방, 치료 및 신체의 교정 등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다. UN이 권고하는 COICOP(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by purpose)에 기초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분류에 의하면, 보건의료비에 포함되는 항목에는 처방의 유무를 불문하고 약사 및 의사로부터 구입한 약품(의약품)과 이외의 의료용 소모품, 질병의 예방 및 치료, 신체의 교정 및 유지에 필요한 용품 및 기구, 외래·치과·입원·기타 의료서비스가 포함된다.

비록 이러한 정의와 분류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현실에서 표준가구의 ‘최저’ 보건의료비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이유로 첫째, 최저 혹은 적정 보건의료비 계량화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비가 보건수준에 대한 사회적 기본욕구(basic need) 중 규범적 욕구(normative need)로 한정된다면, 보건의료비는 이를 충족하기 위한 지출 비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여유진 외, 2007:325). 그러나 아래 그림과 같이 규범적 욕구 중 일부는 인지되지 않으며, 인지되더라도 실제로 표출되지 않는 부분도 존재한다(박순일 외, 1994).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인지되지만 표출되지 않는 미충족 욕구가 상당히 존재하며, 더불어 인지되지 않은 욕구도 존재할 수 있다.

[그림 5-6-1] 욕구의 개념

규범적 욕구	규범적 욕구	규범적 욕구
인지되지 않은 욕구	표출되지 않은 욕구	표출된 욕구
	인지된 욕구	

자료: 박순일 외(1994),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둘째, 타 재화(서비스)와 차별되는 보건의료 재화(서비스)의 상대적 특성 때문에 최

저 보건의료비 산출은 더욱 어렵다(여유진 외, 2007:325). 우선 개개인의 선천적·후천적 건강상태가 상이하여 ‘기본적’ 보건의료 욕구의 편차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또한 건강상태에 대한 인지수준, 질병에 따른 고통인지정도도 개인에 따라 상대적이다. 그리고 보건의료재화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 또한 매우 크다. 동일한 건강상태라도 의료적 진단 및 처방에 따라 최저비용은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보건의료비는 다른 비목에 비해 표준화된 접근 자체가 부적절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의 산출을 위해서는 필수 비목 중 하나인 보건의료비의 최저 수준을 확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본 연구에서는 품목의 선정에 있어서는 규범적 접근을 취하되, 수량과 비용에 있어서는 실태적 접근을 취하는 방식으로 최저 보건의료비를 산출하였다. 또한, 저소득층의 인지되었으나 표출되지 않은 욕구를 감안하여 미충족욕구의 일부를 반영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첫째, 규범적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건의료 항목으로 보건의료서비스(외래 및 입원 진료와 치료, 처방약), 비처방약, 보건의료용품(위생대, 안경)을 선정하였으며, 미충족욕구도 하나의 항목으로 추가하였다. 둘째, 각 항목의 가격과 내구연수는 실태적 측면을 반영하여 산출하였다. 실태자료로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이하 「국민생활실태조사」)의 기초 및 심층조사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종 통계자료 등이 활용되었으며, 가격자료로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2013. 1.)와 「국민생활실태조사」가 사용되었다.

나. 기존 연구에서의 최저 보건의료비 계측방법⁷²⁾

앞서 최저 보건의료비는 보건의료서비스비, 의약품비, 보건의료용품비, 미충족욕구 4가지 하위 항목으로 구성됨을 밝혔다. 이 중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은 보건의료서비스비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서비스비 산출방식에 따라 기존방식을 분류하도록 한다.

최저 보건의료서비스비 계측 주체는 크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외부기관(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계측의 주체를 둘로 나눈 이유는, 연구목적상의 차이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경우 최저 보건의료비 계측

72)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는 매 3년마다 반복되는 연구로서, 기존 연구 부분은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본문의 이 부분은 대부분 2010년 연구 내용을 준용하되, 최근 연구를 중심으로 일부만 보완하였다.

은 전국민 대상 최저생계비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 반면, 외부기관의 경우 임금근로자 최저임금 또는 표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계측방법은 크게 두 주체를 중심으로 정리할 것이다.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계측방법을 살펴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여섯 차례 기존연구(안창수 외, 1989; 박순일 외, 1994; 김미곤 외, 1999; 김미곤 외, 2005; 여유진 외, 2007; 김미곤 외, 2010)에서 나타난 계측방법은 크게 둘로 나뉜다. 첫째, 1차 자료인 실태조사 원자료(「국민생활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의료수요함수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유의미한 변수들을 추출하여 그 특성에 가장 적합한 가구유형의 의료서비스비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1994년, 2004년, 2007년, 2010년의 연구가 이 방법을 채택하였다. 둘째, 실태조사자료가 아닌 2차자료(「건강보험통계연보」, 「의료급여통계연보」 등)를 이용하여 평균적인 의료서비스비를 계산해 내는 방식이다. 1988년과 1999년의 연구가 이 방법을 활용하였다. 편의상 전자를 ‘실태자료 분석방식’, 후자를 ‘이차자료 분석방식’⁷³⁾이라 하고, 각각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차자료 분석방식’을 이용한 대표적인 연구는 안창수 외(1989)와 김미곤 외(1999)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안창수 외(1989)에서는 보건의료비에 포함된 항목을 의약품, 보건의료용품, 보건의료서비스로 나누고 이차 거시자료를 이용하여 평균 의료서비스비를 산출하였다. 산출결과, 최저 보건의료비는 11,831원으로, 이는 의약품·보건 의료용품(3,683원)과 보건의료서비스비(8,148원)를 합한 금액이었다(최저생계비의 3.99%). 특히, 보건의료서비스비의 경우 저소득층의 의료실태를 반영하여 계산되었고,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M_i = m_i \times \frac{r_i}{R_i}$$

M_i = 저소득층의 1인당 병원진료비

m_i = 지역 및 직장의료보험의 1인당 병원진료비

r_i = 지역 및 직장 의료보험수진율

R_i = 의료보험수진율

73)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보고서에서는 전자를 ‘의료수요함수 분석방식’, 후자를 ‘2차자료 분석방식’이라 칭하였다. 그러나, 전자의 분석방식에서 의료수요함수를 추정하기는 하지만, 이 수요함수를 통해 보건의료비를 산출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명칭 부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태조사자료를 통한 분석방식을 ‘실태자료 분석방식’, 2차 이차자료를 활용한 분석방식을 ‘이차자료 분석방식’이라 명명하기로 한다.

김미곤 외(1999)에서는 1988년의 연구방법을 준용하여 보건의료서비스비를 구하였다. 여기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비를 크게 외래진료비와 입원진료비로 나누었다. 외래진료비는 「의료보험통계연보」, 「의료보호통계연보」를 이용하고, 입원진료비는 「생활실태조사」(1999년 1차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구하였다. 또한 지역별 입원의료비 차이유무를 ANOVA 분석으로 검증한 결과, 차이 없음을 근거로 지역별 동일 입원진료비를 적용하였다. 산출결과 최저 보건의료비는 42,749원으로, 의약품(3,189원), 보건의료용품(5,468원), 보건의료서비스비(34,092원)를 합한 금액이었다(최저생계비의 4.74%). 특히, 외래진료비의 경우 저소득층의 보건의료행태를 반영하기 위해 「의료보호통계연보」를 이용하였고,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bullet & \text{표준가구 월평균 외래진료비} = \text{수진율} \times \text{건당 외래진료비} \times \text{본인부담비율} \times (1 + \text{연간 보건의료비증가율}) / 12\text{월} \\ \bullet & \text{지역별 월평균 외래진료비} = \text{지역별진료비비율} \times \text{표준가구 월평균 외래진료비} \end{aligned}$$

‘이차자료 분석방식’은 모수치를 활용함으로써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행태를 반영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의료보험통계에는 4인 표준가구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수진율 자료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의료보호 수진율을 이용할 경우 과대추정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차자료 분석방식의 한계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실태자료 분석방식’이다. 실태자료 분석방식을 활용한 초기 연구는 박순일 외(1994)이며, 이후 김미곤 외(2004), 여유진 외(2007), 김미곤 외(2010)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준용하고 있다. 박순일 외(1994)에서는 1차 실태자료(「생활실태조사」원자료)를 이용하여 의료수요함수를 구성하고, 실제 지출된 평균의료비, 미충족된 의료비(만성질환고려)를 계산하였다. 산출결과 최저 보건의료비는 32,411원으로, 이것은 미충족육구를 고려한 평균의료비(20,082원)와 도시지역 평균의료보험료(12,329원)를 합한 금액이었다(최저생계비의 4.87%)⁷⁴⁾. 당시 의료수요함수모델은 다음과 같다.

74) 1994년 연구에서는 의료보험료가 보건의료비에 포함되어 산출되었다. 그러나 이후 연구에서 의료보험료는 비소비지출 비목으로 분류되어 산정되었다.

$$\ln(E) = \text{CONSTANT} + a \text{ CHRONIC} + b \text{ CHILD} + c \text{ OLD} + d \text{ REGION1} + e \text{ REGION2} + f \ln(Y/FS) + g \ln(FS)$$

E = 보건의료서비스비(1994년 6월)
 CHRONIC = 만성병유무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있음=1, 없음=0)
 CHILD = 4세이하 아동유무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있음=1, 없음=0)
 OLD = 65세이상 노인유무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있음=1, 없음=0)
 REGION1 = 대도시지역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대도시=1, 기타=0)
 REGION2 = 중소도시지역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중소도시=1, 기타=0)
 Y/FS = 1인당 가구소득
 FS = 가구원수

김미곤 외(2004)는 1994년의 연구방법을 준용하여 「국민생활실태조사」(2004년 1차 조사) 자료를 통해 의료수요함수를 구성하여 저소득(소득하위 40%이하) 4인 가구의 평균 보건의료서비스비를 도출하였다. 의약품비, 미충족욕구도 동일방식으로 산출하되, 미충족욕구는 과대추정 가능성 때문에 산출금액의 50%만 반영하였다. 산출결과 최저 보건의료비는 49,719원으로, 보건의료서비스비(33,798원)와 의약품비(6,322원), 미충족욕구(3,770원), 보건의료용품기구(5,829원)를 합한 금액이었다. 연구진이 산출한 금액을 바탕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최저 보건의료비는 49,001원으로 최종 결정되었다(최저생계비의 4.44%). 여유진 외(2007)에서도 실태자료 분석방식이 활용되어 최저 보건의료비가 산출되었다. 계측된 최저 보건의료비는 53,894원으로, 보건의료서비스비(42,574원)와 의약품비(4,496원), 미충족욕구(1,873원), 보건의료용품기구(4,951원)를 합한 금액이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최저 보건의료비는 53,893원으로 최종 결정되었다(최저생계비의 4.37%). 가장 최근의 최저생계비 연구인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연구에서도 최저 보건의료비는 동일한 방식에 의해 산정되었다. 2010년 연구진안 최저 보건의료비는 보건의료서비스비(50,617원), 의약품비(3,657원), 미충족욕구(1,873원), 보건의료용품비(6,049원)의 합산액인 62,196원으로 산정되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도 최저 보건의료비는 연구진안을 그대로 수용하여 62,196원으로 결정되었다.

‘실태자료 분석방식’은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행태를 비교적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04년 이래 최저생계비 계측에서 활용되어오고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앞서 ‘이차자료 분석방식’에 비해 모수 추정치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이 방식이 가지는 가장 큰 한계이다. 또한, 상하위 절사의 범위와 포함되는 가구원의 특성에 따라 보건의료비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비판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외부기관의 계측방법을 살펴본다. 최저임금 심의의 참고자료로 활용되

는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한국노동연구원, 2003)의 계측방법은 주로 「가계동향조사」에 나타난 전체 가계지출을 통해 각 항목별 지출의 환산승수(multiplier)를 구하고, 이를 전년도 보건의료비의 대표값(최빈, 평균)에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이다. 한국노동연구원(2003)의 계측방법은 비목별·가구규모별 생계비 환산승수를 산출하고, 이것을 각년도 4/4분기의 4인 가구 비목별 평균값에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이다(김미곤 외, 2005:182). 이후 최저임금위원회는 자체적으로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007년부터 작성을 중지하고 다시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연구는 한국통계학회(2012)에서 작성한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보고서로서, 여기에서는 2011년 연간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연령별·분위별 생계비를 분석하고 있다. 연령구간을 전연령, 29세 이하, 34세 이하로 세분하여, 각 소비지출 12대 항목별로 상하 각각 1%, 2% 절사 및 원저화⁷⁵⁾ 후 단신근로자의 평균 보건의료비 지출 수준을 계측하였다.

민주노총(2012), 한국노총(2013)의 계측방법은 7가지 표준생계비 가구모형⁷⁶⁾을 설정하고, 비목별 표준생계비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두 자료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비 개념에 상응하는 비목은 보건·위생비 내의 (보건)의료비이다. 민주노총(2012)의 경우, 보건위생비 비목 하에 이미용품비, 이미용서비스, 보건의료비가 포함되어 있다. 보건의료비는 통계청 『도시가계연보』의 보건의료비 실태를 적용하여 1~4인가구의 의약품비, 보건의료용품비, 보건의료서비스비를 산출하였다. 한국노총(2013)의 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비 개념에 상응하는 ‘의료비’는 보건위생비(위생비, 의료비, 화장품비) 내에 의료비로서 이는 진료비, 의약품비, 안경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통계를 이용하여 건강보험 총 진료비에서 보험자(건강보험) 총부담액을 제한 뒤 나머지 본인부담액을 건강보험 적용 인구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의약품비는 안정적인 값을 도출하기 위해 과거 10년(2002~2011년) 동안의 가계동향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의약품비의 연평균증가율과

75) 절사란 상하위 1%, 2% 사례를 제거한 후 평균한 값이며, 원저화란 상하위 1% 이상의 사례를 상하위 1% 값으로 대체한 후의 평균값을 말한다.

76) 가구모형은 규모별·가구주 연령과 평균 초혼연령, 부부간 연령차이, 출산순위별 모의 평균연령, 첫 자녀 출산시기, 자녀간 터울 등을 반영하여 구성된다(단신남성, 단신여성,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Ⅰ, 4인가구Ⅱ, 4인가구Ⅲ). 이 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4인 표준 가구와 유사한 모형은 민주노총(2012)의 경우 4인가구Ⅱ(가구주 45세, 배우자 42세, 여아 13세, 남아 11세)이며, 한국노총(2013)의 경우 4인가구Ⅰ(가구주 40세, 배우자 37세, 1자 11세, 2자 9세)이다.

가구별 비례율을 구하고 이를 전년도 3인 가구 의약품비(월 36,055원, 중위값)에 적용하여 가구별 의약품비를 계산하였다. 마지막으로 안경비 역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하고 있다.

다. 본 연구에서의 최저 보건의료비 계측방법

2013년 최저 보건의료비는 2004년, 2007년 및 2010년과 동일한 ‘실태자료 분석 방식’으로 계측하고자 한다. 최저생계비는 정책적 빈곤선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일관성을 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최저 보건의료비 계측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는 저소득층의 의료이용행태를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 이 방식의 장점이기 때문이다.

주지한 바와 같이, 마켓 바스켓방식의 최저생계비는 규범적 측면과 함께, 삶의 질 변화, 즉 실태 측면을 동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예컨대 무엇이 필수품인가를 고려할 때는 건강의 유지와 회복에 필수적이어야 한다는 규범과 함께, 삶의 질 변화에 따라 소유하거나 서비스를 받고 있는 품목이라는 실태가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보건의료비의 경우 각자의 신체적·정신적 차이에 따라 보건의료 욕구가 상이하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표준화된 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신, 표준가구의 평균적인 건강상태를 가정하여, 이러한 평균적인 건강상태를 가진 표준가구의 가구원이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비를 산출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유에 필요한 의료적 처치와 의약품, 신체적 취약성을 보완해 줄 보건의료용품(예. 안경)과 성과 연령을 고려한 필수용품(예. 위생대), 그리고 저소득층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인지되었지만 직접적으로 표출되지 않은 미충족욕구에 대한 대응이 포함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최저 보건의료비 = 보건의료서비스비 + 의약품비 + 보건의료용품비 + 미충족욕구
 - 보건의료서비스비 = 입원진료비 + 외래진료비 + 처방전 약값
 - 의약품비 = 비처방전 약값
 - 보건의료용품비 = 안경 + 위생대
 - 미충족욕구 = 저소득으로 인한 미충족 의료욕구 해결을 위한 잠재적 비용(주관적 부족의료비)

구체적인 보건의료비 산출에 앞서, 보건의료서비스비, 의약품비, 미충족욕구에 대해 의료수요함수를 산출하였다. 이는 보건의료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유의미한 인구학적·

가구특성적 변수를 찾아서 이를 표준가구의 최저 보건의료비 산정에서 감안해 줄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한 과정이다. 먼저 「국민생활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의료수요함수를 구성하였다. 이 회귀방정식⁷⁷⁾을 통해 유의미한 변수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보건의료서비스의 의료수요함수 산출을 위한 회귀방정식은 아래와 같다. 비처방전 약값과 미충족 욕구에 대해서도 동일한 독립변수가 활용되었으며, 종속변수만을 변화시켜 투입하였다.

$$\ln(E) = \text{CONSTANT} + a \text{ CHRONIC} + b \text{ CHILD} + c \text{ OLD} + d \text{ REGION1} + e \text{ REGION2} + f \ln(Y)$$

E = 월평균 보건의료서비스비
 CHRONIC = 만성병유무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있음=1, 없음=0)
 CHILD = 4세 이하 아동유무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있음=1, 없음=0)
 OLD = 65세 이상 노인유무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있음=1, 없음=0)
 REGION1 = 대도시지역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대도시=1, 기타=0)
 REGION2 = 농어촌지역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농어촌=1, 기타=0)
 Y = 가구경상소득

의료수요함수의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시키면서 규범적으로도 표준가구에 포함될 필요가 없는 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가구는 분석에서 제외시킨 후 저소득 4인가구의 보건의료서비스비, 의약품비, 미충족욕구 비용을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보건의료용품비는 2010년 최저생계비 산정에서 사용된 필수품 선정, 사용량 및 내구연수, 가격 결정의 원칙을 준용하였다. 사용량과 내구연수는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의 조사결과 분석을 통해 결정되었으며, 가격은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 결과와 「소비자물가지수」(2013. 1.)를 기준으로 설정하되, 중저가를 원칙으로 결정하였다.

2. 최저 보건의료비 계측결과

가. 마켓 바스켓 구성

1) 필수품 선정방법

다른 비목과는 달리 최저 보건의료비의 경우 보건의료서비스비, 의약품비, 미충족욕

77) 2010년과 마찬가지로 2012년에 조사된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의 경우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 대상 중 저소득(소득하위 40%이하) 4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가구원수는 4인으로 고정되므로 회귀방정식의 독립변수에 투입하지 않았다.

구는 별도의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지 않고 저소득 4인가구의 평균적인 의료비 지출비용을 계측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즉, 의료수요함수분석 결과 ‘평균적인 건강상태의 4인 표준가구’와 유의미한 의료수요 차이를 발생시키는 인구특성을 지닌 가구를 제외한 후 나머지 저소득 4인가구의 평균적인 보건의료비 지출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계측되었다. 단, 보건의료용품비의 경우 별도의 마켓 바스켓이 구성된다. 「가계동향조사」과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 분석 결과, 보건의료용품비에서 안경의 소득탄력성은 0.284로 비교적 낮고 보유율⁷⁸⁾은 81.6%에 이르러 필수품으로 선정되었다. 위생대의 경우 평균적인 폐경연령 이전의 여성(39세)이 가구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유율이나 소득탄력성과 무관하게 규범적인 측면에서 필수품의 요건에 해당한다.

2) 사용량 및 내구연수 결정방법

보건의료서비스비, 의약품비, 미충족욕구는 월평균 비용이므로 사용량은 1단위, 내구연수는 1개월로 고정된다. 보건의료용품비는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사용량 및 내구연수를 조정하였다. 안경의 경우 안경만 끼는 사람의 평균적인 안경 교체주기의 변화를 고려하여, 2010년 2년(24개월)에서 2013년 18개월로 조정되었다. 사용량은 2010년과 동일하게 1개, 즉 가구원 중 1명만 안경을 착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위생대의 경우 내구연수와 사용량은 201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였다. 따라서 안경의 경우 사용량은 1개, 내구연수는 18개월로, 위생대의 경우 사용량은 20개, 내구연수는 1개월로 결정하였다.

3) 가격 결정방법

보건의료비에서 보건의료서비스비, 의약품비와 미충족욕구는 소득 하위 40%이하 4인 가구의 평균적인 지출을 가격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평균 가격을 산출하기 전에, 소득 하위 40%이하 4인 가구 중 가구원 특성상 보건의료비 지출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면서 표준가구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치 않은 가구를 추출하기 위하여

78) 소득 하위 40% 이하 4인 가구에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1개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라식수술을 한 가구 원인 있는 가구의 비율이다.

의료수요함수를 분석하였다⁷⁹⁾.

〈표 5-6-1〉 소득하위 40%이하 4인 가구 보건의료서비스비 수요함수 분석결과

구분	B	Std. Error	t	Sig.
(Constant)	1.321	1.004	1.320	0.189
6개월 이상 만성질환자 유무	1.076	0.154	7.000	0.000
4세 이하 아동유무	1.806	0.141	12.770	0.000
65세 이상 노인유무	0.259	0.246	1.050	0.294
대도시 더미	-0.200	0.132	-1.510	0.130
농어촌 더미	0.055	0.322	0.170	0.865
1인당 가구소득	0.167	0.175	0.960	0.340

주: $adj R^2 = 0.156$, $F=32.06$ ($P<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4인가구 심층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개월 이상 만성질환자가 있는 경우와 4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경우 보건의료서비스비가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경우는 보건의료서비스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노인이 있는 경우 보건의료서비스비가 높아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이러한 결과는 2010년과 유사하다. 이는 만성질환자와 노인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와 관련해서, 4인 표준가구(부 42세, 모 39세, 12세 남아, 10세 여아)의 최저 보건의료비를 추정하기 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보건의료비 지출이 더 높게 나타난 4세 이하 아동을 가진 가구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표준가구의 구성과는 거리가 있고 만성질환자 비율이 높은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를 분석에서 제외기로 하였다. 단, 표준가구 내에도 만성질환자가 확률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는 분석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⁸⁰⁾.

79) 2010년 최저 보건의료비 계측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비, 의약품비, 미충족욕구를 종속변수로 하는 의료수요함수를 모두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표준가구와 유사한 실제로 저소득 4인가구를 추출하기 위한 과정의 하나로서, 세 가지 모형이 상이한 결과를 보이더라도 적용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실제로는 각 의료수요함수의 결과와는 다소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과 4인 이하의 아동을 제외하고 보건의료서비스비, 의약품비, 미충족욕구 비용을 산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비에 대한 수요함수 분석결과만 제시하였다.

80)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만성질환자 가구 중 상당수는 노인이 있는 가구와 중복되므로, 실제로는

이와 같이, 4세 이하의 아동과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는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 하위 40% 이하의 4인가구에 대하여 보건의료서비스비, 의약품비와 미충족욕구 비용을 산출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⁸¹⁾. 평균적인 의료서비스비는 52,697원, 비처방 의약품비는 4,792원으로 산출되었다. 미충족욕구의 경우 2007년과 마찬가지로 평균 부족의료비(3,956원)의 50%만 반영하여 1,978원만 최저 보건의료비 마켓 바스켓에 포함시켰다.

〈표 5-6-2〉 소득하위 40%이하 4인 가구 의료서비스비, 의약품비, 미충족욕구

(단위: 원, 가구)

	의료서비스비	의약품비	부족의료비
가격	52,697	4,792	3,956
가구수	596	597	58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4인가구 심층조사』 원자료

한편 보건의료용품비는 타 비목과 동일한 방식으로 가격을 결정하였다. 안경의 경우,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단가와 내구연수를 결정하였다. 최저 보건의료비라는 점을 감안하여, 분석 결과의 중위값과 평균값 중 가격은 낮은 쪽으로, 내구연수는 긴 쪽으로 채택하였다⁸²⁾. 그 결과 안경의 가격은 70,000원(중위값), 내구연수는 18개월(평균값)로 결정되었다. 위생대의 월평균 소비수량은 2010년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월 20개). 위생대의 가격(20개)은 2010년 가격에 2010년 1월에서 2013년 1월 사이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5,280원으로 산정하였다.

나. 표준가구의 최저 보건의료비 마켓 바스켓

보건의료서비스비, 의약품비(비처방전 약값), 미충족욕구, 보건의료용품비를 합한

만성질환자 가구의 상당수는 연령에 의해 배제된다.

81) 과대추정을 막기 위해 보건의료서비스비 지출액의 상하위 1%의 극단치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의약품비(비처방전 약값)과 미충족욕구도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산출되었다. 극단치 제거의 방법은 이와 같은 절사 방법과 원저화 방법이 있고, 최근 후자의 방법이 선호되지만 기존 최저생계비 계측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2010년 방식을 유지하였다.

82)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 분석 결과, 안경의 가격은 평균 84,200원, 중위 70,000원으로 나타났으며, 교체 주기는 평균 18개월, 중위 12개월로 산출되었다.

2013년 최저 보건의료비의 마켓 바스켓은 아래 표와 같이 구성된다. 최저 보건의료비 중 보건의료서비스비는 52,697원, 의약품비는 4,792원, 미충족욕구는 1,978원, 그리고 보건의료용품비는 9,169원으로 계측되었다. 이들을 모두 합한 최저 보건의료비는 68,636원으로 산정되었다. 규범적인 측면에서 지역 간 보건의료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2010년 최저 보건의료비 계측결과와 비교하면 추가 혹은 제외된 품목은 없으며, 다만 안경의 내구연수만 실태를 반영하여 24개월에서 18개월로 조정되었다.

〈표 5-6-3〉 표준가구의 최저 보건의료비(연구진안)

(단위: 원)

중분류/품목	내구연수	수량	단가(원)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보건의료비 합계				68,636	68,636	68,636
보건의료서비스비	1월	1단위	52,697	52,697	52,697	52,697
의약품비	1월	1단위	4,792	4,792	4,792	4,792
미충족욕구	1월	1단위	1,978	1,978	1,978	1,978
소계				59,467	59,467	59,467
안경	18월	1개	70,000	3,889	3,889	3,889
위생대	1월	20개	264	5,280	5,280	5,280
보건의료용품 소계				9,169	9,169	9,169

3. 다른 연구와의 비교

본 연구의 결과, 최저 보건의료비는 2010년 중소도시 기준 62,196원 대비 6,440원 (10.4%) 증가한 68,636원으로 나타났다. 최저 보건의료비가 최저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소도시 기준으로 1999년 4.7%, 2004년 4.4%, 2007년 4.4%, 2010년 4.5%로 공식적으로 최저생계비가 계측된 이래 4.5% 내외의 수준을 유지해 왔다. 2013년의 경우 최저 보건의료비가 최저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2%로 그 비율이 다소 낮아졌다. 이는 주로 시장의 물가 등락의 영향을 크게 받는 다른 품목에 비해, 보건의료비는 공공정책(보건의료정책)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지출 상승요인이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⁸³⁾.

83) 실제로 이 기간(2010년~2013년) 동안 보건의료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8%로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 11.9%의 1/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편, 한국노총(2013)과 민주노총(2012)의 표준생계비 중 보건위생비는 각각 303,027원과 252,704원으로 본 연구 결과에 비해 각각 4.4배와 3.7배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보건위생비의 세부 항목에는 보건의료비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기타소비지출 비목에 포함되는 이미용비, 화장품비 등과 비소비지출 비목에 해당되는 건강보험료도 포함되어 있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또한, 표준생계비는 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최저’ 개념보다는 ‘적정’ 개념에 가깝기 때문에 비교의 의미가 다소 무색할 것으로 보인다.

〈표 5-6-4〉 타 연구의 보건의료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

(단위: 원, %)

	최저 보건의료비 ¹⁾	총 생계비에 대한 비율 ²⁾
	전국	전국
2013 최저생계비(안)	68,636	4.2
2010 최저생계비	62,196	4.5
2007 최저생계비	53,894	4.4
2004 최저생계비	49,001	4.4
1999 최저생계비	42,749	4.7
2013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³⁾⁵⁾	303,027	5.8
2012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⁴⁾⁵⁾	252,704	4.8

주: 1) 1999년, 2004년, 2007년, 2010년의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식적인 최저생계비임

2) 1999년~2013년의 경우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중소도시(전세) 기준.

3) 2013 한국노총: 가구주(40세), 배우자(37세), 11세(초), 9세(초), 아파트/자가 기준

4) 2012 민주노총: 가구주(40세), 배우자(35세), 여아(8세, 초등학교), 남아(6세, 유치원생), 아파트/자가 기준

5)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보건위생비를 산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보건의료서비스, 의약품비, 안경, 위생대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화장품비도 포함되어 있음.

자료: 김미곤 외(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2005),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김미곤 외(2007),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여유진 외(2010),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총(2013), 『2013년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민주노총(2012), 『2012년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해설』.

제7절 최저 교육비

1. 최저 교육비의 개념 및 계측방법

가. 최저 교육비의 개념

교육은 개인적·사회적·경제적 관점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개인적 관점에서 교육은 인간의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하고 자기정체성 확립의 동기를 부여하는 수단이 된다. 한편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공동체 의식을 부여하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며, 경제적 관점에서는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갖춘 양질의 노동력을 양성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정의로부터 최저 교육수준은 '교육수혜자의 욕구와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인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교육수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최저 교육수준의 정의를 바탕으로, 최저 교육비를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아를 실현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위해 지출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그 동안 정부가 발표해왔던 사교육비 경감대책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가구가 다양한 유형의 사교육에 일정한 규모의 지출을 하고 있는 현실과 사교육의 필요성을 일부 인식하고 있는 학부모의 의식을 반영하여, 최저 교육수준의 유형을 공교육만으로 제한하지 않고 최소한의 사교육 수준을 인정하고 이를 위한 지출을 최저 교육비에 포함시켰다.

나. 기존 연구에서의 최저 교육비 계측방법

최저 교육수준을 가장 좁은 범위에서 정의한다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해당하는 공교육으로 보고 이와 같은 공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을 최저 교육비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최저 교육수준을 정의하고 이에 따른 최저 교육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검토될 필요성이 있는 쟁점으로는 첫째, 교육수준의 결정에 관한 것으로 유치원, 예체능학원 등의 취학 전 교육과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교육이 최저 교육수준

에 포함되어야 하는가의 문제, 둘째, 학원 및 과외 등의 정상적인 학교교육 이외의 사교육비를 최저 교육비에 포함시킬 것인가, 셋째, 가구 구성원 중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 등 최저 교육비의 구성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대표적이다.

생계비를 계측하여 발표하고 있는 기존 연구에서는 대체로 공교육 이외의 사교육이나 성인교육과 같은 평생교육의 개념까지도 최저 교육수준으로 정의하는 등 최저 교육비에 대한 정의 및 구성 범위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먼저, 1999년부터 2010년까지 4차례(1999, 2004, 2007, 2010) 계측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생계비에서는 초등학생 2인으로 구성된 표준가구를 대상으로 두 자녀의 최저 교육비를 산출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사교육비는 기본적으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초등학생에 대한 최소한의 사교육비 유형으로 가정학습지만을 최소한의 기간으로 포함하였고, 예체능 및 교과 관련 학원수강·과외교습 등은 배제하였다.

다음으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최저임금 계측을 위해 산출했던 생계비를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계측하여 발표하였는데, 15~29세 단신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저 교육·교양 오락비를 함께 계측하고 있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근로자가구의 표준생계비를 발표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교육비를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로 구성하고 있다. 공교육비는 교육부에서 발행한 『교육통계연보』의 교육재정 중 납입금(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징수액 현황을 반영하였으며, 사교육비는 과외활동비와 기타 사교육비(참고서비, 일반도서비, 단체활동비, 학용품구입비)로 구성하고 있다. 표준가구 유형에 따른 과외활동비의 경우,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를 주로 반영해 6세 아동은 유치원, 초등학생은 가정학습지와 예체능학원, 중·고등학생은 학과 관련 학원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노총의 표준생계비의 경우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성인교육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노총은 교육비를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그리고 성인교육비로 구분하였으며, 공교육비의 경우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로 구성되지만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중학교까지는 육성회비만을 고려하고 있다. 사교육비는 일반사교육비(학교생활과 관련되어 지출되는 비용)와 과외활동비(학교생활 이외에 지출되는 비용)로 구성되는데, 일반사교육비는 가장 일반적인 지출형태를 고려하여 교과서비, 참고서비, 학용품비, 학습준비물비, 단체활동비(소풍, 수학여행, 특별활동 등)로 구성하였고, 과외활

동비의 경우 학교별 과외활동 수, 종류, 비용 등을 고려하고 있는데 취학 전 아동은 유치원, 초등학생은 학습학원과 학습지, 중학생 및 고등학생은 학습학원을 반영하고 있다. 성인교육비의 경우, 전년도를 기준으로 통계청 가계조사의 교육비 증감률을 반영하여 산출하고 있다.

다. 본 연구에서의 최저 교육비 계측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2004년, 2007년,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방법을 준용하여 최저 교육비를 계측하였다. 표준가구 구성에 따라 초등학생 자녀 2인을 대상으로 최저 교육비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였으며, 공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사교육의 유형은 일부 반영하고 있으나 가정학습지만 최소한의 기간으로 포함하였고, 예체능 및 교과 관련 학원수강·과외교습 등은 배제하였다. 또한, 평생학습 개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이 반영하고 있는 성인교육비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최저 교육비의 세부영역은 통계청 중분류 기준에 따라 ‘납입금 - 교재비 - 보충교육비 - 문방구비’로 구분될 수 있으나, 표준가구가 초등학생 자녀로 구성되어 납입금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교재비 - 보충교육비 - 문방구비’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필수품을 선정하여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0년 계측된 최저 교육비 마켓 바스켓 구성 항목을 기준으로 필수품, 내구연수 및 사용량, 가격을 조정하여 2013년 최저 교육비를 계측하였다.

2. 최저 교육비 계측결과

가. 마켓 바스켓 구성

최저 교육비의 범주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재비’ - ‘보충교육비’ - ‘문방구비’로 구성하였으며, 영역별 필수품을 선정하여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였다. 2013년 최저생계비의 최저 교육비 마켓 바스켓은 표준가구의 구성에 따라 남·여 초등학생 자녀(남 12세, 여 10세)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2010년 최저 교육비(23개)와 비교할 때, 2013년 최저 교육비 마켓 바스켓을 구성

하고 있는 품목은 교육용 체육기구(줄넘기, 훌라후프)가 신규로 추가되어 총 25개로 구성되었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교재비 2개 품목, 보충교육비 3개 품목, 문방구비 20개 품목이다.

1) 필수품 선정방법

2013년 최저 교육비를 구성하는 마켓 바스켓 필수품 항목은, 2010년 계측 당시 최저 교육비를 구성하였던 품목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 수행한 생활실태조사 및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품목별 보유 및 사용실태를 고려하여 조정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교육용 체육기구인 줄넘기(저학년)와 훌라후프(고학년)를 마켓 바스켓에 추가(사용량 1개, 내구연수 3년, 가격 2,000원)하였으며, 제외한 품목은 없었다.

2) 사용량 및 내구연수 결정방법

2010년 계측 당시 최저 교육비를 구성하였던 품목을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 수행한 생활실태조사 및 각종 통계자료에 의하여 제시된 품목별 사용실태 및 사용기간 관련 자료를 반영하여 사용량 및 내구연수를 조정하였다. 2010년 계측 당시 생활실태를 반영하여 조정⁸⁴⁾하였던 교재비와 보충교육비 품목별 사용량 및 내구연수는 2010년과

84) 2010년 계측 당시 최저 교육비 중 교재비와 보충교육비 조정사항

〈교재비〉

- 문제집: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각 자녀별 1학기당 구입 권수를(1권 → 2권) 상향 조정

〈보충교육비〉

- 가정학습지: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녀 1인당 주요 교과목 중 특정 과목 또는 전 과목을 포함한 가정학습지 1종을 구독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최저 교육비 관점에서 2007년과 동일 수준(자녀 1인당 연중 6개월,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등 수업 부담이 적은 시기)에서 구독하는 것으로 반영

- 수련회: 정규교육 과정의 특성 및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 실태를 반영하여 자녀(초등학교 3학년, 5학년에 해당) 1인당 1회 참여하는 것으로 수련회 참여횟수를 상향 조정(1회→2회)

- 기타교육비: 야외활동 및 특별활동의 경우,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소한 1학기당 1회 참여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수련회' 참여횟수 상향 조정을 고려하여 기존 3회에서 2회(자녀 1인당 1회)로 하향 조정

동일하게 반영하였다. 반면, 문방구비를 구성한 품목 중에 초등학생용 공책과 인쇄용지는 교과학습 및 과제수행 등에 필요한 생활실태 변화를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였다. 초등학생용 공책은 1인당 학기당 9권에서 10권으로, 인쇄용지의 경우 컴퓨터를 활용한 수행 과제의 증가를 반영하여 학기당 1권에서 2권으로 조정하였다.

3) 가격 결정방법

사용량 및 내구연수에 이어 마켓 바스켓 품목별 가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하였다. 필수품 가운데 기본적으로 중저가로 규격이 일치하는 품목에 대해서 통계청 물가지수 변화를 반영하여 가격을 조정하였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시장가격조사 및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 등의 결과가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하여 반영하였다.

특히, 최저 교육비를 구성하는 품목별 가격의 경우 형평성을 고려하여 어떠한 마켓 바스켓 품목에 대해서도 지역별 가격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2010년 최저생계비의 품목별 가격을 기초로 실태조사 및 각종 통계에 제시된 품목별 가격 및 지출금액 등의 자료를 반영하였다.

나. 표준가구의 최저 교육비 마켓 바스켓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에 의해 연구진에서 제시한 2013년 최저생계비의 최저 교육비 마켓 바스켓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3년 최저 교육비 마켓 바스켓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저 교육비 마켓 바스켓 구성 품목은 교육용 체육기구(줄넘기, 훌라후프)가 신규로 추가되어 총 25개로 증가하였다.

〈표 5-7-1〉 표준가구의 최저 교육비(연구진안)

품목	지역구분	내구연수	사용량	가격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교육비 합계					74,020원	74,020원	74,020원
참고서	전국	1년	4권	27,440원	9,147원	9,147원	9,147원
문제집	전국	1년	8권	14,442원	9,628원	9,628원	9,628원
교재비 소계					18,775원	18,775원	18,775원
가정학습지	전국	1년	12월	34,500원	34,500원	34,500원	34,500원
수련회	전국	1년	2회	53,470원	8,912원	8,912원	8,912원
기타교육비	전국	1년	2회	10,000원	1,667원	1,667원	1,667원
보충교육비 소계					45,079원	45,079원	45,079원
연필	전국	6월	2타스	2,637원	879원	879원	879원
싸인펜	전국	1월	4개	200원	800원	800원	800원
색연필	전국	1년	2세트	2,500원	417원	417원	417원
공책	전국	6월	20권	650원	2,167원	2,167원	2,167원
스케치북	전국	1년	4권	1,300원	433원	433원	433원
인쇄용지	전국	6월	2권	2,808원	936원	936원	936원
크레파스	전국	1년	2세트	4,143원	691원	691원	691원
그림물감	전국	1년	1세트	3,221원	268원	268원	268원
붓	전국	2년	1세트	4,500원	188원	188원	188원
지우개	전국	6월	4개	300원	200원	200원	200원
칼	전국	2년	1개	300원	13원	13원	13원
가위	전국	2년	1개	700원	29원	29원	29원
풀	전국	6월	2개	500원	167원	167원	167원
색종이	전국	6월	20개	500원	1,667원	1,667원	1,667원
필통	전국	1년	2개	1,500원	250원	250원	250원
자	전국	1년	2개	200원	33원	33원	33원
앨범	전국	3년	2개	15,000원	833원	833원	833원
교육용 악기 (리코더)	전국	3년	1개	3,000원	83원	83원	83원
교육용 체육기구 (줄넘기)	전국	3년	1개	2,000원	56원	56원	56원
교육용 체육기구 (홀라후프)	전국	3년	1개	2,000원	56원	56원	56원
문방구비 소계					10,166원	10,166원	10,166원

〈표 5-7-2〉 최저 교육비 마켓 바스켓 신규 추가 품목

구 분	추가이유	마켓 바스켓 반영
초등학생용 줄넘기	실태반영	○ 시장조사를 토대로 가격반영 (내구연수 3년, 단가 2,000원, 수량 1개)
초등학생용 홀라후프	실태반영	○ 시장조사를 토대로 가격반영 (내구연수 3년, 단가 2,000원, 수량 1개)

〈표 5-7-3〉 최저 교육비 마켓 바스켓 사용량내구연수가격 조정 품목

구 분	변경 내용	변경 이유	마켓 바스켓 반영
참고서	가격 상황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 통계청 소비자물가 반영 상향조정 (2010년 23,408원 → 2013년 27,440원)
문제집	가격 상황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 통계청 소비자물가 반영 상향조정 (2010년 12,320원 → 2013년 14,442원)
가정학습지	가격 상황	실태조사	○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 평균가격 변화를 반영한 상향조정 (2010년 32,000원 → 2013년 34,500원)
수련회	가격 상황	실태조사	○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 평균가격 변화를 반영한 상향조정 (2010년 45,000원 → 2013년 53,470원)
연필	가격 상황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 통계청 소비자물가 반영 상향조정 (2010년 2,265원 → 2013년 2,637원)
공책	가격 상황 수량 상황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 통계청 소비자물가 반영 상향조정 (2010년 548원 → 2013년 650원) ○ 수량을 자녀 1인당 각 9권에서 10권으로 상향조정 (2010년 9권 → 2013년 10권)
스케치북	가격 상황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 통계청 소비자물가 반영 상향조정 (2010년 1,206원 → 2013년 1,300원)
인쇄용지	가격 상황 수량 상황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 통계청 소비자물가 반영 상향조정 (2010년 2,665원 → 2013년 2,808원) ○ 수량을 1권에서 2권으로 상향조정 (2010년 1권 → 2013년 2권)
크레파스	가격 상황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 통계청 소비자물가 반영 상향조정 (2010년 3,668원 → 2013년 4,143원)
그림물감	가격 상황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 통계청 소비자물가 반영 상향조정 (2010년 2,851원 → 2013년 3,221원)
교육용 악기	가격 상황	시장조사	○ 시장조사 반영 상향조정 (2010년 2,000원 → 2013년 3,000원)

2010년에 비해 사용량이 조정된 품목은 사용량이 조정된 품목은 2개(초등학생용 공책, 인쇄용지)이며, 교과학습 및 과제수행 등에 필요한 생활실태 변화를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였다. 초등학생용 공책은 1인당 학기당 9권에서 10권으로, 인쇄용지의 경우 컴퓨터를 활용한 수행 과제의 증가를 반영하여 학기당 1권에서 2권으로 조정하였다. 내구연수가 조정된 품목은 없었으며, 실태조사 및 다양한 통계에 제시된 품목별 가격 및 지출금액 등을 반영하여 2013년 최저 교육비 계측 과정에서 총 11개 품목의 가격을 상향 조정하였다. 참고서, 문제집 등 8개 품목은 2010년 계측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통계청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였으며, 2개 품목(가정학습지, 수련회)은 생활실태조사 결과를, 1개 품목(교육용 악기_리코더)은 시장가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을 상향 조정하였다.

3. 다른 연구와의 비교

2013년 최저 교육비 74,020원을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결과와 비교해보면, 마켓 바스켓 구성 항목은 총 25개로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 당시 23개에 비해 교육용 체육기구 2개 품목(줄넘기, 훌라후프)이 신규로 추가되었으며, 2010년 최저 교육비 65,930원 대비 8,090원(12.3%) 증가하였다.

또한, 2013년 표준가구를 기준으로 계측된 최저 교육비 74,020원은, 2013년 현행 최저생계비의 비목별 구성 비율에 따른 최저 교육비 72,681원보다 1,339원(1.8%) 높은 결과이다.

〈표 5-7-4〉 타 연구의 교육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

(단위: 원, %)

구분	최저 교육비 ¹⁾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 ²⁾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13 최저생계비(인)	-	74,020	74,020	74,020	-	4.2	4.5	4.9
2010 최저생계비	-	-	65,930	-	-	-	4.7	-
2007 최저생계비	-	-	55,302	-	-	-	4.5	-
2004 최저생계비	-	-	46,930	-	-	-	4.3	-
1999 최저생계비	-	-	42,071	-	-	-	4.7	-
2013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³⁾	514,951	-	-	-	9.8	-	-	-
2012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⁴⁾	433,000	-	-	-	8.2	-	-	-

주: 1) 1999년, 2004년, 2007년, 2010년의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식적인 최저생계비임

2) 1999년~2010년의 경우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중소도시(전세) 기준. 2013년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전세 기준

3) 2013 한국노총: 가구주(40세), 배우자(37세), 11세(초), 9세(초), 아파트/자가 기준

4) 2012 민주노총: 가구주(40세), 배우자(35세), 여아(8세, 초등학교), 남아(6세, 유치원생), 아파트/자가 기준

자료: 김미곤 외(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2005),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김미곤 외(2007),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여유진 외(2010),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총(2013), 『2013년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민주노총(2012), 『2012년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해설』.

한편, 다른 연구에서 계측된 최저 교육비와 비교해보면, 2012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의 최저 교육비는 433,000원으로, 연구진이 제시한 최저 교육비에 비해 약 5.85배에 이르는 수준이었으며, 성인교육비까지 포함하고 있는 2013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의 최저 교육비는 514,951원으로 격차가 더 확대되어 약 7배에 이를 만큼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이와 같이, 2013년 계측된 최저생계비의 최저 교육비(연구진안)는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 연구에 비해 12.3% 증가한 것이지만,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러한 계측결과는 주로 사교육 포함여부 및 내용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제8절 최저 교양·오락비

1. 최저 교양오락비의 개념 및 계측방법

가. 최저 교양오락비의 개념

교양오락은 사회 전체적인 속성이 아니라 개인적 수준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분산성으로 인해 소비품목 및 행위양태에 대한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고, 행위의 결과 또한 간접적이고 단기적이라는 측면에서 경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여가 및 교양오락 수준은 자아실현과 사회통합,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최저 교양오락수준은 국민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필수적인 소비행태와 최근의 여가 및 문화산업의 팽창, 문화상품에 대한 욕구의 일반적인 증가경향을 반영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저 교양오락비를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지닌 최소한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비용’으로 정의하고 이에 해당되는 주요 필수품으로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였다.

나. 기존 연구에서의 최저 교양오락비 계측방법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99년부터 2010년까지 계측했던 최저 교양오락비는 수용

가능한 수준 내에서 여가 및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를 부분적으로 반영하여 최저 교양 오락비를 산출하였다. 특히, 2004년 계측 당시에는 실태조사 및 각종 통계자료에 객관적으로 제시된 품목별 보유 및 사용실태, 탄력성을 기초로 문화상품에 대한 소비욕구와 행태를 반영하여 최저 교양오락비 마켓 바스켓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신규 9개 항목(컴퓨터 등), 제외 2개 항목(일간신문 등) 등으로 인해 최저 교양오락비에 반영된 필수품의 수가 1999년 13개에서 2004년 20개 항목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2004년 최저 교양오락비는 연구진안을 기준으로 28,945원으로 1999년 대비 45.3% 증가한 바 있다. 그러나, 2007년과 2010년 계측 당시에는 유선방송에 대한 필수품 추가 여부가 집중 검토되었으나 전문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되었으며, 일부 품목에 대한 가격조정 등에 그쳐 증가율 및 최저생계비에서의 구성 비중이 정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계측을 위해 발표하고 있는 15~29세의 단신근로자 대상 생계비에서는 최저 교육비와 교양오락비를 함께 계측하고 있다. 또한, 표준생계비를 매년 계측해 발표하고 있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모두 근로자가구의 교양오락비 지출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반영하여 측정하고 있는데 경조사비 등이 포함된 최저 교양오락잡비 개념으로 광범위하게 측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계측하는 최저 교양오락비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마켓 바스켓은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교양오락비 구성항목은 영화관람, 스포츠시설 및 문화시설 이용, 도서구입, 비디오테이프 대여, 음악 CD 구입 등이며, 주로 비용은 통계청 가격을 반영하고 이용빈도는 조합원 생활실태조사 결과를 대체로 반영하고 있다. 교양오락잡비는 교양오락비와 잡비로 구분되어 있으며, 잡비에는 경조사, 손님접대, 술집, 여행, 고향방문비, 차값, 담배값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부 교양오락용품기구 품목의 경우에는 가구가사용품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 본 연구에서의 최저 교양오락비 계측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2004년, 2007년,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 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최저 교양오락비를 계측하고 있다. 표준가구의 최저 교양오락비 마켓 바스켓 구성을 위해서 생활실태조사 및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필수품을 선정하여 추

가하고, 기존 품목의 사용량, 내구연수, 가격을 조정하였다. 본 연구의 최저 교양오락비 하위 영역은 통계청의 중분류 기준에 따라 ‘서적 및 인쇄물 - 교양오락용품기구 - 교양오락서비스’로 구분되며, 영역별로 필수품을 선정하여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였다.

2. 최저 교양오락비 계측결과

가. 마켓 바스켓 구성

최저 교양오락비의 범주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통계청의 중분류 기준에 따라 ‘서적 및 인쇄물’ - ‘교양오락용품기구’ - ‘교양오락서비스’로 구분되며, 각 영역별 필수품을 선정하여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였다.

2010년 최저 교양오락비와 비교할 때 가장 큰 특징은, 2007년, 2010년에 이어 필수품으로 유선방송 수신료를 마켓 바스켓에 추가한 것이다. 두 차례 최저생계비 계측 당시, 연구진(안)으로 제안된 유선방송의 경우 전문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된 바 있으나, 이번 연구에서 2012년 말 아날로그 방송 종료 및 디지털 방송 전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최근 유선방송 가입실태에 대한 근거자료를 보완하여 마켓 바스켓에 반영하였다.

유선방송 이외에도 아동용 CD를 추가하여 2개 품목이 신규로 추가되었으며, 디지털방송 전환 등의 환경 변화와 생활실태 변화 등을 반영하여 디지털 TV 및 디지털카메라로 필수품을 통합 조정하는 과정에서 비디오, 비디오테이프 대여, 필름 등 3개 품목이 제외되어, 최저 교양오락비 마켓 바스켓 구성 항목은 2010년 19개에서 2013년 18개 품목으로 감소하였다.

1) 필수품 선정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2010년 최저 교양오락비를 구성하고 있는 필수품 항목을 기준으로, 국민생활실태조사 및 다양한 통계자료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품목별 보유 및 사용실태(문화상품에 대한 소비욕구와 행태 및 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였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7년, 2010년에 이어 유선방송 수신료를 마켓 바스켓에 추가하였는데, 2012년 말 아날로그 방송 종료 및 디지털 방송 전환에도 불구하고 생활실태조사에서 분석된 전 국민과 저소득층의 유선방송 가입실태는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유선방송 수신의 경우, 지난 2010년 및 2013년 「국민생활실태조사」 기초조사 및 심층조사에 의한 가입비율 변화 추이를 토대로 최저 교양오락비 신규 품목으로 추가 구성하였다. 기초조사의 경우, 전 가구 유선방송 가입비율이 지난 3년 동안 약 4.1%p('10) 87.9% → ('13) 92.0%) 증가하였으며, 표준가구인 4인 가구를 중심으로 분석한 심층조사 결과에서는 유선방송 가입비율이 지난 3년 동안 약 2.6%p('10) 89.3% → ('13) 9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 12월말 아날로그 방송 중단에 대비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저소득층 디지털 전환 지원방안 연구'(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전파진흥원 공동) 및 국회 공청회(2009.11)에서 발표된 '취약계층 TV 보유 및 시청행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의 약 75%가 아날로그 케이블을 통해 TV를 시청하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 직접 수신가구 비율은 약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2007년과 2010년에 이어서 다시 유선방송 수신료를 2013년 최저생계비의 최저 교양오락비 구성 필수품으로 추가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밖에 아동용 CD의 경우, 표준가구의 가족 구성 및 가구원에 따른 소비행태를 고려하여 기존 성인용 CD 1개에 아동용 CD 1개를 신규로 추가하였다.

한편,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최저 교양오락비 필수품 선정과정에서 디지털 전환정책(아날로그 방송 중단) 및 관련 소비실태를 반영하여 TV 규격을 브라운관 TV에서 디지털 TV로 조정하였으며, 이와 연계하여 사회변화에 따라 실질적으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비디오'와 '비디오테이프 대여' 품목을 필수품에서 제외하였다. 카메라 역시 최근의 소비행태를 반영하여 필름 카메라를 디지털 카메라로 전환하면서 '필름' 품목을 제외하고, '사진 현상' 품목을 디지털사진 현상으로 조정하였다.

2) 사용량 및 내구연수 결정방법

2013년 최저생계비의 최저 교양오락비는 기본적으로 2010년 마켓 바스켓을 구성했던 품목별 사용량 및 내구연수를 바탕으로, 국민생활실태조사 및 다양한 통계에 제

시된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조정하였다.

내구연수를 조정한 품목은 없었으나, 2013년 최저 교양오락비 계측 과정에서 4개 품목의 사용량을 상향 조정하였다. 최근 문화향유에 대한 실태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영화관람(성인/아동)의 경우 각각 연간 1회에서 2회로 상향 조정하고, 여행 및 문화시설 관람의 경우 연간 2회에서 분기별 1회(연간 4회)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증명사진 촬영의 경우, 표준가구(4인)의 구성을 고려하여 가구원 대상 증명사진 촬영을 5년간 1회에서 2회로 상향 조정하였다.

3) 가격 결정방법

최저 교양오락비 마켓 바스켓 품목별 가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하였다. 필수품 가운데 기본적으로 중저가로 규격이 일치하는 품목에 대해서 통계청 물가지수 변화를 반영하여 가격을 조정하였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시장가격조사 및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의 결과가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하여 반영하였다. 특히, 최저 교양오락비 품목별 가격의 경우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가격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2010년 최저생계비의 품목별 가격을 기초로 실태조사 및 각종 통계에 제시된 품목별 가격 및 지출금액 등의 자료를 반영하여 2013년 최저 교양오락비 계측 과정에서 총 11개 품목의 가격을 조정하였다. 도서(성인/아동), 카메라, 완구, 영화관람(성인/아동), 증명사진 등 7개 품목의 가격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TV, 컴퓨터, 여행 및 문화시설 관람, 사진현상 등 4개 품목은 하향 조정하였다.

나. 표준가구의 최저 교양오락비 마켓 바스켓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에 의해 연구진에서 제시한 2013년 최저생계비의 최저 교양오락비 마켓 바스켓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3년 최저 교양오락비 마켓 바스켓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저 교양오락비 마켓 바스켓 구성 품목은 유선방송과 아동용 CD 등 2개 품목이 신규로 추가되었으며, 디지털 환경 변화와 생활실태 변화 등을 반영하여 디지털 TV 및

디지털카메라로 필수품을 통합 조정하는 과정에서 비디오, 비디오테이프 대여, 필름 등 3개 품목이 제외되어, 2010년 19개에서 2013년 18개 품목으로 감소하였다.

〈표 5-8-1〉 표준가구의 최저 교양오락비(연구진안)

품목	지역구분	내구연수	사용량	가격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교양오락비 합계					35,418원	35,418원	35,418원
도서(성인)	전국	1년	1권	10,000원	833원	833원	833원
도서(아동)	전국	1년	4권	6,500원	2,167원	2,167원	2,167원
서적 및 인쇄물 소계					3,000원	3,000원	3,000원
텔레비전	전국	10년	1개	400,000원	3,333원	3,333원	3,333원
카세트라디오	전국	10년	1개	70,000원	583원	583원	583원
비디오	전국	-	-	-	0원	0원	0원
카메라	전국	10년	1개	100,000원	833원	833원	833원
컴퓨터	전국	6년	1개	540,000원	7,500원	7,500원	7,500원
프린터	전국	10년	1개	60,000원	500원	500원	500원
프린터잉크	전국	1년	1개	7,000원	583원	583원	583원
필름	전국	-	-	-	0원	0원	0원
완구	전국	1년	4개	5,000원	1,667원	1,667원	1,667원
음악 CD(성인)	전국	1년	1개	12,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음악 CD(아동)	전국	1년	1개	10,000원	833원	833원	833원
교양오락용품가구 소계					16,832원	16,832원	16,832원
영화관람(성인)	전국	1년	4명	8,284원	2,761원	2,761원	2,761원
영화관람(아동)	전국	1년	4명	7,607원	2,536원	2,536원	2,536원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전국	1월	1회	2,500원	2,500원	2,500원	2,500원
유선방송	전국	1월	1회	4,400원	4,400원	4,400원	4,400원
여행 및 문화시설관람	전국	1년	4회	6,000원	2,000원	2,000원	2,000원
사진촬영	전국	5년	2회	11,679원	389원	389원	389원
사진현상	전국	1년	120장	1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비디오(DVD) 대여	전국	-	-	-	0원	0원	0원
교양오락서비스 소계					15,586원	15,586원	15,586원

〈표 5-8-2〉 최저 교양오락비 마켓 바스켓 신규 추가 품목

구 분	추가이유	마켓 바스켓 반영
CD(아동) (월 833원)	실태조사	○ 실태조사를 반영하여 CD(아동)를 추가하였으며, 시장조사 반영 가격을 산출함 (2013년 1년, 1개, 10,000원)
유선방송	실태조사	○ 실태조사 결과 가입비율 반영 ('10년 88% '13년) : 기초조사 87.9% 88% 92.0%, 심층조사 89.3% 88% 91.9% ○ 시장조사가격 반영: 의무형 월 4,400원

2010년 최저생계비와 비교해보면, 2013년 최저 교양오락비에서 내구연수를 조정 한 품목은 없었으나, 다음 4개 품목의 사용량을 상향 조정하였다. 영화관람(성인/아동)의 경우 각각 연간 1회에서 2회로 상향 조정하고, 여행 및 문화시설 관람 역시 연간 2회에서 분기별 1회(연간 4회)로, 증명사진 촬영의 경우 5년 간 1회에서 2회로 상향 조정하였다.

한편, 11개 품목에 대한 가격을 조정하였는데, 도서(성인/아동), 카메라, 완구, 영화 관람(성인/아동), 증명사진 등 7개 품목의 가격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TV, 컴퓨터, 여행 및 문화시설 관람, 사진현상 등 4개 품목은 하향 조정하였다.

〈표 5-8-3〉 최저 교양오락비 마켓 바스켓 사용량내구연수가격 조정 품목

구 분	변경 내용	변경 이유	마켓 바스켓 반영
도서(성인)	가격상향	시장조사	○ 시장조사 반영 상향조정 (2010년 9,823원 → 2013년 10,000원)
도서(아동)	가격상향	시장조사	○ 시장조사 반영 상향조정 (2010년 6,204원 → 2013년 6,500원)
텔레비전	가격통합, 가격하향	실태조사, 디지털TV 전환, 품목통합(비디오와 비디오테이프 제외)	○ 실태조사 반영 텔레비전을 디지털 TV로 전환함 ○ 비디오와 비디오테이프 대여를 제외하고 품목을 통합함 ○ 월 환산액 기준 2010년 3,861원(TV 2,167원+비디오 1,083원 +비디오테이프대여 611원)에서 2013년 3,333원으로 하향조정 (2010년 TV 260,000원, 비디오 130,000원, 비디오테이프 대 여 1,834원 → 2013년 디지털 TV 400,000원)
비디오	품목제외	실태조사, 디지털TV 품목통합	○ 실태조사 반영 비디오 제외하고 디지털 TV로 품목 통합함
카메라	가격통합, 가격상향	실태조사, 디지털카메라 전환, 품목통합(필름제외, 사진현상 디지털변경)	○ 실태조사 반영 카메라를 디지털카메라로 전환함 ○ 필름을 제외하고 사진현상을 디지털로 변경하여 품목을 통합함 ○ 월 환산액 기준 2010년 750원(카메라 333원+필름 417원)에서 2013년 833원으로 상향조정 (2010년 카메라 40,000, 필름 2,500원 → 2013년 100,000원)
컴퓨터	가격하향	시장조사	○ 시장조사 반영 하향조정 (2010년 551,000원 → 2013년 540,000원)
필름	품목제외	실태조사, 디지털카메라 품목통합	○ 실태조사 반영 필름을 제외하고 디지털카메라로 품목을 통합함
완구	가격상향	시장조사	○ 시장조사 반영 상향조정 (2010년 4,000원 → 2013년 5,000원)

구 분	변경 내용	변경 이유	마켓 바스켓 반영
영혼관람 (성인)	가격상향, 사용량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 통계청 소비자물가 반영 상향조정 ○ 사용량을 2010년 성인 2인 각 1회에서 2013년 성인 2인 각 2회로 상향조정 (2010년 8,169원 → 2013년 8,284원)
영혼관람 (아동)	가격상향, 사용량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 통계청 소비자물가 반영 상향조정 ○ 사용량을 2010년 아동 2인 각 1회에서 2013년 아동 2인 각 2회로 상향조정 (2010년 7,501원 → 2013년 7,607원)
여행 및 문화시설 관람	가격하향, 사용량상향	실태조사	○ 실태조사 반영 2010년 성인 3,000원, 아동 1,500원에서 2013년 성인 2,000원, 아동 1,000원으로 하향조정 ○ 사용량을 2010년 2회에서 2013년 4회(분기당 1회)로 상향조정 (2010년 9,000원 → 2013년 6,000원)
사진촬영	가격상향, 사용량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 통계청 소비자물가 반영 상향조정 ○ 사용량을 2010년 1회에서 2013년 2회로 상향조정 (2010년 10,533원 → 2013년 11,679원)
사진현상	가격하향 사용량조정	실태조사, 규격 및 속성변경	○ 디지털카메라로 품목이 전환됨에 따라 사진현상 규격 및 속성 변경 ○ 2010년 1년 2통에서 2013년 1년 120장으로 사용량조정 ○ 월 환산액 기준 2010년 1,179원에서 2013년 1,000원으로 하향조정 (2010년 7,073원 → 2013년 100원)
비디오테이프 대여	품목제외	실태조사, 디지털TV 품목통합	○ 실태조사 반영 비디오테이프 대여를 제외하고 품목을 통합함

3. 다른 연구와의 비교

2013년 최저 교양오락비를 2010년 당시 계측 결과와 비교해보면, 마켓 바스켓 구성항목은 신규 추가 2개, 제외 3개 항목으로 총 19개에서 18개로 감소하였다. 2013년 표준가구를 기준으로 계측된 최저 교양오락비는 35,418원으로, 2010년(27,117원)과 비교하면 8,301원(30.6%) 증가한 결과이며, 지난 두 차례 계측에서 쟁점이 되었으나 반영되지 못했던 유선방송을 제외하면 3,901원(1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3년 표준가구 기준으로 계측된 최저 교양오락비 35,418원(유선방송 제외 31,018원)은, 2013년 현행 최저생계비의 비목별 구성 비율을 반영한 최저 교양오락비 29,382원과 비교해보면 유선방송 포함 시 6,036원(20.5%), 유선방송 제외 시 1,636원(5.6%) 증가한 결과이다.

한편, 다른 연구에서 계측된 최저 교양오락비와 비교해보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하는 15~29세 단신근로자의 교육 및 교양오락비는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발표하는 표준생계비의 최저 교양오락잡비와 비교해보면, 2012년 민주노총의 경우 493,667원, 2013년 한국노총의 경우 425,315원

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으며 전체 표준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9.4%와 8.1%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비해 최저생계비의 최저 교양오락비는 두 기관이 발표하는 표준생계비와는 분명하게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표 5-8-4〉 타 연구의 교양오락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

(단위: 원, %)

구분	최저 교양오락비 ¹⁾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 ²⁾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13 최저생계비(안)	-	35,418	35,418	35,418	-	2.0	2.2	2.3
2010 최저생계비	-	-	27,117	-	-	-	1.9	-
2007 최저생계비	-	-	24,062	-	-	-	2.0	-
2004 최저생계비	-	-	24,961	-	-	-	2.3	-
1999 최저생계비	-	-	19,917	-	-	-	2.2	-
2013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³⁾⁴⁾	425,315	-	-	-	8.1	-	-	-
2012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⁵⁾	493,667	-	-	-	9.4	-	-	-

주: 1) 1999년, 2004년, 2007년, 2010년의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식적인 최저생계비임

2) 1999년~2010년의 경우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중소도시(전세) 기준. 2013년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전세 기준

3) 2013 한국노총: 가구주(40세), 배우자(37세), 11세(초), 9세(초), 아파트/자가 기준

4)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에는 기타소비지출 품목이 포함되어 교양오락·잡비로 구분됨.

5) 2012 민주노총: 가구주(40세), 배우자(35세), 여아(8세, 초등학교), 남아(6세, 유치원생), 아파트/자가 기준

자료: 김미곤 외(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2005),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김미곤 외(2007),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여유진 외(2010),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총(2013), 『2013년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민주노총(2012), 『2012년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해설』.

제9절 최저 교통·통신비

1. 최저 교통·통신비의 개념 및 계측방법

가. 최저 교통·통신비의 개념

교통·통신비는 타인과의 일상적인 의사소통 및 경제활동, 사회적 교류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다.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교통수단(통근, 통학, 외출 등을 위한 대중교통 및 자가용 등) 및 통신수단(가족, 지인, 타인 간 의사소통을 위한 전화, 휴대폰, 인터넷 등)의 활용 빈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교통·통신비는 현

대사회에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적인 비용이 되고 있다(김미곤 외, 2010: 212). 본 연구에서 최저 교통·통신비는 일상적인 경제활동, 사회적 교류를 위한 교통수단 및 통신수단 이용에 대한 최소 비용으로 정의⁸⁵⁾한다.

나. 기존 연구에서의 최저 교통·통신비 계측방법

교통·통신비를 계측한 기존 연구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6차례에 걸쳐 수행한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안창수 외, 1989; 박순일 외, 1994; 김미곤 외, 1999; 김미곤 외, 2005; 여유진 외, 2007; 김미곤 외, 2010)가 있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도 표준생계비 계측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교통·통신비 계측방식에 대해 김미곤 외(2010)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미곤 외(2010)에서는 교통·통신비 계측에 앞서 4인 표준가구 구성을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가구주(40세)는 최저임금을 받으며 중소기업에서 주 5.5일제 근무하는 근로자로 가정하고, 배우자(37세)는 가사노동을 하는 주부, 그리고 자녀 2인(11세 남, 9세 여)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가정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표준가구는 교통수단으로 시내버스⁸⁶⁾를 이용하고, 통신수단으로 일반전화와 휴대전화,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필수품의 사용량 및 내구연수는 대체로 2004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별도로 산정하였다. 가격은 외부적으로 주어진 가격(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등),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2010. 1.)를 반영하였고, 서비스 제공업체가 다수인 경우는 대표값(최빈, 중위, 평균)을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준가구의 월평균 교통·통신비는 143,920원으로 산정되었다.

한국노총(2013)의 4인 가구 교통·통신비는 교통수단(버스, 택시, 자가용 등)과 통신수단(가정용 전화, 이동전화, 초고속통신, 우편 등)을 이용하는 비용으로 구성된다. 첫

85) 최저교통통신비 = 교통비(시내버스, 택시, 고속버스) + 통신비(집전화, 이동전화, 인터넷).

86) 기본적인 교통수단은 지역적 제약이 있는 전철 대신 전국적으로 이용가능한 버스로 설정하였다. 더불어 기본적인 교통수단 외에 필요한 교통수단으로 택시(위급상황이나 버스 이용이 곤란한 경우), 시외(고속)버스(고향 및 친지방문)를 포함하였다(여유진 외, 2007:359).

째, 교통비의 경우 시내버스는 배우자가 월 14회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중고등학생 자녀는 월 52회 이용하는 것으로 각각 가정한다. 가구주의 주된 교통수단은 시내버스가 아닌 자가용이기 때문에 자가용 구입 및 유지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택시비는 실태조사에 따라 모든 가구가 월평균 3회(중위값) 이용한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에 따라 월 교통비는 4인가구 I의 경우 월 553,278원으로 산정되었다. 둘째, 통신비의 경우 4인 가구에서 가정용 전화 요금체계에 2006년 표준생계비 모형의 전화 사용량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휴대전화비는 2대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제로 시장 지배 사업자(S사)의 일반요금제를 적용하여 각각 산정하였다. 또한 초고속통신이용비는 O사의 무약정 라이트요금 월 30,000원을 전 가구에 적용하고, 우편요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이렇게 산정된 월 통신비는 128,232천원이다. 따라서 4인 가구의 월평균 교통·통신비는 681,510원으로 산정되었다.

민주노총(2012)도 한국노총(2013)과 유사한 가정에 따라 4인 가구의 교통·통신비를 산정한다. 2009년 민주노총 조합원 생활실태조사에 따라 가장의 경우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배우자의 경우는 버스와 택시를 각각 18회, 4회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4인 가구의 월평균 교통비는 419,435원으로 산정되었다. 통신비는 일반전화, 이동전화, 인터넷 사용으로 구성하는데, 실태조사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통계청의 2011년도 「가계동향조사」의 4인 가구 통신비 166,676원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4인 가구의 월평균 교통·통신비는 586,114원으로 산정되었다.

다. 본 연구에서의 최저 교통·통신비 계측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2004년, 2007년,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 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최저 교통·통신비를 계측하고 있다. 먼저, 4인 표준가구의 경제 및 사회활동 상태에 대한 가정을 하였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표준가구가 대표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통신수단의 품목과 형태를 결정하였다. 셋째, 표준가구가 이용하는 교통 및 통신수단에 대한 내구연수, 단가, 사용량을 실태조사, 소비자물가지수, 시장가격조사 등에 기초하여 산출하였다.

2. 최저 교통·통신비 계측결과

가. 마켓 바스켓 구성

최저 교통·통신비는 통계청의 중분류 기준에 따라 ‘교통비’와 ‘통신비’로 구분하였으며, 각 영역별로 필수품을 선정하여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교통·통신비 마켓 바스켓 품목과 동일하게 19개 품목(교통비 5개, 통신비 14개)으로 구성하였다.

1) 필수품 선정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2010년 최저 교통·통신비를 구성하고 있는 필수품 항목을 기준으로, 국민생활실태조사 및 다양한 통계자료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품목별 보유 및 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였다. 통계청 2012년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계산된 품목별 탄력성이 0.5이하인 품목을 필수품으로 선정하였다. 교통수단 중 자전거 및 오토바이, 자동차, 전철, 기차(KTX 등), 국내항공 등은 필수적인 교통수단으로 삼기에는 한계⁸⁷⁾가 있었다. 통신수단의 경우 보급률이 높은 스마트폰은 과도하게 비싼 가격과 정서를 고려하여 금번 마켓 바스켓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2) 사용량 및 내구연수 결정방법

2013년 최저생계비의 최저 교통·통신비는 기본적으로 2010년 마켓 바스켓을 구성했던 품목별 사용량 및 내구연수를 바탕으로, 국민생활실태조사 및 다양한 통계에 제시된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조정하였다.

사용량을 조정한 항목은 가장출근용 시내버스이다. 주당 근로일 수, 지역사정, 외출빈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2011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상시근로

87) 자전거 및 오토바이의 경우 보유빈도가 낮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가장 출근용으로 선정한 자동차의 경우는 저소득층의 필수재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못하고 있어서 제외시켰다. 또한 전철은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기차는 시외버스로 거의 대체가 가능하고, 항공은 낮은 빈도에 따라 각각 필수품에서 제외하였다.

자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 40시간(주5일)제가 확대되면서, 2010년 연구의 주 5.5일 출근을 주 5일 출근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생겼다.

〈표 5-9-1〉 사업장 규모별 주40시간제 적용시기

사업장 규모	1,000인 이상	300~1,000인	100~300인	50~100인	20~50인	5~20인
적용시점	2004.7.1	2005.7.1	2006.7.1	2007.7.1	2008.7.1	2011.7.1

자료: 고용노동부(2010), 『주40시간제 도입매뉴얼』

국민생활실태조사(4인가구 심층조사)에서 가장의 주당 출근일수가 5.16일로 나왔고, 소득수준별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와 사업장 규모를 볼 때, 저소득층 가장의 경우 주5일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에 종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⁸⁸⁾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주 5일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월간 이용횟수는 50회에서 48회로 하향조정하였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표준가구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를 2010년까지는 자영업자로 가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임금근로자로 변경되어 농어촌지역 가구주의 출근회수를 월 16회에서 도시지역과 동일하게 월 48회로 상향조정하였다. 초등학생 자녀, 주부의 시내버스 사용량, 택시 사용량, 그리고 고향(친지)방문 횟수 등은 사용량을 조정할 만한 특별한 근거가 없어 2010년도 연구와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전화의 경우 전체 통화량은 2010년에 결정된 일반전화 23회(시내통화 15회, 시외통화 3회, 이동통신 통화 5회), 휴대전화 30회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휴대전화 보급률이 2010년 102.2%에서 2012년 12월 105.2%로 증가하고, 일반전화 보급률은 38.2%에서 35.8%로 감소하는 실태⁸⁹⁾를 반영하여 총 통화량(53회)의 구성비를 변경(일반전화 통화량을 줄이고 휴대전화 통화량을 늘리는)하는 방안과 일반전화 통화량(23회)의 구성비를 변경(시내, 시외 통화량을 줄이고 이동통신 통화량을 늘리는)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실태 변화의 크기가 사용량을 조정할 만큼 유의하게 크지 않다는 판단 하에 기존 수량을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

88) 2011년 한국복지패널조사를 이용, 중위소득 40% 미만의 가장의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자영업자가 50.4%, 일용직 임금근로자가 19.3%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들 가장의 사업장 규모를 보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율이 70.1%로 나타나고 있다.

89) 방송통신위원회(2013), 『유무선 통신서비스 가입자 현황』

3) 가격 결정방법

최저 교통·통신비의 가격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하여 결정하였다. 집전화, 휴대전화 및 인터넷 등의 기본요금, 부가세와 같이 외부적으로 단일한 가격이 주어진 경우 이를 반영하였다. 단, 가격이 단일하지 않은 경우, 즉 시장에 복수의 사업자가 제공하는 가격이 있는 경우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중 최저가격을 활용하였다. 나머지 품목들의 가격은 2010년 가격에 품목별 혹은 분류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결정하였다.

구체적인 가격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교통비의 경우 시내버스 단가는 전국에 1,092원을 적용하였으며, 택시 단가는 전국에 5,342원을 적용하였다. 고속버스 단가는 서울-대전 간 일반시외고속버스 요금인 9,600원을 적용하였다.

통신비의 경우 첫째, 집전화의 기본요금은 가입비형 집전화(K사)의 지역별(급지별) 기본료인 대도시(10급지 기준) 월 5,200원, 중소도시(7급지 기준) 월 4,000원, 농어촌(5급지 기준) 월 3,000원을 반영하였다. 집전화의 시내통화료(K사)는 1도수(3분기준 1통화) 39원을 반영하고, 시외통화료 및 이동통신에 건 통화료는 1도수에 261원을 반영하였다.⁹⁰⁾ 집전화요금의 부가세는 기본요금, 시내통화료, 시외통화료, 이동통신통화료의 합산금액의 10%를 적용하였다. 둘째, 휴대전화의 기본요금은 시장지배적 사업자(S사)의 기본요금 11,000원을 적용하였다. 2010년 12,000원에서 1,000원이 인화된 것을 반영하였다. 휴대전화의 사용요금은 1초당 1.8원을 기준으로 하여 1도수(3분기준 1통화)에 324원으로 산정하였다.⁹¹⁾ 휴대전화요금의 부가세는 기본요금, 사용요금의 합산액에 10%를 적용하였다. 휴대전화 가입비는 2010년과 동일한 수준인 100,000원, 휴대전화 가입비는 39,600원으로 산정하였다.

셋째, 인터넷 요금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K사)의 저가형 라이트 요금제(3년 약정 기준)를 적용한 월 25,500원으로 산정하였다.⁹²⁾ 인터넷 요금에 대한 부가세는 사용요금의 10%를 적용하고, 인터넷 이전비는 일반전화와 동시 가입시 면제되므로 별도로 산정하지 않았다.

90) 2013년 1월 현재 K사의 가입자 수 기준 시장점유율 82.7%(방송통신위원회, 유선 통신서비스 통계 현황)

91) 2013년 1월 현재 S사의 가입자 수 기준 시장점유율 50.4%(방송통신위원회, 유선 통신서비스 통계 현황)

92) 2013년 1월 현재 K사의 가입자 수 기준 시장점유율 43.9%(방송통신위원회, 유선 통신서비스 통계 현황)

나. 표준가구의 최저 교통·통신비 마켓 바스켓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에 의해 연구진에서 제시한 2013년 최저생계비의 최저 교통·통신비 마켓 바스켓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교통비는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90,254원이고, 통신비는 집전화 기본요금 차이에 따라 대도시 62,210원, 중소도시 60,890원, 농어촌 59,790원으로 산출되었다. 따라서 표준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가정한 중소도시의 최저 교통·통신비는 월 151,144원으로 산출되었다. 2010년 월 142,600원에 비해 8,544원 증가하였다.

〈표 5-9-2〉 표준가구의 최저 교통·통신비(연구진안)

중분류/품목	내구연수	수량	단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교통·통신비 합계				152,464	151,144	150,044
시내버스: 가장출근	1월	48회	1,092	52,416	52,416	52,416
시내버스: 주부외출	1월	12회	1,092	13,104	13,104	13,104
시내버스: 자녀외출	1월	12회	816	9,792	9,792	9,792
택시: 비상외출	1월	1회	5,342	5,342	5,342	5,342
고속버스: 친지방문	6월	1회	57,600	9,600	9,600	9,600
교통비 소계				90,254	90,254	90,254
집전화: 기본요금(대도시)	1월	1회	5,200	5,200	-	-
집전화: 기본요금(중소도시)	1월	1회	4,000	-	4,000	-
집전화: 기본요금(농어촌)	1월	1회	3,000	-	-	3,000
집전화: 시내통화료	1월	15회	39	585	585	585
집전화: 시외통화료	1월	3회	261	783	783	783
집전화: 이동통신통화료	1월	5회	261	1,305	1,305	1,305
집전화: 부가세	1월	1회		787	667	567
집전화: 전화기 이전비	6년	1회	10,000	139	139	139
집전화: 전화기 구입비	4년	1회	38,789	808	808	808
휴대전화: 기본요금	1월	1회	11,000	11,000	11,000	11,000
휴대전화: 사용요금	1월	30회	324	9,720	9,720	9,720
휴대전화: 부가세	1월	1회		2,072	2,072	2,072
휴대전화: 전화기 구입비	5년	1회	100,000	1,667	1,667	1,667
휴대전화: 이동통신 가입비	35년	1회	39,600	94	94	94
인터넷: 사용요금	1월	1회	25,500	25,500	25,500	25,500
인터넷: 부가세	1월	1회		2,550	2,550	2,550
통신비 소계				62,210	60,890	59,790

2013년 최저 교통·통신비 마켓 바스켓의 조정품목은 아래 표와 같다. 가장 출근용 시내버스 이용 횟수는 주 5일제 시행을 반영하여 2010년 50회에서 48회로 하향조정하였고, 농어촌지역 가장의 이용 횟수를 대도시, 중소도시와 동일하게 48회로 맞추었다. 시내버스와 택시 가격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상향조정하였고, 친지방문을 위한 시외버스는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상향조정하였다. 집전화기 요금은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상향조정하였으며, 휴대전화 가입비는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하향조정하였다.

〈표 5-9-3〉 최저 교통·통신비 마켓 바스켓 사용량내구연수가격 조정 품목

구 분	변경 내용	변경 이유	마켓 바스켓 반영
출근 (가장)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상향조정 (2010년 944원 → 2013년 1,092원) ※ 근거: 10년 대비 13년 시내버스 소비자물가지수 115.7 $944원 \times 1.157 \approx 1,092원$
	수량 하향	주5일제 반영	○ 주5일 근무 반영 하향조정 (2010년 50회(주5.5일근무) → 2013년 48회(주5일근무)) ※ 2010년 50회=출퇴근24회×2(왕복)+외출2회×2(왕복) 2013년 48회=출퇴근22회×2(왕복)+외출2회×2(왕복) ※ 주5.5일근무제 반영한 출퇴근일수: 1달평균주수(365일/12개월/7일)* 1주평균근무일수(5일)≈21.7262
외출 (주부)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상향조정 (2010년 944원 → 2013년 1,092원) ※ 근거: 10년 대비 13년 시내버스 소비자물가지수: 115.7 $944원 \times 1.157 \approx 1,092원$
외출 (자녀)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상향조정 (2010년 705원 → 2013년 816원) ※ 근거: 07년 대비 10년 시내버스 소비자물가지수: 115.7 $705원 \times 1.157 \approx 816원$
택시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상향조정 (2010년 5,156원 → 2013년 5,342원) ※ 근거: 07년 대비 10년 택시비 소비자물가지수: 103.6 $4,340원 \times 1.188 = 5,155.9 \approx 5,156원$
친지방문	가격 상향	시장조사	○ 시장조사 반영 상향조정 (2010년 52,200원 → 2013년 57,600원) ※ 근거: 서울-대전 고속버스요금(2010년 8,700원 → 2013년 9,600원) $9600 \times 3(\text{어른2, 아동2(50\%할인)}) \times 2(\text{왕복}) = 57,600원$
집전화요금- 전화기구 입비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상향조정 (2010년 36,732원 → 2013년 38,789원) ※ 근거: 10년 대비 13년 식품이의 소비자물가지수: 105.6 $36,732원 \times 1.056 \approx 38,789원$
휴대전화- 기본요금	가격하향	시장조사	○ 시장조사 반영 하향조정 (2010년 12,000원 → 2013년 11,000원) ※ 근거: 시장가격적 사업자 S사 휴대전화 표준요금제 기본요금 인하(2011.9.16.)

3. 다른 연구와의 비교

2013년 최저 교통·통신비를 2010년 당시 계측 결과와 비교해보면, 마켓 바스켓 구성항목은 변화 없이 수량과 가격을 일부 조정함에 따라 최저 교통·통신비는 151,144원으로 2010년 142,600원에 비해 8,544원 증가하였다. 그러나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2010년 9.4%에서 9.2%로 감소했다. 이것은 통신비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항목의 시장가격이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하락(이동전화 가입비)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9-4〉 타 연구의 최저 교통·통신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

(단위: 원, %)

구분	최저 교통·통신비 ¹⁾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 ²⁾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13 최저생계비(안)	-	152,464	151,144	150,044	-	8.7	9.2	9.9
2010 최저생계비	-	-	142,600	-	-	-	10.2	-
2007 최저생계비	-	-	129,275	-	-	-	10.5	-
2004 최저생계비	-	-	102,564	-	-	-	9.3	-
1999 최저생계비	-	-	56,005	-	-	-	6.2	-
2013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³⁾	681,510	-	-	-	12.9	-	-	-
2012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⁵⁾	586,114	-	-	-	11.1	-	-	-

주: 1) 1999년, 2004년, 2007년, 2010년의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식적인 최저생계비임

2) 1999년~2010년의 경우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중소도시(전세) 기준, 2013년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전세 기준

3) 2013 한국노총: 가구주(40세), 배우자(37세), 11세(초), 9세(초), 아파트/자가 기준

4)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에는 기타소비지출 품목이 포함되어 교양오락·잡비로 구분됨.

5) 2012 민주노총: 가구주(40세), 배우자(35세), 여아(8세, 초등학교), 남아(6세, 유치원생), 아파트/자가 기준

자료: 김미곤 외(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2005),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김미곤 외(2007),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여유진 외(2010),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총(2013), 『2013년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민주노총(2012), 『2012년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해설』.

다음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발표하는 표준생계비의 최저 교양오락잡비와 비교해보면, 2012년 민주노총의 경우 586,114원, 2013년 한국노총의 경우 681,510원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으며 전체 표준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12.9%와 11.1%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두 노총의 표준가구의 최저 교통·통신비가 상당히 높

은 것은 자가용 구입 및 유지비가 교통비에 포함되며, 한국노총의 경우는 휴대전화 2대와 우편요금에 통신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10절 최저 기타소비지출

1. 최저 기타소비지출의 개념 및 계측방법

가. 최저 기타소비지출의 개념

최저 기타소비지출은 앞서 마켓 바스켓을 구성했던 식품,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주요한 항목 이외에 그 사회의 성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수준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최저 기타소비지출의 마켓 바스켓은 최소한의 위생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부분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체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 등으로 구성된다.

나. 기존 연구에서의 최저 기타소비지출 계측방법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기존 연구에서는 통계청「가계동향조사」자료의 품목별 탄력성과 실태조사의 보유현황, 지출빈도, 금액,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과 품목의 성격을 참고하여 필수품을 결정하였으며, 사용량 및 내구연수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여 가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가격은 중(하)품을 기준으로 통계청 물가자료 및 시장가격조사의 대표값을 활용해서 결정하여, 총 28개 품목으로 최저 기타소비지출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였다.

2013년 한국노총에서는 ‘표준 생계비 산출을 위한 조합원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비목을 구성하고, 매년 전국 대표성을 띤 지역 재래시장 및 대형유통점을 대상으로 소비자물가조사를 기초로 기타소비지출을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기타소비지출을 별도 항목으로 분류하지 않고, 기타소비지출을 구성하는 각 품목을 그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위생비, 피복신발비, 가구가사용품비, 교양오락잡비로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이미용

품, 이미용서비스는 보건위생비에, 장신구는 피복신발비에, 그리고 잡비는 교양오락잡비에 포함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다만, 화장품의 경우 기초화장에 해당하는 품목을 포함하고 있는 본 연구에 비해 훨씬 다양한 품목들을 포함하고 있고, 기타 다른 품목의 사용량 및 기준금액이 대체로 더 크다는 특징이 있다.

2012년 민주노총에서는 조합원 생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품목과 지출형태를 결정하며, 자체 물가조사결과와 부분적으로 정부 물가지수를 사용하여 가격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와 마찬가지로 별도 기타소비지출 분류를 두지 않고, 해당 품목들이 보건위생비, 가구가사집기비, 교양오락비 등 다양한 비목으로 분산되어 있다. 또한 한국노총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보다 많은 품목을 포함하고 있다.

다. 본 연구에서의 최저 기타소비지출 계측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2004년, 2007년,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 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타소비지출을 계측하고 있다. 기타소비지출의 하위 영역은 2010년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통계청의 중분류 기준에 따라 이미용품, 이미용서비스, 장신구, 잡비로 구분되며, 각 영역별로 필수품을 선정하였다. 먼저 품목 결정은 필수품 선정원칙에 따라 결정하였다.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보편적인 항목을 포함하였고, 통계청 자료로 이용할 수 없는 항목들은 「생활실태조사」결과를 이용하였다. 또한 각 항목이 성인, 아동의 구분이 필요할 경우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 결과 2010년에 비해 추가되거나 제외된 품목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또한 필수품의 내구연수와 사용량도 특별한 변화요인을 발견하지 못하여 기존의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2. 최저 기타소비지출 계측결과

가. 마켓 바스켓 구성

최저 기타소비지출은 통계청의 중분류 기준에 따라 ‘이미용품’, ‘이미용서비스’, ‘장신구’, ‘잡비’로 구분하였으며, 각 영역별로 필수품을 선정하여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교통·통신비 마켓 바스켓 품목과 동일하게 28개 품목(이

미용품 14개, 이미용서비스 4개, 장신구 5개, 잡비 5개)으로 구성하였다.

1) 필수품 선정방법

필수품은 통계청 2012년 「가계동향조사」의 품목별 탄력성을 이용하여 탄력성이 0.5이하인 품목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탄력성이 0.5보다 큰 품목 중에서도 필수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목욕, 이발 등의 품목은 위생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해 포함시켰다. 또한 탄력성이 0.5보다 작더라도 최저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담배 등 품목은 필수품에서 제외하였다. 추가적인 판단이 요구되거나 세부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탄력성 판단이 어려운 품목들은 「국민생활실태조사」의 보유현황, 지출빈도, 금액, 가계지출 대비 비중 등과 품목의 성격을 참고하여 필수품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2) 사용량 및 내구연수 결정방법

사용량과 내구연수는 실태조사를 참조하여 의식과 실태의 변화가 없는 경우 2010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실과 비교하여 사용량과 내구연수가 이전 연구에서 지나치게 과소측정 되어있는 경우는 실태조사 및 기존연구의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기타소비지출을 구성하는 몇몇 품목들은 가법적인 방법으로 사용량 및 내구연수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품목은 「국민생활실태조사」의 표본수를 1개월간 구입가구수로 나눈 값을 참고하였다. 이 경우 일반적인 조사 결과보다는 내구연수를 길게 설정하고, 사용량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였다. 경조사비 등 잡비는 「국민생활실태조사」의 대푯값(최빈, 중위, 평균값)을 참조하여 보통의 경우 실태조사의 대푯값보다는 낮게 내구연수를 결정하였다.

3) 가격 결정방법

품목별 가격은 중(하)품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소비자물가지수의 품목별 지수를 적

용하여 산정하였다. 경조사비 등 잡비와 같이 통계청 자료에 없는 품목의 경우는 「국민 생활실태조사」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참조하여 가격을 결정하였다.

나. 표준가구의 최저 기타소비지출 마켓 바스켓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에 의해 연구진에서 제시한 2013년 최저생계비의 최저 기타 소비지출 마켓 바스켓은 다음과 같다.

〈표 5-10-1〉 표준가구의 최저 기타소비지출(연구진안)

중분류/품목	내구연수	수량	단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타소비지출 합계				90,237	90,237	90,237
첫술(성인용)	4월	4개	1,551	1,551	1,551	1,551
치약	1월	1개	1,355	1,355	1,355	1,355
비누	1월	2개	1,158	2,316	2,316	2,316
삼푸	2월	1통	6,556	3,278	3,278	3,278
스킨로션(여성용)	6월	1개	15,200	2,533	2,533	2,533
밀크로션(여성용)	6월	1개	15,540	2,590	2,590	2,590
스킨로션(남성용)	6월	1개	13,351	2,225	2,225	2,225
아동용로션	6월	1개	10,080	1,680	1,680	1,680
파운데이션	1년	1개	14,126	1,177	1,177	1,177
썬크림	1년	1개	10,802	900	900	900
립스틱	1년	1개	8,429	702	702	702
손톱깎기	5년	1개	1,584	26	26	26
면도기	1월	5개	217	1,085	1,085	1,085
머리빗	5년	2개	1,584	53	53	53
이미용품비 소계				21,471	21,471	21,471
목욕비	2월	4회	5,180	10,360	10,360	10,360
이발(남자 성인)	3월	2회	7,621	5,081	5,081	5,081
이발(남자 아동)	3월	2회	5,191	3,461	3,461	3,461
미용(여자 성인)	6월	1회	11,418	1,903	1,903	1,903
미용(여자 아동)	3월	1회	6,351	2,117	2,117	2,117
파마	6월	1회	34,530	5,755	5,755	5,755
이미용서비스비 소계				28,677	28,677	28,677
핸드백	4년	1개	31,669	660	660	660
가방(학생가방)	3년	2개	28,250	1,569	1,569	1,569
우산(3단)	3년	4개	6,582	731	731	731
손목시계(아날로그)	10년	2개	40,698	678	678	678
지갑	4년	2개	14,798	617	617	617
장신구비 소계				4,255	4,255	4,255

중분류/품목	내구연수	수량	단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경조비	1년	6회	30,000	15,000	15,000	15,000
교제비(가장)	1년	6회	15,000	7,500	7,500	7,500
친목단체비(배우자)	1년	2회	10,000	1,667	1,667	1,667
자녀 용돈(2인)	1월	2명	5,000	10,000	10,000	10,000
친지방문비(선물)	1년	2회	10,000	1,667	1,667	1,667
합비 소계				35,834	35,834	35,834

2013년 최저 기타소비지출 마켓 바스켓의 조정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품목과 이용량, 내구연수는 2010년과 동일하게 유지하였고, 가격만 해당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조정하였다.

〈표 5-10-2〉 최저 기타소비지출 마켓 바스켓 사용량내구연수가격 조정 품목

구 분	변경 내용	변경 이유	마켓 바스켓 반영
치솔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소비자물가지수(105.3) 반영 상향조정 (2010년 1,473원 → 2013년 1,551원)
치약	가격 하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소비자물가지수(90.3) 반영 하향조정 (2010년 1,500원 → 2013년 1,355원)
비누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소비자물가지수(115.8) 반영 상향조정 (2010년 2,000원 → 2013년 2,316원)
삼푸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소비자물가지수(101.0) 반영 상향조정 (2010년 3,246원 → 2013년 3,278원)
스킨로션 (여성)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소비자물가지수(102.7) 반영 상향조정 (2010년 2,467원 → 2013년 2,533원)
밀크로션 (여성)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소비자물가지수(105.0) 반영 상향조정 (2010년 2,467원 → 2013년 2,590원)
스킨로션 (남성)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소비자물가지수(102.7) 반영 상향조정 (2010년 2,167원 → 2013년 2,225원)
아동용로션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소비자물가지수(105.0) 반영 상향조정 (2010년 1,600원 → 2013년 1,680원)
파운데이션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소비자물가지수(109.5) 반영 상향조정 (2010년 1,075원 → 2013년 1,177원)
썬크림	가격 하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소비자물가지수(99.1) 반영 하향조정 (2010년 908원 → 2013년 900원)
립스틱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소비자물가지수(106.7) 반영 상향조정 (2010년 658원 → 2013년 702원)
손톱깎기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소비자물가지수(105.6) 반영 상향조정 (2010년 25원 → 2013년 26원)

구 분	변경 내용	변경 이유	마켓 바스켓 반영
면도기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소비자물가지수(108.7) 반영 상향조정 (2010년 1,000원 → 2013년 1,085원)
머리빗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소비자물가지수(105.6) 반영 상향조정 (2010년 50원 → 2013년 53원)
목욕비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소비자물가지수(113.8) 반영 상향조정 (2010년 9,104원 → 2013년 10,360원)
이발 (남자 성인)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소비자물가지수(105.7) 반영 상향조정 (2010년 4,807원 → 2013년 5,081원)
이발 (남자 아동)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소비자물가지수(105.7) 반영 상향조정 (2010년 3,274원 → 2013년 3,461원)
미용 (여자 성인)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소비자물가지수(115.1) 반영 상향조정 (2010년 1,653원 → 2013년 1,903원)
미용 (여자 아동)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소비자물가지수(115.1) 반영 상향조정 (2010년 1,839원 → 2013년 2,117원)
파마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소비자물가지수(115.1) 반영 상향조정 (2010년 5,000원 → 2013년 5,755원)
핸드백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소비자물가지수(112.5) 반영 상향조정 (2010년 586원 → 2013년 660원)
가방 (학생가방)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소비자물가지수(113.0) 반영 상향조정 (2010년 1,389원 → 2013년 1,569원)
우산(3단)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소비자물가지수(109.7) 반영 상향조정 (2010년 667원 → 2013년 731원)
손목시계 (아날로그)	가격 하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소비자물가지수(96.9) 반영 하향조정 (2010년 700원 → 2013년 678원)
지갑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소비자물가지수(105.7) 반영 상향조정 (2010년 583원 → 2013년 617원)

3. 다른 연구와의 비교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계측된 2013년 최저 기타소비지출은 지역구분과 관계없이 90,237원으로 2010년 86,072원에 비해 4,165원이 증가하였고, 전체 최저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중소도시 기준 5.9%에서 5.5%로 감소하였다.

한국노총(2013)과 민주노총(2012)의 경우 본 연구에서의 기타소비지출 품목들은 보건위생비, 교양오락비 등에 포함되어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화장품 등 이 미용품의 구성이 다양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민주노총(2012)의 경우 남성용화장품, 아동용로션 및 영양크림, 콜드크림, 앳센스, 아이췌도우 등 본 연구보다 훨씬 많은 29종의 이미용품을 마켓 바스켓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한국노총(2013) 또한 남성화장품 및 콤팩트, 아이펜슬 등 화장품 13종, 화장지, 수건, 티슈 등 18종의 이미용품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두 노총의 경우 잡비에서 본 연구에 비해 많은 품목을 포함하고 단가와 이용량도 높게 책정하고 있어 최저 기타 소비지출 수준이 본 연구에 비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5-10-3〉 타 연구의 기타소비지출과 비교(4인 가구 기준)

(단위: 원, %)

구분	최저 기타소비지출 ¹⁾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 ²⁾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13 최저생계비(안)	-	90,237	90,237	90,237	-	5.1	5.5	6.0
2010 최저생계비	-	-	86,072	-	-	-	5.9	-
2007 최저생계비	-	-	75,260	-	-	-	6.1	-
2004 최저생계비	-	-	67,870	-	-	-	6.2	-
1999 최저생계비	-	-	52,679	-	-	-	5.8	-
2013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³⁾⁴⁾	-	-	-	-	-	-	-	-
2012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⁵⁾	-	-	-	-	-	-	-	-

주: 1) 1999년, 2004년, 2007년, 2010년의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식적인 최저생계비임

2) 1999년~2010년의 경우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중소도시(전세) 기준. 2013년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전세 기준

3) 2013 한국노총: 가구주(40세), 배우자(37세), 11세(초), 9세(초), 아파트/자가 기준

4)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에는 기타소비지출 품목이 포함되어 교양오락·잡비로 구분됨.

5) 2012 민주노총: 가구주(40세), 배우자(35세), 여아(8세, 초등학생), 남아(6세, 유치원생), 아파트/자가 기준

자료: 김미곤 외(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2005),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김미곤 외(2007),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여유진 외(2010),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총(2013), 『2013년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민주노총(2012), 『2012년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해설』.

제11절 비소비지출

1. 최저 비소비지출의 개념 및 계측방법

가. 최저 비소비지출의 개념

비소비지출이란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납부해야하는 세금 및 사회보장분담금을 의미하며, 가계의 유지와 경제·사회·문화 활동 등의 소비에 필요한 지출(소비지출)이외의 지출로 정의한다. 즉, 최저 비소비지출이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건전한 시민의식을 유지하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 및 사회보장분담금을 의미하며, 이를 바탕으로 최저 비소비지출의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였다.

나. 기존 연구에서의 최저 비소비지출 계측방법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전국민 대상 최저생계비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근까지 6차례(안창수 외, 1989; 박순일 외, 1994; 김미곤 외, 1999; 김미곤 외, 2005; 여유진 외, 2007; 김미곤 외, 2010) 계측되었다. 최저 비소비지출은 조세와 사회보장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세에는 근로소득세(소득분 지방소득세 포함), 균등할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를 포함하고, 사회보장부담금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포함한다. 사용량, 내구연수, 가격은 각 항목들에 해당하는 법률 및 조례에서 규정된 부과기준을 적용하였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세는 소득을 최저임금수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면세점 이하에 해당됨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없는 것으로 하였다.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부과되므로 지역별 세액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이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별로 행정구역을 다수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들 지역의 주민세를 평균으로 결정하였다. 재산세는 전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대표주거유형이 전세이므로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재산세의 경우 기존(2007년 이전)에는 도시지역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농어촌 지역은 가격조사를 통해 파악된 시세를 바탕으로 부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전국 전세로 설정하고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국민연금의 경우 도시(대도시, 중소도시)는 가구주가 임금근로자로 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요율을 적용하여 근로자의 부담액을 계산하였으며, 농어촌은 도시지역과 소득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되 농어민 국고지원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였다. 건강보험은 기존(2007년 이전)에는 건강보험료의 요율만 적용하였으나, 2010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부가 의무화되면서, 이에 대한 납부액도 추가 산출하여 건강보험료의 부담액을 계산하였다. 농어촌은 경우 최저임금의 소득과 전세보증금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농어촌 경감 및 농어업인 경감율을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의 경우 도시지역은 최저임금에 해당 요율을 적용한 반면, 농어촌은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분류하여 부과하지 않았다.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는 노동자들의 보편적인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생계비를 분석하였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는 비소비지출과 유사한 항목과 성질을 가지고 있는 조세공과금으로 표현하고 이를 조세, 사회보장부담금(분담금), 기타(비소비지출)로 구분하여 금액을 산출하고 있다. 한국노총의 경우 조세는 근로소득세, 주민세(소득할 및 균등할), 교육세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보장부담금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가 포함되고, 기타 비소비지출에서는 쓰레기봉투값, 노동조합비를 포함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경우 조세에는 근로소득세, 주민세(1,2), 재산세를 포함하고 있으며, 분담금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이 포함되고, 기타에는 노동조합비와 TV 시청료가 포함되어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미혼 단신근로자의 실태 생계비를 산출하여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위한 기초 자료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계측하였다. 비소비지출은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비영리단체로 이전, 가구간 이전 등 소비지출 및 자산구입이 아닌 금액으로 정의하고 조세, 사회보장부담금, 기타로 구분하여 계측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비소비지출을 계측하기 위해서는 마켓 바스켓을 구성할 적절한 항목의 선정하고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비소비지출의 항목들을 찾아내고, 조세 및 사회보장부담금의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 본 연구에서의 최저 비소비지출 계측방법

본 연구에서는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할 최소한의 조세의 종류 및 사회보장분담금을 파악하여 비소비지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을 구성하였으며,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¹⁾의 기준과 유사하게 구성하였다. 먼저, 조세에는 근로소득세(소득분 지방소득세 포함), 균등분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를 포함하고, 사회보장분담금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포함하였다. 균등분주민세는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였으나, 그 밖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경우는 전국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를 임금근로자로 설정하고, 주택유형을 아파트 전세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역별 차등을 두지 않았다. 소득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각 항목의 적용 요율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었으며, 이렇게 추정된 각 품목의 부담액을 합산하여 최저 비소비지출을 계측하였다.

2. 최저 비소비지출 계측결과

가. 마켓 바스켓 구성

1) 필수품 선정방법

최저 비소비지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품의 항목들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표준가구가 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사회보장분담금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2013년 1월 1일 개정된 법에 따라 필수품을 선정하였다.

2) 사용량 및 내구연수 결정방법

최저 비소비지출의 사용량과 내구연수는 각 항목별 법률과 조례에서 규정된 부과 및 납부기준에 의해 사용량과 내구연수를 결정하였다. 먼저 조세에 해당되는 근로소득세

(소득분 지방소득세 포함)는 월 1회 납부하며, 균등분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은 연 1회,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은 연 2회 납부하는 것으로 하였다. 사회보장분담금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부담금은 각각 월 1회 납부한다.

3) 가격 결정방법

본 연구에서 표준가구의 경제활동 상태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임금근로자'로 설정하였으며, 조세 및 사회보장분담금의 납부기준이 되는 소득은 2013년 최저임금인 1,015,740원⁹³⁾으로 하였다. 또한 표준가구의 대표 주거형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아파트 전세로 하였다.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가구주를 도시(대도시, 중소도시)와 동일하게 임금근로자로 선정하였다. 그 이유로는 농업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의 사업체 및 고용 구조가 변화하기 때문이다. 먼저 농어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1995년에 비해 2011년에는 38.9% 감소하였으며⁹⁴⁾, 2009년 기준 농업부문 종사자수는 2000년에 비해 26.5% 감소한 반면, 비농어업부문 종사자 수는 22.1% 증가하였다⁹⁵⁾. 또한 농어업 취업자 고용구조를 살펴보면, 농어촌에서 근로자(상용, 임

93) 201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이며, 일급기준(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38,880원이며, 월급기준은 주 40시간제인 경우 1,015,740원이다(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94) 연령별 농업 인구분포

(단위: 천명, %)

연도	농가 인구	14세 이하		15~19세		20~49세		50~59세		60세 이상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
1995	4,851	680	14.0	423	8.7	1,626	33.5	867	17.9	1,255	25.9	785	16.2
2000	4,031	459	11.4	262	6.5	1,301	32.3	676	16.8	1,333	33.1	876	21.7
2005	3,434	335	9.8	158	4.6	989	28.8	601	17.5	1,351	39.3	1,000	29.1
2006	3,304	315	9.5	144	4.4	896	27.1	601	18.2	1,348	40.8	1,018	30.8
2007	3,274	308	9.4	143	4.4	855	26.1	592	18.1	1,375	42.0	1,052	32.1
2008	3,187	288	9.0	133	4.2	796	25.0	584	18.3	1,386	43.5	1,060	33.3
2009	3,117	265	8.5	133	4.3	749	24.0	577	18.5	1,393	44.7	1,067	34.2
2010	3,063	270	8.8	133	4.3	793	25.9	587	19.2	1,279	41.8	973	31.8
2011	2,962	236	8.0	128	4.3	698	23.6	593	20.0	1,308	44.2	1,000	33.8

자료: 농림수산물부(2012), 『농림수산물품 주요통계』.

시, 일용)는 51.9%, 자영업자(고용주, 자영자 포함)는 34.9%로 근로자가 자영업자보다 비중이 높았다⁹⁵⁾.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농어촌 가구주의 경제활동 상태도 도시와 동일하게 임금근로자로 선정하였다.

한편, 1994년 최저생계비의 계측조사에서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소득을 추정하여 활용하였다. 그러나 소득을 추정하여 적용할 경우 사용하는 자료 및 방법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산출되고 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 비소비지출의 금액이 크게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적절한 세금 및 사회보험료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04년부터 도시지역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근무한다면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것으로 가정하고 최소한의 금액으로서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표준보수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이후 2007년과 2010년에도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최저 비소비지출을 산출하였다.

95) 농어촌 지역 사업체 종사자 수 변화

(단위: 천명,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비농업부문 종사자 수	2,507	2,500	2,557	2,620	2,698	2,582	2,726	2,885	2,948	3,061
농업부문 종사자 수	2,243	2,148	2,069	1,950	1,825	1,815	1,785	1,726	1,686	1,648
총 취업자 수	4,750	4,648	4,626	4,570	4,523	4,397	4,511	4,611	4,634	4,709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 재인용.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물주요통계』 재인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12』 재인용.

96) 농어촌 취업자의 고용 구조

(단위: %)

구분	농어촌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상용근로자	38.7	27.6	34.0	54.4	44.9	50.4
임시근로자	9.1	15.3	11.8	9.6	20.2	14.0
일용근로자	6.0	6.3	6.1	6.3	4.7	5.7
고용주	6.6	2.8	5.0	8.6	3.2	6.4
자영자	37.4	19.8	29.9	20.2	14.4	17.7
무급가족종사자	2.1	28.2	13.3	0.9	12.7	5.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고용정보원(2009),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재인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12』 재인용.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는 공식자료이며,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자료일 뿐만 아니라 기존에 논의한 결과이므로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에서도 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을 최저임금에 준하는 기준으로 가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세와 사회보장균등분의 품목별 가격 결정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근로소득세(소득분 지방소득세 포함)는 2013년 최저임금인 월 1,015,740원, 총 급여 약 1,219만원의 소득은 면세점 이하(부부 및 6세 이하 자녀 2명이 있는 4인가구의 근로소득 월 164만원, 총 급여 1,970만원은 면세점인 소득에 해당됨⁹⁷⁾)가 되므로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균등분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부과되므로 지역별 세액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균등분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세표에 의거하여 대도시(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3개 지역으로 구분한 후, 지역별 행정구역의 다수 지역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 평균값으로 계산하였다.

재산세(건물과 토지를 합산하여 부과, 지방교육세 포함)는 전국 주택 비소유로 인하여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산정하였다.

국민연금은 전국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이므로 주 40시간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 1,015,740원에서 1,00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에 4.5%의 요율을 적용하여 근로자의 부담액을 계산하였으며, 부담금의 10원 미만은 절사하였다.

건강보험은 최저임금의 2.945%를 적용한 건강보험료와 건강보험 부담액의 6.55%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험 부담액을 산출하였으며, 부담금의 10원 미만은 절사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은 전국 최저임금의 0.55%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부담금의 10원 미만은 절사하여 근로자의 고용보험 부담액을 산정하였다.

나. 표준가구의 최저 비소비지출 마켓 바스켓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계산된 2013년 최저 비소비지출(연구진안)은 대도시 83,571원,

97) 2012년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4인 가족(부부 및 6세 이하 자녀 2명) 세대의 과세대상 급여가 1,97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970만원, 인적공제 900만원, 표준공제 100만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없어 납부할 세액도 없는 것이다(국세청 보도자료, 2012.01.11).

중소도시 83,498원, 농어촌 83,516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중소도시 기준으로 전체 최저생계비 대비 최저 비소비지출의 비율은 5.1%로 나타났다(표 5-11-1 참조). 최저 비소비지출은 2010년 대비 조정된 품목, 사용량 및 내구연수 등이 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준 임금상승과 부담금 요율상승으로 납부금이 상승되었으며, 농어촌 가구주를 근로자로 변경함에 따라 사회보장분담금이 전국 동일하게 산출되었다(표 5-11-2 참조).

〈표 5-11-1〉 표준가구의 최저 비소비지출비(연구진안)

(단위: 원)

중분류/품목	내구연수	사용량	단가(원)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비소비지출 합계				83,571원	83,498원	83,516원
근로소득세 〈소득분지방소득세포함〉	1월	1회	0원	0원	0원	0원
균등분주민세 〈지방교육세포함〉	1년	1회	5,534원	461원	388원	406원
	1년	1회	4,658원			
	1년	1회	4,875원			
재산세〈건물과토지합산〉 〈지방교육세포함〉	1년	2회	0원	0원	0원	0원
조세 소계				461원	388원	406원
국민연금	1월	1회	45,670원	45,670원	45,670원	45,670원
건강보험	1월	1회	31,860원	31,860원	31,860원	31,860원
고용보험	1월	1회	5,580원	5,580원	5,580원	5,580원
사회보장분담금 소계				83,110원	83,110원	83,110원

〈표 5-11-2〉 비소비지출 사용량·내구연수·가격조정 품목

구분	변경 내용	변경 이유	마켓 바스켓 반영
균등분 주민세	가격조정	주민세표에 근거하여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세표에 의거하여 계산한 결과 (대도시 기준 2010년 475원 → 2013년 461원, 중소도시 기준 2010년 433원 → 2013년 388원, 농어촌 기준 2010년 429원 → 2013년 406원)
국민연금	가격상향 전국동일	기준 임금상승으로 인한 납부금 상승, 농어촌 가구주를 근로자로 변경함에 따라 전국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소득이 2010년 858,00에서 2013년 1,015,740원으로 상승 (도시 기준 2010년 38,610원, 농어촌 기준 2010년 41,670원 → 전국 기준 2013년 45,670원)
건강보험	가격상향 전국동일	기준 임금상승과 요율상승으로 인한 납부금 상승, 농어촌 가구주를 근로자로 변경함에 따라 전국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소득이 2010년 858,00에서 2013년 1,015,740원으로 상승 보험요율이 2010년 2.665%에서 2013년 2.945%로 상승 장기요양보험은 보험료의 6.55%로 동일 (도시 기준 2010년 24,390원, 농어촌 기준 2010년 23,460원 → 전국 기준 2013년 31,860원)
고용보험	가격상향 전국동일	기준 임금상승과 요율상승으로 인한 납부금 상승, 농어촌 가구주를 근로자로 변경함에 따라 전국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소득이 2010년 858,00에서 2013년 1,015,740원으로 상승 보험요율이 2010년 0.45%에서 2013년 0.55%로 상승 (도시 기준 2010년 3,860원, 농어촌 기준 2010년 0원 → 전국 기준 2013년 5,580원)

3. 다른 연구와의 비교

2013년 최저 비소비지출 금액을 2010년 계측된 결과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13년 최저 비소비지출의 항목은 2010년과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그러나 2013년에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를 임금근로자로 설정하고, 주택유형을 아파트 전세로 설정하여 균등분주민세를 제외하고 모든 세부항목에서 전국 동일하게 산출되었다. 2013년 최저 비소비지출은 중소도시 기준 83,498원으로 2010년 최저 비소비지출(67,293원) 대비 2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경우 비소비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항목을 조세공과금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구성항목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3년 한국노총의 비소비지출은 634,200원, 2012년 민주노총 비소비지출은 780,726원으로 본 연구의 중소도시 최저 비소비지출 83,498원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5-11-3〉 타 연구의 비소비지출과 비교(4인 가구 기준)

(단위: 원, %)

구분	최저 비소비지출 ¹⁾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 ²⁾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13 최저생계비(안)	-	83,571	83,498	83,516	-	4.8	5.1	5.5
2010 최저생계비	-		67,293		-		4.8	
2007 최저생계비	-		51,187		-		4.2	
2004 최저생계비	-		26,463		-		2.4	
1999 최저생계비	-		19,720		-		2.2	
2013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³⁾	634,200	-	-	-	11.6	-	-	-
2012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⁴⁾	780,726	-	-	-	13.9	-	-	-

주: 1) 1999년, 2004년, 2007년, 2010년의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식적인 최저생계비임

2) 1999년~2010년의 경우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중소도시(전세) 기준. 2013년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전세 기준

3) 2013 한국노총: 가구주(40세), 배우자(37세), 11세(초), 9세(초), 아파트/자가 기준

4) 2012 민주노총: 가구주(40세), 배우자(35세), 여아(8세, 초등학교), 남아(6세, 유치원생), 아파트/자가 기준
자료: 김미곤 외(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2005),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김미곤 외(2007),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여유진 외(2010),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총(2013), 『2013년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민주노총(2012), 『2012년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해설』.

제12절 표준가구의 지역별 최저생계비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표준가구의 지역별 최저생계비는 지금까지 정리된 (1절에서 11절까지) 11개 비목⁹⁸⁾에 대한 계측결과를 토대로 표준가구의 지역별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였다.

11개 비목별 최저 비용을 합산하여, 전물량 방식에 의한 2013년 지역별 최저생계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표준가구의 지역별 최저생계비는 연구진의 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논의과정을 통해 최종적인 2013년 공식적인 최저생계비가 제안될 것이며, 이는 다음 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지역별 최저생계비를 제시하기 위해 전물량 방식에 의해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였으며, 표준가구는 4인으로 세대구성은 42세 부(父)와 39세 모(母), 그리고 첫째아 12세(남)와 둘째아 10세(여)로 설정하였다. 지역구분은 기존 선행연구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고려하여 지역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였다. 지역별로 최저생계비 차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부문은 주거비로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에서는 표준가구의 지역별 대표 점유형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전세로 설정되었다. 이는 2010년과 동일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11개 비목별 최저 비용 계측을 위해 최저생계비 연구진은 최저생계비의 기본 개념에 부합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된 것을 고려하여 ‘건강성’, ‘문화성’, ‘최저성’의 개념에 기초하여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진은 전물량방식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연구자의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국민생활실태조사 진행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필수품, 사용량 및 내구연수 선정을 위해 경제·통계적 기법인 소득탄력성, Logistic 회귀분석을 시도하였고, 지역간, 가구유형간 필수품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ANOVA분석, T-Test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적, 주관적, 반물량에 의한 최저생계비 등 기존에 연구되어 왔던 거의 모든 방식을 이용하여 최저생계비의 계측하고 비교·분석하였으며 이는 본 보고서의 다른 장들에서 설명되고 있다.

98)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 비소비지출

〈표 5-12-1〉 표준가구의 지역별 최저생계비(연구진안)

(단위: 원, %)

구분	대도시 ¹⁾		중소도시 ¹⁾		농어촌 ¹⁾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식료품비	608,963	34.7	608,963	37.1	608,963	40.2
주거비	415,403	23.7	307,283	18.7	193,713	12.8
수도광열비	118,714	6.8	114,461	7.0	102,915	6.8
가구집기비	46,575	2.7	46,267	2.8	45,993	3.0
피복신발비	62,246	3.5	62,246	3.8	62,246	4.1
보건의료비	68,636	3.9	68,636	4.2	68,636	4.5
교육비	74,020	4.2	74,020	4.5	74,020	4.9
교양오락비	35,418	2.0	35,418	2.2	35,418	2.3
교통통신비	152,464	8.7	151,144	9.2	150,044	9.9
기타소비지출	90,237	5.1	90,237	5.5	90,237	6.0
비소비지출	83,571	4.8	83,498	5.1	83,516	5.5
합계	1,756,247	100.0	1,642,173	100.0	1,515,701	100.0
중소도시=100		106.9		100.0		92.3

주: 1)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주거점유형태는 전세를 기준으로 함.

〈표 5-12-2〉 최저생계비(연구진안)의 기존 최저생계비 대비 인상률

(단위: 원, %)

구분	2010(중앙생활보장위 의결안)			2013(행정적용 최저생계비)		
	금액	구성비	인상률 ²⁾	금액 ¹⁾	구성비	인상률 ²⁾
식료품비	527,327	37.7	15.5	582,992	37.7	4.5
주거비	221,374	15.8	38.8	244,331	15.8	25.8
광열수도비	103,150	7.4	11.0	114,434	7.4	0.0
가구집기비	40,547	2.9	14.1	44,846	2.9	3.2
피복신발비	57,649	4.1	8.0	63,402	4.1	-1.8
보건의료비	62,196	4.5	10.4	69,588	4.5	-1.4
교육비	65,930	4.7	12.3	72,681	4.7	1.8
교양오락비	27,117	1.9	30.6	29,382	1.9	20.5
교통통신비	142,600	10.2	6.0	157,733	10.2	-4.2
기타소비지출	82,305	5.9	9.6	91,238	5.9	-1.1
비소비지출	67,293	4.8	24.1	74,227	4.8	12.5
합계	1,397,488	100	17.5	1,546,399	100	6.2

주: 1) 2010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안의 구성비를 2013년 최저생계비에 적용하여 비목별 최저생계비를 산출한 결과임.

2) 기존 최저생계비 대비 2013년 최저생계비(연구진안)의 인상률임.

2013년 계측된 표준가구 비목별 최저 생계비를 합산한 수준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각각 1,756,247원, 1,642,173원, 1,515,701원으로 나타났다. 2010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식적 최저생계비 1,397,488원(중소도시 기준)과 비교시 지난 3년 동안 표준가구 최저생계비 증가율은 17.5%가 된다. 계측년도 최저생계비는 비계측년도와 달리 3년 동안의 물가 변화와 더불어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연구진안 중소도시 기준 최저생계비는 2013년 현재 행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546,399원보다 95,774원(6.2%) 증가한 금액이다. 동 증가 금액은 이미 설명한 것과 같이 전물량방식이 삶의 질 변화와 물가의 변화를 함께 반영하기 때문에 과거 3년간의 생활의 질 변화로 볼 수 있다. 행정 적용 최저생계비의 경우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 이후 소비자물가의 변화분 정도만을 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산출하였기 때문이다.

2013년 표준가구의 지역별 최저생계비를 차이는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할 때, 그 비율이 106.9 : 100.0 : 92.3로 계산할 수 있다. 이는 2010년 연구진안을 기초로 한 지역별 비율인 106 : 100 : 91 수준보다는 수도권은 격차가 증가하였으며, 농어촌은 격차가 감소한 것이다. 지난 계측년도에 비해 대도시는 증가하고 농어촌은 감소한 이유는 대표적으로 주거비(38.8%)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이는 2010년 이후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전세가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대내적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주거기준이 상향조정되어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 시 이를 반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비목이 2010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비용보다 증가하였는데 특히 크게 증가한 부문은 교양오락비(30.6%), 비소비지출(24.1%), 식료품비(15.5%), 가구집기(14.1%)비 등이다. 식료품비의 경우 표준가구의 가구연령이 증가하면서 2010년에 적용되던 표준가구 칼로리에 비해 약 500칼로리가 증가하였으며, 그동안 변동이 없었던 외식비와 가장 증식비용을 실태를 반영하면서 식료품비가 크게 증가하였다. 교양오락비 및 가구집기비에서는 신규 품목이 추가되고 교양오락비에서는 유선방송이 추가되었으며, 이외 도서와 문화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량이 증가되었다. 반면에 과거에 포함되었지만 현 실태를 반영하여 비디오, 비디오테이프 대여 및 필름은 제외하였다. 가구집기비에서는 청소기가 추가되었으며, 비소비지출은 외부적으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하게 되는데 그동안 최저임금 상승률을 반영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외에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를 비목별로 전체 최저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식료품비가 가장 높은 37.1%를 점유하고 있으며, 2010년 37.7%에서 낮아진 것으로 소득 상승에 따라 식료품에 대한 지출이 대비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주거비가 18.7%를 점유하고 있어 2010년 주거비의 비중이 15.8%와 비교시 크게 증가한 항목이라 볼 수 있다. 이미 설명한 것과 같이 2010년 최저주거비에 비해 2013년에는 전세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최저주거기준의 상향조정으로 인한 영향이 많이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최저생계비의 구성비가 2010년에 비해 상승한 비목은 가구집기비, 비소비지출 등이며, 하락한 비목은 광열수도비, 피복·신발비, 보건 의료비, 교육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 등이다.



제6장 2013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제1절 가구균등화지수

제2절 2013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제3절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제1절 가구균등화지수

1. 가구균등화지수의 개념과 정의

가계의 소비지출은 사회경제적인 요인과 가구구성원의 생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지역, 가구규모 및 가구구성원별로 차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소비지출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러한 소비지출 분석에서 가구규모 및 가구구성원의 특성에 따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가구의 복지 지표 분석에 유용한 지수가 바로 가구균등화 지수이다.

가구균등화지수(Household Equivalence Scale)는 서로 다른 인구사회학적 구성을 지닌 가구는 현실적으로 서로 다른 효용수준을 갖는다는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이러한 구성형태가 서로 상이한 가구들 간의 서로 다른 효용 수준을 동일한 효용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지출 비율을 말하며, 표준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들 간의 복지를 비교한 가구균등화지수와 표준성인을 기준으로 개별가구구성원간의 지출규모를 비교한 성인균등화지수(Adult Equivalence Scale)가 있다.

이러한 지수들은 특정가구 및 특정 연령층의 필요량과 지출액을 표준가구 또는 표준성인을 기준으로 각각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두 가구 A와 가구 B로만 구성된 단순한 경제가 있으며, 가구 A는 1인 가구이고, 가구 B는 2인가구라고 가정하자. 여기서 1인가구인 가구 A를 표본가구로 정하고 가구 A의 총소득이 x_A 원이며, 이에 따른 후생수준이 W_A 라 하자. 그리고 가구 B의 총소득이 x_B 원이고 이에 따른 후생수준이 W_B 라 하면, $W_A = W_B$ 가 될 수 있는 소득비율 x_B/x_A 가 균등화 지수가 된다. 일반적으로 균등화지수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값을 가진다. 이러한 균등화지수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1인가구를 기준으로 한 최저생계비가 P원으로 추계되었을 때 2인 이상의 가구, 예

를 들어 3인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얼마로 정해야 하는가? 만일 3인 가구 구성원수가 1인 가구의 3배이므로 최저생계비도 3배 수준인 3P로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규모의 경제효과, 즉 생필품을 가구원이 함께 나누어 쓰거나 공동주거로 주거비를 줄이는 등의 소비감소효과를 무시하는 결과가 생긴다. 또한 가구원의 나이에 따라 특히 성인과 어린이의 소비수준이 다르다. 이러한 가구 간 구성원 특성의 차이를 최저생계비 설정시 반영해야 한다.

표준가구를 기준으로 한 가구균등화 지수는 가구구성원의 성별, 연령별 특성을 반영하는 가중치를 통해 서로 다른 연령층으로 구성된 가구규모들 간의 복지를 비교한 것으로 영양학을 기초로 작성한 Amsterdam 모형(1954)에 의해 최초로 반영되었으며, Prais-Houthakker 모형(1955), Barten 모형(1964)에 의해 발전되었고, Deaton-Muellerbauer(1980)는 균등화 지수 개념을 일반화 하였다. 특히 Lluch(1973)은 지출함수개념을 확장된 선형지출체계(Expanded Linear Expenditure System)에서 개발된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이와 같이 가구원의 규모나 연령의 차이를 고려한 국내의 가구균등화지수에 대한 연구는 전광석, 전대영(1979)이 가구들 간의 생활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단위소비자척도(Unit Consumer Scale)에 대한 추정을 시도한바 있고, 유종구, 주학중(1986)은 Jorgenson-Slensnick모형(1984)에 기초하여 도시가구들의 일반화된 가구균등화지수(Generalized Household Equivalence Scale)를 추정하였다.

2. 가구균등화 지수의 계측방법

일반적으로 가구균등화 지수를 정의하면 주어진 가격 p 하에서 서로 다른 두 가구에 동일한 효용수준 U_0 이 주어졌을 때, 표준가구의 특성을 S_0 라 하고, 비교대상이 되는 가구의 특성을 S_h 라 하면, 가구균등화 지수는

$$ES = \frac{C(U_h, p, S_h)}{C(U_0, p, S_0)} = \frac{C_h}{C_0}$$

와 같다.

여기서 C_h, C_0 는 각 가구의 효용수준 U_h, U_0 에 도달할 수 있는 소비함수이며, 일반적으로 표준가구로서 4인가구의 소비함수를 기준소비함수 C_0 로 고려한다.

가구규모가 h 인 가구에 대한 표준가구(0)가 일정한 삶의 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상대비용을

$$A_h = \frac{C_h - C_0}{C_0}$$

라 하면 균등화 지수는 $1 + A_h$ 가 된다. 이때, A_h 는 자료로부터 추정되며, 이를 위해 삶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와 총 소비지출 및 가구의 특성변수사이의 관계를 도출해야 한다.

이러한 가구균등화지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필수 최소소비지출 접근법, 주관적 접근법, 가구 지출에 근거한 접근법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첫째, 필수 최소소비지출 접근법은 물질적으로 또는 사회문화적으로 최소한 섭취해야하는 필수영양분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주관적 접근법은 1960년대 네덜란드의 Leyden 대학에 의해 전개된 방법으로 각 가구의 소득에 대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방법은 각 가구의 생활정도에 대해 어느 수준에 해당하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값을 통해 여러 효용수준에 해당하는 비용함수를 추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석방법은 동일한 응답값을 갖는 가구는 비록 상이한 가구특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동일한 효용수준을 갖는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셋째, 지출에 근거한 접근법은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근거하여 서로 다른 가구의 소비지출을 측정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시선호에 근거한 방법이다.

3. 가구균등화 지수산출을 위한 기존의 연구방법

가. 가구지출승수모형

안창수 등(1989)이 1988년 최저생계비 연구에서 적용한 가구지출승수모형(가구균등화지수)의 가구지출승수는 표준가구에 대해 가구규모별 지출액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가구지출승수의 개념을 소비지출액과 비목별 지출액에 적용하면 소비지출액 및 비목별 지출액에 대한 가구지출승수를 구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이들은 저소득층 실태조사의 지출자료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모형을 통해 가구지출승수를 추정 후 이를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에 곱하여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추정하였다.

$$E = AX^\beta$$

이 식으로부터 양변에 자연대수 \ln 을 취하면 다음과 같이 선형화된 방정식으로 변형할 수 있다.

$$\begin{aligned}\ln(E) &= \ln(A) + \beta \ln(X) \\ &= \alpha + \beta \ln(X)\end{aligned}$$

이때 E 는 소비 지출액이며, X 는 가구규모, $\alpha = \ln(A)$ 와 β 는 추정할 회귀모수이며, 특히 β 는 가구규모(X)의 변화비율에 대한 소비 지출액(E)의 변화비율의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 가구규모에 대한 소비 지출액의 탄력성계수로서 $0 < \beta < 1$ 이면 가구규모에 대한 체감지출이 되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게 된다.

가구지출 승수의 정의에 따라 가구규모가 j 인 가구의 소비 지출액에 대한 가구지출 승수 M_j 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M_j = \frac{j \text{인 가구규모의 소비 지출액 추정치 } (C_j)}{\text{표준가구(4인 가구)의 소비 지출액 추정치 } (C_4)} = \left(\frac{j}{4}\right)^\beta$$

이 모형을 이용하여 최저생계비의 계측 방법은 소비지출에 대해 균등화지수를 추정 한 후 4인 가구 소비지출액에 가구균등화지수를 곱하여 가구규모별 소비지출액을 추정 한 후 이에 비소비지출을 더하여 최저생계비를 계측할 수 있다.

이 모형의 단점은 가구소득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모형설정 오류의 가능성이 존재 한다는데 있다.

나.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환산승수모형

일본의 인사원에서 산출하는 표준생계비 산출방식을 이용하여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회귀방정식에 의해 분석하고 있다(박영범 외, 1989).

$$E = aX^2 + bX + e$$

여기서 E 는 비목별소비지출액의 최빈값, a, b 는 회귀계수, X 는 가구원수(가구규모), e 는 오차항을 나타낸다.

박영범 외(1989)의 보고서에 의하면 생계비는 일반적으로 생활수준, 생활환경, 가구원수 등에 따라 변화하는데, 이 가운데 가구원수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 즉 가구원수간 생계비의 상관계수로서 계산되는 것이 이른바 생계비 환산승수(multiplier)이다.

환산승수(M_{ji})는 각 가구의 비목별로 추정되는데, 비목 i 의 환산승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M_{ji} = \frac{j \text{인 가구규모의 } i \text{ 비목의 지출액 최빈값 } (E_{ji})}{4 \text{인 가구의 } i \text{ 비목의 평균지출액 추정치 } (E_{4i})}$$

이때 분자의 가구규모별 비목별 소비지출액의 최빈값은 대수정규분포(log-normal)의 최빈값으로 구해진다(mod = $\exp(\mu - \sigma^2)$), μ 는 평균, σ^2 은 분산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환산승수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각 비목별 2인 가구부터 6인 가구까지의 최빈값을 조사 자료로부터 구하고, 각 비목별 회귀방정식을 이용하여 1인 취업가구 2~5인 가구 및 1인 가구 지출액을 추정한다. 그러면 각 비목별로 추정된 값을 1인 취업 4인 가구 평균 지출액을 나눈 값이 환산승수가 된다. 이때 분자는 각 비목별 지출액 최빈값, 분모는 4인 가구 평균 지출액으로 정의된다.

이 모형의 특징은 먼저 가구규모(X)가 0 이면 소비지출(E)도 0 이라는 판단 하에 절편이 없고, 가구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각 비목의 지출이 증가하되, 증가속도는 체감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일반적으로 a 는 부(-)의 값을 가지고, b 는 정(+)의 값을 가지면 바람직한 모형이 된다(배무기 외, 1987).

이 모형을 이용한 최저생계비 계측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비목별 균등화지수(환산승수)를 산출한 후, 이 승수를 적용하여 가구규모별 비목별 최저생계비를 산출하고, 이 값들과 비소비지출을 합산하여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계측한다.

이 모형이 내포하고 있는 단점은 설명변수에 가구의 소득이 포함되지 않고, 상수항을 모형에 대한 검증 없이 자의적으로 배제하여 모형설정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과 선행연구(배무기 외, 1987)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식료품비와 주거비를 제외한 다른 비목들은 2차 모형(quadratic model)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다. LICOs(Low Income Cut-Offs) 모형

캐나다의 경우 기본적인 필수품으로 간주되고 있는 식품비, 주거비, 의복비에 관한

지출과 소득, 가구규모, 도시규모, 지역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log 모형으로 설정하고 있다(Wolfson et. al, 1989).

$$\log E = a + b \log Y + \sum_i c_i FS_i + \sum_j d_j U_j + \sum_k e_k R_k + \epsilon$$

단 여기서 E 는 식료, 주거, 의복에 관한 총지출을 의미하며, Y 는 세전 가구소득, FS_i 는 가구규모, U_j 는 도시규모($j = 1, 2, 3, 4, 5$), R_k 은 지역($k = 1, 2, 3, 4, 5$)을 나타내는 변수이고, ϵ 은 오차항을 의미한다. 또한 a, b, c_i, d_j, e_k 는 모두 회귀계수이다.

이 모형을 이용한 가구균등화지수 산출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는 소득과 가구규모 간의 상호작용이 없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

$$M_j = \frac{E_j}{E_4} = \frac{10^{(\log E_j)}}{10^{(\log E_4)}} = 10^{(C_j - C_4)}$$

이와 유사한 국내연구로 서상목의 연구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사용하였다(서상목, 1979).

$$E = a + bY + \sum_j r_j D_j$$

여기서 $D_j = 1$ 은 가구원수가 j 인일 경우, $D_j = 0$ 은 그렇지 않을 경우를 나타낸다.

여기에서는 1973년 가계조사자료(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이용하여 r_j 값에 대한 추정을 시도하였다.

라. 199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모형⁹⁹⁾

199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모형이 내포하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여 가구규모 뿐만 아니라 가구의 소득까지를 모형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모형을 제시하였다.

$$(E/FS) = \alpha + \beta(Y/FS) + \gamma FS + \delta H + \epsilon$$

99) 박순일 외(1994),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기서 (E/FS) 는 1인당 가계지출, (Y/FS) 는 1인당 소득, FS 는 가구규모, H 는 더미변수로서 $H=1$: 노인가구, $H=0$: 비노인가구를 의미한다. $\alpha, \beta, \gamma, \delta$ 는 각각 회귀 모수로서 추정된다. 또한 ϵ 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σ_ϵ^2 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때 가구균등화 지수는 근로소득 중하의 30% 상하에 속하는 계층의 가구균등화 지수이다. 이 모형에서는 가구균등화 산출모형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먼저 모형의 설명변수에 가구규모와 가구 소득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며 상수항은 반드시 모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회귀모수에 대한 추정치의 평가기준으로서 경제이론적 기준(추정치의 부호와 크기 및 경제이론과의 부합성 여부)과 통계적 기준(R^2 , t -통계량 값, F -통계량 값 등), 계량경제학적인 기준들을 이용하여 합리적인 모형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다양한 모형들을 고려하였으나, 국내외 연구결과와 당시 통계청 조사결과인 도시가계연보의 가구규모별 지출비와 가장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 현실성 있는 모형으로 고려하였다.

마. 199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모형¹⁰⁰⁾

199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가구균등화 지수는 198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시한 모형에 소득변수를 포함한 모형으로 산출하였다.

$$E = A(FS)^{\beta_1}(Y)^{\beta_2}$$

이 방정식의 양변에 자연대수 \ln 을 취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ln(E) &= \ln(A) + \beta_1 \ln(FS) + \beta_2 \ln(Y) \\ &= \alpha + \beta_1 \ln(FS) + \beta_2 \ln(Y)\end{aligned}$$

여기서 E 는 가계지출액이며, FS 는 가구규모, Y 는 가구소득을 나타내며, α, β_1, β_2 는 회귀모수이다.

상수항인 α 와 β_1, β_2 는 기초 조사로부터 추정가능한 모수로서 추정결과 동일한 소

100) 김미곤 외(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 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득을 갖는 가구 중에서 가구규모가 4인인 가구를 기준(표준가구)으로 하고, 이를 $4 \pm j$ 인 가구와 비교하면, 4인 가구 지출에 비해 $4 \pm j$ 가구의 지출이 $\left(1 \pm \frac{j}{4}\right)^{0.517}$ 배 만큼 증가하거나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총 가구 수 12,069 가구에 대한 기초조사로부터 추정된 모형은 다음과 같다.

$$\ln(E) = 2.306 + 0.517\ln(FS) + 0.297\ln(Y)$$

1999년 연구로부터 추정된 모형의 통계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전체 변동 중에서 모형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은 50.15%(Adj- $R^2=0.5015$)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F -통계량과 추정된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나타내는 t -통계량 값이 유의수준 0.05 하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오차에 대한 정규성 검정 결과 또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 추정된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6-1-1〉 모수의 추정치와 p-value

모 수	추정치	표준오차	t-통계량	Prob> t
α	2.306	0.0193	119.361	0.00001
β_1	0.517	0.0096	53.725	0.0001
β_2	0.297	0.0064	64.986	0.0001
Prob>F	0.0001		Adj- R^2	0.5105

자료: 김미곤 외(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 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따라서 앞서 가정한 모형의 정의에 의거하여 가구균등화 지수는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산출할 수 있다.

$$\begin{aligned}
 M_j &= \frac{j \text{인 가구의 소비 지출액 추정치 } (C_j)}{\text{표준가구(4인 가구)의 소비 지출액 추정치 } (C_4)} \\
 &= \left(\frac{j}{4}\right)^{\beta_1} \left(\frac{j \text{인 가구 평균소득}}{4 \text{인 가구 평균소득}}\right)^{\beta_2} \\
 &= \left(\frac{j}{4}\right)^{0.517} \left(\frac{j \text{인 가구 평균소득}}{4 \text{인 가구 평균소득}}\right)^{0.297}
 \end{aligned}$$

여기서 $\beta_1(=0.517)$ 은 가구규모 변화율에 대한 지출수준의 변화율이며, $\beta_2(=0.297)$ 은 소득변화율에 대한 지출수준의 변화율을 나타낸다.

지금까지 각종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가구균등화지수는 가구규모 이외의 모든 설명변수를 가구규모와 상호작용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유추하였으나, 이는 가구규모에 따르는 다른 설명변수들의 효과를 포괄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진다. 따라서 1999년 연구에서는 가구균등화 지수의 산출에서 가구규모 뿐만 아니라 각 가구별 평균소득을 적용하여 가구규모 변화율과 가구규모별 소득 변화율을 동시에 고려했다는 특징을 가진다.

〈표 6-1-2〉 199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가구균등화 지수

모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균등화지수	0.349	0.578	0.795	1.000	1.137	1.283

자료: 김미곤 외(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 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바. 200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모형¹⁰¹⁾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모형을 적용하여 가구균등화 지수를 추정한 후 지수의 안정성, 규모의 경제 정도 등을 감안하여 최종모형을 결정하였다.

- 추정모형 I : 1988년 최저생계비 연구에서의 추정모형
- 추정모형 II : 1999년 최저생계비 연구에서의 추정모형
- 추정모형 III : 외부연구자에 의뢰한 추정모형

2004년 연구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3가지의 가구균등화지수 산출모형을 이용하여 지수 값을 추정하였다. 각 모형들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모형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004년 연구에서는 지수 값의 안정성, 규모의 경제 정도 등을 감안하여 최종 모형으로 모형 I을 가구균등화지수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101) 김미곤 외(2005),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6-1-3〉 가구균등화지수 추정 결과 종합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모형 I	지수	0.376208	0.613358	0.816382	1	1.170418	1.331004	1.48385
	차이		0.23715	0.203024	0.183618	0.170418	0.160586	0.152846
모형 II	지수	0.390741	0.626563	0.832121	1	1.116811	1.224105	1.236509
	차이		0.235822	0.205558	0.167879	0.116811	0.107294	0.012404
모형 III	지수1	0.405515	0.655312	0.88159	1	1.18532	1.234388	1.417275
	차이		0.249797	0.226277	0.11841	0.18532	0.049067	0.182887

주: 1) 김진욱 교수의 연구결과를 4인 가구 기준으로 전환한 지수이다.
 자료: 김미곤 외(2005),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과정에서 연구진은 안정성과 규모의 경제 등을 감안하여 〈표 6-1-3〉의 모형 I을 제안하였으나, 1, 2인 가구의 가구균등화지수가 전년도에 비해 격하게 높아지는 점 등을 이유로 사회적 합의과정에서 채택되지 못하였다. 대신 제 2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생활비 차이를 반한 OECD 기준 가구균등화지수’ 수준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조정기로 결정(‘04.12.1)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아래 〈표 6-1-4〉와 같은 가구균등화지수가 채택되었다.

〈표 6-1-4〉 2004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 가구균등화지수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OECD기준)
1인가구	0.3533	0.3574	0.3616	0.3658	0.3700
2인가구	0.5883	0.5988	0.6092	0.6196	0.6300
3인가구	0.7990	0.8030	0.8070	0.8110	0.8150
4인가구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인가구	1.1466	1.1562	1.1658	1.1754	1.1850
6인가구	1.3005	1.3178	1.3352	1.3526	1.3700

자료: 김미곤 외(2005),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러나 OECD 기준 가구균등화지수는 특히 5~6인 가구 규모의 경제 반영이 미흡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2008년 가구균등화지수는 2007년도 『국민생활실태조사』(1차조사)의 결과에 따라 재산정기로 의결(‘06.5.1 제2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하였다.

사. 2007년 최저생계비계측 연구의 가구균등화지수

2004년부터 OECD 기준 가구균등화지수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기로 결정한 바 있으나, 이 균등화지수는 5~6인 가구 규모의 경제 반영이 미흡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시 재산정하여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이 결정에 따라, 2007년 가구균등화지수 산출 역시 기존 연구의 바탕위에 안정성과 지속성 등을 반영하여 198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모형과 199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모형을 준용하여 산출되었다. 각각의 모형에 해 전체 가구와 하위 40%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회귀분석 모형을 설정하였다. 각 모형은 다음과 같다.

- 추정모형 I : 1988년 최저생계비 연구에서의 추정모형(전가구)
- 추정모형 II : 1988년 최저생계비 연구에서의 추정모형(하위 40% 미만)
- 추정모형 III : 1999년 최저생계비 연구에서의 추정모형(전가구)
- 추정모형 IV : 1999년 최저생계비 연구에서의 추정모형(하위 40% 미만)

「201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결과를 사용한 모형별 가구균등화지수 산출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6-1-5〉 모형별 가구균등화지수 산출결과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07년 균등화지수 ¹⁾	지수	0.3616	0.6092	0.807	1	1.1658	1.3352	
	편차	0.2476	0.1978	0.193	0.1658	0.1694		
모형I	지수	0.26534	0.51512	0.75933	1	1.23807	1.47409	1.70842
	편차	0.24978	0.24421	0.24067	0.23807	0.23602	0.23433	
모형II	지수	0.38136	0.61754	0.81869	1	1.16786	1.32572	1.47573
	편차	0.23618	0.20115	0.18131	0.16786	0.15786	0.15001	
모형III	지수	0.28759	0.4995	0.76371	1	1.13032	1.23451	1.56123
	편차	0.21191	0.26421	0.23629	0.13032	0.10419	0.32672	
모형IV	지수	0.40761	0.6372	0.84769	1	1.12618	1.19516	1.34472
	편차	0.22959	0.21049	0.15231	0.12618	0.06898	0.14956	

주: 1) 2007년 행정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균등화지수이다.

자료: 여유진·김미곤 외(2007),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2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한 두 개의 안 - 위 표에서 모형 II 안과 2007년 행정 적용균등화지수(OECD 기준에 의한 조정안) - 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재산출안의 경우 현실 타당성이 인정되나 모형의 신뢰성에 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만큼 2004년의 2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데 대부분 위원들이 의견을 같이 하였다. 따라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08년 가구균등화지수로 OECD 기준에 의한 조정안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다음 표와 같다.

〈표 6-1-6〉 2007년 및 2008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 가구균등화지수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07년 균등화지수	0.3616	0.6092	0.807	1	1.1658	1.3352
2008년 균등화지수	0.3658	0.6196	0.8110	1	1.1754	1.3526

자료: 여유진·김미곤 외(2007),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 2010년 최저생계비계측 연구의 가구균등화지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저생계비 계측연도마다 연구진이 추정한 가구균등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행정적으로는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OECD 균등화지수를 적용해 나가서 2009년부터는 완전한 OECD 균등화지수가 적용되고 있다. 2007년 최저생계비계측에서도 기초조사 결과 산출된 가구균등화지수(1안)와 OECD 기준 가구균등화지수(2안), 두 개의 안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07.8.22 제2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안정성과 일관성 등을 이유로 2안을 채택하여 적용기로 함으로써 2010년 까지 OECD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OECD 균등화지수는 3인 이상 가구에서 동일한 비율로 증가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 또한, OECD 균등화지수는 표준적인 국가 간 비교연구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개별 국가의 생활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2010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계측을 위하여 다시 한 번 가구균등화지수를 산출하였다. 앞서 살펴본 가구균등화지수 산정 방식을 검토한 후, 기존

연구와의 일관성과 모형의 합리성 등을 근거로 2007년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모형을 기준으로 가구균등화지수를 산출하였다.

- 추정모형 I : 88년 모형 - 전가구대상 추정모형
- 추정모형 II : 88년 모형 - 경상소득 40%이하 가구대상 추정모형
- 추정모형 III : 99년 모형 - 전가구대상 추정모형
- 추정모형 IV : 99년 모형 - 경상소득 40%이하 가구대상 추정모형

〈표 6-1-7〉 가구균등화지수 비교(월세 포함 모형)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0년적용 균등화지수	지수	0.370	0.630	0.815	1	1.185	1.37		
	편차	-	0.26	0.185	0.185	0.185	0.185		
모형I	기초 조사	지수	0.26217	0.51203	0.75744	1	1.24047	1.47928	1.71673
		차이	-	0.24986	0.24541	0.24256	0.24047	0.23881	0.23745
	가계 조사	지수	0.28757	0.53626	0.77211	1	1.22214	1.43981	1.65383
		차이	-	0.24869	0.23585	0.22789	0.22214	0.21767	0.21402
모형II	기초 조사	지수	0.38443	0.62003	0.82005	1	1.16635	1.32261	1.47095
		차이	-	0.2356	0.20002	0.17995	0.16635	0.15626	0.14834
	가계 조사	지수	0.37893	0.61557	0.8176	1	1.16906	1.3282	1.47954
		차이	-	0.23664	0.20203	0.1824	0.16906	0.15914	0.15134
모형III	기초 조사	지수	0.2773	0.50026	0.76112	1	1.10428	1.18284	1.33957
		차이	-	0.22296	0.26086	0.23888	0.10428	0.07856	0.15673
	가계 조사	지수	0.31757	0.57197	0.81382	1	1.1424	1.28463	1.35254
		차이	-	0.2544	0.24185	0.18618	0.1424	0.14223	0.06791
모형IV	기초 조사	지수	0.40836	0.64737	0.85569	1	1.10004	1.18355	1.36004
		차이	-	0.23901	0.20832	0.14431	0.10004	0.08351	0.17649
	가계 조사	지수	0.34529	0.59205	0.81508	1	1.15616	1.30735	1.41592
		차이	-	0.24676	0.22303	0.18492	0.15616	0.15119	0.10857

자료: 김미곤·여유진 외(2010),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모형 II의 두 가지 결과 「2011년 국민생활실태조사」와 「가계동향조사」 중에서 분석 결과가 수집과정이 좀 더 정교하고(가계부기장), 통상적인 신뢰성이 높다는 점에서 「가

계동향조사」를 사용하여 추정한 가구균등화지수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의 가구균등화지수 추정결과와 비교 결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사용하여 모형 II(1988년 모형: 하위 40% 대상)로 추정된 가구균등화지수를 2010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가구균등화지수(연구진안)로 선정하였다. 2010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가구균등화지수(연구진안)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6-1-8〉 2010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가구균등화지수(연구진안)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균등화지수	0.37893	0.61557	0.8176	1	1.16906	1.3282	1.47954
차이	-	0.23664	0.20203	0.1824	0.16906	0.15914	0.15134

자료: 김미곤·여유진 외(2010),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가구균등화 지수산출

가. 가구균등화지수 산정의 원칙

2013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계측을 위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가구균등화지수 산정 방식을 검토한 후, 기존 연구와의 일관성과 모형의 합리성 등을 근거로 2010년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모형을 기준으로 가구균등화지수를 산출하였다.

- 추정모형 I : 88년 모형 - 전가구대상 추정모형
- 추정모형 II : 88년 모형 - 경상소득 40%이하 추정모형
- 추정모형 III : 99년 모형 - 전가구대상 추정모형
- 추정모형 IV : 99년 모형 - 경상소득 40%이하 추정모형

가구균등화지수 산정을 위하여 사용된 자료는 본원에서 실시한 「2011년 국민생활실태조사」와 주거비의 특이성을 감안하여 월세액을 포함한 가구균등화지수와 제외한

가구균등화지수를 모두 제시하였다.

1) 1988년 모형에 의한 가구균등화지수

1988년에 적용한 모형은 이미 전술한 바와 같으므로 추정결과만을 다루기로 한다. 이때 모형에 적용한 자료는 전 가구대상과 소득하위 40%이하 가구로 각각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1) 전 가구대상 (모형 I)

201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전체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모형은 다음과 같다.

○ 월세 포함 : $\ln(E)=4.72744 + 0.94518\ln(X)$

○ 월세제외 : $\ln(E)=4.66189 + 0.98702\ln(X)$

〈표 6-1-9〉 모형 I에 대한 추정결과 및 p-value

	모수	추정치	t-통계량	Pr > t
월세포함	α	4.72744	634.84	<.0001
	β	0.94518	127.04	<.0001
	Pr<F	<0.0001	Adj- R^2	0.4946
월세제외	α	4.66189	619.71	<.0001
	β	0.98702	131.33	<.0001
	Pr<F	<0.0001	Adj- R^2	0.511

자료: 『2012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1차 조사) 원자료.

〈표 6-1-10〉 추정모형 I(1988년 모형)에 의한 가구 균등화 지수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월세 포함	균등화지수	0.26974	0.51936	0.76192	1	1.2348	1.46703	1.69713
	차이	-	0.24962	0.24256	0.23808	0.2348	0.23223	0.2301
월세 제외	균등화지수	0.25455	0.50453	0.75281	1	1.24638	1.49211	1.73731
	차이	-	0.24998	0.24828	0.24719	0.24638	0.24573	0.2452

(2) 경상소득 40% 이하 가구대상 (모형II)

국민생활실태 조사 가구 중 경상소득 기준 40%이하 가구만을 대상으로 1988년 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한 모형은 다음과 같다.

○ 월세 포함 : $\ln(E)=4.52949 + 0.65958\ln(X)$

○ 월세 제외 : $\ln(E)=4.4592 + 0.70048\ln(X)$

〈표 6-1-11〉 추정모형 II(1988년 모형) - 소득하위 40%이하 가구 대상

	모수	추정치	t-통계량	Pr > t
월세포함	α	4.52949	606.08	<.0001
	β	0.65958	56.48	<.0001
	Pr<F	<.0001	Adj- R^2	0.3011
월세제외	α	4.4592	596.24	<.0001
	β	0.70048	59.94	<.0001
	Pr<F	<.0001	Adj- R^2	0.3267

〈표 6-1-12〉 추정모형 II(1988년 모형)에 의한 가구 균등화 지수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월세 포함	균등화지수	0.40077	0.63306	0.82717	1	1.15856	1.30661	1.44645
	차이	-	0.23229	0.19411	0.17283	0.15856	0.14805	0.13984
월세 제외	균등화지수	0.37893	0.61557	0.8176	1	1.16906	1.3282	1.47954
	차이	-	0.23664	0.20203	0.1824	0.16906	0.15914	0.15134

2) 1999년 모형에 의한 가구균등화지수

1999년에 적용한 모형은 이미 전술한 바와 같으므로 추정결과만을 다루기로 한다. 이때 모형에 적용한 자료는 전 가구대상과 소득하위 40%이하 가구로 각각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1) 전 가구대상 (모형III)

국민생활실태조사 전체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모형은 다음과 같다.

○ 월세 포함 : $\ln(E)=0.7791 + 0.40979\ln(X)+0.54438\ln(Y)$

○ 월세 제외 : $\ln(E)=0.68524 + 0.44779\ln(X) + 0.54829\ln(Y)$

〈표 6-1-13〉 추정모형 III(1999년 모형) - 전가구 대상

	모수	추정치	t-통계량	Pr > t
월세포함	α	0.7791	27.87	<.0001
	β_1	0.40979	66.02	<.0001
	β_2	0.54438	143.53	<.0001
	Pr<F	<0.0001	Adj- R^2	0.7753
월세제외	α	0.68524	24.17	<.0001
	β_1	0.44779	71.15	<.0001
	β_2	0.54829	142.56	<.0001
	Pr<F	<0.0001	Adj- R^2	0.781

〈표 6-1-14〉 추정모형 III(1999년 모형)에 의한 가구 균등화 지수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월세 포함	균등화지수	0.29425	0.53337	0.80087	1	1.11343	1.29999
	차이	-	0.23912	0.2675	0.19913	0.11343	0.18656
월세 제외	균등화지수	0.27644	0.51684	0.79095	1	1.12313	1.32202
	차이	-	0.2404	0.27411	0.20905	0.12313	0.19889

(2) 경상소득 40% 이하 가구대상 (모형 IV)

국민생활실태 조사 가구 중 경상소득 기준 40%이하 가구만을 대상으로 1999년 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한 모형은 다음과 같다.

○ 월세 포함 : $\ln(E)=2.48771 + 0.50952\ln(X) + 0.2919\ln(Y)$

○ 월세 제외 : $\ln(E)=2.46112 + 0.55363\ln(X) + 0.28565\ln(Y)$

〈표 6-1-15〉 추정모형 IV(1999년 모형) - 소득하위 40%이하 가구 대상

	모수	추정치	t-통계량	Pr > t
월세포함	α	2.48771	52.8	<0.001
	β_1	0.50952	46.49	<0.001
	β_2	0.2919	43.77	<0.001
	Pr(F)	<0.0001	Adj- R^2	0.4447
월세제외	α	2.46112	51.9	<0.001
	β_1	0.55363	50.2	<0.001
	β_2	0.28565	42.56	<0.001
	Pr(F)	<0.0001	Adj- R^2	0.459

〈표 6-1-16〉 추정모형 IV(1999년 모형)에 의한 가구 균등화 지수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월세포함	균등화지수	0.41903	0.65202	0.84909	1	1.11082	1.26758	1.35535
	차이	-	0.23299	0.19707	0.15091	0.11082	0.15676	0.08777
월세제외	균등화지수	0.39534	0.63324	0.83865	1	1.12195	1.28972	1.38869
	차이	-	0.2379	0.20541	0.16135	0.12195	0.16777	0.09897

나. 모형별 가구균등화지수 산출결과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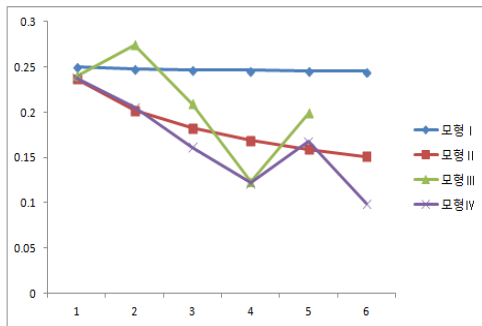
기존의 연구로부터 산출된 가구균등화 지수와 더불어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가구균등화 지수를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된 표로 정리하였다.

〈표 6-1-17〉 모형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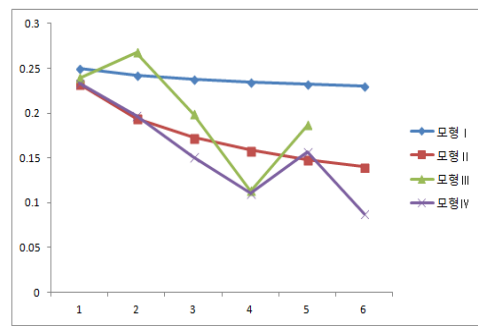
구분		가구 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모형I	월세 포함	지수	0.26974	0.51936	0.76192	1	1.2348	1.46703	1.69713
		차이	-	0.24962	0.24256	0.23808	0.2348	0.23223	0.2301
	월세 제외	지수	0.25455	0.50453	0.75281	1	1.24638	1.49211	1.73731
		차이	-	0.24998	0.24828	0.24719	0.24638	0.24573	0.2452
모형II	월세 포함	지수	0.40077	0.63306	0.82717	1	1.15856	1.30661	1.44645
		차이	-	0.23229	0.19411	0.17283	0.15856	0.14805	0.13984
	월세 제외	지수	0.37893	0.61557	0.8176	1	1.16906	1.3282	1.47954
		차이	-	0.23664	0.20203	0.1824	0.16906	0.15914	0.15134

구분	가구 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모형III	월세 포함	지수	0.29425	0.53337	0.80087	1	1.11343	1.29999
		차이	-	0.23912	0.2675	0.19913	0.11343	0.18656
	월세 제외	지수	0.27644	0.51684	0.79095	1	1.12313	1.32202
		차이	-	0.2404	0.27411	0.20905	0.12313	0.19889
모형IV	월세 포함	지수	0.41903	0.65202	0.84909	1	1.11082	1.26758
		차이	-	0.23299	0.19707	0.15091	0.11082	0.08777
	월세 제외	지수	0.39534	0.63324	0.83865	1	1.12195	1.28972
		차이	-	0.2379	0.20541	0.16135	0.12195	0.09897

[그림 6-1-1] 월세포함



[그림 6-1-2] 월세제외



각종 모형으로부터 산출된 결과는 현실성 측면에서 기존 가구균등화지수 및 OECD 기준과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고, 합리성 측면에서 가구의 규모의 경제 반영여부(가구규모가 커질수록 지수 증가폭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를 검토하였다. 또한 가구규모에 따른 지수의 일관성(안정성) 측면에서 일관성 있는 감소 또는 증가여부를 검토하였다.

결과적으로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가구균등화지수 추정모형 4가지에 대해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모형 I(1988년 모형 전 가구 대상)은 규모의 경제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며 4인 미만 가구는 과소, 4인 이상 가구는 과다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에서 고려한 검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그림 6-1-1],[그림 6-1-2]) 참조)..

둘째, 모형 II(1988년 모형 소득 하위 40% 대상)는 기존 연구결과로 얻은 가구균등화지수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며, 규모의 경제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가구규모의 변동에 따라 지수의 감소폭도 안정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여 검토기준을 적절히 충족하고 있다.([그림 6-1-1],[그림 6-1-2]) 참조).

셋째, 모형 III(1999년 모형 전 가구 대상)은 앞서 검토한 기준으로부터 가구규모간 편차의 증감이 일정치 못하여 합리성, 일관성 측면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1-1],[그림 6-1-2]) 참조).

넷째, 모형 IV(1999년 모형 하위 40% 대상)는 모형 I 과 반대로 4인 미만 가구의 지수 과다, 4인 이상 가구는 과소, 특히 5·6·7인 가구 간 증감 폭이 불안정하여 일관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부적절한 모형으로 판단하였다([그림 6-1-1],[그림 6-1-2]) 참조).

결과적으로 현실성·합리성·안정성 측면에서 모형 II(1988년 모형 소득 하위 40% 대상)가 가장 타당한 가구균등화지수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제2절 2013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가구들은 개인별로 생계급여 등을 수급하는 것이 아닌 가구원수를 고려한 생계 및 주거급여 등을 지급받고 있다. 이와 같은 가구규모별로 설정된 최저생계비는 직접적으로 수급가구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구원수별로 별도의 최저생계비를 만들어 내는 것은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우므로 우리는 이미 설명한 것과 같이 4인 표준가구를 기준으로 가구균등화지수를 통해 각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고 이를 발표하게 된다.

여기서는 앞에서 연구진이 결정한 가구균등화 지수안을 토대로 표준가구의 지역별 최저생계비에 곱하면 가구규모별·지역별 최저생계비를 산출하게 되는 것이다.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연구진안)는 아래 <표 6-2-1>과 같다(모형 II, 1988모형).

연구진안에 기초한 중소도시 4인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642,173원으로 계측되었다. 여기에 연구진이 추정한 모형II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했을 때,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658,134원,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039,594원, 3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358,356원 등으로 산출된다.

〈표 6-2-1〉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연구진안)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균등화지수		0.40077	0.63306	0.82717	1	1.15856	1.30661	1.44645
대도시	최저 생계비	703,851	1,111,810	1,452,715	1,756,247	2,034,718	2,294,730	2,540,323
	차이		407,959	340,905	303,532	278,471	260,012	245,594
중소 도시	최저 생계비	658,134	1,039,594	1,358,356	1,642,173	1,902,556	2,145,680	2,375,321
	차이		381,460	318,762	283,817	260,383	243,124	229,641
농어촌	최저 생계비	607,447	959,530	1,253,742	1,515,701	1,756,031	1,980,430	2,192,386
	차이		352,082	294,213	261,959	240,330	224,400	211,956

연구진이 측정한 가구균등화지수와 비교를 위해 정부에서 기초보장수급가구에 직접 적용하고 있는 행정적인 OECD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두 결과 간의 가장 큰 차이는 연구진안의 경우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최저생계비 격차가 줄어드는 반면, OECD 기준안의 경우 2, 3인 가구에서는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최저생계비 격차가 줄어들다가 4인 가구 이후부터는 동일해진다는 점이다. 즉, OECD 기준 균등화지수를 적용할 경우 4인부터는 가구 규모의 경제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그 결과,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연구진안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5인 가구 이후부터는 OECD 기준 최저생계비안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이 차이를 볼 때, 우리나라의 소비지출 현황과 가구 규모의 경제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균등화지수를 개발하여 공식적인 최저생계비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2014년부터는 새롭게 맞춤형 급여체계가 도입될 예정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최저생계비에 적용하기 위한 균등화지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OECD 기준 균등화지수를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6-2-2〉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OECD 기준 균등화지수 적용안)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균등화지수	0.37000	0.61754	0.81500	1.00000	1.18500	1.37000
대도시	최저 생계비	649,811	1,084,553	1,431,341	1,756,247	2,081,153
	차이		434,741	346,789	324,906	324,906
중소 도시	최저 생계비	607,604	1,014,108	1,338,371	1,642,173	1,945,975
	차이		406,504	324,263	303,802	303,802
농어촌	최저 생계비	560,809	936,006	1,235,296	1,515,701	1,796,106
	차이		375,197	299,290	280,405	280,405

제3절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1.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추정방법

2010년 이전까지는 5년단위 또는 3년단위로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여 왔으며, 최저생계비가 계측되지 않는 비계측연도에는 행정적으로 적용할 최저생계비를 추정할 필요가 있었다. 실례로 지난 2010년 이전까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보고된 안을 기준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최종적인 비계측연도의 최저생계비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10년간의 논의구조 하에서 발표된 최저생계비를 볼 때 대부분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상승률에 근거하여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가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2010년 제3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도 7월~금년도 6월)’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이후 비계측연도의 최저생계비는 과거와 같은 비소모적인 사회적인 논쟁을 거치지 않고 사전에 결정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를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수준을 산출하는 것은 과거와 같이 2014년도 적용될 최저생계비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의 산출방식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비계측연도의 최저생계비에 대한 측정방식을 살펴보면 크게 세가지를 들 수 있다. 즉 ① 물가상승률 적용방식, ② 물가와 사용량 변화를 감안한 방식, ③

수준균형방식 등을 통해 계측할 수 있다. 물가상승률 적용방식은 현재 정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식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수준균형방식은 향후 기초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체제로 변경시 적용될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물가와 사용량 변화를 감안한 방식은 최저생계비 변화는 물가와 사용량을 동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최저생계비 선행연구진들이 새롭게 개발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가. 물가상승률 적용방식

물가상승률 적용방식은 비계측기간의 (소비자, 생산자 또는 생활)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 계측 방안 중 가장 간단하고 쉽게 적용할 수 있으며,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 확인된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동 모형의 핵심인 물가상승률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예산반영 물가상승률, 생활물가상승률 등의 물가상승률 등이 있으며 이러한 물가상승률 수치를 이용한 추정모형은 아래와 같다.

$$PL_{ijt} = PL_{ijt-1} \times (1 + P_t)$$

PL_{ijt} : i지역 j가구규모의 t년도 최저생계비
 PL_{ijt-1} : i지역 j가구규모의 t-1년도 최저생계비
 P_t : t년도 물가상승률

반면에 물가상승률 방식은 최저생계비가 가지고 있어야 할 소득, 기호의 변화 및 기술의 발전에 따르는 변화들 예를 들어 필수품의 종류 및 질적 수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며 이에 따라 과소 추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물가상승률에 포함되는 통계청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및 규격이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 마켓 바스켓의 필수품과 차이가 있어, 마켓 바스켓 조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추정치와 달라질 수 있다.

적용할 물가상승률에 있어서도 최저생계비 상승률은 마켓 바스켓에 포함되는 필수품들에 대한 상승률이라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 품목에 대한 상승률을 의미하므로, 시장물가와 통계적으로 발표되는 물가와와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한다. 이외에도 같은 품목이지만 최저생계비의 마켓 바스켓에 포함된 규격과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의 물가상승률 산정의 기준규격이 다르고, 일반적으로 생활물가지수가 소비자물가지수에 비해 상승률이 높기 때

문에, 어떠한 지수를 적용하는지에 따라 추정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저생계비를 추정하기 위하여 어느 연도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2014년 최저생계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2014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2014년 물가상승률은 추정치라는 점에서 실측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2010년 3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시차를 최소화 하기위해 전년도 7월에서 금년도 6월까지의 실측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합의한 바가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수급가구들은 비수급가구에 비해 1년 정도 뒤늦은 생활의 질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은 피할 수가 없다.

나. 물가와 사용량 변화를 감안한 방식

물가와 사용량 변화를 감안한 방식은 최저생계비를 연구한 선행연구진에서 제안한 방식으로 기본적인 개념은 최저생계비가 가격 변화와 더불어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고안한 방식이다. 전물량 방식의 계측년도 최저생계비는 필수품목별 단위가격과 사용량의 곱을 통하여 월 최저지출을 산출해낸다. 따라서 최저생계비는 말 그대로 가격(ΔP)과 사용량(ΔQ) 변동에 따라 그 값이 변하는데, 물가상승률 방식은 가격만의 변화를 반영한 방식이므로 사용량 변화는 반영할 수 없다. 반면에 연구진이 제안한 물가와 사용량 변화를 감안한 방식은 생활의 질 및 기호 변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가격과 사용량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추정모형은 아래와 같다.

$$PL_{ijt} = PL_{ijt-1} \times (1 + P_t) \times (1 + Q_t \cdot R_t)$$

PL_{ijt}	: i년도 j가구규모의 t년도 최저생계비
PL_{ijt-1}	: i년도 j가구규모의 t-1년도 최저생계비
P_t	: t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Q_t	: t년도 사용량상승률 추정치
R_t	: t년도 경제성장률을 이용한 사용량 상승률 조정계수

반면에 물가와 사용량 변화를 반영한 모형은 계측년도 간 소비형태의 변화가 다음년도 계측년도까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측정되기 때문에 계측년도 사이에 경

제상황이 급변하거나 사용량에 대한 변화가 많이 일어날 경우 이를 바로 반영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조정계수(R_t)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경제변화의 크기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조정계수의 추정시 앞에서 추정 한 사용량 상승률은 과거의 증가율이나, 과거치가 계속 유지된다고 간주하기 어려우므로, 경제성장률 변수를 넣어 조정하게 되며 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_t = \frac{G_t}{G}$$

$\frac{G_t}{G}$: t년도의 경제성장률 추정치
 G : l년에서 m년까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물가의 경우에는 한국은행, 통계청 등에서 발표되고 있는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산출이 가능하지만 사용량의 변화는 이를 생산하고 발표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 가정과 모형을 통해 분석하여야 한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이를 위해 계측년도 간 최저생계비 실측값의 역산을 통해 사용량변화를 추정하였다. 즉 전물량 방식에 의해 추정된 최저생계비를 분해하여 사용량 상승률을 추정하게 된다.

$$PL_l = PL_m \times (1 + \bar{P})^n \times (1 + \bar{Q})^n \quad (n = l - m)$$

PL_l : l년 최저생계비(2007년)
 PL_m : m년 최저생계비(2004년)
 \bar{P} : m년에서 l년까지(3년간)의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bar{Q} : m년에서 l년까지(3년간)의 연평균 사용량상승률

사용량 상승률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계측된 연도인 1988년, 1994년, 1999년, 2004년, 2007년, 2010년도의 연도별 차이를 이용할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 가능한 자료 중 가장 객관적인 지표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경제성장률을 기초로 하여 추정하였다.

물가와 사용량변화를 감안한 방식은 이미 설명한 것과 같이 각 연도의 물가상승률을 모두 반영할 수 있으며, 필수품의 내용 및 질적 수준의 변화도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외에 계측년도 최저생계비의 실측값을 통해 소비 질의 반영 정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관에 기반한 최저생계비 추정모형 중 객관적인 방식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사용량 상승률 추정이 전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

비 실측값 자료와 논리에 의하므로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이 바뀔 경우 동 모형의 적용은 논리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우며, 차년도의 경제성장률 추정치를 사용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외에 실제 행정적으로 적용하기에도 물가를 사용한 방식에 비해 복잡하고 직관적 이해가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다. 수준균형 방식

상대적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의 하나인 수준균형방식이란 비계측연도의 최저생계비를 상대빈곤선 계측방식을 활용하여 추정하는 방식이다. 이미 일본에서는 1983년부터 사회적 합의를 통해 1984년부터는 동 방식을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다.

수준균형방식을 통한 최저생계비는 최저생계비 계측연도의 일반가구 지출(가계지출 또는 소비지출)수준과 최저생계비와의 비율을 구하고, 이 비율을 추정하고자 하는 연도의 지출에 곱함으로써 추정하고자 하는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이 방식은 추정연도의 최저생계비는 추정연도의 일반가구 지출 예측치에 전년도 일반가구 지출 대비 최저생계비의 비율을 곱한 값으로 표현될 수 있다. 만일 측정하고자 하는 연도가 계측연도 1년 전일 경우 추정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PL_{ijt} = C_{4t} \times \frac{PL_{ij(t-1)}}{C_{4(t-1)}}$$

PL_{ijt}	: i지역 j가구규모의 t년도 최저생계비
C_{4t}	: 4인 가구의 t년도 지출 예측치
$PL_{ij(t-1)}$: i지역 j가구규모의 t-1년도 최저생계비
$C_{4(t-1)}$: 4인 가구의 t-1년도 지출

수준균형방식 역시 물가를 이용한 추정방식과 같이 추정방법이 간편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소득과 기호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역시 물가를 이용한 방식이 지니고 있는 단점과 달리 일반가구의 소비행태가 향락, 오락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부분에서 크게 증가한 경우에도 그 추세가 최저생계비에 반영될 수 있다. 또한 전년도에 비해 소비지출 내지 가계지출이 감소하는 경우, 최저생계비 역시 함께 감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저생계비가 감소하지 않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차년도의 소비지출 내지 가계지출을 추정해야 하는 단점

이 존재한다. 추정은 여러 방식이 있지만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시계열 분석기법인 ARIMA 또는 ARMX 등을 활용하여 차년도 지출값을 추정하였다. 하지만 2012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와 전문위원회에서 상대적 방식 전환시 사용할 자료에 관한 기본적으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미 합의된 것을 토대로 수준균형방식을 통한 최저생계비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2. 추정모형별 2014년 최저생계비

본 연구에서는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 추정모형 중 물가상승률 적용방식, 물가와 사용량 변화를 감안한 적용방식 및 수준균형방식에 의한 2014년도 최저생계비를 추정하였다.

가. 물가상승률 적용방식

2014년도 4인기준 최저생계비를 추정하기 위해 먼저 물가상승률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동 방식의 계산을 위해 국내 및 국제기관의 물가상승률 예측치 및 과거추세치를 검토하였다.

〈표 6-3-1〉 발표기관별·기준시점별 소비자물가상승률

발표기관	기준시점	변화율
통계청	과거 3년(2010~2012)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¹⁾	3.1%
통계청	과거 3년(2010~2012) 평균 생활물가상승률 ²⁾	3.1%
한국은행	2014년 예상물가상승률	2.5%
OECD	2014년 예상물가상승률	2.1%
IMF	2014년 예상물가상승률	2.3%
ADB	2014년 예상물가상승률	2.8%

주: 1)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0년 3.0%, 2011년 4.0%, 2012년 2.2%였음.

2) 생활물가상승률은 2010년 3.4%, 2011년 4.4%, 2012년 1.6%였음.

자료: 한국은행, 「2010년 하반기 경제전망」, 2010. 7. 12일자 보도자료

OECD(2013), OECD Economic Outlook.

IMF(2013), World Economic Outlook.

ADB(2013), Asian Development Outlook.

기관별로 혹은 기간별로 값의 차이는 존재하였으며, 국내 기관이 국제기관보다는 높게 물가상승률을 예측하였다. 먼저 한국은행에서 예측한 소비자 물가상승률(2.5%)은 OECD와 IMF에서 예측한 2014년 한국의 물가상승률 보다는 다소 높고, ADB(Asia Development Bank)에서 예측한 물가상승률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이지만, 국내기관이 해외기관보다 국내 상황을 더 잘 반영하여 예측하였다는 판단하에 다른 수치보다 한국은행의 값을 이용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적용하였다. 두 번째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과거 3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3.1%)의 경우 생활물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 보다 실제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필수품만을 대상으로 물가를 조사하는 생활물가상승률이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나 그 수치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예측치와 과거실측치의 이용에 관하여, 안정성 측면에 있어서는 2010년 실측치가 더 안정적이거나 2014년 예측을 위해서는 동기간의 물가상승률 예측치를 이용하는 편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고려 과정을 거쳐 2014년 최저생계비 추정을 위한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이 예측한 물가상승률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표 6-3-2〉 물가상승률 방식을 적용한 2014년 최저생계비 추정

적용시점	2014년 최저생계비	변화율 ¹⁾
2014년 한국은행 예측 물가상승률 적용	1,585,059	2.5%

주: 1) 정확한 계산을 위하여 소수점 이하까지 계산하였으므로 변화율로 산정한 값과 차이가 날 수 있음.

2013년 중소도시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546,399원에 한국은행이 예상한 물가상승률 2.5%를 적용한 경우 1,585,059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중소도시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에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각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표 6-3-3〉 물가상승률 방식을 적용한 2011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단위: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균등화지수 ¹⁾	0.370	0.630	0.815	1.000	1.185	1.370
최저생계비	622,794	1,060,433	1,371,830	1,683,227	1,994,624	2,306,021

주: 1) 가구균등화지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임.

나. 물가와 사용량 변화를 감안한 방식

물가와 사용량 변화를 감안한 방식을 적용하여 2014년도 최저생계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량(Q)의 추정이 필요하며, 추정을 위해 기준이 되는 계측년도를 선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1988년, 1994년, 1999년, 2004년, 2007년, 2010년의 총 여섯 번 최저생계비가 계측되었으며, 그 결과가 당시 실질최저생계비를 정확히 반영한 값이라고 전제한다면, 이미 확보된 최저생계비(PL) 값 및 물가 상승률(\bar{P}) 값을 식에 대입하여 사용량 상승률(\bar{Q})을 역으로 추산할 수 있다. 사용량 상승의 추정은 여러 시점이 가능하나,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의 시점이 향후 생활수준 변화를 가장 잘 반영할 것으로 판단하여 1999~2010년과 2004~2010년, 2007~2010년의 세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량을 측정하고자 한다. 이는 과거 1988년 및 1994년 연구에 비해 1999년, 2004년, 2007년, 2010년 연구는 중앙생활보호위원회 및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오래된 과거시점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비교적 최근시점의 계측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생활의 질 변화와 사용량 변화에 대한 오차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식을 보다 간단하게 하기 위해 조정계수(R_t)를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2014년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고자 한다.

먼저 1999년에서 2010년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bar{P})은 2.93%이며, 이를 1999년 최저생계비와 2010년 최저생계비에 대입하여 계산할 경우 두 계측년도 간 사용량 변화율(\bar{Q})은 0.010로 산출되었다. 2014년 물가상승률 예측치 2.5%(한국은행)와 경제성장률 예측치 3.8%(한국은행)를 적용하여 추정한 모형은 아래와 같다.

$$PL_{ijt} = PL_{ijt-1} \times (1 + P_t) \times (1 + \bar{Q})$$

위 식을 통해 추정된 물가와 사용량 방식에 의한 2014년 최저생계비는 2013년 최저생계비 대비 3.4%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2004~2010년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bar{Q})가 0.010으로 산출되었고 이를 대입하면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3.5%이

다. 2007~2010년 자료를 사용하면 (\bar{Q})는 0.008로 산출되고, 이에 따른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0.3%이다.

그리고 기준 시점간 연평균 사용량 증가율(\bar{Q})과 2010년의 사용량 증가율은 두 시점간의 경제성장률, 소득 및 소비증가율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지게 되는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정계수인 (R_t)을 계산하여 이를 조정하였다. 1999~2010년 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R_t 값은 0.744이며, 2004~2010년 자료를 이용한 경우 0.957로, 2007~2010년 자료를 이용하면 1.086으로 도출되었다. 이렇게 구해진 R_t 값과 앞서 구한 (\bar{Q}) 및 물가상승률 등을 아래의 식에 대입하여 2014년 최저생계비를 구할 수 있다.

$$PL_{ijt} = PL_{ijt-1} \times (1 + P_t) \times (1 + \bar{Q} \cdot R_t)$$

기준년도의 시점과 조정계수 사용을 달리하여 2013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2014년 최저생계비의 추정 인상률은 각 방식의 차이에 따라 3.2~3.5%로 나타난다.

〈표 6-3-4〉 추정모형 및 적용기간에 따른 최저생계비 인상률

구분	$PL_{ijt} = PL_{ijt-1} \times (1 + P_t) \times (1 + \bar{Q}_t \cdot R_t)$ 방식			$PL_{ijt} = PL_{ijt-1} \times (1 + P_t) \times (1 + \bar{Q}_t)$ 방식		
사용자료	1999-2010	2004-2010	2007-2010	1999-2010	2004-2010	2007-2010
P_{2014}	0.025	0.025	0.025	0.025	0.025	0.025
\bar{Q}	0.009	0.010	0.008	0.009	0.010	0.008
R_{2014}	0.744	0.957	1.086	-	-	-
인상률	3.2%	3.5%	3.4%	3.4%	3.5%	3.3%

각각의 추정모형의 중 조정계수가 있는 모형은, 어떤 자료(예, GDP, GNI 등)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추정연도의 성장률 예측치가 실제와는 달라질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경제발전에 따라 사용량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계수가 있는 모형이 보다 논리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적용시점의 경우 사용량(\bar{Q}) 변화분을 추정하기 위한 적용시점은 2007~2010년이나 2004~2010년의 사용량 변화보다는 1999~2010년의 사용량 변화가 비교적 장기간의 추세가 반영되므로 보다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3.2%으로 반영한 2014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으로 1,595,884원으로 추정된다.

〈표 6-3-5〉 물가와 사용량 방식에 의한 2014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단위: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균등화지수 ¹⁾	0.370	0.630	0.815	1.000	1.185	1.370
최저생계비	590,477	1,005,407	1,300,645	1,595,884	1,891,123	2,186,361

주: 1) 가구균등화지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이다.

다. 수준균형방식

수준균형방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준년도 최저생계비와 지출금액의 비율, 2014년도 지출금액을 추정해야 한다. 먼저 가장 최근의 계측년도인 2010년도 4인 가구 최저생계비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4인 근로자 가구 소비지출 및 가계지출간의 상대적인 비율을 살펴보면 평균가계지출은 39.9%, 중위가계지출은 43.8%로 추정되었다. 또한 소비지출의 경우 평균은 51.3%, 중위는 56.2%로 추정되어 소비지출과의 비율이 더 크게 나타났다.

〈표 6-3-6〉 최저생계비와 각종 지출과의 비율

(단위: 원, %)

기준지표	금액(A)	2010년 최저생계비 (4인가구) (B)	비율 (B/A*100)
2010년 평균가계지출	3,498,703	1,397,488	39.9
2010년 중위가계지출 ¹⁾	3,191,433	1,397,488	43.8
2010년 평균소비지출	2,725,172	1,397,488	51.3
2010년 중위소비지출 ²⁾	2,487,713	1,397,488	56.2

주: 1), 2) 중위값(가계지출, 소비지출)은 통계청 전국가계조사 원자료 중 농어촌은 제외한 4인 가구를 STATA로 분석한 결과이다.

자료: 통계청(2010),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표 6-3-7〉 수준균형방식에 의한 2014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

(단위: 원, %)

기준지표	평균증가율 (2010~2012)	2013년 추정값	최저생계비 비율	비율 (B/A*100)
평균가계지출	5.4	3,983,672	39.9	1,589,485
중위가계지출	6.2	3,693,791	43.8	1,617,880
평균소비지출	4.7	3,039,587	51.3	1,559,308
중위소비지출	5.1	2,825,720	56.2	1,588,055

자료: 통계청(각년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제7장 2013년 가구유형별 추가비용

제1절 장애인 추가비용

제2절 노인 추가비용

제3절 한부모 추가비용

제4절 에너지 추가비용

제1절 장애인 추가비용

1. 장애인 추가비용의 개념

가. 장애인 최저생계비의 개념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을 말한다. 따라서 장애인가구의 최저생계비란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는 가구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장애인 추가비용의 개념

장애인 추가비용이란 비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비해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지출을 보전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로 인해 추가비용이 더 필요하다는 데에는 거의 모든 연구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비용을 측정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는 무엇으로 인해 추가비용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비목으로는 크게 공통비목과 특수비목으로 나눌 수 있다. Tibble(2005)은 이를 추가욕구와 특수욕구¹⁰²⁾로 표현하면서 추가욕구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장애인이 더 많이 필요로 하는 비목으로 난방, 세제 등을 예로 들었다. 반면에 특수욕구는 비장애인은 필요로 하지 않지만 장애인은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로 활동보조인, 의약품 등을 들었다.

102) Large(1991)는 이를 장애-증가(disability-enhanced)와 장애-창출(disability-created)로 표현하였다.

또한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은 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손상(impairment)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등의 비용,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function)을 위한 보호·간병비, 보장구비, 재활기관이용료, 주거수리비 등의 비용, 그리고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participation)하는데 필요한 교통비, 교육비, 휴대폰 등의 비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김미곤외, 2010).

비장애인은 필요로 하지 않는 휠체어, 목발, 흰지팡이 등의 보장구, 활동보조인, 의약품 등을 장애인이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대부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비장애인들도 필요로 하는 교통비, 교육비 등이 추가로 더 든다는 사실은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면 교통비도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데, 대중교통 대신에 택시, 자가용 등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Smith et. al. 2004).

2. 장애인가구의 실태

가. 장애인가구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5.61%인 약 268.3만 명으로 추정되어, 2005년의 4.59%에 비해 1.02%p 증가하였다. 또한 장애인 가구는 244.2만 여 가구로, 전체 가구에서 장애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3.9%로 추정되어, 2005년의 12.3%에 비해 1.6%p 증가하였다.

2003년 7월 이후 등록장애의 유형은 15개 유형으로 확대되어 장애인가구와 장애인 등록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의 혜택을 받기 위해 장애인등록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2012년 12월말 현재 등록장애인의 수만도 251만 1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한편 2011년에 실시한 국민생활실태조사의 결과 장애인¹⁰³⁾가구의 비율을 보면, 조사가구는 총 16,500가구이며, 그 중 장애인가구는 1,869가구로 11.3%이다. 한편 전체 조사대상자 중 장애인의 비율은 4.6%로 나타났다.

103) 여기에서 장애인은 등록장애인 뿐만 아니라 비등록장애인도 포함한다.

〈표 7-1-1〉 장애인가구 및 장애인의 비율

구분	가구		개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장애	1,869	11.3	2,007	4.6
비장애	14,631	88.7	41,705	95.4
합계	16,500	100.0	43,712	100.0

다음으로 장애인가구의 장애종류를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54.6%로 가장 많았으며, 시각장애 9.2%, 청각장애 7.9%, 뇌병변장애 7.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안면장애가 0.1%로 가장 적었다. 또한 한 장애인가구 내에 장애종류 둘 이상의 중복장애가구도 4.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2〉 장애인가구의 장애종류

구분	빈도	퍼센트	구분	빈도	퍼센트
지체장애	1,020	54.6	심장장애	4	0.2
뇌병변장애	138	7.4	호흡기장애	19	1.0
시각장애	172	9.2	간장애	8	0.4
청각장애	148	7.9	안면장애	1	0.1
언어장애	22	1.2	장루·요루장애	8	0.4
발달장애	55	3.0	간질장애	6	0.3
정신장애	13	0.7	중복장애	79	4.2
자폐성장애	70	3.7	비등록장애	52	2.8
신장장애	53	2.8	합계	1,869	100.0

한편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가구원 수를 비교해 보면, 장애인가구는 2.69명으로 비장애인가구의 2.64명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7-1-3〉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가구원 수

구분	장애유무	가구수	평균	표준편차	t 통계치
총 가구원 수	장애인가구	1,869	2.69	1.39	1.452
	비장애인가구	14,631	2.64	1.31	

나. 가구소득, 부채, 재산 및 생활비

1) 가구소득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유형별 소득을 비교하였다. 먼저 근로소득에서는 장애인가구의 연간 소득은 1,853.5만원으로 비장애인가구의 3,191.2만원의 58.1%에 불과하였다. 사업 및 부업소득에서도 장애인가구는 491.4만원으로 비장애인가구의 797.3만원의 61.6%로 나타났다.

반면에 사적이전소득에서는 장애인가구가 312.0만원으로 비장애인가구의 243.2만원보다 1.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보험, 기초보장급여 및 기타 정부보조금의 공적이전소득에서는 장애인가구가 413.7만원으로 비장애인가구의 177.8만원보다 2.3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경상소득 및 가처분소득을 비교해보면 장애인가구의 경상소득은 3,223.6만원으로 비장애인가구의 4,553.0만원의 7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가구의 가처분소득도 3,013.8만원으로 비장애인가구의 4,134.6만원의 72.9%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의 68.9%에 비해서는 4%p 상승하여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격차가 약간 줄었다.

〈표 7-1-4〉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유형별 연 소득

(단위: 만원)

구분	장애유무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통계치
근로소득	장애인가구	1,869	1,853.5	2,581.5	-20.545***
	비장애인가구	14,631	3,191.2	3,137.9	
사업 및 부업소득	장애인가구	1,869	491.4	1,644.7	-6.907***
	비장애인가구	14,631	797.3	2,742.6	
재산소득	장애인가구	1,869	153.1	616.0	0.632
	비장애인가구	14,631	143.5	611.3	
사적이전소득	장애인가구	1,869	312.0	498.1	5.600***
	비장애인가구	14,631	243.2	516.3	
공적이전소득	장애인가구	1,869	413.7	606.9	16.222***
	비장애인가구	14,631	177.8	456.6	
경상소득	장애인가구	1,869	3,223.6	2,904.6	-17.944***
	비장애인가구	14,631	4,553.0	3,775.2	
가처분소득	장애인가구	1,869	3,013.8	2,644.0	-16.223***
	비장애인가구	14,631	4,134.6	3,887.3	

*** p<0.001

2) 부채

부채에서는 금융기관대출, 일반사채, 카드빚, 전세보증금(받은 돈), 외상(미리 탄 계 돈), 기타 부채 및 총 부채를 비교하였다. 먼저 금융기관대출은 장애인가구가 1,860.2만원으로 비장애인가구의 2,272.3만원보다 적었다. 반면에 일반사채는 장애인가구가 95.1만원으로 비장애인가구의 42.7만원보다 많았다. 따라서 장애인가구는 이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기관대출은 비장애인가구보다 더 적게 쓰는 반면에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일반사채는 비장애인가구보다 더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카드빚, 전세보증금, 외상 및 기타 부채에서는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또한 총 부채 및 부채에 대해 지불한 이자에서도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7-1-5〉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부채

(단위: 만원)

구분	장애유무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통계치
금융기관대출	장애인가구	1,866	1,860.2	6,869.3	-2.462*
	비장애인가구	14,615	2,272.3	6,299.2	
일반사채	장애인가구	1,866	95.1	1,075.0	2.054*
	비장애인가구	14,631	42.7	660.4	
카드빚	장애인가구	1,866	34.7	314.6	-0.638
	비장애인가구	14,631	40.4	368.2	
전세 보증금 받은 돈	장애인가구	1,869	1,270.7	5,991.2	-1.074
	비장애인가구	14,631	1,425.9	5,872.1	
외상	장애인가구	1,869	1.9	52.7	-0.173
	비장애인가구	14,631	2.3	107.2	
기타 부채	장애인가구	1,866	81.5	697.3	0.749
	비장애인가구	14,627	65.7	872.5	
총 부채	장애인가구	1,869	3,340.5	11,585.1	-1.816
	비장애인가구	14,631	3,846.8	9,293.2	
부채 이자	장애인가구	1,869	110.5	644.2	-1.496
	비장애인가구	14,631	125.3	360.1	

* p<0.05

3) 재산

다음으로 재산에서는 소유부동산, 점유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및 기타 재산(농기계, 농축산물 포함)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소유부동산은 장애인가구가 7,397.9 만원, 비장애인가구가 8,065.6 만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점유부동산도 장애인가구는 417.5 만원, 비장애인가구는 1,487.3만원으로 비장애인가구가 더 높게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각 집단 내에서도 점유부동산 규모의 격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에 금융자산의 경우, 장애인가구는 2,783.6 만원으로 비장애인가구의 3,938.6 만원에 비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동차 가격도 장애인가구가 412.7 만원이었던 반면 비장애인가구는 586.4 만원으로 장애인가구가 더 낮았다.

〈표 7-1-6〉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재산

(단위: 만원)

구분	장애유무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통계치
소유부동산	장애인가구	1,869	7,397.9	26,091.2	-0.621
	비장애인가구	14,631	8,065.6	45,518.1	
점유부동산	장애인가구	1,869	417.5	3,362.9	-0.837
	비장애인가구	14,631	1,487.3	55,237.4	
금융자산	장애인가구	1,869	2,783.6	7,290.6	-6.269***
	비장애인가구	14,631	3,938.6	8,970.3	
자동차	장애인가구	1,869	412.7	691.3	-9.741***
	비장애인가구	14,631	586.4	954.7	
기타 재산 (농기계, 농축산물 포함)	장애인가구	1,869	393.0	2,814.7	-0.848
	비장애인가구	14,631	336.8	1,535.8	
총 자산	장애인가구	1,869	11,404.7	30,664.4	-1.578
	비장애인가구	14,631	14,414.6	81,729.9	

*** p<0.001

4) 생활비

다음으로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월 생활비를 비교하였다. 먼저 가정식비는 장애인가구가 월 평균 43.2만원을 지출하여 비장애인가구의 44.0만원과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외식비는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격차가 컸는데, 장애인가구는 월 평균 17.0만원에 불과하여 비장애인가구의 27.1만원에 비해 10만원 이상 적

게 지출하였다.

주거비 중 월세는 장애인가구가 월평균 3.8만원으로 비장애인가구의 6.1만원의 62.2%으로, 2.3만원 적었으며, 관리비도 5.0만원으로 비장애인가구의 6.0만원보다 약간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광열수도비는 장애인가구가 13.3만원으로, 비장애인가구의 13.0만원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열수도비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에 해당하는 항목 중 하나이기 때문으로 보인다.¹⁰⁴⁾

한편 가구집기·가사용품비는 장애인가구가 7.1만원으로 비장애인가구의 9.6만원에 비해 낮았으며, 피복신발비도 장애인가구가 7.3만원으로 비장애인가구의 11.9만원에 비해 4.6만원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보건의료비에서는 장애인가구가 월 18.8만원을 지출하여 월 13.2만원을 지출한 비장애인가구보다 5.6만원을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족했던 보건의료비에서도 장애인가구는 2.6만원으로 비장애인가구의 1.3만원보다 두 배 정도 더 많았다. 따라서 장애인가구는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현재 지출하고 있는 보건의료비도 더 많지만, 지출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하지 못하는 보건의료비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공교육비를 비교해 보면, 장애인가구는 월 평균 7.6만원을 지출하여 비장애인가구의 10.5만원에 비해 2.9만원을 덜 지출하였으며, 사교육비에서는 장애인가구는 7.5만원밖에 지출하지 않아 비장애인가구의 13.6만원의 절반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양오락비의 경우도 장애인가구가 월 평균 6.1만원을 지출한 반면, 비장애인가구는 월 평균 12.3만원으로 두 배 이상 더 많이 지출하였다. 교통비도 장애인가구는 월 평균 25.1만원을 지출하여, 비장애인의 36.3만원에 비해 10만원 이상 적게 지출하였으며, 통신비 지출은 장애인가구가 월 평균 11.7만원으로 비장애인가구의 14.4만원보다 낮았다.

한편 사적이전은 장애인가구는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자녀에 대한 사적이전을 제외하고 비동거가구원에 대한 사적이전, 비가구원(부모, 자녀 및 기타)에 대한 사적이전 모두 장애인가구가 비장애인가구보다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04) Smith et al.(2004)은 중상 정도의 추가욕구가 있는 장애인들은 전기료, 가스료 등이 일반 가구에 두 배 정도 더 드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결과적으로 장애인가구의 총생활비는 월평균 245.2만원으로 비장애인가구의 327.4만원에 비해 88.2만원 적어서, 비장애인가구의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7〉 최저생계비 항목별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월 평균 지출 비교

(단위: 만원)

구분	장애유무	가구수	평균	표준편차	t 통계치
식료품 가정식비	장애인가구	1,869	43.2	22.1	-1.568
	비장애인가구	14,630	44.0	22.9	
식료품 외식비	장애인가구	1,869	17.0	18.1	-22.296***
	비장애인가구	14,630	27.1	20.5	
주거비 월세	장애인가구	1,869	3.8	10.2	-8.477***
	비장애인가구	14,630	6.1	16.0	
주거관리비	장애인가구	1,869	5.0	12.6	-2.794**
	비장애인가구	14,630	6.0	14.2	
광열수도비	장애인가구	1,869	13.3	6.1	2.080*
	비장애인가구	14,630	13.0	5.8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장애인가구	1,869	7.1	14.6	-6.808***
	비장애인가구	14,630	9.6	16.8	
피복신발비	장애인가구	1,869	7.3	9.4	-18.643***
	비장애인가구	14,630	11.9	14.3	
보건의료비	장애인가구	1,869	18.8	40.4	5.919***
	비장애인가구	14,630	13.2	20.5	
부족했던 보건의료비	장애인가구	1,869	2.6	13.8	3.904***
	비장애인가구	14,630	1.3	11.1	
공교육비	장애인가구	1,869	7.6	22.8	-4.960***
	비장애인가구	14,630	10.5	29.4	
사교육비	장애인가구	1,869	7.5	20.4	-11.319***
	비장애인가구	14,630	13.6	32.3	
교양오락비	장애인가구	1,869	6.1	10.9	-20.782***
	비장애인가구	14,630	12.3	19.6	
교통비	장애인가구	1,869	25.1	39.8	-10.867***
	비장애인가구	14,630	36.3	55.8	
통신비	장애인가구	1,869	11.7	8.8	-12.363***
	비장애인가구	14,630	14.4	8.6	
기타소비지출	장애인가구	1,869	46.1	59.7	-10.242***
	비장애인가구	14,630	61.0	55.0	
사적이전 (비동거가구원)	장애인가구	1,869	2.3	18.7	-2.951**
	비장애인가구	14,630	3.7	22.2	
사적이전 (비가구원)	장애인가구	1,869	5.7	16.9	-12.246***
	비장애인가구	14,630	11.0	21.5	
세금	장애인가구	1,869	7.1	17.1	-15.571***
	비장애인가구	14,630	14.3	29.8	
사회보장분담금	장애인가구	1,869	10.4	14.0	-24.680***
	비장애인가구	14,630	19.2	18.0	
총생활비	장애인가구	1,869	245.2	193.8	-16.918***
	비장애인가구	14,630	327.4	227.0	

* p<0.05; ** p<0.01; *** p<0.001

다. 주거

주거에서는 주택 유형, 점유형태, 사용 방 수, 주택 면적(m²), 주택 현시가, 주택 월세를 비교하였다. 먼저 주택 유형에서는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가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다. 장애인가구 중에는 단독주택의 비율이 40.8%였으나, 비장애인가구 중에는 32.8%로 장애인가구가 단독주택의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아파트의 비율에서는 장애인가구는 41.6%로 비장애인가구 중 아파트의 비율 49.2%에 비해 상당히 낮았다. 따라서 비장애인가구는 거의 절반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반면에 장애인가구는 아직도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아파트 거주 비율만큼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7-1-8〉 장애유무와 주거 유형

구분	장애인가구	비장애인가구	전체
단독주택	763	4,803	5,566
	40.8%	32.8%	33.7%
아파트	778	7,200	7,978
	41.6%	49.2%	48.3%
연립 및 다세대주택	292	2,145	2,437
	15.6%	14.7%	14.8%
기타(영업용 건물내 거주, 오피스텔 등)	36	484	520
	1.9%	3.3%	3.2%
전체	1,869	14,632	16,501
	100.0%	100.0%	100.0%

$$\chi^2 = 62.214, p = 0.000$$

다음으로 주거의 점유형태를 비교해 보면, 가장 큰 차이는 자가와 전세의 비율에서 나타났다. 자가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장애인가구는 58.3%였으나 비장애인가구는 52.4%로 6%p 가까이 높았다. 반면에 전세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장애인가구는 12.4%였으나 비장애인가구는 19.9%로, 장애인가구의 전세 비율이 7.5%p 더 낮았다.

〈표 7-1-9〉 장애유무와 주거 점유형태

구분	장애인가구	비장애인가구	전체
자가	1,089	7,672	8,761
	58.3%	52.4%	53.1%
전세	232	2,911	3,143
	12.4%	19.9%	19.0%
보증부 월세	362	2,807	3,169
	19.4%	19.2%	19.2%
월세	37	285	322
	2.0%	1.9%	2.0%
기타	149	955	1,104
	8.0%	6.5%	6.7%
전체	1,869	14,630	16,499
	100.0%	100.0%	100.0%

$$\chi^2 = 64.533, p = 0.000$$

다음으로 사용 방 수를 비교해 보면, 장애인가구는 2.62개로 비장애인가구의 2.58개보다 약간 많았다. 그러나 주거면적에서는 장애인가구가 74.8m², 비장애인가구가 77.6m²로 장애인가구가 더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 가격에서는 장애인가구는 11,399.2만원으로 비장애인가구의 12,575.8만원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 월세에서도 장애인가구가 3.7만원으로 비장애인가구의 6.1만원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1-10〉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방수, 건평, 주택가격, 월세액

구분	장애유무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통계치
방수	장애인가구	1,869	2.62	0.76	2.509*
	비장애인가구	14,631	2.58	0.79	
주거면적(m ²)	장애인가구	1,869	74.8	37.5	-3.031**
	비장애인가구	14,631	77.6	35.1	
주택 가격 (만원)	장애인가구	1,869	11,399.2	17,583.8	-3.015**
	비장애인가구	14,630	12,575.8	15,654.1	
주택 월세 (만원)	장애인가구	1,869	3.7	10.2	-8.856***
	비장애인가구	14,630	6.1	16.4	

* p<0.05; ** p<0.01; *** p<0.001

라. 생활여건

생활여건에서는 유선방송 또는 케이블 TV, 디지털 TV, 디지털방송 수신기, 진공청소기, 핸디청소기, 디지털카메라 또는 캠코더, 필름카메라, 컴퓨터 또는 노트북, 전기장판 및 휴대폰 등 총 10개 품목의 보유현황, 필요유무에 대해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를 비교하였다. 보유현황의 응답 범주는 ‘① 갖고 있다’, ‘② 가지고 싶지만 현재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어 못 갖고 있다’, ‘③ 별 필요를 느끼지 않아 갖고 있지 않다’로 구성되어 있다. 필요유무의 응답 범주는 ‘① 꼭 필요하다(필수품이다)’, ‘② 있으면 좋다(필수품은 아니다)’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유선방송 또는 케이블TV 보유현황을 비교해 보면, 장애인가구의 91.6%, 비장애인가구의 91.5%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거의 차이가 없었다. ‘가지고 싶지만 못 갖고 있는’ 가구는 장애인가구 중에서 1.6%로 비장애인가구의 0.7%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약간의 차이는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유선방송·케이블 TV 필요성에서도 나타나는데, 장애인가구 중 79.2%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비장애인가구 중에는 74.5%로 장애인가구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7-1-11〉 장애유무와 유선방송 또는 케이블 TV 보유현황 및 필요여부

구분		장애인가구	비장애인가구	전체	통계값
보유 현황	갖고 있다	1,711	13,383	15,094	$\chi^2 = 17.328,$ $p = 0.000$
		91.6%	91.5%	91.5%	
	가지고 싶지만 현재 경제적 여건이 안 되어 못 갖고 있다	29	102	131	
		1.6%	0.7%	0.8%	
	별 필요를 느끼지 않아 갖고 있지 않다	128	1,146	1,274	
		6.9%	7.8%	7.7%	
필요 여부	꼭 필요하다	1,481	10,907	12,388	$\chi^2 = 19.549,$ $p = 0.000$
		79.2%	74.5%	75.1%	
	있으면 좋다	388	3,725	4,113	
		20.8%	25.5%	24.9%	

다음으로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디지털 TV 보유현황을 비교해 보면, 장애인가구는 52.7%가 ‘갖고 있다’고 응답하여 비장애인가구의 62.0%에 비해 10%p 가까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여건으로 갖지 못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도 장애인가구 중에는 11.9%로, 비장애인가구의 7.1%에 비해 5%p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디지털 TV의 필요성에서는, 장애인가구 중 49.0%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비장애인가구 중에는 52.0%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그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따라서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디지털 TV 보유현황의 차이는 상당 부분 경제적인 것으로 보인다.

〈표 7-1-12〉 장애유무와 디지털 TV 보유현황 및 필요여부

구분		장애인가구	비장애인가구	전체	통계값
보유 현황	갖고 있다	985	9,071	10,056	$\chi^2 = 84.137$, p = 0.000
		52.7%	62.0%	60.9%	
	가지고 싶지만 현재 경제적 여건이 안 되어 못 갖고 있다	223	1,042	1,265	
		11.9%	7.1%	7.7%	
	별 필요를 느끼지 않아 갖고 있지 않다	661	4,518	5,179	
		35.4%	30.9%	31.4%	
필요 여부	꼭 필요하다	915	7,601	8,516	$\chi^2 = 5.951$, p = 0.015
		49.0%	52.0%	51.6%	
	있으면 좋다	954	7,030	7,984	
		51.0%	48.0%	48.4%	

다음으로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디지털방송 수신기 보유 현황을 비교해 보면, 장애인가구 중에는 50.8%, 비장애인가구 중에는 52.4%가 디지털방송 수신기를 갖고 있다고 응답하여, 비장애인가구의 보유 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필요 여부에서는 ‘꼭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율은 장애인가구 중에는 40.9%, 비장애인가구 중에는 39.3%로 장애인가구가 약간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필요성에서는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가 차이가 없으나 장애인가구는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디지털방송 수신기를 덜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7-1-13〉 장애인가구와 디지털방송 수신기 보유현황 및 필요여부

구분		장애인가구	비장애인가구	전체	통계값
보유 현황	갖고 있다	949	7,663	8,612	$\chi^2 = 30.20$, $p = 0.000$
		50.8%	52.4%	52.2%	
	가지고 싶지만 현재 경제적 여건이 안 되어 못 갖고 있다	79	317	396	
		.0	.0	.0	
	별 필요를 느끼지 않아 갖고 있지 않다	841	6,651	7,492	
필요 여부	꼭 필요하다	764	5,749	6,513	$\chi^2 = 1.741$, $p = 0.191$
		40.9%	39.3%	39.5%	
	있으면 좋다	1,105	8,882	9,987	
		59.1%	60.7%	60.5%	

다음으로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진공청소기 보유현황을 비교해 보면, 장애인가구 중에는 69.2%, 비장애인가구 중에는 77.5%가 ‘갖고 있다’고 응답하여 장애인가구의 진공청소기 보유 비율이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8%p 이상 낮게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여건으로 못 갖고 있는 가구의 비율도 장애인가구는 5.3%로, 비장애인가구의 2.1%에 비해 3%p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진공청소기의 필요 여부를 보면, 장애인가구 중 60.5%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비장애인가구 중에는 66.8%로 장애인가구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표 7-1-14〉 장애인가구와 진공청소기 보유현황 및 필요여부

구분		장애인가구	비장애인가구	전체	통계값
보유 현황	갖고 있다	1,293	11,342	12,635	$\chi^2 = 107.321$, $p = 0.000$
		69.2%	77.5%	76.6%	
	가지고 싶지만 현재 경제적 여건이 안 되어 못 갖고 있다	99	301	400	
		5.3%	2.1%	2.4%	
	별 필요를 느끼지 않아 갖고 있지 않다	477	2,988	3,465	
필요 여부	꼭 필요하다	1,130	9,780	10,910	$\chi^2 = 30.154$, $p = 0.000$
		60.5%	66.8%	66.1%	
	있으면 좋다	739	4,851	5,590	
		39.5%	33.2%	33.9%	

핸디청소기의 보유 현황에서도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장애인가구의 18.9%가 ‘갖고 있다’고 응답하여, 비장애인가구의 25.4%보다 보유 비율이 6.5%p 낮게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가구 중에는 12.3%, 비장애인가구 중에는 14.2%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7-1-15〉 장애유무와 핸디청소기 보유현황 및 필요여부

구분		장애인가구	비장애인가구	전체	통계값
보유 현황	갖고 있다	354	3,710	4,064	$\chi^2 = 111.254$, $p = 0.000$
		18.9%	25.4%	24.6%	
	가지고 싶지만 현재 경제적 여건이 안 되어 못 갖고 있다	61	131	192	
		3.3%	0.9%	1.2%	
	별 필요를 느끼지 않아 갖고 있지 않다	1,454	10,790	12,244	
		77.8%	73.7%	74.2%	
필요 여부	꼭 필요하다	230	2,073	2,303	$\chi^2 = 4.787$, $p = 0.029$
		12.3%	14.2%	14.0%	
	있으면 좋다	1,639	12,558	14,197	
		87.7%	85.8%	86.0%	

디지털카메라·캠코더의 보유현황을 비교해 보면,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갖고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 장애인가구는 30.2%로 비장애인가구의 52.4%에 비해 22.2%p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별 필요를 느끼지 않아 갖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장애인가구는 66.8%, 비장애인가구는 46.3%로 장애인가구가 20.5%p나 높아서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여가생활유형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카메라·캠코더의 필요여부에서도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차이는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장애인가구 중 디지털카메라·캠코더를 필수품(꼭 필요하다)이라고 응답한 가구는 14.4%로 비장애인가구의 26.0%에 비해 11.6%p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 모두 필수품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디지털카메라·캠코더를 갖고 있는 가구의 비율보다 낮게 나타나 필수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표 7-1-16〉 장애인가와 디지털카메라 또는 캠코더 보유현황 및 필요여부

구분		장애인가구	비장애인가구	전체	통계값
보유 현황	갖고 있다	564	7,671	8,235	$\chi^2 = 341.404$ $p = 0.000$
		30.2%	52.4%	49.9%	
	가지고 싶지만 현재 여건이 안 되어 못 갖고 있다	56	187	243	
		3.0%	1.3%	1.5%	
필요 여부	별 필요를 느끼지 않아 갖고 있지 않다	1,249	6,773	8,022	$\chi^2 = 119.850$ $p = 0.000$
		66.8%	46.3%	48.6%	
	꼭 필요하다	269	3,802	4,071	
		14.4%	26.0%	24.7%	
	있으면 좋다	1,600	10,829	12,429	
		85.6%	74.0%	75.3%	

필름카메라의 보유 현황을 보면, 장애인가구는 13.3%, 비장애인가구는 17.1%가 ‘갖고 있다’고 응답하여 디지털카메라 보유 가구에 비해 비율이 낮았으며, 상대적으로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차이도 적었다. 필요여부에서도 ‘꼭 필요하다’는 가구의 비율은 장애인가구는 2.4%, 비장애인가구는 2.0%에 불과하여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7-1-17〉 장애인가와 필름카메라 보유현황 및 필요여부

구분		장애인가구	비장애인가구	전체	통계값
보유 현황	갖고 있다	248	2,500	2,748	$\chi^2 = 17.986$, $p = 0.000$
		13.3%	17.1%	16.7%	
	가지고 싶지만 현재 경제적 여건이 안 되어 못 갖고 있다	5	26	31	
		0.3%	0.2%	0.2%	
필요 여부	별 필요를 느끼지 않아 갖고 있지 않다	1,616	12,105	13,721	$\chi^2 = 1.074$, $p = 0.297$
		86.5%	82.7%	83.2%	
	꼭 필요하다	44	292	336	
		2.4%	2.0%	2.0%	
	있으면 좋다	1,824	14,339	16,163	
		97.6%	98.0%	98.0%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컴퓨터/노트북 보유현황을 비교해 보면, 장애인가구의 59.2%, 비장애인가구의 76.5%가 컴퓨터 또는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가구의 비율이 17.3%p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별 필요를 느끼지 않아 갖고 있지 않다는 가구의 비율은 장애인가구가 39.1%로, 비장애인가구의 22.5%보다 16.6%p 높게 나타났다. 또한 컴퓨터/노트북의 필요여부에서도 장애인가구가 비장애

인가구보다 꼭 필요하다는 가구의 비율이 더 낮게 나타났다. 장애인가구의 52.9%, 비 장애인가구의 71.5%가 컴퓨터 또는 노트북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7-1-18〉 장애유무와 컴퓨터 또는 노트북 보유현황 및 필요여부

구분		장애인가구	비장애인가구	전체	통계값
보유 현황	갖고 있다	1,107	11,199	12,306	$\chi^2 = 261.932,$ $p = 0.000$
		59.2%	76.5%	74.6%	
	가지고 싶지만 현재 경제적 여건이 안 되어 못 갖고 있다	31	134	165	
		1.7%	0.9%	1.0%	
필요 여부	별 필요를 느끼지 않아 갖고 있지 않다	731	3,299	4,030	$\chi^2 = 271.740,$ $p = 0.000$
		39.1%	22.5%	24.4%	
	꼭 필요하다	988	10,465	11,453	
		52.9%	71.5%	69.4%	
	있으면 좋다	881	4,167	5,048	
		47.1%	28.5%	30.6%	

다음으로 전기장판의 보유현황을 비교하였다. 장애인가구는 81.6%, 비장애인가구는 74.8%가 ‘갖고 있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품목들과 달리 장애인가구의 보유 비율이 비장애인가구보다 6.8%p 높게 나타났다. 가지고 싶지만 못 갖고 있다는 응답도 장애인가구는 2.5%, 비장애인가구는 0.8%로 장애인가구의 비율이 더 높았다. 전기장판의 필요여부에서도 장애인가구의 74.1%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비장애인가구는 60.7%만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7-1-19〉 장애유무와 전기장판 보유현황 및 필요여부

구분		장애인가구	비장애인가구	전체	통계값
보유 현황	갖고 있다	1,526	10,937	12,463	$\chi^2 = 104.882,$ $p = 0.000$
		81.6%	74.8%	75.5%	
	가지고 싶지만 현재 경제적 여건이 안 되어 못 갖고 있다	46	122	168	
		2.5%	0.8%	1.0%	
필요 여부	별 필요를 느끼지 않아 갖고 있지 않다	297	3,572	3,869	$\chi^2 = 126.755,$ $p = 0.000$
		15.9%	24.4%	23.4%	
	꼭 필요하다	1,385	8,886	10,271	
		74.1%	60.7%	62.3%	
	있으면 좋다	483	5,745	6,228	
		25.9%	39.3%	37.7%	

마지막으로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휴대폰 보유현황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가구는 95.6%가 갖고 있다고 응답하여 비장애인가구의 97.2%보다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못 갖고 있는 장애인가구는 1.3%로 비장애인가구의 0.5%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또한 휴대폰 필요여부에서도 장애인가구는 92.2%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비장애인가구의 94.4%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표 7-1-20〉 장애유무와 휴대폰 보유현황 및 필요여부

구분		장애인가구	비장애인가구	전체	통계값
보유 현황	갖고 있다	1,786	14,216	16,002	$\chi^2 = 20.265,$ $p = 0.000$
		95.6%	97.2%	97.0%	
	가지고 싶지만 현재 경제적 여건이 안 되어 못 갖고 있다	24	79	103	
		1.3%	0.5%	0.6%	
	별 필요를 느끼지 않아 갖고 있지 않다	59	336	395	
필요 여부	꼭 필요하다	1,723	13,807	15,530	$\chi^2 = 14.232,$ $p = 0.000$
		92.2%	94.4%	94.1%	
	있으면 좋다	146	824	970	
		7.8%	5.6%	5.9%	

이상에서 생활여건에 포함된 10개 품목 중에서 디지털 TV, 디지털방송 수신기, 진공청소기, 핸디청소기, 디지털카메라 또는 캠코더, 필름카메라, 컴퓨터 또는 노트북, 그리고 휴대폰은 장애인가구가 비장애인가구보다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낮고,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율도 낮았다. 그러나 유선방송 또는 케이블 TV와 전기장판에서는 반대로 장애인가구가 비장애인가구보다 보유 비율도 높고,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도 높았다. 장애인가구의 소득이 비장애인가구보다 낮은 사실을 고려한다면 유선방송과 전기장판은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장애인가구에서 욕구가 훨씬 더 큰 항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 주관적 최저생계비

다음으로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주관적 최저생계비를 비교하였다. 주관적 최저생계비는 해당 가구의 주관적 생계비로 ‘1달 동안 근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비’(이하 주관적 최저생계비Ⅰ), ‘1달 동안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비’(이하 주관적 최저생계비Ⅱ), ‘1달 동안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이하 주관적 최저생계비Ⅲ)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해당 지역의 4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하 4인 가구 주관적 최저생계비)과 평균 소득을 제시한 후 해당 지역의 4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하 평균 소득 대비 4인 가구 주관적 최저생계비)을 자가(전세 포함)와 월세(사글세 포함)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주관적 최저생계비Ⅰ을 보면, 장애인가구가 156만3천원으로 비장애인가구의 193만3천원에 비해 37만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달 동안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비’인 주관적 최저생계비Ⅱ도 장애인가구는 205만4천원으로 비장애인가구의 254만6천원에 비해 49만2천원이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1달 동안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인 주관적 최저생계비Ⅲ도 장애인가구는 268만7천원으로 비장애인가구의 333만3천원에 비해 64만6천원이나 적었다. 따라서 장애인가구가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생활수준에 대한 기대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주관적 최저생계비Ⅰ에서 주관적 최저생계비Ⅲ으로 올라가면서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주관적 최저생계비의 차이는 더욱 커지고 있다.

장애인가구는 본인 가구의 생활수준에 대한 기대가 낮을 뿐 아니라 다른 가구의 최저생계비도 낮게 보는 경향이 있었다. 장애인가구가 주관적으로 인식한 자가 및 전세 4인 가구 주관적 최저생계비는 237만7천원으로, 비장애인가구의 270만원에 비해 32만3천원이 낮았다. 또한 월세 및 사글세 4인 가구 주관적 최저생계비도 장애인가구는 277만6천원, 비장애인가구는 314만7천원으로 응답하여 장애인가구가 37만1천원이 낮았다.

평균 소득 대비 4인 가구 주관적 최저생활비는 자가 및 전세에 대해서 장애인가구는 272만5천원이었으며, 비장애인가구는 301만5천원으로 나타나 여전히 장애인가구의 주관적 최저생활비가 29만원 낮았다. 또한 월세 및 사글세에 대해서도 평균 소득 대비

4인 가구 주관적 최저생활비를 장애인가구는 313만9천원, 비장애인가구는 345만원으로 응답하여, 장애인가가 비장애인가구에 비해서 31만1천원이 낮았다.

〈표 7-1-21〉 장애인가와 비장애인가구의 주관적 최저생계비

(단위: 가구, 만원)

구분	장애유무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통계치
주관적 최저생계비Ⅰ	장애인가구	1,869	156.3	106.5	-13.991***
	비장애인가구	14,631	193.3	117.4	
주관적 최저생계비Ⅱ	장애인가구	1,869	205.4	129.1	-15.333***
	비장애인가구	14,631	254.6	142.6	
주관적 최저생계비Ⅲ	장애인가구	1,869	268.7	160.1	-15.854***
	비장애인가구	14,631	333.3	205.6	
4인 가구 주관적 최저생계비(자가, 전세)	장애인가구	1,869	237.7	76.1	-16.808***
	비장애인가구	14,630	270.0	92.9	
4인 가구 주관적 최저생계비(월세, 사글세)	장애인가구	1,869	277.6	82.8	-17.675***
	비장애인가구	14,629	314.7	103.5	
평균 소득 대비 최저생계비(자가, 전세)	장애인가구	1,869	272.5	75.6	-13.726***
	비장애인가구	14,631	301.5	87.3	
평균 소득 대비 최저생계비(월세, 사글세)	장애인가구	1,868	313.9	117.0	-12.911***
	비장애인가구	14,631	345.0	95.5	

* $p < 0.05$; ** $p < 0.01$; *** $p < 0.001$

3. 장애인가구 추가비용 산출 방식

장애인가구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으로는 삶의 수준방식, 추가비용계산방식, 추가비용조정방식을 들 수 있다(김미곤 외, 2010).

가. 삶의 수준 방식

1) 이론적 배경과 접근방법

장애인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첫 번째 방법은 삶의 수준(standard of liv-

ing) 방식이다. 삶의 수준 방식은 Sen의 삶의 수준에 대한 논의에 직접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Sen은 빈곤을 삶의 수준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논의하면서 삶의 수준 관점에서는 음식 및 다른 재화를 활용하여 살아가는 삶의 양식, 즉 충분한 영양수준을 누릴 수 있는지, 삶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등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관심의 초점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살 수 있는 지이다. Sen은 사람들이 성취할 수 있는 다양한 삶의 조건을 기능(functionings), 그리고 기능을 성취할 수 있는 역량(ability)을 능력(capabilities)이라고 하였다. 기능은 성취이며, 능력은 성취할 수 있는 역량이다. 따라서 기능은 삶의 조건의 다양한 측면을 말하기 때문에 삶의 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다. 반면에 능력은 적극적 의미의 자유이며, 자신이 살고자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한다(Sen,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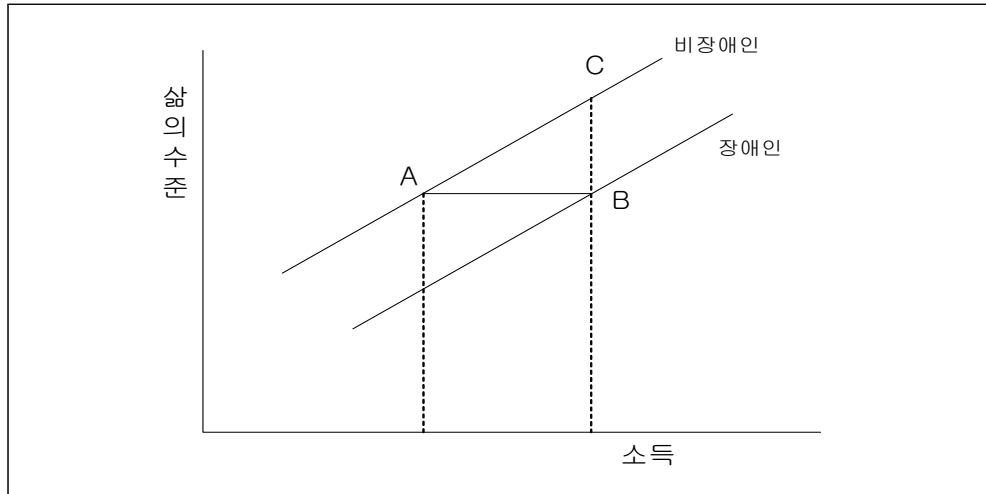
Sen의 접근방법은 장애인에게도 다양하게 적용되어 왔다. Kuklys(2004)는 동일한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원을 기능으로 전환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하면서, 여기에는 사회적·환경적·개인적 전환 요인들과 소득의 함수인 능력의 차이 때문이라고 보았다. 능력 관점(capability perspective)에서 보면 장애인은 성취할 수 있는 기능의 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잠재적 기능의 범위도 줄어들기 때문에 낮은 능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장애인은 동일한 소득 수준인 비장애인에 비해 자원을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에 사용하여도 삶의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삶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게는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게 된다. Berthoud, Lakey and McKay(1993)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동일한 삶의 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가 필요로 하는 소득을 비교하였다.

삶의 수준은 전체 가구에서 소득의 증가에 따라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장애인이 포함되어 욕구가 더 많은 가구에서는 동일한 소득으로 삶의 수준은 낮아지게 된다. 반대로 소득이 높아지면 욕구가 더 많은 가구라도 동일한 삶의 수준을 얻을 수 있다.

삶의 수준과 소득이 선형관계에 있다면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삶의 수준과 소득과의 관계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7-1-1]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수준과 소득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인가구의 소득 B는 비장애인가구의 소득 A와 동일한 삶의 수준을 제공한다. 따라서 B-A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된다.

그 식은 아래와 같이 쓸 수 있다.

$$S = \alpha Y + \beta D + \gamma X + \epsilon$$

단, S는 삶의 수준, Y는 가구소득, D는 장애여부, X는 가구구성 등의 다른 특성변수들이다.

위의 식으로부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E라고 하면, E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E = \beta / \alpha$$

삶의 수준과 소득 및 장애여부, 주택소유여부, 연령, 성별 등의 그 외 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또는 로지스틱회귀분석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종속변수는 가구의 삶의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이며, 독립변수는 가구소득, 장애여부이며, 그 외 소득과 삶의 수준의 관계에서 통제변수로 중요한 변수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 접근방법에서 우선 중요한 것은 종속변수인 삶의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독립변수로 소득을 활용하기 때문에 소득 이외의 삶의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를

필요로 한다. 삶의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는 또 다른 주요 독립변수인 장애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내는 것이 좋다. 장애가 미치는 영향은 추가적인 비용을 충족시키고 삶의 수준을 위한 자원을 줄이도록 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통해 파악된다. 따라서 다른 재화나 서비스보다 가사도우미에 대한 선호도가 장애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가사도우미에 대한 지출은 삶의 수준을 나타내는 좋은 척도라고 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가치 있는 기능을 나타내는 척도일수록, 또한 그 척도가 구체적인 소비 형태에서 떨어져 있을수록 더 좋다.

삶의 수준 척도와 소득 간의 관계에서 탄력성이 높아야 하는데, 척도가 자원의 변화에 민감하게 된다. 음식에 대한 지출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며, 이는 최소의 음식은 필수품이기 때문이며, 한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소비내구재는 소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Berthoud et al.(1993)은 7가지 소비내구재의 소유여부로 만든 복합척도 가계예산(저축능력을 포함)에 대한 5가지 질문이 상당히 좋은 척도라는 것을 알았다. 소비내구재에는 예를 들어 비디오, 세탁기, 식기세척기, CD 플레이어, 자동차, 마이크로웨이브, 휴대전화, 건조기, 컴퓨터, 냉장고, 중앙난방, 전화 등이 포함되었다.

가구예산에 대한 질문들 중에는 그 가구에 저축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소득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 좋은 척도로 나타났다. 이는 이론적으로 볼 때도 가처분 소득이 많은 가구가 더 많이 저축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추가 욕구는 저축에 대한 선호도를 줄일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특히 만족스러운 척도이다(Zaidi and Burchardt, 2003).

Zaidi and Burchardt(2003)는 또한 삶의 수준 방식을 활용하면서 가구의 재정 상황을 자기 평가한 질문이 삶의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로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문항의 응답은 다음의 4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안락하게 살고 있다’ ② ‘괜찮다’ ③ ‘간신히 지낸다’ ④ ‘힘들게 지낸다’.

또한, 2007년 장애인가구 최저생계비 연구 및 이선우(2008)에서는 삶의 수준을 나타내는 또 다른 종속변수로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의 생활여건 항목에 포함된 생활용품, 식생활, 의생활, 주택, 의료, 가족 및 문화생활, 저축, 사회적지지, 교육 분야의 총 23개 항목의 복합척도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삶의 수준 방법은 위에서 제시한 여러 방식 중 적절한 방식으로 삶의 수준을

측정하여, 삶의 수준 척도의 수준에 따라 연속변수이면 다중회귀분석을, 이항변수이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앞에서 제시했던 식을 찾아낼 수 있으며, 그 식을 근거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

2) 장점과 단점

삶의 수준 방법은 이론적으로 단순하며 설득력이 높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삶의 수준 방법은 어떤 영역에서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에 장애로 인한 추가생활비가 발생하는지 구분해내기 매우 힘들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또한 삶의 수준 방법은 회귀 분석 또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장애종류별로 충분한 사례수를 필요로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장애종류별 추가생활비를 계산하기 어렵다.

나. 추가비용계산방식

추가비용계산방식은 2000년, 2004년 장애인가구의 최저생계비 계측에서 사용한 방법이다. 이 때 장애인가구 최저생계비는 일반가구의 최저생계비에, 장애인가구 필수품의 평균 비용을 장애인가구의 최저생계비에 포함시켰다. 추가비용계산방식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아래와 같다. 즉,

$$\text{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 \text{공통비목 추가비용} + \text{특수비목 추가비용}$$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에는 일반가구와 장애인가구가 공통적으로 필요한 품목이지만 일반가구에 비해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따른 공통비목 추가비용, 그리고 장애인가구에서 특수하게 필요로 하는 특수품목 추가비용이 있다. 즉, 장애인가구는 일부 비목에 대해서는 일반가구가 필요로 하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요구한다. 또한 장애인가구는 일반가구에서는 필요로 하지 않는 비목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추가비용계산방식에서는 일반가구의 최저생계비 품목 중에서 장애로 인해서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공통품목의 비용을 계산하였다. 추가비용이 필요한 공통비목으

로는 교통비, 휴대폰비, 의료비, 교육비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장애인가구에서만 필요한 특수비목으로는 보호·간병비, 재활기관이용료, 보장구 구입유지비, 주거수리비 등을 들 수 있다.

추가비용계산방식은 기존에 계측된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에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반면에 이 방법은 장애인가구가 비장애인가구보다 많이 사용하는 항목은 고려하면서 비장애인가구보다 적게 사용하는 항목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실제보다 부풀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다. 추가비용조정방식

추가비용조정방식은 장애인가구가 장애로 인해 추가 욕구를 갖고 있어서 일반가구에 비해 지출이 많은 품목이 있을 뿐 아니라 장애로 인해 일반가구에 비해 지출이 적은 품목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 방식이다. 따라서 추가비용조정방식에서는 장애인가구가 일반가구보다 추가로 지출하는 비용 외에 일반가구보다 덜 지출하는 비용을 파악한다.

추가비용조정방식에서 일반가구에 비해 장애인가구가 지출이 적은 항목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가구의 마켓 바스켓에 포함된 전체 항목에 대해 비장애인가구와 장애인가구 간의 t-검증을 실시하여 장애인가구의 지출이 더 적은 항목이 있는지 파악하고, 그 비용을 최저생계비에서 감액함으로써 장애인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계산한다.

결과적으로 추가비용조정방식에서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text{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 \text{공통비목 추가비용} - \text{공통비목 감소비용} + \text{특수비목 추가비용}$

이 방법의 장점은 실제로 장애인이 필요로 항목만을 최저생계비에 포함시킴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반면에 추가비용조정방식은 장애인의 욕구와 무관한 소득, 접근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장애인가구의 특정 품목에 대한 지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즉, 장애인가구의 지출이 일반가구보다 적은

품목이 있다하더라도 실제로 그 품목에 대한 장애인가구의 욕구가 일반가구의 욕구보다 적은 것이 아니라 장애인가구의 소득이 비장애인가구의 소득보다 낮기 때문에 장애인가구의 지출이 더 적게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지출은 가구의 선호도 외에 가구의 소득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장애인들은 동일한 소득의 비장애인들과 동일한 생활수준을 누리는데 필요한 추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는데 충분한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Tibble, 2005). 또한 현재의 편의시설이나 제도가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훨씬 높은 비용이 들어서 현재를 기준으로 장애인들의 특정 품목에 대한 욕구를 파악한다면 오히려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있는 현재의 불평등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라. 소결

위에서 살펴 본 세 가지 장애인가구 추가비용 산출방식 중에서 먼저 삶의 수준 방식은 각 장애종류별 등급별 세부적인 추가비용 산출이 상당히 어렵고, 장애인가구의 최저생계비계측에서 필요한 현금급여기준선을 산출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추가비용 계산 방식은 장애인가구가 비장애인가구보다 많이 사용하는 항목은 고려하면서 비장애인가구보다 적게 사용하는 항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마지막으로 추가비용조정 방식은 공통비목 추가 또는 감소비용을 고려하고 있으나,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실태 비교에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고, 차이가 발견될지라도 규범적인 측면에서 차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2010년의 장애인가구 최저생계비 계측에서도 공통비목 감소비용은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다¹⁰⁵⁾.

105) 2010년 조사에서 장애인가구의 감소비용을 산출하고자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비목별 세부 품목에 대해 차이검증을 실시하였으나 대부분의 품목에서는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가 차이를 나타낸 품목에서도 일부(가족단위 외식횟수, 상하수도 요금, 가구주의 1주 평균 근무일수, 1년간 가족 단위의 장거리 여행 횟수, 자녀 용돈)는 장애인가구가 비장애인가구보다 적게 소비하였으나, 일부 품목(정화조 1회 청소비, 안경 구입비)에서는 장애인가구가 비장애인가구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세부 품목의 평균 비용에서 일부 나타나는 차이는 두 가구 유형의 욕구 차이에 의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장애인가구가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소득이 낮으며, 장애가구원으로 인해 적합한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시설을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차별로 인해 이용이 저조하여 발생할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실태 자료에서 장애인가구가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적게 소비하는 품목이 일부 나타나지만 이러한 품목을 최저생계비에 반영하여 그 비용을 삭감하기는 어렵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본 연구의 장애인가구 추가비용은 추가비용계산방식으로 계측하였다.

4. 장애인 추가비용 산출

가. 장애인 가구 선정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조사대상 장애인가구는 2007년, 2010년 최저생계비 연구와 동일하게 전체 장애인가구 중 일반가구 소득의 50% 이하인 장애인 가구만을 선정하였다. 일반가구의 최저생계비를 측정할 때 조사대상 가구를 선정하는 기준은 일반가구 소득의 40%였으나, 장애인가구는 가구소득이 일반가구보다 낮고, 일반가구에 비해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불리한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가구의 가구소득의 50% 선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장애인가구와 추가비용조사의 장애인가구의 경상소득과 생활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경상소득은 예상한 바와 같이 전체 장애인가구가 월 268.6만원으로 추가비용조사 장애인가구의 연 130.2만원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 총생활비에서도 전체 장애인가구는 월 245.2만원으로 추가비용조사 장애인가구의 월 134.2만원에 비해 100만원 이상 높았다.

〈표 7-1-22〉 전체 장애인가구와 추가비용조사 장애인가구의 소득과 생활비 비교

구분	국민생활실태조사			최저생계비조사		
	평균	표준편차	가구수	평균	표준편차	가구수
경상소득	268.6	242.0	1,869	130.2	78.5	803
총생활비	245.2	193.8	1,869	134.2	85.1	803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및 『2013년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기초조사 (장애인가구용)』 원자료.

나. 장애종류 및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인가구의 재범주화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은 장애종류 및 장애정도 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에 따라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을 계측하기 위하여 장애인가구를 장애종류 및 장애정도

별로 범주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가구를 15개 장애종류 및 6개 장애 등급을 고려하여 분류한다면 총 66개의 범주로 장애인가구를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가구의 범주가 이와 같이 지나치게 많아진다면 현실적으로 장애인 추가비용을 계측한다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활용하기 매우 어렵다. 이에 따라 장애인가구를 장애종류별 등급별로 재범주화 하되 가능한 한 범주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 및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의 최종 범주였던 지체 중증(1-2급), 지체경증·안면장애, 뇌병변 중증(1-4급), 뇌병변경증, 시각중증(1-2급), 시각경증, 청각언어중증(1-2급), 청각언어경증, 발달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¹⁰⁶⁾, 정신장애 및 내부장애의 11개 장애범주¹⁰⁷⁾를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장애범주별로 전체 장애인가구와 추가비용조사 장애인가구의 분포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지체중증은 전체 장애인가구 중에서는 7.3%였으나 추가비용조사에서는 5.6%로 비율이 낮아졌으며, 지체경증도 51.5%에서 37.7%로 낮아졌다. 반면에 뇌병변중증은 6.3%에서 9.9%, 뇌병변경증은 1.6%에서 2.4%, 시각중증은 1.5%에서 2.8%, 시각경증은 8.4%에서 9.7%, 청각언어중증은 2.0%에서 2.3%, 청각언어경증은 7.8%에서 12.1%로 비율이 높아졌다. 또한 발달장애도 3.9%에서 5.7%, 정신장애는 4.0%에서 4.6%, 그리고 내부장애는 5.7%에서 7.3%로 비중이 높아졌다.

〈표 7-1-23〉 장애인가구의 장애 범주 별 분포

장애종류	전체		50% 이하		장애종류	전체		50% 이하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지체중증	126	7.3	44	5.6	청각언어중증	34	2.0	18	2.3
지체경증	895	51.5	296	37.7	청각언어경증	135	7.8	95	12.1
뇌병변중증	110	6.3	78	9.9	발달장애	69	3.9	45	5.7
뇌병변경증	29	1.6	19	2.4	정신장애	70	4.0	36	4.6
시각중증	27	1.5	22	2.8	내부장애	98	5.7	57	7.3
시각경증	145	8.4	76	9.7	합계	1,738	100.0	786	100.0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및 『2013년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기초조사(장애인가구용)』 원자료.

106) 2007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정신지체는 지적장애로, 발달장애는 자폐성장애로 명칭이 바뀌었다. 따라서 두 장애종류를 묶는 범주로 두 범주를 모두 포함시킬 수 있는 발달장애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발달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로 바꾸어 사용한다.

107) 11개 범주는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에서의 전문가 델파이조사, 2007년 실태조사를 이용한 통계 방법(분산분석의 Tukey 검증)으로 결정되었다.

다. 추가비용 비목 선정

1) 장애범주별로 추가비용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0% 이상 비목 선정

일반가구의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 전물량방식의 경우 필수품을 선정하고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장애인가구는 장애범주별로 필수품이 매우 다양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체 장애인가구에 대해 품목별 마켓 바스켓을 이용한 접근이 불가능하다. 심지어는 동일한 장애종류, 등급이라고 하더라도 필수품이 크게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지체 1급의 경우에도 하반신 마비인 장애인과 양팔이 절단된 장애인은 장애 부위가 각기 다르고 필요한 보장구가 서로 다르다.

이에 따라 장애인가구의 최저생계비를 측정하는 데 포함하는 필수품은 비목별 접근을 실시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04년, 2007년 및 2010년 장애인가구의 최저생계비 계측 연구의 결과를 반영하여 장애인가구원 개인의 교통비, 의료비, 휴대폰비, 교육비, 보호·간병비, 보장구 구입유지비, 재활기관이용료 및 주거수리비 항목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계측하기 위한 비목으로 선정하였다. 이 중에서 교통비, 의료비, 휴대폰비, 교육비는 공통비목 추가비용¹⁰⁸⁾에 해당하며, 보호·간병비, 보장구 구입유지비, 재활기관이용료 및 주거수리비는 특수비목 추가비용¹⁰⁹⁾에 해당한다.

추가비용 8개 비목에 대해 11개 장애범주별로 지출이 있는 비율¹¹⁰⁾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통비는 뇌병변경증 100.0%, 지체경증 96.6%, 내부장애 94.7%, 청각언어중증 94.4%, 시각경증 93.4%, 청각언어경증 92.6% 등으로 6개 장애범주에서 90% 이상의 가구가 장애인가구원의 지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체중증 88.6%, 정신장애 86.1%, 발달장애 84.4%, 뇌병변중증 82.1%, 시각중증 81.8%로 나타나는 등 11

108) 장애인이 해당 비목에 지출하는 실제 금액을 조사하였다. 따라서 비장애인이 해당 비목에 지출하는 비용을 제해야 추가비용이 된다.

109) 보호·간병비, 보장구 구입유지비, 재활기관이용료는 해당 비목에 지출하는 실제 금액을 조사하였으나 이 비목들은 비장애인에게에는 해당하지 않는 비목으로 금액 전체를 해당 비목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으로 보았다. 반면에 주거수리비는 “장애로 인하여 거주하기에 불편한 곳을 수리하는데 예상되는 총 비용”으로, 금액 전체를 해당 비목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으로 볼 수 있다.

110) 교통비, 의료비, 교육비, 휴대폰비는 실제 지출이 있는 비율이며, 보호·간병비, 보장구 구입유지비, 재활기관이용료, 주거수리비는 현재 지출하고 있는 비용 외에 돈이 없어서 지출 못하고 있는 비용도 포함한 비율이다.

개 전체 장애범주에서 장애인가구원의 교통비가 ‘있다’는 응답이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의료비에서도 시각경증 93.4%, 지체경증 92.2%, 뇌병변경증 89.5%, 청각언어중증 88.9%, 지체중증 88.6%, 뇌병변중증 87.2%, 청각언어경증 및 내부장애가 각각 84.2%로 80%가 넘는 가구에서 추가비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각중증 77.3%, 정신장애 66.7%, 발달장애 64.4% 등 11개 전체 장애범주에서 추가 의료비가 ‘있다’는 응답이 50% 이상이었다.

교육비에서는 일부 장애유형에서 특수교육이 장애아동의 발달에 핵심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이 있는 가구 외에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되어야 하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가구를 포함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장애인가구원의 교육비 지출이 ‘있다’는 응답이 50% 이상인 장애범주는 없었다. 그러나 발달장애(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및 청각언어장애는 별도의 특수교육 욕구가 매우 높은 장애종류라는 점을 고려하여 발달장애(15.6%), 청각언어중증(22.2%)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필수비목으로 포함시켰다.

〈표 7-1-24〉 추가비용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소득 50% 이하 가구)

구분	교통비	의료비	교육비	휴대폰비	보호 간병비	보장구비	재활기관이 요금	주거수리비
지체중증	88.6%	88.6%	2.3%	75.0%	2.3%	72.7%		34.1%
지체경증	96.6%	92.2%		84.5%	2.0%	48.0%	1.0%	17.6%
뇌병변중증	82.1%	87.2%	1.3%	57.7%	15.4%	70.5%	5.1%	34.6%
뇌병변경증	100.0%	89.5%		78.9%	10.5%	42.1%		15.8%
시각중증	81.8%	77.3%		40.9%	13.6%	72.7%		40.9%
시각경증	93.4%	93.4%		86.8%	1.3%	63.2%		9.2%
청각언어중증	94.4%	88.9%	22.2%	50.0%	5.6%	77.8%	11.1%	11.1%
청각언어경증	92.6%	84.2%		69.5%	1.1%	84.2%		6.3%
발달장애	84.4%	64.4%	15.6%	33.3%	6.7%	11.1%	17.8%	11.1%
정신장애	86.1%	66.7%	2.8%	52.8%	8.3%	8.3%	2.8%	5.6%
내부장애	94.7%	84.2%		86.0%	1.8%	35.1%		7.0%
전체	92.2%	86.8%	1.8%	73.3%	4.3%	53.8%	2.3%	16.8%

주: 교통비, 의료비, 휴대폰비는 실제 지출한 비용이 있는 비율을 나타내며, 그 외 교육비, 보호·간병비, 보장구비, 재활기관이용료, 주거수리비는 실제 지출한 비용이 있는 비율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되어야 하지만 돈이 없어서 지출 못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비율의 합계를 나타냄.

휴대폰비에서는 시각경증 86.8%, 내부장애 86.0%, 지체경증 84.5%로 80% 이상이 추가비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뇌병변경증 78.9%, 지체중증 75.0%, 청각언어 경증 69.5% 등으로 추가비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뇌병변중증 57.7%, 정신장애 52.8%, 청각언어중증 50.0%로 50% 이상이 추가비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각중증(40.9%)과 발달장애(33.3%)만이 50% 미만의 가구에서 추가비용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각 장애범주별로 중증보다는 경증에서 장애인가구의 지출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경증이 중증보다 장애로 인하여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이 아니라 경증이 중증보다 오히려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사회생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록 장애인개인의 휴대폰 지출이 '있다'는 응답이 50%를 넘지는 않지만 시각중증의 경우에도 시각경증과 동일하게 휴대폰비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보호·간병비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유급의 활동도우미를 활용하는 장애인가구가 많이 늘었지만 아직도 기초보장수급자를 제외하면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아직 가족들이 돌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제 지출한 비용이 있는 가구 외에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되어야 하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가구를 포함하여 비율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비용이 '있다'는 응답이 50%가 넘는 장애종류는 없었으며, 뇌병변중증이 15.4%로 가장 높았고, 시각중증이 13.6%, 뇌병변경증 10.5%, 정신장애 8.3%, 발달장애 6.7%, 청각언어중증 5.6%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있는 대부분의 가구에서 가족이 해당 장애인을 돌보고, 그에 따라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보호간병의 욕구는 더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일생생활에서 남의 도움이 '대부분 필요' 및 '거의 모든 일에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율을 보면, 발달장애가 53.3%, 시각중증이 40.9%, 뇌병변중증이 35.9%, 지체중증이 22.7% 등으로 추가 보호·간병비가 있다는 비율보다 상당히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04년, 2007년 및 2010년에는 보호간병비가 있다는 응답이 10%가 넘는 장애범주에서는 보호·간병비를 필수비용으로 채택하였다.

그런데 2013년 조사에서는 2010년 조사에 비해 보호·간병비가 있다는 비율이 상당

히 낮아졌는데, 이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기초보장수급 장애인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체중증은 보호·간병비 추가비용 비율에서는 2.3%이었으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 비율에서는 25.0%로 나타나 10배 이상 높았다. 또한 내부장애도 보호·간병비 추가비용 비율에서는 1.8%이었으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 비율에서는 3.5%로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이에 따라 보호간병비가 있다는 응답이 5%가 넘는 뇌병변중증, 뇌병변경증, 시각중증, 청각언어중증, 발달장애, 정신장애와 함께 지체중증과 내부장애에서는 보호·간병비를 필수비목에 포함시켰다.

〈표 7-1-25〉 장애범주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 여부

구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 여부		전체
	수급	비수급	
지체중증	11	33	44
	25.0%	75.0%	100.0%
지체경증	8	288	296
	2.7%	97.3%	100.0%
뇌병변중증	8	70	78
	10.3%	89.7%	100.0%
뇌병변경증	0	19	19
	0.0%	100.0%	100.0%
시각중증	4	18	22
	18.2%	81.8%	100.0%
시각경증	0	76	76
	0.0%	100.0%	100.0%
청각언어중증	1	17	18
	5.6%	94.4%	100.0%
청각언어경증	0	95	95
	0.0%	100.0%	100.0%
발달장애	5	40	45
	11.1%	88.9%	100.0%
정신장애	3	33	36
	8.3%	91.7%	100.0%
내부장애	2	55	57
	3.5%	96.5%	100.0%
전체	42	744	786
	5.3%	94.7%	100.0%

다음으로 보장구비에서도 실제 지출한 보장구 비용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되어야 하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보장구 비용’이 있는 장애인가구를 포함하여 비교하였는데, 보장구 비용이 있는 장애인가구의 비율을 보면, 청각언어경증 84.2%, 청

각언어중증 77.8%, 지체중증과 시각중증이 각각 72.7%, 뇌병변중증이 70.5%, 시각경증이 63.2% 등으로 50%를 넘었다. 또한 지체경증이 48.0%, 뇌병변경증이 42.1%, 내부장애 35.1% 등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재활기관 이용료에서도 실제 지출한 비용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되어야 하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장애인가구를 포함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비용이 있다는 응답이 50% 이상인 장애범주는 없었으나, 2007년 및 2010년처럼 장애종류에 대한 전문가의 규범적 의견을 함께 고려하여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재활시설을 이용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 뇌병변중증(5.1%), 청각언어중증(11.1%), 발달장애(17.8%) 및 정신장애(2.8%)는 필수 비목에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주거수리비에서도 이미 수리한 곳과 수리해야 할 곳을 모두 포함하여 비교한 결과, 지출이 ‘있다’는 응답이 50%가 넘는 장애종류는 없었다. 그러나 2004년, 2007년, 그리고 2010년의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시각중증(40.9%), 뇌병변중증(34.6%), 지체중증(34.1%)은 주거수리비를 필수비목으로 포함시켰다.

이상 각 비목이 필수비목에 해당하는 장애유형과 해당하지 않는 장애유형을 정리하면 <표 7-1-26>과 같다.

<표 7-1-26> 장애범주별 필수비목

구분 주요비목	추가비용 지출 장애 유형	
	필수비목	비필수비목
교통비	11개 장애범주 전체	
의료비	11개 장애범주 전체	
교육비	청각중증, 발달장애	지체중증, 지체경증, 뇌병변중증, 뇌병변경증, 시각중증, 시각경증, 청각중증, 청각경증, 정신장애, 내부장애
휴대폰비	지체중증, 지체경증, 뇌병변중증, 뇌병변경증, 시각중증, 시각경증, 청각중증, 청각경증, 정신장애, 내부장애	발달장애
보호·간병비	지체중증, 뇌병변중증, 뇌병변경증, 시각중증, 청각중증, 발달장애, 정신장애, 내부장애	지체경증, 시각경증, 청각경증
보장구비	지체중증, 뇌병변중증, 시각중증, 시각경증, 청각중증, 청각경증	지체경증, 뇌병변경증, 발달장애, 정신장애, 내부장애
재활기관 이용료	뇌병변중증, 청각언어중증, 발달장애, 정신장애	지체중증, 지체경증, 뇌병변경증, 시각중증, 시각경증, 청각언어경증, 내부장애
주거수리비	지체중증, 뇌병변중증, 시각중증	지체경증, 뇌병변경증, 시각경증, 청각중증, 청각경증, 발달장애, 정신장애, 내부장애

라. 장애범주별 추가비용 산출

다음 단계에서는 각 장애범주의 필수비목에 대한 월평균 비용에 대해 분산분석¹¹¹⁾의 Tukey 사후검정을 활용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사후검정의 결과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규범적 판단을 고려하였다. 조사에서 장애범주별 사례 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실과 장애로 인한 지출이 필요하지만 장애인가구 중 저소득층이 많아서 돈이 없어서 지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1) 교통비

교통비를 장애범주별로 <표 7-1-27>와 같이 비교해 보면, 교통비가 가장 많은 장애범주는 뇌병변경증으로 월평균 63.0천원이었으며, 지체경증이 54.4천원, 내부장애가 53.0천원, 청각언어경증이 50.2천원, 시각경증이 48.0천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청각언어중증이 47.9천원, 지체중증이 41.9천원, 시각중증이 35.9천원, 뇌병변중증이 35.1천원, 발달장애가 30.6천원, 그리고 정신장애 25.9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7-1-27> 장애범주별 월평균 교통비

(단위: 천원)

장애종류	빈도수	지출교통비	예상교통비	총 교통비
지체중증	39	41.9	7.1	49.0
지체경증	286	54.4	7.3	61.3
뇌병변중증	64	35.1	6.7	40.8
뇌병변경증	19	63.0	4.2	67.2
시각중증	18	35.9	6.6	40.6
시각경증	71	48.0	2.9	50.9
청각언어중증	17	47.9	9.5	57.4
청각언어경증	88	50.2	1.6	51.3
발달장애	38	30.6	3.6	33.4
정신장애	31	25.9	8.6	34.5
내부장애	54	53.0	10.1	63.1
전체	725	47.9	6.1	53.6

111) 장애범주별 비교는 일부 범주에서 사례수가 부족하여 분산분석의 가정을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평균 비용에 따라 범주를 2~3개로 재범주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장애로 인한 추가교통비는 이동 상 어려움뿐만 아니라 활동의 정도와도 관련이 깊다. 다시 말해서 지체중증, 뇌병변중증 및 시각중증 장애는 이동 상 어려움이 매우 커서 한 번 이동하는데 필요한 교통비는 많이 들지만 사회활동이 적으면 전체 교통비는 적어지게 된다. 특히 정신장애를 보면 사회활동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비는 가장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외출 어려움 정도¹¹²⁾의 비교에서 지체중증은 지체경증에 비해, 뇌병변중증도 뇌병변경증에 비해 외출 어려움 정도가 1.5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중증의 경우는 시각경증에 비해 외출 어려움 정도는 세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청각언어장애만이 중증이 경증에 비해 외출 어려움이 1.3배 정도였지만 청각언어중증의 외출 어려움 정도도 지체경증 및 뇌병변경증에 비해서도 낮게 나타났다.

〈표 7-1-28〉 장애범주별 외출 어려움 정도

장애종류	빈도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지체중증	39	2.44	1.41	.23
지체경증	286	1.62	1.06	.06
뇌병변중증	64	2.75	1.41	.18
뇌병변경증	19	1.79	1.23	.28
시각중증	18	3.39	.92	.22
시각경증	71	1.15	.58	.07
청각언어중증	17	1.59	1.23	.30
청각언어경증	88	1.22	.69	.07
발달장애	38	1.89	.73	.12
정신장애	31	1.42	.62	.11
내부장애	54	2.00	1.21	.17
전체	725	1.75	1.15	.04

이는 청각언어장애가 해당 장애인의 이동능력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경증의 장애범주는 이동 과정에서 어려움이 비교적 적어서 사회활동이 많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 교통비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출 교통비는 장애로 인한 비용의 차이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다. 이에 따라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및 시각장애의 경우 중증이 경증에 비해 월평균 지출이 더

112) 외출 어려움 정도는 ① '혼자서 다니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 ② '혼자서는 자주 길을 잃어버려서 헤맨다.' ③ '멈추지 않고 200m 이상 걷지 못하거나 심하게 곤란하다.' ④ '멈추지 않고 50m 이상 걷지 못하거나 심하게 곤란하다.' ⑤ '전혀 걷지 못한다.'의 5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점수가 높을수록 외출 어려움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활동의 정도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교통비 욕구의 장애범주를 분류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장애종류별 이동 과정의 어려움의 정도와 실제 이동 빈도를 함께 고려하여 교통비 욕구에 따른 장애범주는 교통비 욕구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두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통비 욕구가 높은 집단은 이동 과정의 어려움 정도가 높고 이동 빈도가 적은 지체중증, 뇌병변중증, 뇌병변경증, 시각중증 및 내부장애와, 이동 과정의 어려움 정도는 중간 정도이지만 이동 빈도가 많은 지체경증, 시각경증, 청각언어중증, 발달장애가 포함된다. 반면에 이동 욕구가 낮은 집단은 이동 과정의 어려움 정도가 낮으며 이동 빈도는 높은 청각언어경증과 정신장애가 포함된다.

이렇게 교통비 욕구에 따라 장애범주를 분류한 후 각 집단의 장애로 인한 평균 교통비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교통비 욕구가 높은 집단은 교통비가 48.7천원, 교통비 욕구가 낮은 집단은 43.9천원으로 나타났다. 장애범주별 평균 교통비에 4인가구의 1인당 평균 교통비(20.2천원¹¹³)를 감한 장애범주별 평균 추가교통비를 아래의 <표 7-1-29>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7-1-29> 교통욕구에 따른 장애범주별 평균 추가교통비

(단위: 천원)

교통 욕구	장애 종류·등급	평균 교통비	평균 추가교통비
높은 집단	지체중증, 뇌병변중증, 뇌병변경증, 시각중증, 내부장애, 지체경증, 시각경증, 청각언어중증, 발달장애	48.7	28.5
낮은 집단	청각언어경증, 정신장애	43.9	23.7

2) 의료비

다음으로 평균 의료비를 장애범주별로 비교해 보면, 시각중증이 129.2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뇌병변중증과 내부장애가 각각 127.5천원, 뇌병변경증이 116.6천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체경증 82.9천원, 지체중증 70.2천원, 시각경증 69.0천원, 발달장애 66.3천원, 청각언어경증 60.5천원이었으며, 청각언어중증은 49.8천원, 정신장애는 31.1천원으로 의료비가 낮았다.

113) 표준 4인가구의 1인당 교통비는 총 4인가구 교통비(90,254원)에서 친지방문비(9,600원)를 뺀 80,654원을 4로 나눈 결과이다. 본 연구의 장애인조사에서는 일상적인 교통비만을 질문하여 친지방문비는 제외하였다.

〈표 7-1-30〉 장애범주별 평균 의료비

(단위: 천원)

장애종류	빈도수	지출의료비	예상의료비	총 의료비
지체중증	39	70.2	39.1	107.6
지체경증	273	82.9	41.4	124.0
뇌병변중증	68	127.5	8.7	134.4
뇌병변경증	17	116.6	18.0	134.6
시각중증	17	129.2	1.8	123.8
시각경증	71	69.0	113.6	180.7
청각언어중증	16	49.8	.0	49.8
청각언어경증	80	60.5	11.7	72.2
발달장애	29	66.3	11.9	76.0
정신장애	24	31.1	10.9	40.8
내부장애	48	127.5	10.4	135.2
전체	682	84.4	35.0	118.3

분산분석 Tukey 사후검증 및 규범적 판단을 반영하여 의료비에 대한 장애범주를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의료비가 많은 집단에는 뇌병변중증, 뇌병변경증, 내부장애를 포함하고, 의료비가 중간인 집단에는 지체중증, 시각중증 및 청각언어중증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의료비가 적은 집단에는 지체경증, 시각경증, 청각언어경증, 발달장애 및 정신장애가 포함되었다.

이렇게 집단을 분류한 후 각 집단의 장애로 인한 평균 의료비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의료비 욕구가 높은 집단의 의료비는 126.1천원, 중간 집단의 의료비는 79.6천원, 낮은 집단의 의료비는 73.5천원으로 계산되었다. 의료 욕구 장애범주별 평균의료비에 4인가구의 1인당 평균의료비¹¹⁴⁾(14.4천원)를 감하여 장애범주별 평균 추가의료비를 산출하였으며, 〈표 7-1-3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나타났다.

〈표 7-1-31〉 의료욕구에 따른 장애유형별 평균 추가의료비

(단위: 천원)

의료 욕구	장애 종류·등급	평균 의료비	평균 추가 의료비
높은 집단	뇌병변중증, 뇌병변경증, 내부장애	126.1	111.7
중간 집단	지체중증, 시각중증, 청각언어중증	79.6	65.2
낮은 집단	지체경증, 시각경증, 청각언어경증, 발달장애, 정신장애	73.5	59.1

114) 표준 4인가구의 1인당 의료비는 총 4인가구 보건의료서비스비와 약값을 더한 금액인 57,489원을 4로 나눈 결과이다.

3) 교육비

장애범주별 평균 교육비를 비교해보면, 청각언어중증 75.0천원, 발달장애 119.3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7-1-32〉 장애범주별 교육비 평균

(단위: 천원)

장애종류	빈도수	지출 교육비	미지출 교육비	총 교육비
청각언어중증	4	75.0	75.0	131.3
발달장애	7	119.3	140.0	242.3
전체	11	104.6	116.4	201.9

Tukey 사후검증 및 규범적 판단을 반영하여 교육비와 관련하여 장애범주를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교육비가 많은 집단에는 발달장애가 포함되고, 교육비가 적은 집단에는 청각언어중증이 포함되었다.

〈표 7-1-33〉 교육 욕구에 따른 장애범주별 평균 추가교육비

교육 욕구	장애 종류·등급	교육비
높은 집단	발달장애	119.3천원
낮은 집단	청각언어중증	75.0천원

4) 휴대폰비

장애범주별 휴대폰 비용을 비교한 결과, 정신장애가 35.7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체중증이 35.5천원, 내부장애가 31.2천원, 시각중증이 30.2천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체경증이 26.0천원, 뇌병변경증 25.9천원, 시각경증이 25.8천원, 그리고 뇌병변중증이 25.1천원이었다.

〈표 7-1-34〉 장애범주별 평균 휴대폰비

(단위: 천원)

장애종류	빈도수	지출휴대폰비	예상휴대폰비	총 휴대폰비
지체중증	33	35.5	0	35.5
지체경증	250	26.0	0.4	26.2
뇌병변중증	45	25.1	1.1	25.6
뇌병변경증	15	25.9	0	25.9
시각중증	9	30.2	0	30.2
시각경증	66	25.8	0	25.8
청각언어중증	9	20.2	0	20.2
청각언어경증	66	24.8	0	24.8
정신장애	19	35.7	0	35.7
내부장애	49	31.2	0	31.2
전체	561	27.1	0.3	27.2

평균 휴대폰비와 규범적 판단을 고려하여 휴대폰비가 많은 집단과 적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는데, 전자에는 지체중증, 뇌병변중증, 시각중증, 청각언어중증, 청각언어경증¹¹⁵⁾, 정신장애 및 내부장애가 포함되었다. 후자에는 지체경증, 뇌병변경증, 시각경증이 포함되었다. 그 결과 통신 욕구가 많은 집단의 휴대폰비 평균은 28.7천원이었으며, 통신 욕구가 적은 집단의 휴대폰 이용료 평균은 25.9천원이었다. 따라서 평균 추가 휴대폰비는 평균 휴대폰비에서 4인 가구의 1인당 평균 휴대폰비¹¹⁶⁾(5.7천원)를 감하여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났다.

〈표 7-1-35〉 통신 욕구에 따른 장애범주별 평균 추가 휴대폰비

통신 욕구	장애 종류등급	평균 휴대폰비	평균 추가휴대폰비
많다	지체중증, 뇌병변중증, 시각중증, 청각언어중증, 청각언어경증, 정신장애, 내부장애	28.7천원	23.0천원
적다	지체경증, 뇌병변경증, 시각경증	25.9천원	20.2천원

115)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휴대폰은 의사소통에서 매우 중요하게 되고 있다. 문자메시지를 활용하게 되면서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화상전화의 이용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116) 표준 4인 가구의 휴대전화요금 24,553원에서 휴대폰 구입비 1,667원을 제한 22,886원을 4로 나누어 계산한 값이다. 장애인조사에서는 '기기값을 제외한 휴대폰 사용요금'으로 질문하였다.

5) 보호·간병비

다음으로 장애종류별 평균 보호·간병비¹¹⁷⁾를 계산하면 아래의 <표 7-1-36>과 같다. 이에 따르면 평균 보호·간병비가 가장 높은 장애종류는 시각중증 174.5천원¹¹⁸⁾과 발달장애 167.0천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뇌병변중증 123.5천원, 뇌병변경증이 100.0천원, 정신장애 76.5천원, 그리고 지체중증이 24.0천원 등으로 나타났다.

<표 7-1-36> 장애범주별 평균 보호·간병비

(단위: 천원)

장애종류	빈도수	지출 보호간병비	예상보호간병비	총 보호간병비
지체중증	1	24.0	0.0	24.0
뇌병변중증	12	123.5	125.0	238.2
뇌병변경증	2	100.0	82.5	132.5
시각중증	3	174.5	16.7	133.0
청각언어중증	1	0.0	100.0	100.0
발달장애	3	167.0	83.3	139.0
정신장애	3	76.5	66.7	117.7
내부장애	1	0.0	240.0	240.0
전체	26	119.5	96.3	179.1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도입에 따라 보호·간병비 추가비용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과 함께 일상생활 도움필요 정도¹¹⁹⁾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장애범주별로 일상생활 도움 정도를 보면, 가장 많이 필요한 장애범주는 시각중증(3.45)이었으며, 이어서 발달장애(3.38), 뇌병변중증(3.09)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체중증(2.55), 청각언어중증(2.33), 정신장애(2.00)가 중간 정도의 일상생활의 도움이 필요하였으며, 내부장애(1.91), 뇌병변경증(1.84), 청각언

117) 2010년까지 보호·간병비는 실제 지출한 보호·간병비에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되어야 하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비용을 더하여 장애종류별로 비교하였다. 이는 장애로 인해 유급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유급도우미를 고용하여 비용을 지출하기보다는 대부분 가족들이 보호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1년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되면서 보호와 간병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 중 다수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게 되어 실제 지출한 비용만을 사용하였다.

118) 사례수의 부족으로 인해 일부 값은 해석에 상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119) 일상생활 도움필요 정도는 ①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다 ②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남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할 수 있다 ③ 일부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④ 대부분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⑤ 거의 모든 일에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의 5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경증(1.55)이 약간 낮은 수준으로 일상생활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체경증(1.47), 그리고 시각경증(1.30)이 일상생활의 도움을 가장 적게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1-37〉 장애범주별 일상생활 도움필요 정도

장애종류	빈도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장애종류	빈도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지체중증	44	2.55	1.25	0.19	청각언어중증	18	2.33	1.08	0.26
지체경증	296	1.47	0.78	0.05	청각언어경증	95	1.55	0.75	0.08
뇌병변중증	78	3.09	1.33	0.15	발달장애	45	3.38	1.15	0.17
뇌병변경증	19	1.84	1.01	0.23	정신장애	36	2.00	1.12	0.19
시각중증	22	3.45	0.96	0.21	내부장애	57	1.91	1.01	0.13
시각경증	76	1.30	0.59	0.07	전체	786	1.93	1.16	0.04

보호·간병비 및 일상생활 도움필요 정도의 Tukey 사후검증의 결과 및 규범적 판단을 고려하여 보호·간병비에 따라 재범주화하면 보호간병비가 높은 집단으로 지체중증, 뇌병변중증, 시각중증, 발달장애를, 보호간병비가 낮은 집단으로 뇌병변경증, 청각언어중증, 정신장애, 내부장애를 포함시킬 수 있다. 그 결과 이들 두 집단의 보호간병비의 평균을 보면, 높은 집단은 126.5천원, 낮은 집단은 84.3천원으로 계산되었다.

〈표 7-1-38〉 보호간병 욕구 따른 장애유형 및 추가 보호·간병비

보호간병 욕구	장애 유형	평균 보호간병비
높은 집단	지체중증, 뇌병변중증, 시각중증, 발달장애	126.5천원
낮은 집단	뇌병변경증, 청각언어중증, 정신장애, 내부장애	84.3천원

6) 보장구비

다음으로 월평균 지출 보장구비¹²⁰⁾를 장애범주별로 비교하였다. 보장구비의 경우에도 장애인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비용으로 판단하여 실제로 지출한 보장구비에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되어야 하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비용을 더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보장구비가 가장 높았던 장애범주는 청각언어중증으로 85.3천원이었으며,

120) 구입비용 ÷ 내구연수(개월)

다음으로 청각언어경증이 39.3천원, 뇌병변중증이 23.0천원, 지체중증이 22.0천원, 시각경증이 14.5천원, 그리고 시각중증이 8.8천원이었다.

〈표 7-1-39〉 장애유형별 평균 보장구비

(단위: 천원)

장애종류	빈도수	지출 보장구비	예상 보장구비	총 보장구비
지체중증	30	14.6	7.4	22.0
뇌병변중증	44	12.3	10.7	23.0
시각중증	13	4.9	3.9	8.8
시각경증	39	7.9	6.5	14.5
청각언어중증	13	56.2	29.1	85.3
청각언어경증	64	26.9	12.4	39.3
전체	203	18.8	10.7	29.4

Tukey 사후검증 및 규범적 판단을 반영하여 보장구비와 관련하여 장애범주를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보장구비가 많은 집단에는 지체중증, 뇌병변중증, 청각언어중증, 청각언어경증이 포함되고, 보장구비가 적은 집단에는 시각중증과 시각경증이 포함되었다.

〈표 7-1-40〉 보장구 욕구에 따른 장애유형 및 평균 보장구비

보장구 욕구	장애 종류등급	평균 보장구비
높다	지체중증, 뇌병변중증, 청각언어중증, 청각언어경증	33.5천원
낮다	시각중증, 시각경증	11.4천원

7) 재활기관이용료

장애범주에 따라 평균 재활기관이용료를 비교하였다. 재활기관이용료도 장애인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비용으로 판단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되어야 하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비용을 더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아래 표에서 보여주듯이 청각언어중증이 월평균 200.0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발달장애 131.9천원, 뇌병변중증이 60.8천원, 그리고 정신장애 50.0천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7-1-41〉 재활기관이용요금에 따른 장애유형별 평균 재활기관이용료

(단위: 천원)

장애종류	빈도수	지출재활이용료	예상재활이용료	총 재활이용료
뇌병변중증	4	26.7	40.8	60.8
청각언어중증	2	40.0	180.0	200.0
발달장애	8	67.5	81.3	131.9
정신장애	1	0.0	50.0	50.0
전체	15	52.5	81.5	116.5

재활기관이용료에 대해서는 장애범주를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재활기관이용료가 높은 집단에는 청각언어중증, 발달장애가 포함되었으며, 요금이 낮은 집단에는 뇌병변중증과 정신장애가 포함되었다.

〈표 7-1-42〉 재활기관이용 요금에 따른 장애유형 및 평균 이용료

재활기관이용 요금	장애 종류·등급	평균
높은 집단	청각언어중증, 발달장애	145.5천원
낮은 집단	뇌병변중증, 정신장애	58.6천원

8) 주거수리비

장애로 인한 주거수리비를 계산하기 위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장애로 인하여 거주하기에 불편한 곳’이 있는 경우 예상되는 총 주거수리비용(지난 1년간 수리한 곳과 수리가 필요한 곳)을 조사하였다. 주거수리의 내구년수는 3년으로 보고, 총 주거수리비용을 36개월로 나누어 월 주거수리비를 계산하였다.

주거수리 요금에 따른 장애범주별 평균 주거수리비를 비교해보면, 시각중증이 33.2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뇌병변중증 30.3천원, 지체중증이 27.4천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7-1-43〉 장애범주별 주거수리비 평균

(단위: 천원)

장애종류	빈도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지체중증	15	27.4	23.8	6.1
뇌병변중증	27	30.3	32.8	6.3
시각중증	9	33.2	26.3	8.8
전체	51	30.0	28.9	4.0

Tukey 분석과 함께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 주거수리비에 관하여 한 가지 범주에 포함시켰으며, 월평균 주거수리비는 30.0천원이었다.

〈표 7-1-44〉 주거수리 욕구별 평균 주거수리비

주거수리 욕구	장애 종류등급	평균 주거수리비
있는 집단	지체중증, 뇌병변중증, 시각중증	30.0천원

5. 장애인 1인당 추가비용

추가비용 계산방식에 의한 장애인가구 최저생계비는 아래와 같다.

장애범주별 장애인가구 최저생계비
 = 표준가구 최저생계비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 표준가구 최저생계비 + 공통비목 추가비용 + 특수비목 추가비용

따라서 장애인가구 최저생계비는 표준가구 최저생계비에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공통비목+특수비목)을 합한 비용으로 계산된다.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은 〈표 7-1-45〉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7-1-45〉 장애범주별 1인당 추가비용

(단위: 천원)

장애종류	공통비목 추가비용				특수비목 추가비용				추가비용 합계
	교통비	의료비	교육비	휴대폰비	보호 간병비	보장 구비	재활기관 이용료	주거 수리비	
지체중증	28.5	65.2	0.0	23.0	126.5	33.5	0.0	30.0	306.7
지체경증	28.5	59.1	0.0	20.2	0.0	0.0	0.0	0.0	107.8
뇌병변중증	28.5	111.7	0.0	23.0	126.5	33.5	58.6	30.0	411.8
뇌병변경증	28.5	111.7	0.0	20.2	84.3	0.0	0.0	0.0	244.7
시각중증	28.5	65.2	0.0	23.0	126.5	11.4	0.0	30.0	284.6
시각경증	28.5	59.1	0.0	20.2	0.0	11.4	0.0	0.0	119.2
청각언어중증	28.5	65.2	75.0	23.0	84.3	33.5	145.5	0.0	455.0
청각언어경증	23.7	59.1	0.0	23.0	0.0	33.5	0.0	0.0	139.3
발달장애	28.5	59.1	119.3	0.0	126.5	0.0	145.5	0.0	478.9
정신장애	23.7	59.1	0.0	23.0	84.3	0.0	58.6	0.0	248.7
내부장애	28.5	111.7	0.0	23.0	84.3	0.0	0.0	0.0	247.5

추가비용이 가장 높은 장애종류는 발달장애(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가 478.9천원 이었으며, 이어서 청각언어중증이 455.0천원, 뇌병변중증 411.8천원, 지체중증이 306.7천원으로 추가비용이 3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각중증이 284.6천원, 정신장애가 248.7천원, 내부장애가 247.5천원, 뇌병변경증이 244.7천원으로 추가비용이 20만원 이상이었으며, 청각언어경증이 139.3천원, 시각경증이 119.2천원, 지체경증 107.8천원으로 비교적 추가비용이 낮게 나타났다.

위에서 살펴본 장애인 추가비용은 장애인실태조사를 통해 장애 종류 및 등급별로 세분하고, 장애인들이 실제 추가 지출이 필요한 비목과 항목을 설정하여 추가비용을 산출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기에는 예산 및 기간이 부족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반면에 본 연구원의 장애인실태조사에서도 장애인 추가비용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 바가 있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장애인이 아니면 지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장애인이기 때문에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을 조사하고 있다. 본 연구와의 차이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을 통해 조사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주관적 방식에 의한 추가비용을 산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 조사에서는 자폐성 장애인이 월 503천원의 추가비용이 필요하였으며, 가장 작게는 정신장애인 월 약74천원, 평균적으로 월 160.7천원의 추가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성희 외, 2011).

6. 장애인 추가비용의 활용

장애인 추가비용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장애인 추가비용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장애인가구의 최저생계비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가구는 비장애인가구보다 최저생계비의 선이 상승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급여에서도 장애인가구에 대한 급여는 장애인 추가비용이 포함 되어 많아지게 된다.

1) 선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장애인 추가비용을 활용하는 첫 번째 방법은 수급대상자

선정기준 중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에 추가 비용 전체를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가구의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장애인 추가비용을 제한 금액¹²¹⁾이 될 것이다. 이 경우에 현재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을 감안한 금품으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의 일부 공제하고 있으나 더 이상 공제할 필요가 없게 된다. 또한 현행 소득평가액 산정에서는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의 경우 공제하고 있는데,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에서 장애인 추가 의료비를 제외한 금액'만을 공제하면 된다.

이와 같이 선정기준에서만 장애인 추가비용을 포함시키면 소득인정액이 장애인 추가비용 이하인 경우 최저생활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2) 급여

장애인 추가비용을 활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에서 장애인 추가비용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장애인 추가비용이 포함된 장애인가구의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을 감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또는 일반가구와 동일하게 가구규모 별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을 감한 급여를 지급하되, 장애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에서 장애인 추가비용을 감한 금액을 소득인정액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즉, 장애인가구의 급여는 아래와 같다.

$\text{장애인가구의 급여} = \text{가구규모 별 최저생계비} - (\text{소득인정액} - \text{장애인 추가비용})$

다음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활용방안이다. 장애인가구의 선택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방식은 장애인 추가비용 중 일부 적절한 비목에 대해 현금 대신 현물로 지급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 추가비용 중 교육비는 청각언어중증과 발달장애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청각언어중증아동과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사교육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비는 현금 대신 장애인복지관 등의 이용시설을 통해서 현물급여로 제공할 수 있다.

보호·간병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이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본인 부

121)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공제액을 추가로 제하여 소득평가액을 산정한다.

담금을 면제받고 있어서 별도의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장구비도 일부 품목에서만 기준금액의 100%를 지원함으로써 지원대상이 아닌 보장구, 그리고 지원대상 보장구라고 하더라도 기준금액의 100%를 초과하여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지원대상 보장구를 확대하고, 보장구의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인상함으로써 현물급여를 할 여지가 있다.

제2절 노인 추가비용

1. 노인가구 추가비용의 개념

노인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을 노인 최저생계비라고 정의하고자 하며, 노인 추가비용이란 노인이 비노인과 동일한 최저생활을 향유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노인 1인당 추가비용을 의미한다. 노인가구 추가비용은 표준 4인가구를 기준으로 추정하는 최저생계비에서 노인을 포함한 4인 가구가 추가적인 욕구로 인한 지출을 보전하는데 드는 비용을 산출하고자 하며, 의료 및 간병, 건강유지 등과 관련된 비용은 노인가구의 경우 비노인가구에 비해 높다는 전제에서 노인가구의 추가비용을 산정하고자 한다.

2. 노인가구의 규모, 지출실태 및 욕구

본 연구에서는 노인인구 및 노인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현황을 살펴보고, 노인을 포함한 4인가구(이하 노인 포함 4인가구)와 노인을 포함하지 않는 4인가구(이하 노인 비포함 4인가구)의 지출 실태를 비교함으로써 실질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항목을 찾고자하며, 이를 토대로 보다 객관적인 추가비용을 산출하고자 한다.

먼저,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4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1.3%수준이었다. 또한, 통계청 ‘2012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1980년 3.8%에 불과했으나, 2012년 11.8%로 늘어났

으며, 2030년에는 24.3%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표 7-2-1〉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단위: 명)

구분	2010		
	인구(내국인)	남자	여자
전체 인구	47,990,761	23,840,896	24,149,865
65세 이상 노인인구	5,424,667	2,197,606	3,227,061

자료: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체 수급자는 2011년 기준 약 138만명 중에서 65세 이상 수급자는 약 38만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27.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2-2〉 생애주기별 일반수급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계	영유아기 (0~4세)	학령기 (5~9세)	청소년기 (10~19세)	청년기 (20~39세)	중년기 (40~64세)	노년기 (65세 이상)
수급자 수	1,379,865	25,014	47,787	273,627	159,123	495,903	378,411
수급자 비율	100	1.8	3.5	19.8	11.5	35.9	27.4

자료: 보건복지부(2012), 『201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유형별로 살펴보면, 2011년 기준 노인가구는 전체 수급가구는 약 24만 가구로 전체 수급가구의 27.9%를 차지하였다. 이는 일반가구의 유형을 제외한 다른 가구유형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7-2-3〉 생애주기별 일반수급자 현황

(단위: 가구, %)

구분	계	노인가구	소년소녀 가정가구	모자가구	부자가구	장애인가구	일반가구	기타
가구수	860,689	237,213	9,798	83,525	20,479	173,751	277,081	48,842
구성비	100	27.9	1.2	9.8	2.4	20.4	32.6	5.7

자료: 보건복지부(2012), 『201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한편, 노인가구의 지출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활용되는 자료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2012)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 및 가구유형별조사)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노인가구의 지출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방법으로는 소득하위 40% 이하 가구를 선정하고 그 가구 중 노인포함

4인가구와 노인비포함 4인가구를 대상으로 T-Test와 회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표 7-2-4〉 (가계동향조사) 실제 지출 생활비 및 경상소득 비교

(단위: 가구, 원)

구분		가구수	평균	중위값	최소값	최대값	평균 차이 ¹⁾	t값	p-value
경상소득 (월평균)	노인 무	1,001	2,810,734	2,919,488	-	3,745,023	457,578	4.91	0.000
	노인 유	101	2,353,156	2,438,132	294,327	3,737,460			
가계지출	노인 무	1,001	2,782,853	2,736,947	704,420	9,639,601	527,879	6.35	0.000
	노인 유	101	2,254,974	2,247,228	739,232	9,381,122			
식료품비	노인 무	1,001	330,754	312,958	36,434	902,712	-41,751	-2.75	0.007
	노인 유	101	372,504	369,734	34,924	820,521			
주거 및 수도광열비	노인 무	1,001	250,110	199,479	-	1,982,042	7,130	0.33	0.742
	노인 유	101	242,980	208,943	171	4,770,424			
가구집기비	노인 무	1,001	70,898	46,490	-	1,721,767	8,520	0.74	0.462
	노인 유	101	62,378	34,163	-	2,583,100			
피복신발비	노인 무	1,001	141,004	123,728	-	1,096,912	39,432	4.89	0.000
	노인 유	101	101,571	89,385	-	353,646			
보건의료비	노인 무	1,001	121,421	78,719	-	1,494,970	-27,326	-1.66	0.100
	노인 유	101	148,747	115,074	2,236	939,310			
교육비	노인 무	1,001	348,924	289,993	-	2,691,197	199,039	8.39	0.000
	노인 유	101	149,885	41,918	-	937,567			
교양오락비	노인 무	1,001	111,128	90,216	2,500	1,020,635	14,267	1.22	0.226
	노인 유	101	96,862	62,367	2,500	722,905			
교통비	노인 무	1,001	236,153	187,031	983	5,509,871	23,785	0.68	0.496
	노인 유	101	212,368	137,006	601	3,598,836			
통신비	노인 무	1,001	169,797	160,470	-	673,554	41,805	6.36	0.000
	노인 유	101	127,991	118,154	-	267,540			
기타소비지출	노인 무	1,001	206,627	160,035	9,899	3,180,282	84,472	7.12	0.000
	노인 유	101	122,155	107,866	10,104	663,094			
비소비지출	노인 무	1,001	485,082	430,866	-	3,602,685	129,238	5.44	0.000
	노인 유	101	355,844	355,012	608	1,029,314			

주: 1) 소수점 이하 처리로 단가×회수의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통계청(2012),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다음으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1년 국민생활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지출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7-2-5〉 (실태조사) 실제 지출 생활비 및 경상소득 비교

(단위: 가구, 원)

구분		가구수	평균	중위값	최소값	최대값	평균 차이 ³⁾	t값	p-value
경상소득 (월평균)	노인 무	1,265	3,236,964	3,395,833	63,333	4,320,000	233,720	3.09	0.002
	노인 유	151	3,003,245	3,191,667	90,833	4,319,167			
총생활비 (월세포함)	노인 무	1,265	3,369,375	3,320,000	920,000	8,590,000	547,474	7.16	0.000
	노인 유	151	2,821,901	2,820,000	630,000	5,910,000			
식료품비	노인 무	1,265	775,172	770,000	260,000	1,700,000	44,725	2.40	0.017
	노인 유	151	730,447	710,000	210,000	1,280,000			
주거비	노인 무	1,265	117,064	70,000	0	2,910,000	25,152	1.96	0.052
	노인 유	151	91,912	50,000	0	750,000			
광열수도비	노인 무	1,265	141,832	140,000	30,000	340,000	-12,775	-0.22	0.028
	노인 유	151	154,607	140,000	50,000	580,000			
가구집기 가사용품비	노인 무	1,265	177,054	70,000	5,000	990,000	90,207	8.21	0.000
	노인 유	151	86,847	40,000	5,000	500,000			
피복신발비	노인 무	1,265	98,685	90,000	0	500,000	17,759	3.04	0.002
	노인 유	151	80,926	60,000	0	510,000			
보건의료비	노인 무	1,265	136,588	70,000	0	3,850,000	-31,168	-2.01	0.045
	노인 유	151	167,756	110,000	0	1,120,000			
교육비	노인 무	1,265	375,196	300,000	0	3,150,000	147,118	5.25	0.000
	노인 유	151	228,078	40,000	0	1,380,000			
교양오락비	노인 무	1,265	83,998	50,000	2,000	1,060,000	28,960	5.17	0.000
	노인 유	151	55,038	30,000	2,000	330,000			
교통비	노인 무	1,265	359,911	300,000	4,000	3,400,000	55,433	2.39	0.018
	노인 유	151	304,479	270,000	20,000	2,130,000			
통신비	노인 무	1,265	181,879	180,000	30,000	440,000	10,423	2.19	0.030
	노인 유	151	171,456	170,000	30,000	370,000			
기타소비지출	노인 무	1,265	588,278	570,000	30,000	2,390,000	50,639	1.94	0.052
	노인 유	151	537,639	510,000	8,000	2,230,000			
비소비지출	노인 무	1,265	230,333	210,000	0	1,960,000	61,316	6.19	0.000
	노인 유	151	169,017	160,000	0	590,000			
주관적 최저생계비 ¹⁾ (자가/전세)	노인 무	1,265	2,675,743	2,500,000	700,000	5,500,000	246,903	3.86	0.000
	노인 유	151	2,428,840	2,500,000	300,000	4,000,000			
주관적 최저생계비 ¹⁾ (월세/사글세)	노인 무	1,265	3,112,454	3,000,000	1,000,000	6,000,000	277,118	4.23	0.000
	노인 유	151	2,835,336	3,000,000	600,000	4,500,000			
주관적 최저생계비 ²⁾ (자가/전세)	노인 무	1,265	3,040,175	3,000,000	1,000,000	5,500,000	246,168	3.75	0.000
	노인 유	151	2,794,007	2,700,000	1,000,000	4,500,000			
주관적 최저생계비 ²⁾ (월세/사글세)	노인 무	1,265	3,460,737	3,500,000	0	6,000,000	284,991	4.19	0.000
	노인 유	151	3,175,746	3,000,000	1,300,000	5,000,000			

주: 1) 주관적 최저생계비1은 4인가구가 근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조사하였다.

2) 주관적 최저생계비2는 2011년 4인가구의 평균소득을 제시한 후 4인가구가 근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조사하였다.

3) 소수점 이하 처리로 단가×회수의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 원자료.

조사결과 소득 하위 40% 이하인 4인가구는 1,416가구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 노인 비포함 4인가구는 1,265가구, 노인 포함 4인가구는 151가구이었다. 먼저, 경상소득의 경우 노인 비포함 4인가구는 3,236,964원이고, 노인 포함 4인가구는 3,003,245원으로 노인 비포함 4인가구가 노인 포함 4인가구보다 233,720원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총생활비의 경우는 노인 비포함 4인가구는 3,369,375원이었으며, 노인 포함 4인가구는 2,821,901원으로 노인 비포함 4인가구가 노인 포함 4인가구보다 547,474원이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출 비목별 두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광열수도비와 보건의료비의 경우 노인 포함 4인가구가 노인 비포함 4인가구보다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그 밖의 식료품비, 주거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비, 통신비, 기타소비지출, 비소비지출에서는 노인 포함 4인가구가 노인 비포함 4인가구보다 지출이 더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밖에 실태조사에서는 4인 가구가 근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와 2011년 4인가구의 평균소득을 제시한 후 4인가구가 근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에서도 노인 비포함 4인가구가 노인 포함 4인가구보다 주관적 최저생계비를 높게 응답하였으며, 두 집단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한편, 지출을 단순 비교할 경우 동일한 소득 능력 하에서의 지출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을 통제한 상태에서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노인 가구원 유무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회귀모형(비목별 지출함수) 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

$\ln(E)$	=	INTERCEPT + a1 $\ln(Y)$ + a2 OLDH
E	=	비목별 월평균 지출액
Y	=	월평균 가구소득
OLDH	=	4인가구 중 65세이상 노인유무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노인가구=1, 비노인가구=0)

먼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소득 하위 40% 이하인 4인가구를 노인 비포함 4인가구와 노인 포함 4인가구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식료품비, 주거 및 수도 광열비, 가구집기비, 보건의료비는 노인 포함 4인가구가 노인 비포함 4인가구보다 더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밖의 다른 비목에서는 노인 비포함 4인가

구가 노인 포함 4인가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6〉 (가계동향조사) 비목별 지출합수

비 목	intercept	a1	a2	Adj-R ²	F
가계지출	1,262,931 *** (14.47)	0.541 *** (18.04)	-280,441 *** (-3.77)	0.254	188.75 ***
식료품비	232,217 *** (16.01)	0.035 *** (7.03)	57,792 *** (4.67)	0.051	30.64 ***
주거 및 수도광열비	198,260 *** (9.52)	0.018 * (2.58)	1,311.048 (0.07)	0.004	3.41 *
가구집기비	1,870,771 (0.18)	0.025 *** (6.71)	2,717.497 (0.30)	0.038	22.99 ***
피복신발비	64,536 *** (5.53)	0.027 *** (6.79)	-26,984 ** (-2.72)	0.052	31.20 ***
보건의료비	75,432 *** (4.75)	0.016 *** (3.00)	34,813 * (2.57)	0.010	6.61 **
교육비	103,800 ** (2.88)	0.087 *** (7.04)	-159,134 *** (-5.18)	0.076	46.45 ***
교양오락비	64,971 *** (6.46)	0.016 *** (4.75)	-6,752.549 (-0.79)	0.021	12.71 ***
교통비	105,736 ** (3.11)	0.046 *** (3.97)	-2,553.653 (-0.09)	0.013	8.23 ***
통신비	127,053 *** (16.41)	0.015 *** (5.72)	-34,847 *** (-5.28)	0.062	37.11 ***
기타소비지출	120,713 *** (6.64)	0.031 *** (4.90)	-70,485 *** (-4.55)	0.046	27.40 ***
비소비지출	72,812 * (2.32)	0.147 *** (13.59)	-62,121 * (-2.32)	0.158	104.34 ***

주: 1) * p< .05, ** p< .01, *** p< .001.

자료: 통계청(2012),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다음으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 조사」(기초조사)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광열수도비와 보건의료비에서 노인 포함 4인가구가 노인 비포함 4인가구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밖의 식료품비, 주거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비, 통신비, 기타소비지출, 비소비지출은 노인 포함 4인가구가 노인 비포함 4인가구보다 더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생계비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대한 결과에서도 노인 비포함 4인가구가 노인 포함 4인가구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7-2-7〉 (실태조사) 비목별 지출함수

비 목	intercept	a1	a2	Adj-R ²	F
총생활비	158.702 *** (18.24)	0.551 *** (21.15)	-41.878 *** (-5.65)	0.261	251.06 ***
식료품비	43.225 *** (21.83)	0.106 *** (17.88)	-1.200 (-1.18)	0.187	163.36 ***
주거비	14.362 *** (7.60)	-0.008 (-1.45)	-2.710 (-1.68)	0.002	2.28
광열수도비	11.637 *** (24.68)	0.008 *** (5.57)	1.461 *** (3.63)	0.027	20.62 ***
가구집가가사용품비	17.272 *** (7.94)	0.001 (0.21)	-8.989 *** (-4.85)	0.015	11.92 ***
피복신발비	3.877 *** (5.80)	0.019 *** (9.25)	-1.343 * (-2.36)	0.062	47.65 ***
보건의료비	14.256 *** (5.84)	-0.002 (-0.25)	3.074 (1.48)	0.000	1.16
교육비	9.991 * (2.48)	0.085 *** (7.05)	-12.724 *** (-3.70)	0.045	34.08 ***
교양오락비	1.546 (1.57)	0.021 *** (7.19)	-2.401 ** (-2.86)	0.042	31.84 ***
교통비	10.967 ** (2.67)	0.078 *** (6.28)	-3.736 (-1.07)	0.028	21.00 ***
통신비	14.164 *** (22.28)	0.012 *** (6.53)	-0.752 (-1.39)	0.030	23.20 ***
기타소비지출	19.548 *** (6.80)	0.121 *** (14.11)	-2.228 (-0.91)	0.125	101.72 ***
비소비지출	-3.840 ** (-2.80)	0.083 *** (20.25)	-4.191 *** (-3.59)	0.236	218.96 ***
주관적 최저생계비1 (자가/전세)	223.673 *** (24.55)	0.136 *** (4.97)	-21.521 ** (-2.77)	0.023	17.46 ***
주관적 최저생계비1 (월세/사글세)	261.167 *** (27.96)	0.155 *** (5.53)	-24.096 ** (-3.03)	0.028	21.41 ***
주관적 최저생계비2 (자가/전세)	271.139 *** (30.59)	0.102 *** (3.83)	-22.243 ** (-2.94)	0.016	12.68 ***
주관적 최저생계비2 (월세/사글세)	301.278 *** (32.53)	0.138 *** (4.99)	-25.265 ** (-3.20)	0.025	19.02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주관적 최저생계비1은 4인가구가 근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조사하였다.

3) 주관적 최저생계비2는 2011년 4인가구의 평균소득을 제시한 후 4인가구가 근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조사하였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한편, 비노인가구에 비해 노인가구의 지출욕구가 큰 항목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 가구유형별조사: 노인가구)를 활용하여 노인가구이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내구재, 노인용 품목, 보건의료비에 대한 필수품 인식을 및 보유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소득 하위 40% 이하인 노인 비포함 4인가구와 노인 포함 4인가구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기장판의 경우 노인 포함 4인가구가 노인 비포함 4인가구보다 필수품 인식률 및 보유율이 높게 나타났다. 휴대폰은 노인 비포함 4인가구가 노인 포함 4인가구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표 7-2-8〉 내구재에 대한 필수품 인식률, 보유율

(단위: 가구, %)

구분		필수품 인식률		보유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전기장판	노인 무(n=1,265)	705	55.73	896	70.83
	노인 유(n=151)	117	77.48	133	80.08
휴대폰	노인 무(n=1,265)	1,228	97.08	1,263	99.84
	노인 유(n=151)	146	96.69	150	99.3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한편, 가구유형별조사 중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노인용 품목에 대한 필수품 인식률과 보유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용 품목 중에서 필수적이라고 응답한 품목으로는 동내의가 94.6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파카(외투), 전기장판, 틀니, 안경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품목에 대한 보유율을 살펴보면, 동내의가 97.92%, 파카(외투)가 93.45%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전기장판, 목도리, 안경, 한복, 틀니, 모자 순이었다. 노인에게 꼭 필요한 품목으로는 겨울철 노인들의 체온유지를 위해 필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안경과 틀니와 같은 노인의 보건의료에 필요한 물품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지팡이(보조기 포함)와 수의는 필수품 인식률과 보유율이 노인 가구의 약 1/3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2-9〉 노인가구의 노인용 품목에 대한 필수품 인식률, 보유율

(단위: %)

구분	필수품 인식률			보유율
	필수적임	있으면 좋음	필요 없음	
안경	61.90	22.62	15.48	68.45
틀니	66.96	6.85	26.19	61.61
지팡이(보조기 포함)	33.33	19.35	47.32	38.69
보청기	7.44	15.77	76.79	3.87
체온계	2.08	38.10	59.82	1.49
보온병	10.71	50.00	39.29	20.83
난로	12.20	45.24	42.56	14.58
가습기	2.38	35.12	62.50	2.38
전기장판	82.74	10.12	7.14	84.82
파카(외투)	89.58	8.93	1.49	93.45
모자	48.81	35.12	16.07	60.71
동내의	94.64	2.98	2.38	97.92
목도리	64.88	23.21	11.90	69.05
한복	33.93	24.70	41.37	68.15
수의	23.58	45.37	31.04	31.3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년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기초조사(노인가구용)』 원자료.

노인가구의 노인용 기타용품에 대해서 필수품 인식률과 이용률을 살펴보면, 핸드폰이 60.71%가 필수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로당 등 회비가 51.79%로 나타났다. 이용률은 핸드폰이 66.96%, 경로당 등 회비가 63.69%로 노인가구의 2/3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택시비의 경우는 약 58%가 이용하고 있었다.

〈표 7-2-10〉 노인가구의 노인용 기타품목 필수품 인식률, 이용률

(단위: %)

구분	필수품 인식률			이용률
	필수적임	있으면 좋음	필요 없음	
택시비	35.12	47.32	17.56	58.33
경로당 등 회비	51.79	21.73	26.49	63.69
노인복지시설 이용	4.76	40.77	54.46	13.10
핸드폰	60.71	20.83	18.45	66.9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년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기초조사(노인가구용)』 원자료.

한편,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을 제공해 주는 장기요양보험급여의 수급여부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장기요양보험급여를 수급한 경험이 있는 노인은 1.79%였고, 이들이 한 달 평균 약 19일 도움을 받고 있었으며, 하루 평균 도움을 받은 시간은 약 3시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이 월 평균 부담하는 금액은 82,833원이었다.

〈표 7-2-11〉 노인가구의 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여부 및 평균 도움일수, 도움시간

(단위: 가구, %, 일, 시간, 원)

구분	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여부		한 달 평균 도움일수	하루 평균 도움시간	월평균금액
	없음	있음			
빈도	330	6	19.33	3.33	82,833
비율	98.21	1.79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년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기초조사(노인가구용)』 원자료.

다음으로는 장기요양보험급여 서비스 이외에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는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약 15%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은 한 달 평균 약 11일간 도움을 받고 있었으며, 하루 평균 약 4시간 정도 도움을 받았다. 이들 중 92%는 대가지급을 하지 않았으며, 8%만이 대가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12〉 노인의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 유무 및 평균 도움시간, 도움일수

(단위: 가구, %, 일, 시간)

구분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람		한 달 평균 도움일수	하루 평균 도움시간	대가지급여부
	없음	있음			
빈도	286	50	10.62	3.82	지급안함 92.00
비율	85.12	14.88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년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기초조사(노인가구용)』 원자료.

노인가구의 보건의료비에 품목에 대한 필수품 인식을 및 이용률을 분석한 결과, 병의원 진료비의 경우는 노인의 90.77%가 필수적이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약제비가 78.44%를 차지하였다. 이 품목에 대해서는 이용률도 각각 95.83%, 84.73%로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 고혈압 치료약, 상비약, 관절염 치료약 순으로 필수품 인식을

및 이용률이 높았다.

〈표 7-2-13〉 노인용 보건의료비 품목에 대한 필수품 인식률, 이용률, 월평균비용

(단위: %, 원)

구분	필수품 인식률			이용률	월평균비용 ¹⁾
	필수적임	있으면 좋음	필요 없음		
영양제	14.29	64.58	21.13	16.96	26,053
상비약	41.37	46.13	12.50	46.73	69,994
건강보조식품	12.20	68.75	19.05	15.48	52,288
고혈압 치료약	53.57	2.38	44.05	53.57	9,517
관절염 치료약	39.29	14.58	46.13	38.39	14,403
성인용 소변패드	2.08	12.50	85.42	1.79	19,000
병의원 진료비	90.77	5.65	3.57	95.83	12,287
약제비	78.44	14.07	7.49	84.73	21,926
미충족의료비	12.80	22.26	64.94	6.71	164,455

주: 1) 월평균비용은 사용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값이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년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기초조사(노인가구용)』 원자료.

3. 노인 추가비용에 대한 산정 근거

먼저 노인 추가비용에 대한 기존연구를 살펴보도록 한다. 김미곤 외(2004)에 따르면 노인 1인당 추가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노인 최저생계비} &= \text{공통비목} + \text{공통비목 추가} - \text{공통비목 감소} + \text{특수비목 추가} \\ \text{노인 1인당 추가비용} &= \text{공통비목 추가} - \text{공통비목 감소} + \text{특수비목 추가} \end{aligned}$$

하지만 이 추정방식은 몇 가지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노인 표준가구를 설정함에 있어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며,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른 1인당 추가비용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또한 노인 1인당 추가비용 산정시 가구규모에 대해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마켓 바스켓 구성시 일반가구의 필수품 선정원칙과 다른 보유확률 개념을 도입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정방법은 노인 1인당 추가비용을 산출하는 모형으로서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2013년 노인 추가비용 산정에서도 2004년 추정방식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노인가구가 비노인가구에 비해 잠

재적인 지출욕구가 큰 항목들의 경우는 규범적인 접근을 고려하고자 한다.

한편, 노인 추가비용 산출과 관련하여 성인균등화지수(AES)를 활용하여 노인 성인 균등화지수를 산출해 보고자 한다. 산출방식은 연령별 성인균등화지수에 2013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자료』를 활용하여 인구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노인과 비노인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김미곤 외(1999)에 따르면 표준가구 구성원의 성인균등화지수는 부 42세(1.000), 모 39세(0.9992), 자 12세(0.5082) 자 10세(0.3569)이며, 표준가구 전체 성인균등화지수 합계는 2.8643이고 1인당 평균 성인균등화 지수는 0.7161($2.8643 \div 4$ 인)이며, 노인의 성인균등화 지수는 0.7723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2-14〉 연령별 가중 성인균등화 지수

연령	AES	인구비	가중합	연령	AES	인구비	가중합	연령	AES	인구비	가중합
0세	0.4437	0.0091	0.0040	22세	0.5927	0.0128	0.0076	44세	1.0000	0.0166	0.0166
1세	0.3375	0.0092	0.0031	23세	0.6037	0.0129	0.0078	45세	1.0000	0.0168	0.0168
2세	0.3384	0.0098	0.0033	24세	0.6037	0.0131	0.0079	46세	1.0000	0.0170	0.0170
3세	0.3844	0.0093	0.0036	25세	0.6037	0.0136	0.0082	47세	1.0000	0.0173	0.0173
4세	0.4135	0.0088	0.0036	26세	0.6037	0.0144	0.0087	48세	1.0000	0.0176	0.0176
5세	0.4135	0.0090	0.0037	27세	0.6037	0.0155	0.0094	49세	1.0000	0.0176	0.0176
6세	0.4135	0.0097	0.0040	28세	0.6037	0.0164	0.0099	50세	1.0000	0.0172	0.0172
7세	0.3208	0.0096	0.0031	29세	0.6881	0.0169	0.0116	51세	0.9497	0.0165	0.0156
8세	0.2894	0.0103	0.0030	30세	0.7597	0.0166	0.0126	52세	0.9072	0.0157	0.0143
9세	0.3059	0.0119	0.0037	31세	0.8194	0.0158	0.0129	53세	0.8719	0.0150	0.0131
10세	0.3569	0.0123	0.0044	32세	0.8685	0.0152	0.0132	54세	0.8430	0.0143	0.0120
11세	0.4288	0.0125	0.0054	33세	0.9079	0.0152	0.0138	55세	0.8201	0.0134	0.0110
12세	0.5082	0.0129	0.0065	34세	0.9386	0.0155	0.0146	56세	0.8024	0.0121	0.0097
13세	0.5816	0.0133	0.0078	35세	0.9617	0.0161	0.0155	57세	0.7892	0.0110	0.0087
14세	0.6355	0.0137	0.0087	36세	0.9783	0.0169	0.0165	58세	0.7800	0.0103	0.0080
15세	0.6565	0.0140	0.0092	37세	0.9894	0.0175	0.0173	59세	0.7741	0.0097	0.0075
16세	0.6565	0.0141	0.0093	38세	0.9960	0.0178	0.0178	60세	0.7709	0.0095	0.0073
17세	0.6565	0.0142	0.0093	39세	0.9992	0.0180	0.0180	61세	0.7697	0.0094	0.0073
18세	0.6565	0.0141	0.0093	40세	1.0000	0.0179	0.0179	62세	0.7699	0.0092	0.0071
19세	0.5853	0.0138	0.0081	41세	1.0000	0.0177	0.0177	63세	0.7708	0.0086	0.0066
20세	0.5640	0.0133	0.0075	42세	1.0000	0.0170	0.0170	64세	0.7719	0.0078	0.0061
21세	0.5730	0.0129	0.0074	43세	1.0000	0.0166	0.0166	65세+	0.7723	0.0176	0.0136

자료 : 김미곤 외(1999: 292). 통계청 인구추계자료(2013년 기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합의한 최저생계비는 1,606,719원으로, 이를 표준가구 전체 성인균등화지수로 나누면, 1인당 560,946원($1,606,719 \div 2.8643$)이다. 즉, 표준가구의 1인당 최저생계비 금액은 1인당 금액에 1인당 평균 성인균등화 지수를 곱한

값으로 401,693(560,946원×0.7161)원으로 산출할 수 있다. 반면, 노인의 성인균등 화지수는 0.7723으로 1인당 금액의 77.23%에 해당되므로, 노인 1인당 최저생계비는 433,219원이다. 즉, 노인 1인당 최저생계비는 표준가구의 가구원 1인의 최저생계비보다 31,526원이 높게 나타났으므로, 노인 포함 4인가구가 노인 비포함 4인가구보다 최저생계비가 높게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뒷받침 한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진료비의 경우 65세 미만 비노인보다 1인당 월평균 내원일수는 3.4배(2013년 상반기 기준)나 높았으며, 1인당 월평균 진료비가 4.5배(2013년 상반기 기준)가 높게 나타났다. 즉, 노인의 경우 비노인보다 추가적인 욕구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노인가구의 추가비용을 산출하고자 한다.

〈표 7-2-15〉 65세 이상 노인진료비의 상대적 비교

(단위: 일, 원, %)

구분	1인당 월평균 내원일수			1인당 월평균 진료비		
	65세 미만(A)	65세 이상(B)	비율 (B/A)	65세 미만(A)	65세 이상(B)	비율 (B/A)
2010년	1.26	4.03	3.2	55,950	236,588	4.2
2011년	1.27	4.07	3.2	58,273	247,366	4.2
2012년	1.29	4.22	3.3	59,251	256,321	4.3
2013년 상반기	1.27	4.30	3.4	59,753	267,782	4.5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년 상반기 건강보험주요통계」, 2013년 9월 13일 발표자료

4. 노인 추가비용 산정

먼저, 본 연구에서 노인가구는 표준 4인 가구(부 42세, 모 39세, 자(남) 12세, 자(여) 10세) 중에서 1인이 빠지고 65세 이상의 노인 1인이 추가된 가구를 의미한다. 또한 노인 추가비용은 노인 1인이 추가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비용 및 감소비용을 산출하여 계산하였으며, 노인을 제외한 성인은 경제활동을 한다고 가정하고자 한다.

노인의 추가비용 산정의 접근 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가구(확률적으로) 중 1인이 빠지고 노인 1인이 대체된 것으로 가정하여 개인단위로 접근하였다. 단, 노인가구는 의료관련 욕구 및 체온유지 등에 대한 욕구가 비노인가구보다 높다는 점에서 건강한 노인과 건강하지 못한 노인간의 의료비 차이를 감안하였다¹²²⁾. 여기서 건강하지 못한 노인은 장기요양보험 판정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

움이 필요한 상태로 3등급 이하의 판정을 받은 노인'으로 간주하였다.

둘째, 노인 가구의 경우 잠재적 욕구에도 불구하고 자원의 결핍으로 이를 억제함으로써 실태적으로 지출수준이 일반가구에 비해 낮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노인가구의 실태는 반영하되 규범적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즉, 실태조사결과 노인가구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지출비목을 중심으로 추가하였으며, 사회적 통념에 의해 필수적이라고 인식되는 항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셋째, 추가비용은 규범적인 성격을 감안하여 지역별 차이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합의된 중소도시 기준의 마켓 바스켓 금액을 기준으로 노인의 추가비용을 산정하였다.

이와 같은 전제와 접근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노인의 최저생계비를 아래와 같은 기본 모형으로 계측하였다.

$$\text{노인 추가비용} = \text{공통비목 추가비용} - \text{공통비목 감소비용} + \text{특수비목 추가비용}$$

여기서 공통비목 추가비용은 표준가구의 마켓 바스켓에 있는 비목 중 가구원 중 1인이 빠지고 노인 1인이 추가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 품목에 대한 비용을 의미하며, 공통비목 감소비용은 표준가구의 마켓 바스켓에 있는 비목 중 가구원 중 1인이 빠지고 노인 1인이 추가됨으로써 발생하는 감소 품목에 대한 비용을 의미한다. 즉, 공통비목 추가비용 및 감소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은 식료품비의 경우 표준가구 마켓 바스켓에서 노인 1인에 해당하는 비용이 증가하면서(공통비목 추가비용), 가구원 중 1인에게 해당하는 비용(1/4인)을 감소하는(공통비목 감소비용) 방식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특수비목 추가비용은 표준가구 마켓 바스켓에 없는 비목 중 가구원 중 1인이 빠지고 노인 1인이 추가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 비목에 대한 비용을 의미한다.

2013년 노인가구 추가비용에서 공통비목 추가 및 감소비용, 특수비목 추가비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22)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결과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은 88.5%이었으며, 만성질환을 2개 이상 지니고 있는 복합이환자가 68.3%, 3개 이상 지닌 경우는 44.3%이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7-2-16〉 2013년 노인 1인당 추가비용 구성(연구진안)

구분	항목	
공통비목 추가비용	식료품비	총식료품비
	수도광열비	난방비
	피복신발비	외의(한복), 동내의
	보건의료비	의료서비스, 안경
	교통통신비	휴대폰(노인), 휴대폰요금(부가세포함)
공통비목 감소비용	식료품비	총식료품비
	수도광열비	난방비
	피복신발비	외의(신사복, 숙녀복), 동내의
	보건의료비	의료서비스, 약값(위생대), 안경
	교육비	총교육비
	기타소비지출	교제비 등(교제비, 친목단체비, 자녀용돈, 친지방문비)
특수비목 추가비용	가구집가사용품비	전기장판
	피복신발비	모자, 수의, 파카
	보건의료비	약값(영양제, 상비약), 지팡이, 틀니, 보청기(전전지), 장기요양협급여 서비스이용
	기타소비지출	경로당

구체적으로 비목별 노인 1인당 추가비용의 산출근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식료품비는 표준가구의 기준열량이 8,400Kcal이며, 노인 기준열량은 1,600Kcal이다. 여기서 노인 1인에 해당하는 비용이 증가되면서 가구원 1인에게 해당하는 비용을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수도광열비는 표준가구의 난방비 평균 사용량이 70.7m³이며 이에 노인 1인이 추가되고 가구원 중 1인이 빠지면서 평균 사용량 74.9m³로 산출되었다. 가구집기·가사용품비의 경우 전기장판은 실태조사 결과 보유율 80.08%, 필수품 인식율이 77.48%이므로 추가하였다.

피복신발비는 모자, 수의, 파카를 특수비목으로 추가하였으며, 외의와 동내의는 공통비목 추가비용으로 산정하였다. 즉, 한복은 보유율이 68.15%로 필수품에 추가하였으며, 표준가구의 외의에 해당하는 비목 중 한복을 대체할만한 품목(가장의 신사복, 주부의 숙녀복)의 금액을 1/4 감액하였다. 동내의는 실태조사 결과 필수품 인식율은 94.64%, 보유율은 97.92%이므로 필수품으로 추가하였으며, 표준가구의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였던 동내의 금액을 1/4 감액하였다. 파카의 경우는 필수품 인식율이

89.58%이므로 필수품에 추가하였으며, 모자와 수의의 경우 필수품 인식율은 낮았으나(각각 48.81%, 23.58%), 사회적 통념상 필요할 것으로 고려되므로 추가하였다.

〈표 7-2-17〉 2013년 노인 1인당 추가비용(연구진안)

항목		증감 ¹⁾	내구연수	단가	수량	건강한 노인	건강하지 못한 노인
식료품비	총식료품비	증가	1월	596,476원/ 8,400Kcal× 1,600Kcal	1인	113,614원	113,614원
		감소	1월	596,476원	1/4인	-149,119원	-149,119원
수도 광열비	난방비	증가	1월	71,794원	74.9m ³	71,794원	71,794원
		감소	1월	-67,768원	70.7m ³	-67,768원	-67,768원
가구집기 가사용품비	전기장판	추가	72월	152,000원	1개	2,111원	2,111원
피복 신발비	외의	증가	120월	한복 217,000원	2벌	3,617원	3,617원
		감소	1월	신사복, 숙녀복 6,088원	1/4인	-1,522원	-1,522원
	모자	추가	60월	16,000원	2개	533원	533원
	동내의	증가	36월	30,000원	3벌	2,500원	2,500원
		감소	1월	5,810원	1/4인	-1,453원	-1,453원
	수의	추가	168월	600,000원	1벌	3,571원	3,571원
	파카	추가	72월	110,000원	2점	3,056원	3,056원
보건 의료비	의료 서비스비	증가	1월	13,174원×4.5배	1인	13,174원	59,283원
		감소	1월	52,697원	1/4인	-13,174원	-13,174원
	약값	추가	3월	영양제 26,000원	1통	8,667원	8,667원
		2월	상비약 6,000원	1개	0원	3,000원	3,000원
	감소	1월	위생대 5,280원	1/4인	-1,320원	-1,320원	
	지팡이	추가	60월	18,000원	1개	0원	300원
	안경	증가	36월	45,000원	1인	1,250원	1,250원
		감소	1월	2,500원	1/4인	-625원	-625원
	틀니	추가	120월	1,300,000원	1개	10,833원	10,833원
	보청기	추가	60월	340,000원	2개	0원	11,333원
	보청기건전지	추가	4월	12,000원	1개	0원	3,000원
	장기요양보험 급여 서비스이용	추가	1월	82,500원	1인	0원	82,500원
	교육비	총교육비	감소	1월	73,803원	1/4인	-18,451원
교통 통신비	휴대폰(노인)	증가	1월	24,553원	1인	0원	24,553원
	휴대폰요금 (부가세포함)	증가	1월	10,692원	1인	0원	10,692원
기타 소비 지출	경로당	추가	1월	3,000원	1회	3,000원	3,000원
	교제비 등	감소	1월	교제비, 친목단체비, 자녀용돈, 친지방문비 20,834원	1/4인	-5,209원	-5,209원
계						-20,921원	160,566원

주: 1) 증가는 노인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감소는 증가에 대칭되는 감소비용을 의미한다. 또한 추가는 표준가주 마켓 바스켓에 없는 품목으로 추가된 품목을 의미한다.

한편, 보건의료비는 지팡이, 틀니, 보청기, 장기요양보험급여 서비스이용은 특수비목으로 추가하였으며, 의료서비스비, 약값, 안경은 공통비목 추가비용으로 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의료서비스비는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인구의 1인당 월평균 진료비 비율 4.5배를 건강하지 못한 노인의 의료서비스비를 산출하여 추가하고, 표준가구 의료서비스비의 1/4을 감액하였다. 약값은 영양제와 상비약의 경우 필수품 인식율은 낮았으나 사회적 통념상 필요할 것으로 고려되므로 추가하였으며, 영양제는 모든 노인에게, 상비약은 건강하지 못한 노인에게만 추가하고 표준가구의 위생대에 해당하는 금액의 1/4 감액하였다. 안경과 틀니는 필수품 및 보유율이 2/3 이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안경의 경우 대부분의 노인들이 글씨를 보기 위한 돋보기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모든 노인에게 적용하였고 틀니의 경우도 모든 노인에게 적용하였다. 지팡이, 보청기(건전지 포함)의 경우 건강하지 못한 노인에게만 추가품목으로 산정하고, 장기요양보험급여 서비스이용은 건강하지 못한 노인에게만 적용하였다. 적용 기준은 방문요양 2시간 기준 수가인 27,500원 중에서 본인이 부담(15%)하는 금액 4,125원을 1회당 단가로 하며, 월 평균 20회 이용하는 것으로 하여 월 82,500원으로 산출하였다.

교육비는 표준가구의 총 교육비의 1/4 감액하였으며, 기타소비지출은 경로당비를 특수비목으로 추가하고, 표준가구의 교제비, 친목단체비, 자녀용돈, 친지방문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1/4을 감액하였다.

마지막으로 2013년 노인가구 추가비용에 교통통신비의 휴대폰을 공통비목 추가비용으로 추가하였다. 먼저, 추가한 사유로는 노인가구실태조사결과 휴대폰을 소유한 노인은 71.3%로 조사되었으며, 국민생활실태조사결과 노인가구의 2/3이상이 필수품으로 인식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건강하지 못한 노인의 경우 긴급사항에 대비하여 자녀와의 꾸준한 연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노인에 한하여 휴대폰 요금을 추가하였다. 여기서 휴대폰요금은 가구원 중 1인이 건강하지 못한 노인과의 연락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요금을 의미한다.

〈표 7-2-18〉 노인가구 지출 품목 포함 사항

구 분	변경 내용	변경 이유	마켓 바스켓 반영
휴대폰	항목포함	건강하지 못한 노인의 경우 긴급사항에 대비하여 자녀와의 꾸준한 연락을 위하여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최저생계비 마켓 바스켓(연구진안)의 교통통신비의 휴대전화요금 소계(24,553원) 반영 ○ 휴대폰요금의 경우 사용요금 3분 기준(1인 1통화) 9,720원에서 요금의 10%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이렇게 산출된 노인 추가비용은 공통비목 추가비용, 공통비목 감소비용, 특수비목 추가비용을 가감하고, 건강한 노인과 건강하지 못한 노인으로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그 결과 건강한 노인의 경우는 20,921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하지 못한 노인의 경우는 160,566원이 추가되는 비용으로 산정되었다.

5. 노인 추가비용의 정책적 활용

노인 추가비용은 노인이 비노인과 동일한 최저생활을 향유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정되며, 크게 대상 선정과 급여수준 산정에 활용된다.

먼저, 노인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에 노인의 추가비용을 합산하여 활용할 수 있다. 즉, 노인가구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노인가구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가구를 파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원칙이 적용될 경우 가구규모별 및 가구유형별로 선정기준이 모두 달라짐에 따라 행정적으로 처리하기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행정적으로 복잡성 문제를 줄이고 노인 추가비용을 반영하는 대안적 방식으로는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에서 노인 추가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일반가구의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경우를 수급자로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노인가구 최저생계비 = 일반가구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 노인가구 추가비용

- 원칙: 노인가구 최저생계비 대 소득인정액
- 대안: 일반가구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대 (소득인정액 - 노인 추가비용)

다음으로 급여수준 산정에 있어서 노인 추가비용에서 노인에게 지급되는 현물과 현금의 타법지원액을 공제한 금액이 일반가구의 가구규모별 현금급여기준선에 합산되어 노인가구의 현금급여기준선이 설정될 수 있다. 또한 노인이면서 장애인인 경우는 노인 추가비용과 장애인 추가비용을 합산한 후 공동비용을 차감한 방식으로 계산될 수 있다.

노인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추가비용 = (노인 추가비용 + 장애인 추가비용) - 공통비용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중을 줄이고, 각종 수당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가구유형별 욕구에 맞는 급여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노인에 대한 수당들이 활성화되거나 새롭게 도입됨으로써 노인가구의 추가 비용 부담을 이러한 제도에서 포괄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본 연구에서의 노인가구 추가비용은 각종 수당과 급여의 기준액을 산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표 7-2-19〉 노인가구의 추가 현금급여

추가 현금급여	=	추가비용	-	현물 및 타지원액(제외 품목)
◦없음		◦건강한 노인: -20,921원 ◦건강하지 못한 노인: 160,566원		◦의료비 중 보건의료서비스: 59,283원 ◦장기요양보험급여 서비스 이용: 82,500원 ◦보청기: 11,333원 ◦노인의치(틀니)사업: 10,833원 총: 163,949원

제3절 한부모 추가비용

1. 한부모가구 추가비용의 개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한부모가구란 사별, 이혼, 미혼 등으로 인하여 “모” 또는 “부”와 만18세 미만 혹은 취학 중인 경우 만22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부모와 자녀 이외의 가구원 포함 여부에 대한 가구구성 및 자녀 연령과 관련한 이론의 여지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법률에 의한 정의를 차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한부모가구 최저생계비란 양부모 중 한 명과 그 미성년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부모가구 추가비용이란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정하고 있는 양부모가구로 구성된 가구에 비해 경제활동, 가사활동, 자녀양육 및 교육 등 한부모가구가 가지는 독특하고

추가적인 욕구로 인해 발생하는 지출을 보전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2. 한부모가구 추가비용 산출근거

가. 한부모가구의 출현율

통계청에서 매 5년마다 발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2010년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가구의 비율은 2010년 현재 9.2% 수준이다. 그 중 남성 한부모가구는 347천 가구, 여성 한부모가구는 1,247천 가구 정도의 수준이고, 여성 한부모가구가 전체 한부모가구의 약 80%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전체가구 중 한부모가구가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율은 1995년 7.4%부터 매년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이혼율 및 미혼모의 증가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7-3-1〉 가구의 혼인상태별 한부모가구 현황

(단위: 가구, %)

		계	가구의 혼인상태				한부모 가구비율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2010	계	1,594,138	412,793	473,753	522,865	184,727	9.2
	남성한부모+미혼자녀	347,448	94,312	71,368	163,650	18,118	2.0
	여성한부모+미혼자녀	1,246,690	318,481	402,385	359,215	166,609	7.2
2005	계	1,369,943	327,864	501,095	398,532	142,452	8.6
	남성한부모+미혼자녀	286,923	64,148	73,886	139,671	9,218	1.8
	여성한부모+미혼자녀	1,083,020	263,716	427,209	258,861	133,234	6.8
2000	계	1,123,854	252,917	502,284	245,987	122,666	7.9
	남성한부모+미혼자녀	219,997	58,227	64,058	92,810	4,902	1.5
	여성한부모+미혼자녀	903,857	194,690	438,226	153,177	117,764	6.3
1995	계	959,972	216,067	526,320	123,969	93,616	7.4
	남성한부모+미혼자녀	172,398	50,666	68,022	51,080	2,630	1.3
	여성한부모+미혼자녀	787,574	165,401	458,298	72,889	90,986	6.1

자료: 통계청(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나. 한부모가구 추가비용 산출의 근거

한부모가구의 가구주는 홀로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동시에 가사와 양육을 병행하는 다중 책임을 지게 된다. 과거와 달리, 핵가족화가 심화됨에 따라 한부모와 그 자녀를

지원할 수 있는 사적 네트워크 또한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성년자녀, 특히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한부모가구는 높은 수준의 물리적·심리적 부담을 갖게 된다.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여성 한부모가구는 경제적 곤란이나 부모실직 등 경제적 측면이나 양육에의 부담에 의한 역효과로서 부모의 지나친 간섭 등의 어려움을 보고하고 있다. 반면 남성 한부모가구는 여성 한부모가구에 비해 경제적 곤란의 어려움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나 부모 부재나 음주 등 모성의 부재로 인한 양육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7-3-2〉 한부모가구 가정생활 어려움

(단위: %)

구분	부모 부재	부모 불화	지나친 간섭	부모 무관심	부모 실직	부모 음주	가족 질병	식구 가출	경제적 곤란	가정 폭력	기타	없음	전체
일반가구	9.2	8.0	13.5	3.2	1.6	8.4	10.0	1.2	15.9	2.4	6.8	19.9	100.0
여성 한부모가구	11.4	7.2	15.6	2.4	3.6	3.0	7.2	2.4	19.2	3.0	9.6	15.6	100.0
남성 한부모가구	18.8	5.5	11.7	5.5	3.1	11.7	6.3	2.3	14.8	1.6	6.3	12.5	100.0
전체	15.8	7.4	13.8	4.4	2.4	7.1	7.8	1.6	15.6	2.1	6.9	15.2	100.0

자료: 이혜연 외(2009)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문제와 복지지원방안 연구: 빈곤한 한부모가정·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저생계비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구의 경제적인 측면을 자세히 보면, 일반적으로 한부모가구는 일반 양부모가구에 비해 높은 빈곤율을 보고하고 있다. OECD 주요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한부모가구는 양부모가구에 비해 빈곤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며, 평균적으로 가구 내 모든 성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양부모가구의 빈곤율은 49.4%인데 비해 한부모가구는 61.4%의 약 1.2배 정도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한 부모가구 가구주의 경제활동에 따른 빈곤율 차이를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다른 주요 국가들은 최저 21%에서 최대 62% 정도 빈곤율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가구 내 모든 성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양부모가구의 빈곤율이 한부모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가구 내 1인이 라도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양부모가구의 빈곤율은 37.5%에서 9.5%, 2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빈곤율이 5.3%로 현저히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는 데 비해, 한부모가구는 23.1%에서 19.7%로 3.4% 정도의 낮은 감소폭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한부모가구

는 가구주가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양부모가구에 비해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독특한 상황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7-3-3〉 주요국가의 가구주 경제활동에 따른 한부모가구의 빈곤율

(단위: %)

구분	한부모가구			양부모가구			(A-C)
	비경제활동(A)	경제활동(B)	(A-B)	비경제활동(C)	1인 경제활동	2인 경제활동	
한국	23.1	19.7	3.4	37.5	9.5	5.3	-14.4
호주	67.8	6.1	61.7	50.8	7.9	1.0	17.0
캐나다	90.5	29.6	60.9	79.4	28.7	4.1	11.1
미국	91.5	35.8	55.7	84.1	30.6	6.6	7.4
영국	39.1	6.7	32.4	35.8	9.0	1.0	3.3
프랑스	35.8	14.6	21.2	18.1	8.7	3.0	17.7
독일	46.2	11.6	34.6	23.2	3.7	0.6	23.0
일본	52.5	54.6	-2.1	37.8	11.0	9.5	14.7
스웨덴	54.5	11.0	43.5	46.0	18.5	1.4	8.5
핀란드	46.3	5.6	40.7	23.4	8.9	1.1	22.9
OECD 평균	61.4	21.3	40.1	49.4	17.3	3.9	12.0

자료: OECD(2011) Doing Better for Families. OECD Publishing.

관련하여 해외 사회부조체계에서 일반가구와 다른 추가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한부모가구의 유형을 독특하게 취급하여 사회부조급여액을 책정하는 사례가 많다. 캐나다에서는 실업자 단독가구, 장애인 단독가구와 함께 한부모와 한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구의 복지급여 수준을 정하고 있는데, 가구규모를 고려했을 때 부부와 두자녀로 구성된 일반가구에 비해 가구원당 높은 수준의 급여액을 책정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데, 부부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표준3인세대에 비해 여성가구주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모자2인세대의 1인당 최저생활보장액이 높은 수준이다.

〈표 7-3-4〉 2009년 기준 캐나다 주요 지역별 가구유형별 총복지급여의 수준

(단위: \$)

지역	실업자 단독가구	장애인 단독가구	한부모·한자녀		부부·두자녀	
			급여액	1인당 급여액	급여액	1인당 급여액
Quebec	7,312	10,881	17,583	8,791.5	22,614	5,653.5
Ontario	7,501	12,905	17,372	8,686.0	22,695	5,673.8
Alberta	7,241	9,433	15,749	7,874.5	22,101	5,525.3
British Colombia	7,778	11,392	16,899	8,449.5	21,179	5,294.8

자료: National Council of Welfare(2012), Welfare Incomes 2009(재구성).

〈표 7-3-5〉 일본의 가구유형별 최저생활보장수준액(2012년, 월액)

(단위: 엔)

	1급지-1	1급지-2	2급지-1	2급지-2	3급지-1	3급지-2
	표준3인세대(33세남, 29세여, 4세자)					
최저생활보장액	185,170	177,870	170,580	163,270	150,980	143,680
생활부조	162,170	154,870	147,580	140,270	132,980	125,680
제1류	106,890	102,080	97,280	92,450	87,650	82,840
제2류	55,280	52,790	50,300	47,820	45,330	42,840
아동양육가산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주택부조	13,000	13,000	13,000	13,000	8,000	8,000
1인당 총 최저생활보장액	61,723	59,290	56,860	54,423	50,327	47,893
	모자2인세대(30세, 4세자)					
최저생활보장액	162,620	157,380	150,530	145,280	133,440	128,190
생활부조	116,360	111,120	105,890	100,640	95,420	90,170
제1류	66,620	63,620	60,630	57,620	54,630	51,630
제2류	49,740	47,500	45,260	43,020	40,790	38,540
아동양육가산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모자가산	23,260	23,260	21,640	21,640	20,020	20,020
주택부조	13,000	13,000	13,000	13,000	8,000	8,000
1인당 총 최저생활보장액	81,310	78,690	75,265	72,640	66,720	64,095

자료: 生活保護制度研究會(2012), 保護のてびき, 第一法規(재구성)

〈표 7-3-6〉 캐나다와 일본 한부모가구 및 일반가구의 가구규모별 균등화된 사회부조급여액

(단위: \$, 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균등화지수 ¹⁾	0.37	0.63	0.815	1	1.185	1.37
캐나다 (캐백)	한부모가구	5,163	8,792²⁾	11,373	13,955	16,536
	일반가구	2,092	3,562	4,608	5,654²⁾	6,699
일본	한부모가구	47,753	81,310²⁾	105,187	129,063	152,940
	일반가구	28,021	47,712	61,723²⁾	75,734	89,744

주: 1) 가구균등화지수는 현재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OECD 기준 수치임.

2) 볼드체는 국가별 1인당 사회부조급여액의 기준금액으로서 이 값에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가구규모별 1인당 사회부조급여액을 산출하였음.

따라서 한부모가구의 규범적 욕구나 외국의 경험을 통해 볼 때, 한부모가구의 경우 한 명의 성인이 경제적 부양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욕구가 발생한다는 것은 설득력있다고 판단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부모가구의 지출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추가비용을 산정하고자 한다.

3. 한부모가구 지출실태 및 욕구

이 부분에서는 한부모와 미성년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구의 지출실태를 양부모와 미성년자녀로 구성된 양부모가구를 일반가구로 정의하여 각각의 지출 실태를 비교하여 실질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지출의 항목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01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및 「2013년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기초조사(한부모가구용)」과 「가계동향조사」(2012)를 활용하였다. 분석 대상 가구는 소득 하위 40% 이하 가구로서, 한부모가구와 일반가구를 추출하여 비교하였고, 회귀분석은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 7-3-7〉 하위 40%이하 한부모가구와 일반가구의 비목별 지출 비교

(단위: 가구, 원)

		가구유형	평균지출액	표준편차	평균지출액의 비율(B/A)
식료품비	가정식비	일반가구(A)	437,430	138,574	0.80
		한부모가구(B)	348,516	115,071	
	외식비	일반가구(A)	199,386	104,020	0.82
		한부모가구(B)	162,599	89,594	
주거비	월세	일반가구(A)	86,621	133,798	1.60
		한부모가구(B)	138,332	149,251	
	관리비	일반가구(A)	44,251	68,554	0.58
		한부모가구(B)	25,874	37,899	
수도광열비		일반가구(A)	126,522	39,016	0.87
		한부모가구(B)	109,672	34,963	
가구집기비		일반가구(A)	140,006	154,540	0.46
		한부모가구(B)	64,794	95,861	
피복신발비		일반가구(A)	71,332	47,026	0.81
		한부모가구(B)	57,779	36,175	
보건의료비		일반가구(A)	109,313	162,915	0.53
		한부모가구(B)	57,392	101,929	
교육비	공교육비	일반가구(A)	105,814	231,833	1.77
		한부모가구(B)	187,676	267,908	
	사교육비	일반가구(A)	95,572	161,395	0.97
		한부모가구(B)	92,956	158,060	
교양오락비		일반가구(A)	56,515	75,157	0.57
		한부모가구(B)	32,008	41,883	
교통통신비		일반가구(A)	380,008	232,371	0.68
		한부모가구(B)	259,634	144,461	
기타소비지출		일반가구(A)	419,069	276,554	0.65
		한부모가구(B)	271,035	193,274	
비소비지출	세금	일반가구(A)	26,704	79,407	0.26
		한부모가구(B)	6,948	15,273	
	사회보장 부담금	일반가구(A)	94,076	66,305	0.49
		한부모가구(B)	45,687	51,059	
총생활비		일반가구(A)	2,458,003	767,687	0.77
		한부모가구(B)	1,887,975	618,86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우선 「2011년 국민생활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소득 하위 40% 이하 한부모가구와 일반가구의 지출실태를 비교해보면, 한부모가구의 총 생활비는 1,887,975원으로 일반가구 2,458,003원의 77%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소득 및 재산 등 지출능력의 차이와 가구원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비목별 지출실태를 살펴보면, 주거비 중 관리비(58%), 가구집기비(46%), 보건의료비(53%), 교양오락비(57%), 교통통신비(68%), 기타소비지출(65%), 비소비지출의 세금(26%) 및 사회보장부담금(49%)의 지출비율이 한부모가구의 일반가구에 대한 총생활비 지출수준인 66%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즉, 소득이나 재산을 반영하는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의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한부모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절약이 가능한 일상생활 잡비와 문화생활에 대한 소비 욕구를 절제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가정식비(80%)나 외식비(82%)의 식료품비나 주거비 중 월세(160%), 수도광열비(87%), 피복신발비(81%), 공교육비(177%)와 사교육비(97%)의 교육비 지출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즉, 교육비를 포함하여 피복신발비 등 가구주의 경제활동에 따른 부대비용이나 주거관련 필수지출 비용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한부모가구와 일반가구의 지출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가구원수나 소득수준을 통제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소득 능력 하에서의 가구유형에 따른 지출수준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소득과 가구원수, 그리고 한부모가구의 가구유형을 독립변수로 두고 각 지출 비목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소득과 가구원수를 통제된 상태에서 한부모가구 여부가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한 회귀분석 모형, 즉 비목별 지출함수는 다음과 같다.

$$\ln(E) = \text{INTERCEPT} + a1 \ln(Y) + a2 \text{FNUM} + a3 \text{SPH}$$

E = 비목별 월평균 지출액
 Y = 월평균 가구소득
 FNUM = 가구원수
 SPH = 한부모가구 유무를 나타내는 더미변수(한부모가구=1, 일반가구=0)

「2011년 국민생활실태조사」를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15개 비목 중 한부모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지출하는 비목은 외식비, 가구집기비, 피복신발비, 교통통신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비목들에서는 한부모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해 낮은 지출수준으로 보였다.

〈표 7-3-8〉 소득하위 40% 이하 한부모가구와 일반가구의 비목별 지출함수

(단위: 원)

비 목	intercept	a1	a2	a3	Adj-R ²	F
총생활비	0.233*** (4.57)	0.588*** (79.84)	0.183*** (37.23)	0.070* (3.46)	0.620	4,004.04***
식료품비						
가정식비	1.861*** (31.54)	0.128*** (15.01)	0.290*** (50.93)	-0.079* (-3.37)	0.354	1,346.21***
외식비	-5.942*** (-38.39)	1.092*** (49.55)	0.010 (.76)	0.329*** (5.91)	0.318	979.25***
주거비						
월세	-1.981*** (-8.01)	0.657*** (18.77)	-0.075* (-3.2)	0.102 (1.35)	0.166	121.62***
관리비	-1.720*** (-5.95)	0.289*** (7.00)	0.051 (1.92)	-0.411*** (-3.81)	0.014	26.43***
광열수도비	1.055*** (17.83)	0.117*** (13.68)	0.192*** (33.64)	-0.084*** (-3.59)	0.210	653.97***
가구집기비	-2.785*** (-22.16)	0.383*** (21.09)	0.402*** (33.17)	0.182*** (3.66)	0.259	860.22***
피복신발비	-4.663*** (-35.57)	0.771*** (41.00)	0.083*** (6.86)	0.229*** (4.66)	0.249	773.19***
보건의료비	0.551** (2.68)	0.062* (2.09)	0.314*** (16.2)	-0.952*** (-11.95)	0.055	137.37***
교육비						
공교육비	1.937* (2.08)	0.097 (0.79)	-0.097 (-1.68)	-0.190 (-1.55)	0.002	1.42
사교육비	1.667 (1.89)	0.097 (.86)	0.083 (1.29)	0.196 (1.48)	0.001	1.10
교양오락비	-3.996*** (-27.52)	0.650*** (30.98)	-0.018 (-1.27)	-0.070 (-1.23)	0.129	361.29***
교통통신비	-3.779*** (-37.77)	0.803*** (55.52)	0.289*** (29.98)	0.128** (3.24)	0.462	2,107.22***
기타소비지출	-4.184*** (-34.5)	0.912*** (52.03)	0.212*** (18.13)	-0.167** (-3.48)	0.373	1,462.63***
비소비 지출						
세금	-7.200*** (-30.72)	0.928*** (27.84)	0.157*** (7.41)	-1.122*** (-11.28)	0.159	386.74***
사회보장 부담금	-2.798*** (-14.39)	0.600*** (22.53)	0.081*** (5.56)	-0.347*** (-5.55)	0.156	217.30***

주: *(p< .05), **(p< .01) *** (p< .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소득과 지출을 통제한 상태에서 한부모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해 많이 지출하는 세부 품목은 배달음식, 월세, 가정용기기 및 가전서비스와 가사소모품, 아동용외의와 양말 및 스타킹, 운동화, 학원 및 보습교육, 운동학원, 개인과외비, 이동전화요금 등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지출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다. 반면, 일반가구의 지출 수준은 정규교육, 초등교육 등, 그리고 기타운송기구구입 및 교통관련비용 등에서 한

부모가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부모가구와 일반가구의 지출수준이 차이나는 품목을 범주화해보면, 주로 자녀의 보호 및 교육과 관련된 비용(학원 및 보습교육, 운동학원 및 개인과외비) 등이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부가비용(양말 및 스타킹)과 그로 인한 가사비용(배달음식, 가전서비스), 안전과 관련한 비용(이동전화요금) 및 교통과 관련된 비용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표 7-3-9〉 회귀분석결과 하위 40%의 한부모가구와 일반가구의 차이 품목

구 분	내 용	
비 목	식료품비(외식비), 월세, 가구집기비, 피복신발비, 사교육비, 교통통신비	
구 분	한부모가구 > 일반가구	한부모가구 < 일반가구
식료품비	배달음식**, 이동식 음식점**, 단체제공식**	주점 및 커피숍**
주거비	월세**	-
가구집기비	가정용기기 및 가전서비스**, 가사소모품**	-
피복신발비	아동용외의**, 양말 및 스타킹* 운동화*	-
교육비	학원 및 보습교육***, 운동학원***, 개인과외비*	정규교육***, 초등교육**, 유치원**, 사립대학**
교통통신비	이동전화요금***	기타운송기구구입*, 자전거 등*, 부품 및 관련용품*, 운송기구 연료비**, 기타개인교통서비스***, 일반전화요금*

주: * p<.05, ** p<.01, ***p<.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통계청(2012),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다음은 「2013년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기초조사(한부모가구용)」에서 나타난 한부모가구이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고한 품목의 분석결과이다. 가구원, 특히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휴대폰(자녀 포함)의 응답률이 전체의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번호키 및 비디오폰, CCTV 등 안전장치에 대한 욕구가 19.0%로 2순위이고,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주가 완전히 책임질 수 없는 방과후 자녀의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욕구가 13.6%로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관련하여 외식비(8.4%)나 자녀돌봄(7.3%)에 대한 욕구나 가사에 대한 도움 및 추가 가구집기를 보고한 경우도 각각 4.0% 수준이다.

〈표 7-3-10〉 한부모가구이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품목(중복응답)

(단위: 가구, %)

	가구수	비율
휴대폰(자녀 포함)	105	38.5
안전장치(번호키, 위치추적기, 호신용경보기, 비디오폰, CCTV 등)	52	19.0
보육 및 교육(보습학원, 예체능학원, 외국어학원 등)	37	13.6
외식비(반찬, 자녀 간식, 도시락 등)	23	8.4
자녀돌봄(베이비시터, 야간돌봄, 휴일돌봄 등)	20	7.3
가사도움(전기, 전등교체, 청소 등)	11	4.0
기타 가구집기(식기세척기, 토스터기 등)	11	4.0
컴퓨터	6	2.2
부모 역할부재 지원(성교육, 여행 등)	6	2.2
생계 및 주거지원	2	0.7
합 계	273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년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기초조사(한부모가구용)』 원자료.

자녀의 학원수강과 관련한 가구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실제 수강률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한부모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꼭 필요하다’거나 ‘하면 좋다’는 학원수강에 대한 긍정적 응답의 비율이 높은 데 비해 실제 수강률은 일반가구가 더 높다. 다시 말해서, 한부모가구의 자녀 교육욕구는 그 자체에 대한 바람과 더불어 한부모의 경제활동 및 가사로 인한 부재시 자녀의 보호와 감독을 보완해줄 수 있는 자원을 필요로 하나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7-3-11〉 한부모가구와 일반가구의 자녀 학원수강 필요성 인식과 실제 수강 비율

(단위: %)

구분			필수품 인식률			실제수강비율
			꼭 필요하다	하면 좋다	필요없다	
초등학생	보습학원	한부모가구	43.4	48.9	7.7	23.6
		일반가구	35.0	51.5	13.5	38.8
	가정학습지	한부모가구	29.2	55.1	15.7	21.1
		일반가구	23.5	55.7	20.8	35.1
	기타학원	한부모가구	55.6	40.3	4.2	40.8
		일반가구	42.7	51.7	5.6	48.8
중학생	보습학원	한부모가구	50.5	43.6	5.9	18.6
		일반가구	48.5	44.4	7.1	48.8
	과외	한부모가구	18.0	40.7	41.3	1.8
		일반가구	11.7	61.3	27.1	4.7
	기타학원	한부모가구	28.6	60.6	10.9	7.2
		일반가구	20.7	68.4	10.9	10.5
고등학생	보습학원	한부모가구	41.8	49.1	9.1	7.9
		일반가구	35.5	53.5	10.9	29.2
	과외	한부모가구	21.6	50.0	28.4	3.7
		일반가구	16.2	62.7	21.1	6.6
	기타학원	한부모가구	35.8	56.0	8.2	9.2
		일반가구	22.3	58.1	19.6	8.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2013년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기초조사(한부모가구용)』 원자료.

다음은 한부모가구와 일반가구의 휴대폰 보유 현황이다. 각각 100%와 99.6%의 압도적인 비율로 휴대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수품이라고 인식하는 비율 또한 96.7%와 97.7%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반면, 가구원당 보유대수는 일반가구가 0.8대, 한부모가구가 0.9대로 한부모가구의 경우 가구원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고, 실제로 높은 수준의 가구원 휴대폰 보유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3-12〉 한부모가구와 일반가구의 휴대폰 보유 현황

(단위: %, 대)

구분		일반가구	한부모가구
보유현황	갖고 있다	100.0	99.6
	가지고 싶지만 현재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어 못 갖고 있다	0.0	0.4
	별 필요를 느끼지 않아 갖고 있지 않다	0.0	0.1
필요성	꼭 필요하다(필수품이다)	96.7	97.7
	있으면 좋다(필수품은 아니다)	3.3	2.3
가구원당 보유대수		0.8	0.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년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기초조사(한부모가구용)』 원자료.

4. 한부모가구 추가비용 산정

이상의 한부모가구의 지출실태 및 표출된 욕구와 규범적 측면을 고려하여 한부모가구의 추가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기본전제는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한부모가구 가구주인 모(母) 혹은 부(父)는 혼자 가구의 소득과 자녀 양육 및 가사 부담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부모가구가 가지는 독특한 욕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부모가구가 금전적인 욕구 뿐 아니라 단순히 물리적·심리적 어려움에 따른 욕구를 동시에 고려할 것이나 연구의 목적이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데에 있으므로 한부모가구의 추가적인 기본욕구를 금전적(물질적)인 것으로 국한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상의 전제를 기반으로 한 한부모가구 최저생계비 추가비용 산정의 접근 원칙은 다음과 같다. 우선, 노인 혹은 장애인가구의 경우 표준가구 4인 중 확률적인 1인을 노인 혹은 장애인이 대체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나, 한부모가구는 가구단위로의 접근이 불가피하다.

둘째, 이 연구에서 가정하고 있는 한부모가구 표준가구는 부 혹은 모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3인가구이다. 한부모가구의 평균가구원수는 2.5명으로 3인에 가까우므로,¹²³⁾ 부(父) 혹은 모(母) 중 1인과 두 명의 자녀로 구성된 3인가구를 한부모가구 표준가구로 설정하였다. 또한 3인 한부모가구는 일반 표준가구(4인)에서 부(42세) 혹은 모(39세) 중 1인과 1자(남, 12세)와 2자(여, 10세)로 구성되어 있고, 가구주는 경제활동을 하는 근로자로 가정하였다.

셋째, 한부모가구 추가비용 계측은 실태를 반영하되 규범적 차원에서 접근한다. 한부모가구의 실태를 중심으로 반영할 경우 자원의 결핍으로 인해 억제된 잠재적 욕구 지출실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가능성을 배제하게 될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국민생활실태조사』와 『가계동향조사』를 중심으로 한 실태분석 결과 한부모가구와 양부모가구의 지출실태가 유의미하게 차이나는 지출비목을 중심으로 추가비용의 비목을 구성하되, 규범적인 측면에서 한부모가구에게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비목을 추가하고자 한다.

넷째, 한부모가구 추가비용은 가구특성별 차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지역별 차이는 고려하지 않는다. 즉, 4인 표준가구 최저생계비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지역별 차이 이외의 추가적인 지역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위와 같은 기본전제와 접근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한부모가구 추가비용은 다음과 같은 산정공식으로 계측된다. 다시 말하면, 한부모가구 추가비용 마켓 바스켓은 표준가구의 마켓 바스켓을 기준으로 하여, 수량 등이 추가되어야 할 것(공통비목 추가), 수량 등이 감소되어야 할 것(공통비목 감소), 그리고 신규로 추가되어야 할 것(특수비목)으로 구성된다.

$$\text{한부모가구의 추가비용} = \text{공통비목 추가비용} - \text{공통비목 감소비용} + \text{특수비목 추가비용}$$

우선 식료품비 중 외식비와 배달식비, 피복신발비 중 동절기 및 춘추 숙녀복(여성 한

123)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2010년 현재 한부모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2.5명 수준임.

구분	평균 가구원수(명)
남성 한부모가구	2.5
여성 한부모가구	2.5

자료: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2% 표본)』, 원자료

부모가구), 구두(여성 한부모가구), 팬티 및 판타롱스타킹(여성 한부모가구), 세탁료, 의복 및 구두수선료, 교육비 중 10세 자녀에 대한 방과후학교 수강료와 12세 자녀에 대한 방과후 보습학원비, 교통통신비 중 택시요금과 휴대폰요금, 자녀의 휴대폰을 공통비목 추가비용으로 산정하였다. 표준가구의 마켓 바스켓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한부모가구에 특화된 추가품목, 즉 특수비목 추가비용으로는 가구가사집기의 보조기가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식료품비 중 외식비와 배달식비에 상응하는 가정식비용 절감분과 교육비 중 12세 자녀의 보습학원에 대한 가정학습지 비용이 공통비용 절감비용에 포함되었다. 이상의 품목에 대한 비용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 공통비목 추가비용

① 식료품비

- 외식비: (단가 24,000원 / 3월) × 1회 = 8,000원
- 배달식비: (단가 24,218원 / 1월) × 2회 = 48,436원

② 피복신발비

- 숙녀복(동) : (단가 96,660원 / 내구연수 10년) × 1벌 = 806원
- 숙녀복(춘추): (단가 75,180원 / 내구연수 10년) × 1벌 = 627원
- 구두: (단가 22,540원 / 내구연수 2년) × 1켤레 = 939원
- 스타킹(팬티): (단가 1,645원 / 내구연수 3월) × 1켤레 = 548원
- 스타킹(판타롱): (단가 779원 / 내구연수 2월) × 1켤레 = 400원
- 세탁료: (단가 6,258원 / 내구연수 1년) × 2회 = 1,043원
- 수선비(의복): (단가 3,129원 / 내구연수 1년) × 1회 = 261원
- 수선비(구두): (단가 4,224원 / 내구연수 3년) × 1회 = 117원

③ 교육비

- 10세아동 (초등 4학년) 방과후학교: 단가 34,627 / 1월 = 34,627원
- 12세아동 (초등 6학년) 방과후 보습학원: 단가 130,375 / 1월 = 130,375원

④ 교통통신비

- 택시요금: (단가 5,342원/1월) × 1회 = 5,342원
- 휴대폰 요금: (단가 10,692원/1월) × 1회 = 10,692원
- 휴대폰(자녀): (단가 24,553원/1월) × 1대 = 24,553원

— 특수비목 추가비용

① 가구집기가사용품비

- 보조기: 단가 86,538원 / 내구연수 8.42년 = 856원

— 공통비목 감소비용

① 식료품비

- 가정식 절감분: (부자) (단가 4,391원 × 3월) × 7회 = 10,246원
- (모자) (단가 4,053원 × 3월) × 7회 = 9,457원

② 교육비

- 가정학습지(11세: 보습학원으로 대체): 단가 34,500 × (6회/12월) = 17,250원

여기에서는 비목별 추가 및 절감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한부모가구 가구주가 근로활동을 한다고 가정하고 있으므로 가사를 전담하는 성인가구원이 없는 상태에서 외식이나 배달식에 대한 필요성과 욕구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3월 1회의 가구단위 외식과 월 2회의 배달식비가 식료품비에 추가되었다. 중생보 의결 표준가구 마켓 바스켓에서 4인가구 외식비용이 32,000원이므로, 한부모가구의 가구규모를 감안하면 외식비 단가는 24,000원이고, 배달식비는 2010년 단가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단가를 산출하였다.¹²⁴⁾ 여기에 추가된 외식비 및 배달식비에 상응하는 가정식비용을 계산하면 남성 한부모가구의 경우 월 10,246원, 여성 한부모가구의 경우 월 9,457원이 절감된다. 이렇게 최종 산출된 남성 한부모가구의 식료품비 추가비용은 46,190원, 여성 한부모가구는 46,979원이다.

피복신발비는 남성 한부모가구와 여성 한부모가구가 다소 달리 산정된다. 이는 최저생계비 표준가구에서 여성 성인의 역할을 전업주부로 가정하고 있는 데 비해, 여성 한부모가구의 가구주는 경제활동을 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 한부모가구의 가구주에 대한 외출복에 대한 실태 및 추가 욕구를 고려하여 계절별 숙녀복과 구두, 스타킹이 추가되었다. 세탁료와 의복 및 구두 수선비는 여성 한부모가구주 뿐 아니라 남성 한부모가구 모두에 추가되었으며, 모든 품목의 내구연수 및 단가는 일반가구 최저생계비 세부비목에 준하여 산정되었다. 최종 산출된 남성 한부모가구의 피복신발비 추가비용은 1,421원, 여성 한부모가구는 4,741원이다.

실태조사 결과 보육 및 교육비와 관련하여 한부모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출에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한부모가구 가구주가 근로를 한다고 가정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방과후 아동을 보호하고 지도할 절대적인 시간 및 노력이 부족할 수 있다. 이에 10세 아동에 대해서는 방과후학교 비용(월 34,627원)을, 12세 아동에 대해서는 보습학원 비용(130,375원)을 추가비용으로 설정하였다. 반면, 표준가구 마켓 바스켓에서 12세 아동의 가정학습지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보습학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17,250원을 절감액으로 산정하였다. 추가된 방과후교실 및 보습학원 비용은 2010년 단가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값으로, 최종 교육비는 월 147,752원의 추가비용이 산출되었다.

124) 2010년 배달식비의 단가는 가격월보 상의 '자장면 2그릇+탕수육 1개'에 해당하는 단가에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값으로 21,769원 수준이다.

〈표 7-3-13〉 한부모가구 최저생계비 추가비용(3인 가구 기준, 연구진안)

종분류/품목	가구주 성별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남성 한부모가구	여성 한부모가구
합계					236,806원	240,915원
식료품비						
외식비		3월	24,000원	1회	8,000원	8,000원
배달식비		1월	24,218원	2회	48,436원	48,436원
가정식비용 절감분	남성	3월	4,391원	-7회	-10,246원	
	여성	3월	4,053원	-7회		-9,457원
소계					46,190원	46,979원
피복신발비						
숙녀복(동)	여성	10년	96,660원	1회		806원
숙녀복(춘추)	여성	10년	75,180원	1회		627원
구두(여성용)	여성	2년	22,540원	1회		939원
스타킹(팬티)	여성	3월	1,645원	1개		548원
스타킹(판타롱)	여성	2월	799원	1개		400원
세탁료		1년	6,258원	2회	1,043원	1,043원
수선비(의복)		1년	3,129원	1회	261원	261원
수선비(구두)		3년	4,224원	1회	117원	117원
소계					1,421원	4,741원
가구집기가사용품비						
보조키		8.42년	86,538원	1회	856원	856원
소계					856원	856원
교육비						
방과후학교(10세)		1월	34,627원	1회	34,627원	34,627원
보습학원(11세)		1월	130,375원	1회	130,375원	130,375원
가정학습지 절감분(11세)		1년	34,500원	-6회	-17,250원	-17,250원
소계					147,752원	147,752원
교통통신비						
택시요금		1월	5,342원	1회	5,342원	5,342원
휴대폰요금		1월	10,692원	1대	10,692원	10,692원
휴대폰(자녀)		1월	24,553원	1대	24,553원	24,553원
소계					40,587원	40,587원

근로하는 한부모가구 가구주가 두 명의 아동을 보호 및 양육하는 데에 따른 어려움을 일부 보완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택시요금과 휴대폰 요금 지원, 그리고 자녀의 휴대폰이 교통통신비에 추가되었다. 실태조사 결과 한부모가구에 비해 일반가구의 교통 관련 비용이 높게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통에 대한 전체가구의 욕구를 한

부모가구에서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대적 욕구를 월 1회 택시 추가 이용(5,342원)으로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비상 및 응급 시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또한 가구원의 안전 확보 및 확인에 대한 한부모가구의 욕구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근로하는 가구주가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녀 한 명에게 휴대폰을 지급(24,553원)하고, 매일 1회의 통화를 할 수 있도록 가구주의 휴대폰 요금을 지원하는 비용(10,692원)을 추가하였다. 각각의 단가 및 사용량은 표준가구 마켓 바스켓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최종 산출된 교통통신비 추가비용은 40,587원이다.

마지막으로, 한부모가구의 보안과 방법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가구집기비에 보조키를 추가하였다. 내구연수 및 단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되었으며, 월 856원의 추가비용이 산출되었다.

이 중 피복신발비의 스타킹(여성 한부모가구)과 교통통신비의 자녀 휴대폰은 실태조사 및 가계동향조사의 분석결과 및 한부모가구가 응답한 표출된 욕구를 바탕으로 하여 신규품목으로 추가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가와 내구연수는 표준가구의 마켓 바스켓을 기준으로 산출되었다.

〈표 7-3-14〉 한부모가구 추가비용 신규품목

구분	변경 내용	변경 이유	마켓 바스켓 반영
피복신발비	스타킹(팬티)	여성 가구주의 경제활동에 대한 추가 필요품목	2013년 최저생계비 마켓 바스켓(중생보의결안) 스타킹 단가 및 내구연수 적용
	스타킹(판타롱)		
교통통신비	휴대폰(자녀)	미성년자녀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	2013년 최저생계비 마켓 바스켓(중생보의결안) 교통통신비 중 휴대폰전화요금 소계(24,553원) 적용

한부모가구의 추가비용은 장애인가구나 노인가구와 달리 가구단위로 계측되어야 함은 한부모가구 추가비용 접근원칙에서 기 언급한 바와 같다. 이에 피복신발비, 가구집기비, 교통통신비의 가구원수 증감과 무관한 비목은 제외하고, 식료품비와 교육비는 일반가구에 적용되는 가구균등화지수를 활용하여 가구규모에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3인가구를 기준으로 하여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한 가구규모별 한부모가구 추가비용은 다음과 같다.

〈표 7-3-15〉 가구규모별 한부모가구 추가비용(여성 한부모가구의 경우, 연구진안 기준)

(단위: 원)

가구규모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균등화지수	0.773	1	1.227	1.454
균등화 적용비용	150,527	194,731	238,935	283,139
고정비용	46,184	46,184	46,184	46,184
한부모가구 추가비용	196,711	240,915	285,119	329,323

5. 한부모가구 추가비용의 정책적 활용

한부모가구 추가비용은 궁극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정책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산정된 값이다. 따라서 대상 선정과 급여 수준 결정 과정에서 쓰일 수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선으로 하여 수급자의 선정과 급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부모가구 추가비용은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다.

우선 어떤 한부모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 소득인정액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한부모가구 추가비용을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일 것이다. 먼저 소득인정액보다 높아야 하는 최저생계비에 추가비용을 더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제도 형평성의 관점에서 한부모 뿐 아니라 다른 가구유형별로 독특한 선정기준을 산정하게 되므로 행정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한부모가구의 소득인정액에서 추가비용을 공제한 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단, 이때 추가비용을 일괄공제하느냐 실비지출액을 공제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추가비용보다 낮은 한부모가구와 수급자가 되기 이전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방과후학교나 보습학원에 보내지 못한 한부모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한부모가구 최저생계비 = 일반가구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 한부모가구 추가비용

- 원칙: 한부모가구 최저생계비 대 소득인정액
- 대안: 일반가구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대 (소득인정액 - 한부모가구 추가비용)

한부모가구 추가비용을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한부모가구 추가비용을 크게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급자 자녀에 대해 방과후학교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비는 현물급여로 처리하고, 나머지 비목에 대해서는 현금급여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산출한 한

부모가구 추가 현금급여기준선은 여성한부모가구의 경우 206,288원, 남성 한부모가구의 경우 202,179원이다. 한부모가구 추가비용에서 현물급여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추가 현금급여로서 일반가구의 현금급여기준선에 더해져 최종 급여수준을 산정할 수 있다.

〈표 7-3-16〉 한부모가구의 추가 현금급여(3인 가구 기준)

추가 현금급여	=	추가비용	-	현물 및 타지원액(제외 품목)
◦여성 한부모가구: 206,288원 ◦남성 한부모가구: 202,179원		◦여성 한부모가구: 240,915원 ◦남성 한부모가구: 236,806원		◦방과후 학교(34,627원)

제4절 에너지 추가비용

최근 들어 에너지가격의 변동성 증대로 인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 등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향후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지원방안을 검토하기 이전에 주요국 상황, 우리나라 에너지 빈곤가구들의 규모와 수준, 만약에 지원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추가비용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먼저 주요국인 영국, 미국 및 일본의 에너지 지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영국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오고 있다(이현주 외, 2012). 즉 영국은 2000년 ‘주택난방 및 에너지절약법(Warm Homes and Energy Conservation Act 2000)’을 통해 에너지 지원을 약속한 바가 있지만 현재는 동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가차원에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영국의 난방비 지원에 있어 소득지원 측면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먼저 난방비 감면제도(Warm Home Discount Scheme)로 2010~2015년까지 운영되는 한시적 제도이다. 동 지원제도는 80세 이상 고령 빈곤층을 대상으로 연간 약 2백만 가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기금을 활용하여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두 번째 제도는 동

계연료비 지원(Winter Fuel Payment)으로 2007~2008년에는 60세 이상 노인 중 1,200만 명에게 연료비를 지원했으며, 2008~2009년에는 지원금액을 상향함으로써 에너지 빈곤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혹한기 연료비 지원(Cold Weather Payment)으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경우(겨울철 7일 연속 평균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 빈곤한 연금생활자와 취약가구에 긴급하게 연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5년간 약 50만 명이 지원을 받았다.

미국의 경우에는 지난 70년대 석유파동을 계기로 에너지지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후 저소득층 에너지지원 프로그램으로서 미국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저소득가정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LIHEAP)'을 운영하고 있다. 동 제도는 1981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연방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빈곤가이드라인의 150% 혹은 주 소득 중앙치의 60% 이하의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최소한 구성원중 아동, 장애인 또는 연약한 노인이 있을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주정부에서 지역기후와 예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매년 저소득가구 약 5백만 가구가 동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가구당 약 305달러(2007) 수준이며, 지원금 수준은 다소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에너지 지원제도를 통해 보면 동 제도들이 오랜기간에 걸쳐 운영되고 있다는 점과 기존 복지제도들과 별도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지원대상에서도 전체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계절적 요인을 반영하여 겨울철인 동절기에 한시적으로 운영 되는 경우가 있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기 위해 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실태를 확인해 보았다.

에너지 빈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에너지 과부담가구에 대한 정의는 “적절한 수준의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 가구소득의 10% 이상을 냉난방비로 사용하는 가구”를 에너지 과부담가구 또는 에너지 빈곤가구로 정의하고 있다(이현주 외, 2012). 이를 토대로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에너지 과부담가구들의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면 먼저 전가구기준으로 에너지 과부담 가구를 보면 경상소득대비 10% 이상 광열수도비로 지출하고 있는 가구는 전국적으로

13.7%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의 구성비율을 보면 중소도시가 가장 많은 비율인 47.8%를 점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대도시 34.9%, 농어촌 17.2%의 순서였다. 최저생계비 계층을 위한 표준가구인 4인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10% 기준 에너지 과부담가구는 전국적으로 1.2%로 전가구에 비해서는 낮게 분석되고 있다.

〈표 7-4-1〉 에너지 과부담가구 비율(2011)

(단위: %)

구분	전가구		4인가구	
	경상소득 대비 해당비용일 10% 이상인 가구	경상소득 대비 해당비용일 20% 이상인 가구	경상소득 대비 해당비용일 10% 이상인 가구	경상소득 대비 해당비용일 20% 이상인 가구
광열수도비	13.7	2.6	1.2	0.3
대도시	34.9	27.0	37.0	50.6
중소도시	47.8	54.5	54.8	39.1
농어촌	17.2	18.5	8.2	10.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전가구 기준으로 10% 이상 광열수도비에 지출하고 있는 과부담가구들의 주거 점유 형태를 살펴보면 52.9%가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보증부월세 및 월세 포함이 18.2%, 전세가 12.9%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의 자가 비율이 68.8%로 가장 높았으며, 중소도시는 53.8%, 대도시는 43.9%로 분석되었다. 과부담기준을 20%로 상향해도 자가에 거주하는 비율이 과반수를 점유하고 있으며 대도시만이 자가 비율이 42.0%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에너지 과부담가구의 대부분이 자가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7-4-2〉 주거점유 형태별 에너지 과부담가구 비율(전가구, 2011)

(단위: %)

구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 (사글세)	기타	합계
과부담 10%	52.9	12.9	15.2	3.0	16.0	100.0
대도시	43.9	19.8	21.2	2.5	12.7	100.0
중소도시	53.8	12.0	14.9	3.1	16.2	100.0
농어촌	68.8	1.2	3.9	3.8	22.3	100.0
과부담 20%	49.2	17.8	9.7	2.7	20.6	100.0
대도시	42.0	26.5	17.0	2.1	12.3	100.0
중소도시	50.3	19.1	9.0	2.8	18.8	100.0
농어촌	56.5	1.2	1.3	3.1	37.9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표준가구인 4인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에너지 과부담기준을 10%로 하면 농어촌의 자가 73.8%, 중소도시 68.8%로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의 에너지 부담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도시의 경우에는 자가 41.7%로 높았지만 보증부월세 역시 26.7%로 중소도시의 23.5%와 함께 높은 에너지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과부담 비율을 20%로 상향조정시에는 대都市는 오히려 자가보다는 전세와 보증부월세의 에너지 과부담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농어촌은 자가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표 7-4-3〉 주거점유 형태별 에너지 과부담가구 비율(4인가구, 2011)

(단위: %)

구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 (사글세)	기타	합계
과부담 10%	59.2	10.7	22.8	1.2	6.1	100.0
대도시	41.7	17.6	26.7	0.0	14.0	100.0
중소도시	68.8	7.7	23.5	0.0	0.0	100.0
농어촌	73.8	0.0	0.0	14.7	11.4	100.0
과부담 20%	41.8	20.7	37.5	0.0	0.0	100.0
대도시	21.9	28.9	49.2	0.0	0.0	100.0
중소도시	52.2	15.5	32.2	0.0	0.0	100.0
농어촌	100.0	0.0	0.0	0.0	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에너지 과부담가구에 대해 세부적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분석해 보면 전가구 또는 4인가구에 비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부담이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에서 보듯이 먼저 노인가구의 경우 에너지로 소득의 10%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가구는 66.6%로 세 가구 중 두 가구가 높은 에너지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노인단독으로 보면 과부담율이 40.3%로 다소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농어촌 노인가구의 77.4%, 중소도시는 65.5%가 에너지에 많은 부담을 지고 있으며, 노인단독가구의 경우에도 농어촌 노인단독가구 두 가구중 한 가구는 에너지지출에 많은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취약계층인 장애인가구의 경우 에너지를 10% 이상 부담하고 있는 가구는

21.0%로 노인가구에 비해서는 낮았지만, 비장애인을 포함한 전가구기준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구의 49.5%가 높은 에너지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다음은 대도시 21.7%의 순이었다. 반면에 한부모가구의 경우에는 과부담이 10%를 넘어가는 가구는 1.9%로 다른 가구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취약계층을 기준으로 보면 우선적으로 에너지 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대상은 노인과 장애인임을 알 수 있다. 두 취약계층은 모두 노령과 장애로 인해 보건의료비에 의한 비용도 많이 부담하고 있다는 것으로 고려할 경우,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증가는 이들 가구들의 생활의 질을 낮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표 7-4-4〉 취약계층별 에너지 과부담가구 비율(2011)

(단위: %)

구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노인단독		
과부담 10%	66.6	40.3	21.0	1.9
대도시	62.8	37.4	21.7	2.1
중소도시	65.5	39.8	49.5	53.1
농어촌	77.4	47.2	19.3	0.2
과부담 20%	66.4	48.0	16.4	1.6
대도시	54.6	33.1	15.9	3.1
중소도시	69.1	50.4	16.4	1.4
농어촌	75.9	62.7	17.1	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구체적으로 각 가구들의 광열수도비에 지출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를 소득분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먼저 전가구 기준으로 소득 1분위는 약 월 98천원을 소득 2분위는 122천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소득 분위가 증가할수록 광열수도비가 늘어나 최고소득계층인 소득 5분위는 월평균 약 188천원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1분위와 소득 5분위를 비교시 약 2배 이상 광열수도비용이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 및 농어촌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가구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모든 분위에서 높은 광열수도비를 부담하고 있다.

〈표 7-4-5〉 소득분위별 광열수도비(전가구, 2011)

(단위: 원/월)

구분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소득 5분위	평균
전 가 구	97,835	122,122	133,366	138,492	187,561	135,872
대 도 시	88,704	116,102	127,262	135,697	160,949	127,150
중소도시	102,774	126,172	137,002	140,906	221,140	145,358
농 어 촌	109,774	131,858	151,207	138,027	151,074	129,678

주: 소득분위는 균등화된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표준가구인 4인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전가구 기준에 비해 광열수도비의 금액이 약 5만원 정도 높아지고 있지만 지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이를 통해 보면 광열수도비에 대한 부담은 지역적인 영향보다는 가구원수와 소득수준 및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7-4-6〉 소득분위별 광열수도비(4인가구, 2011)

(단위: 원/월)

구분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소득 5분위	평균
전 가 구	148,725	163,710	178,488	188,868	208,745	154,130
대 도 시	146,408	159,845	171,305	183,891	221,562	151,978
중소도시	150,262	168,553	187,675	195,995	192,013	156,081
농 어 촌	157,348	144,094	148,323	123,525	200,317	156,126

주: 소득분위는 균등화된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에너지 과부담 가구만을 대상으로 월평균 광열수도비의 지출금액을 보면 전가구 기준으로 과부담 10% 이상 가구는 월평균 167천원, 과부담 20% 이상 가구는 약 360천원을 부담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의 과부담가구가 220천원으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농어촌이 133천원, 대도시 111천원으로 순으로 조사되었다. 과부담가구를 제외한 가구들과 비교시 전가구기준으로 131천원을 지출하고 있어 전가구기준으로 과부담가구와 비과부담가구의 금액차이는 36천원 정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준가구인 4인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과부담이 10% 이상인 경우 전가구기준으로 월평균 183천원, 지역별로는 중소도시가 205천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과부담

가구를 제외한 가구의 월평균 광열수도비는 약 154천원으로 과부담가구와의 차이는 월평균 약 30천원 정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동 비용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광열수도비 중 난방 및 취사비용인 67,768원의 절반 정도 수준이다.

〈표 7-4-7〉 에너지 과부담가구 광열수도비(2011)

(단위: 원/월)

구분	전가구			4인가구		
	과부담 10%	과부담 20%	과부담제외 가구 평균	과부담 10%	과부담 20%	과부담제외 가구 평균
전 가구	167,240	359,977	130,892	183,312	145,001	153,765
대 도시	111,361	121,112	129,001	154,145	121,852	151,957
중소도시	220,210	551,676	133,185	204,614	164,920	155,397
농 어 촌	133,468	143,359	127,948	172,630	183,236	155,64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표준 4인가구 중 하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심층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월평균 난방비용은 약 78천원 정도였으며 중소도시가 85천원, 농어촌 약 80천원의 순이었으며 대도시가 69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난방비용을 고려하면 전국적으로 겨울철 난방비용은 약 154천원, 겨울이 아닌 기간 난방비용은 38천원으로 겨울철과 겨울철이 아닌 기간 간에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와 농어촌에 거주하는 가구들의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7-4-8〉 4인가구 저소득층 난방비용(2011)

(단위: 원/월)

구분	월평균난방비용	겨울철 월평균 난방비용	겨울이 아닌 기간 월평균 난방비용
전체	77,985	153,630	38,308
대도시	69,404	141,180	33,171
중소도시	85,210	162,237	43,632
농어촌	79,623	166,216	33,85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4인가구 심층조사』 원자료.

해외사례와 우리나라 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에너지 빈곤가구들의 규모와 이들 가구

에 대한 추가비용이 필요할 것인지를 보면, 일정수준에서 추가비용이 에너지에 대한 추가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에너지에 대한 지원비용이 연중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동절기에 한해 우선 지원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표 7-4-7)를 통해 보면 에너지에 대한 추가비용은 전국적인 평균과 저소득가구의 부담수준을 비교시 약 월 30천원~36천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동 비용을 겨울철 즉 동절기로 한정하여 보면 약 60천원~72천원 정도로 추정된다. 동 금액은 실제 조사에서 나타난 겨울철과 비겨울철과 비교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겨울철의 날씨와 가구원수 및 지역 등을 고려하면 적정 수준으로 추정된다. 동 추가금액은 순수히 실태조사를 통해 분석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는 최저생계비의 국민생활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추정한 것으로 향후 에너지 추가비용과 관련된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전국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추가비용의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에 대한 추가비용이 있으며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대상자를 선택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의 사례와 가구내 부담수준 및 정부 재정안정성,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경우 먼저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동절기에 한해 에너지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실태에서도 다른 가구들에 비해 노인 및 장애인가구들의 에너지에 대한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 가능성을 고려할 시 우선 타당한 방안으로 보인다.



제3부 상대적 방식 및 기타 방식의 최저생계비 계측(연구진안)



제8장 2013년 상대적 방식 최저생계비

제1절 상대적 방식의 개념 및 도입배경

제2절 상대적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제1절 상대적 방식의 개념 및 도입배경

1. 상대적 방식의 개념

상대적 방식 최저생계비는 절대 빈곤선 개념에 대한 비판 및 빈곤의 상대성에 대한 강조에의 요구에 의해 대두된 상대적 빈곤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배경을 살펴보면, 우선 전물량 방식, 또는 라운트리 방식이나 기본욕구 접근법, 예산기준방식 등으로 대표되는 절대적 빈곤 개념이 시대 및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최저생계수준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절대 빈곤선 개념에 대한 비판에서 상대적 방식이 비롯되었다. 최저생존수준은 ‘누가’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의적이다. 따라서 빈곤의 개념은 육체적 생존에 필요한 최저한의 욕구가 충족되고 있느냐의 여부와 함께 개인이 생활하고 있는 사회의 전반적인 통념에 의해 받아들여질 만한 수준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절대적 빈곤 개념은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수준 뿐 아니라 빈곤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상대적인 위치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또한 빈곤의 상대성에 대해 강조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타운젠트(Townsend)는 절대적 빈곤의 개념을 비판하고 빈곤 개념이 상대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는데, 1962년에 발간한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인간은 로빈슨 크루소(Robinson Crusoe)가 아니라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빈곤을 정태적인 개념이 아니라 동태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외에도 상대적 박탈 개념에 대한 주장은 미국 군인들의 생활행태를 연구한 스토우퍼의 연구(Stouffer, et al., 1949: 김미곤, 2011에서 재인용), 그리고 상대적 박탈과 정의를 다루고 있는 런시먼(Runsiman, 1996; 김미곤, 2011에서 재인용)의 연구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대적 빈곤은 기본 욕구조차도 사람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는데, 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사회규범과 경제적 조건을 반영함으로써 특정한 장소와 특정 시점에서만 대답될 수 있다는 데에 착안하고 있다.

공동체 인식을 반영하는 빈곤 개념 또한 상대적인데, 이는 그러한 인식들이 사람들간의 사회규범과 태도를 체현하기 때문이다. 이에 타운젠트는 ‘절대적 욕구(absolute needs)’라는 개념을 ‘필요의 사회적 결정(social determination of needs)’이라는 개념으로 대체하고자 하였다.

상대적 빈곤선은 상대적 비율방식과 박탈지표방식이라는 두 가지 접근방식에 의해 그 개념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상대적 비율방식에 따라 상대적 빈곤이란 그 사회의 평균소득 혹은 지출수준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을 빈곤층으로 정의할 수 있다. 박탈지표방식(또는 생활양식 접근법)의 관점에서 보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생활필수품 또는 활동이 결핍된 정도를 통해 빈곤을 판단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주로 상대적 비율방식에 근거하여 상대적 방식 최저생계비를 보고자 한다.

2. 상대적 방식 최저생계비의 도입배경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의 공식적 최저생계비 계측 이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 계측연도를 기준으로 2004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와 기초생활보장전문위원회 합동토론회에서 일부 위원들이 ‘상대적 방식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고, ‘통계청 자료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상대빈곤선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2007년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제28차(2007.8.14.) 및 제29차(2007.8.22.) 회의에서는 이후 계측연도인 2010년에 상대적 방식의 대안을 도입하기 위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한 바 있다. 제3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09.8.19.)에서는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시 전물량방식과 상대적 방식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결의하였다.

제2절 상대적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1. 상대적 방식 최저생계비의 기본모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는 상대적 비율방식에 의하여 상대빈곤선을 파

악할 것이다. 최저생계비에서 가정하고 있는 4인 표준가구의 상대빈곤선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모형은 다음과 같다. 기준연도 4인가구 최저생계비는 당해연도 4인가구의 소득 또는 지출의 추정치 또는 과거 몇 년간의 실적치에 대한 상대적 비율 α 를 적용한 값이다.

상대적 빈곤선에서 상대적 비율(α) 및 기준지표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먼저, 상대적 비율 α 가 몇 %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이는 사실상 논란의 여지가 분분하다. 하지만 상대적 비율 α 를 국제기준에 따라 중위소득의 50% 지점 등으로 결정하는 것 또한 규범적 및 실증적 문제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 비율 α 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야 한다. 또한 기준지표를 어떤 것으로 정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즉, 사회적 합의에 근거하여 상대적 비율 α 를 적용할 사용자료, 대푯값, 대표 가구규모, 기준시점, 그리고 데이터의 생산기관 및 통계명을 선택해야 한다.

$$\bullet \quad PL_{4t} = Y_{4t} \times \alpha$$

PL_{4t} : 기준연도 4인가구 최저생계비

Y_{4t} : 기준연도 4인가구의 소득(또는 지출)의 추정치 또는 과거 몇 년간의 실적치

α : 상대적 비율

2. 상대적 비율

만약 1999, 2004, 2007, 2010년 최저생계비와 각종 지표의 비율이 일정하다면 동 비율을 바로 상대적 비율 α 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에 대한 소득 및 지출의 각종 지표가 보이는 상대적 비율은 일정하지 못하고, 하향 추세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최저생계비는 저소득층이 소비하는 품목, 사용량, 내구연수, 물가 등의 변화에 의해 변화한다. 일반적으로 최저생계비는 순수 절대빈곤 개념에 의한 변화 폭, 즉 기준

연도 최저생계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한 추정 최저생계비 이상이고, 순수 상대 빈곤 개념에 의한 변화 폭, 즉 기준지표와 유지하는 일정 비율 이하이다.

〈표 8-2-1〉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비율 - 평균중위소득 및 평균중위가계지출(4인, 전가구)

(단위: 원, %)

구분	최저생계비			평균소득(경상)			중위소득(경상)			평균가계지출			중위가계지출		
	금액	상승률 ¹⁾		금액	상승률 ¹⁾	비율 ²⁾	금액	상승률 ¹⁾	비율 ²⁾	금액	상승률 ¹⁾	비율 ²⁾	금액	상승률 ¹⁾	비율 ²⁾
2003	1,019,411	3.0		2,862,612		35.6	2,631,363		38.7	2,400,767		42.5	2,218,466		46.0
2004	1,055,090	3.5		3,065,831	7.1	34.4	2,791,565	6.1	37.8	2,592,017	8.0	40.7	2,386,858	7.6	44.2
2004 (계측치)	1,103,235	8.2		3,065,831		36.0	2,791,565		39.5	2,592,017		42.6	2,386,858		46.2
2005	1,136,332	7.7		3,195,676	4.2	35.6	2,952,347	5.8	38.5	2,724,805	5.1	41.7	2,457,922	3.0	46.2
2006	1,170,422	3.0		3,373,814	5.6	34.7	3,094,784	4.8	37.8	2,878,950	5.7	40.7	2,618,060	6.5	44.7
2007	1,205,535	3.0		3,588,392	6.4	33.6	3,258,613	5.3	37.0	2,998,979	4.2	40.2	2,708,116	3.4	44.5
2007 (계측치)	1,232,569	5.3		3,588,392		34.3	3,258,613		37.8	2,998,979		41.1	2,708,116		45.5
2008	1,265,848	5.0		3,790,649	5.6	33.4	3,384,660	3.9	37.4	3,143,448	4.8	40.3	2,843,846	5.0	44.5
2009	1,326,609	4.8		3,821,177	0.8	34.7	3,470,821	2.5	38.2	3,233,410	2.9	41.0	2,905,632	2.2	45.7
2010	1,363,091	2.8		4,063,655	6.3	33.5	3,642,479	4.9	37.4	3,498,703	8.2	39.0	3,191,433	9.8	42.7
2010 (계측치)	1,397,488	5.3		4,063,655		34.4	3,642,479		38.4	3,498,703		39.9	3,191,433		43.8
2011	1,439,413	5.6		4,362,186	7.3	33.0	3,970,318	9.0	36.3	3,672,638	5.0	39.2	3,440,568	7.8	41.8
2012	1,495,550	3.9		4,613,757	5.8	32.4	4,201,564	5.8	35.6	3,780,586	2.9	39.6	3,477,030	1.1	43.0

주: 1) 지표별 전년대비 상승률

2) 지표별 대비 최저생계비 비율

자료: 김미곤·여유진 외(2010), 통계청(각년도) 가계동향조사(각년도) 원자료

1999년부터 2010년간의 최저생계비 변화는 물가상승률보다 높으나, 1999년의 수준은 유지되지 않고 그 이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의 빈곤관이 순수 절대도 순수 상대도 아니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2007년 계측된 최저생계비는 1,232,569원인데, 만약 1999년 최저생계비에 중위소득비율 45.5%의 순수 빈곤선 개념을 적용하면 2007년 최저생계비는 약 1,568,236원이 되지만 소비자물가상승률만을 적용하면 1,188,029원이 된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빈곤관은 절대적 빈곤관에 보다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역으로 상대 빈곤선 도입의 필요성을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상대 빈곤선 도입의 주요 목적은 상대빈곤의 문제를 축소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는데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최저생계비와 각종 지표

와의 비율 중 높은 비율을 상대적 비율 α 로 적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최저생계비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최저생계비 수준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2010년 최저생계비와 각종 지표와의 비율을 고려하여 상대적 비율 α 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기준지표

가. 기준지표의 범주 및 대안

상대적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료, 대푯값, 대표 가구규모, 기준시점, 데이터의 생산기관 및 통계명이라는 5가지 측면의 기준지표를 결정해야 한다. 우선 사용자료를 살펴보면, 주요 기관 및 연구자는 대부분 소득을 상대빈곤선에 적용하고 있으나, 일본은 지출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등의 국가에서는 최저생계비 조정에 있어 최저임금 또는 총임금의 변화분을 사용하기도 한다. 총임금은 기본적으로 소득과 동일한 차원이라는 점에서 논외로 하여도 무방하고, 최저임금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지만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협상 결과라는 점에서 그 수준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준지표는 소득과 지출 중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우선 지출을 사용할 경우, 가계지출과 소비지출 중 어느 지표를 사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고, 아울러 주거비를 제외한 지출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주거비 포함여부는 상대빈곤선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장기적으로 자가 보유율이 높아지므로 통계청 자료의 주거비가 낮아질 수 있다. 통계청 가계조사의 경우 주거비는 유량(flow)만 파악하고 있는 반면 최저생계비는 저장(stock)을 유량화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기준지표가 소득이나 지출 중 하나로 결정되면, 이를 기반으로 하여 기준지표에 대한 대푯값, 대표 가구규모, 기준시점, 데이터 생산기관 및 통계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푯값은 평균값, 중위값, 최빈값이나, 범위가 넓은 연속변수의 경우 최빈값은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대푯값은 평균값과 중위값 중에서 선택되어야 한다. OECD와 EU에서는 중위값을, 세계은행은 평균값을 사용하고 있다. 대표 가구규모와 관련해서는, 가구규모별 대푯값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안과 대표가구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후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는 방안이 있다. 가구규모별 대푯값의 경우 가구규모간 안정성 및 일관성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4인가구를 대표가구로 할 경우 학생이 있는 가구에서 (사)교육비 증가분이 최저생계비에 과대 계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준시점과 관련해서는 추정치와 실적치의 대안이 있다. 최저생계비 계측연도의 경우 실적치를 구할 수 없으므로 계측연도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정치를 사용해야 한다. 반면, 실적치를 사용할 경우 어떤 기준의 몇 년간의 자료를 사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전국 통계치 중 어느 것으로 이용할 것인지 데이터의 생산기관 및 통계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나. 기준지표(안)

앞서 언급한 기준지표와 관련하여 논의해야 하는 다섯 가지 차원별 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용자료와 관련해서는 지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선 최저생계비는 비목별 최저 지출의 합계이고, 둘째,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일반가구의 저축수준이 최저생계비에 영향을 미치며, 셋째, 일반적으로 소득보다는 지출이 안정적이다(김미곤 외, 2006: 175). 가계지출과 소비지출 중에서는 최저생계비의 구성이 소비지출과 세금 및 사회보장분담금 등의 비소비지출의 합계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가계지출이 바람직한 부분이 있으며, 대푯값은 중위값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평균값은 극단적인 값(outlier)의 영향을 받는다. 또한 현실적인 측면에서 주기적인 표본 대체과정에서 중위값이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받는다.

기준시점은 적용연도 추정치를 활용하되, 추정을 위한 조정방식은 최저생계비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과거 3~5년간의 실적치 평균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생산기관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기관에서 전국 통계치를 생산하고 있지만, 가장 신뢰성이 높은 통계청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9장 2013년 기타 방식 최저생계비

제1절 반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제2절 주관적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제1절 반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¹²⁵⁾

1. 반물량 방식의 의미

반물량 방식은 전물량방식이 기준이 되는 전체 비목을 대상으로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것과 달리, 이론적으로 산출한 최저 식료품비에 잉겔계수의 역수를 곱하여 최저생계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동 방식은 미국의 Mollie Orshansky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 1963년 Social Security Bulletin에 빈곤 측정에 관한 논문을 통해 알려졌다. 반물량방식은 최소한의 식료품에 해당되는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최저식료품비¹²⁶⁾를 산정한 후 계산된 측정치에 3을 곱하여 최저생계비를 산출하고 있다¹²⁷⁾. 오샨스키에 의한 반물량방식의 빈곤선은 이후 1965년 Johnson 정부가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빈곤에 대한 미국의 실질적이고 공식적인 측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 동 방식은 미국의 공식적인 빈곤기준선(Poverty Threshold, PT)으로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다.

미국은 오샨스키 방식을 통한 빈곤선을 1969년부터 미국의 통계청(Census of Bureau)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CPI-U)을 반영하여 매년 10월에 발표하고 있으며, 동 자료는 미국의 빈곤율 측정과 빈곤층 추이 파악 등의 통계적 목적으로 주로 활용 되고 있다.

125) 본 장에서 다루고 있는 반물량방식 및 주관적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이론적 배경은 최저생계비에 대한 선행연구를 다시 정리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여유진·김미곤 외, 2007; 김미곤·여유진 외, 2010)

126) 최저생계식비안(Economy Food Plan)은 농무부에서 비상시 또는 예상치 못한 식량 부족 사태에 대비하여 영양학자들이 제안한 식단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값으로서, 한 개인이 최소한으로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계산한 것이다. 이것은 당시 영양학자들이 제안한 네 가지 수준의 식단안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것이다. 1993년 Orshansky에 의하면,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적인 식품계획을 택한 이유는 정부 및 보수적인 측면에서 ‘너무 관대한 빈곤선’이라는 비난과 공격을 피하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하였다.

127) 승수로써 ‘3’을 곱하는 이유는 1955년 미국의 농업부가 수행한 가계식료품소비조사(Household Food Consumption Survey)에서 미국의 평균가구가 세후소득의 약 30%를 식료품에 지출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그러나 ‘3’이란 승수는 1950년대의 조사를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1990년대 들어 미국 평균가구가 식료품지출에 약 1/7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참조, I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 1998: 2).

식료품비의 역수를 활용하는 반물량방식은 전물량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만들어진 것으로 전물량방식에 의한 복잡성과 연구자의 자의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전물량방식이 생활에 필요한 전 품목에 해당되는 마켓 바스켓으로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반면에 반물량 방식은 객관적으로 산출이 가능한 식료품비를 중심으로 최저생계비를 추정한다. 두번째로 반물량 방식의 경우 최저생계비를 구성하고 있는 11개 비목 중 10개 비목에 대한 마켓 바스켓을 작성하지 않아도 최저생계비 산출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10개 비목에 해당되는 마켓 바스켓 구성 시 연구자의 자의성은 없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이미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절대적 방식에서 상대적 방식으로 최저생계비 계측이 변경될 경우, 급격한 측정방식의 변경보다는 중간단계로서 반물량방식을 통한 최저생계비 계측을 제안한 바가 있다(김미곤 외, 2006).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2가지 모형을 적용하여 최저생계비를 추정하였다.

- Orshansky 모형
- 식료품비 비율적용 모형(Food-ratio Method)

2. 반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계측

가. Orshansky 모형

반물량 방식은 전물량방식의 식료품비 계측과 같이 객관적인 자료 확보를 위해 영양학자들이 제시하는 영양권장량을 바탕으로 최저식료품비를 이론적으로 산출한 후 엔겔계수(저소득층 평균소득-엔겔계수)의 역수를 곱하여 최저생계비를 산출하게 된다. 반물량방식 최저생계비 측정은 저소득층 평균소득-식료품비 비율은 소득분위를 구분한 후 분위의 평균적인 비율을 적용하거나, 이론적으로 산출하거나, 전기 계측연도의 최저생계비 대비 식료품비 비율을 사용 할 수 있다. Orshansky 모형에 의한 최저생계비 추정모형¹²⁸⁾은 다음과 같다.

128) 기본모형에 의한 최저생계비 산출은 2013년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2013년 연간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 2013년 자료는 ARIMA 등으로 추정할 수도 있으나, 추정치의 불안정성을 피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2011년 실측치 비율을 적용하였다. 실측치 비율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거 3년(2010~2012) 또는 과거 2년(2011~2012) 등의 실측치 비율 적용도 가능하다.

- 2013년 최저생계비 = 2013년 최저식료품비 × 2012년 식료품비 비율의 역수(Y/Cf)
단, Y는 경상소득, Cf는 식료품비임.

먼저 최저식료품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3년 최저식료품비(연구진안, 4인가구 기준)를 적용하였다. 또한 2012년 식료품비 비율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기본모형에 의한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해서는 어떤 계층의 식료품비 비율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식료품비 비율을 적용한 최저생계비 추정값을 제시한다.

〈표 9-1-1〉 기본모형에 의한 2013년 최저생계비

(단위: %, 원)

구분	4인가구	4인가구	4인가구	4인가구	4인가구
	전체	하위1분위 ¹⁾	하위2분위	하위3분위	하위4분위
경상소득(Y)	5,420,625	2,152,125	3,042,442	3,622,008	4,099,975
식료품비(Cf)	1,171,369	895,229	994,458	1,027,314	1,101,632
Cf/Y	0.22	0.42	0.33	0.28	0.27
Cf/Y(%)	21.61%	41.60%	32.69%	28.36%	26.87%
2013최저식료품비 (연구진안)	608,963	608,963	608,963	608,963	608,963
2013최저생계비 (추정치)	2,818,037	1,463,943	1,863,060	2,147,025	2,266,395

주: 1) 10분위 중 1분위를 말한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2013 최저식료품비(연구진안)'

위 추정결과를 전물량방식에 의한 중소도시 전세 4인가구의 2013년 최저생계비(연구진안) 1,642,173원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하위 1분위 식료품비 비율 적용 추정치 < 전물량방식 추정치 < 하위 2분위 식료품비 비율 적용 추정치

나. 식료품비 비율적용 모형(Food-ratio Method)

식료품비 비율적용 모형은 Watt(1965)에 의해 제안되고, Deaton- Muellbauer(1980), Van Praag(1982) 등에 의해 체계화된 방법이다. 동 방식은 소득이 높을수록 식료품비의 비율이 낮아진다는 엥겔 법칙을 적용한 것으로 최저생활수준에 해당되는 엥겔 계수를 설정하고 동 계수 값을 기초로 최저생계비를 계측¹²⁹⁾하게 된다. 동 방식은 오산스키 등에 의한 반물량방식 등은 최저생계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최저식료품비를 이론적(마켓 바스켓 구성)으로 산출하여야 하나, 식료품비 비율적용 방식은 별도 최저식료품비 산출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전물량방식 등이 지니고 있는 연구자의 자의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식료품비 비율적용 모형에서 최저생계비 추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식료품비 엥겔함수: $\ln C_0 = a_0 + a_1 \times \ln y$ ①
(C_0 는 식료품비, y 는 소득)
- ① 식을 정리하면 $(\widetilde{C}_0/y) = \text{Exp} \{ \ln C_0 - \ln y \}$
 $= \text{Exp} \{ a_0 + (a_1 - 1) \ln y \}$ ②
- ② 식의 좌변에 목표 엥겔계수(r)를 넣고, 양변에 \ln 를 취하면,
 $\ln r = a_0 + (a_1 - 1) \ln Y$ ③
- ③ 식에서 목표엥겔계수(r)에 상응하는 소득이 바로 최저생계비가 된다.
 $Y = \text{Exp} \{ (a_0 - \ln r) / (1 - a_1) \}$

위 수식을 활용한 식료품비 비율 적용모형으로 2013년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 방법은 목표 엥겔계수 값의 변동유무에 따라 두 가지가 있다. 이 중 목표 엥겔계수가 변하는 방법으로 추정하는 경우 좀더 개선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목표 엥겔계수가 변한다고 가정하여 2013년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도록 한다. 식료품비 엥겔함수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2010, 2012)를 활용하여 구하였다.

129) 이러한 측면들은 상대적 방식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 동 방식을 반물량방식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은 식료품비 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 추정방법 (목표 엔겔 계수가 변하는 경우)
- ① 2010년 가계동향조사로부터 식료품비 엔겔함수를 추정한다.
 - ② ①의 추정 계수와 2010년 최저생계비를 이용하여 목표엔겔 계수(r_1)값을 산출한다.
※ 목표 엔겔계수(r_1)에 상응하는 소득순위(r_p) 추정한다(추정방법: 엔겔 계수= f (경상소득))
소득순위는 백분율로 산출한다.
 - ③ 2012년 자료를 이용하여 식료품비 엔겔함수를 추정한다.
 - ④ ③의 추정결과에 목표엔겔 계수(r_2) 투입하여 2012년 최저생계비를 산출한다.
※ (r_2)의 산출은 2012년 자료를 이용한 엔겔계수와 경상소득간의 회귀분석 추정식에 소득
순위(r_p)를 대입하여 산출한다.
 - ⑤ ④의 추정결과에 2012-2013년 증가율을 적용하여 2013년 최저생계비를 추정한다.

목표 엔겔계수가 변화한다고 가정하는 모형으로 2013년 최저생계비를 추정¹³⁰⁾한 결과 1,938,943원으로 전물량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연구진안) 1,642,173원보다 약 30만원 정도 높게 추정되었다. 이는 2010년 대비 2012년의 경상소득의 증가폭이 큰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 9-1-2〉 식료품비 비율모형(추정방법2)에 의한 2013년 최저생계비

구 분	최저생계비(원)	10년			12년		
		r_{2010}	경상소득	분위수	4.39분위 경상소득	r_{2012}	$\ln(r_{2012})$
2012년 추정치	1,738,439	35.5%	1,397,488	4.39분위	1,738,439	31.2%	-1.164
2013년 추정치	1,938,943						

주: 1) 2013년 최저생계비 추정치 = 2012년 추정치 × 2010년 최저생계비 대비 2012년 추정치 간 평균상승률¹³¹⁾
(0.1153359≈11.53%).

자료: 통계청(2010, 2012), 『가계동향조사』.

위 반물량방식에 의한 모형의 경우 연구진안에 비해 높게 추정되고 있다. 이는 반물

130) 자료분석시 이상치 제거는 LIS에서 제안하는 방법(Top-bottom coding 방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방향의 극단치(균등화되지 않은 중위소득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는 10*균등화된 중위소득으로 변환하였다. 또한 -방향의 극단치(균등화된 평균소득의 0.01배 미만인 경우)는 0.01*균등화된 평균소득으로 값을 변환하여 분석하였다(topcoding at ten times unequivalized median, bottomcoding at one percent equivalized mean).

131) 2010년 최저생계비와 2012년 계측액을 기준으로 비계측연도에는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그 평균증가율을 12년 추정치에 곱하여 산출하였다. 이는 비계측연도 추정치에도 생활의 질 변화가 포함된 변동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량방식의 기준이 되는 식료품비가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일반가구에 비해 저소득층의 앵겔계수가 높다는 전에서 최저생계비를 높일 수 있으며, 또한 식료품비 비율모형의 경우 두 번에 걸쳐 회귀방정식을 이용하게 된다. 이 때 어떤 자료와 기준년도를 활용하느냐와 회귀계수의 실측치와 계측치간에 발생하는 편의(Bias)로 인해 반물량방식을 통한 최저생계비가 전물량방식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2절 주관적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1. 주관적 방식의 의의

주관적 방식을 이용한 최저생계비 계측은 빈곤을 절대적 및 상대적으로 바라보는 방식과는 달리 사회 또는 개인들이 스스로 빈곤에 느끼는 바를 측정하여 이를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내는 방식이다. 절대적 및 상대적 방식의 경우 객관적인 지표나 통계자료를 통해 측정된다는 점에서 객관적 측정방식이라고 하는 반면에 주관적 방식은 개인이나 가구에 대해 설문을 통해 최저생계비를 측정하게 됨으로써 주관적 방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최근 OECD, UN 등에서 행복에 대한 측정을 함에 있어 객관적 지표와 더불어 주관적 지표를 함께 강조한다는 점에서 주관적 최저생계비 역시 새롭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빈곤을 바라보는 관점은 객관적 지표를 통해서도 측정이 가능하지만 사람들이 가지는 판단에 의해서도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부자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벌더라도 항상 부족하다는 점을 느낄 수 있다. 반면에 수급가구나 빈곤한 생활을 영유하는 사람이지만 심적으로 편안하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빈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빈곤 및 최저생계비에 대한 주관적 판단은 사람 또는 사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여기에는 기존 빈곤을 측정하는 객관적 지표들에 대한 의구심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즉 생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품목이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이 자의적일 수 있으며, 전문가에 따라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빈곤에 대한 측정과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상대적 빈곤의 경우에도 기준을 어느 것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빈곤과 최저

생계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주관적 빈곤 또는 주관적 최저생계비의 계측은 기존의 객관적 접근법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빈곤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직접적이고 주관적인 느낌과 평가를 반영하는 접근법이다. 주관적 빈곤 및 최저생계비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Kilpatrick, Rainwater, Goedhart, van Praag, Hagenaars, Kaptyen 등은 주관적 평가에 기초하여 빈곤을 정의하려는 새로운 시도를 했다.

주관적 방식은 자신이 처한 상황은 본인이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주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하여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면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느낌이 반영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전문가들 간의 이견이나 자의성 측면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주관적 방식에 의해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빈곤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설문조사를 직접 실시하고 주관적 응답결과를 토대로 빈곤을 정의하고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게 된다.

2. 주관적 방식 계측모형 및 수준

가. 주관적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계측모형

주관적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계측모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제3자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최저생계비를 측정하는 방법'과 둘째, '본인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최저생계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1) 제3자적 평가에 의한 주관적 최저생계비 계측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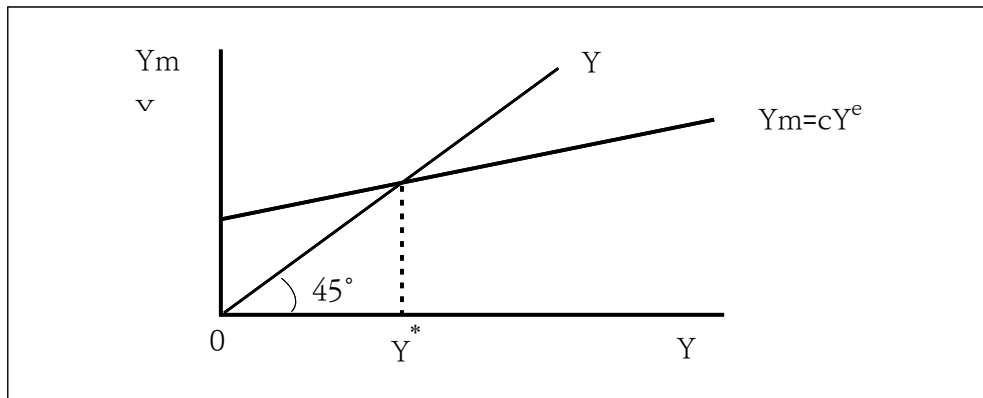
제3자적 평가에 의한 방식으로 주관적 최저생계비 계측은 KilPatrick(1973)과 Rainwater(1974)가 제안한 것으로 1974년 Rainwater가 1946년부터 1969년까지의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안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당시 Rainwater(1974)은 갤럽 여론조사 응답을 분석한 결과, 평균소득과 근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소득과의 관계는 최저 46%에서 최고 58%, 평균 52%로 양자 간의 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사실

을 제시하였으며, 대중들이 생각하는 빈곤선의 수준은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계측한 최저생계비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 밝혀졌다.

2) 본인 평가에 의한 주관적 최저생계비 계측모형

제3자적 평가에 의한 주관적 최저생계비 방식은 자기 자신의 상황에서 필요한 최저 소득을 물어보는 유형의 질문을 사용하는 접근법을 이용한 Goedhart et al(1977)에 의해 처음 고안되었으며, 이것은 여러 연구에서 적용되었다¹³²⁾. 동 방식은 주로 van Praag 등 네덜란드의 라이덴(Leyden) 대학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적용하였기 때문에, 동 방식에 의한 빈곤선 추정을 ‘라이덴 방식’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그림 9-2-1] 라이덴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추정



주관적으로 느끼는 최저생계비는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은 소득보다 높게 응답하고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은 소득보다 낮게 응답하게 되는데, 이 때 주관적으로 느끼는 최저생계비와 일치하는 소득을 최저생계비로 본다. 따라서 이 교차점의 소득수준(Y^*)은 사회구성원 각자의 평가에 따라 살아가기에 빠듯한 사람(빈곤)과 그렇지 않은 사람(비빈곤)을 구분하는 기준, 즉 주관적 빈곤선으로 정의할 수 있게 된다.

132) van Praag, Goedhart, and Kapteyn(1980): van Praag Hagenaars, and van Weeren(1982): van Praag, Spit, and van de Stadt(1982): Danziger et al(1984): Colanto, Kapteyn, and van der Gaag(1984)

나. 본인 평가에 의한 주관적 최저생계비 추정결과

본 연구에서 적용한 본인 평가에 의한 주관적 최저생계비 추정모형1(건강하고 문화적), 모형2(그럭저럭), 모형3(근근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ext{모형: } \ln(\text{EXP}_i) = \alpha + \beta_1 \ln(Fs) + \beta_2 \ln(Y)$$

(단, EXP_i : 주관적으로 대답한 최저생활비, $i=1$ (“건강하고 문화적”), $i=2$ (“그럭저럭”), $i=3$ (“근근이”), Fs : 가구규모, Y : 소득)

모형을 「201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해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모형1(건강하고 문화적):

$$\bigcirc \ln(\text{EXP}_1) = 2.9022 + 0.3276 \ln(Fs) + 0.4371 \ln(Y)$$

〈표 9-2-1〉 주관적 최저생계비 모수추정치(모형1: 건강하고 문화적)

모 수	추정치	표준편차	t 통계량	Prob > T
α	2.9022	0.0187	155.29	0.0001
β_1	0.3276	0.0057	57.13	0.0001
β_2	0.4371	0.0038	115.45	0.0001
F 통계량	21117.8(P<0.0001)	Adj- R^2	0.7194	N=16,47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 모형2(그럭저럭):

$$\bigcirc \ln(\text{EXP}_2) = 2.5343 + 0.3548 \ln(Fs) + 0.4494 \ln(Y)$$

〈표 9-2-2〉 주관적 최저생계비 모수추정치(모형2: 그럭저럭)

모 수	추정치	표준편차	t 통계량	Prob > T
α	2.5343	0.0187	135.24	0.0001
β_1	0.3548	0.0058	61.70	0.0001
β_2	0.4494	0.0038	118.36	0.0001
F 통계량	22913.8(P<0.0001)	Adj- R^2	0.7356	N=16,47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 모형3(근근이)

$$\ln(\text{EXP}_3) = 2.1465 + 0.3922 \ln(F_s) + 0.4596 \ln(Y)$$

〈표 9-2-3〉 주관적 최저생계비 모수추정치(모형3: 근근이)

모 수	추정치	표준편차	t 통계량	Prob > T
α	2.1465	0.0207	103.77	0.0001
β_1	0.3922	0.0064	61.79	0.0001
β_2	0.4596	0.0042	109.67	0.0001
F 통계량	20680.7(P<0.0001)	Adj- R^2	0.7152	N=16,47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이상과 같은 모형으로 2013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추정했다.

주관적 최저생계비에 관한 응답은 조사시점(2011) 기준이므로 동 추정결과에 2012년-2013년 소비자물가상승률¹³³⁾을 적용하여 2013년 최저생계비를 산출했다.

추정결과 4인 가구 기준 ‘근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저생계비 추정치는 1,642,173 원으로 전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보다 100만원 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를 2010년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그럭저럭’과 ‘건강하고 문화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저생계비 추정결과와의 차이가 확연히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근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비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정도가 다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표 9-2-4〉 가구규모별 주관적 최저생계비

(단위: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 가구
건강하고 문화적인	1,619,508	2,645,265	3,736,425	4,505,868	4,911,959	5,569,927	5,367,802
그럭저럭	1,192,913	1,999,692	2,871,896	3,498,790	3,838,898	4,382,626	4,229,512
근근이	852,336	1,474,934	2,160,583	2,665,886	2,950,538	3,396,538	3,289,15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133)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한 결과이며, 물가상승률(3.4%)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2012년7월 ~ 2013년6월까지의 평균소비자물가지수) - (2011년7월 ~ 2012년6월까지의 평균소비자물가지수)
 (2011년7월 ~ 2012년6월까지의 평균소비자물가지수)



제4부 2013년·2014년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제10장 2013년 최저생계비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 및 결과

제1절 최저생계비 계측의 전제에 대한 논의결과

제2절 2013년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

제3절 2013년 및 2014년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제1절 최저생계비 계측의 전제에 대한 논의결과

1. 표준가구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은 과거 최저생계비 계측과 달리 표준가구를 몇 인가구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합의과정을 우선 진행하였다. 4장 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2012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의 기준이 되는 표준가구를 몇 인가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사전 합의과정을 진행하였다. 제1차 전문위원회 소위원회(2012. 7. 9)에서 표준가구의 장단점과 해외자료 및 표준가구 변경에 대한 장단점을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표준가구는 사회적 가치판단이 우선되는 개념으로 2인 가구는 노인가구가 될 개연성이 높으며, 전물량방식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가구를 최빈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가구원 수보다 가구유형 기준으로 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제2차 소위원회(2012. 7. 23)에서는 1차 회의 검토결과와 연구자료를 토대로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표준가구는 4인가구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문위원회 소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최종적으로 2013년 8월에 개최된 제4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의 결과를 검토 후,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의 표준가구를 4인가구를 유지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결을 이루었다.

4인 표준가구의 세부 구성(자세한 사항은 4장 4절 참조)과 관련해서는 2013년 전문위원회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을 통해 표준가구에 대한 세부구성을 합의하였다. 연구진의 표준가구 구성을 위한 기초 자료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등과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를 위해 실시한 국민생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진이 제시한 4인가구의 표주가구 구성은 부 42세, 모 39세, 첫째아 12세 초등학교 6학년, 둘째아 10세 초등학교 4학년을 제시하였다. 2013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제1차회의(2013. 6. 25)에서는 연구진이 제시한 4인 표준가구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논의결과 연구진이 제시한 표준가구의 구성안에 대해 동의하지만, 단 첫째아 연령인 12세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인지, 중학교 1학년 학생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후 연구진의 검토과정과 전문위원회의 서면 결의를 통해 표준가구의 구성은 연구진 안을 반영하며, 이를 토대로 전물량방식에 의한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2013년 제45차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표준가구와 관련하여 별다른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전문위원회 논의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표준가구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전물량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논의하였다.

〈표 10-1-1〉 표준가구

표준가구	구분	표준가구의 구성	비고
4인가구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적용	부:42세 모:39세 1자(남):12세 2자(여):10세	남성가구주 1971년생

2. 지역구분

최저생계비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요건의 하나가 지역별 최저생계비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지역별 최저생계비에 대한 논의는 오랜 기간 지속되었으며, 제3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기타의결사항으로 지역별·주거형태별 최저주거비 적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한 바가 있다.

금번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에서도 최저생계비의 지역별 적용방안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검토회의를 진행하였다. 2012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1차 7월 9일, 2차 7월 23일, 3차 8월 6일에 걸쳐 최저생계비의 지역구분과 관련된 연구진의 기초자료를 토대로 지역구분의 타당성과 적용시 합리적 지역구분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논의하였다(세부적 사항은 4장 5절 지역구분 참조).

최종적으로 전문위원회 소위원회에서의 지역구분에 대한 논의 결과는 연구진이 제안한 지역구분 방안 중에서 세 가지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세 가지 대안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의 소득환산제도에 적용되고 있는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안과 수도권·주거특성이 가지는 요인을 고려한 수도권-지방도시-농어촌 안 및 수도권을 서울과 기타 수도권으로 구분한 서울-서울제외 수도권-지방도시-지방농어촌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하였다.

제4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12. 8. 28)에서는 지역구분에 대한 소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세부적인 지역구분에 대해서는 2013년 국민생활실태조사를 반영하여 살펴보기로 하였다.

3. 가구균등화 지수

2013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산하 1차 전문위원회 회의에서는 향후 적용될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산출을 위한 가구균등화지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1차전문위원회 논의를 위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생활실태조사의 계층자료를 활용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는 가구균등화지수의 한계를 지적하고 외부자료와 비교를 통한 연구진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전문위원회 논의 결과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개편논의 속에서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에 따른 연구에서 신규 적용될 가구균등화지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적용되고 있는 가구균등화지수를 그대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현재 행정적용되고 있는 가구균등화지수는 2014년 10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향후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에 따라 이를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현재 행정적용되고 있는 가구균등화지수는 아래와 같다.

〈표 10-1-2〉 가구균등화지수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가구균등화지수	0.370	0.630	0.815	1	1.185	1.370	1.555

제2절 2013년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

1. 최저 식료품비

가. 전문위원회 논의 내용

전문위원회에서 최저식료품비 관련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가장의 중식비 단가, 가족단위 외식비 단가와 횡수였다. 문제가 제기된 배경은 2010년에 비해 가장 중식비와 가족단위 외식비 단가가 식료품비의 물가상승률보다 높다는 것이다.

가장 중식비의 경우 연구진은 2010년 3,500원에서 2013년 조사(「2011년 4인가구 심층조사」)의 대푯값 중 가장 낮은 최빈값을 제시하였고, 2010년도 역시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어 가장 중식비의 가격 상승이 필요함을 밝혔다. 몇 차례 논의 결과 연구진의 의견을 1안(기본안)으로 하되, 2안(수정안)인 3,500원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가족단위 외식비 가격은 2010년 24,000원에 비해 매우 높게 상승한 가격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연구진은 40,000원 금액 역시 실태의 평균, 최빈, 중위값보다 낮은 최저금액이라고 설명하였다. 가족단위 외식 횡수의 경우 연구진은 연간 4회로 제안하였으나, 전문위원회에서는 가족단위 외식의 단가 상승을 감안하여 2회로 횡수를 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몇 차례 논의 결과 연구진 안에서 횡수만 조정된 안을 1안(기본안)으로 하고, 횡수와 단가를 모두 조정한 2안(연간 2회 32,000원)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함께 제시하기로 하였다.

전문위원회를 통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할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0-2-3〉 최저 식료품비 마켓 바스켓 관련 전문위원회 조정 및 합의사항

구분	조정 및 합의내용
가장 중식비	- (미합의) 1안(4,000원) vs 2안(3,500원)
가족단위 외식	- (합의) 외식 횡수를 1년에 4회에서 2회로 합의 - (미합의) 외식 단가는 미합의. 1안(40,000원) vs 2안(32,000원)

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미합의된 부분은 심의 후 조정된 수치로 의결하였다. 즉, 가족단위 외식 횟수는 전문위원회의 합의를 존중하여 1년에 2회로 결정하였다. 가족단위 외식비 단가는 전문위원회 2안(32,000원)으로 결정하고, 가장의 중식비의 경우 전문위원회 1안(3,500원)과 2안(4,000원)의 중간 값인 3,750원으로 조정하였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표준가구의 식료품비 마켓 바스켓은 다음과 같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된 최저 식료품비는 596,476원으로 이는 2010년 최저 식료품비인 527,327원에 비해 13.11% 증가하였다. 가장 중식비는 2010년보다 250원 증가하여 3,750원으로 결정되었고, 가족단위 외식비는 2010년보다 8,000원 상향조정되었다. 연구진안에서 제시한 608,963원 보다는 12,487원 감소한 금액이다.

〈표 10-2-4〉 표준가구의 최저 식료품비(중생보위 결정)

(단위 : 원)

	내구연수	회수	단가(원)	금액(원) ¹⁾
식료품비 합계				596,476
가정식 비용(외식이 없는 경우)	1월	91.25회	5,674	517,779
가장 중식으로 인한 절감비용	1월	21.73회	1,621	-35,223
가족단위 외식으로 인한 절감비용	1월	0.17회	5,674	-946
12세 아동 급식으로 인한 절감비용	1월	16.08회	1,621	-26,075
10세 아동 급식으로 인한 절감비용	1월	16.08회	1,148	-18,470
12세 아동 수련회로 인한 절감비용	1월	0.58회	1,621	-946
10세 아동 수련회로 인한 절감비용	1월	0.58회	1,148	-670
친지방문으로 인한 절감비용	1월	0.67회	5,674	-3,783
가정식 비용 소계				431,666
가장 중식비	1월	21.73회	3,750	81,473
초등학생(12세) 급식비	1월	16.08회	2,425	39,002
초등학생(10세) 급식비	1월	16.08회	2,425	39,002
가족단위 외식비	1월	0.17회	32,000	5,333
외식비 소계				164,810

주: 1) 소수점 이하 처리로 단가×회수의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2. 최저 주거비

가. 전문위원회 논의 내용

2013년 최저 주거비와 관련하여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4인 표준가구의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 그리고 (전가)임대로 수준에 관한 것이다. 먼저 최저주거기준에 부합하는 거주시설에 대한 주거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주택유형과 점유형태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4인 가구 중 소득 40% 이하의 거주실태를 분석하여 표준가구의 주택유형을 아파트로 선정하였다. 다만 대도시의 경우 전세의 주요 주택유형이 단독다가구 주택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대도시 위주의 전세가격 급등에 따라 저소득층의 거주 주택이 아파트에서 단독다가구 주택으로 변화되었을 수 있다는 점과 2013년 실태조사 시 다가구 주택이 단독주택에 포함되어 조사되어 단독주택이 과다 추계 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변동성 높은 주택시장의 실태를 반영하기보다는 2010년 기준에 맞추어 대도시의 주택유형도 아파트로 선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점유형태에 관련하여 자가는 '최저'생계비라는 측면과 전가임대로 산정에 논란이 많다는 점으로 제외되었지만, 임차가구의 경우 월세 가구의 비중이 전세 가구의 비중보다 높은 상황에서 전세를 표준가구의 점유형태로 삼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전문위원회의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의 표준가구인 4인으로 구성된 저소득층의 점유형태는 임차가구 내에서 전세가 50.1%, 월세가 49.9%로 나타나고, 중소도시 아파트 4인가구로 제한하여 살펴봐도 전세 50.9%, 월세 49.1%로 아직은 전세에 거주하는 가구가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나 최저주거비를 위한 표준가구의 점유형태는 이전 계측과 동일하게 전세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월세가구의 증가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고 전세 기준의 최저주거비가 월세 가구에게 주거비 부족으로 나타날 것을 감안하여 월세 및 보증부 월세 가구의 최저주거비를 계측하고 이를 별도의 건의 사항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표 10-2-5〉 저소득층의 주거점유형태 실태

(단위: %)

구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	기타	전체	자료
소득 하위 40% 가구		50.5	13.8	26.4	5.5	3.8	100.0	주거실태조사 (국토교통부)
		46.8	15.9	23.4	3.5	10.4	100.0	
4인가구 중 소득 하위 40%	전체	51.8	21.4	20.3	1.0	5.6	100.0	국민생활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중소도시 아파트	62.4	17.5	16.0	0.9	3.2	100.0	

주: 주거실태조사는 2012년 5월 기준, 국민생활실태조사는 2011년 12월 기준

마지막으로 최저 주거비 산정에 있어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전세의 (전가)임대료 수준이다. 전세의 임대료는 조달비용과 보증보험료를 통해 산출되는데, 조달비용 즉 전세가격이 2010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였다. 이는 전세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더불어 4인가구의 최저주거면적이 37㎡에서 43㎡로의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위원회에서는 정부 재정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주택유형 변경 및 조달비용 대출처의 변경, 확대된 최저주거면적의 단계적 적용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표 10-2-6〉 아파트 전세 가격 및 (전가)임대료

구분	전세 가격 (만원)	(전가)임대료 (원)
2013년	6,143.2	250,285
2010년	3,964.7	173,654

주: 2010년 37㎡(11.2평), 2013년 43㎡(13평)에 해당하는 주택의 가격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년 가격조사』 원자료.

먼저 표준가구의 주택유형을 단독·다가구로 선정하고 최저 주거비를 계측하면 216,483원으로 아파트 최저 주거비 307,283원에 비해 90,800원 낮게 계측된다. 그러나 이는 2010년 221,374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주거실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 하에 표준가구의 주택유형은 아파트로 합의하였다.

또한 2013년 최저 주거비 연구진(안)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세자금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을 통해 조달한다고 설정하였으나, 조금 더 이율이 낮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은 제

도의 접근성 문제뿐만 아니라 대출한도가 낮아 전세 자금의 더 많은 부분을 신용대출을 이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 최저 주거비가 연구진(안)보다 더 높게 계측되었다. 따라서 전세자금의 대출처 역시 연구진에서 제안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을 이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후 전문위원회에서는 최저주거면적의 단계적 반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번에 계측되는 최저생계비는 2014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에 따라 2014년 9월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최저주거면적이 반영된 주거급여의 10월 시행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최저주거면적 증가분의 50%를 반영한 40㎡를 반영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40㎡에 대한 아파트 전세의 최저 주거비는 286,331원으로 2010년 최저 주거비 221,374보다 높고, 2013년 현행 최저생계비의 비목별 구성 비율에 따른 최저 주거비 244,963원 보다 높아 적절한 수준으로 합의되었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하는 최저 주거비(안)으로 결정하였다.

〈표 10-2-7〉 최저 주거비 대안 검토(안)

(단위: 원)

구분		연구진(안)	대출처 조정(안)	주택유형 조정(안)	주거면적 조정(안)
주택유형		아파트	아파트	단독·다가구	아파트
대출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저소득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주거면적		43㎡	43㎡	43㎡	40㎡
(전가)	조달비용	240,609	242,244	191,231	223,822
임대료	보증보험료	9,676	6,300	7,690	9,001
아파트 관리비		38,736	38,736	-	36,000
이사비		7,452	7,452	7,452	7,452
복비		3,413	3,413	2,713	3,175
도배비		7,397	7,397	7,397	6,881
합 계		307,283	305,542	216,483	286,331

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도 상정된 최저 주거비에 대해 급격히 상승한 임대료 수준과 최저주거면적의 단계적 반영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설명한 결과 최저주거면적이 단계적으로 반영된 값을 2013년 최저 주거비로 확정하였다. 따라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한 2013년 최저 주거비는 중소도시 전세

아파트(40㎡) 기준으로 286,331원이다. 이는 2010년 최저 주거비 221,374원에 비해 64,957원(29.3%) 증가한 금액이다. 2007년 대비 2010년 증가율 4.1%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표 10-2-8〉 2013년 표준가구의 최저 주거비(중생보위 결정)

(단위: 원)

구분		중소도시 전세 아파트(40㎡) 기준
(전기) 임대료	조달비용	223,822
	보증보험료	9,001
아파트 관리비		36,000
이사비		7,452
복비		3,175
도배비		6,881
합 계		286,331

3. 최저 광열·수도비

가. 전문위원회 논의 내용

전문위원회는 2013년 최저 광열·수도비에 대해 큰 쟁점 없이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는 2013년 광열·수도비가 2010년 계측 과정을 통해 합의된 방식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2013년 광열·수도비의 사용량은 2010년 사용량을 기준으로 관련 자료의 증가율을 적용하여 계측하였고, 사용량의 증가율이 거의 없었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2010년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계측하였다. 이는 사용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제시되는 많은 쟁점(계측지수 등)을 해소시켰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10년과 달리 2013년 광열·수도비 계측에는 변화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전문위원회는 연구진 의견에 합의하였다. 첫째, 전기요금의 경우 전압 유형에 따라 요금 단가가 달라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전국 동일 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지역별 단가를 활용한 것, 둘째,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중소도시의 사용량이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 하에 대도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 합의하였다. 따라서 2013년 광열·수도비는 중소도시 기준 114,461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표 10-2-9〉 최저 광열·수도비 단가 및 사용량 조정에 대한 합의 내용

구 분	2010년	2013년
전기요금	전국 동일 요금 적용	지역별 단가 적용
수도요금	대도시와 중소도시 사용량 차이 존재	중소도시 사용량 대도시 동일 수준으로 조정

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

전문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저 광열·수도비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별다른 이의 없이 수용되었다. 결국 최종적으로 2013년 최저 광열·수도비는 114,461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2010년 103,150원에 비해 11,311원(11.0%) 증가한 금액이다.

〈표 10-2-10〉 표준가구의 최저 광열·수도비(중생보위 결정)

(단위: 월/원)

분류	단가	사용량	금액
전기요금	32,039	265(Kwh)	32,039
상하수도 요금	속초시 요금	18.2(m³)	14,654
난방·취사비(LNG)	경기요금	70.7(m³)	67,768
합계			114,461

4.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가. 전문위원회 논의 내용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와 관련하여 전문위원회에서 주요하게 논의된 사항은 신규 추가품목인 청소기의 마켓 바스켓 적합성에 관한 것이었다. 연구진에서는 2012년 「가계동향조사」에 의한 소득탄력성이 기준인 0.5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인 0.01으로 필수품 선정기준을 충족하고, 전력거래소(2011)에 의한 보급률 또한 전국 가구당 0.82개로 높은 수준임을 근거로 하여 청소기의 신규 추가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전문위원회에서는 청소기가 저소득층 가구의 필수품인지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였다. 이에 청소기는 중소도시 4인가구를 상정하고 있는 표준가구를 기준으로 시 지역에 가구당 0.82개, 월소득 100만원대의 가구당 0.79대, 아파트 거주 가구당 0.87

대가 보급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청소기의 연도별 보급률은 0.81대 수준에서 2030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예측됨을 확인하였다(전력거래소, 2011).

이와 같은 검토 절차와 추가 조사결과를 제시하였으나, 전문위원회의 추가 논의를 통해 저소득층의 청소기 보유 여부에 대한 규범적 의구심에 대한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소기를 제외하고, 청소기의 대체재로서 방빗자루와 쓰레받기의 내구연수를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표 10-2-11〉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관련 전문위원회 조정 및 합의사항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조정내역	증감액
45,653원	청소기 제외	△658원
	방빗자루 내구연수 하향조정 (10년→5년)	26원
	쓰레받기 내구연수 하향조정 (10년→5년)	18원

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전문위원회에서 합의된 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보고된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는 다음과 같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2013년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를 검토하였으며 전문위원회의 합의안과 같이 중소도시 기준 45,653원을 최종 결정하였다. 이는 연구진안의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보다 614원 감소한 금액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2013년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는 45,653원으로 2010년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40,547원에 비해 5,106원(12.6%) 증액된 값이다.

〈표 10-2-12〉 표준가구의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중생보위 결정)

(단위: 원)

중분류/품목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가구집기·가사용품비	45,961	45,653	45,379
일반가구 소계	7,947	7,947	7,947
가정용가구 소계	11,889	11,889	11,889
식기주방용품 소계	6,852	6,852	6,852
가사잡화 소모품 소계	10,679	10,679	10,679
침구 및 직물제품 소계	6,012	6,012	6,012
가사서비스 소계	2,582	2,274	2,000

5. 최저 피복·신발비

가. 전문위원회 논의 내용

최저 피복·신발비와 관련하여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내구연수의 현실화였다. 최저 피복·신발비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은 가구원내 동일품목 내구연수 통일 및 중분류 내 품목 내구연수 통일이라는 원칙을 기준으로 실태조사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일부 품목의 내구연수를 보수적으로 조정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회에서는 신사복 및 숙녀복, 가장 및 주부의 동내의, 주부의 속치마, 가장 및 주부의 장갑, 가장 및 주부의 혁대, 그리고 가장 및 주부의 운동화의 내구연수를 각각 하향조정하여 실제 생활실태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시된 품목의 내구연수를 일부 하향조정하여 4,605원 증액된 마켓 바스켓을 제시하였고, 이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표 10-2-13〉 피복신발비 내구연수 조정 마켓 바스켓(안)(4인가구 중소도시 기준)

(단위: 원, 년)

품목	2010			2013					
	단가	내구연수	마켓바스켓	연구진안			내구연수 조정안		내구연수 조정 근거
				단가	내구연수	마켓바스켓	내구연수	마켓바스켓	
신사복(동)	90,000	12	1,250	102,420	12	1,423	10	1,707	실태반영
(춘추)	80,000	12	1,111	91,040	12	1,264	10	1,517	실태반영
숙녀복(동)	90,000	12	1,250	96,660	12	1,343	10	1,611	실태반영
(춘추)	70,000	12	972	75,180	12	1,044	10	1,253	실태반영
동내의(가장)	24,782	6	1,033	29,590	6	1,233	3	2,466	실태반영/
(주부)	19,085	6	795	20,268	6	845	3	1,689	자녀와 통일
속치마(주부)	10,000	6	278	10,620	6	295	3	590	실태반영
장갑(가장)	5,000	6	83	7,185	6	100	2	299	실태반영
(주부)	5,000	6	83	7,185	6	100	2	299	실태반영
혁대(가장)	5,000	6	83	5,325	6	74	3	148	실태반영
(주부)	5,000	3	139	5,325	6	74	3	148	실태반영
운동화(가장)	15,509	4	431	16,548	4	345	2	690	실태반영
(주부)	14,788	4	308	15,779	4	329	2	657	실태반영
합계			7,816			8,469		13,074	

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전문위원회에서 합의된 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보고된 최저 피복·신발비는 다음과 같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2013년 최저 피복·신발비를 검토하였으며 전문위원회의 합의안인 중소도시 기준 66,851원을 최종 수용하여 결정하였다. 이는 연구진안의 최저 피복·신발비보다 4,605원 증액된 것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2013년 최저 피복·신발비는 66,851원으로 2010년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57,649원에 비해 9,202원(16.0%) 증액된 값이다.

〈표 10-2-14〉 표준가구의 최저 피복·신발비(중생보위 결정)

(단위: 원)

중분류/품목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피복·신발비	66,851	66,851	66,851
외의 소계	28,834	28,834	28,834
스웨터·셔츠 소계	10,891	10,891	10,891
내의 소계	12,298	12,298	12,298
직물·실 소계	31	31	31
기타 피복 소계	5,757	5,757	5,757
신발 소계	5,533	5,533	5,533
피복 및 신발서비스 소계	3,507	3,507	3,507

6. 최저 보건·의료비

가. 전문위원회 논의 내용

연구진이 제시한 2013년 최저 보건의료비는 2010년에 비해 10.4% 상승한 68,636 원이다. 세부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비는 52,697원, 의약품비는 4,792원, 미충족욕구는 1,978원이며, 안경(3,889원)과 위생대(5,280원)를 합한 보건의료용품비는 9,169 원으로 계층되었다.

전문위원회에서 최저 보건의료비를 둘러싼 쟁점은 주로 보건의료용품과 관련된 것이었다. 먼저, 표준가구 내 초등학생 여아의 위생대 사용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

다. 그러나 연구진의 추가적인 자료(보건교육포럼, 2010) 확인 결과, 여학생의 평균 초경연령은 11.98세(초등학교 5~6학년)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표준가구 내 10세 여아(초등학교 4학년)와는 약 2세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연구진 원안대로 39세 부인만 위생대를 사용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다음으로 안경의 단가와 내구연수를 동시에 조정함으로써, 2010년에 비해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연구진은 실태조사 결과, 소득 하위 40% 이하 4인 가구 중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가구원이 전무한 가구는 18.4%에 불과하며, 중위값이 2명, 평균값이 1.7명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최저 보건의료비 마켓 바스켓에 포함시킨 안경의 가격은 평균가격(84,200원)과 중위가격(70,000원) 중 낮은 가격인 중위가격이며, 내구연수 역시 평균값(18개월)과 중위값(12개월) 중 더 긴 기간인 평균값을 사용하였음을 주지하였다. 이에 전문위원회는 대안으로 실태를 반영하여 안경 착용 인원을 2명으로 하되, 가격은 45,000원으로 낮추고 내구연수를 36개월로 늘리는 안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키로 합의하였다.

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회에서 상정한 대안이 별다른 이의 없이 수용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보건의료비는 67,247원으로, 이는 2010년 최저 보건의료비에 비해 8.1% 상승한 것이다.

〈표 10-2-15〉 표준가구의 최저 보건의료비(중생보위 결정)

(단위: 원)

중분류/품목	내구연수	수량	단가	중소도시 기준
보건의료비 합계				67,247
보건의료서비스비	1월	1단위	52,697	52,697
의약품비	1월	1단위	4,792	4,792
미충족육구	1월	1단위	1,978	1,978
보건의료서비스비 소계				59,467
안경	36월	2개	45,000	2,500
위생대	1월	20개	264	5,280
보건의료용품 소계				7,780

7. 최저 교육비

가. 전문위원회 논의 내용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 결과 중에, 최저 교육비와 관련된 논의는 제2차 전문위원회에서 표준가구 구성에 따른 남·여 자녀(남 12세, 여 10세)가 초등학생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제3차 전문위원회에서는 최저 교육비를 구성한 마켓 바스켓 조정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마켓 바스켓에 신규로 추가된 문제집과 수련회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합의가 이루어졌던 2007년 계측 당시와 달리, 2010년과 마찬가지로 2013년 최저 교육비를 구성하고 있는 마켓 바스켓 중 전문위원회에서 쟁점으로 논의되었던 부분은 그리 많지 않았다. 이것은 2013년 최저 교육비 마켓 바스켓에 신규로 추가된 항목이 2가지(교육용 체육기구(줄넘기, 훌라후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이 크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교재비와 보충교육비의 경우, 사용량 및 내구연수는 2010년과 동일하게 반영하고 가격만 조정한 반면, 문방구비를 구성한 품목 중에 초등학생용 공책과 인쇄용지는 교과학습 및 과제수행 등에 필요한 생활실태 변화를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전문위원회에서 진행되었다.

결론적으로, 전문위원회에서는 연구진안으로 제시한 최저 교육비 마켓 바스켓 계측 결과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앞서 언급했던 초등학생용 공책에 대한 사용량 상향 조정(학기당 1인당 9권 → 10권)에 대한 근거자료 부족을 이유로 반영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커다란 쟁점 없이 초등학생 자녀의 교육환경 및 생활실태 변화를 고려하여 연구진이 제시한 2013년 최저 교육비 마켓 바스켓 품목에 대한 조정 없이 그대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다만, 전문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일부 위원이 보충교육비 중 가정학습지 품목에 대해서 이를 방과후 교육으로 대체 가능한지, 이를 대체할 경우 최저 교육비 마켓 바스켓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이를 중생보위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서, 연구진은 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를 분석하여 초등학생 방과후 교육 이용 및 비용부담을 확인하였다.

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

이상과 같이 전문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 합의된 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보고된 최저 교육비 마켓 바스켓은 다음과 같다.

〈표 10-2-16〉 표준가구의 최저 교육비(중생보위 결정)

품목	지역구분	내구연수	사용량	가격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교육비 합계					73,803원	73,803원	73,803원
참고서	전국	1년	4권	27,440원	9,147원	9,147원	9,147원
문제집	전국	1년	8권	14,442원	9,628원	9,628원	9,628원
교재비 소계					18,775원	18,775원	18,775원
가정학습지	전국	1년	12월	34,500원	34,500원	34,500원	34,500원
수련회	전국	1년	2회	53,470원	8,912원	8,912원	8,912원
기타교육비	전국	1년	2회	10,000원	1,667원	1,667원	1,667원
보충교육비 소계					45,079원	45,079원	45,079원
연필	전국	6월	2타스	2,637원	879원	879원	879원
싸인펜	전국	1월	4개	200원	800원	800원	800원
색연필	전국	1년	2세트	2,500원	417원	417원	417원
공책	전국	6월	18권	650원	1,950원	1,950원	1,950원
스케치북	전국	1년	4권	1,300원	433원	433원	433원
인쇄용지	전국	6월	2권	2,808원	936원	936원	936원
크레파스	전국	1년	2세트	4,143원	691원	691원	691원
그림물감	전국	1년	1세트	3,221원	268원	268원	268원
붓	전국	2년	1세트	4,500원	188원	188원	188원
지우개	전국	6월	4개	300원	200원	200원	200원
칼	전국	2년	1개	300원	13원	13원	13원
가위	전국	2년	1개	700원	29원	29원	29원
풀	전국	6월	2개	500원	167원	167원	167원
색종이	전국	6월	20개	500원	1,667원	1,667원	1,667원
필통	전국	1년	2개	1,500원	250원	250원	250원
자	전국	1년	2개	200원	33원	33원	33원
앨범	전국	3년	2개	15,000원	833원	833원	833원
교육용 악기(리코더)	전국	3년	1개	3,000원	83원	83원	83원
교육용 체육기구(줄넘기)	전국	3년	1개	2,000원	56원	56원	56원
교육용 체육기구(홀라우프)	전국	3년	1개	2,000원	56원	56원	56원
문방구비 소계					9,949원	9,949원	9,949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회에서 상정한 대안이 별다른 이의 없이 수용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결정된 최저 교육비는 73,803원으로, 이는 연구진안 74,020원보다 217원 감소한 것이며, 최종 확정된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 결과(중소도시 1,606,719

원) 기준으로 약 4.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2010년 계측 당시 최저 교육비 65,930원과 비교해보면 7,873원(11.94%) 증가한 결과이며, 2013년 현행 최저생계비 비목별 구성 비율에 따른 최저 교육비 72,681원보다 1,122원(1.54%) 높은 결과이다.

8. 최저 교양·오락비

가. 전문위원회 논의 내용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 결과 중에, 최저 교양오락비 관련 논의는 제3차 전문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최저 교양오락비 마켓 바스켓 품목 중에 가장 쟁점으로 검토된 것은, 2007년, 2010년 계측 당시와 마찬가지로 유선방송 수신료였다.

최저생계비 계측을 담당한 연구진은, 2013년 최저 교양오락비의 가장 중요한 변화 사항으로 유선방송 수신료를 마켓 바스켓에 추가하였으며, 그 외에도 아동용 CD를 추가하는 대신, 디지털 환경 변화와 생활실태 변화 등을 반영하여 디지털 TV 및 디지털 카메라로 필수품을 통합 조정하는 과정에서 비디오, 비디오테이프 대여, 필름 등 3개 품목을 제외하였다. 이러한 필수품 변화 사항 중 가장 쟁점이 된 것은, 지난 두 차례 최저생계비 계측 당시 전문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된 바 있는 유선방송 수신료였으며, 연구진은 최근 디지털 방송 전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유선방송 가입실태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2007년 이후 계속 논의되었으나 반영되지 못한 유선방송 수신료에 대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에 의거하여 최저생계비가 최소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수준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저소득층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서 마켓 바스켓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한편으로 최저 교양오락비에 유선방송 수신료가 포함될 경우 단일 품목에 의해 4,400원의 최저생계비 인상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다양한 유선방송 이용실태 관련 근거자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논의과정을 거쳐 전문위원회에서는 2007년과 2010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유선방송 수신료를 최저 교양오락비 마켓 바스켓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연구진이 제시했던 관련 실태자료

는 중생보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다만, 연구진이 신규 추가 품목으로 제시한 아동용 CD를 반영하고, 사용량 조정과 관련하여 영화관람(성인/아동)의 경우 각각 연간 1회에서 2회로, 여행 및 문화시설 관람은 연간 2회에서 분기별 1회(연간 4회)로, 증명사진 촬영의 경우 5년간 1회에서 2회로 상향 조정하는 등 대부분 연구진의 계측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

이상과 같이 전문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 합의된 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보고된 최저 교양오락비 마켓 바스켓은 다음과 같다.

〈표 10-2-17〉 표준가구의 최저 교양오락비(중생보위 결정)

품목	지역구분	내구연수	사용량	가격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교양오락비 합계					31,018원	31,018원	31,018원
도서(성인)	전국	1년	1권	10,000원	833원	833원	833원
도서(아동)	전국	1년	4권	6,500원	2,167원	2,167원	2,167원
서적 및 인쇄물 소계					3,000원	3,000원	3,000원
디지털TV	전국	10년	1개	400,000원	3,333원	3,333원	3,333원
카세트라디오	전국	10년	1개	70,000원	583원	583원	583원
디지털카메라	전국	10년	1개	100,000원	833원	833원	833원
컴퓨터	전국	6년	1개	540,000원	7,500원	7,500원	7,500원
프린터	전국	10년	1개	60,000원	500원	500원	500원
프린터잉크	전국	1년	1개	7,000원	583원	583원	583원
완구	전국	1년	4개	5,000원	1,667원	1,667원	1,667원
음악 CD(성인)	전국	1년	1개	12,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음악 CD(아동)	전국	1년	1개	10,000원	833원	833원	833원
교양오락용품기구 소계					16,832원	16,832원	16,832원
영화관람(성인)	전국	1년	4명	8,284원	2,761원	2,761원	2,761원
영화관람(아동)	전국	1년	4명	7,607원	2,536원	2,536원	2,536원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전국	1월	1회	2,500원	2,500원	2,500원	2,500원
유선방송	전국	-	-	-	0원	0원	0원
여행 및 문화시설관람	전국	1년	4회	6,000원	2,000원	2,000원	2,000원
사진촬영	전국	5년	2회	11,679원	389원	389원	389원
사진현상(디지털)	전국	1년	120장	1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교양오락서비스 소계					11,186원	11,186원	11,186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2013년 최저생계비 중에 최저 교양오락비를 구성하는 마켓 바스켓을 검토하였으며, 전문위원회가 합의한 바와 같이 최종 31,018원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최종 확정된 2013년 최저생계비 (중소도시 1,606,719원) 기준으로 약 1.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종 결정된 2013년 최저 교양오락비를 2010년 당시 계측 결과와 비교해보면, 마켓 바스켓 구성항목은 신규 추가 1개, 제외 3개 항목으로 총 19개에서 17개로 감소하였다. 2013년 최저 교양오락비 31,018원을 2010년(27,117원)과 비교하면 3,901원 (14.39%) 증가한 것이며, 2013년 현행 최저생계비 비목별 구성 비율을 반영한 최저 교양오락비 29,382원과 비교하면 1,636원(5.57%) 증가한 결과이다.

9. 최저 교통·통신비

가. 전문위원회 논의 내용

2013년도 최저 교통·통신비와 관련해서 전문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던 것은 가장의 출근일수, 즉 주 5일제를 적용하느냐의 여부였다. 2010년 당시 주 5.5일제를 가정하여 월 50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것을 가정하였는데, 2012년 7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주 5일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까지 주 40시간(주 5일)제가 적용되었는데, 저소득층 가장이 주 5일제 근무에 적용을 받을 것인지가 관건이 되었다. 연구진이 「한국복지패널조사」를 이용해 분석해 본 결과 중위소득 40% 이하의 저소득층 가장은 주 5일제의 적용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저소득 가장의 경제활동 상태를 보면 자영업자가 50.4%, 일용직 근로자가 19.3%로 나타났으며,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율도 70.1%로 나타난 것이다. 이 같은 분석결과에 따라 가장 출근 회수를 실태조사 결과인 주 5.16일을 적용하면 이용횟수가 월 48회에서 49회로 증가하여 최저 교통비는 1,092원이 증가한 53,508원으로 결정되게 된다. 그러나 전체 최저생계비 증가율을 감안하고, 법률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원칙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주 5일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그리고 교통·통신비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 비해 낮은 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러

나 이것은 4인 가구가 스마트폰이 아닌 1대의 일반 휴대폰을 보유하는 것을 가정한 결과라는 연구진의 설명이 있었다. 실제 통신비의 소비자물가지수에는 단말기 가격이 상당히 높은 스마트폰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4인 가구의 경우 1대 이상의 스마트폰을 보유하는 실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가정한 보유실태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전문위원회에서 합의된 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보고된 최저 교통·통신비는 다음과 같다.

〈표 10-2-18〉 표준가구의 최저 교통·통신비(중생보위 결정)

(단위: 월/원)

중분류/품목	내구연수	수량	단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교통·통신비 합계				152,464	151,144	150,044
시내버스: 가장출근	1월	48회	1,092	52,416	52,416	52,416
시내버스: 주부외출	1월	12회	1,092	13,104	13,104	13,104
시내버스: 자녀외출	1월	12회	816	9,792	9,792	9,792
택시: 비상외출	1월	1회	5,342	5,342	5,342	5,342
고속버스: 친지방문	6월	1회	57,600	9,600	9,600	9,600
교통비 소계				90,254	90,254	90,254
집전화: 기본요금(대도시)	1월	1회	5,200	5,200	-	-
집전화: 기본요금(중소도시)	1월	1회	4,000	-	4,000	-
집전화: 기본요금(농어촌)	1월	1회	3,000	-	-	3,000
집전화: 시내통화료	1월	15회	39	585	585	585
집전화: 시외통화료	1월	3회	261	783	783	783
집전화: 이동통신통화료	1월	5회	261	1,305	1,305	1,305
집전화: 부가세	1월	1회	787	667	667	567
집전화: 전화기 이전비	6년	1회	10,000	139	139	139
집전화: 전화기 구입비	4년	1회	38,789	808	808	808
휴대전화: 기본요금	1월	1회	11,000	11,000	11,000	11,000
휴대전화: 사용요금	1월	30회	324	9,720	9,720	9,720
휴대전화: 부가세	1월	1회	2,072	2,072	2,072	2,072
휴대전화: 전화기 구입비	5년	1회	100,000	1,667	1,667	1,667
휴대전화: 이동통신 가입비	35년	1회	39,600	94	94	94
인터넷: 사용요금	1월	1회	25,500	25,500	25,500	25,500
인터넷: 부가세	1월	1회	2,550	2,550	2,550	2,550
통신비 소계				62,210	60,890	59,790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2013년 최저 교통·통신비를 검토하였으며 연구진 안이자 전문위원회의 합의안인 중소도시 기준 151,144원을 최종 수용하여 결정하였다.

10. 최저 기타소비지출

가. 전문위원회 논의 내용

기타소비지출과 관련되어 전문위원회에서 쟁점이 된 내용은 없어, 연구진안 2013년 최저 기타소비지출 90,237원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2013년 최저 기타소비지출을 검토하였으며 연구진 안이자 전문위원회에서 상정한 2013년 최저 기타소비지출 90,237원을 수용하여 결정하였다. 2010년 최저 기타소비지출 86,072원에 비해 4,165원(4.8%) 증액된 값이다.

〈표 10-2-19〉 표준가구의 최저 기타소비지출(중생보위 결정)

(단위: 월/원)

중분류/품목	내구연수	수량	단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타소비지출 합계				90,237	90,237	90,237
치솔(성인용)	4월	4개	1,551	1,551	1,551	1,551
치약	1월	1개	1,355	1,355	1,355	1,355
비누	1월	2개	1,158	2,316	2,316	2,316
샴푸	2월	1통	6,556	3,278	3,278	3,278
스킨로션(여성용)	6월	1개	15,200	2,533	2,533	2,533
밀크로션(여성용)	6월	1개	15,540	2,590	2,590	2,590
스킨로션(남성용)	6월	1개	13,351	2,225	2,225	2,225
아동용로션	6월	1개	10,080	1,680	1,680	1,680
파운데이션	1년	1개	14,126	1,177	1,177	1,177
선크림	1년	1개	10,802	900	900	900
립스틱	1년	1개	8,429	702	702	702
손톱깎기	5년	1개	1,584	26	26	26
면도기	1월	5개	217	1,085	1,085	1,085
머리빗	5년	2개	1,584	53	53	53
이미용품비 소계				21,471	21,471	21,471

중분류/품목	내구연수	수량	단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목욕비	2월	4회	5,180	10,360	10,360	10,360
이발(남자 성인)	3월	2회	7,621	5,081	5,081	5,081
이발(남자 아동)	3월	2회	5,191	3,461	3,461	3,461
미용(여자 성인)	6월	1회	11,418	1,903	1,903	1,903
미용(여자 아동)	3월	1회	6,351	2,117	2,117	2,117
파마	6월	1회	34,530	5,755	5,755	5,755
이미용서비스비 소계				28,677	28,677	28,677
핸드백	4년	1개	31,669	660	660	660
가방(학생가방)	3년	2개	28,250	1,569	1,569	1,569
우산(3단)	3년	4개	6,582	731	731	731
손목시계(아날로그)	10년	2개	40,698	678	678	678
지갑	4년	2개	14,798	617	617	617
장신구비 소계				4,255	4,255	4,255
경조비	1년	6회	30,000	15,000	15,000	15,000
교제비(가장)	1년	6회	15,000	7,500	7,500	7,500
친목단체비(배우자)	1년	2회	10,000	1,667	1,667	1,667
자녀 용돈(2인)	1월	2명	5,000	10,000	10,000	10,000
친지방문비(선물)	1년	2회	10,000	1,667	1,667	1,667
잡비 소계				35,834	35,834	35,834

11. 최저 비소비지출

가. 전문위원회 논의 내용

최저 비소비지출의 경우 표준가구의 경제활동 상태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임금근로자로 하였으며, 각 항목 계산시 이용되는 이들 가구의 소득은 주당 40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에 준하는 것으로 하였다. 재산은 전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아파트 전세로 하고 다른 재산은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하였다. 본 항목은 2010년에 비해 특별한 항목의 추가는 없었으며, 균등분주민세를 제외하고 모든 세부 항목에서 전국 동일하게 산출되었다. 또한 2013년 법 개정으로 인하여 사회보장분담금의 보험요율을 변경하여 적용하였다.

최저 비소비지출은 필수품 항목에 대한 특별한 쟁점은 없었으나, 최저임금 단가에 대한 추가적 논의를 하였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저소득층의 소득에 비해 너무 낮은 금액이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소득을 추정하여 적용할 경우 사

용하는 자료 및 방법에 따라 금액이 차이를 보이게 되며, 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는 지에 따라 비소비지출의 금액이 크게 변화되고 사회보험료의 부담금이 높아지게 된다. 반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는 공식자료이며,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자료일 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에 논의한 결과이므로 표준가구의 근로소득을 최저임금에 준하는 기준으로 가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논의 및 기준에 의해 최저 비소비지출 금액은 83,498원으로 산출하였다.

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

최저 비소비지출의 연구진안은 전문위원회에서 특별한 쟁점 없이 수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도 그대로 합의되었다. 다만 연구진이 제시한 지역별 최저생계비가 아닌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한 단일 금액안으로 협의하였기에 중소도시 기준 83,498원으로 결정되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은 연구진안과 동일한 금액이며, 이 금액은 2010년 최저 비소비지출(67,293원)에 비해 24.1% 증가한 금액이다.

〈표 10-2-20〉 표준가구의 최저 비소비지출비(중생보위 결정)

(단위: 원)

중분류/품목	내구연수	사용량	단가(원)	중소도시
비소비지출 합계				83,498원
근로소득세 〈소득분지방소득세포함〉	1월	1회	0원	0원
균등분주민세 〈지방교육세포함〉	1년	1회	4,658원	388원
재산세〈건물과토지합산〉 〈지방교육세포함〉	1년	2회	0원	0원
조세 소계				388원
국민연금	1월	1회	45,670원	45,670원
건강보험	1월	1회	31,860원	31,860원
고용보험	1월	1회	5,580원	5,580원
사회보장분담금 소계				83,110원

제3절 2013년 및 2014년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1. 2013년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

2013년 45차(2013. 8. 14)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2013년 표준가구(중소도시 전세기준 4인가구) 최저생계비를 1,606,719원으로 결정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10-3-1〉 2013년 표준가구 최저생계비(중생보위 결정)

(단위: 원, %)

구분	중소도시	
	금액	구성비
식료품비	596,476	37.1
주거비	286,331	17.8
광열수도비	114,461	7.1
가구집기비	45,653	2.8
피복신발비	66,851	4.2
보건의료비	67,247	4.2
교육비	73,803	4.6
교양오락비	31,018	1.9
교통통신비	151,144	9.4
기타소비지출	90,237	5.6
비소비지출	83,498	5.2
합계	1,606,719	100.0

2013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의 인상률은 2010년 계측치 대비 15.0%, 그리고 2013년 행정적용치 대비 3.9% 수준이다.

〈표 10-3-2〉 최저생계비(중생보위 결정)의 기존 최저생계비 대비 인상률

(단위: 원, %)

구분	2010(계측치)			2013(행정적용최저생계비)		
	금액	구성비	인상률	금액	구성비	인상률
식료품비	527,327	37.7	13.1	582,992	37.7	2.3
주거비	221,374	15.8	29.3	244,331	15.8	17.2
광열수도비	103,150	7.4	11.0	114,434	7.4	0.0
가구집기비	40,547	2.9	12.6	44,846	2.9	1.8
피복신발비	57,649	4.1	16.0	63,402	4.1	5.4
보건의료비	62,196	4.5	8.1	69,588	4.5	-3.4
교육비	65,930	4.7	11.9	72,681	4.7	1.5
교양오락비	27,117	1.9	14.4	29,382	1.9	5.6
교통통신비	142,600	10.2	6.0	157,733	10.2	-4.2
기타소비지출	82,305	5.9	9.6	91,238	5.9	-1.1
비소비지출	67,293	4.8	24.1	74,227	4.8	12.5
합계	1,397,488	100	15.0	1,546,399	100	3.9

현금급여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현금급여의 최대금액을 말한다. 최저생계비가 이를 구성하고 있는 11개 비목 중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 소비, 비소비 지출의 합계이나,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교통통신비, 비소비 지출 등에는 수급자이면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품목들(예, 급식비, 전기료 등)이 있다는 점에서 현물급여를 제외한 현금급여 산정이 필요하다. 단, 수급자 중 일부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원액을 타법지원액으로 산정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이 곤란해질 수 있으므로 타법지원액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원칙에 따른 현금급여기준의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text{현금급여기준} = \text{최저생계비} - \text{타법지원액}$$

현금급여기준을 정하기 위한 타법지원액에는 급식비, 광열수도비 중 전기료, 의료급여로서 최저의료비 중 보건의료서비스의 일부, 최저교육비, 쓰레기봉투, TV수신료, 유무선 전화요금 지원분, 주민세,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보험료가 포함되어 왔다.

2013년 계측에는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타법지원액 신규품목으로서 인터넷비용이 추가되었다. 즉, 수급자 중 만18세 미만 및 만65세 이상에 대하여 인터넷 가입자 접속서비스의 30%를 감면받도록 하고 있던 기존의 법령이 2012년 2월 개정으로 그 대상을 수급자 전체로 확대하였다. 이에 2013년 최저생계비 타법지원액에는 마켓 바스켓에 따른 인터넷 사용요금의 30%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에 따른 2013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에서 타법지원액은 <표 10-3-3>과 같이 307,124원으로 계측되었고, 따라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2013년 현금급여기준선은 [그림 10-3-1]과 같다.

<표 10-3-3> 4인 가구 기준 2013년 타법지원액(중생보위 결정)

(단위: 원)

비목	품목	중소도시
식료품비	급식비	78,004
광열수도비	전기	8,000
의료비	보건의료서비스	33,458
교육비	교육비	73,803
가구집기가사용품	쓰레기봉투	1,107
교양오락비	TV수신료	2,500
교통통신비	유선전화	7,479
	이동전화	16,440
	인터넷	8,415
비소비지출	국민연금	45,670
	건강보험	31,860
	주민세	388
타법지원액 합계		307,124

[그림 10-3-1] 중소도시 4인 가구 기준 현금급여기준선(중생보위 결정)

현금급여기준		최저생계비		현물 및 타지원액(제외 품목)
1,299,595원	=	1,606,719원	-	307,124원
4인 가구 중소도시 기준		4인 가구 중소도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식비 78,004원 ◦전기요금 8,000원 ◦보건의료비 33,458원 ◦교육비 73,803원 ◦쓰레기봉투 1,107원 ◦TV수신료 2,500원 ◦통신비 32,334원 ◦주민세 388원 ◦국민연금 45,670원 ◦건강보험 31,860원

2. 2013년 및 2014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선

2013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선은 다음 <표 10-3-4>와 같다. 2013년 표준가구의 현금급여기준선은 2013년 행정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현금급여기준선 대비 2.65% 인상되었다.

<표 10-3-4> 2013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선(중생보위 결정)

(단위: 원,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균등화지수	0.37	0.63	0.815	1	1.185	1.37	-
2013년 최저생계비 (중생보위 결정치)	594,486	1,012,233	1,309,476	1,606,719	1,903,962	2,201,205	-
2013년 타법지원액 (중생보위 결정치)	113,636	193,488	250,306	307,124	363,942	420,760	-
2013년 현금급여기준선 (중생보위 결정치)	480,850	818,745	1,059,170	1,299,595	1,540,020	1,780,445	-
2013년 현금급여기준선 행정적용치 대비 인상률	2.65%	2.65%	2.65%	2.65%	2.65%	2.65%	-
2013년 현금급여기준선 (행정적용치)	468,453	797,636	1,031,862	1,266,089	1,500,315	1,734,541	1,968,768

다음은 2013년 최저생계비에 1.5%의 물가상승률 추정치를 적용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2014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선이다. 2014년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630,820원, 현금급여기준선은 1,319,089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행정적용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선 대비 각각 5.5%, 4.2% 인상된 것이다. 정부발표 2014년 최저생계비를 가구규모별로 살펴보면 1인가구 603,403원~6인가구 2,234,223원이며, 현금급여기준선의 경우 1인가구 488,063원~6인가구 1,807,152원이다.

〈표 10-3-5〉 2014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선(중생보위 결정)

(단위: 원,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균등화지수	0.37	0.63	0.815	1	1.185	1.37	-
2014년 최저생계비 (중생보위 결정치)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
2014년 타법지원액 (중생보위 결정치)	115,340	196,391	254,061	311,731	369,401	427,071	-
2014년 현금급여기준선 (중생보위 결정치)	488,063	831,026	1,075,058	1,319,089	1,563,120	1,807,152	-
2013년 발표치 대비 인상률	4.19%	4.19%	4.19%	4.19%	4.19%	4.19%	-
2013년 현금급여기준선 (행정적용치)	468,453	797,636	1,031,862	1,266,089	1,500,315	1,734,541	1,968,768

주: 1)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1인 증가시마다 266,251원(6인가구와 5인가구의 차액)씩 증가
 2)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선: 1인 증가시마다 218,022원(6인가구와 5인가구의 차액)씩 증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정부발표 2013년 및 2014년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선과 인상률을 정리하면 다음 〈표 10-3-6〉과 같다.

〈표 10-3-6〉 2013년 및 2014년 표준가구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선(중생보위 결정)

(단위: 원, %)

구분	2013년 행정적용 최저생계비	2013년 행정적용 현금급여기준선	2014년 최저생계비	2014년 현금급여기준선
금액	1,546,399	1,266,089	1,630,820	1,319,089
인상률	-	-	5.5	4.2

주: 인상률은 2013년도 현재 행정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선 대비 인상률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된 2013년과 2014년 최저생계비에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가구규모별로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기준선을 산출한 결과는 각각 아래 〈표 10-3-7〉과 〈표 10-3-8〉에 제시되어 있다.

〈표 10-3-7〉 2013년 및 2014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단위: 원)

구분	2013년 행정적용 최저생계비	2013년 중생보위 결정 최저생계비	2014년 중생보위 결정 최저생계비
1인 가구	572,168	594,486	603,403
2인 가구	974,231	1,012,233	1,027,417
3인 가구	1,260,315	1,309,476	1,329,118
4인 가구	1,546,399	1,606,719	1,630,820
5인 가구	1,832,482	1,903,962	1,932,522
6인 가구	2,118,566	2,201,205	2,234,223

〈표 10-3-8〉 2013년 및 2014년 가구규모별 현금급여기준선

(단위: 원)

구분	2013년 행정적용 현금급여기준선	2013년 중생보위 결정 현금급여기준선	2014년 중생보위 결정 현금급여기준선
1인 가구	468,453	480,850	488,063
2인 가구	797,636	818,745	831,026
3인 가구	1,031,862	1,059,170	1,075,058
4인 가구	1,266,089	1,299,595	1,319,089
5인 가구	1,500,315	1,540,020	1,563,120
6인 가구	1,734,541	1,780,445	1,807,152



제11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제1절 결론

제2절 최저생계비 활용의 기본원칙

제3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활용방안

제1절 결론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구성하는 중요 요소이며, 국가 및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공식적으로 다섯 번째로 계측되는 것이며, 기존 최저생계비 계측과 달리 마지막 계측이 될 수도 있다. 현 정부 들어 맞춤형급여체계의로 개편논의가 진행되면서 선정 및 급여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에서 상대적 방식으로 전환을 계획함에 따라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최저생계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는 기존 최저생계비연구와 같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되었다. 첫째, 1999년 처음 계측 때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온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고, 가구유형별 추가비용을 계측 산출하는 것이다. 둘째, 2014년 최저생계비 발표를 위한 기본적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다. 즉 우리나라의 인구규모가 변경됨에 따라 표준가구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지난 2010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검토결과로서 상대적 방식의 최저생계비 도입시점, 지역별 점유형태별 최저주거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2014년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라 볼 수 있다.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토대로 발표되는 2014년 최저생계비의 경우에는 선행 연구들과 달리 이미 2010년 제3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는 통계청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13년 최저생계비가 결정되면 2014년 최저생계비는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전물량 방식의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이 주가 되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미 선행연구들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6항)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로서 국민들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수준이다. 따라서 최저생계비는 국민들이 안정적인 건강상태

를 유지하면서 생활을 영유해나가고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준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단순히 의식주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 문화적인 측면을 함께 포함하여 계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김미곤·여유진 외, 2010).

2013년 최저생계비 연구에서는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이후 변화된 3년간의 생활의 질을 전물량방식의 마켓 바스켓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표준가구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으로 1, 2인가구가 다수를 이루지만, 최저생계비가 지니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그리고 규범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4인 표준가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각 비목별 최저생계비를 산정함에 있어 여러 기준과 통계적 기법 등을 활용하여 가장 합리적인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식료품비는 표준가구 연령변화에 따른 영양권장량 변화를 마켓 바스켓에 반영하였으며, 마켓 바스켓 구성에 있어 연구자들의 자의적(恣意的)인 필수품 선정을 막기 위해 선행연구들과 같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및 본연구의 실태조사자료를 통해 각 품목에 대한 소득탄력성, Logistic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검토요구 중 하나인 지역별 점유형태별 최저주거비 산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전국단위 최저주거비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지역 간, 주거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ANOVA분석, T-Test 등을 실시하였다. 이외 전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와 비교를 위해 주관적, 반물량, 여타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등 기존에 연구되어 왔던 방법을 이용하여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고 비교·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계측된 2013년 최저생계비의 연구진 안은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조에 의해 최저생계비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안전심의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두고, 최저생계비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진이 계측한 최저생계비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전에 2012년 여섯 번의 (소)전문위원회(1, 2소위원회 각 3회), 2013년 전체 전문위원회 4차에 걸쳐 표준가구, 가구균등화지수, 지역구분,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 등에 대하여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쳤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3년 8월 보건복지부 장관이 2014년도 최저생계비를 발표하였다.

연구진의 연구내용과 발표된 전물량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핵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의 전물량 방식의 최저생계비 산출은 1999년 이후 진행된 최저생계비 계측방식과 동일하게 먼저 표준가구를 결정한 후 표준가구의 비목별·품목별 최저생계비를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에 가구균등화지수를 곱하여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최저생계비 계측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기하였다.

지역별 최저생계비는 전국 동일한 표준가구의 지역별 최저생계비를 산출한 후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즉, 마켓 바스켓 구성시 지역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품목에 대하여 지역간 차이를 반영하여 전국적으로 세 가지 기준인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최저생계비를 계측한 후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였다. 이외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 등의 가구유형별 추가비용은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에서 추가비용 또는 감소비용을 산출하여 장애인과 노인의 경우 1인당 추가비용을 산출하고, 한부모가구의 경우 가구단위로 추가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지역별 및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는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만 진행되었으며, 이후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그 연구진의 연구결과만을 담고 있다.

전물량방식 최저생계비 설정을 위한 표준가구는 2012년 전문위원회 논의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존 유형인 4인가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표준가구는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및 가계동향조사, 본 연구원의 「2011년 국민생활실태조사」에서 최빈 가구규모, 최빈가구의 가구주 나이를 추출한 후 부부간의 연령차, 첫아이 출산시기, 자녀간 연령차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준가구 세부 변화를 보면 부와 모의 연령은 2세, 1자와 2자의 연령은 1세 씩 상향조정되었다.

〈표 11-1-1〉 2013년 최저생계비의 표준가구와 2007·2010년 최저생계비의 표준가구

구분	최빈 가구규모	부	모	1자	2자
2007년	4인(27.3% ¹⁾)	40세	37세	11세	9세
2010년	4인(26.6% ¹⁾)	40세	37세	11세	9세
2013년	4인(22.5% ¹⁾)	42세	39세	12세	10세

주: 1) 4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표준가구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계측한 2013년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 4인가구가 1,642,173원으로 비목별로 살펴보면 식료품비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주거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주거비의 경우 과거 연구와 달리 국토교통부의 최저주거기준이 늘어나고 최근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다른 계측년도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었다. 연구진안을 토대로 전문위원회 심의 및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표한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 4인가구가 1,606,719원으로 결정되었다. 동 금액은 2013년 행정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중소도시 4인가구 최저생계비 1,546,399원보다 약 6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결정 최저생계비와 현재 적용하고 있는 최저생계비의 차이는 과거 3년간의 생활의 질의 변화로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이후 행정적용 최저생계비는 물가의 변화만을 반영하여 산출되었기 때문이다.

〈표 11-1-2〉 2013년 최저생계비 연구진안과 중생보위안 비교(중소도시 4인가구 기준)

(단위: 원, %)

구분	연구진안		중생보위 결정안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식료품비	608,963	37.1	596,476	37.1
주거비	307,283	18.7	286,331	17.8
수도광열비	114,461	7.0	114,461	7.1
가구집기비	46,267	2.8	45,653	2.8
피복신발비	62,246	3.8	66,851	4.2
보건의료비	68,636	4.2	67,247	4.2
교육비	74,020	4.5	73,803	4.6
교양오락비	35,418	2.2	31,018	1.9
교통통신비	151,144	9.2	151,144	9.4
기타소비지출	90,237	5.5	90,237	5.6
비소비지출	83,498	5.1	83,498	5.2
합계	1,642,173	100.0	1,606,719	100.0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가 결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에 연구진이 계측한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산정하였다. 하지만 2013년 전문위원회 및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에서 2014년 이후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전환이 예정되어 있으며, 동 논의 속에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에 적용될 새로운 가구균등화지수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어 새롭게 가구균등화지수를 설정하기 보다는 정책적 안정성 측면에서 기존 적용되고 있던 가구균등화지수를 2014년까지 활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따

라서 연구진이 현재 적용하고 있는 OECD 가구균등화지수가 지니고 있는 한계¹³⁴⁾를 고려하여 「2011년 국민생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추정된 것은 연구결과로서 활용되었다. 추정한 결과는 <표 11-1-3>과 같다.

<표 11-1-3> 연구진안 가구균등화지수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가구균등화지수

구 분	연구진 제시 가구균등화지수	2013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가구균등화지수 (OECD기준)
1인가구	0.40077	0.3700
2인가구	0.63306	0.6300
3인가구	0.82717	0.8150
4인가구	1.00000	1.0000
5인가구	1.15856	1.1850
6인가구	1.30661	1.3700

2013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는 기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한 OECD기준 가구균등화 지수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표준가구 최저생계비를 곱하여 산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 2014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추정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먼저 2013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 1,606,719원에 물가상승률 1.5%를 적용하여¹³⁵⁾ 2014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 1,630,820원을 산출하였다. 그 다음 동 4인가구 최저생계비에 OECD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하여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추정하였다.

<표 11-1-4>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2013년 및 2014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단위: 원)

구분	2013년 최저생계비 ¹⁾	2014년 최저생계비
1인가구	594,486	603,403
2인가구	1,012,233	1,027,417
3인가구	1,309,476	1,329,118
4인가구	1,606,719	1,630,820
5인가구	1,903,962	1,932,522
6인가구	2,201,205	2,234,223

주: 1) 2013년 중생보위 의결 최저생계비이므로 행정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최저생계비와는 차이가 있음.

134) 현행 가구균등화지수는 OECD의 규범적 지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엄밀한 의미에서 규모의 경제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자세한 논의는 제6장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135)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에 의해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2014년 최저생계비의 산출을 위해 전년동기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산출한 결과 1.5%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 이를 2013년 계측값에 적용하여 2014년 최저생계비를 계산하였다.

공공부조제도에 적용되는 급여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보충성의 원리에 의해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초보장제도도 이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외에 다른 법률에서 제공되는 급여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타법적용 우선의 원칙, 최후 보장의 원리).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보충성의 원리와 타법적용 우선의 원리에 의해 전물량방식의 최저생계비에서 타법지원액을 제외한 현금급여기준선¹³⁶⁾을 산출하고 있다. 현물급여 및 타법지원액은 산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 결정되었다. 첫째, 최저생계비에 포함된 항목 중 수급자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항목이어야 한다. 만약, 보편적으로 지원되지 않는 경우를 타법지원액에 포함하여 현금급여에서 제외하면, 법 제7조 ②항의 규정에 의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와 소득인정액의 합계가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둘째, 욕구별 급여가 가능한 항목(예, 의료, 교육)은 타법지원액에 포함한다. 동 욕구별 급여가 가능한 항목은 타법지원액에 포함하여 현금지원을 하지 않는 대신에 욕구대상자에게 현물 또는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원칙하에 2013년 현금급여기준선을 추정한 후 2014년 현금급여기준선은 2013년 현금급여기준선에 최저생계비 상승률 1.5%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1-1-5>와 같다.

<표 11-1-5> 2013년 및 2014년 현금급여기준선

(단위: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13년 발표치 ¹⁾	468,453	797,636	1,031,862	1,266,089	1,500,315	1,734,541
2013년 계측치 ²⁾	480,850	818,745	1,059,170	1,299,595	1,540,020	1,780,445
2014년 계측치 ³⁾	488,063	831,026	1,075,058	1,319,089	1,563,120	1,807,152

주: 1) 2013년 행정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현금급여기준선.

2) 2013년 중생보위 결정 현금급여기준선.

3) 2013년 중생보위 결정(2013년 중생보위 결정 현금급여기준선에 소비자물가상승률 1.5% 인상) 현금급여기준선.

136) 현금급여기준선은 소득인정액이 '0'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급여액을 의미한다.

제2절 최저생계비 활용의 기본원칙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는 각종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선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외의 영역(압류, 파산제도 등)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 제도의 1차적인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최저생계비 활용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이 감안되어야 한다.

첫째, 최저생계비는 기초보장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는 공공부조의 개별화(individualization)의 원칙과 관련된다. 개별화의 원칙은 지역적 차이, 개별 가구특성, 그리고 가구 구성원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급여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2013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공식적인 최저생계비는 가구규모별 전세기준 최저생계비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공식적인 최저생계비를 적용함으로써 기초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즉, 지역별로는 대도시, 주거점유형태별로는 월세가구의 경우 실제로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기초보장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은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 첫째는 선정기준으로 지역별 가구규모별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를 제도에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현재의 공식적인 최저생계비 즉,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선정기준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도 운영의 유연성이 모색되어야 한다. 예컨대, 월세 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세와 월세간의 최저생계비 차액을 감(-)해 주면, 월세로 인하여 최저생활을 할 수 없던 가구들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둘째는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안이다. 2014년 10월부터 맞춤형급여가 도입되어 주거급여를 분리할 예정이다. 주거급여에서 지역을 구분하고, 점유형태를 구분하여 선정·급여한다면 지역 및 점유형태에 따른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보충성(complement)의 원칙이 견지되어야 한다. 이는 공공부조 급여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며, 급여가 수급자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는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감액을 보충하여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소득인정액의 합리적 산정과 소득파악의 정확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 자산조사(means test) 정확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

셋째, 포괄성(comprehensiveness) 및 적절성(adequacy)의 원칙이다. 이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필요(needs)에 대응하여 포괄적이고 적절한 수준의 급여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현금급여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각종 의료·주거·케어 등의 서비스도 포함된다. 특히, 기본욕구(basic need)의 충족을 일차적 목표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에서는 이러한 급여의 포괄성과 적절성은 급여수준 설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의 수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수준'을 어떻게 측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며 관건이 되고 있다. 또한, 포괄성과 적절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제기될 수 있다. 예컨대, 장애인 추가비용의 경우 장애인 정책으로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 최종적인 사회안전망(last social safety net) 기초보장제도에서 보장하는 방안이다.

넷째, 형평성(equity)의 원칙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급자 간의 수평적 형평성과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수직적 형평성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즉, 동일한 생활수준에 있는 수급자들은 동일한 처우와 급여를 받아야 하며, 생활수준에 차이가 있는 수급자 간에는 상이한 처우와 급여를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수급자가 급여를 받은 후의 생활수준이 비수급자의 생활수준을 크게 역전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의료급여의 수급이 이러한 생활수준 역전현상을 발생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형평성은 공공부조의 목표 중의 하나인 노동유인(work incentive)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최저생계비 및 사회복지제도의 급여수준 설정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의 산정 및 선정과 급여의 설계에 있어 이러한 생활수준 역전현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적 편의성(convenience)의 원칙이다. 대상선정의 복잡성과 급여의 다양성, 그리고 다른 사회복지제도와의 연계성 등과 관련해서 절차와 내용이 복잡해짐에 따라 행정적 편의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좋은 의도로 도입된 제도라 할지라도 실행이 매우 어렵거나 실행상 행정적 통일성이 결여된다면 효과성과 효율성이 떨어

지게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제도의 구체적 실행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제3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활용방안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핵심적인 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가구 및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면서 급여를 제공하는 급여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고자하는 가구 및 사람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는데, 이 소득인정액의 기준이 되는 것이 최저생계비인 것이다.

또한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내로 한정되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지제도와 국가 통계의 기준으로서도 활용도가 매우 높다. 먼저 다른 복지제도의 기준으로서의 활용방안을 보면 현재 정부는 약 290여개의 복지사업을 여러 부처에서 나누어 지원하고 있다. 동 복지사업들은 현금 및 현물서비스 등으로 구성되며 대상자도 전체에서 특수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보훈대상자 등) 등으로 구분되어 지원되고 있지만 이중 소득 및 재산기준을 활용하는 제도들의 경우 최저생계비를 선정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즉 직접적으로 최저생계비를 적용하기도 하지만 최저생계비의 120% 또는 150%와 같이 최저생계비의 일정수준을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적으로는 국내의 빈곤수준과 생활수준을 점검하는데 있어 절대적 빈곤기준선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추정된 지표들은 국내는 물론 해외 주요기구들에 보고되어 외국과의 비교를 제공하는 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최저생계비 측정방식인 전물량방식은 국내에서 오랜기간 유지되어 오고 국민들의 삶의 질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과학성, 합리성, 시의적절성 등의 성격을 지닌 방식으로 외국의 공공부조 선정기준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비교시 학문적으로 행정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방식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현행 최저생계비 기준은 국내적으로는 다른 복지제도의 선정기준과 급여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면서 통계적인 활용도에 있어 국내적으로는 주기적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실태 변화를 반영하여 필요한 복지제도를 만들어내고 비빈곤층의 생활양

태와의 비교가능하며, 국제적으로는 절대적 빈곤수준을 보여주는 통계자료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전물량방식을 통해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고 저소득층의 생활변화를 장기간 보여주고 있는 유일한 통계자료라는 점에서 외국과의 비교연구도 가능할 것이다.

내년에는 현재의 최저생계비가 상대적 방식인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될 예정에 있다. 따라서 향후 기초보장제도에서 최저생계비가 지니는 위상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빈곤층의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빈곤층에 필요한 생계비 수준은 빈곤실태 파악과 더불어 주기적으로 조사될 필요가 있다. 이미 이는 맞춤형 급여체계 변경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와 토론이 이루어지고 전문가들 역시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 국내문헌

- 고용노동부(2010). 주 40시간제 도입매뉴얼.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
- 고용정보원(2009). 2009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 김문길·김태완·박신영·이병희·임병인·이서현(2011). 2011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곤·여유진·양시현·강성호·김태완·이경민(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곤·여유진·이태진·양시현·최현수·김태완·박지혜·김용희·이선우·김진욱·석재은(2005).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곤·여유진·최현수·양시현(2006). 최저생계비 계측대안 모색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곤·여유진·김태완·손창균·최현수·이선우·김계연·송치호·오지현·이서현·신재동(2010).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숙·김성천·정익중·이혜원·오승환·이주연·신어진(2009). 아동·청소년 복지수요에 근거한 복지공급체계 재편방안 연구 II: 지역유형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곤(2011). 공공부조의 한계와 대안.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농산물 유통정보. <http://www.kamis.co.kr/customer/main/main.do>
- 박순일·김미곤·이수연·정희태·이경신·하길웅(1994).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영범·조우현(1989). 1989년도 표준생계비. 한국노동연구원.
- 박찬용·김미숙(1998). 한국의 빈곤현황과 정책과제. UNDP·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배무기·박덕제·조우현(1987). 최저임금 적용대상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산출모형개발연구.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식품영양성분데이터베이스. <http://www.foodnara.go.kr/kisna/index.do>.
- 안창수·이성기·이충섭·이필도·김미곤·서정목·박성준·이태원(1989).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에너지경제연구원(2013), 2012 지역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 윤석범(1995). 한국의 貧困. 세경사.
- 이선우(2008). 장애인 가구의 장애종류 및 장애정도 별 추가비용 계측: 삶의 수준 방식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정책. 32:7-26.
- 이성재 역(2010). 빈곤의 역사: 교수대인가 연민인가. 게레벡. 브로니슬라프 저. 길.
- 이정우(1997). 소득분배론. 서울: 비봉출판사.
- 이준구(2003). 소득분배의 이론과 현실. 서울: 다산출판사.
- 여유진·김미곤·김태완·손창균·최현수·이선우·김문길·김계연·오지현·송치호·서봉균·유현상·김은정(2007).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유진(2012). 역사적 전개과정. 정기혜 외 편.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호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태진 외(20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태진·정홍원·강신욱·김진수·김태완·남상호·손창균·여유진·최현수·황덕순·최준영·이주미·박형준·윤수경·유진영·김상은·박은경(2011). 빈곤정책 선진화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주·강신욱·박광수·손병돈·박수진. 2012. 에너지복지 현황분석 및 체계화 방안. 지식경제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혜연·이용교·이향란·윤혜정(2009).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문제와 복지지원방안 연구: 빈곤한 한부모가정·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현준(1986). 한국도시 부문의 표준생계비. 한국개발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2012). 2012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해설. 2012.3.
- 정성미(2013). 2012년 임금동향과 2013년 전망. 노동리뷰. 2013년 4월호. pp.37-47.
- 정진호·김용현(2003). 2003년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산출. 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 조영훈(2011). 캐나다 복지국가 연구. 서울: 집문당.
- 전력거래소(2011). 2011년 가전기기 보급률 및 가정용전력 소비자행태 결과보고서. 전력거래소.
- 지그문트 바우만 지음. 이수영 옮김 (2010). 새로운 빈곤: 노동. 소비주의 그리고 뉴푸어 천지인.
- 최저임금위원회(2012).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보고서. 2012.5.
- 학교알리미. <http://www.schoolinfo.go.kr/index.jsp>.
- 한국노동연구원(2003). 2003년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산출.
- 한국노동조합총연맹(2013). 2013년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 농업전망 20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영양학회(2005).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제8차 개정. 한국영양학회.
- 한국영양학회(2009). 식품영양소 함량 자료집. 한국영양학회

한국영양학회 외(2010).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개정판. 한국영양학회
 한국통계학회(2012. 5).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보고서. 최저임금위원회.

2. 국외문헌

- ACOSS(2012). *Poverty in Australia*. 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
- ADB(2013). *Asian Development Outlook*. ADB.
- Alex Barton, Rosemary Drummond, Peter Matejic(2010). *Low-Income Dynamics 1991-2008(Great Britain)*. Department for Work & Pensions.
- Australian Government(2013), *A guide to Australian Government payments*, Australia. Centrelink
- Barten, A.(1964). Family composition, prices, and expenditure patterns. *Economic analysis for National Economic Planning*. Ed. by P. Hart et al., 16th Symposium of Colston Society. London.
- Bavier, R.(2010). From NRC to SPM: *What has changed?*. Retrieved from <http://www.irp.wisc.edu/research/povmeas/SPMThresholdWhatHasChanged.pdf>.
- Behrendt, Christina(July 2001). "Minimum Income Schemes and the Alleviation of Poverty? a Flawed Safty Net?". *Paper prepared for the RC19 Conference on Old and New Social Inequalities: What Challenges for the Welfare States*. Oviedo. Septermber 6-9.
- Berthoud, R., Lakey, J. and McKay, S.(1993). *The economic problems of disabled people*. London: Policy Studies Institute.
- Blank, R.M.(2008). How to improve poverty measurement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27(2): 233-254.
- Casas, Ramon Pena(2005). Setting Minimum Social Standards at EU Level: Main Issues. *Working Paper I: Setting Minimum Social Standards across Europe* (VS/2005/0376). European Commission.
- Danziger, S., van der Gaag, M. Taussig, and Smolensky, E.(1984). The Direct Measurement of Welfare Levels: How Much Dose It Cost to Make Ends Meet?.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6(3): 500-505.

- David Johnson(1987). The calculation and use of poverty lines in Australia. *Australian Economic Review* Volume 20. Issue 4. pp. 45 - 55.
- Deaton, A. and Muellbauer, J.(1980). *The Economics of Consumer Behavior*. Cambridge.
- Donald Hirsch(2013). *A Minimum income standards for the UK in 2013*. Joseph Rowntree Foundation
- Fisher, G.M.(1997). The development and history of the U.S. poverty thresholds: A brief overview. *Social Security Bulletin*. 55(4). 3-14. Retrieved from <http://aspe.hhs.gov/poverty/papers/hptgssiv.htm>.
- Goedhart, T., Halberstadt, V., Kapteyn, A. and Van Praag(1977). The Poverty Line: Concept of Measurement. *Journal of Human Resources*. 12.
- Haider Alzubaidi, Jane Carr, Rachel Councell, George Johnson(2013). Households Below Average Income, 1994/95-2011/12. Department for Work & Pensions.
- Harris, K.(2010. April 28). *Acting on the data: The measuring American poverty act*[Web blog message]. Retrieved from <http://www.theshriverbrief.org/2010/04/articles/economic-justice/acting-on-the-data-the-measuring-american-poverty-act/>.
- Hatfield, M., Pyper, W. and Gustajtis, B.(2010). First Comprehensive Review of the Market Basket Measure of Low Income. *Applied Research Branch paper*. Human Resources and Skills Development Canada.
- Henderson, R. F., A. Harcourt and R.J.A. Harper(1970). *People in Poverty: A Melbourne Survey*. Cheshire for the Institute of Applied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 IMF(2013). *World Economic Outlook*. IMF
- I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1998). Revising the Poverty Measure. *Focus*. 19(2).
- KilPatrick, R.(1973). The Income Elasticity of the Poverty Lin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55.
- Kuklys, W.(2004). A monetary approach to capability measurement of the disabled - Evidence from the UK. *Discussion Papers on Strategic Interaction 2004-08*. Max Planck Institute for Research into Economic Systems.
- Large, P.(1991). Paying for the additional costs of disability in G. Dalley (ed.). *Disability and Social Policy*. London: Policy Studies Institute.
- Lluch, C.(1973). Extended linear expenditure system. *European Economic Review*.

- McLachlan, R., Gilfillan, G. and Gordon, J.(2013). *Deep and Persistent Disadvantage in Australia*. Australia Government.
- Melbourne Institute of Applied Economic and Social Research(March quarter 2012). *Poverty Lines: Australia* ISSN 1448-0530 MARCH QUARTER 2013.
- Murphy, Brian, X. Zhang and C. Dionne(2010). *Revising Statistics Canada's Low Income Measures*. Statistics Canada. Income Research Paper Series. 75F0002MIE.
- National Council of Welfare(2010). *Welfare Incomes 2009*. National Council of Welfare.
- National Research Council(1995). *Measuring poverty: A new approach*. National Academy Press.
- OECD(2011). *Doing Better for Families*. OECD Publishing.
- _____(2013). *OECD Economic Outlook*. OECD Publishing.
- Osberg, Lars(2007). *The Evolution of Poverty Measurement: with special reference to Canada*. Statistics Canada.
- Prais, S. J. and Houthakker, H. SI(1955). *The Analysis of Family Budge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ainwater, L.(1974). *What Money Buys*. New York: Basic Books.
- Ross, David P., Katherine J. Scott and Peter J. Smith(2000). *The Canadian fact book on poverty 2000*. Ottawa: Canadian Council on Social Development.
- Rowntree(1901), *Poverty: A Study of Town Life*. Macmillan, London.
- Sarlo, C. A(1992). *Poverty in Canada*. The Fraser Institute.
- Saunders(1998). *Defining Poverty and Identifying the Poor: Reflections on the Australian Experience*. SPRC Discussion Paper. No. 84.
- Sen, A.(1998). *Development as Freedom*. Oxford University Press.
- Short, K.(2011). The research supplemental poverty measure: 2010. *Current Population Reports*. 60-241.
- _____(2012). The research supplemental poverty measure: 2011. *Current Population Reports*. 60-244.
- Smith, N., Middleton, S., Ashton-Brooks, K., Cox, L., and Dobson, B.(2004). *Disaled people's costs of living: More than you would think*. Joseph Rowntree Foundation.

- Statistics Canada(2012a). *Low Income in Canada: A Multi-line and Multi-index Perspective*. Statistics Canada.
- _____ (2012b). *Low Income Lines. 2010 to 2011*. Statistics Canada.
- _____ (2012c). *Market Basket Measure Thresholds(2008 base). for reference family*. by Market Basket Measure region and component. 2010 constant dollars. Statistics Canada.
- _____ (2012d). *Table 202-0804 - Persons in low income*. by economic family type. annual. Statistics Canada.
- Tibble, M.(2005). *Review of existing research on the extra costs of disability*. Working Paper No.21.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London.
- Townsend(1954), *Measuring Poverty*.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 United States Census Bureau(2011). *The research supplemental Poverty measure: 2010*.
- van Praag, Bernard & Goedhart, Theo & Kapteyn, Arie(1980). The Poverty Line: A Pilot Survey in Europe.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MIT Press. vol. 62(3): 461-65.
- van Praag, Bernard M S & Hagenaars, Aldi J M & van Weeren, Hans(1982). Poverty in Europ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Research in Income and Wealth. vol. 28(3): 345-59.
- van Praag, Bernard M S & Spit, Jan S & van de Stadt, Huib(1982). A Comparison between the Food Ratio Poverty Line and the Leyden Poverty Line.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MIT Press. 64(4): 691-94.
- Veit-Wilson, John(1998). *Setting Adequacy Standards: How governments define minimum incomes*. Policy Press.
- Watt, H.(1965). An Economic Definition of Poverty in D.P. Moynihan. *On Understanding Poverty*. Basic Book Inc. York.
- Whiteford, P.(1985). *A family's needs: Equivalence scales. poverty. and social security*. Development Division. Dept. of Social Security (Canberra)
- Wolfson, M. C. and Evans, J. M(1989). *Statistics Canada's Low Income Cut-Offs Methodological Concerns and Possibilities*. Research Paper Series. Statistics Canada Analytical Studies Branch.
- Zaidi, A. and Burchardt, T.(2003). *Comparing incomes when needs differ:*

- Equivalisation for the extra costs of disability*. CASE paper No. 64. Feb 2003.
- Ziguras, S.(2010). Australia Social Security Policy: Doing More with Less? in A. McClelland & P. Smyth (Eds.). *Social Policy in Australia: Understanding for Action* (2nd ed.. pp. 158~175): Oxford University Press.
- 生活保護制度研究會(2012), 保護のてびき. 第一法規.
- 厚生統計協會(2012), 國民の福祉の動向 2012/2013.

3. 통계자료

- 농림수산식품부(2012). 농림수산물 주요통계.
- 통계청(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2% 표본).
- _____(각년도). 가계동향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 _____. 2011년 4인가구 심층조사.
- _____. 2013년 가격조사.
- _____. 2013년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기초조사(장애인가구용).
- _____. 2013년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기초조사(노인가구용).
- _____. 2013년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기초조사(한부모가구용).

4. 보도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년 상반기 건강보험주요통계.. 2013. 9. 13.
- 국세청. 농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안내. 2012.01.11.
- 한국은행. 2010년 하반기 경제전망. 2010. 7. 12.



부 록

부 록 <<

부록 1. 2013년 표준가구 마켓 바스켓	501
부록 2. 가계지출 품목별 소득탄력성(2012)	572
부록 3. 품목별 지출액의 지역별 차이 유무(2012)	586
부록 4. 비목별 지출비율 추이(1999~2012)	600
부록 5. 가계지출 품목별 지출액 및 구성비(2012)	615
부록 6.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비율	630
부록 7.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 표본추출 및 조사방법 ...	632
부록 8.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표	650

[부록 1]

2013년 표준가구 마켓 바스켓

〈부표 1-1〉 최저 식료품비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년수	단가(원)	수량
식료품					
가정식비용					
가정식 비용(외식 무)	전국		1월	5,674원	91.25회
가장외식으로 절감	전국		1월	1,621원	21.73회
가족단위 외식으로 인한 절감	전국		1월	5,674원	0.33회
12세급식절감분	전국		1월	1,621원	16.08회
10세급식절감분	전국		1월	1,148원	16.08회
수련회절감분(12세)	전국		1월	1,621원	0.58회
수련회절감분(10세)	전국		1월	1,148원	0.58회
친지방문절감분	전국		1월	5,674원	0.67회
외식비					
가장중식	전국		1월	4,000원	21.73회
12세급식	전국		1월	2,425원	16.08회
10세급식	전국		1월	2,425원	16.08회
가족단위 외식	전국		1월	40,000원	0.33회

〈부표 1-1〉 최저 식료품비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계속)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필수품 선정원칙	지역별 차등이유	단가 설정기준	내구년수,수량 설정기준
608,963원	608,963원	608,963원				
430,721원	430,721원	430,721원				
517,779원	517,779원	517,779원	영양학적기준			
-35,223원	-35,223원	-35,223원				
-1,891원	-1,891원	-1,891원			생일(연간 4회)	
-26,075원	-26,075원	-26,075원			학교알리미 사이트(2013.4)	
-18,470원	-18,470원	-18,470원			학교알리미 사이트 (2013.4)	
-946원	-946원	-946원			1년 1회 7끼 한명 (7/12=0.58회)	
-670원	-670원	-670원			1년 1회 7끼 한명 (7/12=0.58회)	
-3,783원	-3,783원	-3,783원			6개월 1회 (=8/12=0.67회)	
178,242원	178,242원	178,242원				
86,905원	86,905원	86,905원			실태조사 최빈값	
39,002원	39,002원	39,002원			학교알리미 사이트 (2013.4)	
39,002원	39,002원	39,002원			학교알리미 사이트 (2013.4)	
13,333원	13,333원	13,333원			가족 생일(4회), 실태조사	

품목	품질 및 시기	규격 및 단위	구입량/일	g당가격	가정식비용/일	가격자료
1끼당 비용					5,674원/일	
1일 가정식 비용					17,023원/일	
곡류 및 식빵					3,016원/일	
쌀	백미	20kg(1포)	750.g/일	2.190.원/g	1,643원/일	농산물유통정보
찰쌀	백미	1kg(1포)	25.g/일	3.060.원/g	77원/일	농산물유통정보
보리	통보리	1kg(1포)	20.g/일	2.546.원/g	51원/일	소비자물가
콩	백태(국산)	1kg(1포)	9.g/일	6.165.원/g	55원/일	소비자물가
팥	적두(수입)	1kg(1포)	5.g/일	5.350.원/g	27원/일	시장조사
식빵	중품	450g(1봉지)	15.g/일	5.149.원/g	77원/일	소비자물가
밀가루	중력분	3kg(1포)	80.g/일	1.144.원/g	92원/일	소비자물가
국수	소면	900g(1봉지)	75.g/일	3.010.원/g	226원/일	소비자물가
라면	봉지라면	1봉(120g)	120.g/일	4.825.원/g	579원/일	소비자물가
당면	중품	500g(1봉지)	12.g/일	8.000.원/g	96원/일	소비자물가
만두	냉동만두	450g(1봉지)	15.g/일	6.311.원/g	95원/일	시장조사
육류					1,318원/일	
소고기(갈비)	수입소고기(호주)	100g	20.g/일	17.209.원/g	344원/일	소비자물가
돼지고기	삼겹살(냉장)	100g	60.g/일	8.483.원/g	509원/일	소비자물가
닭고기	육계	1kg	50.g/일	5.123.원/g	256원/일	농산물유통정보
소시지	시장제품	500g(1개)	7.g/일	5.286.원/g	37원/일	소비자물가
햄	시장제품	185g(1개)	8.g/일	8.935.원/g	71원/일	소비자물가
튀김닭		800g(1마리)	10.g/일	9.975.원/g	100원/일	시장조사
낙농품					1,906원/일	
우유	현우유	1000ml(1개)	500.g/일	2.321.원/g	1,161원/일	농산물유통정보
유산균발효유	중품	65ml(1병)	90.g/일	2.523.원/g	227원/일	소비자물가
달걀		650g(10개)	195.g/일	2.658.원/g	518원/일	농산물유통정보
어개류					1,317원/일	
갈치	냉동, 약60cm, 11년 8월	250g(1마리)	6.g/일	29.800.원/g	179원/일	농산물유통정보
명태	동태, 약40cm	400g(1마리)	15.g/일	5.672.원/g	85원/일	소비자물가
고등어	약30cm	350g(1마리)	12.g/일	5.686.원/g	68원/일	농산물유통정보
꽂치	약30cm	160g(1마리)	8.g/일	3.656.원/g	29원/일	소비자물가
냉동오징어	약25cm	250g(1마리)	12.g/일	4.652.원/g	56원/일	소비자물가
홍합	중품, 안간 것(수입)	400g(1근)	4.g/일	9.900.원/g	40원/일	시장조사
복어	복어포	50g(1봉지)	2.g/일	45.200.원/g	90원/일	시장조사

〈부표 1-1〉 최저 식료품비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계속)

품목	열량 Kcal	단백질 g	비타민A ug RE	비타민D ug	비타민E mg a-TE	비타민C mg	비타민B1 mg	비타민B2 mg	나이아신 mg NE	비타민B6 mg	엽산 ug	비타민 B12 ug
곡류 및 식빵												
쌀	2790.0	48.0	0.0	0.0	1.5	0.0	0.8	0.3	11.3	0.9	183.8	0.0
찰쌀	93.3	1.9	0.0	0.0	0.1	0.0	0.0	0.0	0.4	0.0	6.1	0.0
보리	66.8	2.1	0.0	0.0	0.1	0.0	0.1	0.0	1.1	0.1	7.3	0.0
콩	37.8	3.3	0.0	0.0	0.1	0.0	0.0	0.0	0.2	0.0	28.6	0.0
팥	17.8	1.0	0.0	0.0	0.0	0.0	0.0	0.0	0.2	0.0	9.6	0.0
식빵	42.6	1.2	0.3	0.0	0.2	0.0	0.0	0.0	0.3	0.0	3.5	0.0
밀가루	296.0	9.2	0.0	0.0	0.0	0.0	0.2	0.0	1.4	0.0	12.8	0.0
국수	268.5	6.7	0.0	0.0	0.1	0.0	0.1	0.1	1.4	0.0	16.7	0.0
라면	534.0	9.0	0.0	0.0	2.5	0.0	0.2	0.9	1.6	0.1	28.1	0.0
당면	41.9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만두	32.1	1.4	5.4	0.0	0.1	0.2	0.0	0.0	0.1	0.2	12.1	0.0
육류												
소고기(갈비)	52.6	3.7	2.0	0.2	0.1	0.2	0.0	0.0	0.9	0.1	1.7	0.6
돼지고기	208.8	9.5	0.0	0.0	0.2	0.0	0.3	0.2	0.8	0.0	2.3	0.5
닭고기	90.0	9.5	25.0	0.0	0.2	0.0	0.1	0.1	1.4	0.2	8.4	0.2
소시지	19.0	1.0	0.4	0.0	0.0	0.7	0.0	0.0	0.3	0.0	1.4	0.1
햄	10.5	1.3	0.0	0.1	0.0	3.4	0.0	0.0	0.6	0.0	0.9	0.1
튀김닭	22.5	1.8	2.2	0.0	0.1	0.0	0.0	0.0	0.5	0.0	1.2	0.0
낙농품												
우유	305.0	14.0	260.0	5.0	0.5	0.0	0.3	0.3	2.0	0.1	48.5	2.2
유산균발효유	58.5	1.4	0.0	0.0	0.0	0.0	0.0	0.1	0.0	0.0	28.9	0.3
달걀	271.1	22.2	169.7	5.9	1.4	0.0	0.4	1.3	1.2	0.1	242.8	2.5
어개류												
갈치	6.0	0.7	0.8	0.6	0.0	0.0	0.0	0.0	0.1	0.0	0.1	0.0
명태	10.8	2.4	1.4	0.0	0.1	0.0	0.0	0.0	0.2	0.0	0.6	0.6
고등어	13.0	1.4	1.6	0.8	0.0	0.1	0.0	0.0	0.6	0.0	3.2	0.8
꽂치	6.5	1.0	1.0	0.9	0.0	0.0	0.0	0.0	0.3	0.0	1.8	0.8
냉동오징어	10.6	2.0	0.2	0.0	0.2	0.0	0.0	0.0	0.0	0.0	0.9	0.8
홍합	0.8	0.1	0.3	0.0	0.0	0.0	0.0	0.0	0.0	0.0	0.7	0.1
복어	5.8	1.2	0.0	0.0	0.1	0.0	0.0	0.0	0.2	0.0	0.4	0.1

품목	칼슘 mg	인 mg	마그네슘 mg	철 mg	아연 mg	구리 mg	불소 ug	망간 mg	요오드 ug	셀레늄 ug	몰리브덴 ug	폐기율
곡류 및 식빵												
쌀	30.0	1050.0	0.0	3.0	11.3	0.0	0.0	5.6	0.0	113.3	0.0	0.0
찰쌀	1.0	37.8	5.8	0.6	0.7	0.0	0.0	0.3	0.0	3.8	0.0	0.0
보리	8.6	72.0	26.6	1.1	0.5	0.1	0.0	0.3	0.0	7.5	0.0	0.0
콩	22.1	55.8	0.0	0.6	0.2	0.1	0.0	0.2	0.0	1.7	0.0	0.0
팥	4.1	21.2	0.0	0.3	0.2	0.0	0.0	0.1	0.4	0.2	0.0	0.0
식빵	3.3	12.9	0.0	0.1	0.1	0.0	0.0	0.0	0.0	2.6	0.0	0.0
밀가루	24.8	62.4	20.0	1.2	0.0	0.0	0.0	0.4	0.0	11.7	0.0	0.0
국수	15.0	57.8	0.0	0.8	0.4	0.1	0.0	0.5	0.0	6.2	0.0	0.0
라면	231.6	103.2	0.0	0.8	0.6	0.0	0.0	0.6	0.0	12.8	0.0	0.0
당면	5.6	3.1	0.2	0.4	0.0	0.0	0.0	0.0	0.0	0.3	0.0	0.0
만두	4.7	12.5	0.0	0.2	0.1	0.0	0.0	0.0	0.0	0.0	0.0	0.0
육류												
소고기(갈비)	0.6	32.0	3.2	0.2	0.7	0.0	0.0	0.0	0.0	3.2	0.0	0.0
돼지고기	6.0	98.4	2.4	0.6	1.4	0.0	0.0	0.0	0.0	4.8	0.0	0.0
닭고기	5.0	85.0	0.0	0.5	1.1	0.0	0.0	0.0	25.7	7.2	0.0	0.0
소시지	0.8	14.8	0.0	0.1	0.1	0.0	0.0	0.0	0.0	0.0	0.0	0.0
햄	0.4	26.4	0.0	0.1	0.1	0.0	0.0	0.0	0.0	2.4	0.0	0.0
튀김닭	1.6	12.1	1.6	0.1	0.1	0.0	1.2	0.0	0.0	2.0	0.0	22.0
낙농품												
우유	455.0	415.0	0.0	0.5	2.0	0.0	0.0	0.0	117.5	18.5	0.0	0.0
유산균발효유	35.1	25.2	0.0	0.1	0.1	0.0	0.0	0.0	23.6	2.0	0.0	0.0
달걀	101.4	360.8	19.5	3.3	2.5	0.4	2.0	0.1	49.9	61.8	0.0	0.0
어개류												
갈치	1.8	7.7	0.0	0.0	0.0	0.0	0.0	0.0	2.5	0.0	0.0	33.0
명태	7.2	30.0	0.0	0.0	0.1	0.0	0.0	0.0	0.0	4.3	0.0	0.0
고등어	1.8	16.4	5.4	0.1	0.1	0.0	0.0	0.0	6.2	3.1	0.0	41.0
꽂치	1.9	11.0	0.0	0.1	0.0	0.0	0.0	0.0	0.0	0.0	0.0	43.0
냉동오징어	1.3	0.0	0.0	0.0	0.0	0.0	0.0	0.0	0.0	5.4	0.0	0.0
홍합	0.4	2.3	0.0	0.1	0.0	0.0	0.0	0.0	3.2	0.4	0.0	77.0
복어	4.9	11.6	0.0	0.1	0.0	0.0	0.0	0.0	0.0	2.7	0.0	0.0

〈부표 1-1〉 최저 식료품비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계속)

품목	품질 및 시기	규격 및 단위	구입량/일	g당가격	가정식비용/일	가격자료
멸치	볶음용, 중품	1kg	18.0	14.9	268.2	농산물유통정보
멸치젓	중품	200g(1통)	8.0	15.0	120.0	시장조사
새우젓	중품	500g(1근)	6.0	8.7	52.4	시장조사
생선묵	중품	200g(1봉)	20.0	6.6	132.0	시장조사
참치캔	참치 통조림	150g(1캔)	15.0	13.1	197.0	시장조사
채소					4357.6	
배추	중품	1kg(1포기)	200.0	1.1	220.6	소비자물가
무우	중품	1kg(1개)	150.0	0.5	79.7	소비자물가
파	대파	1Kg	50.0	1.7	87.2	소비자물가
시금치	중품	1kg	50.0	4.6	229.2	농산물유통정보
상추	잎상추	100g	30.0	7.0	210.0	농산물유통정보
콩나물	중간길이	100g	40.0	3.0	121.2	소비자물가
감자	중품	1kg	60.0	2.1	128.2	소비자물가
오이	다다기 중품	1.5kg(10개)	30.0	4.0	120.0	농산물유통정보
당근	중품	1.0kg	35.0	4.9	170.6	농산물유통정보
풋고추	중품	100g	15.0	9.3	139.2	농산물유통정보
양파	중품	1000g	60.0	1.1	64.7	소비자물가
호박	쥬키니 중품	500g(1개)	50.0	1.9	94.1	소비자물가
토마토	중품	1kg	20.0	4.5	89.6	농산물유통정보
고구마	중품	1kg	25.0	3.1	77.8	소비자물가
도라지	중품	200g(반근)	3.0	13.7	41.2	소비자물가
가지	중품	120g(1개)	8.0	3.9	31.5	소비자물가
양배추	중품	1kg(1포기)	40.0	1.1	45.7	소비자물가
미나리	중품	1kg	12.0	3.0	36.0	농산물유통정보
버섯	느타리버섯	100g	12.0	7.3	88.0	농산물유통정보
깻잎	중품	200g	4.0	15.0	60.0	농산물유통정보
부추	중품	1kg	12.0	4.0	47.6	소비자물가
숙주나물	중품	100g	20.0	2.6	52.0	시장조사
단무지	중품	400g(1봉지)	9.0	5.6	50.6	시장조사
두부	시장제품	500g(1모)	100.0	2.0	202.4	소비자물가
도토리묵	시장제품	400g(1개)	20.0	6.2	124.5	시장조사
김	중품, 검정색	100장(200g)	18.0	34.3	618.0	농산물유통정보
미역	대각	1kg	50.0	22.6	1128.1	농산물유통정보
과실류					1442.4	
사과	쓰가루(12년9월)	2.5kg(10개)	60.0	4.0	240.0	농산물유통정보
배	신고	5kg(10개)	50.0	4.0	198.0	농산물유통정보
복숭아	유명(12년9월)	2.25.kg(10개)	20.0	3.5	70.3	소비자물가
포도	켄벨(12년 11월)	1kg	40.0	3.0	118.4	농산물유통정보

품목	열량 Kcal	단백질 g	비타민A ug RE	비타민D ug	비타민E mg a-TE	비타민C mg	비타민B1 mg	비타민B2 mg	나이아신 mg NE	비타민B6 mg	엽산 ug	비타민B12 ug
멸치	43.0	7.6	0.0	0.0	0.1	0.0	0.0	0.0	1.0	0.1	19.4	7.4
멸치젓	13.4	1.1	4.8	0.0	0.3	0.0	0.0	0.0	0.5	0.0	2.0	0.0
새우젓	2.6	0.4	3.1	0.0	0.0	0.0	0.0	0.0	0.0	0.0	1.7	0.0
생선묵	28.0	2.4	0.0	0.0	0.1	0.0	0.0	0.0	0.1	0.0	2.1	0.1
참치캔	33.3	2.6	0.0	0.9	1.0	0.0	0.0	0.0	1.8	0.1	1.6	0.3
채소												
배추	22.1	2.0	1.8	0.0	0.9	18.4	0.4	0.1	0.7	0.2	214.5	0.0
무우	29.9	1.4	0.0	0.0	0.0	21.4	0.2	0.0	0.7	0.0	57.1	0.0
파	10.5	0.6	52.2	0.0	0.0	8.5	0.0	0.0	0.2	0.0	46.0	0.0
시금치	12.9	1.3	301.0	0.0	0.3	25.8	0.1	0.1	0.2	0.0	126.2	0.0
상추	4.5	0.6	5.9	0.0	0.4	4.8	0.0	0.1	0.1	0.0	17.0	0.0
콩나물	21.2	1.8	0.0	0.0	0.1	2.0	0.2	0.0	0.3	0.0	38.8	0.0
감자	35.5	1.4	0.6	0.0	0.0	4.5	0.1	0.0	0.2	0.1	15.4	0.0
오이	2.6	0.2	8.6	0.0	0.1	2.9	0.0	0.0	0.1	0.0	1.1	0.0
당근	11.5	0.3	395.6	0.0	0.1	2.5	0.0	0.0	0.2	0.0	9.7	0.0
풋고추	3.3	0.2	3.5	0.0	0.0	6.8	0.0	0.0	0.1	0.0	5.9	0.0
양파	19.9	0.6	0.0	0.0	0.0	4.4	0.0	0.0	0.1	0.1	9.4	0.0
호박	15.0	0.6	70.0	0.0	0.5	20.0	0.0	0.0	0.4	0.0	27.8	0.0
토마토	3.6	0.2	2.4	0.0	0.1	2.4	0.0	0.0	0.1	0.0	10.3	0.0
고구마	30.5	0.3	4.4	0.0	0.1	5.8	0.0	0.0	0.2	0.0	19.5	0.0
도라지	1.6	0.0	0.0	0.0	0.0	0.3	0.0	0.0	0.1	0.0	0.4	0.0
가지	1.3	0.1	4.7	0.0	0.0	0.7	0.0	0.0	0.0	0.0	3.5	0.0
양배추	6.9	0.5	8.3	0.0	0.0	3.1	0.0	0.0	0.1	0.0	33.7	0.0
미나리	2.1	0.1	0.9	2.7	0.1	1.0	0.0	0.0	0.0	0.0	13.3	0.0
버섯	3.0	0.3	0.1	0.1	0.0	0.4	0.0	0.0	0.1	0.0	12.1	0.0
깻잎	1.6	0.2	61.0	0.0	0.1	0.5	0.0	0.0	0.0	0.0	0.0	0.0
부추	2.3	0.2	1.6	0.0	0.3	0.5	0.0	0.0	0.1	0.0	10.2	0.0
숙주나물	2.4	0.4	0.8	0.0	0.0	2.0	0.0	0.0	0.1	0.0	12.2	0.0
단무지	1.1	0.0	0.0	0.0	0.0	0.6	0.0	0.0	0.0	0.0	1.3	0.0
두부	88.0	7.6	0.0	0.0	0.6	0.0	0.1	0.1	0.3	0.0	15.3	0.0
도토리묵	8.6	0.0	0.0	0.0	0.0	0.0	0.0	0.0	0.0	0.0	2.8	0.0
김	29.2	6.2	0.0	0.0	0.5	3.6	0.0	0.2	0.5	0.2	294.0	14.0
미역	63.0	10.0	277.5	0.0	0.3	9.0	0.1	0.5	2.3	0.0	76.9	0.1
과실류												
사과	24.1	0.1	0.5	0.0	0.5	23.6	0.0	0.0	0.0	0.0	3.5	0.0
배	14.5	0.2	0.0	0.0	0.0	1.7	0.0	0.0	0.1	0.0	3.3	0.0
복숭아	6.1	0.1	0.0	0.0	0.1	0.0	0.0	0.0	0.1	0.0	0.4	0.0
포도	13.1	0.1	0.6	0.0	0.1	0.0	0.0	0.0	0.1	0.0	7.9	0.0

〈부표 1-1〉 최저 식료품비 마켓 바스켓: 연구집안(계속)

품목	칼슘 mg	인 mg	마그네슘 mg	철 mg	아연 mg	구리 mg	볼소 ug	망간 mg	요오드 ug	셀레늄 ug	몰리브덴 ug	폐기물
멸치	162.4	175.9	0.0	1.0	0.2	0.0	0.0	0.6	47.7	15.3	0.0	0.0
멸치젓	47.4	27.8	0.0	0.4	0.0	0.0	0.0	0.0	0.0	0.0	0.0	0.0
새우젓	19.8	6.7	0.0	0.1	0.1	0.0	0.0	0.0	0.0	0.0	0.0	0.0
생선묵	11.6	17.6	0.0	0.2	0.1	0.0	0.0	0.0	0.0	0.0	0.0	0.0
참치캔	9.3	26.4	0.0	0.5	0.1	0.0	0.0	0.0	0.0	0.0	0.0	0.0
채소												
배추	53.4	33.1	0.0	0.9	0.7	0.1	0.0	0.4	0.0	0.9	0.0	8.0
무우	37.1	54.2	0.0	3.3	0.4	0.0	0.0	0.7	0.0	1.0	0.0	5.0
파	32.8	14.2	9.3	0.4	0.0	0.0	0.0	0.0	0.0	0.2	0.0	19.0
시금치	17.2	12.5	0.0	1.1	0.3	0.0	0.0	0.3	0.0	0.4	0.0	14.0
상추	32.1	7.5	0.0	0.8	0.1	0.0	0.0	0.1	0.0	0.2	0.0	0.0
콩나물	19.2	39.6	28.8	0.2	0.3	0.1	0.0	0.1	0.0	0.2	0.0	0.0
감자	2.3	35.5	13.0	0.3	0.3	0.1	0.0	0.1	0.0	0.2	0.0	6.0
오이	7.4	9.4	0.0	0.1	0.1	0.0	0.0	0.0	0.0	0.0	0.0	5.0
당근	12.5	11.8	3.7	0.2	0.1	0.0	0.9	0.1	0.0	0.0	0.0	11.0
꽃고추	0.6	3.3	0.0	0.1	0.0	0.0	0.0	0.0	0.0	0.1	0.0	4.0
양파	8.8	16.6	0.0	0.2	0.2	0.0	0.0	0.2	0.0	0.3	0.0	8.0
호박	30.5	12.0	8.5	1.2	0.1	0.0	0.0	0.1	0.2	0.1	0.0	0.0
토마토	1.2	2.4	2.2	0.1	0.2	0.0	0.4	0.0	0.0	0.1	0.0	1.0
고구마	5.6	12.6	5.8	0.1	0.1	0.0	3.3	0.5	0.0	0.1	0.0	7.0
도라지	0.8	1.5	0.0	0.0	0.0	0.0	0.0	0.0	0.0	0.0	0.0	28.0
가지	1.4	1.8	1.1	0.0	0.0	0.0	0.0	0.0	0.1	0.0	0.0	6.0
양배추	10.7	10.0	5.2	0.2	0.1	0.0	0.0	0.1	0.0	0.1	0.0	14.0
미나리	12.8	6.1	0.0	0.1	0.0	0.0	0.0	0.1	0.1	0.0	0.0	18.0
버섯	0.1	6.5	2.2	0.1	0.1	0.0	0.0	0.0	0.0	0.3	0.0	0.0
깻잎	8.4	2.9	2.5	0.1	0.0	0.0	0.0	0.1	0.0	0.0	0.0	0.0
부추	3.0	2.5	0.0	0.4	0.0	0.0	0.0	0.0	0.0	0.1	0.0	11.0
숙주나물	3.0	6.4	4.2	0.1	0.1	0.0	0.0	0.0	0.0	0.1	0.0	0.0
단무지	2.2	1.6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두부	44.0	132.0	0.0	1.4	1.0	0.2	0.0	0.6	0.0	9.9	0.0	0.0
도토리묵	1.2	5.2	0.0	0.1	0.0	0.0	0.0	0.0	0.0	0.0	0.0	0.0
김	75.6	44.6	0.0	8.3	0.9	0.1	0.0	0.5	0.0	1.2	0.0	0.0
미역	479.5	153.5	0.0	4.6	1.8	0.0	0.0	0.3	5800.0	0.0	0.0	0.0
과실류												
사과	3.0	4.4	0.0	0.1	0.0	0.0	0.0	0.0	0.0	0.0	0.0	18.0
배	2.1	5.0	0.0	0.1	0.0	0.0	0.0	0.0	0.0	0.0	0.0	17.0
복숭아	0.9	3.2	0.0	0.0	0.0	0.0	0.0	0.0	0.0	0.0	0.0	15.0
포도	1.4	3.7	0.0	0.1	0.0	0.0	0.0	0.0	0.0	0.0	0.0	29.0

품목	품질 및 시기	규격 및 단위	구입량/일	g당가격	가정식비용/일	가격자료
감	단감 중품	2kg(10개)	25.0	3.1	77.9	소비자물가
감귤	중품	1kg(10개)	140.0	1.9	266.0	농산물유통정보
참외	중품(12년9월)	4kg(10개)	40.0	1.8	73.3	소비자물가
수박	중품	8.0kg(1개)	110.0	0.9	103.5	소비자물가
딸기	중품	100g	25.0	9.4	235.0	농산물유통정보
바나나	수입품	1kg	50.0	1.2	60.0	농산물유통정보
조미식품					1386.3	
참기름	공장제품,초유	320ml	2.0	20.4	40.8	소비자물가
콩기름	공장제품,1800ml	1병	20.0	3.1	62.7	소비자물가
마아가린	중품	1통(220g)	8.0	6.4	50.9	시장조사
고추가루	중품	100g	13.0	33.9	440.7	소비자물가
마늘	중품,깐 것	1kg	18.0	4.6	83.6	소비자물가
생강	중품	1kg	5.0	5.5	27.5	농산물유통정보
후추가루	캔포장	100g(1캔)	0.3	35.4	10.6	시장조사
카레가루	중품	100g(1봉)	3.0	16.0	47.9	소비자물가
설탕	정백당	1kg(1포)	25.0	1.8	44.9	소비자물가
소금	천일염	1.0kg	20.0	2.3	45.9	소비자물가
깨	참깨(수입산)	500g(1되)	25.0	6.4	160.5	농산물유통정보
간장	시장제품	900ml(1병)	18.0	3.3	59.2	시장조사
된장	PET용기	500g(1포)	12.0	4.1	49.0	시장조사
고추장	PET용기	500g(1포)	12.0	7.3	87.1	시장조사
혼합조미료	다시다	100g(1포)	1.5	15.7	23.6	시장조사
식초	사과식초	500ml(1병)	4.0	2.2	8.6	시장조사
케첩	시장제품	500g(1병)	3.0	3.7	11.1	소비자물가
마요네즈	시장제품	500g(1병)	4.0	5.6	22.3	시장조사
물엿	중품	1.2kg(1병)	50.0	2.2	109.4	소비자물가
빵 및 과자류					1042.1	
케이크	중간 크기	800g(1판)	10.0	14.4	143.9	소비자물가
스낵과자	시장제품	1봉(90g)	60.0	8.6	516.0	소비자물가
비스켓	시장제품	1봉(150g)	90.0	4.2	382.2	소비자물가
차음료 및 주류					1230.0	
커피	봉지용기	175g(1봉지)	25.0	33.9	846.3	소비자물가
보리차	티백포장	300g(1상자)	4.0	5.4	21.6	시장조사
콜라	PET 용기	1500ml(1병)	100.0	1.2	118.1	소비자물가
주스	PET 용기	1500ml(1병)	100.0	1.7	174.7	시장조사
소주	시장제품	360ml(1병)	24.0	2.9	69.3	소비자물가
기타식료품					7.8	
커피크림	비닐포장	500g(1봉지)	2.0	3.9	7.8	시장조사

〈부표 1-1〉 최저 식료품비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계속)

품목	열량 Kcal	단백질 g	비타민A ug RE	비타민D ug	비타민E mg a-TE	비타민C mg	비타민B1 mg	비타민B2 mg	나이아신 mg NE	비타민B6 mg	엽산 ug	비타민 B12 ug
감	12.8	0.1	7.8	0.0	0.1	27.5	0.0	0.0	0.1	0.0	0.8	0.0
감귤	44.8	0.8	1.1	0.0	0.5	50.5	0.1	0.0	0.5	0.1	27.6	0.0
참외	8.4	0.3	4.7	0.0	0.0	7.8	0.0	0.0	0.1	0.0	20.0	0.0
수박	22.2	0.6	21.5	0.0	0.1	0.0	0.0	0.0	0.2	0.1	4.4	0.0
딸기	8.8	0.2	0.0	0.0	0.0	17.4	0.0	0.0	0.1	0.0	31.2	0.0
바나나	25.6	0.3	5.8	0.0	0.1	0.0	0.0	0.0	0.1	0.1	5.2	0.0
조미식품												
참기름	18.3	0.0	0.0	0.0	0.8	0.0	0.0	0.0	0.0	0.0	0.0	0.0
콩기름	184.2	0.0	0.0	0.0	20.6	0.0	0.0	0.0	0.1	0.0	0.0	0.0
마아가린	57.7	0.0	137.8	0.0	0.4	0.0	0.0	0.0	0.0	0.0	0.1	0.0
고추가루	42.1	1.9	447.2	0.0	3.8	4.2	0.1	0.2	1.9	0.1	2.8	0.0
마늘	24.5	1.0	0.0	0.0	0.0	5.0	0.0	0.1	0.1	0.1	15.6	0.0
생강	2.2	0.1	0.0	0.0	0.0	0.2	0.0	0.0	0.0	0.0	0.7	0.0
후추가루	0.9	0.0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카레가루	12.0	0.3	3.0	0.0	0.0	0.0	0.0	0.0	0.0	0.0	4.6	0.0
설탕	96.8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소금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깨	148.3	4.5	0.0	0.0	1.8	0.0	0.1	0.0	0.0	0.2	24.0	0.0
간장	9.5	1.4	0.0	0.0	0.1	0.0	0.0	0.0	0.2	0.0	8.2	0.0
된장	19.3	1.6	0.0	0.0	0.2	0.0	0.0	0.0	0.1	0.0	10.7	0.0
고추장	21.4	0.6	49.0	0.0	0.7	0.6	0.0	0.1	0.2	0.0	6.4	0.0
혼합조미료	3.3	0.2	0.2	0.0	0.1	0.0	0.0	0.0	0.1	0.0	0.7	0.0
식초	0.9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케첩	3.6	0.1	4.2	0.0	0.1	0.3	0.0	0.0	0.0	0.0	1.1	0.0
마요네즈	30.4	0.0	1.9	0.0	0.3	0.0	0.0	0.0	0.0	0.0	0.2	0.0
물엿	146.5	0.1	0.0	0.0	0.0	0.0	0.0	0.0	0.0	0.4	0.0	0.0
빵 및 과자류												
케이크	35.2	0.7	8.2	0.0	0.0	0.0	0.0	0.0	0.0	0.0	1.3	0.0
스낵과자	289.2	4.4	0.0	0.0	1.4	0.0	0.1	0.0	0.4	0.0	4.8	0.0
비스킷	405.0	5.9	2.7	0.0	1.4	0.0	0.1	0.0	0.3	0.0	12.6	0.0
차음료 및 주류												
커피	88.0	4.9	0.0	0.0	0.1	0.0	0.0	0.1	7.8	0.0	0.0	0.0
보리차	12.7	0.5	0.0	0.0	0.0	0.0	0.0	0.0	0.2	0.0	2.0	0.0
콜라	47.0	0.0	0.0	0.0	0.0	0.0	0.1	0.0	0.3	0.0	0.0	0.0
쥬스	43.0	0.2	0.0	0.0	0.0	2.0	0.0	0.0	0.1	0.0	0.0	0.0
소주	33.8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식료품												
커피프림	10.9	0.1	0.1	0.0	0.2	0.0	0.0	0.0	0.0	0.0	0.0	0.0

[illegible]

〈부표 1-2〉 최저 주거비 마켓 바스켓: 연구집단(전세인 경우)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년수	단가(원)	수량
최저 주거비					
구입자금					
-조달비용	대도시	아파트, 43m ²	1년	87,785,000원	4.70%
	중소도시	아파트, 43m ²	1년	61,432,000원	4.70%
	농어촌	아파트, 43m ²	1년	33,818,000원	4.70%
-보증보험료	대도시	아파트, 43m ²	1년	55,304,550원	0.30%
	중소도시	아파트, 43m ²	1년	38,702,160원	0.30%
	농어촌	아파트, 43m ²	1년	21,305,340원	0.30%
관리비	대도시	아파트, 43m ²	1월	720원	53.8m ²
	중소도시	아파트, 43m ²	1월	720원	53.8m ²
	농어촌	아파트, 43m ²	1월	720원	53.8m ²
이사비	대도시	(6년에 1회)	6.00년	536,526원	1회
	중소도시	(6년에 1회)	6.00년	536,526원	1회
	농어촌	(6년에 1회)	6.00년	536,526원	1회
복비	대도시	전세금의 0.4%	6.00년	300,000원	1회
	중소도시	전세금의 0.4%	6.00년	245,728원	1회
	농어촌	전세금의 0.5%	6.00년	169,090원	1회
도배비	대도시		6.00년	12,386원	43.0m ²
	중소도시		6.00년	12,386원	43.0m ²
	농어촌		6.00년	12,386원	43.0m ²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필수품 선정원칙	지역별 차등이유	단가 설정기준	내구년수, 수량 설정기준
415,403원	307,283원	193,713원				
348,825원				가격조사	가격조사, 이자율(국토해양부, 한국은행)	
	240,609원					
		132,454원				
13,826원				가격조사	국토해양부 (구입자금 70%의 90%에 대한 보증)	국토해양부
	9,676원					
		5,326원				
38,736원					국토해양부	공동주택관리비
	38,736원					
		38,736원				
7,452원					소비자물가지수	실태조사
	7,452원					
		7,452원				
4,167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실태조사
	3,413원					
		2,348원				
7,397원					최저거주면적, 소비자물가지수	실태조사
	7,397원					
		7,397원				

〈부표 1-2〉 최저 주거비 마켓 바스켓: 연구집단(월세인 경우)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년수	단개(원)	수량
최저 주거비					
구입자금	대도시	아파트, 43m ²	1년	728,000원	
	중소도시	아파트, 43m ²	1년	526,000원	
	농어촌	아파트, 43m ²	1년	315,000원	
관리비	대도시	아파트, 43m ²	1월	720원	53.8m ²
	중소도시	아파트, 43m ²	1월	720원	53.8m ²
	농어촌	아파트, 43m ²	1월	720원	53.8m ²
이사비	대도시	(6년에 1회)	6.00년	536,526원	1회
	중소도시	(6년에 1회)	6.00년	536,526원	1회
	농어촌	(6년에 1회)	6.00년	536,526원	1회
복비	대도시	월차임 100배의 0.4%	6.00년	291,200원	1회
	중소도시	월차임 100배의 0.4%	6.00년	210,400원	1회
	농어촌	월차임 70배의 0.5%	6.00년	110,250원	1회

*복비는 월세의 100배가 오천만원 이상인 경우 월세 100배의 0.4%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필수품 선정원칙	지역별 차등이유	단가 설정기준	내구년수, 수량 설정기준
778,232원	575,110원	362,719원				
728,000원				가격조사	가격조사	
	526,000원					
		315,000원				
38,736원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38,736원					
		38,736원				
7,452원					소비자물가지수	실태조사
	7,452원					
		7,452원				
4,044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922원					
		1,531원				

〈부표 1-3〉 최저 광열·수도비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

종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광열수도					
전기요금	대도시	265kwh	1월	33,046원	
	중소도시	265kwh	1월	32,039원	
	농어촌	233kwh	1월	27,354원	
상수하수도 요금	대도시	18.2m³	1월	17,208원	.
	중소도시	18.2m³	1월	14,654원	.
	농어촌	17.9m³	1월	11,485원	.
난방 및 취사비	대도시	LNG 70.7m³	1월	68,460원	.
	중소도시	LNG 70.7m³	1월	67,768원	.
	농어촌	LNG 64.4m³	1월	64,076원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필수품 선정원칙	지역별 차등이유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수량 설정기준
118,714원	114,461원	102,915원				
33,046원				한국전력	에너지센서스	92-10년 증가율 적용
	32,039원			한국전력	에너지센서스	
		27,354원				
17,208원				대전시요금	상하수도통계	사용량 10년 同
	14,654원			속초시요금	상하수도통계	
		11,485원		고성군요금	상하수도통계	
68,460원				광역시중 평균요금	에너지센서스	에너지센서스
	67,768원			경기요금	에너지센서스	에너지센서스
		64,076원		전남여수	에너지센서스	에너지센서스

〈부표 1-4〉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가사가구집기					
일반가구					
장롱	전국	8자목재	9년	501,750원	1개
서랍장	전국	5단플라스틱	9년	35,779원	1개
책상	전국	목재학생용책상 650*450*760	8년	46,655원	2개
의자	전국	목재	9년	23,860원	2개
벽시계	전국	.	10년	24,057원	1개
탁상시계	전국	.	10년	18,414원	2개
화장대	전국	철제, 거울 포함	8년	39,402원	1개
행거	전국	철제	10년	12,870원	1개
문갑	전국	5자목재	9년	57,420원	1개
가정용기구					
냉장고	전국	428L	10년	580,260원	1대
전기밥솥	전국	6인용	9년	65,585원	1개
가스레인지	전국	버너2개	10년	61,620원	1개
세탁기	전국	10kg	9년	351,780원	1대
다리미	전국	일반유선	10년	24,750원	1개
선풍기	전국	14인치	10년	48,240원	2개
믹서	전국	일반 믹서기 1리터	7년	35,525원	1개
전자레인지	전국	20리터 465×279×360mm	7년	83,810원	1개
헤어드라이기	전국	일반용 220v 1200w	6년	17,582원	1개
청소기	전국	일반용 220v 1200w	10년	79,000원	1개
식기주방용품					
밥상	전국	4인용4각	10년	31,950원	1개
주발	전국	단반상기(2벌 1세트)	8년	53,199원	3세트
접시	전국	7.5인치	8년	7,775원	9개
컵	전국	유리	8년	1,002원	8개
쟁반	전국	중	5년	3,941원	1개
냄비	전국	중	5년	5,315원	3개
주전자	전국	대	10년	13,526원	1개
	전국	소	10년	6,923원	1개
후라이팬	전국	직경 28cm (대)	5년	15,984원	1개
	전국	직경 24cm (중)	5년	13,986원	1개
항아리	전국	중	10년	21,300원	3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필수품 선정원칙	지역별 차등이유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수량 설정기준
46,575원	46,267원	45,993원				
4,646원	4,646원	4,646개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조달청 내용연수
331원	331원	331개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조달청 내용연수
972원	972원	972개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조달청 내용연수
442원	442원	442개		.	소비자물가지수	조달청 내용연수
200원	200원	200개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307원	307원	307개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410원	410원	410개		.	소비자물가지수	조달청 내용연수
107원	107원	107개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532원	532원	532개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조달청 내용연수
4,836원	4,836원	4,836개	보유율/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607원	607원	607개	보유율	.	소비자물가지수	조달청 내용연수
514원	514원	514개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3,257원	3,257원	3,257개	보유율	.	소비자물가지수	전력거래소(2011)
206원	206원	206개	보유율/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804원	804원	804개	보유율/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423원	423원	423개	보유율/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조달청 내용연수
998원	998원	998개	보유율	.	소비자물가지수	조달청 내용연수
244원	244원	244개	보유율/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658원	658원	658개	보유율/탄력성	.	시장가격조사	조달청 내용연수
266원	266원	266개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1,662원	1,662원	1,662개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손님접대용 포함
729원	729원	729개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손님접대용 포함
84원	84원	84개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손님접대용 포함
66원	66원	66개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266원	266원	266개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113원	113원	113개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58원	58원	58개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266원	266원	266개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233원	233원	233개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533원	533원	533개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부표 1-4〉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계속)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식도	전국	스테인레스 중	5년	5,432원	1개
과도	전국	스테인레스 중	5년	2,130원	1개
도마	전국	중	10년	5,325원	1개
수저	전국	스테인레스	10년	1,574원	8벌
수저통	전국	플라스틱	5년	2,237원	1통
조미료통	전국	플라스틱 3개들이 1세트	5년	5,325원	1세트
반찬통	전국	플라스틱 대	10년	3,555원	2개
	전국	플라스틱 중	10년	2,311원	4개
김치통	전국	폴리프로필렌 9리터	10년	12,873원	2개
	전국	소	10년	3,555원	2개
바가지	전국	플라스틱 중	2년	1,065원	2개
고무통	전국		10년	6,390원	1개
국자	전국	플라스틱 중	5년	1,598원	2개
대야	전국	플라스틱 중	8년	2,130원	1개
랩	전국	30Cm*50m	5월	3,674원	1통
쿠킹호일	전국	30Cm*30m	5월	3,568원	1통
보온병	전국	1.2L	10년	11,715원	1개
가사잡화 소모품					
가사잡화					
드라이버	전국	중	10년	2,130원	1개
망치	전국	중	10년	4,260원	1개
못	전국	나사 못(6종 1세트)	10년	1,065원	1세트
가위	전국	중	10년	3,195원	1개
건조대	전국	중	10년	13,845원	1개
빨래판	전국	플라스틱	5년	3,195원	1개
빨래집게	전국	10개들이 1세트	1년	1,065원	2세트
방빗자루	전국	플라스틱	10년	3,195원	1개
쓰레받기	전국	플라스틱	10년	2,130원	1개
휴지통	전국	플라스틱 중	9년	3,195원	1개
	전국	플라스틱 소	9년	1,598원	1개
비누통	전국	플라스틱	10년	1,065원	1개
바늘	전국		5년	1,065원	1쌍
목도장	전국		5년	5,325원	2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필수품 선정원칙	지역별 차등이유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수량 설정기준
91원	91원	91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36원	36원	36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44원	44원	44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105원	105원	105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손님접대용 포함
37원	37원	37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89원	89원	89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59원	59원	59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77원	77원	77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215원	215원	215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59원	59원	59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89원	89원	89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53원	53원	53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53원	53원	53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22원	22원	22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735원	735원	735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714원	714원	714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98원	98원	98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18원	18원	18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36원	36원	36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9원	9원	9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27원	27원	27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115원	115원	115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53원	53원	53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178원	178원	178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27원	27원	27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18원	18원	18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30원	30원	30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조달청 내용연수
15원	15원	15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조달청 내용연수
9원	9원	9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18원	18원	18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178원	178원	178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부, 모

〈부표 1-4〉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계속)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가사소모품					
형광전구	전국	주광색 18w 일반조명용	1년	1,489원	6개
백열전구	전국	투명220v-60w 일반조명용	6월	644원	2개
화장지	전국	두루마리 60m 1개	1월	548원	4개
고무장갑	전국	중	3월	1,544원	2짝
빨래비누	전국	230g	1월	746원	1개
합성세제	전국	3.0kg	4월	9,641원	1봉
부엌용세제	전국	1Kg	3월	2,457원	1병
살충방충제	전국	수압분무식 500ml	1년	2,674원	1통
나프탈렌	전국		1년	1,278원	1봉
습기제거제	전국	제습량525ml	1년	1,526원	1개
행주	전국		4월	799원	2개
수세미	전국	150mm*230mm	4월	1,278원	1개
구두솔	전국		1년	735원	1개
구두약	전국		1년	639원	1통
접착제	전국		1년	533원	1개
건전지	전국	알카리AA 1.5V	1년	706원	7개
침구 및 직물제품					
이불	전국	동	10년	61,936원	4채
	전국	춘추	10년	33,180원	4채
요	전국	동	10년	27,650원	4채
	전국	춘추	10년	22,120원	4채
베개	전국		10년	5,530원	4개
타올	전국	80Cm*40Cm	2년	2,763원	4매
커튼	전국	150Cm×230Cm	10년	32,262원	2세트
가사서비스					
가구집기 수선료	전국		1년	7,000원	2회
쓰레기봉투	대도시	10리터 1매	1월	283원	5매
	중소도시	10리터 1매	1월	221원	5매
	농어촌	10리터 1매	1월	167원	5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필수품 선정원칙	지역별 차등이유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수량 설정기준
744원	744원	744원	보유율/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방3(방2+거실1)
215원	215원	215원	보유율/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2,194원	2,194원	2,194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1,030원	1,030원	1,030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746원	746원	746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2,410원	2,410원	2,410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819원	819원	819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223원	223원	223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107원	107원	107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127원	127원	127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399원	399원	399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320원	320원	320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61원	61원	61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53원	53원	53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44원	44원	44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412원	412원	412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벽시계2개, 탁상시계2개 카메라1개, 리모콘2개
2,065원	2,065원	2,065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가구원수
1,106원	1,106원	1,106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가구원수
922원	922원	922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가구원수
737원	737원	737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가구원수
184원	184원	184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가구원수
460원	460원	460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가구원수
538원	538원	538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방2
1,167원	1,167원	1,167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1,415원	.	.	탄력성	ANOVA	시장가격조사	2010년 同
.	1,107원	.	탄력성	.	시장가격조사	2010년 同
.	.	833원	탄력성	.	시장가격조사	2010년 同

〈부표 1-5〉 최저 피복·신발비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피복 및 신발					
외의					
가장(42세)					
신사복	전국	동	12년	102,420원	2벌
	전국	춘추	12년	91,040원	2벌
오버코트	전국	동	10년	88,800원	1점
잠바	전국	동	10년	32,250원	2점
	전국	춘추	10년	20,820원	2점
바지	전국	동	8년	22,020원	2점
	전국	춘추	8년	16,515원	2점
반바지	전국	하	8년	11,010원	2점
운동복	전국	동,잠옷겸용	8년	24,400원	2벌
	전국	춘추,잠옷겸용	8년	18,300원	2벌
주부(39세)					
숙녀복	전국	동	12년	96,660원	2벌
	전국	춘추	12년	75,180원	2벌
오버코트	전국	동	10년	84,800원	1점
잠바	전국	동	10년	32,250원	2점
스커트	전국	춘추, 동	10년	31,230원	2점
바지	전국	동	8년	20,820원	3점
	전국	춘추	8년	15,615원	3점
반바지	전국	하	8년	10,410원	2점
운동복	전국	동,잠옷겸용	8년	24,400원	2벌
	전국	춘추,잠옷겸용	8년	18,300원	2벌
자녀(남,12세)					
잠바	전국	동	2년	32,250원	1점
	전국	춘추	2년	21,500원	1점
바지	전국	동	2년	16,575원	2점
	전국	춘추	2년	11,050원	2점
반바지	전국	하	2년	8,840원	2점
체육복	전국	동	3년	21,960원	1벌
	전국	하	3년	18,300원	1벌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필수품 선정원칙	지역별 차등이유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 수량 설정기준
62,246원	62,246원	62,246원				

1,423원	1,423원	1,423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1,264원	1,264원	1,264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740원	740원	740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538원	538원	538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347원	347원	347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459원	459원	459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344원	344원	344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229원	229원	229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508원	508원	508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381원	381원	381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1,343원	1,343원	1,343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1,044원	1,044원	1,044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707원	707원	707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538원	538원	538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521원	521원	521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651원	651원	651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488원	488원	488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217원	217원	217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508원	508원	508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381원	381원	381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1,344원	1,344원	1,344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896원	896원	896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1,381원	1,381원	1,381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921원	921원	921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737원	737원	737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610원	610원	610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508원	508원	508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부표 1-5〉 최저 피복·신발비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계속)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자녀(여, 10세)					
잠바	전국	동	2년	32,250원	1점
	전국	춘추	2년	21,500원	1점
바지	전국	동	2년	16,575원	3점
	전국	춘추	2년	16,575원	3점
반바지	전국	하	2년	8,840원	2점
스커트	전국	춘추, 동	2년	13,260원	1점
체육복	전국	동	3년	21,960원	1벌
	전국	하	3년	18,300원	1벌
스웨터 셔츠					
가장					
와이셔츠	전국	긴팔	6년	13,260원	3점
	전국	반팔	6년	11,050원	3점
셔츠	전국	긴팔	6년	16,575원	2점
	전국	반팔	6년	11,050원	2점
스웨터	전국		6년	16,245원	2점
남방	전국		6년	11,050원	2점
주부					
셔츠	전국	긴팔	6년	16,575원	3점
	전국	반팔	6년	11,050원	3점
스웨터	전국	겨울	6년	16,245원	2점
블라우스	전국		6년	22,100원	3점
자녀(남)					
셔츠	전국	긴팔	2년	11,050원	2점
	전국	반팔	2년	5,525원	2점
스웨터	전국		3년	12,996원	3점
자녀(여)					
셔츠	전국	긴팔	2년	10,829원	2점
	전국	반팔	2년	5,525원	2점
스웨터	전국		3년	12,996원	3점
블라우스	전국		3년	11,050원	3점
내의					
가장					
동내의	전국	성인용 상하 순면60's	6년	29,590원	3벌
런닝	전국	남자성인용 흰색 순면40's	3년	2,991원	9매
팬티	전국	성인용 흰색 순면	3년	2,954원	9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필수품 선정원칙	지역별 차등이유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 수량 설정기준
1,344원	1,344원	1,344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896원	896원	896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2,072원	2,072원	2,072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2,072원	2,072원	2,072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737원	737원	737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553원	553원	553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610원	610원	610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508원	508원	508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553원	553원	553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460원	460원	460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460원	460원	460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307원	307원	307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451원	451원	451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307원	307원	307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691원	691원	691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460원	460원	460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451원	451원	451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921원	921원	921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921원	921원	921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460원	460원	460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1,083원	1,083원	1,083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902원	902원	902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460원	460원	460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1,083원	1,083원	1,083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921원	921원	921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1,233원	1,233원	1,233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748원	748원	748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738원	738원	738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부표 1-5〉 최저 피복·신발비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계속)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주부					
동내의	전국	성인용상하 순면60's	6년	20,268원	3벌
런닝	전국	.	3년	2,124원	9매
팬티	전국	성인용 삼각 순면	3년	3,821원	12매
브래지어	전국	.	3년	5,310원	2점
속치마	전국	양장용	6년	10,620원	2점
자녀(남)					
동내의	전국	.	3년	10,507원	3벌
런닝	전국	.	3년	2,627원	9점
팬티	전국	.	3년	2,269원	9점
자녀(여)					
동내의	전국	.	3년	9,346원	3벌
런닝	전국	.	3년	2,336원	9점
팬티	전국	.	3년	2,018원	9점
직물·실					
실	전국	.	6년	1,105원	2타래
기타피복					
가장					
넥타이	전국	.	6년	5,355원	2개
장갑	전국	방한용	6년	7,185원	1켤레
혁대	전국	.	6년	5,325원	1개
양말	전국	사계절용	1년	2,448원	4켤레
목도리	전국	.	6년	7,242원	1개
손수건	전국	.	6년	1,065원	2개
주부					
스타킹	전국	팬티스타킹 1켤레	3월	1,645원	1개
	전국	판타롱스타킹 1켤레	2월	799원	1개
장갑	전국	방한용	6년	7,185원	1켤레
혁대	전국	.	6년	5,325원	1개
양말	전국	사계절용	1년	2,448원	2켤레
목도리	전국	.	6년	7,242원	1개
손수건	전국	.	6년	1,065원	1개
자녀(남)					
장갑	전국	방한용	2년	6,754원	1켤레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필수품 선정원칙	지역별 차등이유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 수량 설정기준
845원	845원	845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531원	531원	531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1,274원	1,274원	1,274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295원	295원	295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295원	295원	295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876원	876원	876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657원	657원	657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567원	567원	567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779원	779원	779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584원	584원	584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504원	504원	504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31원	31원	31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149원	149원	149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100원	100원	100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74원	74원	74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816원	816원	816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101원	101원	101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30원	30원	30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548원	548원	548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399원	399원	399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100원	100원	100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74원	74원	74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408원	408원	408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101원	101원	101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15원	15원	15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281원	281원	281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부표 1-5〉 최저 피복·신발비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계속)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현대	전국		3년	4,687원	1개
양말	전국	사계절용	1년	1,702원	4켢레
목도리	전국		2년	5,645원	1개
자녀(여)					
장갑	전국	방한용	2년	6,754원	1켢레
양말	전국	사계절용	1년	1,702원	4켢레
목도리	전국		2년	5,645원	1개
신발					
가장					
구두	전국	인조가죽	4년	33,570원	1켢레
운동화	전국		4년	16,548원	1켢레
슬리퍼	전국		3년	5,325원	1켢레
주부					
구두	전국	인조가죽	4년	22,540원	1켢레
운동화	전국		4년	15,779원	1켢레
슬리퍼	전국		3년	5,325원	1켢레
샌들	전국		3년	15,664원	1켢레
자녀(남)					
운동화	전국		2년	10,670원	1켢레
실내화	전국	백색, 학생용 1켢레	1년	4,122원	1켢레
샌들	전국		2년	8,520원	1켢레
자녀(여)					
운동화	전국		2년	10,670원	1켢레
실내화	전국	백색, 학생용 1켢레	1년	4,122원	1켢레
샌들	전국		2년	8,520원	1켢레
피복 및 신발서비스					
세탁료	전국	신사복상하 드라이크리닝	1년	6,258원	4벌
	전국	숙녀복상하 드라이크리닝	1년	6,258원	2벌
의복수선료	전국	신사복 하의 기장 수선	1년	3,129원	1벌
구두수선료	전국	남성용 구두굽 수선료	3년	4,224원	1켢레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필수품 선정원칙	지역별 차등이유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수량 설정기준
130원	130원	130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567원	567원	567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235원	235원	235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281원	281원	281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567원	567원	567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235원	235원	235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699원	699원	699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345원	345원	345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148원	148원	148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470원	470원	470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329원	329원	329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148원	148원	148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435원	435원	435원	보유율/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445원	445원	445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343원	343원	343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355원	355원	355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445원	445원	445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343원	343원	343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355원	355원	355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2,086원	2,086원	2,086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1,043원	1,043원	1,043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261원	261원	261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117원	117원	117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부표 1-6〉 최저 보건의료비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보건의료					
보건의료용품기구					
안경	전국	중품	18월	70,000원	1개
위생대	전국	생리대 중형 20패드	1월	264원	20개
보건의료서비스					
약값	전국	입원, 외래, 처방약값	1월	52,697원	1단위
	전국	비처방약값	1월	4,792원	1단위
미충족욕구	전국	50% 반영	1월	1,978원	1단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필수품 선정원칙	지역별 차등이유	단가 설정기준	내구년수,수량 설정기준
68,636원	68,636원	68,636원				
3,889원	3,889원	3,889원	·	·	시장조사	2010년 同
5,280원	5,280원	5,280원	·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52,697원	52,697원	52,697원	·	·	실태조사	2010년 同
4,792원	4,792원	4,792원	·	·	실태조사	2010년 同
1,978원	1,978원	1,978원	·	·	실태조사	2010년 同

〈부표 1-7〉 최저 교육비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교육비					
〈초등학생-12세(남)/10세(여)〉					
교재비					
참고서	전국	1, 2학기 전과 각 1인당 1권	1년	27,440원	4권
문제집	전국	1, 2학기 각 1인당 2권	1년	14,442원	8권
보충교육비					
가정학습지	전국	교과목 관련(1종 / 1인당 6월)	1년	34,500원	12월
수련회	전국	국내 2박3일 기준(1회/인)	1년	53,470원	2회
기타교육비	전국	야외학습 및 특별활동(1회/인)	1년	10,000원	2회
문방구비					
연필	전국	HB보통나무(1다스/인)	6월	2,637원	2다스
싸인펜	전국	수성(2개/인)	1월	200원	4개
색연필	전국	12색(1세트/인)	1년	2,500원	2세트
공책	전국	초등학생용(10권/인)	6월	650원	20권
스케치북	전국	초등학생용(2권/인)	1년	1,300원	4권
인쇄용지	전국	A4/250매	6월	2,808원	2권
크레파스	전국	24색(1세트/인)	1년	4,143원	2세트
그림물감	전국	12색 1세트	1년	3,221원	1세트
붓	전국	수채화용 세트	2년	4,500원	1세트
지우개	전국	소(2개/인)	6월	300원	4개
칼	전국	소형 커터	2년	300원	1개
가위	전국	중	2년	700원	1개
풀	전국	중간 크기(1개/인)	6월	500원	2개
색종이	전국	양면(10개/인)	6월	500원	20개
필통	전국	초등학생용(1개/인)	1년	1,500원	2개
자	전국	초등학생용 20cm(1개/인)	1년	200원	2개
앨범	전국	중품(30매)	3년	15,000원	2개
교육용 악기	전국	초등학생용 리코더	3년	3,000원	1개
교육용 체육기구	전국	초등학생용 줄넘기	3년	2,000원	1개
	전국	초등학생용 훌라후프	3년	2,000원	1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필수품 선정원칙	지역별 차등이유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 수량 설정기준
74,020원	74,020원	74,020원				
9,147원	9,147원	9,147원	실태조사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9,628원	9,628원	9,628원	실태조사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34,500원	34,500원	34,500원	실태조사		실태조사	2010년 同
8,912원	8,912원	8,912원	실태조사		실태조사	2010년 同
1,667원	1,667원	1,667원	실태조사		실태조사	2010년 同
879원	879원	879원	실태조사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800원	800원	800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2010년 同
417원	417원	417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2010년 同
2,167원	2,167원	2,167원	실태조사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433원	433원	433원	실태조사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936원	936원	936원	실태조사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691원	691원	691원	실태조사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268원	268원	268원	실태조사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188원	188원	188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2010년 同
200원	200원	200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2010년 同
13원	13원	13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2010년 同
29원	29원	29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2010년 同
167원	167원	167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2010년 同
1,667원	1,667원	1,667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2010년 同
250원	250원	250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2010년 同
33원	33원	33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2010년 同
833원	833원	833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2010년 同
83원	83원	83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2010년 同
56원	56원	56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2010년 同
56원	56원	56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2010년 同

〈부표 1-8〉 최저 교양·오락비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교양오락					
서적 및 인쇄물					
도서(성인)	전국	단행본	1년	10,000원	1권
도서(아동)	전국	단행본	1년	6,500원	4권
교양오락용품기구					
텔레비전	전국	디지털TV(32인치)	10년	400,000원	1개
카세트라디오	전국	CD 겸용	10년	70,000원	1개
카메라	전국	디지털카메라(메모리포함)	10년	100,000원	1개
컴퓨터	전국	중저가(보급형)/모니터 포함	6년	540,000원	1개
프린터	전국	잉크젯 중저가(보급형)	10년	60,000원	1개
프린터잉크	전국	재생/호환잉크(리필형)	1년	7,000원	1개
완구	전국	초등학생 장난감(2개/인)	1년	5,000원	4개
CD	전국	성인	1년	12,000원	1개
	전국	아동	1년	10,000원	1개
교양오락서비스					
영화관람	전국	성인(2인/2회)	1년	8,284원	4명
	전국	아동(2인/2회)	1년	7,607원	4명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전국	가정용 TV수신료	1월	2,500원	1회
유선방송	전국	기본형(부가세 포함)	1월	4,400원	1회
여행 및 문화시설관람	전국	고궁및박물관(성인2,아동2)	1년	6,000원	4회
사진촬영 및 현상	전국	증명사진(3X4cm)	5년	11,679원	2회
	전국	디지털사진현상(120매/년)	1년	100원	120장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필수품 선정원칙	지역별 차등이유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구, 수량 설정기준
35,418원	35,418원	35,418원				
833원	833원	833원	실패조사	-	시장조사	2010년 同
2,167원	2,167원	2,167원	실패조사	-	시장조사	2010년 同
3,333원	3,333원	3,333원	실패조사	-	시장조사	2010년 同
583원	583원	583원	실패조사	-	시장조사	2010년 同
833원	833원	833원	실패조사	-	시장조사	2010년 同
7,500원	7,500원	7,500원	실패조사	-	시장조사	2010년 同
500원	500원	500원	실패조사	-	시장조사	2010년 同
583원	583원	583원	실패조사	-	시장조사	2010년 同
1,667원	1,667원	1,667원	실패조사	-	시장조사	2010년 同
1,000원	1,000원	1,000원	실패조사	-	시장조사	2010년 同
833원	833원	833원	실패조사	-	시장조사	2010년 同
2,761원	2,761원	2,761원	문화관광부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2,536원	2,536원	2,536원	문화관광부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2,500원	2,500원	2,500원	방송법	-	법정가격	방송법
4,400원	4,400원	4,400원	실패조사	-	시장조사	2010년 同
2,000원	2,000원	2,000원	실패조사	-	시장조사	2010년 同
389원	389원	389원	실패조사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1,000원	1,000원	1,000원	실패조사	-	시장조사	2010년 同

〈부표 1-9〉 최저 교통·통신비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교통통신비					
교통비					
가장 출근	도시	시내버스, 출퇴근 21.725(365/12/7*5)일, 외출 2회(왕복)	1월	1,092원	48회
	농어촌	시내버스, 출퇴근 21.725(365/12/7*5)일, 외출 2회(왕복)	1월	1,092원	48회
주부 외출	전국	시내버스, 외출 6회(왕복)	1월	1,092원	12회
자녀(초등학생) 외출	전국	시내버스, 외출 3회(왕복), 2인	1월	816원	12회
택시	전국	시내구간	1월	5,342원	1회
친지방문 등	전국	고속버스(일반), 4인X1년 2회X왕복(2번)	6월	57,600원	1회
통신비					
집전화요금					
전화 기본요금	대도시	가입비형 10급지 기준	1월	5,200원	1회
	중소도시	가입비형 7급지 기준	1월	4,000원	1회
	농어촌	가입비형 5급지 기준	1월	3,000원	1회
시내통화료	전국	유선전화-유선전화(시내), 1도수(3분) 기준	1월	39원	15회
시외통화료	전국	유선전화-유선전화(시외), 3분 기준	1월	261원	3회
이동통신료	전국	유선전화-무선전화, 3분 기준	1월	261원	5회
부가세	전국	요금(기본료+시내통화료+시외통화료+이동통신통화료)의 10%	1월		1회
이전비	전국	6년에 1회 (기준: 무출동이전)	6년	10,000원	1회
전화기 구입비	전국	일반유선전화	4년	38,789원	1회
휴대전화요금					
휴대폰 기본요금	전국	일반(표준)요금	1월	11,000원	1회
사용요금	전국	3분 기준 (1일 1통화)	1월	324원	30회
부가세	전국	요금의 10%	1월		1회
휴대폰 구입비	전국	5년마다 1회	5년	100,000원	1회
이동통신가입비	전국	생애 1회	35년	39,600원	1회
인터넷요금					
인터넷 사용요금	전국	저가형(라이트 등), 부가세별도	1월	25,500원	1회
부가세	전국	사용요금의 10%	1월		1회
이전비	전국	6년에 1회	6년	10,000원	0회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필수품 선정원칙	지역별 차등이유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 수량 설정기준
152,464원	151,144원	150,044원				
52,416원	52,416원				소비자물가	2010년 同
		52,416원			소비자물가	2010년 同
13,104원	13,104원	13,104원			소비자물가	2010년 同
9,792원	9,792원	9,792원			소비자물가	2010년 同
5,342원	5,342원	5,342원			소비자물가	2010년 同
9,600원	9,600원	9,600원			시장조사	2010년 同
5,200원				부과기준	통신업체	2010년 同
	4,000원			부과기준	통신업체	2010년 同
		3,000원		부과기준	통신업체	2010년 同
585원	585원	585원			통신업체	2010년 同
783원	783원	783원			통신업체	2010년 同
1,305원	1,305원	1,305원			통신업체	2010년 同
787원	667원	567원			세법	세법
139원	139원	139원			통신업체	주거비(전세) 평균이사횟수 6년에 1회 반영
808원	808원	808원			소비자물가	2010년 同
11,000원	11,000원	11,000원	보유율	부과기준	통신업체	통신업체
9,720원	9,720원	9,720원			통신업체	전문가
2,072원	2,072원	2,072원			세법	세법
1,667원	1,667원	1,667원	보유율		전문가	전문가
94원	94원	94원			통신업체	WHO
25,500원	25,500원	25,500원		부과기준	서비스업체	서비스업체
2,550원	2,550원	2,550원			세법	세법
0원	0원	0원			서비스업체	주거비(전세) 평균이사횟수 6년에 1회 반영

〈부표 1-10〉 최저 기타소비지출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기타소비지출					
이미용품					
치솔	전국	성인용	4월	1,551원	4개
치약	전국	170g	1월	1,355원	1개
비누	전국	100g	1월	1,158원	2개
샴푸	전국	500ml	2월	6,556원	1통
스킨로션(여성)	전국	150ml (저가브랜드화장품 중품기준)	6월	15,200원	1개
밀크로션(여성)	전국	150ml	6월	15,540원	1개
스킨로션(남성)	전국	150ml	6월	13,351원	1개
아동용로션	전국	200ml	6월	10,080원	1개
파운데이션	전국	40ml	1년	14,126원	1개
썬크림	전국	70mg	1년	10,802원	1개
립스틱	전국	3.5g	1년	8,429원	1개
손톱깎기	전국	중품	5년	1,584원	1개
면도기	전국	1회용	1월	217원	5개
머리빗	전국	중품 2종	5년	1,584원	2개
이미용서비스					
목욕비	전국	대인 (2월 1회, 4인)	2월	5,180원	4회
이발	전국	남자 대인	3월	7,621원	2회
	전국	남자 아동	3월	5,191원	2회
미용	전국	여자 대인	6월	11,418원	1회
	전국	여자 아동	3월	6,351원	1회
파마	전국	여자 파마	6월	34,530원	1회
장신구					
핸드백	전국	중품	4년	31,669원	1개
가방	전국	학생가방	3년	28,250원	2개
우산	전국	중품, 3단	3년	6,582원	4개
손목시계	전국	아나로그	10년	40,698원	2개
지갑	전국	중품	4년	14,798원	2개
잡비					
경조비	전국	경사 3회, 조사 3회(1년 6회)	1년	30,000원	6회
교제비	전국	가장(1년 6회)	1년	15,000원	6회
친목단체비	전국	배우자	1년	10,000원	2회
자녀용돈	전국	용돈(1월 1회, 2명)	1월	5,000원	2명
친지방문비	전국	선물(1년 2회)	1년	10,000원	2회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필수품 선정원칙	지역별 차등이유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수량 설정기준
90,237원	90,237원	90,237원				
1,551원	1,551원	1,551원	-	-	소비자물가	2010년 同
1,355원	1,355원	1,355원	-	-	소비자물가	2010년 同
2,316원	2,316원	2,316원	-	-	소비자물가	2010년 同
3,278원	3,278원	3,278원	-	-	소비자물가	2010년 同
2,533원	2,533원	2,533원	-	-	소비자물가	2010년 同
2,590원	2,590원	2,590원	-	-	소비자물가	2010년 同
2,225원	2,225원	2,225원	-	-	소비자물가	2010년 同
1,680원	1,680원	1,680원	-	-	소비자물가	2010년 同
1,177원	1,177원	1,177원	-	-	소비자물가	2010년 同
900원	900원	900원	-	-	소비자물가	2010년 同
702원	702원	702원	-	-	소비자물가	2010년 同
26원	26원	26원	-	-	소비자물가	2010년 同
1,085원	1,085원	1,085원	-	-	소비자물가	2010년 同
53원	53원	53원	-	-	소비자물가	2010년 同
10,360원	10,360원	10,360원	-	-	소비자물가	2010년 同
5,081원	5,081원	5,081원	-	-	소비자물가	2010년 同
3,461원	3,461원	3,461원	-	-	소비자물가	2010년 同
1,903원	1,903원	1,903원	-	-	소비자물가	2010년 同
2,117원	2,117원	2,117원	-	-	소비자물가	2010년 同
5,755원	5,755원	5,755원	-	-	소비자물가	2010년 同
660원	660원	660원	-	-	소비자물가	2010년 同
1,569원	1,569원	1,569원	-	-	소비자물가	2010년 同
731원	731원	731원	-	-	소비자물가	2010년 同
678원	678원	678원	-	-	소비자물가	2010년 同
617원	617원	617원	-	-	소비자물가	2010년 同
15,000원	15,000원	15,000원	-	-	2010년 同	2010년 同
7,500원	7,500원	7,500원	-	-	2010년 同	2010년 同
1,667원	1,667원	1,667원	-	-	2010년 同	2010년 同
10,000원	10,000원	10,000원	-	-	실태조사	2010년 同
1,667원	1,667원	1,667원	-	-	2010년 同	2010년 同

〈부표 1-11〉 최저 비소비지출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 연수	단개(원)	수량
비소비지출					
조세					
근로소득세 〈소득분지방소득세 포함〉	전국	최저임금기준(면세점 이하)	1월	0원	1회
균등분주민세 〈지방교육세 포함〉	대도시	1가구당(세대주에게 부과)	1년	5,534원	1회
	중소도시	1가구당(세대주에게 부과)	1년	4,658원	1회
	농어촌	1가구당(세대주에게 부과)	1년	4,875원	1회
재산세(건물과 토지 합산) 〈지방교육세 포함〉	전국	주택 비소유	1년	0원	2회
사회보장분담금					
국민연금	전국	최저임금기준 월소득액의 4.5%	1월	45,670원	1회
건강보험	전국	최저임금기준 월소득액의 2.945% +보험료의 6.55% 장기요양보험료	1월	31,860원	1회
고용보험	전국	최저임금기준 월소득액의 0.55%	1월	5,580원	1회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필수품 선정원칙	지역별 차등이유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수량 설정기준
83,571원	83,498원	83,516원				

0원	0원	0원	세법		세법	세법
461원			세법	부과기준	지방자치단체	세법
	388원		세법	부과기준	지방자치단체	세법
		406원	세법	부과기준	지방자치단체	세법
0원	0원	0원	세법	부과기준	지방자치단체	세법

45,670원	45,670원	45,670원	국민연금법	부과기준	최저임금	보건복지부
31,860원	31,860원	31,860원	건강보험법 장기요양보험법	부과기준	최저임금	보건복지부
5,580원	5,580원	5,580원	고용보험법	부과기준	최저임금	노동부

2.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최저생계비 마켓 바스켓(가구주 42세)

〈부표 1-12〉 최저 식료품비 마켓 바스켓: 중생보위의결안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 규격	내구 연수	단가(원)	수량	중소도시	필수품 선정원칙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 수량 설정기준
식료품						596,476원			
가정식비용						431,666원			
가정식 (외식없는경우)			1월	5,674원	91.25	517,779원	영양학적 기준		
가장중식 절감분			1월	1,621원	21.73	-35,223원			
급식절감분: 12세			1월	5,674원	0.17	-946원		생일(연간 2회)	
급식절감분: 10세			1월	1,621원	16.08	-26,075원		학교알리미 사이트	
수련회절감분: 12세			1월	1,148원	16.08	-18,470원		학교알리미 사이트	
수련회절감분: 10세			1월	1,621원	0.58	-946원		1년 1회 7끼 한명	
가족단위외식절감분			1월	1,148원	0.58	-670원		1년 1회 7끼 한명	
친지방문절감분			1월	5,674원	0.67회	-3,783원		6개월 1회	
외식비						164,810원			
가장중식			1월	3,750원	21.73회	81,473원		실태조사 최빈값	
11세 급식			1월	2,425원	16.08회	39,002원		학교알리미 사이트	
9세 급식			1월	2,425원	16.08회	39,002원		학교알리미 사이트	
가족단위 외식			1월	32,000원	0.17회	5,333원		가족 생일, 실태조사	

품목	품질 및 시기	규격 및 단위	구입량/일	g당가격	가정식비용/일	가격자료
1끼당 비용					5,674원/일	
1일 가정식 비용					17,023원/일	
곡류 및 식빵					3,016원/일	
쌀	백미	20kg(1포)	750.g/일	2.190.원/g	1,643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찹쌀	백미	1kg(1포)	25.g/일	3.060.원/g	77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보리	통보리	1kg(1포)	20.g/일	2.546.원/g	51원/일	소비자물가
콩	백태(국산)	1kg(1포)	9.g/일	6.165.원/g	55원/일	소비자물가
팥	적두(수입)	1kg(1포)	5.g/일	5.350.원/g	27원/일	시장조사
식빵	중품	450g(1봉지)	15.g/일	5.149.원/g	77원/일	소비자물가
밀가루	중력분	3kg(1포)	80.g/일	1.144.원/g	92원/일	소비자물가
국수	소면	900g(1봉지)	75.g/일	3.010.원/g	226원/일	소비자물가
라면	봉지라면	1봉(120g)	120.g/일	4.825.원/g	579원/일	소비자물가
당면	중품	500g(1봉지)	12.g/일	8.000.원/g	96원/일	소비자물가
만두	냉동만두	450g(1봉지)	15.g/일	6.311.원/g	95원/일	시장조사
육류					1,318원/일	
소고기(갈비)	수입소고기(호주)	100g	20.g/일	17.209.원/g	344원/일	소비자물가
돼지고기	삼겹살(냉장)	100g	60.g/일	8.483.원/g	509원/일	소비자물가
닭고기	육계	1kg	50.g/일	5.123.원/g	256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소시지	시장제품	500g(1개)	7.g/일	5.286.원/g	37원/일	소비자물가
햄	시장제품	185g(1개)	8.g/일	8.935.원/g	71원/일	소비자물가
튀김닭		800g(1마리)	10.g/일	9.975.원/g	100원/일	시장조사
낙농품					1,906원/일	
우유	현우유	1000ml(1개)	500.g/일	2.321.원/g	1,161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유산균발효유	중품	65ml(1병)	90.g/일	2.523.원/g	227원/일	소비자물가
달걀		650g(10개)	195.g/일	2.658.원/g	518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어개류					1,317원/일	
갈치	냉동, 약60cm, 11년 8월	250g(1마리)	6.g/일	29.800.원/g	179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명태	동태, 약40cm	400g(1마리)	15.g/일	5.672.원/g	85원/일	소비자물가
고등어	약30cm	350g(1마리)	12.g/일	5.686.원/g	68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꽂치	약30cm	160g(1마리)	8.g/일	3.656.원/g	29원/일	소비자물가
냉동오징어	약25cm	250g(1마리)	12.g/일	4.652.원/g	56원/일	소비자물가
홍합	중품, 안간 것(수입)	400g(1근)	4.g/일	9.900.원/g	40원/일	시장조사
복어	복어포	50g(1봉지)	2.g/일	45.200.원/g	90원/일	시장조사

〈부표 1-12〉 최저 식료품비 마켓 바스켓: 중생보위의결안(계속)

품목	열량 Kcal	단백질 g	비타민A ug RE	비타민D ug	비타민E mg a-TE	비타민C mg	비타민B1 mg	비타민B2 mg	나이아신 mg NE	비타민B6 mg	엽산 ug	비타민 B12 ug
곡류 및 식빵												
쌀	2790.0	48.0	0.0	0.0	1.5	0.0	0.8	0.3	11.3	0.9	183.8	0.0
찰쌀	93.3	1.9	0.0	0.0	0.1	0.0	0.0	0.0	0.4	0.0	6.1	0.0
보리	66.8	2.1	0.0	0.0	0.1	0.0	0.1	0.0	1.1	0.1	7.3	0.0
콩	37.8	3.3	0.0	0.0	0.1	0.0	0.0	0.0	0.2	0.0	28.6	0.0
팥	17.8	1.0	0.0	0.0	0.0	0.0	0.0	0.0	0.2	0.0	9.6	0.0
식빵	42.6	1.2	0.3	0.0	0.2	0.0	0.0	0.0	0.3	0.0	3.5	0.0
밀가루	296.0	9.2	0.0	0.0	0.0	0.0	0.2	0.0	1.4	0.0	12.8	0.0
국수	268.5	6.7	0.0	0.0	0.1	0.0	0.1	0.1	1.4	0.0	16.7	0.0
라면	534.0	9.0	0.0	0.0	2.5	0.0	0.2	0.9	1.6	0.1	28.1	0.0
당면	41.9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만두	32.1	1.4	5.4	0.0	0.1	0.2	0.0	0.0	0.1	0.2	12.1	0.0
육류												
소고기(갈비)	52.6	3.7	2.0	0.2	0.1	0.2	0.0	0.0	0.9	0.1	1.7	0.6
돼지고기	208.8	9.5	0.0	0.0	0.2	0.0	0.3	0.2	0.8	0.0	2.3	0.5
닭고기	90.0	9.5	25.0	0.0	0.2	0.0	0.1	0.1	1.4	0.2	8.4	0.2
소시지	19.0	1.0	0.4	0.0	0.0	0.7	0.0	0.0	0.3	0.0	1.4	0.1
햄	10.5	1.3	0.0	0.1	0.0	3.4	0.0	0.0	0.6	0.0	0.9	0.1
튀김닭	22.5	1.8	2.2	0.0	0.1	0.0	0.0	0.0	0.5	0.0	1.2	0.0
낙농품												
우유	305.0	14.0	260.0	5.0	0.5	0.0	0.3	0.3	2.0	0.1	48.5	2.2
유산균발효유	58.5	1.4	0.0	0.0	0.0	0.0	0.0	0.1	0.0	0.0	28.9	0.3
달걀	271.1	22.2	169.7	5.9	1.4	0.0	0.4	1.3	1.2	0.1	242.8	2.5
어개류												
갈치	6.0	0.7	0.8	0.6	0.0	0.0	0.0	0.0	0.1	0.0	0.1	0.0
명태	10.8	2.4	1.4	0.0	0.1	0.0	0.0	0.0	0.2	0.0	0.6	0.6
고등어	13.0	1.4	1.6	0.8	0.0	0.1	0.0	0.0	0.6	0.0	3.2	0.8
꽂치	6.5	1.0	1.0	0.9	0.0	0.0	0.0	0.0	0.3	0.0	1.8	0.8
냉동오징어	10.6	2.0	0.2	0.0	0.2	0.0	0.0	0.0	0.0	0.0	0.9	0.8
홍합	0.8	0.1	0.3	0.0	0.0	0.0	0.0	0.0	0.0	0.0	0.7	0.1
복어	5.8	1.2	0.0	0.0	0.1	0.0	0.0	0.0	0.2	0.0	0.4	0.1

품목	칼슘 mg	인 mg	마그네슘 mg	철 mg	아연 mg	구리 mg	불소 ug	망간 mg	요오드 ug	셀레늄 ug	몰리브덴 ug	폐기율
곡류 및 식빵												
쌀	30.0	1050.0	0.0	3.0	11.3	0.0	0.0	5.6	0.0	113.3	0.0	0.0
참쌀	1.0	37.8	5.8	0.6	0.7	0.0	0.0	0.3	0.0	3.8	0.0	0.0
보리	8.6	72.0	26.6	1.1	0.5	0.1	0.0	0.3	0.0	7.5	0.0	0.0
콩	22.1	55.8	0.0	0.6	0.2	0.1	0.0	0.2	0.0	1.7	0.0	0.0
팥	4.1	21.2	0.0	0.3	0.2	0.0	0.0	0.1	0.4	0.2	0.0	0.0
식빵	3.3	12.9	0.0	0.1	0.1	0.0	0.0	0.0	0.0	2.6	0.0	0.0
밀가루	24.8	62.4	20.0	1.2	0.0	0.0	0.0	0.4	0.0	11.7	0.0	0.0
국수	15.0	57.8	0.0	0.8	0.4	0.1	0.0	0.5	0.0	6.2	0.0	0.0
라면	231.6	103.2	0.0	0.8	0.6	0.0	0.0	0.6	0.0	12.8	0.0	0.0
당면	5.6	3.1	0.2	0.4	0.0	0.0	0.0	0.0	0.0	0.3	0.0	0.0
만두	4.7	12.5	0.0	0.2	0.1	0.0	0.0	0.0	0.0	0.0	0.0	0.0
육류												
소고기(갈비)	0.6	32.0	3.2	0.2	0.7	0.0	0.0	0.0	0.0	3.2	0.0	0.0
돼지고기	6.0	98.4	2.4	0.6	1.4	0.0	0.0	0.0	0.0	4.8	0.0	0.0
닭고기	5.0	85.0	0.0	0.5	1.1	0.0	0.0	0.0	25.7	7.2	0.0	0.0
소시지	0.8	14.8	0.0	0.1	0.1	0.0	0.0	0.0	0.0	0.0	0.0	0.0
햄	0.4	26.4	0.0	0.1	0.1	0.0	0.0	0.0	0.0	2.4	0.0	0.0
튀김닭	1.6	12.1	1.6	0.1	0.1	0.0	1.2	0.0	0.0	2.0	0.0	22.0
낙농품												
우유	455.0	415.0	0.0	0.5	2.0	0.0	0.0	0.0	117.5	18.5	0.0	0.0
유산균발효유	35.1	25.2	0.0	0.1	0.1	0.0	0.0	0.0	23.6	2.0	0.0	0.0
달걀	101.4	360.8	19.5	3.3	2.5	0.4	2.0	0.1	49.9	61.8	0.0	0.0
어개류												
갈치	1.8	7.7	0.0	0.0	0.0	0.0	0.0	0.0	2.5	0.0	0.0	33.0
명태	7.2	30.0	0.0	0.0	0.1	0.0	0.0	0.0	0.0	4.3	0.0	0.0
고등어	1.8	16.4	5.4	0.1	0.1	0.0	0.0	0.0	6.2	3.1	0.0	41.0
꽂치	1.9	11.0	0.0	0.1	0.0	0.0	0.0	0.0	0.0	0.0	0.0	43.0
냉동오징어	1.3	0.0	0.0	0.0	0.0	0.0	0.0	0.0	0.0	5.4	0.0	0.0
홍합	0.4	2.3	0.0	0.1	0.0	0.0	0.0	0.0	3.2	0.4	0.0	77.0
복어	4.9	11.6	0.0	0.1	0.0	0.0	0.0	0.0	0.0	2.7	0.0	0.0

〈부표 1-12〉 최저 식료품비 마켓 바스켓: 중생보위의결안(계속)

품목	품질 및 시기	규격 및 단위	구입량/일	g당가격	가정식비용/일	가격자료
멸치	볶음용, 중품	1kg	18.0	14.9	268.2	농수산물유통정보
멸치젓	중품	200g(1통)	8.0	15.0	120.0	시장조사
새우젓	중품	500g(1근)	6.0	8.7	52.4	시장조사
생선묵	중품	200g(1봉)	20.0	6.6	132.0	시장조사
참치캔	참치 통조림	150g(1캔)	15.0	13.1	197.0	시장조사
채소					4357.6	
배추	중품	1kg(1포기)	200.0	1.1	220.6	소비자물가
무우	중품	1kg(1개)	150.0	0.5	79.7	소비자물가
파	대파	1Kg	50.0	1.7	87.2	소비자물가
시금치	중품	1kg	50.0	4.6	229.2	농수산물유통정보
상추	잎상추	100g	30.0	7.0	210.0	농수산물유통정보
콩나물	중간길이	100g	40.0	3.0	121.2	소비자물가
감자	중품	1kg	60.0	2.1	128.2	소비자물가
오이	다다기 중품	1.5kg(10개)	30.0	4.0	120.0	농수산물유통정보
당근	중품	1.0kg	35.0	4.9	170.6	농수산물유통정보
풋고추	중품	100g	15.0	9.3	139.2	농수산물유통정보
양파	중품	1000g	60.0	1.1	64.7	소비자물가
호박	쭉기니 중품	500g(1개)	50.0	1.9	94.1	소비자물가
토마토	중품	1kg	20.0	4.5	89.6	농수산물유통정보
고구마	중품	1kg	25.0	3.1	77.8	소비자물가
도라지	중품	200g(반근)	3.0	13.7	41.2	소비자물가
가지	중품	120g(1개)	8.0	3.9	31.5	소비자물가
양배추	중품	1kg(1포기)	40.0	1.1	45.7	소비자물가
미나리	중품	1kg	12.0	3.0	36.0	농수산물유통정보
버섯	느타리버섯	100g	12.0	7.3	88.0	농수산물유통정보
깻잎	중품	200g	4.0	15.0	60.0	농수산물유통정보
부추	중품	1kg	12.0	4.0	47.6	소비자물가
숙주나물	중품	100g	20.0	2.6	52.0	시장조사
단무지	중품	400g(1봉지)	9.0	5.6	50.6	시장조사
두부	시장제품	500g(1모)	100.0	2.0	202.4	소비자물가
도토리묵	시장제품	400g(1개)	20.0	6.2	124.5	시장조사
김	중품,검정색	100장(200g)	18.0	34.3	618.0	농수산물유통정보
미역	대각	1kg	50.0	22.6	1128.1	농수산물유통정보
과실류					1442.4	
사과	쓰가루(12년9월)	2.5kg(10개)	60.0	4.0	240.0	농수산물유통정보
배	신고	5kg(10개)	50.0	4.0	198.0	농수산물유통정보
복숭아	유명(12년9월)	2.25.kg(10개)	20.0	3.5	70.3	소비자물가
포도	켄벨(12년 11월)	1kg	40.0	3.0	118.4	농수산물유통정보

품목	열량 Kcal	단백질 g	비타민A ug RE	비타민D ug	비타민E mg a-TE	비타민C mg	비타민B1 mg	비타민B2 mg	나이아신 mg NE	비타민B6 mg	엽산 ug	비타민 B12 ug
멸치	43.0	7.6	0.0	0.0	0.1	0.0	0.0	0.0	1.0	0.1	19.4	7.4
멸치젓	13.4	1.1	4.8	0.0	0.3	0.0	0.0	0.0	0.5	0.0	2.0	0.0
새우젓	2.6	0.4	3.1	0.0	0.0	0.0	0.0	0.0	0.0	0.0	1.7	0.0
생선묵	28.0	2.4	0.0	0.0	0.1	0.0	0.0	0.0	0.1	0.0	2.1	0.1
참치캔	33.3	2.6	0.0	0.9	1.0	0.0	0.0	0.0	1.8	0.1	1.6	0.3
채소												
배추	22.1	2.0	1.8	0.0	0.9	18.4	0.4	0.1	0.7	0.2	214.5	0.0
무우	29.9	1.4	0.0	0.0	0.0	21.4	0.2	0.0	0.7	0.0	57.1	0.0
파	10.5	0.6	52.2	0.0	0.0	8.5	0.0	0.0	0.2	0.0	46.0	0.0
시금치	12.9	1.3	301.0	0.0	0.3	25.8	0.1	0.1	0.2	0.0	126.2	0.0
상추	4.5	0.6	5.9	0.0	0.4	4.8	0.0	0.1	0.1	0.0	17.0	0.0
콩나물	21.2	1.8	0.0	0.0	0.1	2.0	0.2	0.0	0.3	0.0	38.8	0.0
감자	35.5	1.4	0.6	0.0	0.0	4.5	0.1	0.0	0.2	0.1	15.4	0.0
오이	2.6	0.2	8.6	0.0	0.1	2.9	0.0	0.0	0.1	0.0	1.1	0.0
당근	11.5	0.3	395.6	0.0	0.1	2.5	0.0	0.0	0.2	0.0	9.7	0.0
꽃고추	3.3	0.2	3.5	0.0	0.0	6.8	0.0	0.0	0.1	0.0	5.9	0.0
양파	19.9	0.6	0.0	0.0	0.0	4.4	0.0	0.0	0.1	0.1	9.4	0.0
호박	15.0	0.6	70.0	0.0	0.5	20.0	0.0	0.0	0.4	0.0	27.8	0.0
토마토	3.6	0.2	2.4	0.0	0.1	2.4	0.0	0.0	0.1	0.0	10.3	0.0
고구마	30.5	0.3	4.4	0.0	0.1	5.8	0.0	0.0	0.2	0.0	19.5	0.0
도라지	1.6	0.0	0.0	0.0	0.0	0.3	0.0	0.0	0.1	0.0	0.4	0.0
가지	1.3	0.1	4.7	0.0	0.0	0.7	0.0	0.0	0.0	0.0	3.5	0.0
양배추	6.9	0.5	8.3	0.0	0.0	3.1	0.0	0.0	0.1	0.0	33.7	0.0
미나리	2.1	0.1	0.9	2.7	0.1	1.0	0.0	0.0	0.0	0.0	13.3	0.0
버섯	3.0	0.3	0.1	0.1	0.0	0.4	0.0	0.0	0.1	0.0	12.1	0.0
깻잎	1.6	0.2	61.0	0.0	0.1	0.5	0.0	0.0	0.0	0.0	0.0	0.0
부추	2.3	0.2	1.6	0.0	0.3	0.5	0.0	0.0	0.1	0.0	10.2	0.0
숙주나물	2.4	0.4	0.8	0.0	0.0	2.0	0.0	0.0	0.1	0.0	12.2	0.0
단무지	1.1	0.0	0.0	0.0	0.0	0.6	0.0	0.0	0.0	0.0	1.3	0.0
두부	88.0	7.6	0.0	0.0	0.6	0.0	0.1	0.1	0.3	0.0	15.3	0.0
도토리묵	8.6	0.0	0.0	0.0	0.0	0.0	0.0	0.0	0.0	0.0	2.8	0.0
김	29.2	6.2	0.0	0.0	0.5	3.6	0.0	0.2	0.5	0.2	294.0	14.0
미역	63.0	10.0	277.5	0.0	0.3	9.0	0.1	0.5	2.3	0.0	76.9	0.1
과실류												
사과	24.1	0.1	0.5	0.0	0.5	23.6	0.0	0.0	0.0	0.0	3.5	0.0
배	14.5	0.2	0.0	0.0	0.0	1.7	0.0	0.0	0.1	0.0	3.3	0.0
복숭아	6.1	0.1	0.0	0.0	0.1	0.0	0.0	0.0	0.1	0.0	0.4	0.0
포도	13.1	0.1	0.6	0.0	0.1	0.0	0.0	0.0	0.1	0.0	7.9	0.0

품목	칼슘 mg	인 mg	마그네슘 mg	철 mg	아연 mg	구리 mg	불소 ug	망간 mg	요오드 ug	셀레늄 ug	몰리브덴 ug	폐기물
멸치	162.4	175.9	0.0	1.0	0.2	0.0	0.0	0.6	47.7	15.3	0.0	0.0
멸치젓	47.4	27.8	0.0	0.4	0.0	0.0	0.0	0.0	0.0	0.0	0.0	0.0
새우젓	19.8	6.7	0.0	0.1	0.1	0.0	0.0	0.0	0.0	0.0	0.0	0.0
생선묵	11.6	17.6	0.0	0.2	0.1	0.0	0.0	0.0	0.0	0.0	0.0	0.0
참치캔	9.3	26.4	0.0	0.5	0.1	0.0	0.0	0.0	0.0	0.0	0.0	0.0
채소												
배추	53.4	33.1	0.0	0.9	0.7	0.1	0.0	0.4	0.0	0.9	0.0	8.0
무우	37.1	54.2	0.0	3.3	0.4	0.0	0.0	0.7	0.0	1.0	0.0	5.0
파	32.8	14.2	9.3	0.4	0.0	0.0	0.0	0.0	0.0	0.2	0.0	19.0
시금치	17.2	12.5	0.0	1.1	0.3	0.0	0.0	0.3	0.0	0.4	0.0	14.0
상추	32.1	7.5	0.0	0.8	0.1	0.0	0.0	0.1	0.0	0.2	0.0	0.0
콩나물	19.2	39.6	28.8	0.2	0.3	0.1	0.0	0.1	0.0	0.2	0.0	0.0
감자	2.3	35.5	13.0	0.3	0.3	0.1	0.0	0.1	0.0	0.2	0.0	6.0
오이	7.4	9.4	0.0	0.1	0.1	0.0	0.0	0.0	0.0	0.0	0.0	5.0
당근	12.5	11.8	3.7	0.2	0.1	0.0	0.9	0.1	0.0	0.0	0.0	11.0
풋고추	0.6	3.3	0.0	0.1	0.0	0.0	0.0	0.0	0.0	0.1	0.0	4.0
양파	8.8	16.6	0.0	0.2	0.2	0.0	0.0	0.2	0.0	0.3	0.0	8.0
호박	30.5	12.0	8.5	1.2	0.1	0.0	0.0	0.1	0.2	0.1	0.0	0.0
토마토	1.2	2.4	2.2	0.1	0.2	0.0	0.4	0.0	0.0	0.1	0.0	1.0
고구마	5.6	12.6	5.8	0.1	0.1	0.0	3.3	0.5	0.0	0.1	0.0	7.0
도라지	0.8	1.5	0.0	0.0	0.0	0.0	0.0	0.0	0.0	0.0	0.0	28.0
가지	1.4	1.8	1.1	0.0	0.0	0.0	0.0	0.0	0.1	0.0	0.0	6.0
양배추	10.7	10.0	5.2	0.2	0.1	0.0	0.0	0.1	0.0	0.1	0.0	14.0
미나리	12.8	6.1	0.0	0.1	0.0	0.0	0.0	0.1	0.1	0.0	0.0	18.0
버섯	0.1	6.5	2.2	0.1	0.1	0.0	0.0	0.0	0.0	0.3	0.0	0.0
깻잎	8.4	2.9	2.5	0.1	0.0	0.0	0.0	0.1	0.0	0.0	0.0	0.0
부추	3.0	2.5	0.0	0.4	0.0	0.0	0.0	0.0	0.0	0.1	0.0	11.0
숙주나물	3.0	6.4	4.2	0.1	0.1	0.0	0.0	0.0	0.0	0.1	0.0	0.0
단무지	2.2	1.6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두부	44.0	132.0	0.0	1.4	1.0	0.2	0.0	0.6	0.0	9.9	0.0	0.0
도토리묵	1.2	5.2	0.0	0.1	0.0	0.0	0.0	0.0	0.0	0.0	0.0	0.0
김	75.6	44.6	0.0	8.3	0.9	0.1	0.0	0.5	0.0	1.2	0.0	0.0
미역	479.5	153.5	0.0	4.6	1.8	0.0	0.0	0.3	5800.0	0.0	0.0	0.0
과실류												
사과	3.0	4.4	0.0	0.1	0.0	0.0	0.0	0.0	0.0	0.0	0.0	18.0
배	2.1	5.0	0.0	0.1	0.0	0.0	0.0	0.0	0.0	0.0	0.0	17.0
복숭아	0.9	3.2	0.0	0.0	0.0	0.0	0.0	0.0	0.0	0.0	0.0	15.0
포도	1.4	3.7	0.0	0.1	0.0	0.0	0.0	0.0	0.0	0.0	0.0	29.0

품목	품질 및 시기	규격 및 단위	구입량/일	g당가격	가정식비용/일	가격자료
감	단감 중품	2kg(10개)	25.0	3.1	77.9	소비자물가
감귤	중품	1kg(10개)	140.0	1.9	266.0	농수산물유통정보
참외	중품(12년9월)	4kg(10개)	40.0	1.8	73.3	소비자물가
수박	중품	8.0kg(1개)	110.0	0.9	103.5	소비자물가
딸기	중품	100g	25.0	9.4	235.0	농수산물유통정보
바나나	수입품	1kg	50.0	1.2	60.0	농수산물유통정보
조미식품					1386.3	
참기름	공장제품,초유	320ml	2.0	20.4	40.8	소비자물가
콩기름	공장제품,1800ml	1병	20.0	3.1	62.7	소비자물가
마아가린	중품	1통(220g)	8.0	6.4	50.9	시장조사
고추가루	중품	100g	13.0	33.9	440.7	소비자물가
마늘	중품,깐 것	1kg	18.0	4.6	83.6	소비자물가
생강	중품	1kg	5.0	5.5	27.5	농수산물유통정보
후추가루	캔포장	100g(1캔)	0.3	35.4	10.6	시장조사
카레가루	중품	100g(1봉)	3.0	16.0	47.9	소비자물가
설탕	정백당	1kg(1포)	25.0	1.8	44.9	소비자물가
소금	천일염	1.0kg	20.0	2.3	45.9	소비자물가
깨	참깨(수입산)	500g(1되)	25.0	6.4	160.5	농수산물유통정보
간장	시장제품	900ml(1병)	18.0	3.3	59.2	시장조사
된장	PET용기	500g(1포)	12.0	4.1	49.0	시장조사
고추장	PET용기	500g(1포)	12.0	7.3	87.1	시장조사
혼합조미료	다시다	100g(1포)	1.5	15.7	23.6	시장조사
식초	사과식초	500ml(1병)	4.0	2.2	8.6	시장조사
케첩	시장제품	500g(1병)	3.0	3.7	11.1	소비자물가
마요네즈	시장제품	500g(1병)	4.0	5.6	22.3	시장조사
물엿	중품	1.2kg(1병)	50.0	2.2	109.4	소비자물가
빵 및 과자류					1042.1	
케이크	중간 크기	800g(1판)	10.0	14.4	143.9	소비자물가
스낵과자	시장제품	1봉(90g)	60.0	8.6	516.0	소비자물가
비스켓	시장제품	1봉(150g)	90.0	4.2	382.2	소비자물가
차음료 및 주류					1230.0	
커피	봉지용기	175g(1봉지)	25.0	33.9	846.3	소비자물가
보리차	티백포장	300g(1상자)	4.0	5.4	21.6	시장조사
콜라	PET 용기	1500ml(1병)	100.0	1.2	118.1	소비자물가
주스	PET 용기	1500ml(1병)	100.0	1.7	174.7	시장조사
소주	시장제품	360ml(1병)	24.0	2.9	69.3	소비자물가
기타식료품					7.8	
커피크림	비닐포장	500g(1봉지)	2.0	3.9	7.8	시장조사

〈부표 1-12〉 최저 식료품비 마켓 바스켓: 중생보위의결안(계속)

품목	열량 Kcal	단백질 g	비타민A ug RE	비타민D ug	비타민E mg a-TE	비타민C mg	비타민B1 mg	비타민B2 mg	나이아신 mg NE	비타민B6 mg	엽산 ug	비타민 B12 ug
감	12.8	0.1	7.8	0.0	0.1	27.5	0.0	0.0	0.1	0.0	0.8	0.0
감귤	44.8	0.8	1.1	0.0	0.5	50.5	0.1	0.0	0.5	0.1	27.6	0.0
참외	8.4	0.3	4.7	0.0	0.0	7.8	0.0	0.0	0.1	0.0	20.0	0.0
수박	22.2	0.6	21.5	0.0	0.1	0.0	0.0	0.0	0.2	0.1	4.4	0.0
딸기	8.8	0.2	0.0	0.0	0.0	17.4	0.0	0.0	0.1	0.0	31.2	0.0
바나나	25.6	0.3	5.8	0.0	0.1	0.0	0.0	0.0	0.1	0.1	5.2	0.0
조미식품												
참기름	18.3	0.0	0.0	0.0	0.8	0.0	0.0	0.0	0.0	0.0	0.0	0.0
콩기름	184.2	0.0	0.0	0.0	20.6	0.0	0.0	0.0	0.1	0.0	0.0	0.0
마아가린	57.7	0.0	137.8	0.0	0.4	0.0	0.0	0.0	0.0	0.0	0.1	0.0
고추가루	42.1	1.9	447.2	0.0	3.8	4.2	0.1	0.2	1.9	0.1	2.8	0.0
마늘	24.5	1.0	0.0	0.0	0.0	5.0	0.0	0.1	0.1	0.1	15.6	0.0
생강	2.2	0.1	0.0	0.0	0.0	0.2	0.0	0.0	0.0	0.0	0.7	0.0
후추가루	0.9	0.0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카레가루	12.0	0.3	3.0	0.0	0.0	0.0	0.0	0.0	0.0	0.0	4.6	0.0
설탕	96.8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소금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깨	148.3	4.5	0.0	0.0	1.8	0.0	0.1	0.0	0.0	0.2	24.0	0.0
간장	9.5	1.4	0.0	0.0	0.1	0.0	0.0	0.0	0.2	0.0	8.2	0.0
된장	19.3	1.6	0.0	0.0	0.2	0.0	0.0	0.0	0.1	0.0	10.7	0.0
고추장	21.4	0.6	49.0	0.0	0.7	0.6	0.0	0.1	0.2	0.0	6.4	0.0
혼합조미료	3.3	0.2	0.2	0.0	0.1	0.0	0.0	0.0	0.1	0.0	0.7	0.0
식초	0.9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케찹	3.6	0.1	4.2	0.0	0.1	0.3	0.0	0.0	0.0	0.0	1.1	0.0
마요네즈	30.4	0.0	1.9	0.0	0.3	0.0	0.0	0.0	0.0	0.0	0.2	0.0
물엿	146.5	0.1	0.0	0.0	0.0	0.0	0.0	0.0	0.0	0.4	0.0	0.0
빵 및 과자류												
케이크	35.2	0.7	8.2	0.0	0.0	0.0	0.0	0.0	0.0	0.0	1.3	0.0
스낵과자	289.2	4.4	0.0	0.0	1.4	0.0	0.1	0.0	0.4	0.0	4.8	0.0
비스킷	405.0	5.9	2.7	0.0	1.4	0.0	0.1	0.0	0.3	0.0	12.6	0.0
차음료 및 주류												
커피	88.0	4.9	0.0	0.0	0.1	0.0	0.0	0.1	7.8	0.0	0.0	0.0
보리차	12.7	0.5	0.0	0.0	0.0	0.0	0.0	0.0	0.2	0.0	2.0	0.0
콜라	47.0	0.0	0.0	0.0	0.0	0.0	0.1	0.0	0.3	0.0	0.0	0.0
쥬스	43.0	0.2	0.0	0.0	0.0	2.0	0.0	0.0	0.1	0.0	0.0	0.0
소주	33.8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식료품												
커피프림	10.9	0.1	0.1	0.0	0.2	0.0	0.0	0.0	0.0	0.0	0.0	0.0

〈부표 1-13〉 최저 주거비 마켓 바스켓: 중생보위의결안(전세인 경우)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 규격	내구 연수	단가(원)	수량	중소도시	필수품 선정원칙	단가 설정기준	내구년수, 수량 설정기준
최저 주거비						286,331원			
구입자금									
조달비용	중소 도시	아파트, 40m ²	1년	57,146,047원	4.70%	223,822원		이자율 (국토해양부, 한국은행)	
보증보험료	중소 도시	아파트, 40m ²	1년	36,002,009원	0.30%	9,001원	시장조사	국토해양부	국토 해양부
관리비	중소 도시	아파트, 40m ²	1월	720원	50.0m ²	36,000원		국토해양부	공동주택 관리비
이사비	중소 도시	6년에 1회	6.00년	536,526원	1회	7,452원		소비자물가 지수	실태조사
복비	중소 도시	전세금의 0.4%	6.00년	228,584원	1회	3,175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실태조사
도배비	중소 도시	6년에 1회	6.00년	12,386원	40.0m ²	6,881원		최저거주면적	실태조사

〈부표 1-14〉 최저 광열·수도비 마켓 바스켓: 중생보위의결안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중소도시	필수품 선정원칙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 수량 설정기준
광열수도						114,461원			
전기요금	중소 도시	265kwh	1월	33,046원	1회	32,039원		에너지 센서스	
상하수도 요금	중소 도시	18.2m ³	1월	14,654원		14,654원		속초시 요금	상하수도통계
난방비	중소 도시	LNG 70.7m ³	1월	67,768원		67,768원		경기요금	에너지 센서스

〈부표 1-15〉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마켓 바스켓: 중생보위의결안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중소도시	필수품 선정원칙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 수량 설정기준
가사가구집기						45,653원			
일반가구									
장롱	전국	8자목재	9년	501,750원	1개	4,646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조달청 내용연수
서랍장	전국	5단플라스틱	9년	35,779원	1개	331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조달청 내용연수
책상	전국	목재학생용책상 650*450*760	8년	46,655원	2개	972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조달청 내용연수
의자	전국	목재	9년	23,860원	2개	442원		소비자물가지수	조달청 내용연수
벽시계	전국		10년	24,057원	1개	200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탁상시계	전국		10년	18,414원	2개	307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화장대	전국	철제, 거울 포함	8년	39,402원	1개	410원		소비자물가지수	조달청 내용연수
행거	전국	철제	10년	12,870원	1개	107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문갑	전국	5자목재	9년	57,420원	1개	532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조달청 내용연수
가정용기구									
냉장고	전국	428L	10년	580,260원	1대	4,836원	보유율/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전기밥솥	전국	6인용	9년	65,585원	1개	607원	보유율	소비자물가지수	조달청 내용연수
가스레인지	전국	버너2개	10년	61,620원	1개	514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세탁기	전국	10kg	9년	351,780원	1대	3,257원	보유율	소비자물가지수	전력거래 소(2011)
다리미	전국	일반유선	10년	24,750원	1개	206원	보유율/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선풍기	전국	14인치	10년	48,240원	2개	804원	보유율/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믹서	전국	일반 믹서기 1리터	7년	35,525원	1개	423원	보유율/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조달청 내용연수
전자레인지	전국	20리터 465×279×36 0mm	7년	83,810원	1개	998원	보유율	소비자물가지수	조달청 내용연수
헤어드라이기	전국	일반용 220v 1200w	6년	17,582원	1개	244원	보유율/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부표 1-15〉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마켓 바스켓: 중생보위의결안(계속)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개(원)	수량	중소도시	필수품 선정원칙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 수량 설정기준
식기주방용품									
밥상	전국	4인용4각	10년	31,950원	1개	266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주발	전국	단반상기 (2벌 1세트)	8년	53,199원	3세트	1,662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손님접대용 포함
접시	전국	7.5인치	8년	7,775원	9개	729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손님접대용 포함
컵	전국	유리	8년	1,002원	8개	84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손님접대용 포함
쟁반	전국	중	5년	3,941원	1개	66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냄비	전국	중	5년	5,315원	3개	266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주전자	전국	대	10년	13,526원	1개	113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전국	소	10년	6,923원	1개	58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후라이팬	전국	직경 28cm (대)	5년	15,984원	1개	266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전국	직경 24cm (중)	5년	13,986원	1개	233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항아리	전국	중	10년	21,300원	3개	533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식도	전국	스테인레스 중	5년	5,432원	1개	91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과도	전국	스테인레스 중	5년	2,130원	1개	36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도마	전국	중	10년	5,325원	1개	44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수저	전국	스테인레스	10년	1,574원	8벌	105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손님접대용 포함
수저통	전국	플라스틱	5년	2,237원	1통	37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조미료통	전국	플라스틱 3개들이 1세트	5년	5,325원	1세트	89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반찬통	전국	플라스틱 대	10년	3,555원	2개	59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전국	플라스틱 중	10년	2,311원	4개	77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김치통	전국	폴리프로필렌 9리터	10년	12,873원	2개	215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전국	소	10년	3,555원	2개	59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바가지	전국	플라스틱 중	2년	1,065원	2개	89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고무통	전국		10년	6,390원	1개	53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국자	전국	플라스틱 중	5년	1,598원	2개	53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대야	전국	플라스틱 중	8년	2,130원	1개	22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랩	전국	30Cm*50m	5월	3,674원	1통	735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쿠킹호일	전국	30Cm*30m	5월	3,568원	1통	714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보온병	전국	1.2L	10년	11,715원	1개	98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부표 1-15〉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마켓 바스켓: 중생보위의결안(계속)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 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중소도시	필수품 선정원칙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 수량 설정기준
가사잡화 소모품									
가사잡화									
드라이버	전국	중	10년	2,130원	1개	18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망치	전국	중	10년	4,260원	1개	36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못	전국	나사 못 (6종 1세트)	10년	1,065원	1세트	9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가위	전국	중	10년	3,195원	1개	27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건조대	전국	중	10년	13,845원	1개	115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빨래판	전국	플라스틱	5년	3,195원	1개	53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빨래집게	전국	10개들이 1세트	1년	1,065원	2세트	178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방빗자루	전국	플라스틱	5년	3,195원	1개	53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쓰레받기	전국	플라스틱	5년	2,130원	1개	36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휴지통	전국	플라스틱 중	9년	3,195원	1개	30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조달청 내용연수
	전국	플라스틱 소	9년	1,598원	1개	15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조달청 내용연수
비누통	전국	플라스틱	10년	1,065원	1개	9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바늘	전국		5년	1,065원	1쌈	18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목도장	전국		5년	5,325원	2개	178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부, 모
가사소모품									
형광전구	전국	주광색 18w 일반조명용	1년	1,489원	6개	744원	보유율/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방3 (방2, 거실1)
백열전구	전국	투명220v-60w 일반조명용	6월	644원	2개	215원	보유율/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화장지	전국	두루마리 60m 1개	1월	548원	4개	2,194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고무장갑	전국	중	3월	1,544원	2짝	1,030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빨래비누	전국	230g	1월	746원	1개	746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합성세제	전국	3.0kg	4월	9,641원	1봉	2,410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부억용세제	전국	1Kg	3월	2,457원	1병	819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살충방충제	전국	수압분무식 500ml	1년	2,674원	1통	223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나프탈렌	전국		1년	1,278원	1봉	107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습기제거제	전국	제습량525ml	1년	1,526원	1개	127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행주	전국		4월	799원	2개	399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수세미	전국	150mm*230mm	4월	1,278원	1개	320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구두솔	전국		1년	735원	1개	61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구두약	전국		1년	639원	1통	53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접착제	전국		1년	533원	1개	44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건전지	전국	알카리AA 1.5V	1년	706원	7개	412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벽시계2개, 탁상시계2개 카메라1개, 리모콘2개

〈부표 1-15〉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마켓 바스켓: 중생보위의결안(계속)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중소도시	필수품 선정원칙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 수량 설정기준
침구 및 직물제품									
이불	전국	동	10년	61,936원	4채	2,065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가구원수
	전국	춘추	10년	33,180원	4채	1,106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가구원수
요	전국	동	10년	27,650원	4채	922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가구원수
	전국	춘추	10년	22,120원	4채	737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가구원수
베개	전국	.	10년	5,530원	4개	184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가구원수
타올	전국	80Cm* 40Cm	2년	2,763원	4매	460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가구원수
커튼	전국	150Cm* 230Cm	10년	32,262원	2세트	538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방2
가사서비스									
가구집기 수선료	전국	.	1년	7,000원	2회	1,167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쓰레기봉투	중소도시	10리터 1매	1월	221원	5매	1,107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2010년 同

〈부표 1-16〉 최저 피복·신발비 마켓 바스켓: 중생보위의결안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 연수	단가(원)	수량	중소도시	필수품 선정원칙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 수량 설정기준
피복 및 신발						66,851원			
외의									
가장(42세)									
신사복	전국	동	10년	102,420원	2벌	1,707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전국	춘추	10년	91,040원	2벌	1,517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오버코트	전국	동	10년	88,800원	1점	740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잠바	전국	동	10년	32,250원	2점	538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전국	춘추	10년	20,820원	2점	347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바지	전국	동	8년	22,020원	2점	459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전국	춘추	8년	16,515원	2점	344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반바지	전국	하	8년	11,010원	2점	229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운동복	전국	동,잠옷겸용	8년	24,400원	2벌	508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전국	춘추,잠옷겸용	8년	18,300원	2벌	381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주부(39세)									
숙녀복	전국	동	10년	96,660원	2벌	1,611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전국	춘추	10년	75,180원	2벌	1,253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오버코트	전국	동	10년	84,800원	1점	707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잠바	전국	동	10년	32,250원	2점	538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스커트	전국	춘추, 동	10년	31,230원	2점	521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바지	전국	동	8년	20,820원	3점	651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전국	춘추	8년	15,615원	3점	488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반바지	전국	하	8년	10,410원	2점	217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운동복	전국	동,잠옷겸용	8년	24,400원	2벌	508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전국	춘추,잠옷겸용	8년	18,300원	2벌	381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자녀(남,12세)									
잠바	전국	동	2년	32,250원	1점	1,344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전국	춘추	2년	21,500원	1점	896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바지	전국	동	2년	16,575원	2점	1,381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전국	춘추	2년	11,050원	2점	921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반바지	전국	하	2년	8,840원	2점	737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체육복	전국	동	3년	21,960원	1벌	610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전국	하	3년	18,300원	1벌	508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자녀(여,10세)									
잠바	전국	동	2년	32,250원	1점	1,344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전국	춘추	2년	21,500원	1점	896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바지	전국	동	2년	16,575원	3점	2,072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전국	춘추	2년	16,575원	3점	2,072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부표 1-16〉 최저 피복·신발비 마켓 바스켓: 중생보위의결안(계속)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중소도시	필수품 선정원칙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 수량 설정기준
반바지	전국	하	2년	8,840원	2점	737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스커트	전국	춘추, 동	2년	13,260원	1점	553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체육복	전국	동	3년	21,960원	1벌	610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전국	하	3년	18,300원	1벌	508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스웨터,셔츠

가장

와이셔츠	전국	긴팔	6년	13,260원	3점	553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전국	반팔	6년	11,050원	3점	460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셔츠	전국	긴팔	6년	16,575원	2점	460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전국	반팔	6년	11,050원	2점	307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스웨터	전국		6년	16,245원	2점	451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남방	전국		6년	11,050원	2점	307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주부

셔츠	전국	긴팔	6년	16,575원	3점	691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전국	반팔	6년	11,050원	3점	460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스웨터	전국	겨울	6년	16,245원	2점	451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블라우스	전국		6년	22,100원	3점	921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자녀(남)

셔츠	전국	긴팔	2년	11,050원	2점	921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전국	반팔	2년	5,525원	2점	460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스웨터	전국		3년	12,996원	3점	1,083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자녀(여)

셔츠	전국	긴팔	2년	10,829원	2점	902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전국	반팔	2년	5,525원	2점	460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스웨터	전국		3년	12,996원	3점	1,083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블라우스	전국		3년	11,050원	3점	921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내의

가장

동내의	전국	성인용상하 순면60's	3년	29,590원	3벌	2,466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런닝	전국	남자성인용 흰색 순면40's	3년	2,991원	9매	748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팬티	전국	성인용 흰색 순면	3년	2,954원	9매	738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주부

동내의	전국	성인용상하 순면60's	3년	20,268원	3벌	1,689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런닝	전국		3년	2,124원	9매	531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팬티	전국	성인용 삼각 순면	3년	3,821원	12매	1,274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브래지어	전국		3년	5,310원	2점	295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속치마	전국	양장용	3년	10,620원	2점	590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부표 1-16〉 최저 피복·신발비 마켓 바스켓: 중생보위의결안(계속)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중소도시	필수품 선정원칙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 수량 설정기준
자녀(남)									
동내의	전국		3년	10,507원	3벌	876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런닝	전국		3년	2,627원	9점	657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팬티	전국		3년	2,269원	9점	567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자녀(여)									
동내의	전국		3년	9,346원	3벌	779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런닝	전국		3년	2,336원	9점	584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팬티	전국		3년	2,018원	9점	504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직물.실									
실	전국		6년	1,105원	2타래	31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기타피복									
가장									
넥타이	전국		6년	5,355원	2개	149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장갑	전국	방한용	2년	7,185원	1켢레	299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혁대	전국		3년	5,325원	1개	148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양말	전국	사계절용	1년	2,448원	4켢레	816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목도리	전국		6년	7,242원	1개	101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손수건	전국		6년	1,065원	2개	30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주부									
스타킹	전국	팬티스타킹 1켢레	3월	1,645원	1개	548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전국	판타롱스타킹 1켢레	2월	799원	1개	399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장갑	전국	방한용	2년	7,185원	1켢레	299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혁대	전국		3년	5,325원	1개	148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양말	전국	사계절용	1년	2,448원	2켢레	408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목도리	전국		6년	7,242원	1개	101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손수건	전국		6년	1,065원	1개	15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자녀(남)									
장갑	전국	방한용	2년	6,754원	1켢레	281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혁대	전국		3년	4,687원	1개	130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양말	전국	사계절용	1년	1,702원	4켢레	567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목도리	전국		2년	5,645원	1개	235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자녀(여)									
장갑	전국	방한용	2년	6,754원	1켢레	281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양말	전국	사계절용	1년	1,702원	4켢레	567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목도리	전국		2년	5,645원	1개	235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부표 1-16〉 최저 피복·신발비 마켓 바스켓: 중생보위의결안(계속)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중소도시	필수품 선정원칙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 수량 설정기준
신발									
가장									
구두	전국	인조가죽	4년	33,570원	1켤레	699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운동화	전국		2년	16,548원	1켤레	690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슬리퍼	전국		3년	5,325원	1켤레	148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주부									
구두	전국	인조가죽	4년	22,540원	1켤레	470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법인세법
운동화	전국		2년	15,779원	1켤레	657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슬리퍼	전국		3년	5,325원	1켤레	148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샌들	전국		3년	15,664원	1켤레	435원	보유율/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자녀(남)									
운동화	전국		2년	10,670원	1켤레	445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실내화	전국	백색, 학생용 1켤레	1년	4,122원	1켤레	343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샌들	전국		2년	8,520원	1켤레	355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자녀(여)									
운동화	전국		2년	10,670원	1켤레	445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실내화	전국	백색, 학생용 1켤레	1년	4,122원	1켤레	343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샌들	전국		2년	8,520원	1켤레	355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피복 및 신발서비스									
세탁료	전국	신사복상하 드라이크리닝	1년	6,258원	4벌	2,086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전국	숙녀복상하 드라이크리닝	1년	6,258원	2벌	1,043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의복수선료	전국	신사복 하의 기장 수선	1년	3,129원	1벌	261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구두수선료	전국	남성용 구두굽 수선료	3년	4,224원	1켤레	117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부표 1-17〉 최저 보건의료비 마켓 바스켓: 중생보위의결안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중소도시	필수품 선정원칙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 수량 설정기준
보건의료						67,247원			
보건의료용품									
안경	전국	중품	36월	45,000원	2개	2,500원	.	시장조사	2010년 同
위생대	전국	생리대 중형 20패드	1월	264원	20개	5,280원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보건의료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	전국	입원, 외래, 처방약값	1월	52,697원	1단위	52,697원	.	실태조사	2010년 同
약값	전국	비처방약값	1월	4,792원	1단위	4,792원	.	실태조사	2010년 同
미충족육구	전국	50% 반영	1월	1,978원	1단위	1,978원	.	실태조사	2010년 同

〈부표 1-18〉 최저 교육비 마켓 바스켓: 중생보위의결안

중분류/ 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 연수	단가(원)	수량	중소도시	필수품 선정원칙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 수량 설정기준
교육비						73,803원			
〈초등학생-12세(남)/10세(여)〉									
교재비									
참고서	전국	1, 2학기 전과 각 1인당 1권	1년	27,440원	4권	9,147원	실태조사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문제집	전국	1, 2학기 각 1인당 2권	1년	14,442원	8권	9,628원	실태조사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보충교육비									
가정학습지	전국	교과목 관련(1종 / 1인당 6월)	1년	34,500원	12월	34,500원	실태조사	실태조사	2010년 同
수련회	전국	국내 2박3일 기준(1회/인)	1년	53,470원	2회	8,912원	실태조사	실태조사	2010년 同
기타교육비	전국	야외학습 및 특별활동 (1회/인)	1년	10,000원	2회	1,667원	실태조사	실태조사	2010년 同

〈부표 1-18〉 최저 교육비 마켓 바스켓: 중생보위의결안(계속)

중분류/ 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 연수	단가(원)	수량	중소도시	필수품 선정원칙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 수량 설정기준
문방구비									
연필	전국	HB보통나무 (1다스/인)	6월	2,637원	2다스	879원	실태조사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사인펜	전국	수성(2개/인)	1월	200원	4개	800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2010년 同
색연필	전국	12색 (1세트/인)	1년	2,500원	2세트	417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2010년 同
공책	전국	초등학생용 (9권/인)	6월	650원	18권	1,950원	실태조사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스케치북	전국	초등학생용 (2권/인)	1년	1,300원	4권	433원	실태조사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인쇄용지	전국	A4/250매	6월	2,808원	2권	936원	실태조사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크레파스	전국	24색 (1세트/인)	1년	4,143원	2세트	691원	실태조사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그림물감	전국	12색 1세트	1년	3,221원	1세트	268원	실태조사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붓	전국	수채화용 세트	2년	4,500원	1세트	188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2010년 同
지우개	전국	소(2개/인)	6월	300원	4개	200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2010년 同
칼	전국	소형 커터	2년	300원	1개	13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2010년 同
가위	전국	중	2년	700원	1개	29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2010년 同
풀	전국	중간 크기 (1개/인)	6월	500원	2개	167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2010년 同
색종이	전국	양면 (10개/인)	6월	500원	20개	1,667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2010년 同
필통	전국	초등학생용(1 개/인)	1년	1,500원	2개	250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2010년 同
자	전국	초등학생용 20cm (1개/인)	1년	200원	2개	33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2010년 同
교육용 악기	전국	초등학생용 리코더	3년	3,000원	1개	83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2010년 同
교육용 체육기구	전국	초등학생용 줄넘기	3년	2,000원	1개	56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2010년 同
	전국	초등학생용 홀라우프	3년	2,000원	1개	56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2010년 同
앨범	전국	중품(30매)	3년	15,000원	2개	833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2010년 同

〈부표 1-19〉 최저 교양·오락비 마켓 바스켓: 중생보위의결안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수	단가(원)	수량	중소도시	필수품 선정원칙	단가 설정기준	내구년수, 수량 설정기준
교양오락						31,018원			
서적 및 인쇄물									
도서(성인)	전국	단행본	1년	10,000원	1권	833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2010년 同
도서(아동)	전국	단행본	1년	6,500원	4권	2,167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2010년 同
교양오락용품기구									
텔레비전	전국	디지털TV (32인치)	10년	400,000원	1개	3,333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2010년 同
카세트라디오	전국	CD 겸용	10년	70,000원	1개	583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2010년 同
카메라	전국	디지털 카메라 (메모리포함)	10년	100,000원	1개	833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2010년 同
컴퓨터	전국	중저가 (보급형)/ 모니터 포함	6년	540,000원	1개	7,500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2010년 同
프린터	전국	잉크젯 중저가 (보급형)	10년	60,000원	1개	500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2010년 同
프린터잉크	전국	재생/호환잉 크(리필형)	1년	7,000원	1개	583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2010년 同
완구	전국	초등학생 장난감 (2개/인)	1년	5,000원	4개	1,667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2010년 同
CD	전국	성인	1년	12,000원	1개	1,000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2010년 同
	전국	아동	1년	10,000원	1개	833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2010년 同
교양오락서비스									
영화관람	전국	성인(2인/2회)	1년	8,284원	4명	2,761원	문화관광부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전국	아동(2인/2회)	1년	7,607원	4명	2,536원	문화관광부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전국	가정용 TV수신료	1월	2,500원	1회	2,500원	방송법	법정가격	방송법
여행 및 문화시설 관람	전국	고궁, 박물관 (성인2, 아동2)	1년	6,000원	4회	2,000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2010년 同
사진촬영 및 현상	전국	증명사진 (3X4cm)	5년	11,679원	2회	389원	실태조사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전국	디지털사진 현상 (120매/년)	1년	100원	120 장	1,000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2010년 同

〈부표 1-20〉 최저 교통·통신비 마켓 바스켓: 중생보위의결안

중분류/ 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 연수	단가(원)	수량	중소도시	필수품 선정원칙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 수량 설정기준
교통통신비						151,144원			
교통비									
가장 출근	도시	시내버스, 출퇴근, 외출 2회(왕복)	1월	1,092원	48회	52,416원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주부 외출	전국	시내버스, 외출 6회(왕복)	1월	1,092원	12회	13,104원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자녀 외출	전국	시내버스, 외출 3회(왕복), 2인	1월	816원	12회	9,792원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택시	전국	시내구간	1월	5,342원	1회	5,342원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친지방문 등	전국	고속버스(일반), 2회X왕복(2번)	6월	57,600원	1회	9,600원		시장조사	2010년 同
통신비									
집전화요금									
전화 기본요금	중소 도시	가입비형 7급지 기준	1월	4,000원	1회	4,000원		통신업체	2010년 同
시내통화	전국	유선-유선(시내), 1도수(3분) 기준	1월	39원	15회	585원		통신업체	2010년 同
시외통화	전국	유선-유선(시외), 3분 기준	1월	261원	3회	783원		통신업체	2010년 同
이동통신	전국	유선-무선, 3분 기준	1월	261원	5회	1,305원		통신업체	2010년 同
부가세	전국	요금의 10%	1월		1회	667원		세법	세법
이전비	전국	6년에 1회 (기준: 무출동이전)	6년	10,000원	1회	139원		통신업체	6년 1회
전화기 구입비	전국	일반유선전화	4년	38,789원	1회	808원		소비자물가	2010년 同
휴대전화요금									
휴대폰 기본요금	전국	일반(표준)요금	1월	11,000원	1회	11,000원	보유율	통신업체	통신업체
사용요금	전국	3분 기준 (1일 1통화)	1월	324원	30회	9,720원		통신업체	전문가
부가세	전국	요금의 10%	1월		1회	2,072원		세법	세법
휴대폰 구입비	전국	5년마다 1회	5년	100,000원	1회	1,667원	보유율	전문가	전문가
이동통신 가입비	전국	생애 1회	35년	39,600원	1회	94원		통신업체	WHO
인터넷요금									
인터넷 요금	전국	저가형(라이트 등), 부가세별도	1월	25,500원	1회	25,500원		서비스업체	서비스업체
부가세	전국	사용요금의 10%	1월		1회	2,550원		세법	세법
이전비	전국	6년에 1회	6년	10,000원	0회	0원		서비스업체	6년 1회

〈부표 1-21〉 최저 기타소비지출 마켓 바스켓: 중생보위의결안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중소도시	필수품 선정원칙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 수량 설정기준
기타소비지출				90,237원					
이미용품									
치솔	전국	성인용	4월	1,551원	4개	1,551원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치약	전국	170g	1월	1,355원	1개	1,355원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비누	전국	100g	1월	1,158원	2개	2,316원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샴푸	전국	500ml	2월	6,556원	1통	3,278원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스킨로션(여성)	전국	150ml (자카르랜드 화장품 중품기준)	6월	15,200원	1개	2,533원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밀크로션(여성)	전국	150ml	6월	15,540원	1개	2,590원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스킨로션(남성)	전국	150ml	6월	13,351원	1개	2,225원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아동용로션	전국	200ml	6월	10,080원	1개	1,680원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파운데이션	전국	40ml	1년	14,126원	1개	1,177원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선크림	전국	70mg	1년	10,802원	1개	900원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립스틱	전국	3.5g	1년	8,429원	1개	702원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손톱깎기	전국	중품	5년	1,584원	1개	26원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면도기	전국	1회용	1월	217원	5개	1,085원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머리빗	전국	중품 2종	5년	1,584원	2개	53원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이미용서비스									
목욕비	전국	대인 (2월 1회, 4인)	2월	5,180원	4회	10,360원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이발	전국	남자 대인	3월	7,621원	2회	5,081원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전국	남자 아동	3월	5,191원	2회	3,461원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미용	전국	여자 대인	6월	11,418원	1회	1,903원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전국	여자 아동	3월	6,351원	1회	2,117원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파마	전국	여자 파마	6월	34,530원	1회	5,755원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同
장신구									
핸드백	전국	중품	4년	31,669원	1개	660원		소비자물가	2010년 同
가방	전국	학생가방	3년	28,250원	2개	1,569원		소비자물가	2010년 同
우산	전국	중품, 3단	3년	6,582원	4개	731원		소비자물가	2010년 同
손목시계	전국	아나로그	10년	40,698원	2개	678원		소비자물가	2010년 同
지갑	전국	중품	4년	14,798원	2개	617원		소비자물가	2010년 同
잡비									
경조비	전국	경사 3회, 조사 3회 (1년 6회)	1년	30,000원	6회	15,000원		2010년 同	2010년 同
교제비	전국	가장(1년 6회)	1년	15,000원	6회	7,500원		2010년 同	2010년 同
친목단체비	전국	배우자	1년	10,000원	2회	1,667원		2010년 同	2010년 同
자녀용돈	전국	용돈 (1월 1회, 2명)	1월	5,000원	2명	10,000원		실태조사	2010년 同
친지방문비	전국	선물(1년 2회)	1년	10,000원	2회	1,667원		2010년 同	2010년 同

〈부표 1-22〉 최저 비소비지출 마켓 바스켓: 중생보위의결안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중소도시	필수품 선정원칙	단가 설정 기준	내구연수, 수량 설정기준
비소비지출						83,498원			
조세									
근로소득세 〈소득분위별소득세 포함〉	전국	최저임금기준 (면세점 이하)	1월	0원	1회	0원	세법	세법	세법
균등분주민세 〈지방교육세 포함〉	중소 도시	1가구당(세대주 에게 부과)	1년	4,658원	1회	388원	세법	지방 자치단체	세법
재산세 (건물과 토지 합산) 〈지방교육세 포함〉	전국	주택 비소유	1년	0원	2회	0원	세법	지방 자치단체	세법
사회보장분담금									
국민연금	전국	최저임금기준 월소득액의 4.5%	1월	45,670원	1회	45,670원	국민 연금법	최저임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전국	최저임금기준 월소득액의 2.945% +보험료의 6.55% 장기요양보험료	1월	31,860원	1회	31,860원	건강 보험법, 장기요양 보험법	최저임금	보건복지부
고용보험	전국	최저임금기준 월소득액의 0.55%	1월	5,580원	1회	5,580원	고용 보험법	최저임금	노동부

〈부표 1-23〉 2013년 타법지원액 기준 및 산출방법

(단위: 원)

비목		기준	산출방법	타법지원액
식료품비	급식비	○ 교육부 기준 단가 설정 ※ 2012년 주5일제 전면시행으로 수업일수 조정에 따른 수량 조정	단가(2,425원) ×수량(16.08회)×2명	78,004
광열수도비	전기요금	○ 한국전력 전기 공급약관 제67조에 의한 전기요금 할인정액 적용 ※ 수급자 대상 한전 변경 할인을 적용	정액할인(8,000원)	8,000
가구집기비	쓰레기봉투	○ 기초자치단체 차치법규	단가(221원)×사용량(5매)	1,107
보건의료비	보건의료서비스	○ 의료급여법	보건의료서비스 중 본인부담액 ¹³⁷⁾	33,458
교육비		○ 아동 2인 교육비 전액(교육급여)	교육비 마켓 바스켓	73,803
교양오락비	TV수신료	○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TV수신료 전액	정액감면(2,500원)	2,500
교통통신비	유선전화	○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대	가입비·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225분 무료, 시외통화 225분 무료	7,479
	이동전화		가입비·기본료 면제, 통화료 50% 할인	16,440
	인터넷		이용료 30% 할인	8,415
비소비지출	국민연금	○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	마켓 바스켓 단가	45,670
	건강보험	○ 건강보험 보험료 전액		31,860
	주민세	○ 지방세법 제77조제2항 ○ 주민세 전액 면제		388

137) 2008년 현재 총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율은 전국민 기준 37.8%, 의료급여 1종 8.3%, 의료급여 2종 13.8%임(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0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②항의 정신에 따라 의료급여 2종을 기준으로 현물급여액을 산출하면, 2013년 최저보건의료비(안) 중 보건의료서비스 비용은 52,697원이므로, 전국민 기준 총진료비는 139,410원임. 여기에 13.8%를 적용하면 현물지원액은 33,458원이다.

[부록 2]

가계지출 품목별 소득탄력성(2012)

〈부표 2-1〉 가계지출 품목별 소득탄력성

품목	지출액이 0인 경우 제거			지출액인 0인 경우 1로 둠		
	탄력치(b_1)	t값	p-value	탄력치(b_1)	t값	p-value
01.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0.1681	14.77	**	0.1681	14.77	**
곡물	0.0899	2.28	*	0.2707	2.88	**
멥쌀	0.0340	0.94	.	0.2768	2.32	.
찰쌀	0.1721	2.32	*	0.5712	4.80	**
맥류	-0.0237	-0.26	.	0.2727	3.06	**
두류	0.1348	2.01	*	0.3654	3.26	**
기타곡물	0.0942	1.81	.	0.3060	2.63	**
곡물가공품	0.1081	6.35	**	0.1090	5.97	**
밀가루	0.1771	3.61	**	0.1216	1.27	.
국수류	0.1084	3.14	**	0.2113	2.62	**
라면류	-0.0073	-0.29	.	-0.0071	-0.20	*
당면	0.0677	2.22	*	0.0029	0.03	*
두부	0.1474	5.67	**	0.1528	4.08	**
기타곡물가공품	0.2191	6.97	**	0.3323	6.74	**
빵 및 떡류	0.2268	10.43	**	0.2260	8.89	**
케이크	0.1039	3.11	**	0.4792	4.33	**
식빵	0.1485	3.97	**	0.2174	2.47	.
기타빵류	0.2431	9.42	**	0.2617	7.65	**
떡	0.2050	4.97	**	0.3107	4.06	**
육류	0.2284	10.22	**	0.2385	7.86	**
쇠고기	0.3529	10.64	**	0.5535	8.07	**
돼지고기	0.1095	4.10	**	0.1441	3.05	**
닭고기	0.1008	3.31	**	0.3413	4.12	**
기타생육	0.0658	1.05	.	0.3737	3.25	**
육류가공품	0.1810	6.61	**	0.2258	5.27	**
소시지	0.1651	4.29	**	0.0446	0.49	.
햄 및 베이컨	0.2006	6.03	**	0.2683	4.00	**
기타육류가공품	0.1766	5.56	**	0.1762	2.29	.
선선수산동물	0.2443	7.36	**	0.2541	5.29	**
갈치	0.1421	2.99	**	0.6165	4.98	**

주: 1) 전체(도시근로자+자영자 포함) 4인가구 기준임. 지출액은 월평균금액임.

2) 추정식은 $\ln(C_i) = b_0 + b_1 \ln(Y_i)$ 임. 여기서 C_i : 해당품목 월간 지출액, Y_i : 경상소득)

3) *: p-value<0.05, **: p-value<0.01

4) 가중치를 적용한 것임

자료: 통계청(2012) 『가계동향조사』(월간) 원자료.

〈부표 2-1〉 가계지출 품목별 소득탄력성(계속)

품목	지출액이 0인 경우 제거			지출액인 0인 경우 1로 둠		
	탄력치(b_1)	t값	p-value	탄력치(b_1)	t값	p-value
명태	0.0597	1.16	.	0.0715	0.65	.
조기	0.0768	1.69	.	0.0238	0.19	.
고등어	0.0764	1.84	.	0.0576	0.54	.
꽂치	0.0316	0.72	.	-0.0377	-0.50	*
오징어	0.0840	2.16	*	0.1720	1.73	.
가자미	0.2208	2.32	*	0.0669	0.77	.
게	0.0531	0.68	.	0.4145	3.44	***
굴	0.1827	3.65	***	0.4710	4.15	***
조개류	0.1859	4.38	***	0.3255	3.07	***
기타 수산동물	0.4407	8.78	***	0.6858	6.64	***
염건수산동물	0.2000	6.48	***	0.2626	3.78	***
복어	0.1150	3.42	***	0.0213	0.19	.
굴비	0.2273	4.03	***	0.3794	3.65	***
마른멸치	0.1194	3.46	***	-0.0173	-0.16	*
마른오징어	0.1401	3.12	***	0.2245	1.93	.
간고등어	0.0805	1.72	.	0.1007	0.88	.
기타염건수산동물	0.1603	2.74	***	0.2108	1.87	.
기타수산동물가공	0.1061	4.65	***	0.1215	4.05	***
어묵	0.0522	1.77	.	0.0956	1.76	.
맛살	0.0046	0.13	.	-0.0088	-0.09	*
수산동물통조림	0.1574	4.66	***	0.3065	3.47	***
젓갈	0.0586	1.15	.	0.1623	1.43	.
기타수산동물가공품	0.1455	3.69	***	0.3272	2.86	***
유제품 및 알	0.1284	5.91	***	0.1287	5.74	***
우유	0.0971	3.17	***	0.1034	2.75	***
분유	-0.6030	-2.49	*	-0.1071	-1.27	*
치즈	0.1260	3.06	***	0.4968	4.63	***
요구르트	0.1478	3.95	***	0.1603	2.63	***
두유	0.0801	1.43	.	0.4813	4.07	***
기타우유가공품	0.4020	3.05	***	0.1507	2.26	.
알 및 알가공품	0.1375	6.56	***	0.1499	4.22	***
유지류	0.0911	2.73	***	0.1726	1.85	.
참기름	0.0833	2.03	*	0.2495	2.18	.
들기름	0.0044	0.08	.	-0.0237	-0.30	*
기타식물성식용유	0.0846	2.59	***	0.1053	0.96	.
버터	0.1121	1.25	.	0.2659	3.40	***
기타유지류	0.0638	0.57	.	-0.0629	-1.43	*
과일 및 과일가공품	0.3110	13.09	***	0.3101	11.37	***
사과	0.3482	9.30	***	0.5828	6.40	***
배	0.1744	3.52	***	0.5324	4.42	***

〈부표 2-1〉 가계지출 품목별 소득탄력성(계속)

품목	지출액이 0인 경우 제거			지출액인 0인 경우 1로 둠		
	탄력치(b_1)	t값	p-value	탄력치(b_1)	t값	p-value
복숭아	0.2531	5.99	**	0.4512	3.87	**
포도	0.2375	6.31	**	0.6533	6.86	**
밤	0.0629	1.51	.	-0.0376	-0.37	*
감	0.2397	4.88	**	0.4279	3.92	**
감귤류	0.2392	7.63	**	0.3761	6.43	**
참외	0.2115	6.14	**	0.5050	4.93	**
수박	0.1684	5.17	**	0.4826	4.47	**
딸기	0.2027	5.50	**	0.3277	3.16	**
바나나	0.1496	5.03	**	0.2730	3.82	**
기타과일	0.3202	7.89	**	0.5985	6.80	**
과일가공품	0.2550	5.56	**	0.4624	4.10	**
채소 및 채소가공품	0.1528	7.22	**	0.1524	6.92	**
배추	-0.0169	-0.26	.	0.2155	1.97	.
상추	0.0877	2.90	**	0.1281	2.05	.
시금치	0.1132	3.50	**	0.2315	3.07	**
양배추	0.0838	2.16	*	0.2112	2.35	.
미나리	0.0991	1.77	.	0.2350	2.43	.
깻잎	0.0553	1.46	.	0.2009	2.54	.
부추	0.0074	0.18	.	0.2567	2.90	**
무	0.0492	1.19	.	0.0956	1.23	.
당근	0.0959	3.06	**	0.1499	2.30	.
감자	0.1134	3.37	**	0.1545	1.98	.
고구마	0.3410	5.90	**	0.5821	5.17	**
도라지	0.0543	1.27	.	-0.0011	-0.01	*
콩나물	0.0533	1.89	.	0.1112	2.19	.
버섯	0.1684	5.19	**	0.2336	4.36	**
오이	0.0559	1.79	.	0.1237	1.91	.
풋고추	0.0672	2.02	*	0.0720	1.03	.
호박	0.1453	4.67	**	0.2277	3.44	**
가지	0.1709	3.40	**	0.2643	2.72	**
토마토	0.3597	8.63	**	0.6173	6.63	**
파	0.0360	1.11	.	0.0717	1.09	.
양파	0.0958	3.36	**	0.1915	3.28	**
마늘	0.0970	2.32	*	-0.0136	-0.14	*
기타채소	0.3161	9.17	**	0.3950	7.25	**
채소가공품	0.0750	1.97	*	0.1410	1.85	.
해조 및 해조가공품	0.1119	4.03	**	0.1626	3.69	**
김	0.1272	4.25	**	0.1603	2.51	.
미역	0.0308	0.92	.	0.0009	0.01	*
기타해조류	0.2467	4.79	**	0.2993	2.93	**

〈부표 2-1〉 가계지출 품목별 소득탄력성(계속)

품목	지출액이 0인 경우 제거			지출액인 0인 경우 1로 둠		
	탄력치(b_1)	t값	p-value	탄력치(b_1)	t값	p-value
당류 및 과자류	0.1008	5.26	**	0.1084	4.87	**
설탕	0.0491	0.94	.	0.0436	0.42	.
잼, 꿀, 조청	0.1575	4.13	**	0.2308	2.42	.
초콜릿	0.2463	5.65	**	0.4026	4.21	**
사탕 및 젤리	0.0669	1.50	.	-0.1712	-1.84	*
한식과자	0.2471	4.12	**	0.3084	2.81	**
껌	0.1756	3.73	**	0.2647	2.81	**
아이스크림	0.1087	3.63	**	0.1323	2.50	.
기타과자	0.0416	1.75	.	0.0600	1.94	.
조미식품	0.0844	2.96	**	0.0915	2.47	.
말린 고추	-0.0598	-0.66	.	0.1560	1.24	.
참깨 및 들깨	0.1550	2.98	**	0.1173	1.10	.
생강	0.1528	2.84	**	-0.0004	0.00	*
소금	0.1804	3.64	**	0.0403	0.41	.
간장	0.0427	1.37	.	-0.0274	-0.28	*
된장	0.0830	1.78	.	0.3080	2.97	**
고추장	0.0037	0.08	.	0.0774	0.70	.
카레	0.0995	2.48	*	0.1072	1.06	.
식초	0.2068	4.06	**	0.1676	1.81	.
케첩	-0.0233	-0.71	.	0.0112	0.12	.
드레싱	0.0864	1.86	.	0.2946	2.96	**
혼합조미료	-0.1240	-2.97	**	-0.5178	-4.82	**
기타조미식품	0.1343	3.65	**	0.3809	4.50	**
기타식품	0.1906	6.37	**	0.2451	5.40	**
죽 및 스프	0.2203	2.88	**	0.5148	5.07	**
이유식	0.3129	0.75	.	-0.0234	-0.50	*
김치	0.1162	1.96	.	0.3414	2.86	**
반찬류	0.1871	4.11	**	0.3875	3.45	**
즉석·동결식품	0.1676	4.53	**	0.3379	4.35	**
기타미분류식품	0.2060	5.66	**	0.2390	2.83	**
커피 및 차	0.1921	6.17	**	0.2626	5.22	**
커피	0.2048	5.64	**	0.2932	4.19	**
차	0.1810	4.57	**	0.1574	1.80	.
쥬스 및 기타음료	0.2088	7.52	**	0.2163	5.92	**
과일 및 야채쥬스	0.2783	6.77	**	0.4232	5.82	**
생수	0.2209	3.84	**	0.4758	4.70	**
기능성 음료	0.1777	2.08	*	0.0634	0.59	.
기타음료	0.0890	2.71	**	0.0778	1.48	.
02. 주류 및 담배	0.0769	1.43	.	0.2011	2.36	.
주류	0.1880	4.01	**	0.2617	3.03	**

〈부표 2-1〉 가계지출 품목별 소득탄력성(계속)

품목	지출액이 0인 경우 제거			지출액인 0인 경우 1로 둠		
	탄력치(b_1)	t값	p-value	탄력치(b_1)	t값	p-value
소주	0.0517	0.92	.	-0.1598	-1.42	*
과일주	0.4695	4.85	**	0.4748	4.79	**
맥주	0.1144	2.13	*	0.2723	2.48	.
탁주	0.0736	1.09	.	0.0661	0.62	.
증류주	0.7160	3.38	**	0.1659	3.02	**
기타주류	0.0730	0.92	.	0.2154	2.28	.
담배	0.0703	0.98	.	-0.2796	-1.74	*
담배	0.0703	0.98	.	-0.2796	-1.74	*
03. 의류 및 신발	0.4646	19.31	**	0.4891	16.12	**
직물 및 외의	0.5013	18.40	**	0.5651	13.01	**
직물	0.2430	0.36	.	-0.0051	-0.14	*
남성용 외의	0.5134	11.44	**	1.1990	9.04	**
여성용 외의	0.6059	14.79	**	1.0408	11.77	**
남학생 교복	-0.0629	-0.41	.	0.1477	1.33	.
여학생 교복	0.0035	0.03	.	-0.0507	-0.49	*
와이셔츠	0.5036	6.28	**	0.6782	6.05	**
남방셔츠	0.4076	6.36	**	0.6119	4.78	**
블라우스	0.3975	4.41	**	0.7923	7.09	**
티셔츠	0.3149	8.25	**	0.7346	7.62	**
스웨터 및 조끼	0.5087	8.18	**	0.7174	5.24	**
운동복	0.4443	6.95	**	1.0960	7.55	**
아동용외의	0.1830	4.40	**	-0.1923	-1.23	*
기타외의	-0.0277	-0.30	.	0.0211	0.30	.
내의	0.3335	9.41	**	0.5078	5.75	**
남자내의 및 잠옷	0.3138	7.88	**	0.5848	4.82	**
여자내의 및 잠옷	0.3978	8.63	**	0.8343	6.71	**
아동용 내의	0.0685	1.10	.	-0.2741	-2.12	*
기타의복	0.4194	12.17	**	0.5209	8.35	**
양말 및 스타킹	0.3935	9.75	**	0.5903	7.34	**
모자	0.5076	7.91	**	0.6674	5.43	**
넥타이	0.6570	3.71	**	0.4545	5.96	**
실류	0.6900	1.91	.	0.0574	1.08	.
기타의복관련품	0.3038	6.24	**	0.7299	6.37	**
의복관련서비스	0.3521	7.47	**	0.7555	6.12	**
의복수선료	0.1236	1.60	.	0.2919	2.75	**
의복세탁료	0.3635	7.44	**	0.9064	7.08	**
기타의복관련서비스	0.1502	0.78	.	0.0094	0.13	.
신발	0.3758	11.09	**	0.5832	8.17	**
아동화	0.1983	3.70	**	-0.1373	-0.97	*
구두	0.2944	6.80	**	1.2370	8.65	**

〈부표 2-1〉 가계지출 품목별 소득탄력성(계속)

품목	지출액이 0인 경우 제거			지출액인 0인 경우 1로 둠		
	탄력치(b_1)	t값	p-value	탄력치(b_1)	t값	p-value
운동화	0.2341	6.02	***	0.8072	5.92	***
기타신발	0.2022	4.63	***	0.2579	2.46	·
신발서비스	0.2140	2.86	***	0.4081	4.78	***
신발관련서비스	0.2140	2.86	***	0.4081	4.78	***
04. 주거 및 수도광열	0.1118	7.18	**	0.1258	7.48	**
실제주거비	0.0682	0.88	·	-0.7930	-5.63	***
월세	-0.0317	-0.40	·	-0.6359	-5.19	***
기타주거비	1.2662	3.76	***	-0.2102	-2.52	*
주택유지 및 수선	0.3301	3.01	***	0.2302	1.64	·
벽지	0.0592	0.23	·	-0.1027	-2.06	*
바닥재	-0.0904	-0.20	·	0.0257	0.91	·
기타주택유지 및 수선재	0.1969	1.97	*	0.1544	1.35	·
설비·수리서비스	0.2659	1.72	·	0.1992	1.58	·
세놓는 주택수선	1.0465	2.08	*	0.0185	0.47	·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0.1473	7.77	***	0.1933	7.16	***
상하수도료	0.1361	7.59	***	0.2075	5.51	***
쓰레기처리	0.0899	3.10	***	0.2572	4.23	***
기타주거관련서비스	0.3768	9.61	***	1.1631	9.62	***
공동주택관리비	0.3000	8.88	***	1.2974	9.39	***
기타주거서비스	0.3207	2.24	*	-0.1779	-2.34	*
연료비	0.1051	8.20	***	0.1421	7.34	***
전기료	0.1257	8.92	***	0.1699	6.06	***
도시가스	-0.1182	-3.30	***	0.4158	3.57	***
LPG연료	0.1331	1.15	·	-0.3415	-3.35	***
등유	-0.1260	-0.63	·	-0.2339	-2.62	***
경유연료	0.4213	0.97	·	-0.0034	-0.21	*
연탄	-1.7959	-2.42	*	-0.0309	-1.02	*
공동주택난방비	0.0405	0.72	·	1.0944	8.17	***
기타연료비	0.1895	2.53	*	0.1604	1.66	·
05. 가정용품 및가사서비스	0.3912	12.56	**	0.3941	12.10	**
가구 및 조명	0.4911	4.19	***	0.9787	6.69	***
장롱	0.4085	1.76	·	0.1445	1.78	·
화장대	-0.0746	-0.14	·	0.0411	1.48	·
침대	0.2869	1.17	·	0.2276	3.12	***
장식장	0.7300	3.52	***	0.1705	2.46	·
소파	-0.2735	-0.55	·	0.0901	1.89	·
책상	0.1477	0.66	·	0.1484	1.83	·
의자	0.6455	3.39	***	0.1550	2.10	·
식탁 및 식탁의자	1.3648	2.82	***	0.0361	0.68	·
밥상	-0.0029	-0.02	·	0.1994	3.54	***

〈부표 2-1〉 가계지출 품목별 소득탄력성(계속)

품목	지출액이 0인 경우 제거			지출액인 0인 경우 1로 둠		
	탄력치(b_1)	t값	p-value	탄력치(b_1)	t값	p-value
조명기구	0.8145	3.06	**	0.1399	2.11	.
기타가구	0.1859	1.31	.	0.2166	2.07	.
중고가구	11.7002	0.55	.	-0.0042	-0.43	*
실내장식	0.1446	1.54	.	0.2426	2.08	.
카페트	0.0078	0.06	.	0.0235	0.23	.
기타실내장식품	0.4250	3.23	**	0.2770	2.98	**
가구·조명 및 장식서비스	-0.2189	-0.68	.	0.0709	1.70	.
실내장식관련서비스	-0.2189	-0.68	.	0.0709	1.70	.
가정용 섬유	0.3767	6.10	**	0.5664	4.35	**
침구류	0.3998	5.48	**	0.6539	4.72	**
수건	0.4573	3.94	**	-0.0527	-0.59	*
커튼	0.3608	1.61	.	0.1513	1.85	.
기타가정용 섬유	0.1027	1.51	.	0.2385	2.30	.
가정용섬유관련서비스	0.9809	1.80	.	0.0419	1.26	.
가전 및 가정용기기	0.3343	4.66	**	0.7824	5.14	**
전기밥솥	-0.2549	-0.98	.	0.0778	0.92	.
가스·전자레인지	-0.0398	-0.18	.	0.1497	2.02	.
일반냉장고	0.4618	1.81	.	0.0712	1.15	.
김치냉장고	0.6751	2.01	.	0.1357	2.58	.
정수기	0.1348	0.42	.	-0.0316	-0.64	*
에어컨 및 선풍기	0.2773	1.53	.	0.3456	3.52	**
난로 및 온풍기	0.8170	1.88	.	-0.0015	-0.04	*
공기청정기 및 가습기	-0.0850	-0.30	.	0.2864	4.12	**
세탁기	1.2307	3.50	**	0.2433	3.66	**
식기세척기	5.1773	1.71	.	-0.0018	-0.19	*
진공청소기	0.0057	0.06	.	0.0226	0.23	.
전기다리미	0.1091	0.49	.	0.0907	2.12	.
기타가정용기기 및 가전	0.0987	0.97	.	0.4758	3.80	**
중고가전 및 가정용기기	-1.7554	-0.82	.	0.0019	0.15	.
가전관련서비스	0.0070	0.15	.	0.7564	4.95	**
가정용기기 및 가전서비스	0.0070	0.15	.	0.7564	4.95	**
가사용품	0.3054	6.56	**	0.4149	4.94	**
식기류	0.4075	4.32	**	0.2568	2.14	.
컵 및 다기	0.3249	4.47	**	0.0124	0.12	.
술	0.6880	2.94	**	0.1484	2.48	.
후라이팬	0.2478	3.23	**	0.3510	3.16	**
냄비	0.4213	3.33	**	0.1997	1.95	.
칼 및 수저류	0.0663	1.06	.	0.0474	0.47	.
기타주방용품	0.2172	4.69	**	0.2563	2.57	.
가정용공구 및 기타	0.1562	3.24	**	0.2694	2.79	**

〈부표 2-1〉 가계지출 품목별 소득탄력성(계속)

품목	지출액이 0인 경우 제거			지출액인 0인 경우 1로 둠		
	탄력치(b_1)	t값	p-value	탄력치(b_1)	t값	p-value
가정용 전동공구	-0.5517	-1.18	.	0.0314	0.95	.
설비관련 기구	-0.4020	-0.54	.	0.0684	1.37	.
건전지	0.0680	1.63	.	0.0883	0.86	.
기타소형공구 및 가사용품	0.1530	2.80	***	0.2953	2.63	***
가사소모품	0.1342	5.88	***	0.1383	4.78	***
세탁용 세제	0.0607	2.14	*	0.0685	0.98	.
세탁·청소용구	0.1602	4.35	***	0.2881	3.77	***
전구	0.4717	7.39	***	0.5075	4.61	***
주방 및 청소용세제	0.0538	1.61	.	0.0755	0.90	.
살충약품 및 용품	0.0219	0.36	.	-0.0868	-0.80	*
기타가사소모품	0.1479	3.63	***	0.1627	3.06	***
가사서비스	0.4710	3.08	***	0.3685	3.71	***
식품관련서비스	-0.0826	-1.20	.	-0.1580	-2.60	***
가사사용인 급료	0.6189	2.13	*	0.4872	6.26	***
기타가사서비스	0.3245	0.13	.	0.0479	1.54	.
06. 보건	0.3167	8.70	**	0.3524	8.46	**
의약품	0.4386	9.52	***	0.5262	8.83	***
조제약	0.0821	1.76	.	0.2781	3.41	***
판매약	0.2262	4.88	***	0.3575	3.54	***
한약 및 한약재	0.7006	4.31	***	0.6845	5.00	***
인삼	0.9749	7.34	***	0.8487	6.49	***
영양보조제	0.3974	6.21	***	0.9235	6.57	***
기타 의약품	-0.0611	-1.30	.	0.1081	1.21	.
보건의료 소모품	-0.0611	-1.30	.	0.1081	1.21	.
보건의료용품 및 기구	0.3365	5.72	***	1.0028	6.89	***
안경 및 콘택트	0.2840	5.33	***	0.9264	6.35	***
기타보건의료기구	0.3910	2.34	*	0.3334	3.50	***
외래의료서비스	0.2358	4.95	***	0.3602	4.81	***
일반병의원외래비	0.2212	4.58	***	0.3485	4.52	***
한방병원외래비	0.2085	1.80	.	0.5055	4.42	***
치과서비스	0.4704	5.29	***	0.7856	5.08	***
치과외래비	0.4704	5.29	***	0.7856	5.08	***
기타의료서비스	-0.3834	-0.96	.	-0.0489	-0.81	*
기타보건의료서비스	-0.3834	-0.96	.	-0.0489	-0.81	*
입원서비스	0.1576	1.95	.	0.2019	1.43	.
병원입원치료비	0.1576	1.95	.	0.2019	1.43	.
07. 교통	0.4393	17.63	**	0.4386	17.46	**
자동차구입	0.8669	3.59	***	0.3254	3.20	***
신차구입	0.6108	3.55	***	0.2972	3.55	***
중고차 구입	0.2603	0.64	.	0.0302	0.50	.

〈부표 2-1〉 가계지출 품목별 소득탄력성(계속)

품목	지출액이 0인 경우 제거			지출액인 0인 경우 1로 둠		
	탄력치(b_1)	t값	p-value	탄력치(b_1)	t값	p-value
기타운송기구구입	0.4474	2.98	***	0.0948	1.08	.
오토바이	0.1975	0.27	.	-0.0261	-1.16	*
자전거 등	0.5091	3.28	***	0.1203	1.42	.
운송기구유지 및 수리	0.3882	5.17	***	1.4345	10.03	***
부품 및 관련용품	0.3552	3.13	***	0.7185	5.68	***
유지 및 수리비	0.2087	2.86	***	1.4417	9.49	***
운송기구 연료비	0.2893	10.40	***	1.1885	10.44	***
휘발유	0.2464	5.86	***	1.0042	5.65	***
경유	0.2451	2.93	***	0.9862	5.69	***
LPG	0.1007	0.80	.	0.0405	0.30	.
기타연료	0.2253	0.63	.	0.0324	0.81	.
기타개인교통서비스	0.6041	7.30	***	1.5828	12.24	***
운전교습비	0.5556	2.90	***	0.1742	2.56	.
주차료	0.7599	7.14	***	1.3125	11.41	***
통행료	0.2931	3.40	***	1.0131	7.73	***
기타개인교통	0.3892	2.97	***	0.6878	5.42	***
철도운송	0.5952	4.58	***	0.8370	6.18	***
기차	0.2650	2.22	*	0.4961	4.00	***
지하철	0.8949	4.64	***	0.6439	6.06	***
육상운송	0.2120	4.30	***	0.2881	2.70	***
시내버스	0.2959	3.20	***	0.1521	1.10	.
시외버스	0.0538	0.98	.	0.1496	1.17	.
택시	0.3383	5.57	***	0.3316	2.73	***
기타운송	0.3574	4.68	***	0.7194	4.66	***
항공요금	0.0595	0.43	.	0.2995	3.71	***
교통카드 이용	0.3270	3.87	***	0.6467	4.14	***
기타여객서비스	-0.3010	-1.31	.	0.0450	0.87	.
기타교통관련서비스	0.0646	0.89	.	0.6106	5.14	***
화물운송 및 보관	0.0646	0.89	.	0.6106	5.14	***
08. 통신	0.1322	10.62	**	0.1898	9.67	**
우편서비스	0.0523	0.83	.	0.2919	3.48	***
우편 서비스	0.0523	0.83	.	0.2919	3.48	***
통신장비	0.1792	1.07	.	0.3094	2.36	.
일반전화기기	0.1069	0.53	.	0.0197	0.44	.
이동전화기기 등	0.1517	0.84	.	0.3120	2.43	.
통신서비스	0.1281	10.91	***	0.1856	9.68	***
일반전화요금	0.0987	3.17	***	0.4645	4.62	***
이동전화 요금	0.1436	10.32	***	0.2213	9.16	***
인터넷 이용료	0.0135	0.91	.	0.2145	2.69	***
기타통신관련비용	-0.0079	-0.04	.	0.0317	0.37	.

〈부표 2-1〉 가계지출 품목별 소득탄력성(계속)

품목	지출액이 0인 경우 제거			지출액인 0인 경우 1로 둠		
	탄력치(b_1)	t값	p-value	탄력치(b_1)	t값	p-value
09. 오락·문화	0.3959	15.61	**	0.3959	15.61	**
영상음향기기	0.4723	2.82	**	0.4424	3.46	**
텔레비전	0.9082	2.91	**	0.1344	1.42	.
기타영상음향기기	0.4027	3.24	**	0.2979	2.80	**
사진광학장비	0.5813	1.10	.	0.2654	4.48	**
사진 및 광학장비	0.5813	1.10	.	0.2654	4.48	**
정보처리장치	0.3107	3.40	**	0.6370	4.55	**
정보처리기기	0.3107	3.40	**	0.6370	4.55	**
기록매체	0.0856	0.82	.	0.1147	1.45	.
기록용 매체	0.0856	0.82	.	0.1147	1.45	.
영상음향 및 정보기기수리	0.1143	1.14	.	0.1774	1.67	.
영상 및 정보처리서비스	0.1143	1.14	.	0.1774	1.67	.
오락문화 내구재	0.3903	0.90	.	0.0641	1.54	.
오락 및 운동내구재	0.3903	0.90	.	0.0641	1.54	.
악기기구	0.7555	3.63	**	0.1982	2.09	.
악기	0.7555	3.63	**	0.1982	2.09	.
오락문화내구재 유지 및 수리	-0.0305	-0.08	.	0.1179	2.62	**
오락문화내구재서비스	-0.0305	-0.08	.	0.1179	2.62	**
장난감 및 취미용품	0.0002	0.00	.	-0.0467	-0.34	*
장난감	0.0357	0.50	.	-0.1266	-0.89	*
게임 및 취미용품	0.1144	0.82	.	0.0964	0.97	.
캠핑 및 운동관련용품	0.7237	8.84	**	1.1248	8.24	**
등산낚시사냥용품	0.5077	3.14	**	0.6855	5.72	**
운동용품	0.5492	6.70	**	0.9093	7.01	**
캠핑 및 운동용품서비스	0.6568	3.01	**	0.3679	5.31	**
화훼관련용품	0.2132	3.64	**	0.5263	4.28	**
원예용품	0.2132	3.64	**	0.5263	4.28	**
애완동물관련물품	0.2306	1.73	.	0.2406	2.06	.
애완동물관련품	0.2306	1.73	.	0.2406	2.06	.
화훼 및 애완동물서비스	0.0759	0.44	.	0.1712	2.13	.
애완동물 관련서비스	0.0759	0.44	.	0.1712	2.13	.
운동 및 오락서비스	0.4658	8.33	**	0.9971	8.21	**
운동시설이용	0.3754	4.43	**	1.0337	7.29	**
노래방 이용	0.4896	5.28	**	0.4618	4.07	**
P C 방 이용	0.1713	1.65	.	0.0443	0.50	.
기타오락시설이용	0.1763	2.84	**	0.5318	3.82	**
운동경기관람	-0.0254	-0.32	.	0.1107	1.93	.
오락용품대여	0.0507	0.13	.	0.0731	1.32	.
문화서비스	0.2353	9.61	**	0.2359	9.59	**
공연 및 극장	0.2800	7.13	**	1.0652	8.97	**

〈부표 2-1〉 가계지출 품목별 소득탄력성(계속)

품목	지출액이 0인 경우 제거			지출액인 0인 경우 1로 둠		
	탄력치(b_1)	t값	p-value	탄력치(b_1)	t값	p-value
관람시설이용	0.1795	1.73	.	0.7228	6.13	***
독서실 이용	0.3276	1.66	.	0.3041	3.40	***
문화강습	0.6600	5.57	***	0.7035	6.12	***
컨텐츠	0.0586	0.71	.	0.4573	3.34	***
방송수신료	-0.0470	-1.96	.	0.0005	0.01	*
기타문화서비스	0.1859	2.28	*	0.3510	2.62	***
복권	0.0660	0.78	.	-0.1093	-1.55	*
복권구입	0.0660	0.78	.	-0.1093	-1.55	*
서적	0.2856	6.62	***	0.5913	5.77	***
유아용학습교재	0.1090	1.13	.	-0.2403	-1.94	*
초등학생학습교재	0.2985	3.92	***	0.2778	2.09	.
중고생 교재	0.0010	0.01	.	0.0300	0.34	.
중고생 참고서	0.1869	2.86	***	0.3975	2.74	***
기타서적	0.3545	6.55	***	1.0805	8.38	***
기타인쇄물	0.3474	3.11	***	0.8485	7.02	***
신문	0.3505	4.01	***	0.7110	6.16	***
잡지	0.1497	0.48	.	0.2941	5.26	***
기타 인쇄물	-0.0355	-0.07	.	0.0536	1.62	.
문구	0.0703	1.71	.	-0.0645	-0.85	*
종이문구류	0.0763	2.09	*	-0.0087	-0.10	*
필기 및 미술용품	0.0973	2.31	*	-0.0041	-0.04	*
기타문구류	0.0692	1.36	.	-0.0423	-0.43	*
단체여행비	1.0060	8.46	***	0.8957	6.03	***
국내단체여행비	0.7026	6.64	***	0.5156	3.80	***
국외여행비	0.2628	1.56	.	0.6345	6.73	***
10. 교육	0.4840	11.76	**	0.4740	3.51	**
정규교육	0.5083	5.80	***	0.8317	4.39	***
초등교육	0.4943	2.98	***	0.1337	0.99	.
유치원	0.3966	2.35	*	0.0878	0.66	.
초등학교	1.7139	3.13	*	0.0521	2.66	***
중등교육	0.3722	4.01	***	0.2916	1.93	.
중학교	-0.0137	-0.10	.	-0.0058	-0.12	*
고등학교	0.3650	5.05	***	0.2935	1.97	.
고등교육	0.1119	0.99	.	0.6480	4.53	***
전문대학	-0.0087	-0.03	.	-0.0386	-0.55	*
국공립대학	0.1659	0.78	.	0.1245	2.14	.
사립대학	0.1921	1.28	.	0.5026	4.21	***
대학원	-0.2049	-0.48	.	0.0827	1.98	.
학원 및 보습교육	0.4199	8.71	***	0.6288	3.99	***
학원 및 보습교육(성인미포함)	0.4612	10.07	***	0.3848	2.19	.

〈부표 2-1〉 가계지출 품목별 소득탄력성(계속)

품목	지출액이 0인 경우 제거			지출액인 0인 경우 1로 둠		
	탄력치(b_1)	t값	p-value	탄력치(b_1)	t값	p-value
입시 및 보습	0.3567	5.77	**	1.0324	5.28	**
음악학원	0.0842	1.24	.	0.5547	3.69	**
미술학원	0.0492	0.61	.	0.0600	0.56	.
운동학원	0.2250	2.74	**	0.4747	3.10	**
직업준비학원	-0.2783	-0.90	.	0.0283	0.51	.
방문학습지	0.0643	1.06	.	0.0516	0.31	.
체험교육	0.5953	4.66	**	0.2737	2.56	.
기타학원교육비	0.0326	0.54	.	-0.2211	-1.76	*
개인과외비	0.8889	5.39	**	0.9401	7.35	**
성인학원교육	0.2841	2.23	*	1.1537	8.45	**
성인직업학원	-0.3856	-1.82	.	0.2931	3.16	**
외국어학원	-0.0027	-0.01	.	0.4019	5.11	**
운동 및 교양교육	0.8587	5.22	**	0.7868	7.69	**
기타교육	0.2855	4.65	**	0.1396	0.87	.
학교보충교육비	0.0473	0.77	.	0.1442	0.92	.
평생교육원	-0.0562	-0.11	.	0.1178	3.12	**
국내교육연수	0.1840	2.87	**	-0.0609	-0.42	*
국외연수비	1.8163	2.53	*	0.1857	4.78	**
11. 음식·숙박	0.4119	24.78	**	0.4119	24.78	**
식사비	0.4060	24.51	**	0.4060	24.51	**
일반식당	0.4340	20.91	**	0.4615	17.80	**
배달음식	0.0963	3.08	**	0.2097	3.37	**
이동식 음식점	-0.0020	-0.05	.	-0.2068	-2.10	*
단체제공식	0.3057	6.39	**	1.0133	6.76	**
패스트푸드	0.1822	4.53	**	0.2932	2.95	**
주점·커피숍	0.6217	11.95	**	1.1524	12.13	**
숙박비	0.4720	4.90	**	1.1582	8.70	**
호텔,여관,콘도	0.4872	5.02	**	0.9392	8.22	**
기타숙박시설	0.1432	0.79	.	0.4457	4.55	**
12. 기타 상품 및 서비스	0.3282	16.45	**	0.3282	16.45	**
이미용서비스	0.3524	12.37	**	0.4265	7.88	**
목욕료	0.1347	3.06	**	0.3736	2.85	**
이미용료	0.2994	11.32	**	0.3919	6.07	**
기타이미용서비스	1.3925	6.98	**	0.8756	8.74	**
이미용 기기	0.1145	1.19	.	0.2778	2.80	**
이미용기기	0.1145	1.19	.	0.2778	2.80	**
위생 및 이미용용품	0.3422	13.75	**	0.3567	11.46	**
치솔	0.0434	1.36	.	-0.1160	-1.17	*
치약	0.0890	2.59	**	0.1844	1.71	.
세면비누	-0.0119	-0.23	.	0.2175	2.00	.

〈부표 2-1〉 가계지출 품목별 소득탄력성(계속)

품목	지출액이 0인 경우 제거			지출액인 0인 경우 1로 둠		
	탄력치(b_1)	t값	p-value	탄력치(b_1)	t값	p-value
삼푸 및 린스	0.2106	5.84	**	0.3788	3.61	**
화장지	0.0299	1.08	.	0.1479	2.18	.
화장품	0.5097	13.66	**	0.6451	8.95	**
기타이미용용품	0.1419	3.06	**	0.2682	2.91	**
시계 및 장신구	0.5133	6.55	**	0.7200	5.68	**
손목시계	0.5221	3.43	**	0.2819	3.03	**
장식용시계	0.1970	2.18	*	-0.0194	-0.29	*
장신구	0.5847	6.53	**	0.7512	6.12	**
기타개인용품	0.5492	9.38	**	0.6753	6.39	**
가방	0.5364	8.78	**	0.7965	5.85	**
종교용품	1.2769	3.42	**	0.1147	3.08	**
혼례 및 장례용품	-2.8924	-2.00	.	0.0193	1.15	.
기타 개인용품	0.3172	5.58	**	0.3407	3.01	**
개인용품서비스	0.0528	0.29	.	0.0017	0.04	*
사회복지	0.0122	0.17	.	-0.6950	-4.58	**
산후조리원	0.5676	0.96	.	-0.0499	-1.45	*
보육료	0.0371	0.51	.	-0.7105	-4.79	**
기타사회복지	-0.6059	-1.04	.	0.0416	1.15	.
보험	0.3481	9.93	**	0.7343	12.00	**
생명보험	0.3360	12.57	**	0.7484	9.50	**
화재보험	0.0670	1.41	.	0.8343	9.29	**
연금보험	0.1500	2.46	*	1.5895	11.27	**
운송관련보험 등	0.3648	5.56	**	0.6615	4.39	**
기타금융	0.5516	3.46	**	0.1988	2.31	.
금융수수료	0.5516	3.46	**	0.1988	2.31	.
기타서비스	0.4985	4.73	**	0.7054	5.05	**
자가관련 부동산수수료	0.0114	0.01	.	0.0518	1.34	.
기타부동산 수수료	0.2447	0.62	.	0.1052	2.40	.
일반수수료	0.6772	4.32	**	0.5817	5.35	**
응시료	0.4007	3.91	**	0.3974	3.22	**
혼례 및 장례예비	-0.4965	-1.76	.	0.0804	1.00	.
기타 서비스	0.3990	3.00	**	0.2872	2.75	**
유흥비	-2.1707	-4.91	**	-0.0040	-0.29	*
13. 비소비지출	0.7371	36.02	**	0.7398	34.32	**
경상조세	1.5466	33.95	**	1.5671	26.05	**
경상소득세	2.6323	38.78	**	3.4178	23.53	**
사업소득세	0.8008	2.06	*	0.0559	1.02	.
경상재산세	0.5709	12.86	**	1.3050	8.96	**
자동차세	0.2375	7.39	**	1.3723	9.67	**
기타경상세금	0.0146	0.94	.	0.0442	0.61	.

〈부표 2-1〉 가계지출 품목별 소득탄력성(계속)

품목	지출액이 0인 경우 제거			지출액인 0인 경우 1로 둠		
	탄력치(b_1)	t값	p-value	탄력치(b_1)	t값	p-value
비경상조세	0.2454	2.92	**	0.7450	5.10	**
비경상소득세	0.5679	0.92	.	0.1537	2.89	**
비경상재산세	0.0000	.	.	0.0069	1.08	.
부동산취득 관련세	0.2625	0.71	.	-0.0165	-0.36	*
과징금	0.0710	1.83	.	0.6478	4.78	**
기타비경상세금	1.9650	4.92	**	0.2390	2.97	**
연금	0.7892	32.36	**	2.1922	20.66	**
국민연금 기여금	0.5780	21.94	**	1.5790	12.22	**
기타연금 기여금	1.3651	6.41	**	1.4463	11.95	**
사회보장	0.5001	28.10	**	0.8241	14.56	**
건강보험료	0.4805	26.70	**	0.8152	14.33	**
기타사회보험료	0.9411	23.35	**	1.7478	12.79	**
이자비용	0.3987	4.58	**	0.7360	3.92	**
주택대출이자	0.3266	3.80	**	0.9741	5.42	**
기타이자	0.1020	0.76	.	0.1163	0.73	.
가구간 이전지출	0.6148	18.21	**	0.7917	9.88	**
교제비	0.5253	13.91	**	0.8775	8.61	**
경조비	0.3713	9.51	**	0.9281	6.79	**
국내학생가구 송금	0.5294	2.17	*	0.2351	3.21	**
국외학생 및 환자에 대한 송금	3.1576	1.68	.	0.0689	2.00	.
기타송금(국내)	0.5501	5.45	**	1.7186	11.09	**
기타송금(국외)	-1.0453	-1.41	.	0.0029	0.10	.
비영리단체로 이전	0.5527	10.21	**	1.1327	11.33	**
종교기부금	0.2991	3.09	**	0.5886	3.68	**
회비 및 기타기부금	0.6287	12.00	**	1.1937	11.44	**

[부록 3]

품목별 지출액의 지역별 차이 유무(2012)

〈부표 3-1〉 품목별 지출액의 지역별 차이 유무

품목	평균			t값	p-value
	전체	도시(A)	읍면동(B)		
01.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383,144	386,043	366,225	2.55	*
곡물	19,167	19,586	16,722	3.17	***
멥쌀	15,606	15,891	13,937	2.37	*
찰쌀	1,290	1,347	957	2.83	***
맥류	279	293	195	3.03	***
두류	933	970	717	2.18	*
기타곡물	1,060	1,085	915	1.39	.
곡물가공품	19,985	20,361	17,790	4.89	***
밀가루	308	300	353	-1.23	.
국수류	2,094	2,158	1,721	4.29	***
라면류	7,800	7,796	7,823	-0.10	.
당면	557	558	547	0.26	.
두부	3,682	3,776	3,131	5.14	***
기타곡물가공품	5,545	5,773	4,214	5.39	***
빵 및 떡류	26,671	27,204	23,562	4.69	***
케이크	4,916	4,926	4,854	0.28	.
식빵	1,385	1,441	1,057	5.31	***
기타빵류	15,889	16,239	13,846	4.47	***
떡	4,481	4,597	3,805	2.88	***
육류	54,323	54,363	54,087	0.13	.
쇠고기	23,733	24,028	22,009	1.59	.
돼지고기	24,619	24,423	25,762	-1.40	.
닭고기	4,876	4,831	5,140	-0.76	.
기타생육	1,094	1,080	1,177	-0.66	.
육류가공품	15,412	15,633	14,119	2.50	*
소시지	1,751	1,731	1,870	-1.37	.
햄 및 베이컨	4,678	4,744	4,295	1.83	.
기타육류가공품	8,982	9,159	7,955	2.55	*
신선수산물	19,096	19,075	19,218	-0.12	.
갈치	1,803	1,828	1,657	1.06	.

주: 1) 전체(도시근로자+자영자 포함) 4인가구 기준임. 지출액은 월평균금액임.

2) *: p-value<0.05, **: p-value<0.01

3) 가중치를 적용한 것임

자료: 통계청(2012) 『가계동향조사』(연간) 원자료.

〈부표 3-1〉 품목별 지출액의 지역별 차이 유무(계속)

품목	평균			t값	p-value
	전체	도시(A)	읍면동(B)		
명태	830	820	888	-0.83	.
조기	1,614	1,650	1,401	1.33	.
고등어	1,438	1,477	1,207	2.52	*
꽂치	102	101	109	-0.41	.
오징어	1,835	1,827	1,881	-0.46	.
가자미	297	317	180	3.54	***
게	1,624	1,520	2,236	-2.21	*
굴	937	955	830	1.40	.
조개류	2,086	2,099	2,006	0.47	.
기타 수산동물	6,530	6,480	6,823	-0.58	.
염건수산동물	6,850	6,868	6,742	0.39	.
복어	1,038	1,059	918	1.75	.
굴비	946	1,001	630	2.95	***
마른멸치	2,019	2,072	1,707	2.98	***
마른오징어	1,109	1,097	1,182	-0.65	.
간고등어	896	841	1,218	-3.55	***
기타염건수산동물	841	798	1,087	-2.61	***
기타수산동물가공	8,258	8,246	8,327	-0.27	.
어묵	2,608	2,596	2,678	-0.71	.
맛살	649	641	690	-1.09	.
수산동물통조림	2,711	2,712	2,707	0.03	.
젓갈	940	898	1,184	-1.87	.
기타수산동물가공품	1,350	1,399	1,068	2.90	***
유제품 및 알	39,488	39,073	41,911	-1.83	.
우유	19,042	18,940	19,638	-0.83	.
분유	2,669	2,252	5,102	-2.80	***
치즈	1,919	1,961	1,669	2.06	*
요구르트	6,655	6,699	6,393	0.57	.
두유	2,590	2,601	2,528	0.24	.
기타우유가공품	85	88	67	1.31	.
알 및 알가공품	6,529	6,532	6,514	0.06	.
유지류	2,725	2,817	2,189	4.00	***
참기름	914	951	702	3.18	***
들기름	233	239	193	1.20	.
기타식물성식용유	1,401	1,444	1,155	2.59	***
버터	156	163	115	1.83	.
기타유지류	21	20	24	-0.68	.
과일 및 과일가공품	46,418	47,196	41,880	3.04	***
사과	6,720	6,916	5,577	3.40	***
배	2,338	2,334	2,359	-0.10	.

〈부표 3-1〉 품목별 지출액의 지역별 차이 유무(계속)

품목	평균			t값	p-value
	전체	도시(A)	읍면동(B)		
복숭아	2,548	2,618	2,138	2.57	*
포도	4,590	4,655	4,211	1.57	.
밤	399	409	339	1.26	.
감	1,742	1,752	1,684	0.38	.
감귤류	7,716	7,833	7,035	1.98	*
참외	2,761	2,799	2,536	1.38	.
수박	4,263	4,358	3,706	2.99	***
딸기	3,687	3,775	3,172	2.46	*
바나나	2,379	2,410	2,194	1.92	.
기타과일	5,245	5,343	4,678	1.88	.
과일가공품	2,031	1,994	2,249	-0.79	.
채소 및 채소가공품	37,101	37,777	33,157	3.89	***
배추	1,997	2,046	1,711	1.59	.
상추	1,456	1,487	1,277	2.68	***
시금치	1,122	1,135	1,047	1.47	.
양배추	487	498	425	2.23	*
미나리	281	279	290	-0.26	.
깻잎	581	591	527	2.03	*
부추	498	506	449	1.57	.
무	1,534	1,570	1,324	2.56	*
당근	803	797	836	-0.84	.
감자	1,799	1,861	1,435	5.17	***
고구마	1,970	2,061	1,435	3.51	***
도라지	322	332	263	1.97	*
콩나물	1,457	1,460	1,444	0.24	.
버섯	2,551	2,553	2,539	0.09	.
오이	1,622	1,626	1,599	0.30	.
풋고추	1,575	1,588	1,502	0.84	.
호박	1,337	1,372	1,131	3.72	***
가지	347	354	306	1.76	.
토마토	3,255	3,391	2,462	4.99	***
파	1,711	1,715	1,690	0.27	.
양파	1,838	1,887	1,550	4.33	***
마늘	1,948	1,935	2,019	-0.41	.
기타채소	3,999	4,086	3,489	2.69	***
채소가공품	2,611	2,647	2,407	1.05	.
해조 및 해조가공품	4,860	4,827	5,056	-0.66	.
김	3,445	3,401	3,703	-0.91	.
미역	852	860	804	1.08	.
기타해조류	564	566	549	0.34	.

〈부표 3-1〉 품목별 지출액의 지역별 차이 유무(계속)

품목	평균			t값	p-value
	전체	도시(A)	읍면동(B)		
당류 및 과자류	33,405	33,168	34,788	-1.62	·
설탕	970	957	1,049	-1.03	·
잼,꿀,조청	1,674	1,686	1,606	0.51	·
초콜릿	1,742	1,752	1,687	0.53	·
사탕 및 젤리	1,416	1,403	1,495	-0.93	·
한식과자	794	779	883	-0.81	·
껌	596	587	650	-1.27	·
아이스크림	8,455	8,353	9,053	-2.04	*
기타과자	17,756	17,652	18,365	-1.19	·
조미식품	12,782	12,781	12,788	-0.01	·
말린 고추	3,763	3,722	3,998	-0.49	·
참깨 및 들깨	674	673	681	-0.06	·
생강	237	242	207	1.09	·
소금	477	493	388	2.40	*
간장	1,290	1,281	1,346	-0.85	·
된장	1,098	1,122	957	2.16	*
고추장	1,188	1,148	1,418	-3.05	***
카레	676	685	626	1.28	·
식초	226	224	241	-0.53	·
케첩	333	338	309	1.33	·
드레싱	479	498	371	4.10	***
혼합조미료	589	569	707	-1.28	·
기타조미식품	1,750	1,786	1,539	2.48	*
기타식품	12,405	12,548	11,571	1.46	·
죽 및 스프	444	466	316	3.05	***
이유식	322	243	781	-1.83	·
김치	1,583	1,642	1,239	1.92	·
반찬류	3,058	3,096	2,837	0.71	·
즉석·동결식품	4,199	4,253	3,885	1.62	·
기타미분류식품	2,799	2,848	2,514	2.13	*
커피 및 차	9,697	9,807	9,055	1.57	·
커피	7,480	7,525	7,222	0.72	·
차	2,217	2,283	1,833	3.20	***
쥬스 및 기타음료	14,502	14,715	13,261	2.29	*
과일 및 야채쥬스	6,071	6,223	5,183	2.20	*
생수	1,348	1,387	1,119	1.85	·
기능성 음료	732	759	573	2.40	*
기타음료	6,351	6,345	6,387	-0.14	·
02. 주류 및 담배	29,438	29,375	29,808	-0.24	·
주류	10,215	10,052	11,167	-1.59	·

〈부표 3-1〉 품목별 지출액의 지역별 차이 유무(계속)

품목	평균			t값	p-value
	전체	도시(A)	읍면동(B)		
소주	2,323	2,305	2,426	-0.54	.
과일주	764	735	933	-0.95	.
맥주	5,604	5,556	5,883	-0.74	.
탁주	825	829	799	0.23	.
증류주	311	302	364	-0.27	.
기타주류	389	325	762	-2.12	*
담배	19,223	19,323	18,641	0.43	.
담배	19,223	19,323	18,641	0.43	.
03. 의류 및 신발	199,880	202,990	181,731	2.99	**
직물 및 외의	144,329	146,709	130,439	2.84	***
직물	149	164	65	1.47	.
남성용 외의	27,637	28,056	25,195	1.41	.
여성용 외의	50,713	53,197	36,219	6.78	***
남학생 교복	4,034	4,018	4,128	-0.16	.
여학생 교복	2,967	2,973	2,928	0.08	.
와이셔츠	1,684	1,754	1,274	2.02	*
남방셔츠	2,517	2,560	2,266	0.95	.
블라우스	1,529	1,642	870	4.59	***
티셔츠	17,366	17,499	16,589	0.82	.
스웨터 및 조끼	4,093	4,247	3,198	2.61	***
운동복	11,191	10,913	12,817	-1.55	.
아동용외의	20,110	19,334	24,641	-2.94	***
기타외의	338	353	249	1.47	.
내의	11,250	11,329	10,791	0.95	.
남자내의 및 잠옷	3,804	3,781	3,936	-0.55	.
여자내의 및 잠옷	5,096	5,276	4,046	3.58	***
아동용 내의	2,350	2,271	2,809	-1.90	.
기타의복	8,944	9,224	7,307	4.57	***
양말 및 스타킹	3,666	3,774	3,031	4.52	***
모자	1,604	1,605	1,600	0.02	.
넥타이	552	584	369	1.86	.
실류	180	176	200	-0.21	.
기타의복관련품	2,942	3,085	2,107	4.72	***
의복관련서비스	4,481	4,573	3,942	1.42	.
의복수선료	631	665	430	2.97	***
의복세탁료	3,303	3,419	2,626	2.86	***
기타의복관련서비스	547	489	886	-1.21	.
신발	30,582	30,849	29,022	1.32	.
아동화	4,438	4,302	5,229	-2.15	*
구두	10,921	11,375	8,273	3.74	***

〈부표 3-1〉 품목별 지출액의 지역별 차이 유무(계속)

품목	평균			t값	p-value
	전체	도시(A)	읍면동(B)		
운동화	11,523	11,495	11,685	-0.24	.
기타신발	3,700	3,677	3,835	-0.59	.
신발서비스	294	305	230	1.27	.
신발관련서비스	294	305	230	1.27	.
04. 주거 및 수도광열	266,858	270,783	243,953	3.44	**
실제주거비	49,994	52,340	36,303	2.54	*
월세	28,389	29,808	20,106	2.48	*
기타주거비	21,605	22,532	16,197	1.24	.
주택유지 및 수선	15,876	16,620	11,537	1.64	.
벽지	213	212	220	-0.03	.
바닥재	79	93	0	3.29	***
기타주택유지 및 수선재	1,560	1,518	1,803	-0.48	.
설비·수리서비스	12,527	13,046	9,494	1.21	.
세놓는 주택수선	1,498	1,752	20	3.79	***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24,912	25,959	18,796	11.42	***
상하수도료	23,233	24,224	17,451	10.96	***
쓰레기처리	1,678	1,735	1,345	5.15	***
기타주거관련서비스	46,946	48,429	38,292	5.86	***
공동주택관리비	46,181	47,570	38,074	5.47	***
기타주거서비스	766	859	218	4.33	***
연료비	129,130	127,434	139,024	-3.85	***
전기료	55,205	54,349	60,201	-2.90	***
도시가스	53,979	56,765	37,718	7.67	***
L P G연료	4,397	2,356	16,307	-8.01	***
등유	4,816	1,930	21,660	-8.44	***
경유연료	32	32	33	-0.07	.
연탄	225	145	688	-1.66	.
공동주택난방비	10,134	11,537	1,944	12.65	***
기타연료비	342	320	472	1.28	.
05. 가정용품 및가사서비스	94,784	95,047	93,248	0.30	.
가구 및 조명	14,933	14,941	14,881	0.02	.
장롱	2,590	2,642	2,292	0.45	.
화장대	166	194	0	2.58	***
침대	3,474	3,779	1,693	2.60	***
장식장	1,200	1,212	1,127	0.21	.
소파	1,705	1,674	1,882	-0.22	.
책상	1,275	1,304	1,107	0.48	.
의자	605	613	559	0.31	.
식탁 및 식탁의자	1,083	1,048	1,286	-0.38	.
밥상	215	223	171	0.75	.

〈부표 3-1〉 품목별 지출액의 지역별 차이 유무(계속)

품목	평균			t값	p-value
	전체	도시(A)	읍면동(B)		
조명기구	376	361	467	-0.77	.
기타가구	2,231	1,877	4,298	-1.21	.
중고가구	12	15	0	1.54	.
실내장식	1,588	1,514	2,022	-1.34	.
카페트	1,034	1,007	1,193	-0.67	.
기타실내장식품	554	507	829	-1.50	.
가구·조명 및 장식서비스	180	179	184	-0.05	.
실내장식관련서비스	180	179	184	-0.05	.
가정용 섬유	7,617	7,713	7,057	0.75	.
침구류	5,184	5,237	4,879	0.52	.
수건	446	447	440	0.05	.
커튼	1,193	1,227	993	0.53	.
기타가정용 섬유	705	701	725	-0.17	.
가정용섬유관련서비스	89	101	20	2.30	*
가전 및 가정용기기	21,950	21,479	24,698	-1.11	.
전기밥솥	1,595	1,602	1,556	0.11	.
가스·전자레인지	979	963	1,068	-0.30	.
일반냉장고	3,614	3,551	3,986	-0.30	.
김치냉장고	3,212	3,387	2,188	1.11	.
정수기	336	294	580	-1.23	.
에어컨 및 선풍기	3,080	2,676	5,436	-1.85	.
난로 및 온풍기	164	166	156	0.14	.
공기청정기 및 가습기	1,185	928	2,686	-3.69	***
세탁기	2,755	2,895	1,937	1.34	.
식기세척기	14	16	0	1.11	.
진공청소기	1,494	1,489	1,520	-0.11	.
전기다리미	152	154	139	0.22	.
기타가정용기기 및 가전	3,343	3,334	3,395	-0.09	.
중고가전 및 가정용기기	27	23	51	-0.62	.
가전관련서비스	12,148	11,858	13,840	-1.96	.
가정용기기 및 가전서비스	12,148	11,858	13,840	-1.96	.
가사용품	8,067	8,044	8,199	-0.23	.
식기류	1,814	1,828	1,736	0.31	.
컵 및 다기	606	574	791	-1.58	.
술	342	353	275	0.50	.
후라이팬	905	910	875	0.30	.
냄비	1,085	1,046	1,317	-0.89	.
칼 및 수저류	468	469	465	0.06	.
기타주방용품	2,847	2,865	2,740	0.52	.
가정용공구 및 기타	3,069	3,049	3,188	-0.23	.

〈부표 3-1〉 품목별 지출액의 지역별 차이 유무(계속)

품목	평균			t값	p-value
	전체	도시(A)	읍면동(B)		
가정용 전동공구	108	98	167	-0.84	-
설비관련 기구	766	739	922	-0.33	-
건전지	628	635	586	1.08	-
기타소형공구 및 가사용품	1,568	1,578	1,513	0.44	-
가사소모품	13,652	13,581	14,064	-0.94	-
세탁용 세제	6,099	5,991	6,727	-1.96	-
세탁·청소용구	1,716	1,692	1,852	-1.29	-
전구	664	698	466	3.42	***
주방 및 청소용세제	1,386	1,409	1,251	2.15	*
살충약품 및 용품	577	602	428	3.76	***
기타가사소모품	3,211	3,189	3,341	-0.83	-
가사서비스	11,580	12,688	5,116	2.70	***
식품관련서비스	167	135	355	3.36	***
가사사용인 급료	10,014	11,009	4,207	2.56	*
기타가사서비스	1,400	1,545	554	1.08	-
06. 보건	161,270	163,640	147,438	2.08	*
의약품	39,836	40,655	35,056	2.41	*
조제양약	10,858	10,930	10,436	0.65	-
판매양약	3,282	3,329	3,009	1.23	-
한약 및 한약재	9,897	10,496	6,399	3.52	***
인삼	5,299	5,373	4,865	0.74	-
영양보조제	10,500	10,526	10,347	0.12	-
기타 의약품	8,656	8,213	11,242	-3.22	***
보건의료 소모품	8,656	8,213	11,242	-3.22	***
보건의료용품 및 기구	8,423	8,540	7,737	1.06	-
안경 및 콘택트	6,724	6,755	6,542	0.35	-
기타보건의료기구	1,699	1,785	1,195	1.31	-
외래의료서비스	46,777	47,306	43,693	1.05	-
일반병의원외래비	44,934	45,418	42,108	0.98	-
한방병원외래비	1,843	1,888	1,585	0.89	-
치과서비스	32,316	33,896	23,094	3.06	***
치과외래비	32,316	33,896	23,094	3.06	***
기타의료서비스	1,511	1,563	1,206	0.59	-
기타보건의료서비스	1,511	1,563	1,206	0.59	-
입원서비스	23,752	23,467	25,410	-0.46	-
병원입원치료비	23,752	23,467	25,410	-0.46	-
07. 교통	353,160	344,276	405,006	-1.91	-
자동차구입	92,849	85,544	135,478	-1.65	-
신차구입	75,083	70,750	100,372	-1.06	-
중고차 구입	17,765	14,794	35,106	-1.62	-

〈부표 3-1〉 품목별 지출액의 지역별 차이 유무(계속)

품목	평균			t값	p-value
	전체	도시(A)	읍면동(B)		
기타운송기구구입	1,955	1,864	2,487	-0.82	.
오토바이	227	121	846	-1.06	.
자전거 등	1,728	1,743	1,641	0.29	.
운송기구유지 및 수리	20,140	19,070	26,385	-3.81	***
부품 및 관련용품	3,652	3,409	5,069	-2.53	*
유지 및 수리비	16,488	15,660	21,316	-3.33	***
운송기구 연료비	159,868	154,110	193,470	-6.90	***
휘발유	92,353	89,576	108,557	-3.16	***
경유	47,936	46,623	55,596	-1.92	.
LPG	19,516	17,848	29,246	-3.33	***
기타연료	64	63	71	-0.30	.
기타개인교통서비스	14,297	14,727	11,784	2.11	*
운전교습비	1,902	1,863	2,132	-0.41	.
주차료	2,085	2,307	789	7.06	***
통행료	3,828	3,521	5,622	-3.39	***
기타개인교통	6,481	7,036	3,241	3.89	***
철도운송	5,927	6,458	2,827	6.75	***
기차	3,526	3,731	2,335	3.20	***
지하철	2,400	2,727	493	7.18	***
육상운송	20,329	20,968	16,603	3.18	***
시내버스	10,987	11,096	10,354	0.66	.
시외버스	3,116	3,182	2,726	1.07	.
택시	6,227	6,690	3,522	6.84	***
기타운송	34,228	37,785	13,471	11.99	***
항공요금	5,773	6,317	2,601	3.17	***
교통카드 이용	28,120	31,157	10,394	12.49	***
기타여객서비스	335	311	475	-0.89	.
기타교통관련서비스	3,568	3,750	2,501	1.19	.
화물운송 및 보관	3,568	3,750	2,501	1.19	.
08. 통신	180,673	180,998	178,779	0.57	.
우편서비스	209	217	161	1.63	.
우편 서비스	209	217	161	1.63	.
통신장비	8,903	8,435	11,630	-1.55	.
일반전화기기	119	127	75	1.57	.
이동전화기기 등	8,783	8,308	11,554	-1.57	.
통신서비스	171,562	172,346	166,989	1.75	.
일반전화요금	8,994	9,037	8,739	0.62	.
이동전화 요금	140,474	141,346	135,389	2.07	*
인터넷 이용료	21,370	21,195	22,395	-2.47	*
기타통신관련비용	723	768	466	2.15	*

〈부표 3-1〉 품목별 지출액의 지역별 차이 유무(계속)

품목	평균			t값	p-value
	전체	도시(A)	읍면동(B)		
09. 오락·문화	159,925	161,382	151,420	1.39	-
영상음향기기	8,549	8,689	7,733	0.57	-
텔레비전	7,293	7,445	6,403	0.63	-
기타영상음향기기	1,256	1,243	1,330	-0.29	-
사진광학장비	1,572	1,278	3,285	-1.88	-
사진 및 광학장비	1,572	1,278	3,285	-1.88	-
정보처리장치	10,084	10,638	6,851	3.02	***
정보처리기기	10,084	10,638	6,851	3.02	***
기록매체	347	336	410	-0.56	-
기록용 매체	347	336	410	-0.56	-
영상음향 및 정보기기수리	1,310	1,290	1,428	-0.44	-
영상 및 정보처리서비스	1,310	1,290	1,428	-0.44	-
오락문화 내구재	383	383	389	-0.03	-
오락 및 운동내구재	383	383	389	-0.03	-
악기기구	2,057	2,088	1,878	0.32	-
악기	2,057	2,088	1,878	0.32	-
오락문화내구재 유지 및 수리	318	328	258	0.56	-
오락문화내구재서비스	318	328	258	0.56	-
장난감 및 취미용품	8,482	8,322	9,417	-0.99	-
장난감	7,733	7,629	8,336	-0.73	-
게임 및 취미용품	749	692	1,081	-0.84	-
캠핑 및 운동관련용품	7,855	7,632	9,158	-1.27	-
등산낚시사냥용품	3,787	3,613	4,802	-1.55	-
운동용품	3,719	3,701	3,822	-0.14	-
캠핑 및 운동용품서비스	349	318	534	-1.64	-
화훼관련용품	2,496	2,392	3,107	-2.49	*
원예용품	2,496	2,392	3,107	-2.49	*
애완동물관련물품	2,532	2,479	2,841	-0.63	-
애완동물관련품	2,532	2,479	2,841	-0.63	-
화훼 및 애완동물서비스	1,243	1,320	798	1.65	-
애완동물 관련서비스	1,243	1,320	798	1.65	-
운동 및 오락서비스	20,701	21,091	18,421	1.08	-
운동시설이용	12,005	12,348	10,000	1.02	-
노래방 이용	1,312	1,276	1,522	-1.09	-
P C방 이용	516	543	359	2.08	*
기타오락시설이용	6,343	6,370	6,187	0.32	-
운동경기관람	202	205	188	0.23	-
오락용품대여	322	349	165	1.74	-
문화서비스	31,996	32,049	31,685	0.22	-
공연 및 극장	6,393	6,569	5,365	2.56	*

〈부표 3-1〉 품목별 지출액의 지역별 차이 유무(계속)

품목	평균			t값	p-value
	전체	도시(A)	읍면동(B)		
관람시설이용	1,447	1,431	1,542	-0.56	.
독서실 이용	2,066	2,373	269	8.21	***
문화강습	3,538	3,774	2,156	2.95	***
컨텐츠	4,905	4,732	5,913	-1.28	.
방송수신료	8,545	8,389	9,455	-3.21	***
기타문화서비스	5,103	4,780	6,985	-2.03	*
복권	227	226	233	-0.11	.
복권구입	227	226	233	-0.11	.
서적	28,239	28,595	26,160	1.23	.
유아용학습교재	5,816	5,522	7,530	-1.44	.
초등학생학습교재	4,296	4,218	4,751	-0.92	.
중고생 교재	849	852	833	0.12	.
중고생 참고서	7,098	7,404	5,313	3.22	***
기타서적	10,179	10,599	7,733	2.45	*
기타인쇄물	2,580	2,760	1,531	4.56	***
신문	2,213	2,388	1,192	5.48	***
잡지	314	319	283	0.29	.
기타 인쇄물	53	53	57	-0.10	.
문구	7,833	7,906	7,406	1.07	.
종이문구류	2,115	2,107	2,160	-0.46	.
필기 및 미술용품	2,303	2,324	2,180	0.98	.
기타문구류	3,415	3,475	3,066	1.04	.
단체여행비	21,121	21,581	18,431	0.90	.
국내단체여행비	6,688	6,622	7,075	-0.39	.
국외여행비	14,432	14,959	11,356	1.11	.
10. 교육	460,084	481,168	337,043	8.27	***
정규교육	126,685	136,892	67,121	7.95	***
초등교육	30,389	31,936	21,364	2.40	*
유치원	28,955	30,255	21,364	2.05	*
초등학교	1,434	1,680	0	2.07	*
중등교육	27,906	30,041	15,449	5.75	***
중학교	316	341	172	1.96	.
고등학교	27,590	29,700	15,277	5.70	***
고등교육	68,390	74,915	30,308	6.04	***
전문대학	11,385	12,763	3,341	4.25	***
국립대학	6,037	6,253	4,782	0.67	.
사립대학	47,060	51,681	20,095	4.93	***
대학원	3,907	4,219	2,090	1.15	.
학원 및 보습교육	309,176	318,885	252,519	4.49	***
학원 및 보습교육(성인미포함)	295,465	303,685	247,494	3.83	***

〈부표 3-1〉 품목별 지출액의 지역별 차이 유무(계속)

품목	평균			t값	p-value
	전체	도시(A)	읍면동(B)		
입시 및 보습	170,255	177,590	127,448	4.60	**
음악학원	21,888	21,959	21,475	0.19	.
미술학원	8,461	8,559	7,893	0.31	.
운동학원	19,950	19,706	21,371	-0.44	.
직업준비학원	1,151	1,161	1,097	0.15	.
방문학습지	32,421	31,621	37,091	-1.65	.
체험교육	2,499	2,665	1,531	2.24	*
기타학원교육비	7,782	7,539	9,198	-1.33	.
개인과외비	31,057	32,885	20,391	2.45	*
성인학원교육	13,711	15,200	5,025	7.14	**
성인직업학원	6,137	6,637	3,221	3.05	**
외국어학원	3,041	3,478	496	5.34	**
운동 및 교양교육	4,533	5,086	1,309	6.44	**
기타교육	24,223	25,391	17,402	4.36	**
학교보충교육비	14,306	15,044	10,001	4.42	**
평생교육원	572	565	607	-0.13	.
국내교육연수	5,746	5,682	6,122	-0.78	.
국외연수비	3,599	4,101	672	2.84	**
11. 음식·숙박	369,433	380,161	306,832	8.28	**
식사비	362,676	373,632	298,735	8.73	**
일반식당	213,993	219,871	179,689	6.37	**
배달음식	23,296	23,628	21,354	2.03	*
이동식 음식점	2,366	2,334	2,556	-1.06	.
단체제공식	63,601	64,291	59,573	1.31	.
패스트푸드	5,764	5,912	4,898	3.14	**
주점·커피숍	53,656	57,596	30,663	10.08	**
숙박비	6,758	6,528	8,097	-1.21	.
호텔,여관,콘도	3,208	3,311	2,605	1.67	.
기타숙박시설	3,550	3,217	5,493	-1.86	.
12. 기타 상품 및 서비스	244,616	245,630	238,695	0.80	.
이미용서비스	33,517	34,509	27,725	5.39	**
목욕료	8,319	8,494	7,292	1.80	.
이미용료	22,010	22,575	18,713	5.19	**
기타이미용서비스	3,188	3,440	1,720	3.33	**
이미용 기기	843	854	782	0.53	.
이미용기기	843	854	782	0.53	.
위생 및 이미용용품	47,217	47,781	43,926	1.97	*
칫솔	1,458	1,444	1,537	-0.89	.
치약	1,056	1,066	998	0.94	.
세면비누	679	690	611	0.91	.

〈부표 3-1〉 품목별 지출액의 지역별 차이 유무(계속)

품목	평균			t값	p-value
	전체	도시(A)	읍면동(B)		
샴푸 및 린스	3,992	4,003	3,932	0.27	.
화장지	6,710	6,588	7,425	-2.74	**
화장품	30,621	31,274	26,814	2.65	**
기타미용용품	2,700	2,716	2,608	0.36	.
시계 및 장신구	3,166	3,274	2,538	2.23	*
손목시계	1,020	1,063	765	1.26	.
장식용시계	209	200	265	-1.14	.
장신구	1,937	2,010	1,508	2.36	*
기타개인용품	17,517	18,387	12,441	4.79	**
가방	14,318	15,128	9,589	4.76	**
종교용품	68	72	45	0.97	.
혼례 및 장례용품	116	131	31	1.23	.
기타 개인용품	2,954	2,996	2,704	0.89	.
개인용품서비스	61	59	71	-0.50	.
사회복지	36,057	35,161	41,285	-1.21	.
산후조리원	1,053	1,079	898	0.33	.
보육료	33,642	32,612	39,656	-1.36	.
기타사회복지	1,362	1,470	732	1.13	.
보험	85,465	83,803	95,168	-3.21	**
생명보험	67,892	66,681	74,957	-2.82	**
화재보험	663	629	864	-1.09	.
연금보험	7,957	8,115	7,038	1.27	.
운송관련보험 등	8,953	8,377	12,309	-4.41	**
기타금융	983	1,031	705	1.08	.
금융수수료	983	1,031	705	1.08	.
기타서비스	19,851	20,832	14,124	1.81	.
자가관련 부동산수수료	1,247	1,365	557	1.42	.
기타부동산 수수료	1,269	1,461	148	3.27	**
일반수수료	1,972	1,969	1,988	-0.03	.
응시료	2,833	2,880	2,556	0.75	.
혼례 및 장례례비	11,160	11,666	8,205	1.00	.
기타 서비스	1,358	1,482	630	2.34	*
유흥비	12	7	40	-1.05	.
13. 비소비지출	877,321	895,249	772,697	3.97	**
경상조세	154,017	160,232	117,749	4.55	**
경상소득세	110,882	116,075	80,578	4.08	**
사업소득세	1,478	1,437	1,718	-0.31	.
경상재산세	17,152	18,432	9,681	9.28	**

〈부표 3-1〉 품목별 지출액의 지역별 차이 유무(계속)

품목	평균			t값	p-value
	전체	도시(A)	읍면동(B)		
자동차세	24,027	23,808	25,309	-1.08	.
기타경상세금	478	480	463	0.71	.
비경상조세	15,196	15,858	11,328	1.58	.
비경상소득세	1,077	1,217	254	2.52	*
비경상재산세	1	2	0	1.33	.
부동산취득 관련세	4,891	5,509	1,280	1.99	*
과징금	3,327	3,552	2,015	5.94	***
기타비경상세금	5,900	5,578	7,779	-1.13	.
연금	144,106	145,903	133,617	2.05	*
국민연금 기여금	114,509	117,375	97,786	5.12	***
기타연금 기여금	29,597	28,528	35,832	-1.34	.
사회보장	134,485	137,411	117,414	5.07	***
건강보험료	122,693	125,412	106,827	5.11	***
기타사회보험료	11,792	11,999	10,588	2.40	*
이자비용	122,488	127,265	94,612	2.97	***
주택대출이자	90,906	95,443	64,432	3.16	***
기타이자	31,582	31,822	30,180	0.38	.
가구간 이전지출	197,267	197,672	194,904	0.23	.
교제비	92,966	94,008	86,880	1.48	.
경조비	49,215	48,228	54,974	-1.74	.
국내학생가구 송금	8,086	7,265	12,882	-1.88	.
국외학생 및 학자에 대한 송금	4,138	4,821	155	3.29	***
기타송금(국내)	42,433	42,848	40,013	0.43	.
기타송금(국외)	429	502	0	3.28	***
비영리단체로 이전	109,762	110,908	103,071	0.92	.
종교기부금	45,220	47,408	32,452	2.06	*
회비 및 기타기부금	64,542	63,500	70,619	-1.74	.

[부록 4]

비목별 지출비율 추이(1999~2012)

1. 2012년 국민생활실태조사 결과

〈부표 4-1〉 전체가구의 비목별 지출비율 추이

(단위: 만원, %)

비 목	전체 가구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지출액	(비율)	지출액	(비율)	지출액	(비율)
식료품비	37	26.5	59	24.4	80	21.7
주거비	13	9.0	11	4.5	12	3.2
광열수도비	8	6.0	12	5.2	14	3.9
가구집기가사용품비	3	1.8	5	1.9	12	3.3
피복신발비	6	4.3	9	3.6	13	3.6
보건의료비	7	4.7	14	6.0	16	4.4
공교육비	0	0.3	2	0.8	12	3.4
사교육비	0	0.0	1	0.3	9	2.5
교양오락비	6	4.2	8	3.5	14	3.7
교통통신비	18	13.2	41	17.0	58	15.8
기타소비지출	24	17.4	48	20.0	72	19.6
사적이전	7	5.4	10	4.0	16	4.4
세금	3	2.4	9	3.6	16	4.3
사회보장부담금	7	4.8	12	5.2	23	6.2
총 생활비	140	100.0	240	100.0	367	100.0

주: 1) 균등화 경상소득(경상소득 / $\sqrt{\text{가구원수}}$)의 상·하위 1% 제거한 전체가구 기준이다.

2) 지출액은 월평균금액임.

3) 가중치를 적용한 것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부표 4-1〉 전체가구의 비목별 지출비율 추이(계속)

(단위: 만원, %)

비 목	전체 가구 기준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이상 가구	
	지출액	(비율)	지출액	(비율)	지출액	(비율)	지출액	(비율)
식료품비	94	20.5	105	20.7	122	21.5	129	25.0
주거비	11	2.4	12	2.4	10	1.8	12	2.3
광열수도비	15	3.3	18	3.7	22	3.8	23	4.5
가구집기가사용품비	16	3.4	19	3.8	19	3.4	37	7.3
피복신발비	15	3.3	16	3.2	19	3.3	14	2.6
보건의료비	16	3.4	20	4.0	28	4.9	30	5.8
공교육비	21	4.6	28	5.5	24	4.2	26	5.0
사교육비	36	7.8	35	7.0	49	8.7	27	5.1
교양오락비	16	3.5	16	3.1	13	2.2	9	1.6
교통통신비	70	15.1	81	16.0	82	14.4	73	14.2
기타소비지출	83	18.0	87	17.3	103	18.3	95	18.4
사적이전	20	4.2	18	3.5	22	3.9	7	1.4
세금	20	4.4	21	4.1	23	4.1	14	2.8
사회보장부담금	28	6.1	29	5.7	31	5.6	20	3.8
총 생활비	462	100.0	505	100.0	566	100.0	515	100.0

주: 1) 균등화 경상소득(경상소득 / $\sqrt{\text{가구원수}}$)의 상·하위 1% 제거한 전체가구 기준이다.

2) 지출액은 월평균금액임.

3) 가중치를 적용한 것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부표 4-2〉 소득하위 40%이하 가구의 비목별 지출비율 추이

(단위: 만원, %)

비 목	소득하위 40% 이하 가구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지출액	(비율)	지출액	(비율)	지출액	(비율)
식료품비	24	35.1	42	31.5	63	26.0
주거비	5	7.8	7	5.6	11	4.6
광열수도비	8	11.7	12	8.6	13	5.5
가구집기가사용품비	2	2.5	3	2.3	9	3.7
피복신발비	2	2.6	4	2.6	7	2.9
보건의료비	6	8.8	13	9.4	13	5.2
공교육비	0	0.0	1	1.0	9	3.9
사교육비	0	0.0	1	0.5	5	1.9
교양오락비	2	2.4	3	2.0	6	2.3
교통통신비	6	9.3	17	13.0	39	15.9
기타소비지출	10	15.3	23	17.1	47	19.4
사적이전	2	2.2	4	2.6	7	2.7
세금	1	0.9	2	1.5	4	1.5
사회보장부담금	1	1.3	3	2.3	11	4.5
총 생활비	68	100.0	134	100.0	244	100.0

주: 1) 균등화 경상소득(경상소득 / $\sqrt{\text{가구원수}}$)의 상·하위 1% 제거

2) 가구규모별 소득하위 40% 이하 가구 기준이고, 소득은 경상소득 기준이다.

3) 지출액은 월평균금액임.

4) 가중치를 적용한 것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부표 4-2〉 소득하위 40%이하 가구의 비목별 지출비율 추이(계속)

(단위: 만원, %)

비 목	소득하위 40% 이하 가구 기준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이상 가구	
	지출액	(비율)	지출액	(비율)	지출액	(비율)	지출액	(비율)
식료품비	77	23.3	87	25.2	102	24.4	104	27.2
주거비	11	3.4	11	3.2	8	2.0	3	0.8
광열수도비	14	4.3	16	4.6	19	4.6	18	4.8
가구집기사용품비	17	5.1	17	4.9	19	4.4	20	5.3
피복신발비	10	2.9	10	3.0	14	3.4	9	2.4
보건의료비	14	4.2	13	3.7	23	5.6	22	5.9
공교육비	14	4.3	21	6.2	19	4.5	24	6.2
사교육비	22	6.6	22	6.3	28	6.7	12	3.0
교양오락비	8	2.4	7	2.1	7	1.7	7	1.9
교통통신비	54	16.1	51	14.9	71	17.0	57	15.0
기타소비지출	58	17.6	59	17.2	77	18.4	80	20.8
사적이전	10	2.9	9	2.8	7	1.6	7	1.7
세금	6	1.7	5	1.5	6	1.5	4	1.1
사회보장부담금	17	5.0	15	4.4	18	4.2	15	3.8
총 생활비	332	100.0	345	100.0	418	100.0	383	100.0

주: 1) 균등화 경상소득(경상소득 / $\sqrt{\text{가구원수}}$)의 상·하위 1% 제거

2) 가구규모별 소득하위 40% 이하 가구 기준이고, 소득은 경상소득 기준이다.

3) 지출액은 월평균금액임.

4) 가중치를 적용한 것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부표 4-3〉 소득하위 20%이하 가구의 비목별 지출비율 추이

(단위: 만원, %)

비 목	소득하위 20% 이하 가구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지출액	(비율)	지출액	(비율)	지출액	(비율)
식료품비	20	37.5	37	34.1	57	27.7
주거비	5	8.6	6	5.5	12	5.7
광열수도비	7	13.5	11	10.0	13	6.1
가구집기가사용품비	1	2.3	2	2.2	8	4.0
피복신발비	1	2.3	3	2.4	6	2.7
보건의료비	5	8.2	11	10.2	11	5.3
공교육비	0	0.0	1	0.7	10	4.8
사교육비	0	0.0	0	0.2	3	1.7
교양오락비	1	2.3	2	1.9	4	2.1
교통통신비	5	8.9	13	12.0	31	15.0
기타소비지출	7	12.9	17	15.5	37	17.8
사적이전	1	1.6	3	2.6	5	2.4
세금	0	0.6	1	1.3	2	1.1
사회보장부담금	1	1.1	2	1.4	8	3.7
총 생활비	55	100.0	108	100.0	206	100.0

주: 1) 균등화 경상소득(경상소득 / $\sqrt{\text{가구원수}}$)의 상·하위 1% 제거

2) 가구규모별 소득하위 20% 이하 가구 기준이고, 소득은 경상소득 기준이다.

3) 지출액은 월평균금액임.

4) 가중치를 적용한 것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부표 4-3〉 소득하위 20%이하 가구의 비목별 지출비율 추이(계속)

(단위: 만원, %)

비 목	소득하위 20% 이하 가구 기준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이상 가구	
	지출액	(비율)	지출액	(비율)	지출액	(비율)	지출액	(비율)
식료품비	70	23.7	78	26.3	86	23.7	91	24.4
주거비	12	4.1	11	3.7	8	2.3	2	0.5
광열수도비	14	4.6	15	5.2	18	5.1	19	5.0
가구집기가사용품비	17	5.8	15	4.9	21	5.8	25	6.7
피복신발비	8	2.8	8	2.8	12	3.3	8	2.3
보건의료비	15	5.0	11	3.8	23	6.2	33	9.0
공교육비	13	4.3	20	6.6	18	5.0	20	5.4
사교육비	16	5.3	16	5.3	20	5.6	16	4.2
교양오락비	6	2.2	5	1.8	5	1.3	4	1.1
교통통신비	49	16.7	44	14.6	69	19.1	60	16.0
기타소비지출	51	17.2	50	16.9	59	16.3	72	19.3
사적이전	8	2.7	9	3.0	5	1.4	6	1.5
세금	4	1.3	4	1.3	5	1.4	4	1.0
사회보장부담금	13	4.3	12	3.9	13	3.6	14	3.7
총 생활비	295	100.0	298	100.0	362	100.0	372	100.0

주: 1) 균등화 경상소득(경상소득 / $\sqrt{\text{가구원수}}$)의 상·하위 1% 제거

2) 가구규모별 소득하위 20% 이하 가구 기준이고, 소득은 경상소득 기준이다.

3) 지출액은 월평균금액임.

4) 가중치를 적용한 것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 도시가계조사 결과(1999~2012)

〈부표 4-4〉 도시근로자 4인가구 전체의 비목별 지출비율 추이

(단위: %)

비 목	년 도									
	1999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식료품	23.1	22.4	22.2	21.1	20.7	20.6	19.9	19.6	19.6	19.8
주거	2.7	2.5	2.4	2.5	2.4	2.4	2.7	2.8	2.9	3.0
광열수도	4.0	3.7	3.9	3.8	3.6	3.6	3.7	3.8	3.7	3.8
가구집기가사용품	3.2	3.3	3.8	3.8	4.0	3.7	3.6	4.1	4.4	3.6
피복 및 신발	4.4	4.4	4.4	4.3	4.4	4.3	4.7	4.9	4.9	5.2
보건의료	3.6	3.4	3.7	3.7	3.5	3.5	4.1	4.3	4.3	4.4
교육	11.5	12.9	13.0	13.4	13.7	14.8	14.7	13.3	12.9	12.1
교양오락	4.4	4.1	4.2	4.1	4.1	3.8	4.5	4.6	4.5	4.5
교통통신	13.7	14.4	14.1	14.2	14.3	13.7	13.4	13.4	12.9	13.3
기타소비지출	14.8	13.7	12.9	12.9	13.1	12.9	12.7	12.6	12.7	12.2
비소비지출	14.5	15.1	15.3	16.2	16.1	16.7	16.0	16.5	17.4	18.1

주: 1) 도시근로자 4인 가구 전체 기준이다.

2) 지출액은 월평균금액임.

3) 가중치를 적용한 것임.

자료: 통계청(1999~2009), 『가계동향조사』(월간) 및 통계청(2010~2012), 『가계동향조사』(연간) 원자료

〈부표 4-5〉 도시근로자 4인가구 전체의 비목별 지출액 추이

(단위: 원)

비 목	년 도									
	1999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식료품	432,542	613,634	626,761	635,096	654,773	699,736	689,943	719,643	752,535	784,409
주거	50,149	68,765	69,013	75,247	75,565	81,136	91,971	101,385	109,688	119,412
광열수도	75,850	102,461	109,026	114,499	115,168	121,977	128,337	140,697	142,498	148,663
가구집기가사용품	60,169	90,366	108,614	114,512	127,289	126,093	124,730	150,411	167,670	141,605
피복 및 신발	82,543	119,443	124,583	130,748	139,436	145,245	160,939	178,116	189,179	205,684
보건의료	68,239	93,975	104,591	110,546	110,609	120,160	143,398	156,504	163,558	172,094
교육	215,588	354,488	368,773	404,057	434,471	502,622	508,081	487,415	494,055	476,618
교양오락	82,864	111,904	118,259	122,492	130,739	129,961	153,938	169,928	171,376	178,387
교통통신	257,211	394,456	398,466	426,735	451,536	464,529	462,433	492,679	496,540	526,055
기타소비지출	277,108	374,432	365,958	388,480	413,028	437,873	440,738	463,248	486,496	484,207
비소비지출	270,993	413,725	433,607	487,917	507,423	568,713	554,761	604,252	667,569	717,631
가계지출총계	1,873,257	2,737,651	2,827,652	3,010,331	3,160,038	3,398,044	3,459,269	3,664,277	3,841,164	3,954,765

주: 1) 도시근로자 4인 가구 전체 기준이다.

2) 지출액은 월평균금액임.

3) 가중치를 적용한 것임.

자료: 통계청(1999~2009), 『가계동향조사』(월간) 및 통계청(2010~2012), 『가계동향조사』(연간) 원자료

〈부표 4-6〉 도시근로자 4인가구 전체의 비목별 지출액의 연간 증감률

(단위: %)

비 목	2005 (전년도 대비)	2006 (전년도 대비)	2007 (전년도 대비)	2008 (전년도 대비)	2009 (전년도 대비)	2010 (전년도 대비)	2011 (전년도 대비)	2012 (전년도 대비)	1999년도 대비 2004년도 증감률	2004년도 대비 2008년도 증감률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증감률	2009년도 대비 2012년도 증감률
식료품	2.1	1.3	3.1	6.9	-1.4	4.3	4.6	4.2	41.9	3.5	7.9	12.0
주거	0.4	9.0	0.4	7.4	13.4	10.2	8.2	8.9	37.1	9.4	18.2	23.0
광열수도	6.4	5.0	0.6	5.9	5.2	9.6	1.3	4.3	35.1	11.7	10.8	13.7
가정기 가용품	20.2	5.4	11.2	-0.9	-1.1	20.6	11.5	-15.5	50.2	26.7	8.2	11.9
피복및신발	4.3	4.9	6.6	4.2	10.8	10.7	6.2	8.7	44.7	9.5	18.8	21.8
보안의료	11.3	5.7	0.1	8.6	19.3	9.1	4.5	5.2	37.7	17.6	22.9	16.7
교육	4.0	9.6	7.5	15.7	1.1	-4.1	1.4	-3.5	64.4	14.0	20.5	-6.6
교양오락	5.7	3.6	6.7	-0.6	18.4	10.4	0.9	4.1	35.0	9.5	20.4	13.7
교통통신	1.0	7.1	5.8	2.9	-0.5	6.5	0.8	5.9	53.4	8.2	7.7	12.1
기타서비스	-2.3	6.2	6.3	6.0	0.7	5.1	5.0	-0.5	35.1	3.8	11.9	9.0
비서비스	4.8	12.5	4.0	12.1	-2.5	8.9	10.5	7.5	52.7	17.9	12.0	22.7
총계지출	3.3	6.5	5.0	7.5	1.8	5.9	4.8	3.0	46.1	10.0	13.0	12.5

주: 1) 도시근로자 4인 가구 전체 기준이다.

2) 지출액은 월평균금액임.

3) 가중치를 적용한 것임.

자료: 통계청(1999~2009), 『가계동향조사』(월간) 및 통계청(2010~2012), 『가계동향조사』(연간) 원자료

〈부표 4-7〉 도시근로자 4인가구 전체의 소득하위 40%이하 가구의 비목별 지출비율 추이

(단위: %)

비 목	년 도									
	1999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식료품	27.2	25.9	25.8	24.5	23.5	23.6	23.2	23.0	22.3	22.6
주거	2.9	3.0	3.0	3.2	3.2	2.8	3.5	3.9	3.9	4.0
광열수도	5.2	5.0	5.1	5.1	4.7	4.7	4.9	5.1	4.7	4.8
가구집기가사용품	2.7	3.3	3.9	3.8	4.4	4.0	3.9	4.8	5.2	4.4
피복 및 신발	4.3	4.3	4.1	4.0	4.1	3.9	4.4	4.6	4.9	5.1
보건의료	4.8	3.6	4.1	4.2	4.1	4.1	4.6	4.6	4.8	4.8
교육	10.2	13.0	12.5	13.9	13.5	14.7	13.9	12.1	11.9	11.7
교양오락	4.2	3.3	3.7	3.3	3.5	3.4	4.2	4.1	4.1	4.1
교통통신	13.8	16.0	15.8	15.8	15.7	15.6	14.3	14.4	14.5	14.1
기타소비지출	15.0	12.8	12.3	12.2	12.5	12.4	12.1	12.3	12.4	11.8
비소비지출	9.7	9.8	9.8	10.0	10.8	10.8	11.0	10.9	11.3	12.4

주: 1) 도시근로자 4인가구 전체의 소득하위 40%이하 가구 기준이고, 소득은 경상소득 기준이다.

2) 지출액은 월평균금액임.

3) 가중치를 적용한 것임.

자료: 통계청(1999~2009), 『가계동향조사』(월간) 및 통계청(2010~2012), 『가계동향조사』(연간) 원자료

〈부표 4-8〉 도시근로자 4인가구 전체의 소득하위 40%이하 가구의 비목별 지출액 추이

(단위: 원)

비 목	년 도									
	1999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식료품	354,230	494,412	508,900	505,983	529,731	561,466	545,663	575,128	619,947	657,055
주거	37,287	56,284	58,180	65,570	71,697	67,795	82,664	96,314	107,492	116,644
광열수도	67,549	94,765	100,743	105,053	105,535	111,023	115,584	128,143	131,927	139,742
가구집기가사용품	34,700	62,758	76,485	78,176	99,750	94,344	91,872	119,780	143,957	128,449
피복 및 신발	56,008	82,131	81,243	82,697	92,965	92,608	102,379	114,958	135,218	148,309
보건의료	63,171	68,486	80,918	86,780	92,409	98,213	108,094	116,066	132,923	140,727
교육	132,895	248,270	247,308	287,483	304,463	350,058	325,853	302,711	332,006	340,246
교양오락	54,883	63,735	72,003	68,406	78,445	80,514	97,696	103,349	114,870	119,522
교통통신	180,110	304,236	310,716	324,788	353,920	370,900	335,204	359,885	404,928	409,355
기타소비지출	196,003	243,405	242,161	251,130	282,122	294,758	284,632	307,667	344,858	343,832
비소비지출	127,067	187,712	193,255	205,311	242,862	257,868	258,922	273,400	315,900	359,055
가계지출총계	1,303,903	1,906,193	1,971,912	2,061,376	2,253,899	2,379,547	2,348,564	2,497,399	2,784,024	2,902,938

주: 1) 도시근로자 4인가구 전체의 소득하위 40%이하 가구 기준이고, 소득은 경상소득 기준이다.

2) 지출액은 월평균금액임.

3) 가중치를 적용한 것임.

자료: 통계청(1999~2009), 『가계동향조사』(월간) 및 통계청(2010~2012), 『가계동향조사』(연간) 원자료

〈부표 4-9〉 도시근로자 4인가구 전체의 소득하위 40%이하 가구의 비목별 지출액의 연간 증감률

(단위: %)

비 목	2005 (전년도 대비)	2006 (전년도 대비)	2007 (전년도 대비)	2008 (전년도 대비)	2009 (전년도 대비)	2010 (전년도 대비)	2011 (전년도 대비)	2012 (전년도 대비)	1999년도 대비 2004년도 증감률	2004년도 대비 2008년도 증감률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증감률	2009년도 대비 2012년도 증감률
식료품	2.9	-0.6	4.7	6.0	-2.8	5.4	7.8	6.0	39.6	2.3	7.3	17.0
주거	3.4	12.7	9.3	-5.4	21.9	16.5	11.6	8.5	50.9	16.5	20.7	29.1
광열수도	6.3	4.3	0.5	5.2	4.1	10.9	3.0	5.9	40.3	10.9	9.1	17.3
가전기기 가용품	21.9	2.2	27.6	-5.4	-2.6	30.4	20.2	-10.8	80.9	24.6	14.9	28.5
피복및신발	-1.1	1.8	12.4	-0.4	10.6	12.3	17.6	9.7	46.6	0.7	19.2	31.0
보안의료	18.2	7.2	6.5	6.3	10.1	7.4	14.5	5.9	8.4	26.7	19.7	23.2
교육	-0.4	16.2	5.9	15.0	-6.9	-7.1	9.7	2.5	86.8	15.8	11.8	4.2
교통여객	13.0	-5.0	14.7	2.6	21.3	5.8	11.1	4.1	16.1	7.3	30.0	18.3
교통통신	2.1	4.5	9.0	4.8	-9.6	7.4	12.5	1.1	68.9	6.8	3.1	18.1
가계저축	-0.5	3.7	12.3	4.5	-3.4	8.1	12.1	-0.3	24.2	3.2	11.8	17.2
비저축	3.0	6.2	18.3	6.2	0.4	5.6	15.5	13.7	47.7	9.4	20.7	27.9
총지출	3.4	4.5	9.3	5.6	-1.3	6.3	11.5	4.3	46.2	8.1	12.2	19.1

주: 1) 도시근로자 4인가구 전체의 소득하위 40%이하 가구 기준이고, 소득은 경상소득 기준이다.

2) 지출액은 월평균금액임.

3) 가중치를 적용한 것임.

자료: 통계청(1999~2009), 『가계동향조사』(월간) 및 통계청(2010~2012), 『가계동향조사』(연간) 원자료

〈부표 4-10〉 도시근로자 4인가구 전체의 소득하위 20%이하 가구의 비목별 지출비율 추이

(단위: %)

비 목	년 도									
	1999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식료품	27.6	27.4	26.5	25.5	24.3	24.1	23.9	24.0	23.9	23.6
주거	3.4	3.7	3.7	3.9	3.6	3.5	4.2	4.4	3.8	4.9
광열수도	5.7	5.5	5.6	5.6	5.3	5.3	5.6	5.6	5.4	5.1
가구집기가사용품	2.6	3.6	3.9	4.1	4.5	3.6	3.8	4.9	5.2	4.4
피복 및 신발	4.2	4.0	3.9	3.9	4.1	3.6	4.1	4.8	4.9	4.8
보건의료	5.8	4.0	4.7	4.7	4.2	4.1	4.8	4.8	4.9	5.0
교육	10.3	12.7	12.8	13.2	13.7	15.3	13.3	12.0	11.8	11.0
교양오락	4.1	3.2	3.4	3.0	3.3	3.3	4.2	4.0	4.0	3.9
교통통신	12.3	15.5	16.1	16.3	15.9	15.9	14.5	15.1	14.5	14.9
기타소비지출	15.1	12.0	11.4	11.5	11.6	12.2	12.2	11.6	12.2	11.3
비소비지출	8.9	8.6	7.9	8.3	9.5	9.1	9.4	8.8	9.5	11.0

주: 1) 도시근로자 4인가구 전체의 소득하위 20%이하 가구 기준이고, 소득은 경상소득 기준이다.

2) 지출액은 월평균금액임.

3) 가중치를 적용한 것임.

자료: 통계청(1999~2009), 『가계동향조사』(월간) 및 통계청(2010~2012), 『가계동향조사』(연간) 원자료

〈부표 4-11〉 도시근로자 4인가구 전체의 소득하위 20%이하 가구의 비목별 지출액 추이

(단위: 원)

비 목	년 도									
	1999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식료품	318,837	450,576	456,480	449,259	471,240	499,256	480,851	512,666	568,582	599,830
주거	39,590	60,132	64,450	68,473	70,004	72,055	84,929	94,095	91,158	125,066
광열수도	65,783	90,262	96,711	99,166	102,355	109,763	112,282	119,983	127,673	130,297
가구집기가사용품	30,220	59,812	67,512	72,551	87,919	75,408	76,736	103,938	122,718	112,145
피복 및 신발	48,955	66,167	67,398	67,901	79,556	74,875	82,011	103,230	116,052	123,394
보건의료	66,491	65,213	81,813	83,011	81,016	85,343	96,701	102,708	115,631	126,212
교육	118,976	208,313	220,823	233,062	265,936	316,624	268,735	257,029	279,655	280,679
교양오락	47,646	52,124	58,746	53,545	63,142	67,686	85,129	85,470	96,334	99,327
교통통신	141,911	254,418	278,134	287,569	307,719	328,419	292,826	321,742	345,774	380,092
기타소비지출	173,995	197,435	197,381	202,552	225,348	252,973	246,153	247,657	291,320	287,994
비소비지출	103,388	141,775	136,040	146,006	183,622	188,202	189,466	186,856	224,992	280,527
가계지출총계	1,155,791	1,646,228	1,725,488	1,763,094	1,937,858	2,070,603	2,015,819	2,135,374	2,379,889	2,545,562

주: 1) 도시근로자 4인가구 전체의 소득하위 20%이하 가구 기준이고, 소득은 경상소득 기준이다.

2) 지출액은 월평균금액임.

3) 가중치를 적용한 것임.

자료: 통계청(1999~2009), 『가계동향조사』(월간) 및 통계청(2010~2012), 『가계동향조사』(연간) 원자료

〈부표 4-12〉 도시근로자 4인가구 전체의 소득하위 20%이하 가구의 비목별 지출액의 연간 증감률

(단위: %)

비 목	2005 (전년도 대비)	2006 (전년도 대비)	2007 (전년도 대비)	2008 (전년도 대비)	2009 (전년도 대비)	2010 (전년도 대비)	2011 (전년도 대비)	2012 (전년도 대비)	1999년도 대비 2004년도 증감률	2004년도 대비 2008년도 증감률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증감률	2009년도 대비 2012년도 증감률
식료품	1.3	-1.6	4.9	5.9	-3.7	6.6	10.9	5.5	41.3	-0.3	6.6	19.8
주거	7.2	6.2	2.2	2.9	17.9	10.8	-3.1	37.2	51.9	13.9	19.4	32.1
광열수도	7.1	2.5	3.2	7.2	2.3	6.9	6.4	2.1	37.2	9.9	11.7	13.8
가정기 가용품	12.9	7.5	21.2	-14.2	1.8	35.4	18.1	-8.6	97.9	21.3	5.5	31.6
패복및신발	1.9	0.7	17.2	-5.9	9.5	25.9	12.4	6.3	35.2	2.6	17.2	33.5
보안의료	25.5	1.5	-2.4	5.3	13.3	6.2	12.6	9.2	-1.9	27.3	14.2	23.4
교육	6.0	5.5	14.1	19.1	-15.1	-4.4	8.8	0.4	75.1	11.9	13.3	4.3
교통요약	12.7	-8.9	17.9	7.2	25.8	0.4	12.7	3.1	9.4	2.7	37.1	14.3
교통통신	9.3	3.4	7.0	6.7	-10.8	9.9	7.5	9.9	79.3	13.0	1.8	23.0
가계저축	0.0	2.6	11.3	12.3	-2.7	0.6	17.6	-1.1	13.5	2.6	17.7	14.5
비저축	-4.0	7.3	25.8	2.5	0.7	-1.4	20.4	24.7	37.1	3.0	22.9	32.5
총계저축	4.8	2.2	9.9	6.9	-2.6	5.9	11.5	7.0	42.4	7.1	12.5	20.8

주: 1) 도시근로자 4인가구 전체의 소득하위 20%이하 가구 기준이고, 소득은 경상소득 기준이다.

2) 지출액은 월평균금액임.

3) 가중치를 적용한 것임.

자료: 통계청(1999~2009), 『가계동향조사』(월간) 및 통계청(2010~2012), 『가계동향조사』(연간) 원자료

[부록 5]

가계지출 품목별 지출액 및 구성비(2012)

〈부표 5-1〉 가계지출 품목별 지출액 및 구성비율

(단위: 원, %)

품 목	지출액	구성비율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334,765	14.82
곡물	17,887	0.79
멥쌀	15,037	0.67
찰쌀	1,010	0.04
맥류	228	0.01
두류	734	0.03
기타곡물	878	0.04
곡물가공품	18,051	0.80
밀가루	274	0.01
국수류	1,782	0.08
라면류	7,692	0.34
당면	531	0.02
두부	3,238	0.14
기타곡물가공품	4,534	0.20
빵 및 떡류	22,258	0.99
케이크	4,228	0.19
식빵	1,201	0.05
기타빵류	13,207	0.58
떡	3,623	0.16
육류	44,896	1.99
쇠고기	17,140	0.76
돼지고기	22,460	0.99
닭고기	4,434	0.20
기타생육	864	0.04
육류가공품	13,684	0.61
소시지	1,675	0.07
햄 및 베이컨	4,051	0.18
기타육류가공품	7,959	0.35

주: 1) 전체(도시근로자+자영자 포함) 4인가구의 소득하위 40%이하 가구 기준이고, 소득은 경상소득 기준이다.

2) 괄호는 비목별 비율, 나머지 비율은 비목별 하위품별에 대한 비율이다.

3) 지출액은 월평균금액임.

4) 가중치를 적용한 것임.

자료: 통계청(2012) 『가계동향조사』(연간) 원자료.

〈부표 5-1〉 가계지출 품목별 지출액 및 구성비율(계속)

(단위: 원, %)

품 목	지출액	구성비율
신선수산물	15,864	0.70
갈치	1,406	0.06
명태	761	0.03
조기	1,308	0.06
고등어	1,333	0.06
꽁치	86	0.00
오징어	1,741	0.08
가자미	270	0.01
게	1,477	0.07
굴	674	0.03
조개류	1,698	0.08
기타 수산물	5,111	0.23
염건수산물	5,721	0.25
복어	861	0.04
굴비	582	0.03
마른멸치	1,896	0.08
마른오징어	905	0.04
간고등어	791	0.04
기타염건수산물	685	0.03
기타수산물가공	7,638	0.34
어묵	2,580	0.11
맛살	653	0.03
수산물통조림	2,316	0.10
젓갈	956	0.04
기타수산물가공품	1,133	0.05
유제품 및 알	37,289	1.65
우유	17,752	0.79
분유	3,448	0.15
치즈	1,709	0.08
요구르트	5,778	0.26
두유	2,461	0.11
기타우유가공품	60	0.00
알 및 알가공품	6,080	0.27
유지류	2,347	0.10
참기름	749	0.03
들기름	218	0.01
기타식물성식용유	1,238	0.05
버터	118	0.01

〈부표 5-1〉 가계지출 품목별 지출액 및 구성비율(계속)

(단위: 원, %)

품 목	지출액	구성비율
기타유지류	24	0.00
과일 및 과일가공품	37,084	1.64
사과	5,241	0.23
배	1,642	0.07
복숭아	1,909	0.08
포도	3,624	0.16
밤	332	0.01
감	1,357	0.06
감귤류	6,421	0.28
참외	2,151	0.10
수박	3,461	0.15
딸기	3,022	0.13
바나나	2,263	0.10
기타과일	4,125	0.18
과일가공품	1,536	0.07
채소 및 채소가공품	33,212	1.47
배추	1,960	0.09
상추	1,348	0.06
시금치	991	0.04
양배추	459	0.02
미나리	245	0.01
깻잎	545	0.02
부추	471	0.02
무	1,489	0.07
당근	749	0.03
감자	1,641	0.07
고구마	1,632	0.07
도라지	306	0.01
콩나물	1,407	0.06
버섯	2,213	0.10
오이	1,541	0.07
풋고추	1,488	0.07
호박	1,251	0.06
가지	298	0.01
토마토	2,484	0.11
파	1,651	0.07
양파	1,688	0.07
마늘	1,893	0.08

〈부표 5-1〉 가계지출 품목별 지출액 및 구성비율(계속)

(단위: 원, %)

품 목	지출액	구성비율
기타채소	3,217	0.14
채소가공품	2,246	0.10
해조 및 해조가공품	4,448	0.20
김	3,160	0.14
미역	814	0.04
기타해조류	473	0.02
당류 및 과자류	30,643	1.36
설탕	914	0.04
잼, 꿀, 조청	1,376	0.06
초콜릿	1,363	0.06
사탕 및 젤리	1,447	0.06
한식과자	646	0.03
껌	533	0.02
아이스크림	7,537	0.33
기타과자	16,828	0.74
조미식품	12,182	0.54
말린 고추	3,752	0.17
참깨 및 들깨	535	0.02
생강	183	0.01
소금	430	0.02
간장	1,265	0.06
된장	997	0.04
고추장	1,157	0.05
카레	656	0.03
식초	195	0.01
케첩	337	0.01
드레싱	437	0.02
혼합조미료	676	0.03
기타조미식품	1,562	0.07
기타식품	10,623	0.47
죽 및 스프	349	0.02
이유식	354	0.02
김치	1,167	0.05
반찬류	2,523	0.11
즉석·동결식품	3,703	0.16
기타미분류식품	2,527	0.11
커피 및 차	8,351	0.37
커피	6,386	0.28

〈부표 5-1〉 가계지출 품목별 지출액 및 구성비율(계속)

(단위: 원, %)

품 목	지출액	구성비율
차	1,965	0.09
주스 및 기타음료	12,585	0.56
과일 및 야채주스	4,805	0.21
생수	1,026	0.05
기능성 음료	680	0.03
기타음료	6,074	0.27
주류 및 담배	29,924	1.32
주류	9,427	0.42
소주	2,325	0.10
과일주	396	0.02
맥주	5,546	0.25
탁주	720	0.03
증류주	139	0.01
기타주류	302	0.01
담배	20,497	0.91
담배	20,497	0.91
의류 및 신발	137,215	6.07
직물 및 외의	95,512	4.23
직물	117	0.01
남성용 외의	16,636	0.74
여성용 외의	29,300	1.30
남학생 교복	3,493	0.15
여학생 교복	3,154	0.14
와이셔츠	821	0.04
남방셔츠	1,429	0.06
블라우스	812	0.04
티셔츠	12,414	0.55
스웨터 및 조끼	2,493	0.11
운동복	7,223	0.32
아동용외의	17,329	0.77
기타외의	290	0.01
내의	9,037	0.40
남자내의 및 잠옷	2,935	0.13
여자내의 및 잠옷	3,483	0.15
아동용 내의	2,619	0.12
기타의복	6,507	0.29
양말 및 스타킹	2,812	0.12
모자	1,087	0.05

〈부표 5-1〉 가계지출 품목별 지출액 및 구성비율(계속)

(단위: 원, %)

품 목	지출액	구성비율
넥타이	251	0.01
실류	145	0.01
기타의복관련품	2,212	0.10
의복관련서비스	3,055	0.14
의복수선료	548	0.02
의복세탁료	1,951	0.09
기타의복관련서비스	556	0.02
신발	22,934	1.02
아동화	4,192	0.19
구두	6,813	0.30
운동화	8,786	0.39
기타신발	3,142	0.14
신발서비스	170	0.01
신발관련서비스	170	0.01
주거 및 수도광열	249,425	11.04
실제주거비	59,766	2.65
월세	39,170	1.73
기타주거비	20,596	0.91
주택유지 및 수선	12,737	0.56
벽지	244	0.01
바닥재	45	0.00
기타주택유지 및 수선재	1,570	0.07
설비·수리서비스	10,036	0.44
세놓는 주택수선	841	0.04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22,442	0.99
상하수도료	20,922	0.93
쓰레기처리	1,520	0.07
기타주거관련서비스	34,621	1.53
공동주택관리비	33,945	1.50
기타주거서비스	676	0.03
연료비	119,860	5.30
전기료	49,874	2.21
도시가스	53,774	2.38
LPG연료	4,839	0.21
등유	5,824	0.26
경유연료	39	0.00
연탄	311	0.01
공동주택난방비	4,897	0.22

〈부표 5-1〉 가계지출 품목별 지출액 및 구성비율(계속)

(단위: 원, %)

품 목	지출액	구성비율
기타연료비	302	0.01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70,080	3.10
가구 및 조명	10,043	0.44
장롱	1,727	0.08
화장대	63	0.00
침대	2,186	0.10
장식장	831	0.04
소파	843	0.04
책상	1,197	0.05
의자	363	0.02
식탁 및 식탁의자	678	0.03
밥상	142	0.01
조명기구	209	0.01
기타가구	1,772	0.08
중고가구	31	0.00
실내장식	1,479	0.07
카페트	942	0.04
기타실내장식품	537	0.02
가구·조명 및 장식서비스	171	0.01
실내장식관련서비스	171	0.01
가정용 섬유	5,809	0.26
침구류	4,001	0.18
수건	557	0.02
커튼	690	0.03
기타가정용 섬유	545	0.02
가정용섬유관련서비스	15	0.00
가전 및 가정용기기	16,576	0.73
전기밥솥	1,293	0.06
가스·전자레인지	842	0.04
일반냉장고	1,992	0.09
김치냉장고	1,948	0.09
정수기	336	0.01
에어컨 및 선풍기	3,139	0.14
난로 및 온풍기	172	0.01
공기청정기 및 가습기	840	0.04
세탁기	1,314	0.06
식기세척기	5	0.00
진공청소기	1,236	0.05

〈부표 5-1〉 가계지출 품목별 지출액 및 구성비율(계속)

(단위: 원, %)

품 목	지출액	구성비율
전기다리미	123	0.01
기타가정용기기 및 가전	3,299	0.15
중고가전 및 가정용기기	39	0.00
가전관련서비스	10,413	0.46
가정용기기 및 가전서비스	10,413	0.46
가사용품	6,871	0.30
식기류	1,563	0.07
컵 및 다기	512	0.02
솔	130	0.01
후라이팬	822	0.04
냄비	878	0.04
칼 및 수저류	411	0.02
기타주방용품	2,555	0.11
가정용공구 및 기타	2,830	0.13
가정용 전동공구	124	0.01
설비관련 기구	630	0.03
건전지	564	0.02
기타소형공구 및 가사용품	1,512	0.07
가사소모품	12,952	0.57
세탁용 세제	6,066	0.27
세탁·청소용구	1,530	0.07
전구	452	0.02
주방 및 청소용세제	1,338	0.06
살충약품 및 용품	639	0.03
기타가사소모품	2,927	0.13
가사서비스	2,936	0.13
식품관련서비스	177	0.01
가사사용인 급료	2,346	0.10
기타가사서비스	414	0.02
보건	124,046	5.49
의약품	27,139	1.20
조제양약	9,715	0.43
판매양약	2,625	0.12
한약 및 한약재	5,659	0.25
인삼	2,501	0.11
영양보조제	6,638	0.29
기타 의약품	9,689	0.43
보건의료 소모품	9,689	0.43

〈부표 5-1〉 가계지출 품목별 지출액 및 구성비율(계속)

(단위: 원, %)

품 목	지출액	구성비율
보건의료용품 및 기구	5,427	0.24
안경 및 콘택트	4,497	0.20
기타보건의료기구	930	0.04
외래의료서비스	39,313	1.74
일반병의원외래비	37,734	1.67
한방병원외래비	1,579	0.07
치과서비스	20,819	0.92
치과외래비	20,819	0.92
기타의료서비스	1,499	0.07
기타보건의료서비스	1,499	0.07
입원서비스	20,160	0.89
병원입원치료비	20,160	0.89
교통	233,868	10.35
자동차구입	36,194	1.60
신차구입	23,308	1.03
중고차 구입	12,887	0.57
기타운송기구구입	1,693	0.07
오토바이	446	0.02
자전거 등	1,247	0.06
운송기구유지 및 수리	13,886	0.61
부품 및 관련용품	2,455	0.11
유지 및 수리비	11,432	0.51
운송기구 연료비	122,348	5.41
휘발유	66,703	2.95
경유	37,303	1.65
LPG	18,274	0.81
기타연료	68	0.00
기타개인교통서비스	8,942	0.40
운전교습비	1,128	0.05
주차료	952	0.04
통행료	2,770	0.12
기타개인교통	4,092	0.18
철도운송	4,181	0.19
기차	2,729	0.12
지하철	1,452	0.06
육상운송	16,684	0.74
시내버스	8,928	0.40
시외버스	2,658	0.12

〈부표 5-1〉 가계지출 품목별 지출액 및 구성비율(계속)

(단위: 원, %)

품 목	지출액	구성비율
택시	5,098	0.23
기타운송	27,415	1.21
항공요금	2,539	0.11
교통카드 이용	24,527	1.09
기타여객서비스	349	0.02
기타교통관련서비스	2,524	0.11
화물운송 및 보관	2,524	0.11
통신	165,780	7.34
우편서비스	139	0.01
우편 서비스	139	0.01
통신장비	8,337	0.37
일반전화기기	98	0.00
이동전화기기 등	8,238	0.36
통신서비스	157,304	6.96
일반전화요금	8,191	0.36
이동전화 요금	127,949	5.66
인터넷 이용료	20,442	0.90
기타통신관련비용	723	0.03
오락·문화	109,758	4.86
영상음향기기	5,523	0.24
텔레비전	4,621	0.20
기타영상음향기기	903	0.04
사진광학장비	570	0.03
사진 및 광학장비	570	0.03
정보처리장치	5,712	0.25
정보처리기기	5,712	0.25
기록매체	265	0.01
기록용 매체	265	0.01
영상음향 및 정보기기수리	1,152	0.05
영상 및 정보처리서비스	1,152	0.05
오락문화 내구재	182	0.01
오락 및 운동내구재	182	0.01
악기기구	927	0.04
악기	927	0.04
오락문화내구재 유지 및 수리	167	0.01
오락문화내구재서비스	167	0.01
장난감 및 취미용품	8,248	0.37
장난감	7,485	0.33

〈부표 5-1〉 가계지출 품목별 지출액 및 구성비율(계속)

(단위: 원, %)

품 목	지출액	구성비율
게임 및 취미용품	763	0.03
캠핑 및 운동관련용품	4,068	0.18
등산·낚시·사냥용품	1,939	0.09
운동용품	2,011	0.09
캠핑 및 운동용품서비스	117	0.01
화훼관련용품	1,784	0.08
원예용품	1,784	0.08
애완동물관련용품	2,221	0.10
애완동물관련품	2,221	0.10
화훼 및 애완동물서비스	1,058	0.05
애완동물 관련서비스	1,058	0.05
운동 및 오락서비스	11,047	0.49
운동시설이용	4,273	0.19
노래방 이용	833	0.04
P C방 이용	416	0.02
기타오락시설이용	5,076	0.22
운동경기관람	197	0.01
오락용품대여	252	0.01
문화서비스	26,968	1.19
공연 및 극장	4,379	0.19
관람시설이용	1,038	0.05
독서실 이용	1,489	0.07
문화강습	1,718	0.08
컨텐츠	4,775	0.21
방송수신료	8,654	0.38
기타문화서비스	4,915	0.22
복권	179	0.01
복권구입	179	0.01
서적	21,040	0.93
유아용학습교재	4,823	0.21
초등학생학습교재	3,338	0.15
중고생 교재	802	0.04
중고생 참고서	5,140	0.23
기타서적	6,938	0.31
기타인쇄물	1,554	0.07
신문	1,464	0.06
잡지	60	0.00
기타 인쇄물	30	0.00

〈부표 5-1〉 가계지출 품목별 지출액 및 구성비율(계속)

(단위: 원, %)

품 목	지출액	구성비율
문구	7,623	0.34
종이문구류	2,036	0.09
필기 및 미술용품	1,930	0.09
기타문구류	3,657	0.16
단체여행비	9,469	0.42
국내단체여행비	4,388	0.19
국외여행비	5,081	0.22
교육	329,801	14.60
정규교육	104,745	4.64
초등교육	23,662	1.05
유치원	23,567	1.04
초등학교	96	0.00
중등교육	23,099	1.02
중학교	289	0.01
고등학교	22,810	1.01
고등교육	57,984	2.57
전문대학	14,491	0.64
국공립대학	4,718	0.21
사립대학	34,539	1.53
대학원	4,235	0.19
학원 및 보습교육	206,186	9.13
학원 및 보습교육(성인미포함)	199,792	8.84
입시 및 보습	111,882	4.95
음악학원	14,614	0.65
미술학원	5,552	0.25
운동학원	14,768	0.65
직업준비학원	1,077	0.05
방문학습지	29,216	1.29
체험교육	1,823	0.08
기타학원교육비	7,524	0.33
개인과외비	13,335	0.59
성인학원교육	6,394	0.28
성인직업학원	3,684	0.16
외국어학원	1,618	0.07
운동 및 교양교육	1,092	0.05
기타교육	18,870	0.84
학교보충교육비	13,085	0.58
평생교육원	406	0.02

〈부표 5-1〉 가계지출 품목별 지출액 및 구성비율(계속)

(단위: 원, %)

품 목	지출액	구성비율
국내교육연수	5,379	0.24
국외연수비	0	0.00
음식·숙박	276,297	12.23
식사비	272,353	12.05
일반식당	159,942	7.08
배달음식	21,531	0.95
이동식 음식점	2,304	0.10
단체제공식	51,639	2.29
패스트푸드	4,747	0.21
주점·커피숍	32,190	1.42
숙박비	3,945	0.17
호텔,여관,콘도	1,507	0.07
기타숙박시설	2,437	0.11
기타 상품 및 서비스	198,511	8.79
이미용서비스	24,636	1.09
목욕료	6,705	0.30
이미용료	16,972	0.75
기타이미용서비스	960	0.04
이미용 기기	802	0.04
이미용기기	802	0.04
위생 및 이미용용품	36,211	1.60
칫솔	1,479	0.07
치약	979	0.04
세면비누	676	0.03
샴푸 및 린스	3,400	0.15
화장지	6,750	0.30
화장품	20,599	0.91
기타이미용용품	2,327	0.10
시계 및 장신구	2,064	0.09
손목시계	662	0.03
장식용시계	191	0.01
장신구	1,211	0.05
기타개인용품	10,731	0.47
가방	8,378	0.37
종교용품	12	0.00
혼례 및 장례용품	222	0.01
기타 개인용품	2,073	0.09
개인용품서비스	47	0.00

〈부표 5-1〉 가계지출 품목별 지출액 및 구성비율(계속)

(단위: 원, %)

품 목	지출액	구성비율
사회복지	45,401	2.01
산후조리원	1,768	0.08
보육료	43,139	1.91
기타사회복지	493	0.02
보험	62,598	2.77
생명보험	51,992	2.30
화재보험	409	0.02
연금보험	3,134	0.14
운송관련보험 등	7,064	0.31
기타금융	275	0.01
금융수수료	275	0.01
기타서비스	15,792	0.70
자가관련 부동산수수료	1,005	0.04
기타부동산 수수료	791	0.04
일반수수료	1,097	0.05
응시료	1,953	0.09
혼례 및 장례례비	9,972	0.44
기타 서비스	953	0.04
유흥비	21	0.00
비소비지출	472,665	20.92
경상조세	46,518	2.06
경상소득세	18,615	0.82
사업소득세	736	0.03
경상재산세	9,619	0.43
자동차세	17,070	0.76
기타경상세금	478	0.02
비경상조세	9,646	0.43
비경상소득세	414	0.02
비경상재산세	0	0.00
부동산취득 관련세	4,856	0.21
과징금	2,638	0.12
기타비경상세금	1,738	0.08
연금	78,926	3.49
국민연금 기여금	74,864	3.31
기타연금 기여금	4,062	0.18
사회보장	86,353	3.82
건강보험료	80,095	3.54
기타사회보험료	6,258	0.28

〈부표 5-1〉 가계지출 품목별 지출액 및 구성비율(계속)

(단위: 원, %)

품 목	지출액	구성비율
이자비용	81,049	3.59
주택대출이자	52,258	2.31
기타이자	28,792	1.27
가구간 이전지출	107,841	4.77
교제비	59,179	2.62
경조비	33,438	1.48
국내학생가구 송금	2,791	0.12
국외학생 및 환자에 대한 송금	47	0.00
기타송금(국내)	11,971	0.53
기타송금(국외)	414	0.02
비영리단체로 이전	62,332	2.76
종교기부금	24,581	1.09
회비 및 기타기부금	37,751	1.67

[부록 6]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비율

〈부표 6-1〉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비율(근로자 가구)

(단위: 원, %)

구 분	최저생계비		평균소득			중위 소득			평균 가계지출			중위 가계지출			소비 자물 가상 승률	생활 물가 상승 률
	금액 ¹⁾	상승률 ²⁾	금액	상승 률	비율 ³⁾	금액	상승 률	비율	금액	상승 률	비율	금액	상승 률	비율		
1999	901,357		2,212,762		40.7	1,980,520		45.5	1,873,257		48.1	1,558,456		57.8	0.8	2.4
2000	928,398	3.0	2,419,883	9.4	38.4	2,128,370	7.5	43.6	2,079,792	11.0	44.6	1,739,481	11.6	53.4	2.3	3.7
2001	956,250	3.0	2,625,923	8.5	36.4	2,300,000	8.1	41.6	2,244,931	7.9	42.6	1,896,301	9.0	50.4	4.1	5.1
2002	989,719	3.5	2,798,752	6.6	35.4	2,460,000	7.0	40.2	2,315,750	3.2	42.7	1,979,695	4.4	50.0	2.8	2.5
2003	1,019,411	3.0	3,022,969	8.0	33.7	2,650,000	7.7	38.5	2,514,045	8.6	40.5	2,200,630	11.2	46.3	3.5	4.0
2004	1,055,090	3.5	3,314,363	9.6	31.8	2,900,000	9.4	36.4	2,737,651	8.9	38.5	2,356,760	7.1	44.8	3.6	4.9
2004 (계측치)	1,103,235	8.2	3,314,363		33.3	2,900,000		38.0	2,737,651		40.3	2,356,760		46.8		
2005	1,136,332	7.7	3,407,009	2.8	33.4	3,050,000	5.2	37.3	2,827,652	3.3	40.2	2,441,491	3.6	46.5	2.8	4.1
2006	1,170,422	3.0	3,592,207	5.4	32.6	3,232,350	6.0	36.2	3,010,331	6.5	38.9	2,584,440	5.9	45.3	2.2	3.1
2007	1,205,535	3.0	3,864,935	7.6	31.2	3,445,830	6.6	35.0	3,160,038	5.0	38.1	2,731,890	5.7	44.1	2.5	3.1
2007 (계측치)	1,232,569	5.3	3,864,935		31.9	3,445,830		35.8	3,160,038		39.0	2,731,890		45.1		
2008	1,265,848	5.0	4,102,283	6.1	30.9	3,638,480	5.6	34.8	3,398,044	7.5	37.3	2,982,148	9.2	42.4	4.7	5.4
2009	1,326,609	4.8	4,048,573	-1.3	32.8	3,604,950	-0.9	36.8	3,385,410	-0.4	39.2	2,903,539	-2.6	45.7	2.8	2.1
2010	1,363,091	2.8	4,260,229	5.2	32.0	3,850,165	6.8	35.4	3,601,418	6.4	37.8	3,269,518	12.6	41.7	3.0	3.4
2007 (계측치)	1,397,488	5.3	4,260,229		32.8	3,850,165		36.3	3,601,418		38.8	3,269,518		42.7		
2011	1,439,413	5.6	4,537,003	6.5	31.7	4,137,148	7.5	34.8	3,794,459	5.4	37.9	3,581,667	9.5	40.2	4.0	4.4
2012	1,495,550	3.9	4,811,965	6.1	31.1	4,391,840	6.2	34.1	3,906,027	2.9	38.3	3,596,793	0.4	41.6	2.2	1.6
2013	1,546,399	3.4														

주: 1) 4인가구 최저생계비

2) 각종지표의 전년대비 상승률

3) 각종지표 대비 최저생계비 비율

〈부표 6-2〉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비율(전가구)

(단위: 원, %)

[illegible]

[부록 7]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 표본추출 및 조사방법

1. 표본설계와 관련된 고려사항

가. 2013년 표본설계의 개요

본 조사는 2013년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전국단위 표본조사로서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 조사와 같은 형태로 표본 조사구를 선정하였다. 모집단 프레임으로 사용된 2010년도 인구주택총조사구수는 약 30만 3천여개 조사구이다.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 조사, 1차 조사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600개 조사구를 지역별 조사구 규모에 따라 추출하였고, 표본가구수는 18,000가구가 되도록 하였으며, 2차 조사 중 생활실태조사는 1차 조사 가구 중에서 소득의 하위 40%이하 약 1,500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장애가구는 1차 조사를 바탕으로 전국 900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노인가구는 395가구, 한부모가구는 205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나. 조사 대상지역

조사대상지역은 각 시도의 섬 지역을 제외한 전국을 포괄하며, 전국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도를 포함하였다. 표본조사구는 전국을 대상지역으로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지만, 실제 조사가능성 및 접근성, 조사비용 및 제한된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각 시도의 도서지역은 조사대상 지역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지역별 통계가 가능하도록 전국을 포괄하도록 하였다.

다. 표본조사구 추출을 위한 기초자료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는 대표적인 가구단위 조사로서 표본가구를 직접 추출하는 것은 표본관리와 조사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매 5년 주기로 수행하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설정한 조사구를 추출단위로 하였다. 조사구의 설정원칙은 지역별 주소지에 따라 약 30가구를 하나의 조사구로 획정하여 이를 가구단위조사의 추출단위(sampling unit)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표본 조사구를 추출하여 해당 조사구 내 가구를 조사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따라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하는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이하 국민생활실태조사)의 추출단위는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구의 90% 조사구 30만 3천여 개를 추출틀로 고려하였다. 『국민생활실태조사』의 조사단위(survey unit)는 개별 가구(household)이므로, 시설조사구(기숙사, 사회복지시설, 관광호텔), 섬조사구 등과 같은 특정한 시설단위 조사구는 추출단위에서 제외하였다.

2. 1차 표본조사구 추출을 위한 표본설계

가. 연구의 전제조건

1) 추출틀(sampling frame)

본 조사의 추출틀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전체 조사구 중 90% 조사구인 30만 3천여 개의 조사구를 추출틀로 하며, 이때 사용한 자료는 조사구 특성(일반조사구, 아파트조사구), 주택유형(단독,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조사구당 가구 수 등으로 구성된 모집단 리스트를 사용하였다.

2) 표본규모

표본의 규모는 예산과 조사기간을 감안하고, 지역별 통계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600개 표본조사구와 약 18,000가구를 표본으로 결정하였다. 이때, 2010년 최저생계

비 계측조사와 같은 방법으로 전체표본규모의 산정방식은 허용오차의 수준에 따라 결정하였다.

3) 조사결과와 추계

조사결과는 서울,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개별적인 추계가 가능하도록 표본설계를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적정수준의 조사구를 배분하고, 지역별 통계를 취합하여 3개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통계를 산출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또한 최저생계비 계측에 필요한 가구규모, 주택유형 등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였다.

나. 연구방법

1) 모집단 분석

현행 표본조사를 위한 주요변수에 대한 이용가능한 모집단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조사로부터 주요변수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3년 최저생계비계측조사의 모집단 프레임으로 활용가능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구 유형에 따른 시도별 가구수(아파트, 일반)를 산정하였다.

2) 표본추출방법

2010년도 『인구주택총조사』 90% 조사구인 30만 3천여 개 조사구 중 600개의 표본조사구를 지역별 조사구 규모에 따라 층화 추출하였으며, 층화의 주요기준변수로는 지역(16), 조사구형태(2), 읍면동(2) 등을 사용하여 층화 확률 비례 추출(stratified 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ampling)하였다.

3) 표본의 보완

『2013년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에서는 2010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모집단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추출틀이 노후화됨으로 인하여 일부 조사구가 재개발 등으로 사고 조사구가 발생한 경우 대체 조사구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다. 표본설계의 개요

1) 표본설계의 기본 방향

첫째,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해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로 독립적인 추계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둘째, 주택유형(일반주택, 아파트)별 통계산출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셋째, 모집단의 층화 절차는 1단계로 16개 광역시 및 도 지역으로 부차집단 또는 층으로 구분되고, 2단계로 조사구형태 - 일반조사구와 아파트조사구 - 로 구분하고, 3단계로 동부·읍면부로 구분하여 층화하여 지역 및 조사구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수 있도록 한다.

표본 추출방법은 각 층(지역)에서 1단계로 지역별 조사구 규모에 따라 확률비례로 표본조사구(집락)를 추출하고, 2단계로 표본조사구 내의 가구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2단계 층화집락확률비례추출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때 PSU(Primary Sampling Unit)는 각 층별 조사구이며, SSU(Secondary Sampling Unit)는 조사구내 가구가 된다.

2) 표본규모의 결정

통계조사 특히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표본조사의 경우에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주어진 예산 하에서 조사 가능한 가장 최적의 표본규모를 결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와 더불어 여러 가지 항목을 조사해야 하는 다목적 조사(multi-purpose survey)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국민생활실태조사』의 경우 주어진 예산 하에서 조사의 실현성을 감안하고,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목표정도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표본규모로 예비조사구를 포함한 600개 조사구, 18,000가구로 설정하였으며, 조사 성공률을 약 90%로 감안하여 16,200가구를 조사완료가구 규모로 설정하였다.

과거의 조사 자료를 근거로 주요 연구변수에 대한 상대오차를 이용하여 새로운 표본

규모를 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간단히 구할 수 있다.

$$n' = n \left(\frac{CV_1}{CV_2} \right)^2$$

여기서 n' 은 새로운 표본규모이며, n 은 기존의 표본규모, CV_1 은 기존의 조사로부터 구한 상대표준오차, CV_2 는 새로운 표본에 대한 목표 오차이다.

이 표본규모 산정식을 이용할 경우에는 동일한 유형의 조사가 이전에 수행되고, 현재 그와 유사한 조사를 수행하고자 할 때 유용한 산정식이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 이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의 표본설계 결과를 활용하여 주요변수의 상대표준오차를 산정하여 적절한 표본규모를 산정하였다. 이때, 목표오차는 조사구 기준으로 지역별 5%에서 10%로 결정하여 지역별 표본조사구를 산정하였고, 가구 수 기준으로 5% 내외가 되도록 표본가구수를 산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지역별 표본규모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크기에 비례하도록 하기 위해 목표정도를 유연하게 관리하였다.

전체적으로 조사구 기준으로 약 2% 정도의 CV로 산정되므로 목표정도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표본조사구의 수가 적은 곳의 CV값이 크게 나타나며, 이러한 현상 때문에 규모가 작은 지역의 CV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표본수를 크게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역에 많은 표본을 할당하는 것은 조사현실상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CV를 통제하되 어느 정도까지는 유연하게 허용하는 방법으로 광주, 대전, 강원, 제주 지역에 대해서는 CV를 어느 정도 유연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표본규모를 산정하였다.

또한 가구 수 기준으로 보면, 지역별 가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지역인 서울, 부산, 경기, 경북 지역은 목표정도에 대한 관리가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되며, 앞서와 마찬가지로 광주, 대전, 강원, 제주지역에 대해서는 유연한 정도관리가 필요하였다.

〈부표 7-1〉 시도별 목표정도

(단위 : 개, %)

시도	2010년 표본설계				2013년 표본설계			
	조사구수	CV	가구수	CV	조사구수	CV	가구수	CV
전국	550	1.82	22,000	0.78	600	1.74	24,000	0.74
서울	68	3.92	2,720	1.74	73	3.79	2960	1.68
부산	42	4.46	1,680	1.91	43	4.40	1800	1.89
대구	33	6.85	1,320	2.93	36	6.56	1480	2.80
인천	34	3.74	1,360	1.62	36	3.64	1480	1.58
광주	26	7.17	1,040	2.90	28	6.91	1120	2.80
대전	26	8.56	1,040	3.62	28	8.24	1120	3.49
울산	22	4.20	880	1.91	24	4.02	960	1.83
경기	68	4.92	2,720	2.15	76	4.65	2960	2.04
강원	26	8.00	1,040	3.36	30	7.44	1160	3.12
충북	27	5.81	1,080	2.46	30	5.52	1160	2.33
충남	30	6.96	1,200	2.73	34	6.54	1320	2.57
전북	29	6.31	1,160	2.56	32	6.01	1280	2.44
전남	30	5.65	1,200	2.40	32	5.47	1280	2.33
경북	35	4.46	1,400	1.90	40	4.18	1560	1.78
경남	39	5.20	1,560	2.24	42	5.01	1680	2.16
제주	15	6.00	600	2.45	17	5.64	680	2.30

라. 표본의 추출

1) 모집단

모집단이란 통계학에서는 조사대상 전체 집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통계 측면에서 모집단은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하나는 추상적인 개념의 모집단인 목표 모집단(target population)으로서 이는 조사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단위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층 조사의 목표 모집단은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가 된다. 이러한 목표 모집단은 추정의 대상이 되는 집단으로 표본설계에서 반드시 정의해야 할 모집단이기도 하다.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개념의 모집단으로 조사 모집단(survey population)으로 목표 모집단을 구성하는 단위들 중 조사가 가능한 또

는 표본설계과정에서 조사목적에 부합하도록 새로이 정의한 모집단을 의미한다. 주로 조사모집단은 표본추출의 준거가 되는 프레임이 되기도 한다.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 조사의 조사모집단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이며, 이중 시설 조사와 섬 지역 조사구는 제외된다. 통상적으로 모집단이라 하면 조사모집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전국의 조사구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의 <부표 7-2>와 같다.

지역별로 섬,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등의 조사구를 제외한 조사구 형태별 동부 읍면 부별 조사구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은 60,927개 조사구로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지역은 66,581개조사구로 22%를 차지하고, 광역시 지역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지역은 총 76,654개 조사구로 전체의 25.3%이고, 나머지 도지역이 54%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수 기준으로 지역별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지역은 각각 20%와 22%이고, 광역시지역은 26%, 나머지지역이 54%로 나타나 지역별 조사구분포와 같은 비율로서 조사구 기준으로 표본가구를 배분하는데 별 무리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부표 7-2> 시도별 모집단 조사구및 가구 규모

(단위 : 개)

시 도	조사구수	가구수	시 도	조사구수	가구수
계	303,248	17,457,466			
서 울	60,927	3,574,985	강 원	10,179	517,549
부 산	21,776	1,249,819	충 북	10,059	563,969
대 구	15,211	873,557	충 남	13,560	751,881
인 천	15,176	920,471	전 북	11,811	661,787
광 주	9,011	518,313	전 남	11,615	641,290
대 전	8,955	540,947	경 북	18,248	1,013,197
울 산	6,525	377,667	경 남	20,337	1,160,162
경 기	66,581	3,905,377	제 주	3,277	186,495

자료 :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

〈부표 7-3〉 모집단 조사구 규모(동부, 읍면부별)

(단위 : 개)

구분	전체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계	일반	아파트	계	일반	아파트
전국	303,248	169,276	133,972	243,346	126,107	117,239	59,902	43,169	16,733
서울	60,927	37,779	23,148	60,927	37,779	23,148	-	-	-
부산	21,776	11,823	9,953	21,194	11,564	9,630	582	259	323
대구	15,211	7,926	7,285	14,242	7,544	6,698	969	382	587
인천	15,176	7,513	7,663	14,978	7,348	7,630	198	165	33
광주	9,011	3,653	5,358	9,011	3,653	5,358	-	-	-
대전	8,955	4,301	4,654	8,955	4,301	4,654	-	-	-
울산	6,525	3,235	3,290	5,394	2,694	2,700	1,131	541	590
경기	66,581	32,224	34,357	54,779	25,451	29,328	11,802	6,773	5,029
강원	10,179	5,955	4,224	6,117	2,816	3,301	4,062	3,139	923
충북	10,059	5,783	4,276	5,927	2,754	3,173	4,132	3,029	1,103
충남	13,560	8,228	5,332	4,986	2,082	2,904	8,574	6,146	2,428
전북	11,811	6,749	5,062	7,865	3,267	4,598	3,946	3,482	464
전남	11,615	7,649	3,966	4,932	2,006	2,926	6,683	5,643	1,040
경북	18,248	12,140	6,108	9,183	4,864	4,319	9,065	7,276	1,789
경남	20,337	11,666	8,671	12,475	6,193	6,282	7,862	5,473	2,389
제주	3,277	2,652	625	2,381	1,791	590	896	861	35

자료 :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

2) 총화

표본설계 당시 2010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원자료에서 총화기준으로 고려할 만한 변수들로는 지역, 조사구 유형 등으로 600개 조사구의 기초 자료를 집계하여 지역별, 조사구 유형별, 읍면동별로 분류하여 분포를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지역별 조사구 비율에 따라 표본조사구를 배분하고, 지역별 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부표 7-4〉로부터 서울은 동부로 73개 조사구를 표본으로 선정하였고, 부산은 동부에 42개와 읍면부에서 1개 조사구를 표본으로 선정하고, 인천 지역의 경우에는 동부에서는 36개 조사구가 할당되도록 하였다. 울산지역 또한 동부에는 20개 조사구 읍면부 지역에는 4개 조사구를 배정하였다. 대체로 광역시 지역에 속한 읍면부 지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7개 표본 조사구를 배분하였다.

〈부표 7-4〉 지역별 표본조사구 배분현황

(단위: 개)

구분	계			동 부			읍면 부		
	합계	일반	아파트	합계	일반	아파트	합계	일반	아파트
전국	600	337	263	463	236	228	137	102	36
서울	73	45	28	73	45	28	0	0	0
부산	43	23	20	42	23	19	1	0	1
대구	36	19	17	34	18	16	2	1	1
인천	36	18	18	36	18	18	0	0	0
광주	28	11	17	28	11	17	0	0	0
대전	28	13	14	28	13	14	0	0	0
울산	24	12	12	20	10	10	4	2	2
경기	76	37	38	62	29	33	13	8	5
강원	30	17	12	18	8	10	12	9	3
충북	30	17	13	17	8	9	12	9	3
충남	34	21	13	13	5	7	22	16	6
전북	32	18	14	21	9	12	11	9	2
전남	32	21	11	13	5	8	18	15	3
경북	40	26	13	20	11	9	20	16	4
경남	42	24	18	26	13	13	16	11	5
제주	17	14	3	12	9	3	5	5	0

(주 : 소수점 자리로 인해 4개 조사구가 더 추출됨)

3) 조사구 추출

표본조사구의 선정은 먼저 특·광역시 및 도지역을 구분하고, 지역별로 동부와 읍면 부를 구분한 후 조사구형태(일반, 아파트)를 구분하여 조사구당 가구수의 크기에 비례 하도록 확률비례표본추출방법을 적용하였다. 즉,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조사구의 추출 확률을 크게 고려함으로써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확률비례 추출을 고려 하게 되면 서로 다른 크기를 갖는 조사구에 대해 비례배분하게 됨으로 자체가중 설계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조사현장에서는 자체가중 설계 효과를 살릴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즉, 조사구 내 조사가구의 무 응답과 그에 따른 조사가구의 대체 문제 등 때문이다. 따라서 추정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고려한 가중치 조정이 요구된다. 표본조사구 내의 조사가구 수는 조사구당 30개 가구로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여 조사원들 간의 업무량을 일정하게 배분하였다.

4) 표본가구 선정

(1) 조사구 요도 및 가구명부의 작성 보완

표본으로 추출된 조사구에 대해 2010년도 『인구주택총조사』 당시의 조사구 요도와 가구명부에 대해 조사원 교육과정에서 연구진과 조사원들 간 회의, 조사과정에서 조사원들의 현지 확인과정을 통해 조사구 경계 및 가구명부 등을 수정, 보완하였다. 조사구 확인과정에서 조사구당 30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조사구 입구로부터 시작하여 30번째 가구까지 요도 경계를 설정하였고, 30가구 이하인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구 전체를 하나의 조사구로 경계를 설정하였다. 조사현장에서 조사구 요도와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 회의를 통해 이를 수정, 보완하였다. 시기적으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가 종료된 직후에 조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극히 일부 조사구를 제외하고는 갱신이 필요한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2) 표본가구의 선정

각 조사구별로 평균 60가구 중에서 조사원의 업무 할당을 고려하여 일률적으로 30가구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표본가구의 선정은 조사구 입구로부터 출발하여 가구번호와 거처번호의 순서대로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조사 불능 가구 또는 조사대상 제외가구가 발생할 경우 가구명부의 순서에서 바로 다음 가구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조사구의 크기가 30가구 이하가 되는 조사구는 조사구 내의 모든 가구를 조사하고, 조사 불능이나 제외가구의 발생으로 30가구 이하가 되는 조사구에서는 조사가능 가구만을 표본으로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조사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비조사구를 추출하여 조사가 완료되도록 하였다.

마. 가중치 조정 및 추정

1) 가중치 조정

층별의 모집단 규모에 따른 비례 배분인 경우 자체가중치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모집단 분포와 표본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최종 조사단위에 대한 가중치 조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가중치를 부여한 통계값을 산출함으로서 편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먼저 가중치 및 통계값 산출에 필요한 기호를 정의하자.

N	: 모집단 총 조사구수($=\sum_{h=1}^H N_h$)
N_h	: h 층의 모집단 조사구수
n_h	: h 층의 표본조사구 수
M_{hi}	: h 층의 i 번째 조사구의 총 가구수
m_{hi}	: h 층의 i 번째 조사구내 표본 가구수(=50)
p_{hij}	: h 층의 i 번째 표본 조사구의 j 번째 가구의 추출확률
r_{hi}	: h 층의 i 번째 조사구의 응답가구수
w_{hij}	: h 층의 i 번째 조사구의 j 번째 가구의 가중치
w_{hi}^r	: h 층의 i 번째 조사구의 무응답조정가중치
w_{hij}^p	: h 층의 i 번째 조사구의 j 번째 가구의 사후가중치
W_{hij}	: h 층의 i 번째 조사구의 j 번째 가구의 최종가중치
y_{hij}	: h 층의 i 번째 조사구의 j 번째 가구의 관찰값

① h 층의 j 번째 조사구의 i 번째 가구의 추출확률 계산

$$p_{hij} = \frac{n_h}{N_h} \times \frac{m_{hi}}{M_{hi}} \quad (1)$$

② 가중치는 추출확률의 역수이므로 식(1)로 부터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계산할수 있다. 이때 표본조사구내 표본가구수는 조사구별로 동일하게 30가구씩 조사함으로 $m_{hi} = 30$ 을 대입하여 구한다.

$$w_{hij} = \frac{1}{p_{hij}} = \frac{N_h}{n_h m_{hi}} \times M_{hi} = \frac{N_h}{30 n_h} \times M_{hi} \quad (2)$$

③ 무응답 조정가중치

$$w_{hi}^r = \frac{m_{hi}}{r_{hi}} \quad (3)$$

④ 최종 가중치

$$W_{hij} = w_{hij} \times w_{hi}^r \times w_{hij}^p \quad (4)$$

2) 추정치의 계산

○ 평균 소득 및 지출

$$\hat{\bar{Y}} = \sum_h^L \sum_i^{n_h} \sum_j^{m_{hi}} W_{hij} y_{hij} / W_{...} \quad (5)$$

여기서 $W_{...} = \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이며, h 는 층을 나타내는 첨자로서 지역과 동부, 읍면부를 나타낸다. i 는 표본 가구를 나타내는 첨자로서 $i = 1, 2, \dots, n_h$ 이다.

○ 표본평균 $\hat{\bar{Y}}$ 의 분산 추정치 및 표준오차

$$\hat{V}(\hat{\bar{Y}}) = \sum_{h=1}^L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 - \bar{e}_{h..})^2 \quad (6)$$

여기서 $e_{hi} = \left(\sum_{j=1}^{m_{hi}} W_{hij} (y_{hij} - \hat{\bar{Y}}) \right) / W_{...}$, $\bar{e}_{h..} = \sum_{i=1}^{n_h} e_{hi} / n_h$ 이다.

$$SE(\hat{\bar{Y}}) = \sqrt{\hat{V}(\hat{\bar{Y}})}$$

○ 상대표준오차

$$\widehat{CV}(\hat{\bar{Y}}) = \frac{SE(\hat{\bar{Y}})}{\hat{\bar{Y}}} \times 100\% \quad (7)$$

3. 2차 조사대상가구의 추출

『2011년 국민생활실태조사』의 2차 생활실태조사 및 가구유형별 조사대상 가구는 2010년과 마찬가지로 1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가구의 월평균 소득(경상소득기준)

40%이하 가구 중에서 가구규모별(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이상)로 각각 2,078가구와 1,500가구를 표본추출하였다.

조사대상 가구의 선정 절차는 표본가구의 가구원수를 기준(가구규모)으로 구분한 후 해당 가구규모별로 월평균 소득기준 40%이하 가구를 표본추출 대상가구로 선정하였다. 이와 같이 가구규모별로 구분한 이유는 전 가구 중에서 소득 하위 4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할 경우 대부분 1인, 2인 가구가 표본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부표 7-5〉 기존의 최저생계비 연구의 2차 표본 현황

연 도	추출기준	표본수
1988년 최저생계비 조사	소득하위 30% 이하	950가구
1994년 최저생계비 조사	소득하위 10~40%	600가구
1999년 최저생계비 조사	소득하위 40% 이하	1,500가구
2004년 최저생계비 조사	소득하위 40% 이하	2,000가구
2007년 최저생계비 조사	소득하위 40% 이하	1,500가구
2010년 최저생계비 조사	소득하위 40% 이하	1,500가구
2013년 최저생계비 조사	소득하위 40% 이하	1,500가구

조사대상 가구명부를 작성하기 위해 먼저 지역별로 정렬하고, 조사관리상 일정가구수 이하인 조사구를 제외하였다. 이와 같이 작성된 표본대상 가구명부를 이용하여 도시유형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로 구분하여 단순임의계통추출에 의해 1,500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였고, 이중 조사완료된 표본가구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부표 7-6〉참조).

〈부표 7-6〉 2차 생활실태조사를 위한 지역별, 가구유형 표본가구 분포

(단위 : 가구)

지역	일반주택	아파트	총계
대도시	244	232	476
중소도시	155	219	374
농어촌	94	90	184
총계	493	541	1,034

다음으로 『2011년 국민생활실태조사』의 2차 노인, 한부모, 장애인 등 가구유형별 조사는 생활실태조사와 조사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추출방법으로 표본가구를 선정하였다.

노인가구의 경우 1차 조사 결과 가구 내 1인 이상의 노인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노인가구 표본을 선정하였으며, 노인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국적인 분포를 고려하여 노인가구를 선정하였으나, 장애인 가구를 먼저 선정하는 관계로 지역적으로 편향된 표본이 선정되었다. 노인가구 표본선정 과정은 먼저 경상소득기준 하위 40%이하 가구 중에서 노인이 1인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지역별로 정렬(제주도 제외)한 후 336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지역별 구분에서 제주도를 제외한 이유는 조사비용을 고려할 경우 조사효율성을 감안하였다(〈부표 7-7〉 참조).

〈부표 7-7〉 2차 조사를 위한 지역별, 가구규모별 표본 노인가구 분포¹³⁸⁾

(단위 : 가구)

지역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합 계
광 주	7	9	0	2	1	2	21
충 남	6	9	1	0	0	0	16
전 북	36	25	0	0	1	0	62
전 남	27	21	0	1	0	0	49
경 북	77	55	3	0	1	0	136
경 남	23	26	1	1	1	0	52
합 계	176	145	5	4	4	2	336

한편, 한부모 가구의 경우 1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구유형이 한부모 가구인 경우를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하였다. 표본추출과정은 먼저 지역별(제주도 제외)로 정렬한 후 단순임의계통추출에 의해 187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였다(〈부표 7-8〉 참조).

138) 노인가구의 표본추출은 먼저 장애인을 추출한 다음 노인표본대상자를 추출하여 지역별로 편향되어 표본이 추출되었다.

〈부표 7-8〉 2차 조사를 위한 지역별, 가구규모별 표본 한부모 가구 분포

(단위 : 가구)

지역 \ 가구규모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합 계
서울	14	10	1	0	25
부산	9	4	1	1	15
대구	13	8	1	0	22
인천	4	7	0	0	11
광주	5	7	1	0	13
대전	4	7	0	1	12
대전	3	5	1	0	9
울산	16	8	2	0	26
경기	4	2	0	0	6
충북	3	1	1	0	5
충남	6	2	0	1	9
전북	3	5	0	0	8
전남	4	5	0	1	10
경북	3	3	1	0	7
경남	3	6	0	0	9
합 계	94	80	9	4	187

〈부표 7-9〉 2차 조사를 위한 지역별, 가구규모별 표본 장애인가구 분포

(단위 : 가구)

지역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이상 가구	합 계
서울	17	33	12	6	0	0	0	68
부산	19	22	6	2	2	0	0	51
대구	9	21	7	5	2	1	0	45
인천	8	15	5	7	2	1	0	38
광주	14	19	7	2	2	1	0	45
대전	15	18	3	1	0	1	0	38
울산	2	7	2	2	2	0	0	15
경기	10	28	7	5	5	1	1	57
강원	13	43	15	6	2	1	0	80
충북	10	26	7	0	2	0	0	45
충남	12	31	9	3	1	1	0	57
전북	19	32	4	0	0	1	1	57
전남	18	38	13	2	0	0	0	71
경북	20	22	8	3	3	0	0	56
경남	18	43	11	2	6	0	0	80
합 계	204	398	116	46	29	8	2	803

장애인 가구는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으로 구분할 경우 매우 많은 셀로 구성되고, 특히 심신장애, 간질장애, 안면장애의 경우 전국적으로 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표본대상 가구를 선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지만 가능한 확률표본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1

차 표본조사자료로부터 지역별로 정렬하여 803가구를 단순임의계통추출에 의해 표본을 선정하였다(〈부표 7-9〉 참조).

4. 조사방법 및 내용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의 조사체계는 전체적으로 1차 조사(기초조사)와 2차 조사로 구성되는데, 생활실태조사, 가격조사, 가구유형별 조사(장애인, 노인, 한부모)로 이루어졌다.

가. 1차 조사(기초조사)

1차 조사는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예비조사의 성격이 강한 조사이다. 통계적 관점에서 조사에 이용할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조사비용을 감안하여 낮은 비용을 들여 대규모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자료를 이용하여 보다 심층적인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표본조사 방법이다. 따라서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의 1차 조사는 가구규모별, 가구유형별, 지역별로 보다 심층적인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1차 조사의 목적은 2차 생활실태조사, 가구유형별 조사를 위한 표본가구를 추출하고, 박탈지표에 의한 상대적 최저생계비 산출과, 주관적 최저생계비, 내구재 보유현황 및 필수품인식 등을 파악하는 기초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은 전국을 대상으로 층화 2단계 집락 추출된 약 18,000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내용은 가구구성 및 가구원특성 등의 가구일반현황, 비목별 지출 및 소득, 자산, 주관적 최저생계비 등 생활실태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조사방법은 조사지도원(슈퍼바이저) 1인과 조사원 3인을 1개 팀으로 구성하여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지도원이 조사내용을 현장에서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보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3년 1월 22일 ~ 4월 10일까지 약 3개월간 실시되었으며, 목표 표본 가구수 18,000가구 중에서 16,500가구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여 약 92%의 조사 완료율을 보였다.

나. 2차 조사

1) 생활실태조사

생활실태조사는 의료이용실태 등 가계부상에 나타나지 않는 품목에 대한 소비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1차 기초 조사의 경우 2012년 1년간 가계의 소비실태를 세부적으로 모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특히 조사표상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생활실태가 존재한다. 따라서 기초조사의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생활실태조사는 조사대상 가구의 기준소득 이하(경상소득 40%이하)가구에 대해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방식을 통해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내용은 비목별로 잘 나타나지 않는 생활실태 내용에 대해 조사하였고, 표본으로 선정한 2,351가구 중 생활실태조사를 완료한 가구는 1,013가구로 나타났다.

2) 가격조사

최저주거면적에 해당하는 집의 자가, 전세, 월세 가격 등 통계청 등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가격이 없거나, 가격이 잘 나타나지 않는 품목에 대한 가격파악을 위해 가격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2차 조사를 실시하는 지역의 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2012년 10월 1개월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통계청 등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가격이 없거나, 조사표상에 가격이 잘 나타나지 않는 품목으로 구성된 조사표를 가지고 조사원이 직접 현지 시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3) 서비스 대상(장애인, 노인, 한부모) 조사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기 위해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구의 추가 지출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서비스대상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장애유형 및 등급별 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한부모 가구 등 표본추출된

1,500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협조 하에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방식에 의해 조사하였다.

조사는 2013년 4월 1일 ~ 2013년 6월 18일 까지 실시되었으며, 총 표본수 1,500 가구 중에서 장애인가구는 803가구, 노인가구는 336가구, 한부모가구는 187가구를 완료하였다.

[부록 8]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표



승인번호
제 33104 호

201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
밀이 보장됩니다

작성기관: 보건복지부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국민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택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2년 8월

<문의 및 연락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요도 및 조사지역 관련, 조사수행 관련: 380-8152, 380-8337

조사표 등 조사내용 관련: 380-8304, 380-8273, 380-8159, 380-8317, 380-8261)

조사표 번호	가구 ID	조사구 ID				거처번호	가구번호
		지역코드		조사구번호	구역		
1					-		

주소	____ 시도 ____ 구·시·군 ____ 동·읍·면 ____ 통·리 ____ 번지 ____ 호 (____ 아파트 ____ 동 ____ 층 ____ 호)
----	---

가구주 성명	응답자 1				응답자 2			
	성명		가구원 번호		성명		가구원 번호	
	휴대폰				휴대폰			

심층조사 실시여부					① 실시	② 미실시
-----------	--	--	--	--	------	-------

조사원 이름		지도원 확인	① 완료 ② 미완	※ 미완사유:	지도원	(인)
--------	--	--------	-----------	---------	-----	-----

※ 2011년에 신규로 생성된 가구의 경우 4월 1일 이후에 생성된 가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보 건 복 지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본 조사는 지난 1년간(2011년 1월~2011년 12월) 귀 가구의 가구일반사항 및 경제상황 등을 파악하고자 하는 조사입니다.

I. 가구일반사항(※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2011. 12. 31.을 기준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 수 (※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가장, 학생, 기타의 이유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가족도 포함)										명	
순번	문 2) 가구주와의 관계	문 3) 성별	문 4) 태어난 연도	문 5) 교육수준	문 6) 장애종류 및 등급	문 7) 혼인상태	문 8) 동거여부	문 9) 경제활동 참여상태	문 10) 만성질환		
1	① 가구주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손자녀 ⑧ 손자녀의 배우자 ⑨ 조부모 ⑩ 배우자의 조부모 ⑪ 형제자매 ⑫ 배우자의 형제자매 ⑬ 형제자매의 배우자 ⑭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⑮ 기타친인척 ⑯ 인척관계가 아닌 동거인	① 남 ② 여	주민등록상 생년(주4)	① 미취학 (만7세미만) ② 무학 (만7세이상) ③ 초등학교 ④ 중학교 ⑤ 고등학교 ⑥ 전문대학 ⑦ 대학교 ⑧ 대학원(석사) ⑨ 대학원(박사)	① 비장애 ② 지적장애 ③ 시각장애 ④ 청각장애 ⑤ 언어장애 ⑥ 정신장애 ⑦ 발달장애 ⑧ 신장장애 ⑨ 심장장애 ⑩ 호흡기장애 ⑪ 관절장애 ⑫ 인공관절 ⑬ 장루·요루장애 ⑭ 간질장애 ⑮ 비동맥성아인(보통장애) 장애인포함	① 비혼당 (만17세이하) ① 유배우 ② 별거 ③ 사별 ④ 이혼 ⑤ 미혼 (만18세이상미혼 부도포함)	① 동거 ② 다른 건물 근무(국내) ③ 해외 근무 ④ 해외(국내) ⑤ 학업(해외의 유학) ⑥ 자녀 학업(친 해외거주) ⑦ 입원 ⑧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 ⑨ 다른 곳에 말려진 미취학 자녀 ⑩ 기타 ※ 국가자금을 정하지 않은 행 동 일시적인 비동거자 는 중거로 구분	① 비취업(만14세이하)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③ 영농직 임금근로자 (자영업으로 농근로로 노 인입력외 포함) ④ 고용주 ⑤ 자영업자 ⑥ 농업가족종사자 ⑦ 성업자(11.12.31 기준) ⑧ 퇴직자(11.12.31 기준) ⑨ 전업주부(전업일을 하 지 않고 주거활동 중) ⑩ 비경제활동인구	(※ 특별 때문에 저소득자인 특약이 필요하나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기간은 최초 특별 및 특약자로부터 신청한다) ① 비혼당 ② 3개월 미만 ③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④ 6개월 이상 ⑤ 6개월 이상 ⑥ 6개월 이상 ⑦ 6개월 이상 ⑧ 6개월 이상 ⑨ 6개월 이상 ⑩ 6개월 이상		
2											
3											
4											
5											
6											
7											
8											
9											

문 11) 가구 형태	① 단독 ② 모자이크와 만 18세미만 자녀, 단 취학후(취학시 만 22세 미만) ③ 부자녀와 만 18세미만 자녀, 단 취학후(취학시 만 22세 미만) ④ 조손가구 및 조손노년가정 ⑤ 기타	문 12) 기초소득 수급형태	문 12(1) 기초소득 수급형태	문 12(2) 기초소득 수급형태	문 13) 의료급여 수급형태	문 13(1) 의료급여 수급형태	문 13(2) 의료급여 수급형태	문 14) 노인 가구원 유형	① 만 65세 이상 노인 있음 (19% 12.31 기준 출생자) ② 없음
	문 13) 의료급여 수급형태	문 13(1) 의료급여 수급형태	문 13(2) 의료급여 수급형태	문 13) 의료급여 수급형태	문 13(1) 의료급여 수급형태	문 13(2) 의료급여 수급형태	문 13) 의료급여 수급형태	문 13(1) 의료급여 수급형태	문 13(2) 의료급여 수급형태

II. 생활비

<p>〈 유의사항 〉</p> <p>※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생계를 같이 한 가구원 모두의 지출을 포함합니다.</p> <p>※ 생활비 : 가정생활을 위한 비용만 기입합니다. 따라서 사업용도의 비용은 제외합니다.</p> <p>※ 친인척, 이웃,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보조받는 각종 현물(장학금, 의료비, 각종 공과금 대납, 식료품, 의류, 난방용품 등)도 현금으로 환산하여 해당 비목의 생활비에 포함하여 주십시오.</p> <p>※ 할부 구매의 경우 구입시점기준이며, 그 품목의 가격÷12를 기입합니다. 예) 2011년 12월에 1,200만원짜리 자동차를 24개월 할부(월 50만원)로 구매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차의 총가격을 12개월로 나눈 금액(100만원) 기입합니다. 따라서 2011년 1월 이전에 할부로 구입한 후 2011년에 매달 월 50만원씩 할부금을 내는 경우는 지출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p> <p>※ 없음은 반드시 '0' 표시, 지출 소득의 경우 이하 동일</p> <p>※ 천원 단위 이하의 소수점으로 표시(예. 5천원 → 0.5), 단 1만원 이상은 반올림하여 만원단위로 처리. 예) 11만5천원의 경우 12만원으로 기입</p>									
문 1)	식료품비	문 1-1) 가정식비	<p>지난 1년(2011.1.1~2011.12.31) 동안 월평균 가정식비는?</p> <p>※ 가정에서 먹는 주식, 부식, 간식비용, 음주비용, 제사비용</p> <p>※ 자가소비(자기가 농사를 지어 먹는 것, 자기가 운영하는(혹은 고용된)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 등) 포함</p>	월평균					만원
		문 1-2) 외식비	<p>지난 1년(2011.1.1~2011.12.31) 동안 월평균 외식비는?</p> <p>※ 직장인의 중식비(무료 중식비 포함), 가족 및 가구원 외식비, 학교 급식비, 밖에서 먹는 술(음주) 비용, 복지관에서의 무료식사 등</p>	월평균					만원
문 2)	주거비(주택구입비 제외)	문 2-1) 월세	<p>지난 1년(2011.1.1~2011.12.31) 동안 월평균 월세(사글세 포함)는?</p> <p>※ 돈이 없어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어도 '계약한 월세액'을 기입</p> <p>※ 전세, 자가인 경우 '0' (단, 자가이나 지대를 내는 경우 월평균 지대액을 기입)</p> <p>※ 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은 제외하고 월세만 기입</p> <p>※ 지난 1년 동안 점유형태가 변화된 경우 월세로 산 기간 동안의 월세액을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기입(예. 6개월 동안 월 20만원 낸 경우 월평균 10만원 기입)</p>	월평균					만원
		문 2-2) 주거관리비	<p>지난 1년(2011.1.1~2011.12.31) 동안 월평균 주거 관리비 및 수선비는?</p> <p>※ 주택설비 및 수선비, 아파트 등 관리비, 이사비, 복비, 정화조비 등</p>	월평균					만원
문 3)	광 열 수 도 비		<p>지난 1년(2011.1.1~2011.12.31) 동안 월평균 광열수도비는?</p> <p>※ 수도비, 전기료, 난방비(연탄, 등유, 경유, 도시가스, LPG 등)</p>	월평균					만원
문 4)	가 구 집 기 가 사 용 품 비		<p>지난 1년(2011.1.1~2011.12.31) 동안 월평균 가구집가사용품비는?</p> <p>※ 가구, 가정용기기(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등), 식기주방용품, 가사잡화 및 소모품(조명기기, 화장지, 전구, 공구, 세탁청소용품 등), 집구 및 실내장식품, 가사서비스 비용(파출부비, 청소비 등), 기지귀없, 정수기 대여료, 치료목적이 아닌 바우처(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인) 등</p> <p>※ 보육료(베이비시터, 놀이방) 포함(단, 유치원은 제외)</p>	월평균					만원
문 5)	피 복 신 발 비		<p>지난 1년(2011.1.1~2011.12.31) 동안 월평균 피복신발비는?</p> <p>※ 의의, 내의, 학생복(교복), 구두, 운동화, 모자 등 구입비 및 수선비, 세탁료 등</p>	월평균					만원
문 6)	보 건 의 료 비		<p>지난 1년(2011.1.1~2011.12.31) 동안 월평균 보건의료비는?</p> <p>※ 입원비, 외래진료비, 치과진료비, 수술비(임플란트, 성형수술 등도 포함), 약값, 간병비, 산후조리비, 건강진단비, 건강보조식품, 보건의료용품(안경, 콘택트렌즈 등), 보청기, 치료용바우처 장기요양서비스비용 등. 보건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만 기입</p>	월평균					만원
		6-1) 부족했던 보건의료비	<p>지난 1년(2011.1.1~2011.12.31) 동안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치료받지 못한 경우, 월평균 얼마 정도 있었으면 치료가능하였습니까?</p> <p>※ 지난 1년간 총부족액 ÷ 12, 예를 들면, 수술받지 못한 경우 수술비가 1200만원이었다면 월평균부족액은 100만원임(틀니, 보장구입비, 브릿지시술 포함)</p>	월평균					만원
문 7)	교육비	문 7-1) 공교육비	<p>지난 1년(2011.1.1~2011.12.31) 동안 월평균 공교육비는?</p> <p>※ 등록금, 납입금, 교재비, 문방구비, 소중수업비, 야외학습비, 수학여행비 유학비(초, 중, 고, 대, 대학원) 등</p>	월평균					만원
		문 7-2) 사교육비	<p>지난 1년(2011.1.1~2011.12.31) 동안 월평균 사교육비는?</p> <p>※ 학원비, 유치원비, 도서관 및 독서실 비용, 과외수업비, 어학연수비, 검정고시비 등</p>	월평균					만원
문 8)	교 양 오 락 비		<p>지난 1년(2011.1.1~2011.12.31) 동안 월평균 교양오락비는?</p> <p>※ 신문, 서적, 잡지, 영화 및 공연관람, 교양오락용품 구입비(TV, PC, 오디오, 유선방송, 피아노, 장난감, 등산용품, 낚시대, 골프채 등), 교양오락 서비스(PC방, 노래방, 운동강습료, 어학학습비, 단체관광비 등), 비디오(DVD) 대여료, 애견(강아지) 구입비, 화분 구입비, TV수신료 등</p>	월평균					만원
문 9)	교 통 비		<p>지난 1년(2011.1.1~2011.12.31) 동안 월평균 교통비는?</p> <p>※ 택시·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비, 자동차 구입 및 유지비, 자동차 보험료, 대리운전비, 주차료 등</p>	월평균					만원
문 10)	통 신 비		<p>지난 1년(2011.1.1~2011.12.31) 동안 월평균 통신비는?</p> <p>※ 전화 유대폰 구입 및 이용요금, 인터넷 이용료 등</p>	월평균					만원

문 11)	기타소비지출		지난 1년(2011.1.1~2011.12.31) 동안 월평균 기타소비지출은? ※ 담배, 이미용용품 구입 및 서비스(화장품, 비누, 샴푸, 이미용실, 목욕로 등), 장신구(핸드백, 시계, 귀금속 등), 경조비, 교제비용, 친목회비, 종교관련(십일조 등) 비용, 보장성보험료(저축성보험 제외), 판문상비 , 각종 법칙금, 용돈 등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12)	사적 이전	문 12-1) 비동거가구원	지난 1년(2011.1.1~2011.12.31) 동안 따로 사는 가구원 (타지에서 공부하는 학생,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사는 배우자 등) 에게 보낸 월평균 송금보조금은? ※ 현물 포함 ※ 자취비용, 생활잡비, 용돈 등(단, 등록금 등 교육비는 7.교육비에 기입)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12-2) 기타	지난 1년(2011.1.1~2011.12.31) 동안 가구원이 아닌 부모, 자녀, 친지 등에게 보낸 월평균 송금보조금은? ※ 농사지어서 친인척에서 보낸 것(현금으로 환산) 포함 ※ 자녀의 결혼 등으로 집을 사준 경우(전세자금 포함)는 증여로 보아 제외함 ※ 본인 명의가 아닌 부채에 대한 이자(예컨대, 아들 명의의 집에 대한 이자 내는 경우) 포함	부모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자녀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기타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13)	세금		지난 1년(2011.1.1~2011.12.31) 동안 월평균 세금은? ※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갑근세, 재산세, 자동차세, 환경개선분담금, 주민세, 취득등록세 등의 연간 총납세액을 12로 나눈 값(단, 법인세 등 사업용도의 세금은 제외함, 2010년 소득공제 환급시 더 낸 세금 포함) ※ 본인 명의가 아닌 재산에 대해 내는 세금도 포함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14)	사회보장부담금		지난 1년(2011.1.1~2011.12.31) 동안 월평균 사회보장부담금은? ※ 가족 모두의 국민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월 합산액 ※ 본인부담의 보험료만 포함(사업장이나 제3자가 부담해주는 보험료는 제외) ※ 사보혐료(암보험, 보장성보험 등) 제외 ※ 돈이 없어서 내지 못하고 있는 사회보험료도 포함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15)	총 생활비		지난 1년(2011.1.1~2011.12.31) 동안 지출하신 총 생활비는? ※ 총생활비 = 문1~14의 합계 (단, 문 6-1 부족했던 보건의료비 제외) ※ 저금, 저축성보험료, 계 부은 금액 등 재산 증가를 위한 지출과 주택부금상환, 월부, 외상 밀린 돈(이자 포함) 같은 금액 등 부채 감소를 위한 지출은 제외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 없음은 반드시 '0' 표시. 지출 소득의 경우 이하 동일

※ 천원 단위 이하는 소수점으로 표시(예. 5천원 → 0.5). 단 1만원 이상은 반올림하여 만원단위로 처리. 예) 11만5천원의 경우 12만원으로 기입

※ 지난 1년(2011.1.1~2011.12.31) 동안 월평균 기준 ※ 생활비에는 '현금으로 지출되는 비용 + 자가소비액 + 현물로 지원받아 생활하는 금액' 등이 포함됨.		금액					
문 16)	귀 가구가 1달 동안 '근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비는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17)	귀 가구가 1달 동안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비는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18)	귀 가구가 1달 동안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는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19)	4인가구 최저생계비에 대한 주관적 인식	지난 1년(2011.1.1~2011.12.31) 동안 귀 가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부부와 초·중·고학생인 두 자녀로 구성된 4인가구가 근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는 얼마정도라고 생각합니까? ※ 사글세의 경우 임차료(집주인에게 미리 지불한 목돈)에서 사글세로 산 기간 동안 지불된 금액을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생활비를 고려할 것	자기(전세)가구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월세(사글세)가구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20)	평균 소득과 최저생계비 비율	우리나라의 4인가구 평균소득은 2011년 현재 약 436만원 입니다. 평균소득을 감안할 때,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부부와 초·중·고학생인 두 자녀로 구성된 4인가구가 근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는 얼마정도라고 생각합니까? ※ 사글세의 경우 임차료(집주인에게 미리 지불한 목돈)에서 사글세로 산 기간 동안 지불된 금액을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생활비를 고려할 것	자기(전세)가구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월세(사글세)가구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III. 소득

문 1) 가구원의 경제활동: 지난 1년(2011.1.1~2011.12.31) 동안 귀 가구 가구원 중 만 15세 이상(1996.12.31.이전 출생자)이었던 모든 가구원의 경제 활동을 말씀해 주십시오. (①~⑥의 활동 분류 중 해당하는 경우 1로 표시)												
가구원 번호	① 상용근로자		② 임시·일용 근로자		③ 고용주·자영자 (농림축어업제외)		④ 농림축산업 경영주		⑤ 어업 경영주		⑥ 무급가족종사자·가사 또는 육아·학생기타	
	해당 여부	일한 개월수	해당 여부	일한 개월수	해당 여부	일한 개월수	해당 여부	일한 개월수	해당 여부	일한 개월수	해당 여부	일한 개월수
1												
2												
3												
4												
5												
6												
7												
8												
9												
합계	명		명		명		명		명		명	
	문 2)로 가시오		문 3)으로 가시오		문 4)로 가시오		문 5)로 가시오		문 6)으로 가시오		문 7)로 가시오	

〈 유의사항 〉

- ※ 15세 미만(14세도 포함)의 경우 경제활동상태는 ⑥무급가족종사자로 표시하며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에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하며, 소득이 있을 경우 문7) 기타 근로소득에 기입함.
- ※ 한 시점에 직업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여부에 모두 '1'로 표시(예, 공무원이면서 농사를 짓는 경우 상용근로자와 농림축산업 경영주에 모두 '1'로 표시하고 문항 2와 문항 5에서 소득파악).
- ※ 자영업, 농림축산업, 어업 등에 종사하는 가구 중 2명 이상의 가구원이 하나의 사업장 혹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는 그 중 1명만 고용주·자영자, 농림축산업 경영주, 어업 경영주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⑥무급가족종사자로 표시함.

※ 주된활동구분

① 상 용 근 로 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계속 정규직원으로 일하면서 상여금,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수혜를 받는 사람 등. 일반직장인, 공무원, 법인경영자(월급 사장)등을 포함함.
② 임 시·일 용 근 로 자 :	임시근로자란 임금근로자중 상용이 아닌 사람으로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또는 일정한 사업완료(예컨대, 프로젝트)의 필요성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 등을 말함. 일용근로자란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면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사람 등을 말함.
③ 고 용 주·자 영 자 :	(농림축어업제외) 1명 이상의 유급종업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고용주와 유급종업원 없이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과 함께 일을 하거나 전문적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 및 경영하는 경우.
④ 농 림 축 산 업 경 영 주 :	10a(약 300평) 이상의 경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거나, 연간 농축산물의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단, 판매금액이 120만원 미만이라도 2011. 12. 31. 시점에 120만원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
⑤ 어 업 경 영 주 :	어업에 종사하면서 연간 1개월 이상 판매를 목적으로 해면에서 수산 동식물의 포획·채취나 양식업을 경영하는 사람.
⑥ 무 급 가 족 종 사 자 :	일정한 보수 없이 자기 가족(동일가구 내)의 일원이 경영하는 사업장 혹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가 사 또는 육 아 :	자기의 시간 대부분을 자기 집에서 가사업무를 하거나 가구원의 간병을 수행한 경우 또는 미취학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집에 있는 경우임.
학 생 :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로 재학생도 포함함. (※ 직장인이 야간대학(원) 등에 다니는 경우 주된 활동은 해당 근로활동(위의 ①~⑤)으로 표시함)
기 타 :	실업자, 장애, 부상,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한 심신무능력을 사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자, 근로능력은 있으나 근로의사가 없는 자 등

문 2)	상용근로자: 지난 1년(2011.1.1~2011.12.31) 동안 상용근로자였던 가구원 각각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연간 급여 총액 (원천징수전 총급여)은 얼마였습니까?
------	---

<p>※ 총급여는 기본급여,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경상적으로 매월 지급된 수당, 성과급(2011년분 인센티브), 소득공제 환급분, 판공비, 복지카드, 회사에서 내준 자동차 유지비 및 휴대폰 요금, 무료중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p> <p>※ 총급여는 소득세, 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세금 및 각종 사회보장부담금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임.</p> <p>※ 법인 경영자의 경우 상용근로자로 분류함.</p> <p>※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p> <p>※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1번과 3번이 상용근로인 경우 가구원 번호 1번과 3번에 총급여액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둠(이하 동일함).</p> <p>※ 체불임금의 경우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포함.</p> <p>→ 상용근로 외 다른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p>	가구원 번호	연간 총급여액							
	1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2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3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4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5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6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7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8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9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1]	합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3) 임시·일용근로자

<p>[보조기입란 3-a] 지난 1년(2011.1.1~2011.12.31) 동안 월평균 일한 횟수(출근일수)와 1회(1일)당 지급되는 보수는 얼마입니까?</p> <p>※ 월별로 일한 횟(일)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월별로 일한 횟(일)수를 확인한 뒤, 2011년 1년 동안 전체 일한 횟(일)수를 12개월로 나눈 것을 월평균 일한 횟(일)수로 기재함. 예) 2011년 가구원 A가 1~6월까지 월 5회, 7~12월까지 월 15회 일하였다면, 월 10회((30+90)/12개월) 기재</p> <p>※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p> <p>※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2번과 3번이 임시·일용인 경우 가구원 번호 2번과 3번에 일한 횟수, 1회당 보수를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둠.</p> <p>※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사업, 희망근로 소득 포함.</p>	가구원 번호	월평균 일한횟수	1회당(일당) 보수							
	1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2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3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4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5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6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7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8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9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p>3-1. 지난 1년(2011.1.1~2011.12.31) 동안 임시·일용근로자였던 가구원 각각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연간 총급여(원천징수전 총급여)는 얼마였습니까?</p> <p>※ 총급여는 기본급여,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경상적으로 매월 지급된 수당, 성과급(2011년분 인센티브), 소득공제 환급분, 판공비, 복지카드, 회사에서 내준 자동차 유지비 및 휴대폰 요금, 무료중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p> <p>※ 총급여는 소득세, 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세금 및 각종 사회보장부담금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임.</p> <p>※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p> <p>※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2번과 3번이 임시·일용인 경우 가구원 번호 2번과 3번에 총급여액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둠.</p> <p>※ 체불임금의 경우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포함.</p> <p>→ 임시·일용 외 다른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p>	가구원 번호	연간 총급여액							
	1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2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3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4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5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6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7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8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9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2]	합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4) 고용주 및 자영자

<p>[보조기입란 4-a] 지난 1년(2011.1.1~2011.12.31) 동안 고용주 혹은 자영자였던 가구원 각각의 1년 동안 연간 총매출액은 얼마였습니까?</p> <p>※ 가족구성원 중 2명 이상이 동일 매장 및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대표자 1명만 고용주 및 자영자로 분류하고,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서는 월급을 받으면 근로자로, 월급을 받지 않으면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함.</p> <p>※ 일한 개월 수, 월간 매출액 등을 바탕으로 파악</p> <p>※ 각종 세금과 사회보장부담금 납부전 총매출을 파악함.</p> <p>※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p> <p>※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3번이 고용주 및 자영자인 경우 가구원 번호 3번에 총 매출액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둬.</p>	가구원 번호	연간 총매출액 (A)						
	1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2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3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4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5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6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7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8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9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p>[보조기입란 4-b] 지난 1년(2011.1.1~2011.12.31) 동안 고용주 혹은 자영자였던 가구원 각각이 매장 및 사업장 등을 운영하면서 소요된 연간 총비용은 얼마였습니까?</p> <p>※ 경비에는 재료비, 직원 인건비 및 직원 사회보험료, 법인세, 복리후생비, 공장 또는 가게 월임대료, 차량유지비, 광고비, 소모품비용 등이 포함됨.</p> <p>※ 사업용도의 부채는 총비용에 포함되지 않음.</p> <p>※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p> <p>※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3번이 고용주 및 자영자인 경우 가구원 번호 3번에 총 비용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둬.</p>	가구원 번호	연간 총비용 (B)						
	1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2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3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4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5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6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7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8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9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p>4. 지난 1년(2011.1.1~2011.12.31) 동안 고용주 및 자영자였던 가구원 각각의 1년 동안 연간 순소득은 얼마였습니까?</p> <p>※ 순소득은 연간 총매출액에서 연간 총비용을 감하여 구함.</p> <p>※ 순소득은 소득세, 본인과 가족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부담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임.</p> <p>※ 순소득에는 자가소비, 고용주와 사업주가 용돈 및 개인경비로 쓰는 비용도 포함됨.</p> <p>※ 순소득이 마이너스일 경우, 숫자 앞 칸에 "-" 표(마이너스 표시)를 하고 금액을 기입함.</p> <p>※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p> <p>※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3번이 고용주 및 자영자인 경우 가구원 번호 3번에 순소득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둬.</p> <p>→ 고용주 및 자영자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p>	가구원 번호	연간 순소득 (A-B)						
	1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2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3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4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5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6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7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8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9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3]	합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문 5) 농림축산업 경영주	
5-1.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 가구가 경작하고 있는(소득이 발생하는) 경지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소작하는 것은 포함하고, 소작을 준 것은 제외함.) (참고) 1평≒3.3 m ²	
① 논	총 <input type="text"/> m ²
② 밭	총 <input type="text"/> m ²
③ 임야(산)(유실수, 산나물 채취 등)	총 <input type="text"/> m ²
※ 없음 0	총 <input type="text"/> m ²
④ 기타(특용농작물, 비닐하우스 등)	총 <input type="text"/> m ²

[보조기입란 5-a] 지난 1년(2011.1.1~2011.12.31) 동안 농림·축산물별 판매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 ※ 가구원 1인 이상이 농림축산업경영주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판매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을 기입함. ※ 보조기입란 순서대로 기입한 후 판매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을 계산함. ※ 판매량 = 판매량 + 다음 농사를 위한 종자량 + 임차료(소작료) 및 임금으로 지불한 수확량 + 재고량(2011년에 생산되어 남은 양) 등 주의사항: 1) 소득에 잡힌 재고량은 재산에 포함하지 않음. 2) 기타작물의 임목(立木)과 판매되지 않은 가축은 소득이 아니라 재산에 포함함. 3) 2010년 재고량은 소득 및 재산 모두에 포함되지 않음. ※ 판매수입 = 판매량 × 판매단가 ÷ 10, 자가소비액 = 자가소비량 × 판매단가 ÷ 10, 이전소비액 = 이전소비량 × 판매단가 ÷ 10 (단위에 주의할 것) ※ 이전소비액은 농축산물을 가구원이 아닌 자녀, 형제, 부모, 친지 등에게 보낸 경우 이를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임.										
구분	예 시	종류	총 수확량 (a+b+c)	판매량 (a)	자가 소비량 (b)	이전 소비량 (c)	판매단가 (원) (p)	판매수입 (만원) (A=a×p ÷ 10)	자가 소비액 (만원) (B=b×p ÷ 10)	이전 소비액 (만원) (C=c×p ÷ 10)
곡류	미곡: 메벼, 멥쌀, 찰벼, 찰쌀 곡류: 미곡을 제외한 맥류, 잡곡, 콩류, 서류(감자, 고구마, 토란 등) 등									
채소 과일 류	봄	채소: 봄동, 마나리, 냉이, 달래, 오이, 쪽파, 파, 당근, 양파, 호박, 배추, 양배추, 상추, 시금치, 양송이, 아욱 등 과일: 사과, 딸기, 토마토, 애플 등								
	여름	채소: 샐러디, 양파, 부추, 감자, 풋고추, 마늘, 무, 오이, 가지, 호박, 배추, 양배추, 생강, 깻잎, 열무, 옥수수, 파망 등 과일: 토마토, 참외, 수박, 포도, 복숭아, 자두 등								
	가을	채소: 고구마, 붉은고추, 당근, 양파, 파, 무, 콩, 배추, 시금치, 호박 등 과일: 배, 사과, 감, 대추, 유자, 키위, 은행 등								
	겨울	채소: 우엉, 연근, 아욱, 양파, 봄동, 시금치 등 과일: 사과, 귤 등								
기타 작물	특용작물: 참깨, 들깨, 섬유작물, 인삼, 담배, 버섯 기타양용작물 등 기타농작물: 화훼, 병인, 과수묘, 병묘, 모목 등 임산물: 밤, 잣, 호도, 도토리, 자연산 버섯이나 나물, 장작 등									
농림업 소득 소계 (1)										
축산업	소, 젖소, 우유, 돼지, 닭, 달걀, 개, 젖산양, 염소, 사슴, 토끼, 오리, 꿀벌, 기타 가축(면양 등)									
축산업 소득 소계 (2)										
총 합 계 [(1) + (2)]										

5-2. 지난 1년(2011.1.1~2011.12.31) 동안 수확한 농림축산물의 연간 판매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은 얼마였습니까?																															
농림축산물 판매수입 (A)								자가소비액 (B)								이전소비액 (C)								합계 (A + B + C)							
연간 총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연간 총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연간 총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연간 총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 보조기업의 총 합계 [(1) + (2)]를 기입.
※ 없음 0

5-3. 지난 1년(2011.1.1~2011.12.31) 동안 농업관련 기타잡수입은 연간 총 얼마였습니까?	연간 잡수입 총액(D)
※ 농업잡수입에는 농업소득피해보상금, 폐농자재 판매대금 등이 포함됨. (※ 없음 0)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보조기업란 5-b]. 2011년 1년(2011.1.1~2011.12.31) 동안 농임산물 생산, 가축사육에 소요된 지출(농업경영비)의 세부항목												
※ 농림축산경영주인 가구원이 1명 이상인 경우, 농림축산업에 소요된 가구전체의 비용을 합산하여 기입함.												
지출항목	예 시	연간품목별 비용										
재료비	종자및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소동물비, 사료비, 기타양축비, 양잠비, 기타재료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노무비	지불임금(남자, 여자)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경비	영농광열비(유류대 포함), 수선비, 농기구비, 수리비, 임차료, 농작업 위탁수수료, 농업부문 조세부담금, 농업부문 이자비용, 감가상각비(농기계 할부금 포함), 영농잡지출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판매 및 관리비	도정료, 농업보험료, 농산물판매수수료, 농산물판매용 자재비, 생산관리비, 기타지출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 고가(高價)의 농기계를 일시불로 구입한 경우 사용가능연한(내구연수)을 질문하여 그 연수(年數)만큼 나누어서 기입함.
예) 트랙터를 일시불 1000만원에 구입하여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경우 100만원으로 기재
※ 영농광열비는 벼고추 등 농작물 말리기, 비닐하우스 조명 및 난방 등.
※ 수리비는 논밭에 물을 대는 비용임.

5-4. 지난 1년(2011.1.1~2011.12.31) 동안 농임산물 생산과 가축사육에 소요된 연간 총비용은 얼마였습니까?	연간 총비용(E)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5-5. 농림축산물의 자가소비액, 판매액, 농업잡수입, 총비용 등을 고려할 때, 지난 1년(2011.1.1~2011.12.31) 동안 귀 가구의 농림축산업 순소득은 얼마였습니까?	연간 순소득 (A+B+C+D-E)
→ 농림 축산업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	[4]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6) 어업 경영주

[보조기입란 6-a] 지난 1년(2011.1.1~2011.12.31) 동안 연간 판매 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

※ 용어 설명은 5-a와 동일함.

분류	예시	종류	판매량 (a)	자가 소비량 (b)	이전 소비량 (c)	판매단가 (천원) (p)	판매수입 (만원) (A=a*p÷10)	자가 소비액 (만원) (B=b*p÷10)	이전 소비액 (만원) (C=c*p÷10)
어로 어업	어선, 어구, 어망 등을 사용하여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기타수산물, 해조류 등을 포획채취하는 것 (※ 해녀의 채취활동 포함)								
양식 어업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기타수산물, 해조류 등을 기르는 것								
수산 가공업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기타수산물, 해조류 등을 가공하는 것								
총계									

6-1. 지난 1년(2011.1.1~2011.12.31) 동안 출하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은 얼마였습니까?

수산물 판매수입 (A)						자가소비액 (B)						이전소비액 (C)						합계 (A + B + C)									
연간	총	십억	일억	천	백	십만원	연간	총	십억	일억	천	백	십만원	연간	총	십억	일억	천	백	십만원	연간	총	십억	일억	천	백	십만원

6-2. 지난 1년(2011.1.1~2011.12.31) 동안 어업관련 기타잡수입은 연간 총 얼마였습니까?

※ 어업잡수입에는 어업소득피해보상금, 어업용폐자재 판매대금 등이 포함됨.

연간 잡수입 총액(D)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보조기입란 6-b] 2011년 1년(2011.1.1~2011.12.31) 동안 어업활동에 소요된 지출의 세부항목

※ 가구에서 가구원이 어업경영주에 1명 이상 해당하는 경우 어업에 소요된 가구전체의 비용을 합산하여 계산함.

지출항목	예 시	연간총지출금액													
어로지출	미끼구입비, 얼음구입비, 소모품비, 남자 및 여자 임금, 전기료, 연료 및 유류비, 수선유지비, 토지 및 시설임차료, 어선 및 대어구 임차료, 용기대, 단순가공비, 보관비 등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양식지출	어미구입 및 종묘구입비, 사료비, 약품비, 소모품비, 남자 및 여자 임금, 전기료, 연료 및 유류비, 수선유지비, 토지 및 시설임차료, 용기대, 단순가공비, 보관비 등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수산가공지출	자재및원료비, 지불임금, 광열비, 수선유지비, 수산가공수수료, 기타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6-3. 지난 1년(2011.1.1~2011.12.31) 동안 어업활동에 소요된 총 비용은 얼마였습니까?

연간 총비용(E)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6-4. 수산물의 자가소비액, 판매액, 어업잡수입, 총비용 등을 고려할 때, 지난 1년(2011.1.1~2011.12.31) 동안 귀 가구의 어업 순소득은 얼마였습니까?

연간 순소득 (A+B+C+D-E)

→ 어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

[5]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문 7) 기타 근로소득: **지난 1년(2011.1.1~2011.12.31) 동안** 위에 응답한 소득 외에 다른 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총 얼마였습니까?

가구원 번호	연간 기타 근로소득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1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2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3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4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5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6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7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8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9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6]	합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 문 1) ~ 문 6)에서 응답한 근로소득 외에 주 1시간 미만의 근로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

※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모든 가구원에게 질문하세요.

※ **지난 1년(2011.1.1~2011.12.31) 동안**
다음 소득은 얼마입니까? ※ 없음 0

		세부 항목	금 액							
			연간	백억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문 8)	재산소득	① 이자(은행, 사채, 배당금)	연간	백억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② 임대료(월세, 토지임대료 등)	연간	백억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③ 기 타(자적증 대여 등)	연간	백억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7] 합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문 9)	사회보험	①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 군인·교원연금, 보훈연금, 별 정직우체국연금 등)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② 고용보험(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직업능력개발급여 등)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③ 산재보험(휴업급여, 장해연 금, 유족급여 등)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8] 합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문 10)	민간보험	① 개인연금(※ 일시불은 제외, 주택연금포함)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② 퇴직연금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9] 합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지난 1년(2011.1.1~2011.12.31) 동안 얻은 재산소득의 유형별 소득액은?
※ 매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경우 월 평균액 × 12를 하고, 일시금으로 들어오는 경우 일시금 금액을 그대로 기입
예) 매월 이자수입이 10만원이고, 1년 에 한번 배당금으로 100만원을 받는 경우: (10×12)+100=220만원으로 기입

지난 1년(2011.1.1~2011.12.31) 동안 받은 사회보험의 유형별 소득액은?
※ 일시불은 제외

지난 1년(2011.1.1~2011.12.31) 동안 받은 민간보험사에서 받은 총 개인연금 액은?

※ 심층조사 대상 가구 판별(☞ 문 15)~문 17)은 가구에 묻지 않고, 조사원이 직접 파악합니다)

문 15)	4인 가구 여부	지난 1년(2011.1.1~2011.12.31) 동안 귀 가구의 가구원은 4명입니까? ※ 1페이지에 있는 I. 가구일반사항의 문1) 가구원수 문항을 참고할 것 ① 아니요 → 대상외임. IV 부채, 이자로 갈 것 ② 예 → 문 16)으로 갈 것.																	
문 16)	소득 합계	지난 1년(2011.1.1~2011.12.31) 동안 4인 가구의 소득을 합계하면 얼마입니까?(각 소득 부분에서 마이너스 된 부분은 그대로 계산함)	<table><tr><td>[1]~[13]까지의 합계액</td><td>십억</td><td>일억</td><td>천</td><td>백</td><td>십</td><td>만</td><td>만원</td></tr><tr><td>[1]~[13]까지의 합계액 ÷ 12</td><td>십억</td><td>일억</td><td>천</td><td>백</td><td>십</td><td>만</td><td>만원</td></tr></table>	[1]~[13]까지의 합계액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만원	[1]~[13]까지의 합계액 ÷ 12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만원
		[1]~[13]까지의 합계액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만원										
[1]~[13]까지의 합계액 ÷ 12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만원												
문 17)	심층조사 대상 여부	귀 가구의 월평균([1]~[13]까지의 합계액 ÷ 12) 소득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① 360만원 초과 → 대상외임! ② 360만원 이하 → 문 17) 심층조사 대상임! ※ 4인 가구이면서 음영처리 된 [1]~[13]까지의 합계액 ÷ 12이 360만원 이하인 경우 반드시 4인가구 심층조사표를 조사합니다.																	

IV. 부채, 이자

※ 귀하 가구의 부채 및 이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1. 12. 31 기준, 사업용도의 부채는 제외함)

※ 귀하 가구의 부채 및 이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1. 12. 31 기준, 사업용도의 부채는 제외함)

			세부항목	금액						
문 1)	부 채 형 태		2011.12.31 기준으로 부채의 형태별 부채액 (명의기준)은 얼마입니까? ※ 명의기준 ※ 밀린 월세, 교통안전공단지원대 부금 등은 기타부채에 포함. ※ 카드 할부구매는 ③ 카드빚에, 현금 할부 구매는 ⑥ 기타부채에 포함. ※ 주거부채, 영농부채도 파악함. ※ 사회보험 연체금은 ⑥ 기타부채에 기입함. ※ 친인척에게 돈을 빌린 경우, 이자가 있으면 ② 일반사채에, 이자가 없으면(무이자) ⑥ 기타부채에 기입함.	① 금융기관대출(회사대출, 마이너스통장 미상환금 포함)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② 일반사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③ 카드빚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④ 전세(임대)보증금(받은 돈)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⑤ 외상, 미리탄 계돈 ※ 미리 탄 계돈의 경우 향후 부어야 하는 금액만 기재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⑥ 기타부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문 2)	금융채무 불이행	문 2-1) 금융채무 불 이행 가구원	2011.12.31 기준으로 가구원 중에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인 가구원이 있습니까?		가구원 번호	가구원 번호				
		문 2-2) 사 금융 이용 경험	신용불량 판정을 받기 전 1년 동안 사금융업체(사채)를 이용해본 가구원이 있습니까? ※ 없을 경우 000, 있을 경우 해당가구원 번호 기입(1인일 경우 가구원 번호를 먼저 기입하고 다음 칸에 0 기입,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액수가 많은 순으로 2인까지만 가구원 번호 기입) ※ 사금융업체(사채): 가족·친인척·친구로부터 빌린 돈 제외		가구원 번호	가구원 번호				
		문 2-3) 금융채무 불 이행 원 인	2011.12.31. 기준으로 신용불량 가구원이 있을 경우, 신용불량 원인은 무엇입니까? ① 생활비 충당을 위해서 ② 의료비 충당을 위해서 ③ 교육비 충당을 위해서 ④ 보증을 서게 되어서 ⑤ 사업자금 충당을 위해서 ⑥ 선호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⑦ 유흥비 지출 ⑧ 기타() ※ 문 2-1)번 문항에 기입된 가구원번호 순으로 신용불량 원인 번호 기입							
문 3)	이 자	2011년 1년(2011.1.1.~2011.12.31) 동안 부채에 대해 지출한 이자는 연간 얼마였습니까? ※ 명의기준 ※ 2011년 1년(2011.1.1.~2011.12.31) 동안 연체하여 내지 못한 이자는 포함하지 않음.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V. 재산

※ 귀 가구의 가구원이 보유한 전체 재산에 대한 질문입니다(2011.12.31 기준, 명의 기준으로 조사하며, 가구원명명의 사업장(가계)도 포함됨.)

		세부항목	금액(※ 없음 0)								
문 1)	소유 부동산	2011.12.31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제외한 소유부동산의 유형별 가격(현 시가기준)은? ※ 거주하고 있는 집은 VI 주 거에서 파악하므로 여기서는 제외.	①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등)	백억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② 주택외 건물(가족명명의 사업장(가계)·창고·상가·콘도·별장·오피스텔 등)	백억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③ 토지(택지, 논, 밭, 임야 등), 양식장, 기타 부동산	백억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2)	점유 부동산	2011.12.31 기준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제외한 점유 부동산의 유형별 가격은? ※ 거주하고 있는 집은 VI 주 거에서 파악하므로 여기서는 제외.	① 가계, 사업장 등의 전세보증금 준 것, 비동거가구원의 전세보증금 등	백억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② 기타(권리금, 사업설비, 공장기계, 가계물건, 비닐하우스시설, 양식장 등)	백억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3)	금융자산	2011.12.31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유형별 가격은? ※ 가구원 전부 파악	① 예금(청약예금, 정기예금 등)	백억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② 적금(정기적금, 연금형 적금, 종신보험,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백억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③ 주식·채권·펀드(적립식, 거치식)	백억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④ 타기 전 부은 계돈	백억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⑤ 기타(남에게 빌려준 돈, 아파트 중도금(계약금) 부은 것 등)	백억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4)	농기계	2011.12.31 기준으로 보유하고 계신 농기계의 가격은? ※ 동력탈곡기, 경운기, 콤팩트, 트랙터 살포기, 이앙기, 미증기(도정기), 보행관리기, 로터리, 비료살포기, 농약살포기, 건조기, 분사기, 양수기 등이 포함됨.	백억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5)	농축산물	2011.12.31 기준으로 (판매하지 않고) 사육하고 있는 농축산물의 가격은? ※ 소, 돼지, 닭, 유실수 등이 포함됨 ※ 애완용 및 식용 가축 제외	백억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6)	자동차	2011.12.31 기준으로 소유하고 계신 비영업용 자동차의 대수와 가격은? ※ 자동차를 세는 기준은 명의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가구원의 명의로 아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그 가구의 자동차가 아니며, 가구원의 명의로 된 자동차를 현재 타고 있지 않아도 그 자동차는 가구소유의 자동차입니다. ※ 자동차 모델, 연식별 가격은 별책을 참조하여 환산해 주십시오.	보유 대수								
			단위								
문 7)	기타 재산	2011.12.31 기준으로 위의 재산 이외의 소유하고 계신 재산의 가격은? ※ 운동클럽 등의 회원권, 영업용 자동차·자동차 번호 값, 오토바이·선박, 굴삭기, 포크레인, 트랙 등 운송 및 생계수단, 귀금속, 골동품, 상품권 등이 포함됨.	백억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VI. 주거

※ 지난 1년(2011.1.1~2011.12.31) 동안 가구의 주거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사 등으로 주거유형 혹은 점유형태에 변화가 있었던 경우, 바뀐 이후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의 유형은?		① 단독주택(다가구) ② 아파트 ③ 연립 및 다세대주택 ④ 기타(영업용 건물내 거주, 오피스텔 등)							
문 2)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 가구에서 사용하는 방은 모두 몇 개입니까? (세를 준 경우 제외)									
	문 2-1)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용하는 귀댁의 전평(APT 등의 경우 분양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 마당, 정원, 창고 등을 제외한 거주하고 있는 주택면적 기준								
문 3)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의 점유형태는?		① 자가 ② 전세 ③ 보증부월세 ④ 월세(사글세) ⑤ 기타(무상포함)							
문 4)	주택(가 격)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의 가격(현 시가 기준)은? ※ 자가의 경우 주택가격, 전세의 경우 전세금, 보증부월세의 보증금, 기타의 경우 가격	금액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주택(월세액)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보증부 월세 및 월세(사글세)인 경우 지불하는 월세액은? ※ 자가주택의 토지에 대해 지불하는 지대도 포함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Ⅶ. 생활여건									
※ 2011년 12월 31일 기준 ※ 해당 번호에 ○함.				우리 가정에서는, ① 갖고 있다. ② 가지고 싶지만 현재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어 못 갖고 있다 ③ 별 필요를 느끼지 않아 갖고 있지 않다.			귀하가 생각하기에 ① 꼭 필요하다 (필수품이다) ② 있으면 좋다 (필수품은 아 니다)		
문 1)	유선방송 또는 케이블 TV			①	②	③	①	②	
문 2)	디지털 TV			①	②	③	①	②	
문 3)	디지털방송 수신기			①	②	③	①	②	
문 4)	진공청소기			①	②	③	①	②	
문 5)	핸디청소기			①	②	③	①	②	
문 6)	디지털 카메라 또는 캠코더 (※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는 제외)			①	②	③	①	②	
문 7)	필름카메라			①	②	③	①	②	
문 8)	컴퓨터 또는 노트북			①	②	③	①	②	
문 9)	전기장판			①	②	③	①	②	
문 10)	휴대폰	가구원 전체 보유대수		대	①	②	③	①	②

☺ 질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엄격하게 보호되며 통계적 목적만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승 인 번 호
제 33104 호

2011년 4인가구 심층조사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
밀이 보장됩니다

작성기관: 보건복지부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국민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택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2년 8월

<문의 및 연락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요도 및 조사지역 관련, 조사수행 관련: 380-8152, 380-8337

조사표 등 조사내용 관련: 380-8304, 380-8273, 380-8159, 380-8317, 380-8261)

조사표 번호	가구 ID	조사구 ID					거처번호	가구번호
		지역코드		조사구번호		구역		
2						—		

주 소	시·도	구·시·군	동·읍·면	통·리	번지 호(아파트 동 호)
가 구 주 성 명			응 답 자 성 명		응 답 자 번 호
전화번호			조 사 원 성 명		지 도 원 성 명

귀하의 성실어린 답변에 감사드리며, 소정의 답례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해 드립니다.

수령일	2012 년 월 일	수령액 (농협상품권)	금액 5,000원
수령인	(인)	조사원 확인	(인)

보 건 복 지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 식품비

1	지난 6개월(2011. 7. 1 ~ 2011. 12. 31) 동안 몇 번이나 가족단위 외식을 하였습니까? (※ 가족단위란, 비동거가구원제외 가구원전원임)	6개월 동안			번
1-1	한 번 외식비로 평균 얼마 정도를 지출하십니까? (※ 교통비 등을 제외한 순수 식사비)	1회 평균		만	천원
2	규칙적으로 밖에서 식사를 하는 가구원이 있습니까? (※ 2011. 12. 31 기준으로 지난 1년 중 3분의2 이상을 밖에서 규칙적으로 식사한 경우임) (※ 도시락을 싸서 다니는 경우와 초·중고교생의 급식은 제외)				
	① 있다 ② 없다(→ II. 주거비로)				
2-1	규칙적으로 밖에서 식사(직장에서 점심 등)하는 가구원은 몇 명입니까?				명
2-2	규칙적으로 밖에서 식사하는 가구원의 경우 한끼당 평균 식사비는 얼마입니까? (※ 여러 명인 경우 가장 중심으로 대답) (※ 직장 무료 중식 포함) (※ 정기적인 식사비용만을 포함하며, 회식비, 접대비, 술값 등은 제외)	한끼 평균			백원

II. 주거비

1	(APT인 경우만 응답) 주택의 연간 월평균 순수관리비(주택수리비, 전기, 수도 등 제공과금 제외)는 얼마입니까? (※ 2011년 12월 31일 거주한 집 기준)	월평균			만	천원
2	최근 3년간(2009. 1. 1 ~ 2011. 12. 31) 거주하였던 주택의 개보수는 몇 번 하였습니까? (※ 전·월세의 경우 조사가구 본인(가구)이 돈을 내고 한 개보수만 포함, 주인집에서 해 준 것은 제외) (※ 리모델링 제외)	3년간			번	
2-1	1회 평균 개보수비용은 얼마였습니까?	1회 평균				만원
3	최근 3년간 (2009. 1. 1 ~ 2011. 12. 31) 거주하였던 주택에 도배를 몇 번 하였습니까? (※ 전·월세의 경우 조사가구 본인(가구)이 돈을 내고 한 도배만 포함, 주인집에서 해 준 것은 제외)	3년간			번	
3-1	1회 평균 도배 비용은 얼마였습니까? (※ 장판비 제외)	1회 평균				만원

4	귀택은 지난 3년간 (2009. 1. 1. ~ 2011. 12. 31)이사를 몇 번 하셨습니까? (※ 결혼으로 인한 이사 제외)	3년간		번
	4-1	지난번 이사할 때, 복덕방 수수료는 얼마였습니까?	1회	만원
	4-2	지난번 이사할 때, 총 이사 비용은 얼마였습니까?	1회	만원

(※ 이사비용 : 복비를 제외한 화물차 비용, 곤도라 및 엘리베이터 사용료, 포장이사비용 / 운송 비용 포함)

5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구입 당시 , 주택구입비용 혹은 보증금은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5-1	자기돈(무상으로 받은 친지의 현금성 도움 포함)		억		만원
5-2	부모, 형제, 친척, 친구 등의 무이자 채무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무이자 채무에 해당)		억		만원
5-3	금융기관(회사에서 융자받은 경우 포함)으로부터 빌린 돈		억		만원
5-4	사채(친지 이자 채무,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체포함)		억		만원
5-5	기타(※무상, 상속 포함, 금액은 0)		억		만원
5-6	합계		억		만원

(※ 해당 없는 칸은 "0"을 기입하고, 합계란에는 주택구입비용이나 보증금비용 총액이 되도록 기입)

6	(2011. 12. 31일 기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관련한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이자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6-1	금융기관(회사에서 융자받은 경우 포함)으로부터 빌린 돈		%
6-2	사채(친지 이자 채무,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체포함)		%
6-3	기타		%

Ⅲ. 광열 수도 및 전기

1	지난 1년간(2011.1.1~2011.12.31) 월평균 상하수도요금은 얼마나 됩니까? (※ 할인적용 전 금액을 기입하며, 2개월에 1번 나오는 경우 나누기 2를 함)	월평균		만		천원
2	지난 1년간(2011.1.1~2011.12.31) 월평균 전기요금? (※ 할인적용 전 금액을 기입하며, 산업용 전기를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구는 비용에 99만 9천원으로 기입)	월평균		만		천원

※ 난방 및 취사 시설

3	난방·취사비용이 따로 나오는 경우만 응답 (※ 할인적용 전 금액을 기입하며 2가지 이상 사용시 길게 사용한 것 기준임)					
난 방 비	3-1	귀댁의 난방연료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도시가스(LNG) ②가스(LPG) ③석유 ④전기(전기장판) ⑤연탄 ⑥기타()				
	3-2	월평균		만		천원
	3-3	월평균		만		천원
	3-4	월평균		만		천원
취 사 비	3-5	귀 댁에서 주로 사용중인 취사용 연료는 무엇입니까? ①도시가스(LNG) ②가스(LPG) ③석유 ④전기 ⑤연탄 ⑥기타()				
	3-6	월평균		만		천원
4	난방·취사비용이 함께 나오는 경우만 응답 (※ 할인적용 전 금액을 기입하며 2가지 이상 사용시 길게 사용한 것 기준임)					
난 방 · 취 사 비	4-1	귀댁의 난방·취사연료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도시가스(LNG) ②가스(LPG) ③석유 ④전기 ⑤연탄 ⑥기타()				
	4-2	월평균		만		천원
	4-3	월평균		만		천원
	4-4	월평균		만		천원

3

지난 1년간(2011.1.1~2011.12.31) 아래의 피복 및 신발서비스를 이용한 횟수와 평균금액은 얼마입니까?
 (※ 배우자가 없는 경우 본인만 기재. 한복 제외. 정장 한 벌은 상의 하나와 하의 하나를 의미함)

3-1

3-1-1

3-1-2

3-1-3

3-2

3-2-1

3-3

3-3-1

세탁서비스(정장, 코트 드라이크리닝)

신사복 상하 드라이크리닝
(※ 신사복이 없는 경우 공란, 있으나 드라이크리닝 하지 않은 경우 "0" 기입)

숙녀복 상하 드라이크리닝
(※ 숙녀복이 없는 경우 공란, 있으나 드라이크리닝 하지 않은 경우 "0" 기입)

겨울코트 드라이크리닝
(※ 겨울코트가 없는 경우 공란, 있으나 드라이크리닝 하지 않은 경우 "0" 기입)

의복수선

의복 1개당 평균 수선 금액(※ 수선하지 않은 경우 "0" 기입)

구두수선

구두수선 1켤레당 평균 금액
(※ 구두가 없는 경우 공란, 있으나 수선하지 않은 경우 "0" 기입)

1년간

만

천원

번

만

천원

만

천원

1년간

만

천원

번

만

천원

VI. 의료비

1

지난 1년간(2011.1.1~2011.12.31) 가족 중 입원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 마용성형을 위한 입원은 제외, 출산 및 건강검진을 위한 입원은 포함)

① 있다(1-1번으로) ② 없다(2번으로)

1-1

있었다면 1년간 **본인이 부담한** 총치료비를 아래에 기술하여 주십시오.
 (※ 수술비,입원비,본인부담 식대 등 포함)
 (※ 병원비 영수증에서 **본인부담액**만 기입함(건강보험에서 지불한 금액은 제외))
 (※ 민간보험(실비, 상해, 암보험 등) 수령액과 상관없이 병원에서 청구한 실제 금액을 기입함)

가구원 번호	단위	병의원에 지불한 총 입원치료비			
1	1년 합계		만		천원
2	1년 합계		만		천원
3	1년 합계		만		천원
4	1년 합계		만		천원

2	지난 3개월간(2011.10.01~2011.12.31) 가족 중 통원진료(병의원, 한방병원, 물리치료, 예방접종 등 포함)를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까? (※ 미용을 위한 성형외과 및 피부과 이용은 제외)	<input style="width: 40px; height: 30px;" type="text"/>
	① 있다(2-1번으로) ② 없다(3번으로)	

2-1	있었다면 3개월 동안의 총 치료비·약값·교통비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 병의원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한 약값을 적는다. 처방전 없이 구입한 경우 문3)에 기입한다. ※ 총치료비와 약값: 병원비 영수증에서 본인부담액 만 기입함(건강보험에서 지불한 금액은 제외) ※ 교통비: 왕복교통비를 적는다. 자가용의 경우, 택시요금에 준해서 적는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가구원번호</th> <th>단위</th> <th colspan="3">병의원에 지불한 치료비</th> <th colspan="3">약국에 지불한 약값</th> <th colspan="3">교통비</th> </tr> </thead> <tbody> <tr> <td>1</td> <td>3개월합계</td> <td></td><td></td><td>만</td> <td>천</td><td>원</td> <td></td><td></td><td>만</td> <td>천</td><td>원</td> </tr> <tr> <td>2</td> <td>3개월합계</td> <td></td><td></td><td>만</td> <td>천</td><td>원</td> <td></td><td></td><td>만</td> <td>천</td><td>원</td> </tr> <tr> <td>3</td> <td>3개월합계</td> <td></td><td></td><td>만</td> <td>천</td><td>원</td> <td></td><td></td><td>만</td> <td>천</td><td>원</td> </tr> <tr> <td>4</td> <td>3개월합계</td> <td></td><td></td><td>만</td> <td>천</td><td>원</td> <td></td><td></td><td>만</td> <td>천</td><td>원</td> </tr> </tbody> </table>	가구원번호	단위	병의원에 지불한 치료비			약국에 지불한 약값			교통비			1	3개월합계			만	천	원			만	천	원	2	3개월합계			만	천	원			만	천	원	3	3개월합계			만	천	원			만	천	원	4	3개월합계			만	천	원			만	천	원
가구원번호	단위	병의원에 지불한 치료비			약국에 지불한 약값			교통비																																																					
1	3개월합계			만	천	원			만	천	원																																																		
2	3개월합계			만	천	원			만	천	원																																																		
3	3개월합계			만	천	원			만	천	원																																																		
4	3개월합계			만	천	원			만	천	원																																																		

3	귀댁 가구원 중에서 지난 3개월간(2011.10.01~2011.12.31) 약국과 한약방에서 병의원 처방전 없이 의약품 을 구입하셨다면 그 비용은 얼마였습니까?							
3-1	약국 (※ 질병 및 상처 치료를 목적으로 한의약품에 한함. 비타민 등 영양보충제는 제외)	3개월 합계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text-align: center;"> <tr><td></td><td></td><td></td><td>만</td><td></td><td>천원</td></tr> </table>				만		천원
			만		천원			
3-2	한약방 (※ 질병 및 상처 치료를 목적으로 한의약품에 한함. 비타민 등 영양보충제는 제외)	3개월 합계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text-align: center;"> <tr><td></td><td></td><td></td><td>만</td><td></td><td>천원</td></tr> </table>				만		천원
			만		천원			
3-3	약국이의 구입 의약품 (※ 질병 및 상처 치료를 목적으로 한의약품에 한함. 비타민 등 영양보충제는 제외)	3개월 합계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text-align: center;"> <tr><td></td><td></td><td></td><td>만</td><td></td><td>천원</td></tr> </table>				만		천원
			만		천원			

4	지난 1년 간(2011.1.1~2011.12.31) 아래의 가정상비약을 구비하셨습니다?
---	--

품 목		① 갖고 있다 ② 가지고 싶지만 현재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어 못 갖고 있다 ③ 별 필요를 느끼지 않아 갖고 있지 않다		
4-1	감기약 (종합감기약 포함)	①	②	③
4-2	해열제 (시럽 및 좌약 포함)	①	②	③
4-3	진통제 (시럽 및 좌약 포함)	①	②	③
4-4	소화제 (제산제 포함)	①	②	③
4-5	지사제 (설사가 심한 경우)	①	②	③
4-6	탈지면	①	②	③
4-7	반창고	①	②	③

4 (계속) 지난 1년 간(2011.1.1~2011.12.31) 아래의 가정상비약을 구비하셨습니다?

품 목		①갖고 있다 ②가지고 싶지만 현재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어 못 갖고 있다 ③별 필요를 느끼지 않아 갖고 있지 않다		
4-8	소독약	①	②	③
4-9	화상약	①	②	③
4-10	피부연고제	①	②	③
4-11	기타	①	②	③

5 지난 1년 간(2011.1.1~2011.12.31) 아팠는데도 의사의 도움을 받지 못했거나 중도에 치료를 포기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5-1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2개 선택)

1순위	<input type="text"/>	2순위	<input type="text"/>
-----	----------------------	-----	----------------------

①증세경미
 ②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③시간이 없어서
 ④의료기관과의 거리가 멀어서
 ⑤치료예정
 ⑥일을 중단하면 수입(소득)이 줄기 때문에
 ⑦식구를 돌보아 줄 사람이 없어서
 ⑧치료해도 나을 것 같지 않아서
 ⑨기타()

6 귀댁의 가구원 중 안경,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거나 시력교정수술(라식 및 라섹수술 등)을 받은 사람은 총 몇 명입니까? (* 선글라스 및 돋보기는 제외)

<input type="text"/>	명
----------------------	---

6-1 그 중 (콘택트렌즈 등 다른 시력교정기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안경만 착용하는 가구원은 몇 명입니까?

<input type="text"/>	명
----------------------	---

6-2 안경만 착용하는 가구원의 경우, 평균 몇 개월에 한번 안경을 구입하십니까?
(* 렌즈만 교환은 제외, 세트 구입하였을 때임)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개월
----------------------	---	----------------------	----

6-3 가구원 중 지난 1년간(2011.1.1~2011.12.31) 안경을 구입한 가구원이 있다면, 안경 1개의 평균 구입비용은 얼마입니까? 1개평균

<input type="text"/>	만	<input type="text"/>	천원
----------------------	---	----------------------	----

(* 2011년 구입 없는 경우 공란임)

Ⅶ. 교육비

※ 교육비 관련 문항은 **미취학 자녀 및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각각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응답해 주십시오.

1

귀댁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교육기관을 응답해 주십시오.
 자녀 1인당 **한 학기(2011학년도 2학기)** 동안 보충학습비, 교재비(참고서 및 문제집- 교과관련 학원교재 포함, 예체능학원 교재 제외)등을 적어 주십시오.
 (※ 단, 반드시 다니고 있는 교육기관과 관련된 비용을 기입, 교내 특기적성교육을 포함하나, 비정기적인 비용은 제외)
 (※ 해당교육 기관에 다니는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큰 자녀기준으로 응답, 지원 이전금액 기준)

구분	교육기관 ¹⁾	보충학습비 (정규 보육비/유치원비 이외)	아동 도서	시청각 교재 (CD/DVD 등)
영유아		천원	천원	천원
구분	교육기관 ¹⁾	방과후교육/보충학습비 (정규 수업료 이외)	참고서 (전과/자습서)	문제집
초등학생		천원	천원	천원
중학생		천원	천원	천원
고등학생		천원	천원	천원

주: 1) ⑥보육시설 및 유치원 등 교육기관 보내지 않음 ①보육시설 ②유치원 / ③공립 초등학교 ④사립 초등학교 / ⑤공립 중학교 ⑥사립 중학교 / ⑦공립 고등학교 ⑧사립 고등학교 / ⑨특수교육시설(장애전담어린이집, 장애인학교 등)

2

위 해당교육기관에 다니는 귀 자녀의 급식 실시여부 및 1인당 월평균 급식비를 응답해 주십시오.
 (※ 지자체 단위로 학교 전체가 무상급식이면서 급식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정부/민간단체 지원액은 999, 본인부담은 0임)

구분	귀 자녀의 급식 실시여부				1인당 월평균 급식비			
	①미실시 ②저녁만 급식	①점심만 급식 ③점심과 저녁 모두 급식			정부/민간단체 지원		본인부담	
영유아	①	②	③		천원		천원	
초등학생	①	②	③		천원		천원	
중학생	①	②	③		천원		천원	
고등학생	①	②	③		천원		천원	

3

수학여행 / 수련회비(대상 학년이 아닌 경우, 재학 학교 기준으로 기재)

구분	야외학습(국내와 국외로 나누어진 경우 국내기준)							
	횟수		1인당 1회 비용					
영유아(1년간)		회						천원
구분	수학여행(국내와 국외로 나누어진 경우 국내기준)				수련회(국내와 국외로 나누어진 경우 국내기준)			
	횟수		1인당 1회 비용		횟수		1인당 1회 비용	
초등학생(6년간)		회		천원		회		천원
중학생(3년간)		회		천원		회		천원
고등학생(3년간)		회		천원		회		천원

4 사교육 유형별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현황 (※ 한 학기(2011학년도 2학기) 기준, 수강 강좌수는 모두 기입)

(1) 영유아

사교육 유형	4-1-1. 귀하가 생각하기에...	4-1-2. 우리 가구의 자녀는...			4-1-3. 다니(받)고 있다면 다닌 기간의 월평균비용은?
	①꼭 필요하다 ②다니(하)면 좋다 ③필요 없다	①다니(받)고 있다 ②다니(받)지 않는다	수강 자녀수	수강 강좌수	월평균 비용 합계= 수강자녀수*수강강좌수 *강좌금액
가정학습지(방문교사 포함)	① ② ③	① ②			천원
기타 학원(예체능, 컴퓨터, 외국어 등)	① ② ③	① ②			천원

(2) 초등학교 자녀

사교육 유형	4-2-1. 귀하가 생각하기에...	4-2-2. 우리 가구의 자녀는...			4-2-3. 다니(받)고 있다면 다닌 기간의 월평균비용은?
	①꼭 필요하다 ②다니(하)면 좋다 ③필요 없다	①다니(받)고 있다 ②다니(받)지 않는다	수강 자녀수	수강 강좌수	월평균 비용 합계= 수강자녀수*수강강좌수 *강좌금액
입시 및 보습학원(교과 관련)	① ② ③	① ②			천원
인터넷 강의	① ② ③	① ②			천원
가정학습지(방문교사 포함)	① ② ③	① ②			천원
과 외	① ② ③	① ②			천원
기타 학원(예체능, 컴퓨터, 외국어 등)	① ② ③	① ②			천원

(3) 중학생 자녀

사교육 유형	4-3-1. 귀하가 생각하기에...	4-3-2. 우리 가구의 자녀는...			4-3-3. 다니(받)고 있다면 다닌 기간의 월평균비용은?
	①꼭 필요하다 ②다니(하)면 좋다 ③필요 없다	①다니(받)고 있다 ②다니(받)지 않는다	수강 자녀수	수강 강좌수	월평균 비용 합계= 수강자녀수*수강강좌수 *강좌금액
입시 및 보습학원(교과 관련)	① ② ③	① ②			천원
인터넷 강의	① ② ③	① ②			천원
가정학습지(방문교사 포함)	① ② ③	① ②			천원
과 외	① ② ③	① ②			천원
기타 학원(예체능, 컴퓨터, 외국어 등)	① ② ③	① ②			천원

(4) 고등학교 자녀

사교육 유형	4-4-1. 귀하가 생각하기에...	4-4-2. 우리 가구의 자녀는...			4-4-3. 다니(받)고 있다면 다닌 기간의 월평균비용은?
	①꼭 필요하다 ②다니(하)면 좋다 ③필요 없다	①다니(받)고 있다 ②다니(받)지 않는다	수강 자녀수	수강 강좌수	월평균 비용 합계= 수강자녀수*수강강좌수 *강좌금액
입시 및 보습학원(교과 관련)	① ② ③	① ②			천원
인터넷 강의	① ② ③	① ②			천원
가정학습지(방문교사 포함)	① ② ③	① ②			천원
과 외	① ② ③	① ②			천원
기타 학원(예체능, 컴퓨터, 외국어 등)	① ② ③	① ②			천원

5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한 자녀에게 들어가는 월평균 필요한 최소한의 사교육비 수준은 얼마입니까? (※ 해당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응답 (※ 2명이상일 경우 평균금액임) (※ 영유아의 경우, 유치원비 및 보육비(정부지원단가) 제외)	구 분	최소한 필요한 지출 수준			
		영유아				만원
		초등학생				만원
		중학생				만원
		고등학생				만원

VIII. 교양오락비

1	교양오락활동의 유형별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이용경험
---	-------------------------------

항 목		1-1. 귀하가 생각하기에			1-2. 가구단위 혹은 가구의 연간 이용 횟수		
		①꼭 필요하다	②이용하면 좋다	③필요 없다	※ 없으면 0기재		단위
노래방 이용 (※ 가구원 전체가 함께 간 경우)		①	②	③			회
생일 등 기념일용 선물 구입 (※ 동거 및 비동거인 포함)		①	②	③			회
가족여행 및 관광		①	②	③			회
영화관람	성인	①	②	③			회
	아동	①	②	③			회
공연관람 (※ 뮤지컬, 음악, 연극 등)	성인	①	②	③			회
	아동	①	②	③			회
평생학습 교육프로그램 참여 (※ 문화예술, 인문교양 등)	성인	①	②	③			회
	아동	①	②	③			회
스포츠시설이용 (※ 헬스, 수영 등)	성인	①	②	③			회
	아동	①	②	③			회
스포츠관람 (※ 야구, 축구, 농구 등)	성인	①	②	③			회
	아동	①	②	③			회

2	교양오락시설의 유형별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이용경험
---	-------------------------------

항 목	1-1. 귀하가 생각하기에			1-2. 가구단위의 연간 보유 현황			
	①꼭 필요하다	②이용하면 좋다	③필요 없다	①갖고 있다	②가지고 싶지만 현재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어 못 갖고 있다	③별 필요를 느끼지 않아 갖고 있지 않다	
오디오	①	②	③	①	②	③	
DVD 플레이어	①	②	③	①	②	③	
유선(케이블 포함) 및 위성방송	①	②	③	수신여부	①수신	②미수신	
				유선방송비 (※ 2가지이상 시청시 월합계(부가세포함)금액)			원

IX. 교통통신비

1	귀 가구의 가구원들이 출퇴근, 통학 등에 주로 이용하는 교통편은? (※ 기타가구원의 경우 가장 자주 교통편을 이용하는 가구원 기준, 2011년 1년간 가구주 무직시 공란, 취업 무직 반복시 긴 기간 중심으로 조사)	가구주		기타 가구원	
① 버스 ② 전철 ③ 기차 ④ 택시 ⑤ 자가용 ⑥ 기타 ()					
1-1	귀 가구 가구주의 1주 평균 근무일수는? (※ 월~금요일까지 출근하고, 토요일은 격주로 출근하는 경우는 5.5일로 기재)	1주 평균		일	
2	귀 가구 전체의 월평균 택시이용 횟수는? (※ 출퇴근, 등하교, 휴가 및 귀향용 택시 이용 횟수 제외)	월평균		회	
2-1	1회당 평균 택시요금은 얼마입니까?	1회 평균		만	
					백원
3	지난 1년간(2011.1.1~2011.12.31) 가족단위의 고향방문, 친지방문 등으로 장거리 여행을 한 횟수는? (※ 가족단위란, 비동거가구원제외의 가구원전원임) (※ 장거리 여행: 서울~대전 간 거리 정도의 여행을 의미함)				
					회
3-1	지난 1년간 위의 장거리 여행시 주로 이용한 교통수단은?	1순위		2순위	
① 고속(시외)버스 ② 기차 ③ 자가용 ④ 택시 ⑤ 기타 ()					
3-2	지난 1년간 위의 장거리 여행에 따른 1회 평균 왕복교통비는? ※ 자가용의 경우 기름값과 통행료(톨게이트비) 기입 ※ 고속(시외)버스, 기차 등 개인별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 총액을 기입	1회 평균		만	
					천원
3-3	지난 1년간 가족단위의 고향, 친지방문시(장거리 여행) 1회 평균 선물비용은?	1회 평균		만	
					천원
4	귀 가구(가구원 전체)의 휴대폰 요금의 합계는? (※할인전 금액 기재, 휴대폰 없을 시 "0" 기록)	월평균		만	
					천원
4-1	귀 가구(가구원 전체)의 휴대폰 1대당 평균사용연수는?			년	
					개월
5	귀 가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모두 몇 대입니까?				
					대

X. 기타소비지출

1	지난 1년간(2011.1.1~2011.12.31) 친지, 친구 등의 경조사(결혼, 장례, 회 갑, 돌잔치 등)로 경조사비를 지출한 횟수는? (※ 귀댁 가족의 경조사는 제외)			회
1-1	지난 1년간 지출한 경조사비는 1회 평균 얼마였습니까?	1회 평균		만
				천원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0px; height: 4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bottom: 5px;">2</div> <p>(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용돈 (학용품 구입비 제외)으로 1달에 얼마나 지출하십니까? (※ 재학중인 자녀 기준) (※ 2인 이상인 경우 평균금액임)</p>	영유아 1인당 월평균	<div style="border-left: 1px dashed black; width: 40px;"></div>	만		천원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div style="border-left: 1px dashed black; width: 40px;"></div>	만		천원
	중학생 1인당 월평균	<div style="border-left: 1px dashed black; width: 40px;"></div>	만		천원
	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div style="border-left: 1px dashed black; width: 40px;"></div>	만		천원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0px; height: 4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bottom: 5px;">3</div> <p>귀하 가구에서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가구원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p>	
	<p>※ 사회단체: 노조 및 시민단체 등을 말함 ※ 친목단체: 취미, 자원봉사활동 등을 하는 단체를 말함. 종교단체에서 하는 자원봉사활동 등은 포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0px; height: 4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bottom: 5px;">3-1</div> <p>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경우 월평균 회비는 얼마나 됩니까? (단, 종교단체의 헌금, 십일조 등은 제외)</p>	월평균 회비	<div style="border-left: 1px dashed black; width: 40px;"></div>	만		천원
---	--------	---	---	--	----



승인번호
제 33104 호

2013년 가격조사(1월 기준)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
밀이 보장됩니다

작성기관: 보건복지부

방문일시: 2013 년 1월 일

조 사 지 역 명	조사표 번호	조사구 ID				조사지도원 성명
		지역코드		조사표 일련번호		
____사도 ____구·시·군 ____동·읍·면	3					

1

지역의 품목별 가격에 대한 질문입니다.
※ 중하위 품질 기준입니다.

비목/품목		규격	가 격				상호명	비고
피복·신발비	신사복	동					원	
		춘추					원	
	숙녀복	동					원	
		춘추					원	
	스커트	성인 여성용					원	
		여아용					원	
	오버코트	성인					원	
	겨울 잠바	성인					원	
		아동					원	
	봄가을 잠바	성인					원	
		아동					원	
	와이셔츠	성인 남성용 긴팔					원	
		성인 남성용 반팔					원	
	남방	성인 남성용					원	
	긴팔 셔츠	성인					원	
		아동					원	
	반팔 셔츠	성인					원	
		아동					원	
	스웨터	성인					원	
		아동					원	
	블라우스	성인 여성용					원	
		여아용					원	

비목/품목		규격	가 격				상호명	비고
피복·신발비	바지	성인					원	
		아동					원	
	반바지	성인					원	
		아동					원	
	넥타이	남성 정장용					원	
	넥대	성인					원	
		아동					원	
	(정장용) 구두굽 수선료	성인 남성용					원	
		성인 여성용					원	
가구집가 가사용품비	쓰레기봉투	10L 1매					원	
교양오락비	영화관람	성인					원	※ 해당 지역(조사구) 내 에 영화관이 없을 경 우 인근 지역의 이용 가능한 영화관의 관람 료를 기입
		아동					원	
	고궁 및 박물관 관람	성인					원	※ 해당 지역(조사구) 내 에 없더라도 이동하여 갈 수 있는 고궁 및 박 물관
		아동					원	
	유선방송	지역					원	
기타소비지출	파마	여자 파마					원	

2

지역의 주택가격, 전세, 월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 기준평수는 4인 가구 기준 **43㎡ (약 13.0평, 18평형)**입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파악하며 기입(호가가 아님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공유면적이 있는 아파트, 연립, 원룸 등은 평행기준**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공유면적이 없는 (자가)단독주택 가격은 「해당주거면적에 해당되는 건물가격 + 해당주거면적의 1.43배 대지가격」**을 파악하여 주십시오.

※ 주변지역에 해당되는 주택유형이나 평형이 없을 경우, 평당 가격을 고려하여 부동산 업자가 판단하는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여 주십시오.

※ 아파트는 일반 층 기준(로얄층과 꺼리는 층 제외)으로 가격을 파악하여 주십시오.

※ (부유지역과 극빈지역 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은) 조사구가 포함된 주거지역 기준입니다.

주택종류 및 점유형태	자 가				전 세				월 세			
아파트		억		만원		억		만원	월평균			만원
단독주택		억		만원		억		만원	월평균			만원
연립주택, 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억		만원		억		만원	월평균			만원



승인번호
제 33104 호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
밀이 보장됩니다

작성기관: 보건복지부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기초조사 (장애인 가구용)

조사표 번호	가구 ID	지역코드	가구원 번호	장애인 가구 번호 (조사표 일련번호)
4				

주 소	_____사도 _____구시군 _____동읍면 _____통리 _____번지 _____호(_____아파트 _____동 _____호)				
가 구 주 성 명		응 답 자 성 명		응 답 자 번 호	
전화번호		조 사 원 성 명		지 도 원 성 명	
조사 결과	① 완료 ② 미완 미완사유: _____				

보 건 복 지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Ⅰ. 일반사항(※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가구원수		명		문 2) 장애인수		명	
순번	이름	문 3) 가구주와의 관계	문 4) 성별	문 5) 태어난 연도	문 6) 결혼 상태	문 7) 경제활동 참여상태	문 8) 장애종류 및 등급
가구원 일련번호		① 가구주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손자녀 ⑧ 손자녀의 배우자 ⑨ 조부모 ⑩ 배우자의 조부모 ⑪ 형제·자매 ⑫ 배우자의 형제·자매 ⑬ 형제·자매의 배우자 ⑭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⑮ 기타친인척 ⑯ 인척관계가 아닌 동거인	① 남 ② 여	주민등록상 생년(生年)	① 비해당 (만17세이하) ② 유배우 ③ 별거 ④ 사별 ⑤ 이혼 ⑥ 미혼 (만18세이상, 미혼부모포함)	① 비해당(만14세이하) ② 상용직 임금근로자 ③ 임시직 임금근로자 ④ 일용직 임금근로자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포함) ⑤ 고용주 ⑥ 자영업자 ⑦ 무급가족종사자 ⑧ 실업자(13.1.1 기 준 자녀 동거인 을 하지 않고 구직 활동 중) ⑨ 비경제활동인구	① 비해당(비장애인) ② 지체장애 ③ 뇌병변장애 ④ 시각장애 ⑤ 청각장애 ⑥ 언어장애 ⑦ 지적장애 ⑧ 발달장애 ⑨ 정신장애 ⑩ 심장장애 ⑪ 간장애 ⑫ 호흡기장애 ⑬ 안면장애 ⑭ 장루·요루장애 ⑮ 간절장애 ⑯ 비등록 장애인 (보훈처등록 장애인포함)
		※ 중복장애인의 경우 높은 등급의 장애유형을 기입. 등급이 같을 경우 주된 장애 1가지만 기입함.					
장애인							

문 9)	의료보장 (장애인 기준)	① 해당없음 ② 의료급여(1종) ③ 의료급여(2종) ④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⑤ 직장건강보험 ⑥ 지역건강보험	문 10)	기초보장 수급형태	① 해당없음 ② 일반수급가구 ③ 조건부수급가구 ④ 특례가구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수급이면 수급가구임) (※응답자만 일부수급일 경우 일 반수급으로 기재)
------	------------------	--	-------	--------------	--

문 11)	근로능력정도 (※ 심신능력상) (장애인 기준)	① 비해당(만14세 이하) ② 근로가능 ③ 단순근로가능(집에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정도) ④ 단순근로미약자(집안일만 가능) ⑤ 근로능력이 없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 (집안일도 불가능)
-------	---------------------------------	---

Ⅱ. 일상생활

문 1) 귀하(장애인)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남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아야 합니까?

- ①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다.
 ②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남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할 수 있다.
 ③ 일부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④ 대부분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⑤ 거의 모든 일에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50px; text-align: center;">문 2)</div>	<p>귀하(장애인)는 집 밖을 다니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 보장구 이용하여 이동하는 경우도 포함)</p> <p>① 혼자서 다니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 ② 혼자서는 자주 길을 잃어버려서 헤맨다. ③ 멈추지 않고 200m 이상 걷지 못하거나 심하게 곤란하다. ④ 멈추지 않고 50m 이상 걷지 못하거나 심하게 곤란하다. ⑤ 전혀 걷지 못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60px; height: 30px; margin: 0 auto;"></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50px; text-align: center;">문 3)</div>	<p>귀하(장애인)는 지난 3개월(2012년 10월~12월) 동안 출퇴근을 목적으로 외출한 적이 있습니까? (목발, 전동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이용한 거의 모든 형태의 외출 포함)</p> <p>① 있다 → 문 3-1)로 갈 것 ② 없다 → 문 4)로 갈 것</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60px; height: 30px; margin: 0 auto;"></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150px; display: inline-block;">문 3-1) (출퇴근을 위한 외출일 경우) 평균 외출 횟수는?</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60px; height: 30px; margin: 0 auto;"></div>					
<p>① 주 5회 이상 ② 주 3~4회 ③ 주 1~2회 ④ 월 3회 이내</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50px; text-align: center;">문 4)</div>	<p>귀하(장애인)는 지난 3개월(2012년 10월~12월) 동안 출퇴근 목적이 아닌 기타용무로 인해 외출한 적이 있습니까?</p> <p>① 있다 → 문 4-1)로 갈 것 ② 없다 → 문 5)로 갈 것</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60px; height: 30px; margin: 0 auto;"></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150px; display: inline-block;">문 4-1) (출퇴근을 제외한 기타용무로 인한 외출일 경우) 평균 외출 횟수는?</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60px; height: 30px; margin: 0 auto;"></div>					
<p>① 주 5회 이상 ② 주 3~4회 ③ 주 1~2회 ④ 월 3회 이내</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50px; text-align: center;">문 5)</div>	<p>귀하가 살고 있는 집은 지난 1년간(2012년 1월 1일~12월 31일) 장애로 인하여 거주하기에 불편한 곳이 있었습니까? (※있었으나 지난 1년 안에 수리한 곳이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응답)</p> <p>① 있(었)다 → 문 5-1)로 갈 것 ② 없(었)다 → Ⅲ. 소득 및 장애인 관련 서비스로 갈 것</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60px; height: 30px; margin: 0 auto;"></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150px; display: inline-block;">문 5-1) (거주하기에 불편한 곳이 있다고 한 경우)</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60px; height: 30px; margin: 0 auto;"></div>					
<p>있(었)다면 어디입니까? 가장 시급한 곳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p> <p>① 화장실/욕실(욕실바닥, 세면대, 변기, 욕조, 샤워부스, 조명, 전기스위치, 초인종인지장치 등) ② 부엌구조 (활동 공간, 높이, 바닥, 전기스위치, 조명 등) ③ 현관(턱, 폭, 유효 공간, 문, 손잡이, 잠금장치, 전기스위치, 조명 등) ④ 거실(전기스위치, 조명, 비디오폰 등) ⑤ 침실(전기스위치, 조명, 초인종인지장치 등) ⑥ 계단(단차, 손잡이 등) ⑦ 기타 (구체적으로 _____)</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150px; display: inline-block;">문 5-2)</div>							
<p>(문 5-1에서 응답한) 불편한 곳을 수리하는데 예상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 지난 1년 사이 이미 수리한 가구는 문 5-2-1), 수리가 필요한 가구는 문 5-2-2)에 기입) ※ 해당하지 않는 곳은 공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150px; display: inline-block;">문 5-2-1) (지난 1년 간 수리한 곳) 지출한 수리비</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5%; height: 20px;"></td> <td style="width: 25%; height: 20px;"></td> <td style="width: 25%; height: 20px;"></td> <td style="width: 25%; height: 20px;"></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right;">만원</td> </tr> </table>					만원
				만원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150px; display: inline-block;">문 5-2-2) (수리가 필요한 곳) 예상되는 수리비</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5%; height: 20px;"></td> <td style="width: 25%; height: 20px;"></td> <td style="width: 25%; height: 20px;"></td> <td style="width: 25%; height: 20px;"></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right;">만원</td> </tr> </table>					만원
				만원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150px; display: inline-block;">문 5-3)</div>		<p>장애로 인하여 거주하기에 불편한 곳을 수리하는데 예상되는 총 비용은 얼마입니까? (이미 수리한 곳과 수리해야 할 곳 모두 포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5%; height: 40px;"></td> <td style="width: 25%; height: 40px;"></td> <td style="width: 25%; height: 40px;"></td> <td style="width: 25%; height: 40px;"></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right;">만원</td> </tr> </table>					만원
				만원			

III. 소득 및 장애인 관련 서비스

문 1) 귀하(장애인)의 지난 3개월간 총소득액은 1개월 평균으로 얼마나 됩니까?
(지난 3개월: 2012년 10월~12월, 단, 사업소득과 농업소득의 경우 1년간의 월평균) 월평균

 만원

※ 해당 장애인이 만15세 이상인 경우만 응답하며, 본인소득만 기입함
※ 무급종사자일 경우 0원으로 기재

문 2) 귀하 가구는 자가용(승용차)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명의기준으로 파악)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문 3) 귀하(장애인)는 현재 보장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① 있다 → 문 3-1)로 갈 것 ② 없다 → 문 4)로 갈 것

문 3-1)	현재 가지고 있는 보장구는 무엇입니까? (주관식, 구체적으로 기입)	보장구 1		보장구 2	

문 3-2)	현재 가지고 있는 보장구를 구입하는데 얼마의 비용을 지불하였습니까?	보장구 1		보장구 2	
				만원	

문 3-3)	현재 가지고 있는 보장구는 새로 구입한 시점부터 몇 년이나 사용할 수 있었습니까?	보장구 1		보장구 2	
		기간		개월	보장구 2
		기간		개월	개월

※ 보장구가 두 개 이상인 경우 두 가지를 기록하고 각각의 금액 및 사용기간을 기입
※ 응답자 본인의 사용 목적을 위한 보장구에 대해서만 파악

문 4) 귀하(장애인)에게 현재는 없으나 필요한 보장구가 있습니까?
(※ 현재 보장구는 있지만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야 하는 경우 포함)
(※ 장애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해 필요한 보장구 포함)

① 있다 → 문 4-1)로 갈 것 ② 없다 → 문 5)으로 갈 것

문 4-1)	필요한 보장구는 무엇입니까? (주관식, 구체적으로 기입)	보장구 1		보장구 2	

문 4-2)	필요한 보장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얼마의 비용이 필요합니까?	보장구 1		보장구 2	
				만원	

문 4-3)	필요한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몇 년이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보장구 1		보장구 2	
		기간		개월	보장구 2
		기간		개월	개월

문 5) 귀하(장애인)는 지난 1년간(2012년 1월 1일~2012년 12월 31일) 다음 각각의 급여 또는 서비스를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서비스 유형		수급여부	
		있다	없다
문 5-1)	장애인연금	①	②
문 5-2)	장애수당	①	②
문 5-3)	장애아동(양육)수당 ※ 장애아동수당, 장애아 무상 보육료, 장애아동 양육수당 포함	①	②
문 5-4)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①	②
문 5-5)	재활서비스(바우처 포함)	①	②
문 5-6)	재활보조기구 지원(장애인보장구 할인 포함)	①	②
문 5-7)	농어촌 주택 개량	①	②

문 6)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수급 받은 장애인만 응답)
귀하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월평균 몇 시간 받았습니까?

월평균 시간

문6-1) 월평균 본인부담금은 얼마였습니까?

만 천원

문 7) (재활서비스를 이용한 장애인만 응답)
귀하는 월평균 몇 회 재활서비스(바우처 포함)를 받았습니까?

월평균 회

문7-1) 재활서비스(바우처 포함)를 이용할 경우 1회당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였습니까?

만 천원

문 8) 귀하(장애인)가 지출하는 다음 항목의 **비용은 얼마입니까?**
※ 반드시 장애인 개인이 쓰는 비용을 기입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이 아니라) 해당 비목에 지출하고 있는 실제 금액을 기입

지 출 항 목		현재 지출하고 있는 항목	현재 지출하는 월평균 비용 (단위: 천원)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되어야 하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항목(미충족 항목)	못하고 있는 항목의 예상되는 월평균 비용 (단위: 천원)
문 8-1)	교통비(출퇴근) (예: 일반버스, 일반택시, 지하철, 콜택시, 자가용, 철도 등) ※자가용 개조비용 포함				
문 8-2)	교통비 (출퇴근 제외한 기타용무) (예: 일반버스, 일반택시, 지하철, 콜택시, 자가용, 셔틀형 복지버스, 구급차 등) ※자가용 개조비용 포함				
문 8-3)	휴대폰 사용요금 ※ 기기값을 제외한 요금 ※ 할인 전 금액 기입				
문 8-4)	의료비 (예: 종합병원, 재활병의원, 병의원, 보건소, 한방병원의원의 외래진료비, 신장투석비 한약방, 약국에서의 약값.) ※ 보장구 유지비 포함 (구입비용은 문3)에서 파악)				
문 8-5)	교육비 (예: 특수학교, 베이비시터, 유아원, 어린이집, 놀이방, 보습학원, 대학등록금, 점자책 이용 비용 등) ※ 특수교육비 및 사교육비 포함				
문 8-6)	보호·간병비 (예: 활동보조인을 제외한 유료가정봉사원, 간병인, 수발자 등)				
문 8-7)	재활기관 이용료 (예: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재활관련기관에서의 재활서비스 이용료 등)				
문 8-8)	기타				



승인번호
제 33104 호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
밀이 보장됩니다

작성기관: 보건복지부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기초조사 (노인가구용)

조사표 번호	가구 ID	지역코드	가구원 번호	장애인 가구 번호 (조사표 일련번호)
5				

주 소	_____사도 _____구시군 _____동읍면 _____통리 _____번지 _____호(_____아파트 _____동 _____호)				
가 구 주 성 명		응 답 자 성 명		응 답 자 번 호	
전화번호		조 사 원 성 명		지 도 원 성 명	
조사 결과	① 완료 ② 미완 미완사유: _____				

보 건 복 지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 일반사항(※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가구원수			명	문 2) 노인수			명
순번	이름	문 3) 가구주와의 관계	문 4) 성별	문 5) 태어난 년도	문 6) 경제활동 참여상태		
가구원 일련번호		① 가구주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손자녀 ⑧ 손자녀의 배우자 ⑨ 조부모 ⑩ 배우자의 조부모 ⑪ 형제자매 ⑫ 배우자의 형제·자매 ⑬ 형제·자매의 배우자 ⑭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⑮ 기타친인척 ⑯ 인척관계가 아닌 동거인	① 남 ② 여	주민등록상 생년 (生年)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포함) ④ 고용주 ⑤ 자영업자 ⑥ 무급가족종사자 ⑦ 실업자 (*13.1.1 기준 지난 4주 동안 일을 하지 않고 구직활동 중) ⑧ 비경제활동동인구		
노인							

문 7)	의료보장	① 해당없음 ② 의료급여(1종) ③ 의료급여(2종) ④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⑤ 직장건강보험 ⑥ 지역건강보험
문 8)	기초보장 수급형태	① 해당없음 ② 일반수급가구 ③ 조건부수급가구 ④ 특례가구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수급이면 수급가구임) (※ 응답자만 일부수급일 경우 일반수급으로 기재)

문 9)	근로능력정도 (※ 심신능력상)	① 근로가능 ② 단순근로가능(집에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정도) ③ 단순근로미약자(집안일만 가능) ④ 근로능력이 없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 (집안일도 불가능)
------	---------------------	---

문 10)	귀 가구의 노인가구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

- ① 노인단독가구
 ② 노인부부가구
 ③ 경제활동가구원 있는 동거가구
 ④ 경제활동가구원 없는 동거가구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II. 일상생활

문 1)

귀하가 살고 있는 집은 지난 1년간(2012년 1월1일~12월31일) **노인이 거주하기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공간이 있(었)습니까?

(※있었으나 지난 1년 안에 수리한 곳이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응답)

① 있(었)다 → 문 1-1)로 갈 것 ② 없(었)다 → 문 2)로 갈 것

문 1-1)

(거주하기에 불편한 곳이 있다고 한 경우)

있(었)다면 어디입니까? 가장 시급한 곳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화장실/욕실(욕실바닥, 세면대, 변기, 욕조, 샤워부스, 조명, 전기스위치, 초인종인지장치 등)
- ② 부엌구조(활동 공간, 높이, 바닥, 전기스위치, 조명 등)
- ③ 현관(터, 폭, 유효 공간, 문, 손잡이, 잠금장치, 전기스위치, 조명 등)
- ④ 거실(전기스위치, 조명, 비디오폰 등)
- ⑤ 침실(전기스위치, 조명, 초인종인지장치 등)
- ⑥ 계단(단차, 손잡이 등)
-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 1-2)

(문 1-1에서 응답한) 불편한 곳을 수리하는데 예상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 지난 1년 사이 이미 수리한 가구는 문 1-2-1), 수리가 필요한 가구는 문 1-2-2)에 기입

※ 해당하지 않는 곳은 공란

문 1-2-1)

(지난 1년 간 수리한 곳) 지출한 수리비

				만원
--	--	--	--	----

문 1-2-2)

(수리가 필요한 곳) 예상되는 수리비

				만원
--	--	--	--	----

문 1-3)

노인이 거주하기에 불편한 곳을 수리하는데 예상되는 총 비용은 얼마입니까? (이미 수리한 곳과 수리해야 할 곳 모두 포함)

				만원
--	--	--	--	----

문 2)

지난 1년간 주된 수입원 또는 생계수단은 무엇입니까?

1순위

--

2순위

--

- ① 자신의 근로소득
- ② 재산소득(부동산 관련)
- ③ 재산소득(이자, 배당 등)
- ④ 연금이나 퇴직금
- ⑤ 정부지원금(생계급여, 기초노령연금 등)
- ⑥ 가구내 가구원의 지원
- ⑦ 가구외 친인척 등 지원
- ⑧ 종교 및 사회단체 지원
-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III.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서비스 및 가사도움 서비스

문 1)

귀하는 지난 1년간 (2012년 1월1일~12월31일) 장기요양보험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단, 3등급 이상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① 있다 → 문 1-1)로 갈 것

② 없다 → 문 2)로 갈 것

문 1-1)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한 달에 평균 몇 일** 정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월평균

			일
--	--	--	---

문 1-2)

1일 평균 몇 시간 정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1일평균

			시간
--	--	--	----

문 1-3)

서비스 이용시 **월평균 얼마를 지불**하십니까?

※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료(월단위)를 말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해당되지 않음.

월평균

					천원
--	--	--	--	--	----

문 1-4)

급여(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어떤 종류의 급여를 받으셨는지 이용여부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서비스) 유형	이용여부	
	있다	없다
㉠ 방문요양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주변 정돈 등)	①	②
㉡ 방문목욕 (차량 이용 목욕 제공)	①	②
㉢ 방문 간호 (간호사 방문 간호,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①	②
㉣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①	②
㉤ 단기보호 (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시설 보호)	①	②
㉥ 기타재가급여 (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방지매트리스, 방석, 욕조용 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	①	②
㉦ 시설급여 (노인(전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등 이용)	①	②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지원)	①	②

문 2)

귀하는 지난 1년간 (2012년 1월1일~12월31일) 일상생활(가사서비스 포함)을 도와주는 사람(간병인, 가사도우미 포함)이 있었습니까?

※ 장기요양보험급여 내에서 받은 간병인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에 대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있다 → 문 2-1)로 갈 것

② 없다 → **IV. 생활에 필요한 품목에 대한 이용으로 갈 것**

문 2-1)

도움을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① 공공기관(동사무소, 구청, 노동부, 보훈처 등)
- ② 병원(국립병원 및 민간병원 등)
- ③ 사회복지관련기관(복지관, 가정폭력상담소,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 등)
- ④ 학교
- ⑤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 ⑥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손자손녀 등 가족
- ⑦ 보건소
- ⑧ 친구 이웃 등
- ⑨ 기타(적을 것 :)

문 2-2)

한 달에 평균 몇 일 정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작품

은

문 2-3)

1일 평균 몇 시간 정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1일평균

시간

문 2-4)

도움을 받는 대가로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① 있다 → 문 2-4-1)로 갈 것

② 없다 → IV. 생활에 필요한 품목에 대한 이용으로 갈 것

문 2-4-1)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경우)

한 달에 평균 얼마를 지불하십니까?

일평균

천원

IV. 생활에 필요한 품목에 대한 이용

문 1) 다음의 품목에 대한 필요여부, 보유여부 및 사용기간, 평균비용은 얼마입니까?

품목	필요여부		보유여부	사용기간(개월) (보유 또는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응답)	사용량 (해당 품목 단위)	1개당 평균비용 (천원)			
	① 필수적임	② 있으면 좋음	③ 필요하지 않음						
안경									
틀니									
지팡이(보조기 포함)									
보청기									
체온계									
보온병									
난로									
가습기									
전기장판(전기요)									
파카(외투)									
모자									
동내의									
목도리									
한복									
수의									
기타1 (적을것)									
기타2 (적을것)									

※ 틀니: 위와 아래 따로 한 개씩 사용하더라도 한 세트이므로 1개로 응답함. 1개당 평균비용은 위아래 틀니의 비용을 모두 기재함

※ 기타가 없을 경우, 공란으로 남겨 둘 것

문 2) 다음의 품목에 대한 필요여부, 이용여부 및 사용기간, 평균비용은 얼마입니까?

품목	필요여부	이용여부 (보유여부)	월 평균사용량 (이용횟수)	월평균비용 (천원)			
	① 필수적임 ② 있으면 좋음 ③ 필요하지 않음	① 있음 ② 없음					
택시비							
경로당 등 회비							
노인복지시설 이용							
핸드폰							

※ 택시비: 만일 월 평균 1회 미만 이용인 경우 소수점으로 기재. 예를 들어 1년에 3번 이용한 경우 3/12=0.25임.

※ 핸드폰: 월 평균 사용량은 1주 동안 전화건 횟수를 기입함.

문 3) 다음의 보건의료비 품목에 대한 필요여부, 보유여부 및 사용기간, 평균비용은 얼마입니까?

품목	필요여부	보유여부 (이용여부)	사용기간 (개월) (보유 또는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응답)	월평균 사용량 또는 이용횟수 (해당 품목 단위)	월평균 비용 (천원)			
	① 필수적임 ② 있으면 좋음 ③ 필요하지 않음	① 있음 ② 없음						
영양제								
상비약(우황청심원 등)								
건강보조식품								
고혈압 치료약								
관절염 치료약								
성인용 소변패드								
병원진료비			12개월					
약제비 (*위 의약품 제외)			12개월					
미충족 의료비			12개월					
기타1 (적을것)								
기타2 (적을것)								

※ 영양제, 상비약(우황청심원), 건강보조식품, 병원진료비, 약제비(위 의약품 제외), 미충족 의료비는 12개월 기준으로 월평균 비용을 기입하며, 고혈압 치료약, 관절염 치료약, 성인용 소변패드는 1년 중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월평균 비용을 기입함.

※ 기타가 없을 경우, 공란으로 남겨 둘 것



승인번호
제 33104 호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
밀이 보장됩니다

작성기관: 보건복지부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기초조사 (한부모 가구용)

조사표 번호	가구 ID	지역코드	한부모 가구 번호 (조사표 일련번호)
6			

주 소	_____시도 _____구시군 _____동읍면 _____통리 _____번지 _____호(_____아파트 _____동 _____호)				
가 구 주 성 명		응 답 자 성 명		응 답 자 번 호	
전화번호		조 사 원 성 명		지 도 원 성 명	
조사 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미완사유:				

보 건 복 지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Ⅰ. 일반사항(※ 2013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가구원수			명	
순번	이름	문 2) 성별	문 3) 태어난 연도	문 4) 경제활동 참여상태
가구원 일련번호		① 남 ② 여	주민등록상 생년(生年)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포함) ④ 고용주 ⑤ 자영업자 ⑥ 무급가족종사자 ⑦ 실업자(13.1.1 기준 지난 4주 동안 일을 하지 않고 구직활동 중) ⑧ 비경제활동인구
가구주				

문 5)	의료보장	⑥ 해당없음 ① 의료급여(1종) ② 의료급여(2종) ③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④ 직장건강보험 ⑤ 지역건강보험
문 6)	기초보장 수급형태	⑥ 해당없음 ① 일반수급가구 ② 조건부수급가구 ③ 특례가구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수급이면 수급가구임 ※ 응답자만 일부수급일 경우 일반수급으로 기재

문 7)	근로능력정도 (※ 심신능력상)	① 근로가능 ② 단순근로가능 (집에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정도) ③ 단순근로미약자 (집안일만 가능) ④ 근로능력이 없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 (집안일도 불가능)
------	---------------------	---

문 8)	귀 가구의 미취학 자녀는 몇 명입니까?		명
문 9)	귀 가구의 초등학교생 자녀는 몇 명입니까?		명
문 10)	귀 가구의 중·고등학교생 자녀는 몇 명입니까?		명

문 11)	귀 가구는 지난 1년간(2012년 1월 ~ 2012년 12월) 다음 제도의 수급경험이 있으십니까?	①있음 ②없음
	(1) 아동양육비 지원	
	(2)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3)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지원	

II. 경제활동 및 보호(※2013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다음 질문은 현재 가구주가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 가구주가 일을 하고 있는 경우 → 문 2)로 갈 것)

문 1)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자녀 양육 및 가사 때문에 (→ 문 1-1)로 갈 것)
- ② 자녀 외 다른 가족구성원을 돌보기 위해 (→ 문 1-1)로 갈 것)
- ③ 충분한 소득이 있어서 (→ 문 2)로 갈 것)
- ④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 문 2)로 갈 것)
- ⑤ 임금 및 근무시간이 맞지 않아서 (→ 문 2)로 갈 것)
- ⑥ 일을 구할 기술이나 능력이 없어서 (→ 문 2)로 갈 것)
- ⑦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 문 2)로 갈 것)

문 1-1) 자녀 및 가족구성원을 돌볼 다른 방법이 있으면 일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다음 질문은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에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 미취학 자녀가 없는 경우 → 문 3)로 갈 것)

문 2) 미취학자녀는 주로 누가 돌보고 있습니까?

(※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많은 순서대로 2순위까지 답해주시시오.)

1순위

2순위

- ① 엄마가 집에서 돌본다 → 문 2-2)로 갈 것)
- ② 아빠가 집에서 돌본다 → 문 2-2)로 갈 것)
- ③ 아이의 조부모(따로 사는 조부모도 포함)가 주로 돌본다 → 문 2-3)로 갈 것)
- ④ 기타 친인척(따로 사는 친인척도 포함) 또는 이웃이 주로 돌본다 → 문 2-3)로 갈 것)
- ⑤ 개인 베이비시터나 가사도우미 → 문 2-4)로 갈 것)
- ⑥ 낮에는 아이 혼자 (또는 아이들끼리 보호자 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다 → 문 3)로 갈 것)
- ⑦ 보육시설(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이나 유치원에 보낸다 → 문 2-1)로 갈 것)

문 2-1)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했던 경우 다음 중 어떤 시설을 이용하였습니까?

- ① 놀이방 ② 어린이집(민간) ③ 어린이집(공립) ④ 직장보육시설
- ⑤ 유치원 ⑥ 공부방(지역아동센터) ⑦ 기타 ()

문 2-1-1) 그 시설에 지불한 금액은 월평균 얼마 정도였습니까?

(1) 본인부담

월평균

만원

(2) 정부지원

월평균

만원

문 2-2) 아이를 집에서 부모가 돌보았던 경우 이 일 때문에 취업에 지장이 있었습니까?

- ① 매우 많다 ② 지장이 있는 편이다 ③ 별로 지장없다
- ④ 전혀 지장 없다 ⑤ 취업의사 없음

문 2-3)

조부모나 친인척 또는 이웃이 돌보았던 경우 아이를 돌보아주는 대가를 지불 하셨습니까?

- ① 특별히 다른 대가는 주지 않는다 → 문 3)로 갈 것
- ② 현금을 대가로 지불한다 → 문 2-3-1)로 갈 것
- ③ 현금은 주지 않지만 다른 방법으로 보상한다 → 문 3)로 갈 것
- ④ 현금도 주고 다른 방법에 의한 보상도 한다 → 문 2-3-1)로 갈 것

문 2-3-1)

현금을 대가로 지급하였던 경우 월평균 얼마 정도 지급하셨습니까?

양평군

마음

문 2-4)

개인 베이비시터나 가사도우미가 아이를 돌보았던 경우 월평균 얼마를 지급하셨습니까?

가정

만원

♣ 다음 질문은 초등학생 자녀(혹은 초등학교 연령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 중고생 자녀만 있는 경우 → Ⅲ. 교육으로 갈 것

문 3)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방과후 시간을 주로 어떻게 보냅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사설)학원에 다님
- ② 관공서나 민간기관의 방과후 프로그램(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이용 → 문 3-1)로 갈 것
- ③ 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 → 문 3-1)로 갈 것
- ④ 집에서 과외를 받음
- ⑤ 특별한 활동없이 집에서 보냄(보호자 있음)
- ⑥ 특별한 활동없이 집에서 보냄(보호자 없음)
- ⑦ 기타()

문 3-1)

공부방이나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월
평균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1) 본인부담

작업양

만원

(2) 정부지원

작업
후
아름

만약

III. 교육(※2013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사교육 유형별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현황

(※ 바우처 지원 등으로 합의된 실제 지불액이 아닌 실제 기준금액을 기입)

(1) 미취학 자녀

사교육 유형	문 1-1-1) 귀하가 생각하기에...	문 1-1-2) 우리 가구의 미취학 자녀는...			문 1-1-3) 다니(받)고 있다면 평균 비용은?				
	①꼭 필요하다 ②다니(하)면 좋다 ③필요 없다	①다니(받)고 있다 ②다니(받)지 않는다	수강 자녀수	수강 강좌수	월평균 비용 합계				
유치원					※ 유치원의 경우 보충학습비를 제외한 정규 보육비/유치원비 를 기입				
가정학습지(방문교사 포함)							만		천원
과 외							만		천원
기타 학원(예제능, 컴퓨터, 외국어 등)							만		천원

(2) 초등학생 자녀

사교육 유형	문 1-2-1) 귀하가 생각하기에...	문 1-2-2) 우리 가구의 초등학생 자녀는...			문 1-2-3) 다니(받)고 있다면 평균 비용은?		
	①꼭 필요하다 ②다니(하)면 좋다 ③필요 없다	①다니(받)고 있다 ②다니(받)지 않는다	수강 자녀수	수강 강좌수	월평균 비용 합계		
입시 및 보습학원(교과 관련)						만	천원
인터넷 강의						만	천원
EBS 교재비						만	천원
가정학습지(방문교사 포함)						만	천원
과 외						만	천원
기타 학원(예체능, 컴퓨터, 외국어 등)						만	천원

(3) 중학생 자녀

사교육 유형	문 1-3-1) 귀하가 생각하기에...	문 1-3-2) 우리 가구의 중학생 자녀는...			문 1-3-3) 다니(받)고 있다면 평균 비용은?		
	①꼭 필요하다 ②다니(하)면 좋다 ③필요 없다	①다니(받)고 있다 ②다니(받)지 않는다	수강 자녀수	수강 강좌수	월평균 비용 합계		
입시 및 보습학원(교과 관련)						만	천원
인터넷 강의						만	천원
EBS 교재비						만	천원
가정학습지(방문교사 포함)						만	천원
과 외						만	천원
기타 학원(예체능, 컴퓨터, 외국어 등)						만	천원

(4) 고등학생 자녀

사교육 유형	문 1-4-1) 귀하가 생각하기에...	문 1-4-2) 우리 가구의 고등학생 자녀는...			문 1-4-3) 다니(받)고 있다면 평균 비용은?		
	①꼭 필요하다 ②다니(하)면 좋다 ③필요 없다	①다니(받)고 있다 ②다니(받)지 않는다	수강 자녀수	수강 강좌수	월평균 비용 합계		
입시 및 보습학원(교과 관련)						만	천원
인터넷 강의						만	천원
EBS 교재비						만	천원
가정학습지(방문교사 포함)						만	천원
과 외						만	천원
기타 학원(예체능, 컴퓨터, 외국어 등)						만	천원

문 2)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한 자녀에게 들어가는 월평균 필요한 최소한의 사교육비 수준은 얼마입니까? (※ 해당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응답)	구 분	최소한 필요한 지출 수준			
		미취학자녀				만원
		초등학생				만원
		중학생				만원
		고등학생				만원

문 3) 안전을 위해 현관에 보조키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① 예 → 문 3-1)로 갈 것

② 아니오 → 문 3-2)로 갈 것

문 3-1) 현재까지 사용기간 년 향후 사용가능기간 년 금액 천원

문 3-2) 필요여부 ① 필수적임 ② 있으면 좋음 ③ 필요하지 않음

문 4) 기타 한부모 가구이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품목에 대한 보유여부 및 사용기간, 평균비용을 작성합니다.

품목		보유여부 (이용여부)	사용기간(개월) (보유 또는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응답)	월평균 사용량 (이용횟수) (해당 품목 단위)	월평균비용 (원)
		① 있음 ② 없음			
기타 1					
기타 2					
기타 3					

IV. 식품비

문 1) 지난 6개월(2012년 7월 ~ 2012년 12월) 동안 몇 번이나 가족단위 외식을 하였습니까? 6개월 동안 번

문 1-1) 한 번 외식비로 평균 얼마 정도를 지출하십니까?
(※ 교통비 등을 제외한 순수 식사비) 1회 평균 만 천원

문 2) 지난 6개월(2012년 7월 ~ 2012년 12월) 동안 배달식을 월평균 몇 번이나 하였습니까? 월평균 번

문 2-1) 한 번 배달식으로 평균 얼마 정도를 지출하십니까? 1회 평균 만 천원

V. 피복 및 신발

문 1)	지난 3년간(2010년 1월 ~ 2012년 12월) 가장이 정장을 구입한 횟수와 평균금액은 얼마입니까? (※ 정장 한 벌은 상의 하나와 하의 하나를 의미함)					
문 1-1)	지난 3년간 가장이 구입한 정장은 몇 벌입니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3년간</td> <td style="width: 40%; 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0px; height: 20px; margin: 0 auto;"></div> </td>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벌</td> </tr> </table>	3년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0px; height: 20px; margin: 0 auto;"></div>	벌	
3년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0px; height: 20px; margin: 0 auto;"></div>	벌				
문 1-2)	구입한 정장 한 벌의 평균 금액은 얼마입니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0px; height: 20px; margin: 0 auto;"></div> </td> <td style="width: 40%; text-align: center;">만</td>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0px; height: 20px; margin: 0 auto;"></div> </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천원</td> </tr> </table>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0px; height: 20px; margin: 0 auto;"></div>	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0px; height: 20px; margin: 0 auto;"></div>	천원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0px; height: 20px; margin: 0 auto;"></div>	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0px; height: 20px; margin: 0 auto;"></div>	천원			

문 2)	지난 3년간(2010년 1월 ~ 2012년 12월) 가장이 구두를 구입한 횟수와 평균금액은 얼마입니까?					
문 2-1)	지난 3년간 가장이 구입한 구두는 몇 켤레입니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3년간</td> <td style="width: 40%; 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0px; height: 20px; margin: 0 auto;"></div> </td>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켤레</td> </tr> </table>	3년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0px; height: 20px; margin: 0 auto;"></div>	켤레	
3년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0px; height: 20px; margin: 0 auto;"></div>	켤레				
문 2-2)	구입한 구두 한 켤레의 평균 금액은 얼마입니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0px; height: 20px; margin: 0 auto;"></div> </td> <td style="width: 40%; text-align: center;">만</td>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0px; height: 20px; margin: 0 auto;"></div> </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천원</td> </tr> </table>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0px; height: 20px; margin: 0 auto;"></div>	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0px; height: 20px; margin: 0 auto;"></div>	천원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0px; height: 20px; margin: 0 auto;"></div>	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0px; height: 20px; margin: 0 auto;"></div>	천원			

문 3)	지난 1년간(2012년 1월 ~ 2012년 12월) 의복 수선을 위해 수선집에 맡기는 의복수와 비용은 얼마입니까?						
문 3-1)	수선을 위해 수선집에 맡기는 의복은 1년 평균 몇 벌입니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1년 평균</td> <td style="width: 40%; 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0px; height: 20px; margin: 0 auto;"></div> </td>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벌</td> </tr> </table>	1년 평균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0px; height: 20px; margin: 0 auto;"></div>	벌		
1년 평균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0px; height: 20px; margin: 0 auto;"></div>	벌					
문 3-2)	수선 비용은 1년 평균 얼마입니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1년 평균</td> <td style="width: 40%; 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0px; height: 20px; margin: 0 auto;"></div> </td>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만</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0px; height: 20px; margin: 0 auto;"></div> </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천원</td> </tr> </table>	1년 평균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0px; height: 20px; margin: 0 auto;"></div>	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0px; height: 20px; margin: 0 auto;"></div>	천원
1년 평균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0px; height: 20px; margin: 0 auto;"></div>	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0px; height: 20px; margin: 0 auto;"></div>	천원			

문 4)	지난 1년간(2012년 1월 ~ 2012년 12월) 구두 수선을 위해 구두 수선집에 맡기는 구두의 수와 비용은 얼마입니까?						
문 4-1)	수선을 위해 수선집에 맡기는 구두는 1년 평균 몇 켤레입니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1년 평균</td> <td style="width: 40%; 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0px; height: 20px; margin: 0 auto;"></div> </td>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켤레</td> </tr> </table>	1년 평균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0px; height: 20px; margin: 0 auto;"></div>	켤레		
1년 평균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0px; height: 20px; margin: 0 auto;"></div>	켤레					
문 4-2)	수선 비용은 1년 평균 얼마입니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1년 평균</td> <td style="width: 40%; 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0px; height: 20px; margin: 0 auto;"></div> </td>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만</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0px; height: 20px; margin: 0 auto;"></div> </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천원</td> </tr> </table>	1년 평균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0px; height: 20px; margin: 0 auto;"></div>	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0px; height: 20px; margin: 0 auto;"></div>	천원
1년 평균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0px; height: 20px; margin: 0 auto;"></div>	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0px; height: 20px; margin: 0 auto;"></div>	천원			

VI. 교통통신비

문 1)	귀 가구 전체의 월평균 택시이용 횟수는? (※ 출퇴근, 등하교, 휴가 및 귀향용 택시 이용 횟수 제외)	3개월 동안		회
문 1-1)	1회당 평균 택시요금은 얼마입니까?	1회 평균	만	백원
문 2)	귀 가구(가구원 전체)의 휴대폰의 수는?			대
문 2-1)	그 중 스마트폰의 수는?			대
문 2-2-1)	귀 가구의 휴대폰 1대당 월평균 요금은? (※ 할인 전 금액, 스마트폰 제외)	월평균	만	천원
문 2-2-2)	귀 가구의 스마트폰 1대당 월평균 요금은? (※ 할인 전 금액)	월평균	만	천원
문 2-3)	귀 가구(가구원 전체)의 휴대폰 1대당 평균사용연수는?		년	개월